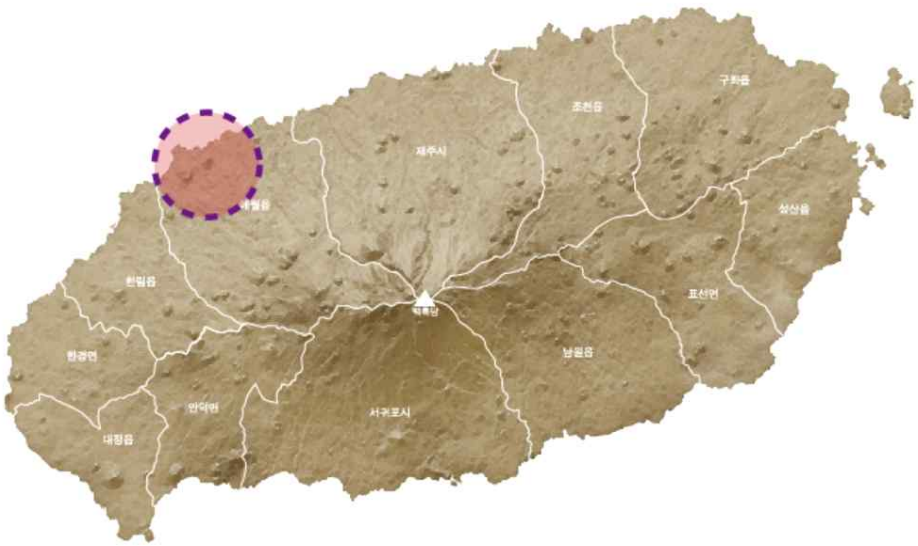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468-01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0

-애월읍 고내리

구술: 고두규 장윤삼 고원방
채록·전사·표준어 대역: 김보향



Jeju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센터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11-20)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관 대행 사업을 수탁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작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0

-애월읍 고내리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5
2. 사업 기간 ····· 5
3. 사업 참여자 ····· 5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 6
5. 사업 추진 과정 ····· 7
6. 표준어 대역 ····· 8
7. 주석 ····· 8

Ⅱ. 구술 자료

1. 조사 마을 ····· 9
2. 제보자 일생 ····· 22
3. 밭일 ····· 71
4. 들일 ····· 150
5. 바다일 ····· 196
6. 의생활 ····· 223
7. 식생활 ····· 257
8. 주생활 ····· 367
9. 신앙 ····· 400
10. 세시풍속 ····· 410
11. 놀이 ····· 433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 종료에 따라 구술 자료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주어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진 채록 사업의 성과물인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의 보전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2. 사업 기간

2018년 3월 20일~2018년 12월 31일

3. 사업 참여자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진은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담당하게 한 것은 조사할 때의 발화 상황은 물론 조사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서 표준어 대역 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다.

또 현지 조사자와 표준어 대역 연구자를 동일인으로 한 것은 조사할 때 미흡했던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을 수정, 보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더불어 추가 조사의

편이성도 고려하였다.

'표준어 대역' 사업의 연구진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자 현황

이름	소속	분야	구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연구 책임 · 총괄 표선면 성읍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함덕리 성산읍 삼달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구좌읍 한동리 애월읍 고내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성읍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남원읍 수망리
김승연	(사)제주학연구소	한국학(제주무속)	서귀포시 하원리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대평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대정읍 신도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한경면 청수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국어국문학	연구 보조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 그리고 제보자와 조사자를 보이면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번호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
11	조천읍 함덕리	한아섭, 이용진	김미진
12	구좌읍 한동리	오문봉, 오태봉	김보향
13	성산읍 삼달리	김해생	김미진
14	표선면 성읍리	송순원, 이미생, 현신생	김순자 ·허영선
15	남원읍 수망리	김상옥, 김두천, 현금옥, 김승남, 고신화	최연미
16	서귀포시 하원리	김기연, 오연옥	김승연
17	안덕면 대평리	강인숙, 양성지	김성용
18	대정읍 신도리	변동휘, 이부자, 유순옥, 박창임, 김희옥, 진옥열	신우봉
19	한경면 청수리	문창립, 강성현, 강대흥, 이오생, 오옥희, 김춘선, 강영래, 고성이, 박성요, 오행순	안민희
20	애월읍 고내리	고두규, 장윤삼, 고원방	김보향

5. 사업 추진 과정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총 9개월이 소요되었다.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전사의 통일성과 표준어 대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진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렸는데, 이때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제주어 표기와 표준어 대역을 통일하려고 애썼다. 연구진 모임을 매달 가진 것은 가급적 오류를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음은 회의를 거치며 통일시킨 내용이다.

-제주어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개인 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가 안 되는 부분은 음절수만큼 꽃표(**)를 사용한다.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한다.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를 동일하게 한다.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한다.

-‘하다’의 경우 ‘ᄒᆞ다’가 아닌 경우는 ‘허다’로 표기한다. ‘허는구나, 헷구나’처럼 ‘ㅓ’로 통일한다.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한다.

-표준 발음과 달리 제보자의 발음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원형을 밝히어 적되, 발음기호인 [ ] 속에 표기한다.

-보고서의 번호는 2017년에 이어 제주시를 기준으로 동쪽부터 표기한다. 제주시의 표준어 대역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천읍 함덕리’ 구술 자료가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1』이 되는 것이다. 구술 자료의 @는 조사자, #은 제보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고, 첫 줄은 ‘들여쓰기’를 하였다.

-장 구분은 두 줄을 띄었다.

한편 월별에 따른 주요 추진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월별에 따른 추진 내용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지 추가 채록										
추가 전사										
표준어 대역										
자료집 편집·교열, 감수										
자료집 발간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된 자료 가운데 10시간 분량의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한다. 이는 조사자에 따른 구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의 형평성을 고려한 근거다.
- 조사된 내용 순서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한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른다.
- 표준어 대역은 ( ) 속에 넣는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한다. 의역할 경우는 문맥에 맞게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
-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에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작은따옴표(‘ ’)로 표시하고,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예: ‘바령팟’을)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도 가급적 그대로 둔다.
- 외래어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외래어를 그대로 둔다.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모아진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주석한 제주어에 주 번호를 부여한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 주석의 대상은 대응 표준어가 없을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로 한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단다.
- 조사 과정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석으로 처리한다.
- 동일한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Ⅱ. 구술 자료

(@: 김보향, #1: 고두규, #2: 장윤삼, #3: 고원방)

1. 조사 마을

101001 @ 고내리 마을에 형성 배경, 어떵 만들어진 거 들어난 거 잇수과?(고내리 마을의 형성 배경, 어떻게 만들어진 거 들었던 거 있습니까?)

101001 #3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옛날 어른들 말씀이 고내[1]는 그 처음에는, 그 고내 향지가 있었습니다.(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옛날 어른들 말씀이 고내는 그 처음에는, 그 고내 향지가 있었습니다.)

101001 @ 으.(으.)

101001 #3 향지가 중간이 이제 저 옛 어른 허던 것은 다 어떻게 그 간 곳이 엇어 불고.(향지가 중간에 이제 저 옛 어른 하던 것은 다 어떻게 그 간 곳이 없어져 버리고.)

101001 @ 으.(으.)

101001 #3 중간에 그 어느 이장 때 헤 가지고 향지를 멘들앗는데, 그때 그 향지를 영 대략은 헤 보게 뒈면은 옛날에는 아주 첨, 이렇게 헤서 초가집으로 헤 가지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세월의 따름에, 시대에 따라 가지고 변화가 만이 뒌 셈이죠.(중간에 그 어느 이장 때 해 가지고 향지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 향지를 이렇게 대략은 해 보게 되면 옛날에는 아주 참, 이렇게 해서 초가집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세월의 따름에, 시대에 따라 가지고 변화가 많이 된 셈이죠.)

101001 @ 으.(으.)

101001 #3 변화가 만이 뒈고 그 시절에는 농토가 너르지 안허기 때문 막 첨 살기가, 없는 사름은 상당히 곤란헤십주게.(변화가 많이 되고 그 시절에는 농터가 넓지 않기 때문 아주 참 살기가, 없는 사람은 상당히 곤란했지요.)

101001 @ 으.(으.)

101001 #3 또 지형도 너르지 않고.(또 지형도 넓지 않고.)

101001 @ 좁읍디다예, 고내리가예?(좁습디다, 고내리가요?)

101001 #3 예, 게난 고내봉[2]이 이렇게 고봉이 뒈고 보니까 이 안엡주게.(예, 그러니까 고내봉이 이렇게 고봉이 되고 보니까 이 안이지요.)

101001 @ 그럼 여기 동은 몇 개, 부락은 하나 부락이과?(그럼 여기 동은 몇 개,

1) '고내'는 제주시 애월읍 행정 마을 중의 하나인 '고내리'를 말한다.
2) '고내봉'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부락은 하나 부락입니까?)

101001 #3 하나마씨, 하나. 게난 한 이백오십 호 전후 헤 가지고.(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한 이백오십 호 전후 해 가지고.)

101001 @ 으.(으.)

101001 #3 쭉 내려오다가 중간에 와 가지고 취락 구조도 멧 군데 생기고 또 이 인구가 불어나고 또 에 교포덜이 아주 왕래가 잦아가고 허니까 호수가 만이 불어낫수다. 그 원인은 일본에서도 이제 친족덜 쪼금씩 도웨주믄 여기서 집을 지엇고예.(쭉 내려오다가 중간에 와 가지고 취락 구조도 몇 군데 생기고 또 이 인구가 불어나고 또 에 교포들의 아주 왕래가 잦아가고 하니까 호수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일본에서도 이제 친족들 조금씩 도와주면 여기서 집을 지었고요.)

101001 @ 아.(아.)

101001 #3 이렇게 헤 가지고 또 여기 친족덜, 동기간덜 집도 좀 개량도 허고 이렇게 허다 보니까 중간에 취락 구조가 면면으로 가끔 생기다 보니까 만이 늘어서 지금 한 삼백 호 이상 뒘실 거우다.(이렇게 해 가지고 또 여기 친족들, 동기간들 집도 좀 개량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취락 구조가 면면으로 가끔 생기다 보니까 많이 늘어서 지금 한 삼백 호 이상 될 겁니다.)

101001 @ 아, 삼백 호 이상 뒈멘예?(아, 삼백 호 이상 돼요?)

101001 #3 예.(예.)

101002 @ 그럼 이 고내리에 주로 무슨 성씨가 많으과?(그럼 이 고내리에 주로 무슨 성씨가 많습니까?)

101002 #3 에, 고내리 성씨로는예, 잡성인데 성씨는 잡성인데 뭐 대충 뭐, 뭐라고 가를 수 엇어마씨.(에, 고내리 성씨로는요, 잡성인데 성씨는 잡성인데 뭐 대충 뭐, 뭐라고 가를 수 없어요.)

101002 @ 다 골고루 다 있는 거?(다 골고루 다 있는 거?)

101002 #3 예, 비슷비슷헌 입장이난.(예, 비슷비슷한 입장이니까.)

101002 @ 아. 그럼 원래 고내에 있던 사름덜은 무슨 성씨 그런 거 엇수과? 원래 처음에 들어온 사름들은?(아. 그럼 원래 고내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성씨 그런 거 없습니까? 원래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101002 #3 처음에 들어온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고.(처음에 들어온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고.)

101002 @ 예, 예.(예, 예.)

101002 #3 이제 그 향지에 대충 그 전이 좀 봐난 거 보면은 호수가 비슷비슷헤서마씨. 어느 집안이 많다 적다 이거 아니고 중간에 와 가지고 장씨도 좀 부락을 좌우하다시피 많고.(이제 그 향지에 대충 그 전에 좀 봤던 거 보면 호수가 비슷비슷해요. 어느 집안이 많다 적다 이거 아니고 중간에 와 가지고 장씨도 좀 부락은 좌우하다시피 많고.)

101002 @ 장씨 많구나예?(장씨 많군요?)

101002 #3 또 김씨 뭐.(또 김씨 뭐.)

101002 @ 김씨.(김씨.)

101002 #3 또 잡성이라마씨.(또 잡성이에요.)

101002 @ 아, 예.(아, 예.)

101002 #3 이성, 이가도 그렇고예.(이 성, 이가도 그렇고요.)

101002 @ 예.(예.)

101002 #3 또 전 고갑니다만은 고씨도 또 이렇게 있고 그 후손덜이 다 여기 살앗으면은 어느 집안이 많고 적은 걸 훤히 알겟는데 지금은 다 태어나는 집안은 다 출타헤 가지고 다 서울, 일본 이렇게 첨, 웨국도 가고 이렇게 허다 보니까 누구네 집안이 많고 적다 허는 것이 별로 구분이 잘 안가마씸.(또 전 고갑니다만 고씨도 또 이렇게 있고 그 후손들이 다 여기 살았으면 어느 집안이 많고 적은 걸 훤히 알겠는데 지금은 다 태어나는 집안은 다 출타해 가지고 다 서울, 일본 이렇게 참, 외국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네 집안이 많고 적다 하는 것이 별로 구분이 잘 안가요.)

101002 @ 안 가, 안 가.(안 가, 안 가.)

101002 #3 예, 비슷비슷헤여마씨.(예, 비슷비슷해요.)

101003 @ 예. 여기 고내도 옛날엔 다 농사 아니예?(예. 여기 고내도 옛날엔 다 농사 아니요?)

101003 #3 아, 구십 프로가 농사지예.(아, 구십 퍼센트가 농사지요.)

101003 @ 게민 배, 고깃배 허거나 바닷일 허는 사름은 십 프로 뒛던 거마씨?(그럼 배, 고깃배 하거나 바닷일 하는 사람은 십 퍼센트 됐던 거요?)

101003 #3 예, 예.(예, 예.)

101003 @ 아.(아.)

101003 #3 게난 그 바닷배도 지금도 헙니다만은 그 후손덜이 그 후손덜이 멧 분허고 젊은 분덜이 헤 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그러니까 그 바닷배도 지금도 합니다만 그 후손들이 그 후손들이 몇 분하고 젊은 분들이 해 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1003 @ 그민 농사가 구십 프로니까, 주로 고내는 무슨 농서를 지엇수과?(그럼 농사가 구십 퍼센트니까, 주로 고내는 무슨 농사를 지었습니까?)

101003 #3 에, 지금에 와서는.(에, 지금에 와서는.)

101003 @ 옛날, 옛날. 옛날부터 먼저 골아줍서.(옛날, 옛날. 옛날부터 먼저 말씀해주세요.)

101003 #3 예, 옛날에는 보리, 조, 콩.(예, 옛날에는 보리, 조, 콩.)

101003 @ 보리, 조, 콩.(보리, 조, 콩.)

101003 #3 감자.(감자.)

101003 @ 감저예?(감자요?)

101003 #3 예, 예.(예, 예.)

101003 @ 겐 지금은마씨?(그래서 지금은요?)

101003 #3 지금에 와서는 만이 바꽈졌습니다. 바꽈진 것이 지금 농사짓는 분들은 다 대부분 그 저 칠십 세 이하로 젊은 분예.(지금에 와서는 많이 바뀠습니다. 바뀐 것이 지금 농사짓는 분들은 다 대부분 그 저 칠십 세 이하로 젊은 분요.)

101003 @ 예, 예.(예, 예.)

101003 #3 한 오륙십 세 그 분들이 전부 세대에 따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다 농촌도 개량뒈지 안헷습니까게?(한 오륙십 세 그 분들이 전부 세대에 따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다 농촌도 개량되지 않았습니까?)

101003 @ 예.(예.)

101003 #3 보리는 가는 사름이 엇고.(보리는 가는 사람이 없고.)

101003 @ 으.(으.)

101003 #3 가끔 한 사람, 한두 사름이 장서용으로 농협으로 바치는 그런 걸로 갈지, 뭐 식량으로 허는 디는 엇고.(가끔 한 사람, 한두 사람이 장사용으로 농협으로 바치는 그런 걸로 갈지, 뭐 식량으로 하는 데는 없고.)

101003 @ 예.(예.)

101003 #3 또 그 웨로 콩도 드물고 콩도 가끔 한 밧, 두 밧 갈고 이렇게 뭐 조 거튼 거 일체 갈도 안 허고.(또 그 외로 콩도 드물고 콩도 가끔 한 밧, 두 밧 갈고 이렇게 뭐 조 같은 거 일체 갈지도 않고.)

101003 @ 으.(으.)

101003 #3 필요헌 사름 쉐 양석으로, 물 양석으로 헤서 좀 풀려고 허는지 건 모르겠습니다만은.(필요한 사람 소 양석으로, 말 양석으로 해서 좀 팔려고 하는지 건 모르겠습니다만.)

101003 @ 예.(예.)

101003 #3 지금에 와서는 다 세대에 따라 가지고 부락마다 좀 틀립니다.(지금에 와서는 다 세대에 따라 가지고 부락마다 좀 틀립니다.)

101003 @ 예.(예.)

101003 #3 고내는 쪽파, 부루쿠루.(고내는 쪽파, 브로콜리.)

101003 @ 부루쿠루?(브로콜리?)

101003 #3 부루쿠루, 양배추.(브로콜리, 양배추.)

101003 @ 예.(예.)

101003 #3 또 애월 거튼 디는 뭐 구십 프로가 취나물.(또 애월 같은 데는 뭐 구십 퍼센트가 취나물.)

101003 @ 아.(아.)

101003 #3 신엄더레는 양배추, 여름에는 수박 이렇게 그 허고.(신엄으로는 양배추, 여름에는 수박 이렇게 그 하고.)

101003 @ 어쨋든 고내는 아까 부루?(어쨌든 고내는 아까 부루?)

101003 #3 부루쿠루 또.(브로콜리 또.)

101003 @ 쪽파.(쪽파.)

101003 #3 쪽파, 또 양배추.(쪽파, 또 양배추.)

101003 @ 양배추 세 개예?(양배추 세 개요?)

101003 #3 예, 예.(예, 예.)

101003 @ 이게 이제는 주 작물?(이게 이제는 주 작물?)

101003 #3 주로 작물이 뒈고 또 그 웨로 다마네기[3] 허는 사름덜토 젊은 분덜이 멧 분 있습니다만은 많지는 않습니다.(주로 작물이 되고 또 그 외로 양파 하는 사람들도 젊은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101003 @ 예, 많지는 않고예.(예, 많지는 않고요.)

101003 #3 또 이젠 세대에 따라 가지고 옛날허고 바꽈진 원인이 인건비가 세대에 따라서 엄청나게, 옛날 우리 그 지금으로부터 한 오륙십 년 전에, 오륙십 년 전에는 하루 그 할머니들이 가서 일허면은.(또 이젠 세대에 따라 가지고 옛날하고 바뀐 원인이 인건비가 세대에 따라서 엄청나게, 옛날 우리 그 지금으로부터 한 오륙십 년 전에, 오륙십 년 전에는 하루 그 할머니들이 가서 일하면.)

101003 @ 예.(예.)

101003 #3 보리쌀 대싱 두 뒈, 닷 뒈 여깃말로 닷 뒈. 걸 받아왓는데, 지금엔 하루 가서 일곱 시부터 다섯 시까지 일허면은 이십 키로 쌀 한 가마닐 사오거든마씨.(보리쌀 되승 두 되, 닷 되 여깃말로 닷 되. 걸 받아왔는데, 지금엔 하루 가서 일곱 시부터 다섯 시까지 일하면 이십 킬로그램 쌀 한 가마닐 사오거든요.)

101003 @ 그지예.(그렇지요.)

101003 #3 거니까 세대가 얼마나 바꽈지고 살기가 좋았습니까?(그러니까 세대가 얼마나 바뀌고 살기가 좋았습니까?)

101003 @ 맞아마씨, 맞아마씨.(맞아요, 맞아요.)

101003 #3 그런 거고 또 이제 뭐 세대에 따라 가지고 전화가 들어왓지 전기가 들어왓지 스이도[4]가 들어왓지. 또 이십 일 넘어가민 다 돈 아닙니까. 다 또 그때에 따라서 돈을 내쳐야 허여마씨. 허다 보니까 그래도 옛날보다는 엉뚱허게 살기가 좋아지지 안헷나.(그런 거고 또 이제 뭐 세대에 따라 가지고 전화가 들어왔지 전기가 들어왔지 수도가 들어왔지. 또 이십 일 넘어가면 다 돈 아닙니까. 다 또 그때에 따라서 돈을 내쳐야 해요.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옛날보다는 엉뚱하게 살기가 좋아지지 않았나.)

101003 @ 으, 음.(으, 음.)

101003 #3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일본 멧 번 다니면서 영 겪어보니까, 제가 마흔 셋에 일본 처음 갔습니다. 갈 땐 보니까 일본 사람덜은 살을 빼기 위해서 막 공터 가믄 운동을 다니고 뛰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또 한국 사름은 먹지 못해서, 살 빼는 것보단도 먹지 못해서 지치고 이렇게 허는데 일본엔 살 빼지 못헤서 난리. 이것이

3) '다마네기'는 일본어 'たまねぎ'로 양파를 말한다.

4) '스이도'는 일본어 'すいどう'로 수도를 말한다.

하나 머리에 이제도 상상이 뒈여마씨.(그래서 저 생각에는 일본 몇 번 다니면서 이렇게 겪어보니까, 제가 마흔셋에 일본 처음 갔습니다. 갈 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살을 빼기 위해서 마구 공터 가면 운동을 다니고 뛰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또 한국 사람은 먹지 못해서, 살 빼는 것보다도 먹지 못해서 지치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엔 살 빼지 못해서 난리. 이것이 하나 머리에 이제도 상상이 돼요.)

101003 @ 음. 게난 일본 가 가지고 멧 개월씩 잇어난 거마씨, 아니면 멧 년 살아난 거마씨?(음. 그러니까 일본 가 가지고 몇 개월씩 있었던 거요, 아니면 몇 년 살았던 거요?)

101003 #3 처음에 간 때는 그 가면은 한 번, 두 번 삼 개월씩 기리가에[5]헤서 저 한 육 개월 간 양.(처음에 간 때는 그 가면 한 번, 두 번 삼 개월씩 연장해서 저 한 육 개월 간 양.)

101003 @ 음.(음.)

101003 #3 육개월 간 살다가 또 자주 와가면은 그 관리청에서 것도 뒤 조사 막헤 가지고.(육 개월 가서 살다가 또 자주 오가면 그 관리청에서 것도 뒤 조사 마구해 가지고.)

101003 @ 맞아마씨.(맞아요.)

101003 #3 한 삼 개월도 살고, 사 개월도 살고 또 만이 멧 번 다녀가니까 막 그 일본 법도 좀 풀어져 가지고 한 육개월썩예.(한 삼 개월도 살고, 사 개월도 살고 또 많이 몇 번 다녀가니까 아주 그 일본 법도 좀 풀려 가지고 한 육 개월씩요.)

101003 @ 아.(아.)

101003 #3 예.(예.)

101004 @ 그럼 고내에는 주변에 무슨 오름? 고내봉[6] 있잖아예?(그럼 고내에는 주변에 무슨 오름? '고내봉' 있잖아요?)

101004 #3 예.(예.)

101004 @ 고내봉 말고 뭐 오름 다른 것도 잇수과?('고내봉' 말고 뭐 오름 다른 것도 있습니까?)

101004 #3 고내 경내에는 고내봉 하나고.(고내 경내에는 '고내봉' 하나고.)

101004 @ 하나고 예, 예.(하나고 예, 예.)

101004 #3 애월읍 경에서는 애월 우이는 과봉[7] 건 납읍에 있고.(애월읍 경에서는 애월 위에는 '과봉' 건 납읍에 있고.)

101004 @ 그럼 내는 어떵허과 내는? 오름은 고내봉 하나이고 내는 뭐 잇수과?(그럼 내는 어떻습니까, 내는? 오름은 '고내봉' 하나이고 내는 뭐 있습니까?)

101004 #3 하천은 이 고내가예, 일로 나가면 중앙로라고 여기서 한 여디 꺼끄면은 그 저 폭낭 이신 디.(하천은 이 고내가요, 여기로 나가면 중앙로라고 여기서 한 여기 꺾으면 그 저 팽나무 있는 데.)

---

5) '기리가에'는 일본어 'きりかえ'로 '바꿈, 전환'의 뜻이다. 여기서는 비자를 연장했음을 의미한다.
6) '고내봉'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7) '과봉'은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101004 @ 예, 알아지쿠다. 의자 이십디다.(예, 알겠습니다. 의자 있습디다.)

101004 #3 그것이 폭낭, 저 하천입니다. 그 물이 저 하가[8]로 헤서 ***로 헤서 이렇게 고내레 그 바다레 빠졌거든예.(그것이 팽나무, 저 하천입니다. 그 물이 저 하가로 해서 ***로 해서 이렇게 고내로 그 바다로 빠졌거든요.)

101004 @ 그럼 그 하천 메꽈 분 것과?(그럼 그 하천 메꿔 버린 겁니까?)

101004 #3 복개했습니다.(복개했습니다.)

101004 @ 복개.(복개.)

101004 #3 복개헌 지가 한 에, 한 십오 년, 이십 년 됍니다.(복개한 지가 한 에, 한 십오 년, 이십 년 됩니다.)

101004 @ 그럼 그 천은 고내천이렌 불럿수과, 이름?(그럼 그 천은 고내천이라고 불렀습니까, 이름?)

101004 #3 예, 예. 거는 그 고내리 팔경에 그것이 들어가서마씨.(예, 예. 거는 그 고내리 팔경에 그것이 들어갔어요.)

101004 @ 아.(아.)

101004 #3 게난 고내리 선조덜이 얘기허기는 이 부락이 형성뒛는데 고내 그 동서, 동향, 서향 이렇게 마주봐서 살아가는데 이 하천이 생김으로써 고내 그런 인심도 좋고 사름 살기가 서로 풍속이나 모든 것이 하천이 있기 때문에 인심 좋은 마을이 형성뒈겠다.(그러니까 고내리 선조들이 얘기하기는 이 부락이 형성됐는데 고내 그 동서, 동향, 서향 이렇게 마주봐서 살아가는데 이 하천이 생김으로써 고내 그런 인심도 좋고 사람 살기가 서로 풍속이나 모든 것이 하천이 있기 때문에 인심 좋은 마을이 형성되겠다.)

101004 @ 예.(예.)

101004 #3 그래서 이 부락 가운딜로 하천이 엇엇다면은 좀 불쾌지수가 많고 살인사건도 일어날 우려성이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은 기억이 잇어마씨.(그래서 이 부락 가운데로 하천이 없었다면 좀 불쾌지수가 많고 살인사건도 일어날 우려성이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101004 @ 게난 이 천이, 고내천이 막 덕을 주는 그거였구나예?(그러니까 이 천이, 고내천이 아주 덕을 주는 그거였군요?)

101004 #3 예, 예. 게서 복개혜 부니까 그보단 아주 깨끗허고 널리 이용헤지고. 부락에 뭐. 버스가 이레 못 들어와났습니다. 이제는 대형차도 작작[9] 들어오고예.(예, 예. 그래서 복개해 버리니까 그보단 아주 깨끗하고 널리 이용할 수 있고. 부락에 뭐. 버스가 이리 못 들어왔었습니다. 이제는 대형차도 거침없이 들어오고요.)

101004 @ 예. 유명헌 뭐 큰 바위 같은 것도 잇수과, 바위나 굴?(예. 유명한 뭐 큰 바위 같은 것도 있습니까, 바위나 굴?)

101004 #3 바위나 굴은 뭐 허고. 바위 같은 것은 일로 가면은 저 남당[10], 남당

8) '하가'는 제주시 애월읍 행정 마을 중의 하나인 '하가리'를 말한다.
9) '작작'은 거침없이 밀거나 지나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 '남당'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지명의 하나다.

이 그 고내 지경이라고 헤 가지고 한 백 메타 길이가 잇어십주게. 일로 헤서 저 남두리[11]로 저 이런 기정이라서마씨.(바위나 굴은 뭐 하고. 바위 같은 것은 일로 가면 저 '남당', '남당'이 그 고내 지경이라고 해 가지고 한 배 미터 길이가 있었지요. 일로 해서 저 '남두리'로 저 이런 낭떠러지였어요.)

101004 @ 음.(음.)

101004 #3 기정이라고 헤서.(낭떠러지라고 해서.)

101004 @ 남당?('남당'?)

101004 #3 예, 남당에서 저 남두리까지예.(예, '남당'에서 저 '남두리'까지요.)

101004 @ 예.(예.)

101004 #3 기정이 만이 잇엇는데 그 기정을 갓다가 중간에 그 기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 부락에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쪽도 있고.(낭떠러지가 많이 있었는데 그 기정을 갔다가 중간에 그 기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 부락에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반대쪽도 있고.)

101004 @ 아, 부숴 불엇구나.(아, 부숴 버렸구나.)

101004 #3 그 반대쪽도 있고 또 거기 뭐 허는 분덜은 그 발전시키자 이렇게 헤서 그것을 허가했더니 부서 불어서마씸.(그 반대쪽도 있고 또 거기 뭐 하는 분들은 그 발전시키자 이렇게 해서 그것을 허가했더니 부숴 버렸어요.)

101004 @ 음.(음.)

101004 #3 것이 그 젊은 후손덜이나 선조덜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헤마씨.(것이 그 젊은 후손들이나 선조들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해요.)

101004 @ 음.(음.)

101004 #3 그런 부락의 금덩어리를 갓다 없어졌다 헤서.(그런 부락의 금덩어리를 갔다 없어졌다 해서.)

101004 @ 아, 기정이 잇어신디. 저기 소랑낭, 미룩중 허는 건 지명, 일름이과? 소랑중이엔 협디다만은, 아니?(아, 낭떠러지 있었는데. 저기 '소랑낭', '미룩중' 하는 건 지명, 이름입니까?)

101004 #3 호랑?('호랑'?)

101004 @ 소랑중?('소랑중'?)

101004 #3 아, 소랑중[12].(아, '소랑중'.)

101004 @ 소랑중?('소랑중'?)

101004 #3 예.(예.)

101004 @ 게민 이거는 지명, 이름이과?(그럼 이거는 지명, 이름입니까?)

101004 #3 지명이주마씸.(지명이지요.)

101004 @ 게민 여기는 숲, 숲?(그럼 여기는 숲, 숲?)

101004 #3 숲.(숲)

---

11) '남두리'는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지명의 하나다.
12) '소랑중'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지명의 하나다.

101004 @ 미륵당은마씨?(미륵당은요?)

101004 #3 미륵당은 것도 저 하, 상가[13] 경인데 그 길로 여기서 한 이 키로 내지 한 삼 키로 뭴 거우다.(미륵당은 것도 저 하, 상가 경인데 그 길로 여기서 한 이 킬로미터 내지 한 삼 킬로미터 될 겁니다.)

101004 @ 예.(예.)

101004 #3 그 올라가게 뒈면은 그 질 뒤에 너른 공간이 셔서마씸.(그 올라가게 되면 그 길 뒤에 넓은 공간이 있어요.)

101004 @ 예, 예.(예, 예.)

101004 #3 공간이 신디 거기 똑 큰 산이 하나 고내 산이 셔서마씨.(공간이 있는데 거기 똑 큰 산이 하나 고내 산이 있어요.)

101004 @ 아.(아.)

101004 #3 거길 미륵당 산, 미륵당[14], 미륵당 허여요.(거길 '미륵당' 산, '미륵당', '미륵당' 해요.)

101004 @ 아, 원래 당이 있었던 거 아니고예?(아, 원래 당이 있었던 거 아니고요?)

101004 #3 아니, 아니. 그 지명 이름.(아니, 아니. 그 지명 이름.)

101004 @ 지명을 그냥 미륵당이었던 거라예?(지명을 그냥 '미륵당'이었던 거지요?)

101004 #3 예.(예.)

101004 @ 게민 고내 앞 바당 쪽에는 뭐 지명, 이름 부르는 게 엇수과?(그럼 고내 앞 바다 쪽에는 뭐 지명, 이름 부르는 게 없습니까?)

101004 #3 고내 바당 쪽에는 고내 앞에는 이제 저 에, 자리연[15]가 허고.(고내 바다 쪽에는 고내 앞에는 이제 저 에, '자리여'인가 하고.)

101004 @ 자리여예?('자리여'요?)

101004 #3 예.(예.)

101004 @ 여 이름, 자리여.(여 이름, '자리여'.)

101004 #3 또 저쪽이로 여기서 한 일 키로쯤 가게 뒈면은 부락 서 끄트머리에 여기서 강찻코지[16]엔 헙니다.(또 저쪽으로 여기서 한 일 킬로미터쯤 가게 되면 부락 서 끄트머리에 여기서 '강찻코지'라고 합니다.)

101004 @ 강찻콧?('강찻콧?')

101004 #3 코지.('코지'.)

101004 @ 강찻코지?('강찻코지'?)

101004 #3 예. 그 강찻코지 가젠 허민 바로 거기 샘물이 흘러마씨, 생수가.(예. 그 '강찻코지' 가려고 하면 바로 거기 샘물이 흘러요, 생수가.)

---

13) '상가'는 제주시 애월읍 행정 마을 중의 하나인 '상가리'를 말한다.
14) '미륵당'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지명의 하나다.
15) '자리여'는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지명의 하나다.
16) '강찻코지'는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지명의 하나다.

101004 @ 으.(으.)

101004 #3 것이 그 신의 물이고.(것이 그 신의 물이고.)

101004 @ 신의 물? 좋은 물이렌 헨 경 부르는 것과?(신의 물? 좋은 물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까?)

101004 #3 그것이 여러 가지 말이 싯주. 옛날 스님들이 닦앗다 헤서 스니물이엔도 허고.(그것이 여러 가지 말이 있지. 옛날 스님들이 닦았다 해서 '스니물'이라고도 하고.)

101004 @ 아, 아.(아, 아.)

101004 #3 신의 물이엔도 허고 헤서 여름 때에 거기 가 가지고 백중사리 때는 옛날에는 상하가 막 납읍까지 와서 사름이 칠월 십오일 뒈면은 작작 이렇게 헷는데 지금에는 것도 중간에 보수도 만이 헷습니다만은.(신의 물이라고도 하고 해서 여름 때에 거기 가 가지고 백중사리 때는 옛날에는 상하가 마구 납읍까지 와서 사람이 칠월 십오일 되면 '작작'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는 것도 중간에 보수도 많이 했습니다만.)

101004 @ 예, 예.(예, 예.)

101004 #3 벨로 사름이 그렇게. 집집마다 저 스이도가 잇고예, 영 허니까 헤도 그딘 여름에도 사시절 생수가 그대로 헤서 보수영 잘 헤 놧습니다.(별로 사람이 그렇게. 집집마다 저 수도가 있고요, 이렇게 하니까 해도 거긴 여름에도 사시절 생수가 그대로 해서 보수랑 잘 해 놨습니다.)

101004 @ 예.(예.)

101004 #3 그 신의 물허고 바로 아래 한 오십 메타 내려가민 강찻코지, 저디 동쪽으로 남당알.(그 신의 물하고 바로 아래 한 오십 미터 내려가면 '강찻코지', 저기 동쪽으로 '남당알'.)

101004 @ 자리녀, 남당알. 강찻코지예?('자라녀', '남당알', '강찻코지'요?)

101004 #3 예.(예.)

101005 @ 그런 지명이 잇고. 이 고내리에는 무슨 기관 들어와 있는 거 잇수과? 뭐 우체국이나 병원이나 아니면 지서 같은 거나?(그런 지명이 있고. 이 고내리에는 무슨 기관 들어와 있는 거 있습니까? 뭐 우체국이나 병원이나 아니면 지서 가튼 거나?)

101005 #3 그런 것은 없고 병원도 없고.(그런 것은 없고 병원도 없고.)

101005 @ 학교는?(학교는?)

101005 #3 학교도 없고.(학교도 없고.)

101005 @ 고내리 초등학교 엇수과?(고내리 초등학교 없습니까?)

101005 #3 엇수다게.(없습니다.)

101005 @ 아, 엇수과?(아, 없습니까?)

101005 #4 무사마씨, 고내 지경에 따지면은 애월고등학교도 고내 지경이주.(왜요, 고내 지경에 따지면 애월고등학교 고내 지경이지.)

101005 @ 아, 맞아요, 맞아요. 고내에 있는 거지예?(아, 맞아요, 맞아요. 고내에 있는 거지요?)

101005 #4 소방서도 잇고.(소방서도 있고.)

101005 #3 아, 그거.(아, 그거.)

101005 #4 도서관도, 애월읍 도서관도 다 고낸디.(도서관도, 애월읍 도서관도 다 고내인데.)

101005 @ 예, 맞수다. 잘 골아줫수다.(예, 맞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101005 #3 저 소방서 들어온 지가 한 십오 년 뒈우다.(저 소방서 들어온 지가 한 십오 년 됩니다.)

101005 @ 아.(아.)

101005 #3 소방서가 들어와 있고 그 일본 교포덜이 애월고등학교가 애월 지역에 있었잖우과?(소방서가 들어와 있고 그 일본 교포들이 애월고등학교가 애월 지역에 있었잖습니까?)

101005 @ 예.(예.)

101005 #3 그걸 그 넴기게 뒈니까.(그걸 그 넘기게 되니까.)

101005 @ 예, 예.(예, 예.)

101005 #3 고내로 뗑기는 것이 어떵허냐고 헤 가지고 그 신미생 일동이 그 부지를 사서 학교에 기증헤서마씨.(고내로 당기는 것이 어떠하냐고 해 가지고 그 신미생 일동이 그 부지를 사서 학교에 기증했어요.)

101005 @ 예.(예.)

101005 #3 게서 고내 지경에 유치가 뒈고. 소방서가 들어와 있고.(그래서 고내 지경에 유치가 되고. 소방서가 들어와 있고.)

101005 @ 소방서 들어온 지는 아까 얼마 뒛다고?(소방서 들어온 지는 아까 얼마 됐다고?)

101005 #3 소방서 들어온 지는 한 십오 년 전후우다.(소방서 들어온 지는 한 십오 년 전후입니다.)

101005 @ 예. 게민 고내초등학교 엇이민 여기 아이덜 어느 초등학교?(예. 그럼 고내초등학교 없으면 여기 아이들 어느 초등학교?)

101005 #3 초등학교는 애월초등학교 고내 합작 뒈다시피 허니까예.(초등학교는 애월초등학교 고내 합작 되다시피 하니까요.)

101005 @ 예. 애월초등학교로?(예. 애월초등학교로?)

101005 #3 예.(예.)

101005 @ 게민 여기.(그럼 여기.)

101005 #4 애월초등학교 옆에 애월중학교, 중학교 옆에 애월고등학교.(애월초등학교 옆에 애월중학교, 중학교 옆에 애월고등학교.)

101005 @ 게민 국민학교 때서부터 버스 탕 가야 뒐 거?(그럼 국민학교 때서부터 버스 타서 가야 될 거?)

101005 #3 걸엉 다녀마씨.(걸어서 다녀요.)

101005 @ 게민 얼마나 걸렷수과, 여기서?(그럼 얼마나 걸렸습니까, 여기서?)

101005 #4 한 일 키로.(한 일 킬로미터.)

101005 @ 아, 멀지 않구나, 바로 옆이구나.(아, 멀지 않구나, 바로 옆이구나.)

101005 #3 예. 조금 뭐 헌 사름은 걸엉 다닙니다.(예. 조금 뭐 한 사람은 걸어서 다닙니다.)

101005 #4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계속 울타리, 울타리에 있어 가지고 지금 있는 애월보건소 자리가 애월고등학교, 옛날 애월상고 자리. 거기에서 애월종고로 위치를 옮긴 거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계속 울타리, 울타리에 있어 가지고 지금 있는 애월보건소 자리가 애월고등학교, 옛날 애월상고 자리. 거기에서 애월종고로 위치를 옮긴 거지.)

101006 @ 기라예. 그리고 어머님들안티 영 들어보난 여기는 바닷일 헐 때 접으로 안 헤십디다예. 우미 헐 때나 페, 감태 헐 때 마을 접으로 안 허고 다 개인으로 헷수과?(그렇지요. 그리고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기는 바닷일 할 때 계로 안 했습디다. 우뭇가사리 할 때나 패, 감태 할 때 마을 계로 안 하고 다 개인으로 했습니까?)

101006 #3 건 개인이로도 허고 또 마을에서는 허지 않고 어촌계원이 잇수다게.(건 개인으로도 하고 또 마을에서는 하지 않고 어촌계원이 있습니다.)

101006 @ 어촌계 생긴 거는 얼마나 뒛수과?(어촌계 생긴 거는 얼마나 됐습니까?)

101006 #3 어촌계 생긴 지는 것도 한 십오 년 뭰 거 아닌가.(어촌계 생긴 지는 것도 한 십오 년 된 거 아닌가.)

101006 @ 얼마 안 뭰 거잖아예?(얼마 안 된 거잖아요?)

101006 #3 예, 한 십오 년에서 이십 년 뒈우다.(예, 한 십오 년에서 이십 년 됩니다.)

101006 @ 게민 여기는 마을 접이 엇수과?(그럼 여기는 마을 계가 없습니까?)

101006 #3 뭐 거까진 잘 모르겠는데. 그 어촌계 활동허는 것은 그 보통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육십 일 종사하는 사람.(뭐 거까진 잘 모르겠는데. 그 어촌계 활동하는 것은 그 보통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육십 일 종사하는 사람.)

101006 @ 예.(예.)

101006 #3 그런 사람이로 구성이 뒈십주게. 게서 누구든지 이제라도 들어오켄 허면 받아들이는 거라마씀.(그런 사람으로 구성이 됐습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라도 들어오겠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101006 @ 받아들이는 거라.(받아들이는 거요.)

101006 #3 받아들이는데 그 자신이 없으면 자기가 못 들어가는 거고.(받아들이는데 그 자신이 없으면 자기가 못 들어가는 거고.)

101006 @ 다른 마을에서는 이렇게 어촌계 들어가는 게 뒈게 엄격헙디다.(다른

마을에서는 이렇게 어촌계 들어가는 게 아주 엄격합디다.)

101006 #3 엄격허지, 건 여기도 마찬가지우다.(엄격하지, 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1006 @ 마찬가지.(마찬가지.)

101006 #3 건 뭐 이 도 전체가 마찬가지우다.(건 뭐 이 도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101006 @ 기지예.(그렇지요.)

101006 #3 이제 수산과에서 지시대로만 움직여근에.(이제 수산과에서 지시대로만 움직여서.)

101007 @ 예, 예. 고내 마을 어떤 풍속 같은 거 잇수과?(예, 예. 고내 마을 어떤 풍속 같은 거 있습니까?)

101007 #3 풍속 별로,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남을 헤치거나예,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갓다가 잘 했느니 못 했느니 이런 일은 없습니다. 뭐 서로 상호 간에 서로 좋도록 해서 살고 또 서로가 인심 좋은 마을이라고 볼 수 있지예.(풍속 별로,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남을 헤치거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 갔다가 잘 했느니 못 했느니 이런 일은 없습니다. 뭐 서로 상호 간에 서로 좋도록 해서 살고 또 서로가 인심 좋은 마을이라고 볼 수 있지요.)

101007 @ 혹시 고내리에서 마을제 거튼 거 지내는 거 잇수과?(혹시 고내리에서 마을제 같은 거 지내는 거 있습니까?)

101007 #3 예, 있습니다.(예, 있습니다.)

101007 @ 정월덜에?(정월달에?)

101007 #3 예.(예.)

101008 @ 고내리 특산물이렌 헐 만 헌 게 뭐 잇수과?(고내리 특산물이라고 할 만 한 게 뭐 있습니까?)

101008 #3 특산물, 것까지 잘 모르쿠다.(특산물, 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101008 @ 브로컬리 같은 게 특산물 아닌가예?(브로콜리 같은 게 특산물 아닌가요?)

101008 #3 부루코리는 이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뒛수다게. 부루코리, 양배추 들어온 지가 문첨 들어왓고 부루코리 들어온 진 뭐 얼마 안 뒛수다. 이거 한 십오 년 뒈우다.(브로콜리는 이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들어온 지가 먼저 들어왔고 브로콜리 들어온 진 뭐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 한 십오 년 됩니다.)

101009 @ 마을 자랑거리 잇수과?(마을 자랑거리 있습니까?)

101009 #3 자랑거리 하하하.(자랑거리 하하하.)

101009 @ 하하.(하하.)

101009 #3 서로가 뭐 저 살기 좋은 부락이엔 허여예. 인심 좋고 살기 좋은 부락이라고.(서로가 뭐 저 살기 좋은 부락이라고 해요. 인심 좋고 살기 좋은 부락이라

고.)

101009 @ 예. 고맙습니다.(예. 고맙습니다.)

2. 제보자 일생

102001 @ 오늘은 낳고 자란 과정들예, 일생 살아난 거 물어보쿠다. 튼내지는 대로 영 골아줍서.(오늘은 낳고 자란 과정들요, 일생 살았던 거 물어보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102001 #1 춥건 더껑 앚아, 동무럽.(춥건 덮어서 앉아, 무릎.)

102001 @ 예. 아, 좋다. 어떵 살앗수과? 낳고 자란 얘기 한 번 쭉 골아봅서.(예. 아, 좋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낳고 자란 얘기 한 번 쭉 말해주세요.)

102001 #1 낳고 자란 거?(낳고 자란 거?)

102001 @ 예, 어디서 난?(예, 어디서 났어?)

102001 #1 저 동귀[17].(저 동귀.)

102001 @ 동귀에서 난?(동귀에서 났어?)

102001 #1 으, 으. 하귀 저쪽.(으, 으. 하귀 저쪽.)

102001 @ 예, 예. 동귀 알아지쿠다.(예, 예. 동귀 알겠습니다.)

102001 #1 거기서 자란. 거기서 자란.(거기서 자랐어. 거기서 자랐어.)

102001 @ 몇 설꺼지?(몇 살까지?)

102001 #1 하이고, 거기서 자란 동싱덜이 만이 태어나도 다, 엿날에 열로, 열로 열 버쳔 다 죽어 불언.(하이고, 거기서 자라서 동생들이 많이 태어나도 다, 옛날에 열로, 열로 다 부쳐서 다 죽어 버렸어.)

102001 @ 음.(음.)

102002 #1 건디 나가 질 우이, 질 믿이. 견디 나 밑으로 세 성지, 나 너 오누이 살안. 게난 경헨 헌디 엿날에 다 가난헷주만은게, 아부진 바르칠[18]허고 어무닌 물질허고.(그런데 내가 제일 위, 제일 맏이. 그런데 나 밑으로 세 형제, 나 네 오누이 살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 다 가난했지만, 아버진 물고기 잡는 일하고 어머닌 물질하고.)

102002 @ 바르칠?('바르칠'?)

102002 #1 저, 바당, 바당.(저, 바다, 바다.)

102002 @ 아, 바르칠허고.(아, '바르칠'하고.)

102002 #1 낙배.(낚배.)

102002 @ 아, 낙배.(낚배.)

102002 #1 이제는 기계배지만은 그때는 내 젓엉 허는.(이제는 기계배지만은 그

17) '동귀'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의 동쪽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이다.
18) '바르칠'은 바다에서 물고기나 해산물 따위를 잡는 일을 말한다.

때는 내 저어서 하는.)

102002 @ 아.(아.)

102002 #1 네로 젓어 가지고 영 초석 둘려 가지고.(노로 저어 가지고 이렇게 초석 달려 가지고.)

102002 @ 예.(예.)

102002 #1 경헨 나가는 배 탕 강 갈치 철엔 갈치 나까 오곡 셍성 철에 셍성 강 부쪄[19] 오곡 그렇게 허면서 살고. 어머니는 물질허면서 살고. 나는 또 질 우이니까 게난 다 죽당 다섯 오누이가 살아서 다섯이.(그래서 나가는 배 타고 가서 갈치 철엔 갈치 낚아 오고 옥돔 철에 옥돔 가서 낚아 오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어머니는 물질하면서 살고. 나는 또 제일 위니까 그러니까 다 죽다가 다섯 오누이가 살았어, 다섯이.)

102002 @ 예.(예.)

102002 #1 게난 흔 일고읏덥, 일곱 설, 읏덥 설 뒈 가니까 이제 밧디 일을 허라고.(그러니까 한 일고여덟, 일곱 살, 여덟 살 돼 가니까 이제 밭에 일을 하라고.)

102002 @ 으, 게난 집이서, 동귀에서 바다 일도 허고 바다 일도 허멍 살아낫구나예?(으, 그러니까 집에서, 동귀에서 바다 일도 하고 바다 일도 하면서 살았었군요?)

102001 #1 으, 어린 땐.(으, 어린 땐.)

102001 @ 어린 때예?(어린 때요?)

102001 #1 으, 어린 때. 경허고 허다가 흔, 아홉 설, 열 설 때 밧디서 일허는디 일본 다니는 그 손님덜 시껑 다니는 군대환[20] 배가 잇엇어.(으, 어린 때. 그리고 하다가 한 아홉 살, 열 살 때 밭에서 일하는데 일본 다니는 그 손님들 싣고 다니는 군대환 배가 있었어.)

102001 @ 으.(으.)

102001 #1 겐 그 배가 넘어가면서 저 애월을 댈려고 허면 이 고내 바당, 아니 애월 대젠 허면은 하여튼 하귀 쪽에서부터 그 울리는 소리가 나, 빵빵.(그래서 그 배가 넘어가면서 저 애월을 대려고 하면 이 고내 바다 아니 애월 대려고 하면 하여튼 하귀 쪽에서부터 그 울리는 소리가 나, 빵빵.)

102001 @ 예.(예.)

102001 #1 게민, 무정헌 군대환아 날 시꺼 가라. 일본더레 날 시꺼다 도라.(그럼, 무정한 군대환아 날 싣고 가라. 일본으로 날 실어다 다오.)

102001 @ 밧일허멍 게난?(밭일하면서 그러니까?)

102001 #1 으, 밧, 밧디서 일허면서.(으, 밭, 밭에서 일하면서.)

102001 @ 배 봐 가민?(배 봐 가면?)

102001 #1 배 봐 가니까 그 생각이 나 가지고.(배 봐 가니까 그 생각이 나 가지

19) '부찌다'는 오징어 따위를 낚는 것을 말한다. 제보자는 옥돔을 낚는 경우에도 '부찌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20) '군대환(君代丸)'은 일제 강점기 때 제주와 일본 오사카를 왕래했던 배를 가리킨다.

고.)

102001 @ 아.(아.)

102001 #1 우리 작은아바지네가 일본 사니까, 일본 가서 대판 가서 사니까.(우리 작은아버지네가 일본 사니까, 일본 가서 대판 가서 사니까.)

102001 @ 예.(예.)

102001 #1 경헨 막 노래도 불러난 적도 잇고 또 그럭저럭 그럭저럭 허다가 아무리 헤도 너무 너무 궤로와 가지고 그 동귀러레 말 만이 질롸어, 말.(그래서 마구 노래도 불렀던 적도 있고 또 그럭저럭 그럭저럭 하다가 아무리 해도 너무 너무 괴로워 가지고 그 동귀로 말 많이 키웠어, 말.)

102001 @ 물예?(말요?)

102001 #1 으, 물. 게난 물 질룹젠 허믄 나 보고 이제 물 먹을 촐, 그거 비여 오라. 또 이제 그 물들을 집집마다 질루니까 이제, 스무 집이 질루면은 스무 마리를 물 번[21] 강 봉 오렌 허는 거라. 스무 날에 흔 번썩 물 번. 그 두 사름이, 두 사름이 가야, 가 가지고 그 스무 바리를 물아가근에 저 우티 산중에 강 놔둠서 흐루 종일 아침서 저냑이까지.(으, 말. 그러니까 말 키우려고 하면 나 보고 이제 말 먹을 꼴, 그거 베어 와라. 또 이제 그 말들을 집집마다 키우니까 이제, 스무 집에 키우면 스무 마리를 말 번 가서 보고 오라고 하는 거야. 스무 날에 한 번씩 말 번. 그 두 사람이 두 사람이 가야, 가 가지고 그 스무 마리를 몰아가서 저 위에 산중에 가서 놓아두면서 하루 종일 아침에서 저녁까지.)

102001 @ 아, 스무 바리가 말 한 마리, 두 마리 헐 때 스무 마리?(아, 스무 '바리'가 말 한 마리, 두 마리 할 때 스무 마리?)

102001 #1 스무 마리. 스무 마리 첨 둘앙 강.(스무 마리. 스무 마리 첨 데리고 가서.)

102001 @ 아.(아.)

102001 #1 경허난 그추룩 헤영 가면은 하르부지 하나, 나 어린아이 하나 부쪙 가는 거라.(그러니까 그처럼 해서 가면 할아버지 하나, 나 어린아이 하나 붙여서 가는 거야.)

102001 @ 으.(으.)

102001 #1 게민 그 하르부지는 어디 저 큰 내. 물 내려오는 거기서 이제 그 하르버지는 그 우이서 직허고 난 아래서 직허고.(그럼 그 할아버지는 어디 저 큰 내. 물 내려오는 거기서 이제 그 할아버지는 그 위에서 지키고 난 아래서 지키고.)

102001 @ 예.(예.)

102001 #1 그 물 둘아나지 못허게.(그 말 달아나지 못하게.)

102001 @ 못허게.(못하게.)

102001 #1 경허면 이제 또 멧 년 허여가니까 그것도 무섭고 너미 지치고.(그러

21) '번'은 이웃끼리 여러 마리의 소나 말을 모아 놓고 한 사람씩 번갈아가며 돌보는 일을 말한다. 그런 일을 '번을 서다'라고 한다.

면 이제 또 몇 년 해가니까 그것도 무섭고 너무 지치고.)

102001 @ 음, 갓다 왓닥.(음, 갔다 왔다.)

102001 #1 갓다 왓닥.(갔다 왔다.)

102001 @ 으, 힘들고예?(으, 힘들고요?)

102001 #1 힘들엉. 또 촐 헤 오는 것도 옛날에 베염, 베염 무서워 가지고 그것도 무섭고.(힘들어서. 또 꼴 해 오는 것도 옛날에 뱀, 뱀 무서워 가지고 그것도 무섭고.)

102001 @ 하하하.(하하하.)

102001 #1 어쩔 수가 엇언.(어쩔 수가 없었어.)

102001 @ 예.(예.)

102001 #1 경허난 이젠, 경헌디 이 동네 거치 벵그르 허게 우리 동귀 돌아뎅기는 동네가 흔 서른 가호 잇어낫주게.(그러니까 이젠, 그런데 이 동네 같이 빙그르 하게 우리 동귀 돌아다니는 동네가 한 서른 가호 있었었지.)

102001 @ 예.(예.)

102001 #1 게난 그 서른 가호 사름덜이, 나 그럭저럭 헤 가니까 경허난 이제 또 열시 설, 열네 설엔 문혼을 온 거라. 중매. 이제 거트민.(그러니까 그 서른 가호 사람들이, 나이 그럭저럭 해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열세 살, 열네 살엔 문혼을 온 거야. 중매, 이제 같으면.)

102001 @ 음, 열세 살, 열네 살에 중매가 온 거?(음, 열세 살, 열네 살에 중매가 온 거?)

102001 #1 어, 중매가 완. 나 열세 살, 열네 살에 큰 지레 이거. 글후제 커 보진 안허연.(어, 중매가 왔어. 나 열세 살, 열네 살에 큰 키 이거. 그 후에 커 보진 않았어.)

102001 @ 하하.(하하.)

102001 #1 하하하.(하하하.)

102001 @ 그때 지레라 지금?(그때 키야 지금?)

102001 #1 으, 지금이나. 경헨에 이제.(으, 지금이나. 그래서 이제.)

102001 @ 그때는 막 성숙헹 큰?(그때는 아주 성숙해서 큰?)

102001 #1 큰 지레 나가 큰 지레. 경허난, 경헨 중매 왕 헌디 그것도 물리쳐 불고. 중매도 아부지네는 대답헷지만은 그 옛날에는 그 그냥 근본, 근본, 근본, 멧 촌 근본, 그 우이 근본꺼지 다 보는 거라이.(큰 키 내가 큰 키. 그러니까, 그래서 중매 와서 했는데 그것도 물리쳐 버리고. 중매도 아버지네는 대답했지만 그 옛날에는 그 그냥 근본, 근본, 근본, 몇 촌 근본, 그 위에 근본까지 다 보는 거야.)

102001 @ 예.(예.)

102001 #1 겐 우리 아버지네 동생이 다섯 성제니까, 이제 젤 우이, 우리 아버지는 두 번채 아덜이고 아버지고, 또 그 우이 큰아버지가 잇으니까 큰아버지가 안 뒌다고. 근본이 나쁘덴. 겐 그디 퉤척 헤 불언. 동넨디.(그래서 우리 아버지네 동생이

다섯 형제니까 이제 제일 위, 우리 아버지는 두 번째 아들이고 아버지고, 또 그 위에 큰아버지가 있으니까 큰아버지가 안 된다고. 근본이 나쁘다고. 그래서 거기 퇴척해 버렸어. 동네인데.)

102001 @ 그쪽 집이서?(그쪽 집에서?)

102001 #1 아니, 우리 집이서. 우리 집이서 큰아버지가, 나의 큰아버지가 안 뒌덴. 그쪽.(아니,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큰아버지가, 나의 큰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쪽.)

102001 @ 근본이 나쁘다?(근본이 나쁘다?)

102001 #1 으, 근본이 나쁘다 허연 것도 이제 퉤척 헤 부난 이젠 것도 설러 불고. 게난 열다섯 나는 헤에는 동네 사름덜이 다 이제 일본을 증멩헤 가지고 감젠.(으, 근본이 나쁘다 해서 것도 이제 퇴척 해 버리니까 이젠 것도 그만둬 버리고. 그러니까 열다섯 나는 해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일본을 증명해 가지고 간다고.)

102001 @ 예.(예.)

102001 #1 경헨에 이젠.(그래서 이젠.)

102001 @ 그때 누게가 데리러 왕 동네 사름덜이 ᄀᆞ치 간 것과?(그때 누가 데리러 와서 동네 사람들이 같이 간 겁니까?)

102001 #1 아니.(아니.)

102001 @ 자기대로.(자기대로.)

102001 #1 여기서 그냥 어떵 헤영 무신 것덜 행 속닥속닥행, 이제 거트면 뭣이엔 허는고? ᄆᆞ을마다 뎅기는 옛날엔 주세소[22]엔 헤낫어, 주세소.(여기서 그냥 어떻게 해서 무슨 것들 해서 속닥속닥해서, 이제 같으면 뭣이라고 하는고? 마을마다 다니는 옛날엔 '주세소'라고 했었어, '주세소'.)

102001 @ 주세소가 뭐과?('주세소'가 뭡니까?)

102001 #1 이 저 순경덜 사는 직허는 데. 파.(이 저 순경들 사는 지키는 데, 파.)

102001 @ 아, 예. 파출소.(아, 예. 파출소.)

102001 #1 파출소. 겐디 주세소엔 헤낫어.(파출소. 그런데 '주세소'라고 했었어.)

102001 @ 옛날에 주세소엔 헤낫어?(옛날에 '주세소'라고 했었어?)

102001 #1 예, 주세소. 겐 거기덜 가근에 순경덜신디 강 사바사바헤근에.(예, '주세소'. 그래서 거기들 가서 순경들에게 가서 사바사바해서.)

102001 @ 증명받는 것과?(증명받는 겁니까?)

102001 #1 겐 증명 내도렌 헤영.(그래서 증명 내달라고 해서.)

102001 @ 아.(아.)

102001 #1 경헨 감젠 허니까 이젠 하이고 나도 이젠 어떵 헨 감신고 허난 뭐 계란이라도 멧 개 사가나 닭을 사가나 경허민 뒌덴.(그래서 간다고 하니까 이젠 하

22) '주재소'를 제보자는 '주세소'로 기억하고 있다. '주재소'는 일제 강점기에, 순사가 머무르면서 사무를 맡아보던 경찰의 말단 기관. 8·15 광복 후에 지서(支署)로 고쳤다.

이고 나도 이젠 어떻게 해서 가고 있나 하니까 뭐 계란이도 몇 개 사가나 닭을 사가나 그러면 된다고.)

102001 @ 순경안티?(순경에게?)

102001 #1 으, 그 순경신디.(으, 그 순경에게.)

102001 @ 게민 그디 순경은 일본 순경?(그럼 거기 순경은 일본 순경?)

102001 #1 아니, 그 우리 제주도 순경덜이주, 한국 순경덜이주만은 몰라 그때는?(아니, 그 우리 제주도 순경들이지, 한국 순경들이지만 몰라 그때는?)

102001 @ 대장은 일본 순경일 거 아니?(대장은 일본 순경일 거 아니?)

102001 #1 몰라, 그건 몰르고. 겡헨 간에 독새기 서른 개 상 강 증명헹 갓주게.(몰라, 그건 모르고. 그래서 가서 달걀 서른 개 사고 가서 증명해서 갔지.)

102001 @ 하하하. 독새기 서른 개 상 가난 증멩받아 줍디가?(하하하. 달걀 서른 개 사서 가니까 증명받아 줍디까?)

102001 #1 응, 받아 줜.(응, 받아 줬어.)

102001 @ 증멩받젠 허난 사진도 칙고, 잇어야 헐 거 아니?(증명받으려고 하니까 사진도 찍고, 있어야 할 거 아니?)

102001 #1 으게, 증명헐 때에는 사진허곡게 그디게 저 호적등본, 옛날엔 민족등본이엔 헤나신가, 호적등본.(으, 증명할 때에는 사진하고 거기 저 호적등본, 옛날엔 민족등본이라고 했었는가, 호적등본.)

102001 @ 게민 그 사진 칙젠 허민 사진 찍는 집도 잇어낫다예?(그럼 그 사진 찍으려고 하면 사진 찍는 집도 있었네요?)

102001 #1 어디 셔낫주게, 엿날에게. 경헤영 그냥 배로 가낫어.(어디 있었어, 옛날에. 그래서 그냥 배로 갔었어.)

102001 @ 옛날에 그 증명받아난 종이 같은 건 없지예?(옛날에 그 증명받았던 종이 같은 건 없지요?)

102001 #1 그건 엇어. 그건 그때에 뭐 엇어져 불고. 경헨에.(그건 없어. 그건 그때에 뭐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102001 @ 그게 열다섯 살?(그게 열다섯 살?)

102001 #1 열다섯 설에, 대판.(열다섯 살에, 대판.)

102001 @ 대판으로?(대판으로?)

102001 #1 으, 대판.(으, 대판.)

102001 @ 작은아방신디?(작은아버지에게?)

102001 #1 작은아부지신디.(작은아버지에게.)

102001 @ 예.(예.)

102001 #1 배로 간, 군대환으로.(배로 갔어, 군대환으로.)

102001 @ 그 군대환 타난 기억이 남수과? 얼마나 간 거 같으과?(그 군대환 탔던 기억이 납니까? 얼마나 간 것 같습니까?)

102001 #1 오일. 낮만 닷새.(오일. 낮만 닷새.)

102001 @ 낮만 닷새.(낮만 닷새.)

102001 #1 밤 닷새, 낮 닷새.(밤 닷새, 낮 닷새.)

102001 @ 게민 배는 어디서 탓수과?(그럼 배는 어디서 탔습니까?)

102001 #1 타기는?(타기는?)

102001 @ 예.(예.)

102001 #1 저 도꼬내[23].(저 '도꼬내'.)

102001 @ 도꼬내에서 탓수과?('도꼬내'에서 탔습니까?)

102001 #1 으, 도꼬내에서 타고 이제 섬, 섬 돈 거라. 도꼬내 탄에 이 앞으로 영 돌아간 저 모실포, 서귀포로 돌아와, 돌아와 가지고 성산포로. 아, 조천, 조천.(으, '도꼬내'에서 타고 이제 섬, 섬 돈 거야. '도꼬내'에서 타서 이 앞으로 이렇게 돌아간 저 모슬포, 서귀포로 돌아와, 돌아와 가지고 성산포로. 아, 조천, 조천.)

102001 @ 조천으로 출발?(조천으로 출발?)

102001 #1 으, 조천에서.(으, 조천에서.)

102001 @ 게민 배가 제주시서 왕 거기서 출발헹 도꼬내 왕 다시 어디 강, 어디 강.(그럼 배가 제주시서 와서 거기서 출발해서 '도꼬내' 와서 다시 어디 가서, 어디 가서.)

102001 #1 으, 멧 포구에 닷새도 더 걸렷저, 첨. 제주만 도는 것도 삼일이나 걸리고.(으, 몇 포구에 닷새도 더 걸렸어, 첨. 제주만 도는 것도 삼일이나 걸리고.)

102001 @ 아.(아.)

102001 #1 그 포구마다 뎅기멍 손님덜 시끄젠 허난.(그 포구마다 다니면서 손님들 실으려고 하니까.)

102001 @ 예.(예.)

102001 #1 또 그때는 종선이 잇엇주게.(또 그때는 종선이 있었지.)

102001 @ 예, 종선.(예, 종선.)

102001 #1 큰 배가 이 ᄆᆞ을꺼지 들어오지 못 허니까 워낙 배가 크니까. 겐 그걸로 헹 종선에 올라강 또 큰 배에 올랑.(큰 배가 이 마을까지 들어오지 못 하니까 워낙 배가 크니까. 그래서 그걸로 해서 종선에 올라가서 또 큰 배에 올라서.)

102001 @ 예. 게믄 할무니 탄 거는 도꼬내에서 탄 거라예?(예. 그럼 할머니 탄 거는 '도꼬내'에서 탄 거지요?)

102001 #1 도꼬내에서.('도꼬내'에서.)

102001 @ 도꼬내에서 탕.('도꼬내'에서 타서.)

102001 #1 이젠 외도[24]주만은.(이젠 외도지만.)

102001 @ 외도에서 탕 경헨 영 영 제주도 돌앙.(외도에서 타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제주도 돌아서.)

102001 #1 으, 우리 앞으로 돌앙, 우리 앞으로.(으, 우리 앞으로 돌아서, 우리 앞

23) '도꼬내'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마을 지명의 하나다.
24) '외도'는 제주시 행정 마을 중 하나는 '외도동'을 말한다.

으로.)

102001 @ 제주도 도는 것만 헤도 한 삼일?(제주도 도는 것만 해도 한 삼일?)

102001 #1 으, 삼일 걸려.(으, 삼일 걸려.)

102001 @ 마지막 출발헌 거 조천에서 출발헌 거라예?(마지막 출발한 거 조천에서 출발한 거지요?)

102001 #1 조천에서 마지막.(조천에서 마지막.)

102001 @ 예.(예.)

102001 #1 조천광 대판[25]은 가까운 모냥이라. 동쪽으로가 가깝넨 헤여.(조천과 대판은 가까운 모양이야. 동쪽으로가 가깝다고 해.)

102001 @ 게난 조천에서 출발헹 대판까지가 닷새?(그러니까 조천에서 출발해서 대판까지가 닷새?)

102001 #1 으, 저 목포 강 짐 시끄젠 헨 이틀 살고.(으, 저 목포 가서 짐 실으려고 해서 이틀 살고.)

102001 @ 아.(아.)

102001 #1 또 부산도 강 메칠 살고 경헤연 가니까 메칠을 걸려서. 배에서 팔일을 걸련. 밤낮 열엿새 걸련.(또 부산도 가서 며칠 살고 그래서 가니까 며칠을 걸렸어. 배에서 팔일을 걸렸어. 밤낮 열엿새 걸렸어.)

102001 @ 열엿새?(열엿새?)

102001 #1 으, 열엿새.(으, 열엿새.)

102001 @ 게민 십육 일?(그럼 십육 일?)

102001 #1 으, 십육 일.(으, 십육 일.)

102001 @ 아, 배만 가는 게 오일이었는데 목포 강 이틀 밤 살고.(아, 배만 가는 게 오 일이었는데 목포 가서 이틀 밤 살고.)

102001 #1 어, 어.(어, 어.)

102001 @ 부산 강?(부산 가서?)

102001 #1 어. 목포 강 짐 시끄고 손님덜 시끄고 또 부산 간 손님덜 시끄고 짐 시끄고 헨 가가니까 경 걸려. 동경을 가젠 헤도 항상 대판까진 배로 간 때는 항상 대판을 내령 동경을 가야 헷주만은 우린. 난 또 그때 대판 족은아부지[26]네영 말젯아부지[27]네영 사니까 대판 강 살앗주게, 혼 멧 년.(어. 목포 가서 짐 싣고 손님들 싣고 또 부산 가서 손님들 싣고 집 싣고 해서 가가니까 그렇게 걸렸어. 동경을 가려고 해도 항상 대판까진 배로 간 때는 항상 대판을 내려서 동경을 가야 했지만 우린. 난 또 대판 넷째 아버지네와 셋째 아버지네와 사니까 대판 가서 살았지, 한 몇 년.)

102001 @ 게난 총 열엿새는 걸린 거?(그러니까 총 열엿새는 걸린 거?)

102001 #1 열엿새 걸련.(열엿새 걸렸어.)

---

25) '대판'은 일본 오사카를 말한다. 오사카(大阪)를 한자음으로 읽은 것이다.

26) '족은아부지'는 '작은아버지'다. 여기서는 아버지의 형제가 넷인 경우로 넷째 아버지를 말한다.

27) '말젯아부지'는 아버지의 형제가 넷인 경우 셋째 아버지를 말한다.

102001 @ 그때 뱃삯 얼마나 줘신지 알아지쿠과?(그때 뱃삯 얼마나 줬는지 알겠어요?)

102001 #1 그때 뱃삯은 모르켜, 잘 모르큰게. 뱃삯은 얼만이 줘져신고?(그때 뱃삯은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뱃삯은 얼만큼 줬는가?)

102001 @ 게민 배 타젠 허민 손에 뭐 들렁 배 탓수과?(그럼 배타려고 하면 손에 뭐 들고 배 탔습니까?)

102001 #1 무시거 들른 거 셔게. 그냥 아무것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여긴 엇이니까 거기만 가믄 쏠밥으로 잘 먹넨 허난 게난 저 무시거 베로 헌 치메 허고 우이 저고리 허고. 또 이제 소곱에 바지 하나 허고 그것만이주게. 우이 사쓰 하나 허고.(무엇 든 거 있어. 그냥 아무것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여긴 없으니까 거기만 가면 쌀밥으로 잘 먹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 무엇 베로 한 치마 하고 위에 저고리 하고. 또 이제 속에 바지 하나 하고 그것만이지. 위에 셔츠 하나 하고.)

102001 @ 으.(으.)

102001 #1 그것만 무신 포따리에 싼에. 뭐 가반이 셔세게? 이거 열다섯 살이난 게 멧 년이니 팔십오 년. 팔십 멧 년고? 팔십 멧 년 뒈난게 어떵헐 거라.(그것만 무슨 보따리에 싸서. 뭐 가방이 있어? 이거 열다섯 살이니까 몇 년이니 팔십오 년. 팔십 몇 년인가? 팔십 몇 년 되니까 어떠할 거야.)

102001 @ 겐 밥은 배에서 줍디가?(그래서 밥은 배에서 줍디까?)

102001 #1 아이고, 밥은 삼시 줘.(아이고, 밥은 삼시 줘.)

102001 @ 삼시 줘?(삼시 줘?)

102001 #1 으. 밥은 삼시 딱 멕여.(으. 밥은 삼시 딱 먹여.)

102001 @ 으, 그럼 그때 배에 탄 사름덜 막 하난마씨?(으, 그럼 그때 배에 탄 사람들 아주 많았어요?)

102001 #1 아이고, 하주게. 제주 전체 돌아뎅기멍 시끄곡게, 그때부터도 제주도 사름이 만이 갓주게 일본을게.(아이고, 많지. 제주 전체 돌아다니면서 싣고, 그때부터도 제주도 사람이 많이 갔지, 일본을.)

102001 @ 아.(아.)

102001 #1 만이 뎅겻주게. 게난 주로 제주도 사름 만이 시끈 거라. 육지 사름덜 얼마 안 가고, 육지 가면서 그냥 뭐 짐덜, 쏠도 좀 시끄고 뭐 필요헌 것덜 시껑 가고 사름은 벨로 하영 아니, 육지는.(많이 다녔지. 그러니까 주로 제주도 사람 많이 실은 거야. 육지 사람들 얼마 안 가고. 육지 가면서 그냥 뭐 짐들, 쌀도 싣고 뭐 필요한 것들 실어서 가고 사람은 별로 많이 아니, 육지는.)

102001 @ 그 배가 제주도에 멧 번이나 들어와낫는지 알아지쿠과, 일주일에? 메날은 아니잖아예?(그 배가 제주도에 몇 번이나 들어왔었는지 알겠습니까, 일주일에? 만날은 아니잖아요?)

102001 #1 메날 아니, 메날 아니. 흔 덜에 흔 번도 아닐 거라, 일 년에 멧 번베끼 안 뒈여. 경헤실 거라, 몰라도.(만날 아니, 만날 아니. 한 달에 한 번도 아닐 거

야, 일 년에 몇 번밖에 안 돼. 그랬을 거야, 몰라도.)

102001 @ 으.(으.)

102001 #1 원체 배가 크고 경. 게고 저 배덜이 군대환 배만 아니라 복목환[28]도 셔 낫주.(원체 배가 크고 그렇게. 그리고 저 배들이 군대환 배만 아니라 복목환도 있었지.)

102001 @ 으.(으.)

102001 #1 복목환이엔 헌 거 그거는 북한 배엔 헨, 북한서, 북한 사름덜이 지어 논 거렌 헨 헤나실 거라. 복목환.(복목환이라고 한 거 그거는 북한 배라고 해서,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이 지어놓은 거라고 해서 했었을 거야. 복목환.)

102001 @ 게민 어무니 타 본 배는?(그럼 어머니 타 본 배는?)

102001 #1 군대환.(군대환.)

102001 @ 군대환만 타 본 거?(군대환만 타 본 거?)

102001 #1 으, 난 군대환, 군대환으로 두 번 갓닥 왓닥 허연.(으, 난 군대환, 군대환으로 두 번 갔다 왔다 했어.)

102001 @ 두 번?(두 번?)

102001 #1 으. 두 번, 두 번일 거라. 아, 두 번 시 번, 시 번.(으. 두 번 두 번일 거야. 아, 두 번 시 번 시 번.)

102001 @ 세 번 갈 때 전부 군대환이어신디 걸린 날은 전부 열엿새?(세 번 갈 때 전부 군대환이었는데 걸린 날은 전부 열엿새?)

102001 #1 아니, 제기 온 때도 셔. 밤낮 엿새도 걸리고.(아니, 재게 올 때도 있어. 밤낮 엿새도 걸리고.)

102001 @ 아, 엿새 걸린 날도 싯고?(아, 엿새 걸린 날도 있고?)

102001 #1 예, 어디 들지 안허고 그냥 오는 디는 빨리 와.(예, 어디 들리지 않고 그냥 오는 데는 빨리 와.)

102001 @ 아, 그럼.(아, 그럼.)

102001 #1 이디 저디 들려근에 오젠 허믄 오래주.(여기 저기 들려서 오려고 하면 오래지.)

102001 @ 기민 여기서 출발할 때도 어디 안 들렁 바로 출발헌 적도 잇수과?(그럼 여기서 출발할 때도 안 들리고 바로 출발한 적도 있습니까?)

102001 #1 엇어.(없어.)

102001 @ 갈 때는 다 들렁 가?(갈 때는 다 들려서 가?)

102001 #1 다 들렁 가.(다 들려서 가.)

102001 @ 올 때는?(올 때는?)

102001 #1 올 때는, 올 땐 벨로 경 들리진 안헤실 거라, 몰라도.(올 때는, 올 땐 별로 그렇게 들리진 않았을 거야, 몰라도.)

102001 @ 아.(아.)

---

28) '복목환(伏木丸)'은 1930년대 초 제주와 일본 사이를 왕래했던 배를 말한다.

102001 #1 올 때는 그냥 제주도로 와.(올 때는 그냥 제주도로 와.)

102001 @ 게난 이젠, 이제 열다섯 설에 일본 가난 그때서부터 골아 줍서.(그러니까 이젠, 이제 열다섯 살에 일본 가니까 그때서부터 말씀해 주세요.)

102001 #1 그때부터 가니깐 이젠 열다섯에부터 가난 이젠 일을 헤야 돈을 벌 거 아니? 이제 어디 일, 일본 사름네 집이 일 구허니까 그때는 이제 그 이런 채소 덜 담고 무시거 담는 이런 하꼬[29]덜이 싯지 안허냐? 그거를 지금은 부쪄서 나오고 어떻게 그 무시거로 또각또각 안 헤도 뒈는데, 지금은 풀로 아이 부쪄도 뒈는데.(그때부터 가니깐 이젠 열다섯에부터 가니까 이젠 일을 해야 돈을 벌 거 아니? 이제 어디 일, 일본 사람네 집의 일 구하니까 그때는 이제 그 이런 채소들 담고 무엇 담는, 이런 상자들이 있지 않니? 그거를 지금은 붙여서 나오고 어떻게 그 무엇을 또각또각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풀로 안 붙여도 되는데.)

102001 @ 예.(예.)

102001 #1 그 엿날에 우리 열다섯에 갈 때는 다 종이에 풀 볼라 가지고 그 하꼬, 보루[30] 바꼬를 이젠 하꼬 식으로 영 딱딱 만들어 놓면은 그걸 종이로 하꼬를 만드는 거라.(그 옛날에 우리 열다섯에 갈 때는 다 종이에 풀 발라 가지고 그 상자, 종이 상자를 이젠 상자 식으로 이렇게 딱딱 만들어 놓으면 그걸 종이로 상자를 만드는 거야.)

102001 @ 음.(음.)

102001 #1 영 납작헌 거를 이렇게.(이렇게 납작한 거를 이렇게.)

102001 @ 으.(으.)

102001 #1 영 오그라지게.(이렇게 오그라지게.)

102001 @ 으.(으.)

102001 #1 그런 디를 나가 이제 들어갓주게.(그런 데를 내가 이제 들어갔지.)

102001 @ 그니까 그 종이로 나온 건 영 접는구나예. 접엉 네모나게 만드는 거, 하꼬로 만드는 거예?(그러니까 그 종이로 나온 건 이렇게 접는군요. 접어서 네모나게 만드는 거, 상자로 만드는 거요?)

102001 #1 접지 안허영 그냥 종이에 큰 창호지 거치헌 종이에 풀 볼라 놓믄 싹싹 풀을 이런 디 놔서, 이런 디 놔서 풀을 볼르면은 그거를 앗아다가 그 보루 바꼬레 부쪙, 영 돌아가멍 부쪙 막 하꼬를 만드는 거라.(접지 않고 그냥 종이에 큰 창호지 같은 종이에 풀 발라 놓으면 싹싹 풀을 이런 데 놔서, 이런 데 놔서 풀을 바르면 그거를 가져다가 그 종이 상자에 붙여, 이렇게 돌아가면서 붙여서 마구 상자를 만드는 거야.)

102001 @ 부찌는 거?(붙이는 거?)

102001 #1 경혜영 이제 이디서 거뜨면 저 베란다에 닮은 디 강 햇빗 난 디 강 물류왕.(그래서 이제 여기서 같으면 저 베란다에 같은 데 가서 햇빛 나는 데 가서

29) '하꼬'는 일본어 'はこ'로 상자를 말한다.
30) '보루'는 일본어 'ぼろ'로 '누더기, 넝마' 따위를 말한다.

말려서.)

102001 @ 으.(으.)

102001 #1 경허민 하꼬 뒈여. 그런 딜 들어갓주게.(그러면 상자 돼. 그런 델 들어갔지.)

102001 @ 예, 하꼬 만드는 일.(예, 상자 만드는 일.)

102001 #1 하꼬 만드는 일, 경허민 이제 일본 사람네 집이. 일본말은 통 모른 거라.(상자 만드는 일, 그러면 이제 일본 사람네 집에. 일본말은 통 모른 거야.)

102001 @ 음.(음.)

102001 #1 게민 아침 갈 때 대판은 오하요상[31], 동경은 오하요고자이마스[32] 헤도 대판은 오하요상 헤영. 가젠 허믄 이제 아침이 일곱 시에 오렌 헤여, 일곱 시에. 겐 일곱 시에 벤또[33] 싼 오렌 저 도시락.(그럼 아침 갈 때 대판은 '오하요상', 동경은 '오하요고자이마스' 해도 대판은 '오하요상' 해서. 가려고 하면 이제 아침에 일곱 시에 오라고 해, 일곱 시에. 그래서 일곱 시에 도시락 싸서 오라고 저 도시락.)

102001 @ 음.(음.)

102001 #1 그거 쌍 오렌 허믄 그거 싸곡 허영, 일곱 시에 오렌 허믄 쪼끔이라도 나가 제기 가근에 만이 허여야 귀여움 받을 거 아니게. 막 허난 으섯 시에 간.(그거 싸서 오라고 하면 그거 싸고 해서, 일곱 시에 오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재게 가서 많이 해야 귀여움 받을 거 아니. 아주 하니까 여섯 시에 갔어.)

102001 @ 하.(하.)

102001 #1 걸엉 이디서 거트민 애월 간 만이 헌 디 걸엉 간. 이제 열다섯 설에 걸엉 간. 경혜영 강 보믄 문을 안 올아. 문 안 올믄 이제 문 올 때꺼지 사근에 문 올믄 그자 오하요상 허멍 들어강, 이젠 말도 원. 몰라 부니까 일본말. 게난 ᄀᆞ치 일허는 사름은 일본 사름이고 한국 사람은 나 혼자니까.(걸어서 여기서 같으면 애월 가는 만큼 하는 데 걸어서 갔어. 이제 열다섯 살에 걸어서 갔어. 그래서 가서 보면 문을 안 열어. 문 안 열면 이제 문 열 때까지 서서 문 열면 그저 '오하요상' 하면서 들어가서, 이젠 말도 원. 몰라 버리니까 일본말.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이고 한국 사람은 나 혼자니까.)

102001 @ 혼자?(혼자?)

102001 #1 혼자, 나 혼자.(혼자, 나 혼자.)

102001 @ 아.(아.)

102001 #1 일본 사람네 집이고. 경허난 이제 그디 가근에 그자 여섯 시부터 나가민 일곱 시부터 일 시작허믄 증심 먹고 밤 열한 시꺼지 일허여.(일본 사람네 집이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그저 여섯 시부터 나가면 일곱 시부터 일 시작하면 점심 먹고 밤 열한 시까지 일해.)

102001 @ 에, 밤 열한 시꺼지.(에, 밤 열한 시까지.)

---

31) '오하요상'은 '안녕하세요'라는 의미의 오사카 방언이다.
32) '오하요고자이마스'는 '안녕하세요'라는 의미의 일본어다.
33) '벤또' 일본어 'べんとう'로 도시락을 말한다.

102001 #1 열한 시꺼지. 겐 이십오 전, ᄒᆞ루 일헌 것이 이십오 전.(열한 시까지. 그래서 이십오 전, 하루 일한 것이 이십오 전.)

102001 @ 하루에 이십오 전. 하루 일허민 하루에 딱 이십오 전을 줘?(하루에 이십오 전. 하루 일하면 하루에 딱 이십오 전을 줘?)

102001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2001 @ 흔 덜 뒈민.(한 달 되면.)

102001 #1 흔 덜 일허민. 아, 흔 덜에 이십오 전. ᄒᆞ루에 이십오 전이 아니고.(한 달 일하면. 아, 한 달에 이십오 전. 하루에 이십오 전이 아니고.)

102001 @ 흔 덜에 이십오 전?(한 달에 이십오 전?)

102001 #1 흔 덜 월급이 이십오 전.(한 달 월급이 이십오 전.)

102001 @ 흔 덜에 이십오 전이믄 그때 쏠?(한 달에 이십오 전이면 그때 쌀?)

102001 #1 경허난 흔 덜에 이십오 전을 타 노니까 그때에 옷이 엇언. 그디 강 입을 옷이 엇으난 새로 치마에 멩지 저고리 헤서.(그러니까 한 달에 이십오 전을 타 놓으니까 그때에 옷이 없어. 거기 가서 입을 옷이 없으니까 새로 치마에 명주 저고리 해서.)

102001 @ 음.(음.)

102001 #1 그걸로.(그걸로.)

102001 @ 이십오 전 다 줜?(이십오 전 다 줬어?)

102001 #1 어게, 이십오 전 다 들어가. 흔 덜치가 다 들어가야 흔 벌. 게 흔 벌게 치마 저고리. 경헨 헹 입어낫주.(그래, 이십오 전 다 들어가. 한 달치가 다 들어가야 한 벌. 그래 한 벌 치마 저고리. 그렇게 해서 입었었지.)

102001 @ 경헨 옷 한 번 헹 입으난 한 달 월급은 엇어져 불언?(그래서 옷 한 번 해서 입으니까 한 달 월급은 없어져 버렸어?)

102001 #1 엇어졋주게. 게도 밥은 그냥 족은아부지네 집이서 공짜로 먹고. 멧 덜 동안.(없어졌어. 그래도 밥은 그냥 작은아버지네 집에서 공짜로 먹고. 몇 달 동안.)

102001 @ 으.(으.)

102001 #1 경헨에 거기서 이제 흔 멧 개월 허고 또 어디 다른 디서 월급을 하영 줌젠 헤연에 이제 그디도 강 멧 개월 헤나고. 그디서 헤나니까 이제 문첨 간 허여난 집이 주인이, 원체 나가 말도 안 곧고 일을 잘 허니까.(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몇 개월 하고 또 어디 다른 데서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이제 거기도 가서 몇 개월 했었고. 거기서 했었으니까 이제 먼저 가서 했었던 집의 주인이, 원체 내가 말도 안 하고 일을 잘 하니까.)

102001 @ 예.(예.)

102001 #1 다른 디 가지 말렌 허는 거라, 영 눈치가. 다른 디 가지 말렌 허영 노는 날은 일주일에 한 번 놀주게, 공일날. 놀면 그날은 영 눈치로 오렌, 지네 집더레 오렌. 어디 둘앙 강 멕이고 뭐 사주곡. 신발도 사주곡 옷도 사주곡 허켄. 주인네

가. 경허영 흔 번 이제 나가 가민 첨 멕여 주곡 사 주곡 자꾸 헤낫주게.(다른 데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눈치가. 다른 데 가지 말라고 해서 노는 날은 일주일에 한 번 놀지, 공일날. 놀면 그날은 이렇게 눈치로 오라고,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어디 데리고 가서 먹이고 뭐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하겠다고. 주인네가. 그래서 한 번 이제 내가 가면 첨 먹여 주고 사 주고 자꾸 했었어.)

102001 @ 음.(음.)

102001 #1 경헹 헤도 월급이 너미 올려주지도 안허고 작으니깐 헐 수가 엇지.(그렇게 해도 월급이 너무 올려주지도 않고 적으니까 할 수가 없지.)

102001 @ 음.(음.)

102001 #1 겐, 모르게 어디 한국 제주도 가노렌 헤영 나왓주게, 나완. 겐 어디 다른 디 강 곱앙 일허는디 어떵헨 그 사름이 알아서. 겐 주인네가 알안에 우리 집이 오믄 이디 주는 월급 주겠다고.(그래서, 모르게 어디 한국 제주도 가느라고 해서 나왔지, 나왔어. 그래서 어디 다른 데 가서 숨어서 일하는데 어떠해서 그 사람이 알아서. 그래서 주인네가 알아서 우리 집에 오면 여기 주는 월급 주겠다고.)

102001 @ 아.(아.)

102001 #1 빼앗앙 ᄃᆞ려와 불언.(빼앗아서 데여와 버렸어.)

102001 @ 일 잘 허난.(일 잘 하니까.)

102001 #1 경헨 이제 또 문첨 헤난 디 강 허고 허단 열여덥 설엔 고향에 돌아왓주게.(그래서 이제 또 먼저 했던 데 가서 하고 하다가 열여덟 살엔 고향에 돌아왔지.)

102001 @ 아, 열여덜 설에 들어완?(아, 열여덟 살에 들어왔어?)

102001 #1 경헨 열다섯 살에 강 옷 흔 벌 헤 입곡 글후에 버는 건 작은아부지네가 돈을 메와 줘서.(그래서 열다섯 살에 가서 옷 한 벌 해 입고 그 후에 버는 건 작은아버지네가 돈을 메워 줘서.)

102001 @ 예.(예.)

102001 #1 메와 주니까 열여덥 살 나니까 이제 시집가렌 통지가 가서.(메워 주니까 열여덟 살 되니까 이제 시집가라고 통지가 가서.)

102001 @ 아.(아.)

102001 #1 경허난 이제 거기서 이제 소게 거튼 거, 뭐 이제 이불 싸는 거 거튼 거, 이제 더끄는 거 모빈단[34] 셔낫주. 그땐 모빈단, 법단[35]. 그런 거 이불 겁죽, 또 옷덜 다 거기서 이젠 산 오랏주게. 그 돈으로 그 번 돈으로.(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솜 같은 거, 뭐 이제 이불 싸는 거 같은 거, 이제 덮는 거 '모빈단' 있었지. 그땐 '모빈단', '법단'. 그런 거 이불 거죽, 또 옷들 다 거기서 이젠 사서 왔지. 그 돈으로 그 번 돈으로.)

102001 @ 번 돈으로?(번 돈으로?)

---

34) '모빈단'은 옷감 종류의 하나다.
35) '법단'은 옷감 종류의 하나다.

102001 #1 겐 이디 오란 그때는 뭐 이불 하나, 요 하나. 여기서도 대목[36] 헹 가낫주만은 난 이불 포따리가 두 개 쌍 가서.(그래서 여기 와서 그때는 뭐 이불 하나, 요 하나. 여기서도 주로 해서 갔었지만 난 이불 보따리가 두 개 싸서 갔어.)

102001 @ 음.(음.)

102001 #1 그러니까 나가 질 또 큰뚤이고 허난 이제 또 스춘 오빠네영 이젠 또 아부지영 어무니네영 너가 질 우이고 밑에 동생덜 이시니까 쪼금 넴겨 뒷당 밑에 동싱덜도 주라 헤도 나 벌어 온 거 나대로 허겠다고. 경헨 이제 그거 다 헨 간 헌디 가 보니까 그것이 아니.(그러니까 나가 제일 큰딸이고 하니까 이제 또 사촌 오빠네와 이젠 또 아버지와 어머니네와 네가 제일 위고 밑에 동생들 있으니까 조금 남겨 뒀다가 밑에 동생들도 주라고 해도 내가 벌어 온 거 나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 다 해서 가서 했는데 가 보니까 그것이 아니.)

102001 @ 음.(음.)

102001 #1 속, 속내 몰란 가젼. 그냥 전렴병, 폐병들 든 딜 가젼.(속, 속내 몰라서 갔어. 그냥 전염병, 폐병들 든 델 갔어.)

102001 @ 음.(음.)

102001 #1 게난 그거 다 이젠 내불어 뒁 이제.(그러니까 그거 다 이젠 내버려 두고 이제.)

102001 @ 얼마나 살앗수과?(얼마나 살았습니까?)

102001 #1 얼마 살아 보지 안혜영 그자 갓닥 왓닥 흔 메칠 허당 영 보니까 눈칠 보난 암만 헤도 아니 뭠직 헤연 술짝 이젠 또 일본을 가 불엇주게.(얼마 살아 보지 않고 그저 갔다 왔다 한 며칠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눈칠 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살짝 이젠 또 일본을 가 버렸지.)

102001 @ 음.(음.)

102001 #1 그때는 초청 받안에. 저 작은아바지신디 증멩헹 보내줍서 헤연.(그때는 초청 받아서. 저 작은아버지에게 증명해서 보내주세요 해서.

102001 @ 아.(아.)

102001 #1 경헨 또 이제 열아홉에 일본 나간.(그래서 또 이제 열아홉에 일본 나갔어.)

102001 @ 열아홉에. 열여덥에 들어왕 열아홉에 다시 또 나간?(열아홉에. 열여덟에 들어와서 열아홉에 다시 또 나갔어?)

102001 #1 또 나간.(또 나갔어.)

102001 @ 음.(음.)

102001 #1 또 나간 대판 메칠, 멧덜 살단 대판서.(또 나가서 대판 며칠, 몇 달 살다가 대판에서.)

102001 @ 또 나가근에는 대판서 무슨 일?(또 나가서 대판에서 무슨 일?)

102001 #1 그 다음 간 때도 그런 일 헤도 그 다음에 가가난 열아홉에 가가난

36) '대목'은 가장 중요한 시기를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로'의 의미로 쓰였다.

쪼꼼 나도 익숙고 허난에 저, 나이도 흔 멧 설 더 먹고 허난에 경허난 이제 월급을 흔 이십오 전, 이십오 전쯤 받앗주게.(그 다음 간 때도 그런 일 해도 그 다음에 가가니까 열아홉에 가가니까 조금 나도 익숙하고 하니까 저, 나이도 한 몇 살 더 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한 이십오 전, 이십오 전쯤 받았지.)

102001 @ 아까가 이십오 전이여신디.(아까가 이십오 전이었는데.)

102001 #1 이십오 전. 으, 그 곱은 더 받안. 곱은 더 받안 경헤연 허단에.(이십오 전. 으, 그 곱은 더 받았어. 곱은 더 받아서 그렇게 하다가.)

102001 @ 오십 전 정도예?(오십 전 정도요?)

102001 #1 으, 스물,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흔 살에 동경 올라가져신가? 동경서 또 이제 이 고내 사람이, 나 또 대판도 친구가 하나가 고내 사람 친촉이 시난 친구에 고내 사람 친촉이 아, 대판을, 첨 동경서 대판을 둘레 가 불어서.(으, 스물,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한 살에 동경 올라갔나? 동경서 또 이제 이 고내 사람이, 나 또 대판도 친구가 하나가 고내 사람 친척이 있으니까 친구의 고내 사람 친척이 아, 대판을, 첨 동경에서 대판을 데리러 가 버렸어.)

102001 @ 음.(음.)

102001 #1 경허난 이제 둘이 이제 그 사름이영 ᄀᆞ치 동경 올라간.(그러니까 이제 둘이 이제 그 사람과 같이 동경 올라가서.)

102001 @ 아, 친척이 이시난 친구 데리러 온 건데 ᄀᆞ치?(아, 친척이 있으니까 친구 데리러 온 건데 같이?)

102001 #1 ᄀᆞ치. 그 친구가 나영 ᄀᆞ치 가야 가켄 헤영. 게난 나도 이제. 동경은 먼 친촉덜이나베끼 가까운 친촉은 벨로 엇엇주게.(같이. 그 친구가 나랑 같이 가야 가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도 이제. 동경은 먼 친척들이나밖에 가까운 친척은 별로 없었지.)

102001 @ 아.(아.)

102001 #1 경허난 이디 오란.(그러니까 여기 와서.)

102001 @ 족은아방이 가지 말렌 안 헤?(작은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안 해?)

102001 #1 가지 말렌 허나 무시거나 열아홉 스물 나가난 나가 어른 뒈니까 나 ᄌᆞ유주게. 그땐 나 ᄌᆞ유로.(가지 말라고 하나 무엇이나 열아홉 스물 나가니까 내가 어른 되니까 나 자유지. 그땐 나 자유로.)

102001 @ 살기는 대판 강 살 때 족은아방네 집이 ᄀᆞ치 산 건 아니고?(살기는 대판 가서 살 때 작은아버지네 집에 같이 산 건 아니고?)

102001 #1 ᄀᆞ치 살안.(같이 살았어.)

102001 @ ᄀᆞ치 살멍.(같이 살면서.)

102001 #1 ᄀᆞ치 살안. 족은아방네 간 살 건디도 오래고 글후에도 막 오래 살단 오고 헷주만은 오래 살안.(같이 살았어. 작은아버지네 가서 산 지도 오래고 그 이후에도 아주 오래 살다 오고 했지만 오래 살았어.)

102001 @ 경헨 스물한 살에 동경 갓수다예?(그래서 스물한 살에 동경 갔어요?)

102001 #1 으.(으.)

102001 @ 동경 강 이제는 어디서?(동경 가서 이제는 어디서?)

102001 #1 동경 간에 이제는 고내 사름네 집이서 일헷어. 고내 사름네가 주로 이 저 가방일. 이 저 군복 옷, 양복 옷덜 그런 거 허는 집이가 막 핫주게게.(동경 가서 이제는 고내 사람네 집에서 일했어. 고내 사람네가 주로 이 저 가방 일. 이 저 군복 옷, 양복 옷들 그런 거 하는 집이 아주 많았지.)

102001 @ 음.(음)

102001 #1 경허난 고내 사름네 집이 일허연.(그러니까 고내 사람네 집의 일했어.)

102001 @ 아다치[37], 아라카와[38]? 그 지역 이름이?(아다치, 아라카와? 그 지역 이름이?)

102001 #1 우린 아사쿠사[39], 아니 저, 저, 저 어디고, 어디고?(우린 아사쿠사, 아니 저, 저, 저 어디고, 어디고, 어디고?)

102001 @ 아라카와?(아라카와?)

102001 #1 으, 아라카와, 동경.(으, 아라카와, 동경.)

102001 @ 동경예?(동경요?)

102001 #1 으, 동경. 저 아사쿠사 즈끗디. 유센지[40], 나가 처음 갈 땐 유센질 가서 유센지.(으, 동경. 저 아사쿠사 근처. 유센지, 내가 처음 갈 땐 유센질 가서 유센지.)

102001 @ 으.(으.)

102001 #1 유센지 간에 오래 살, 유센지 간 흔 멧 년 살고 그 다음엔 미카와시마[41] 간 또 멧 년 살고 또 그 다음에 저 니시하라[42]엔 헌 디 강 멧 년, 이년 쯤 사니까 대동아전쟁이 일어나 불어서.(유센지 가서 오래 살, 유센지 가서 한 몇 년 살고 그 다음엔 미카와시마 가서 또 몇 년 살고 또 그 다음에 저 니시하라라고 하는데 가서 몇 년, 이년 쯤 사니까 대동아전쟁이 일어나 버렸어.)

102001 @ 아.(아.)

102001 #1 경헨 대동아전쟁이 일어난, 저 미카와시마 살 때 일어낫구나. 경허난 이제 니시하라에 이제 피난을 갓주게. 니시하라엔 헌 디 아다치, 아다치구.(그래서 대동아전쟁이 일어나서, 저 미카와시마 살 때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이제 니시하라에 이제 피난을 갔지. 니시하라라는 하는 데 아다치, 아다치구.)

102001 @ 예.(예.)

102001 #1 거기 간에 집 상 간, 이층집 산 간 거기서. 유센지서 아기 하나 낳고, 아덜 하나 낳고 또 이제 그디 간에 뚤 하나 난. 이제 경 정 헤가난 나가.(거기 가서

37) '아다치'는 도쿄도(東京都)의 23개 구 중의 하나인 아다치구(足立区)를 말한다. 도쿄 북동부에 위치해 있다.
38) '아라카와'는 도쿄도(東京都)의 23개 구 중의 하나인 아라카와쿠(荒川区)를 말한다.
39) '아사쿠사'는 도쿄도(東京都)의 다이토쿠(台東区)에 있는 한 지역 이름이다.
40) '유센지'는 기후현(岐阜県)의 미노가모시(美濃加茂市)에 있는 한 지역 이름이다.
41) '미카와시마'는 도쿄도(東京都)의 아라카와쿠(荒川区)에 있는 한 지역 이름이다.
42) '니시하라(西原)'는 일본의 지명이다.

집 사서 가서, 이층집 사서 가서 거기서. 유센지에서 아기 하나 낳고, 아들 하나 낳고 또 이제 거기 가서 딸 하나 났어. 이제 그렇게 저렇게 해가니까 내가.)

102001 @ 결혼을 언제 헌 거라?(결혼을 언제 한 거야?)

102001 #1 으?(으?)

102001 @ 결혼을? 스물한 살에 동경?(결혼을? 스물한 살에 동경?)

102001 #1 아, 스물두 설에. 스물두 설에, 스물흔 설에 간에 스물두 설에 허연 스물두 설에 아덜 난 거라.(아, 스물두 살에. 스물두 살에, 스물한 살에 가서 스물두 살에 해서 스물두 살에 아들 낳은 거야.)

102001 @ 예.(예.)

102001 #1 경허연.(그래서.)

102001 @ 동경서 누게 소개시켜 주난 만난 거?(동경에서 누가 소개시켜 주니까 만난 거?)

102001 #1 으?(으?)

102001 @ 동경에서 소개시켜 주난 만난 거?(동경에서 소개시켜 주니까 만난 거?)

102001 #1 어, 어. 소개. 고내 사름덜 집이 강 일허고 이제 고내 사름덜이 소개시킨 거라.(어, 어. 소개. 고내 사람들 집에 가서 일하고 이제 고내 사람들이 소개시킨 거야.)

102001 @ 으.(으.)

102001 #1 경헨 만낭 살멍 허연, 이젠 아다치구엔 헌 디 니시하라 아다치구엔 헌 디 강 이젠 그디 간에 집을 상 갓주게. 쪼금 돈 벌어지난. 집을 이층집 헨 상 간. 산 가난 다 피난덜 헤 불렌 허는 거라, 이녁 고향에 다.(그래서 만나서 살면서 해서, 이젠 아다치구라고 하는 데 니시하라 아다치구라고 하는 데 가서 이젠 거기 가서 집을 사서 갔지. 조금 돈 버니까. 집을 이층집 해서 사서 갔어. 사서 가니까 다 피난들 해 버리리라고 하는 거야, 자기 고향에 다.)

102001 @ 음.(음.)

102001 #1 고향이 신 사름덜 다 고향에 가렌. 경허고 또 우리 시어머님 뭔 어른이 여기 고내에서 눈을 양짝 다 어둑엉 허난 이제 그 아덜 하나뿐이고 뚤 이디 셔도 뚤은 뭐 내내 둘앙 사니까 못 둘앙 살켄. 와근에 둘앙 살렌. 경허난 이젠 헐 수 엇이 이젠 또 피난덜도 허렌 허고.(고향이 있는 사람들 다 고향에 가라고. 그리고 또 우리 시어머님 된 어른이 여기 고내에서 눈을 양쪽 다 어두워서 하니까 이제 그 아들 하나뿐이고 딸 여기 있어도 딸은 뭐 내내 데리고 사니까 못 데리고 살겠다고. 와서 데리고 살라고. 그러니까 이젠 할 수 없이 이젠 또 피난들도 하라고 하고.)

102001 @ 예.(예.)

102001 #1 게난 집이고 뭣이고 옷이고 뭐, 뭐 집안에 신 거고, 미싱[43] 으덥 채 놘에 막 인부덜 ᄃᆞ령 일허당 그 사름덜은 다 보내두고 미싱덜이고 뭣이고 다 내불

43) '미싱'은 일본어 'ミシン'으로 '재봉틀'을 말한다.

어 뒁 몸뗑이만 온 거라.(그러니까 집이고 뭐고 옷이고 뭐, 뭐 집안에 있는 거고, 재봉틀 여덟 채 놓고 마구 인부들 데리고 일하다가 그 사람들은 다 보내두고 재봉틀들이고 뭐고 다 내버려 두고 몽둥이만 온 거야.)

102001 @ 아이고, 아까워라.(아이고, 아까워라.)

102001 #1 아기 둘. 뭐, 뭐 전부 내 불언 집안에 그냥.(아기 둘. 뭐, 뭐 전부 내버리고 집안에 그냥.)

102001 @ 게난 처음에 갓을 때 고내 사람 집이서 가방 만드는 디, 거기서 일허단 계속 그런 가방 종류 만드는 일 헷수과?(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 고내 사람 집에서 가방 만드는 데, 거기서 일하다가 계속 그런 가방 종류 만드는 일 했습니까?)

102001 #1 예, 그런 가방 종류, 일 우리가 시작허연에 헷주게.(예, 그런 가방 종류, 일 우리가 시작해서 했지.)

102001 @ 아, 시작헌 거 언제 시작헌 거라?(아, 시작한 거 언제 시작한 거야?)

102001 #1 시작험을 나가 스물니 설에 시작헷주게.(시작하기를 내가 스물네 살에 시작했지.)

102001 @ 아, 스물네 살에 일 시작헌 거라예?(아, 스물네 사에 일 시작한 거요?)

102001 #1 으, 스물네 설에.(으, 스물네 살에.)

102001 @ 미싱 들여놩예?(재봉틀 들여놓고요?)

102001 #1 으, 미싱 들여놩. 난 아기덜 때문에 일 안 허고 그냥 심부름이나 허고 밥이나 헹 멕이곡 인부덜 미싱 읏덥, 읏덥 채. 또 인부도 읏덥, 또 그디 아랫일 시따바리[44] 허는 사름덜 멧 사름 있고.(으, 재봉틀 들여놓고. 난 아기들 때문에 일 안 하고 그냥 심부름이나 하고 밥이나 해서 먹이고 인부들 재봉틀 여덟, 여덟 채. 또 인부도 여덟, 또 거기 아랫일 밑에서 도와주는 일 하는 사람들 몇 사람 있고.)

102001 @ 크게 헤신게, 여덟이면?(크게 했네요, 여덟이면?)

102001 #1 크게게. 막 집이 크게, 큰 집 상 강. 경헌디 그거 그냥, 다 피난덜 허렌 허고 또 이디서도 제기 오렌 허고 허난에 겐 와 불엇주. 스물다섯에 들어와 불엇주게.(크게. 아주 집에서 크게, 큰 집 사고 가서. 그런데 그거 그냥, 다 피난들 하라고 하고 또 여기서도 재게 오라고 하고 하니까 그래서 와 버렸지. 스물다섯에 들어와 버렸지.)

102001 @ 게민 스물다섯이 우리 해방뒈기 전 해?(그럼 스물다섯에 우리 해방되기 전 해?)

102001 #1 해방뒈는 해, 뒈는 해.(해방되는 해, 되는 해.)

102001 @ 해방뒈는 해.(해방되는 해.)

102001 #1 겐 나 오란 얼마 엇언 시어머님 돌아간.(그래서 내가 와서 얼마 없어서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어.)

102001 @ 돌아가시고.(돌아가시고.)

---

44) '시따바리'는 일본어 'したばり'로 어떤 일을 할 때 밑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102001 #1 겨난 해방뒈영 돌아가난 막 각처에서 막 친촉덜이고 아는 사름덜이고, 묻을 때엔 다 모인 거라. 경헨 그냥 묻을 때는 엿날 모냥으로 **덜 치고 ᄆᆞ음냥 막 그냥 헤준 거라.(그러니까 해방돼서 돌아가시니까 아주 각처에서 마구 친척들이고 아는 사람들이고, 묻을 때엔 다 모인 거야. 그래서 그냥 묻을 때는 옛날 모양으로 **들 치고 마음대로 막 그냥 해준 거야.)

102001 @ 게난 그때 들어올 때 신랑도 ᄀᆞ찌?(그러니까 그때 들어올 때 신랑도 같이?)

102001 #1 ᄀᆞ찌, ᄀᆞ찌.(같이, 같이.)

102001 @ ᄀᆞ찌 들어오고?(같이 들어오고?)

102001 #1 아기 둘 ᄃᆞᆯ고. 팔월덜에 난 아이 헨에 뒷해 삼월덜에 들어완. 돌 전이 들어오난.(아기 둘 데리고. 팔월에 낳은 아이 해서 뒷해 삼월에 들어왔어. 돌 전에 들어오니까.)

102001 @ 게난 동경에서 제주도 오젠 허난 어떵 헹 온 거라?(그러니까 동경에서 제주도 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온 거야?)

102001 #1 동경에서 제주도 올 때에는 게메, 우리가 이젠 아기 둘 ᄃᆞᆯ고 그자 입은 바랑에 대판까지 이젠 차로 왓주게. 그디 무신 차, 기차로.(동경에서 제주도 올 때에는 글쎄, 우리가 이젠 아기 둘 데리고 그저 입은 바람에 대판까지 이젠 차로 왔지. 거기 무슨 차, 기차로.)

102001 @ 음.(음.)

102001 #1 와 놘, 대판 오란 이제 배로 왓주게.(와 놓고, 대판 와서 이제 배로 왔지.)

102001 @ 배로.(배로.)

102001 #1 군대환으로.(군대환으로.)

102001 @ 게난 집이 뭣덜 가져오지도 못허고?(그러니까 집의 뭣들 가져오지도 못하고?)

102001 #1 아무것도.(아무것도.)

102001 @ 아무것도.(아무것도.)

102001 #1 빈 몸뎅이로 완. 돈 쪼꼼 헌 것만 허리에 찬 완. 경헨 그걸로 이딘 아니고 저 우이 올라간 쪼그만 집 시누이ᄀᆞ라 상 놔둠서 허난 상 놔두난 그디 들어갓주. 헤끄만헌 삼칸집.(빈 몸둥이로 왔어. 돈 조금 한 것만 허리에 차서 왔어. 그래서 그걸로 여긴 아니고 저 위에 올라가서 조그만 집 시누이에게 사서 놔두라고 하니까 사서 놔두니까 거기 들어갔지. 자그마한 삼간집.)

102001 @ 삼칸집.(삼간집.)

102001 #1 으, 겐 그디 오란 살안. 그디 완 아이덜토 닛이나 낳고 허연 그럭저럭 허단 여기에 온 지가 거즘 육십 년, 오십팔 년이니까.(으, 그래서 거기 와서 살았어. 거기 와서 아이들도 넷이나 낳고 해서 그럭저럭 하다가 여기에 온 지가 거의 육십 년, 오십 팔 년이니까.)

102001 @ 경 장례도 치루고 헹 신랑은 언제 또 일본 가 불엇수과?(그렇게 장례도 치르고 해서 신랑은 언제 또 일본 가 버렸습니까?)

102001 #1 신랑은 경허난 이디 오란 일본 살아나고, 또 신랑도 막 몸도 약허고 병이 하, 몸에. 막 엇은 병이 엇은 사름. 겨난 여기 와도 무신 밧딧일도 잘 못허고 그럭저럭, 그럭저럭 허멍 살안, 살단에 이젠 암만, 암만헤도 이디서 살지 못허염직허난 게난 밀항으로 갓주기. 술쩨기 곱안.(신랑은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일본 살았었고, 또 신랑도 아주 몸도 약하고 병이 많아, 몸에. 아주 없는 병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와도 무슨 밭엣일도 잘 못하고 그럭저럭, 그럭저럭 하면서 살았어, 살다가 이젠 아무리, 아무래도 여기서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밀항으로 갔지. 살짝 숨어서.)

102001 @ 게난 몇 살에?(그러니까 몇 살에?)

102001 #1 곱안 허난 이제 나보다 일곱 설 우이주게.(숨어서 하니까 이제 나보다 일곱 살 위지.)

102001 @ 예.(예.)

102001 #1 일곱 설 우인디 나가 또 마흔일곱 설엔가, 마흔일곱 설에 허난에 쉰멧 살에 나간.(일곱 살 위인데 내가 또 마흔일곱 살인가, 마흔일곱 살에 하니까 쉰몇 살에 나갔어.)

102001 @ 아, 게민 막 한창 후에구나? 육이오 전쟁도 끝낭 막 후엔게?(아, 그럼 아주 한창 후구나? 육이오 전쟁도 끝나서 아주 후네요?)

102001 #1 끝난 후에.(끝난 후에.)

102001 @ 끝난 후에?(끝난 후에?)

102001 #1 으, 이디서 막 고생은 고생 거치 헤 놘, 헤 놘 곱안 나간 거라.(으, 여기서 아주 고생은 고생 같이 해 놓고, 해 놓고 숨어서 나간 거야.)

102001 @ 아.(아.)

102001 #1 증명덜 허지 못 허난.(증명들 하지 못하니까.)

102001 @ 그때 밀항으로?(그때 밀항으로?)

102001 #1 밀항으로. 일본까지 곱안 간 거라. 이디서 곱안.(밀항으로. 일본까지 숨어서 간 거야. 여기서 숨어서.)

102001 @ 곱안예?(숨어서요?)

102001 #1 이디서 곱안. 경허난 이제 또 우리가 막 어렵게 살아지고 허니까 아방[45]이 허는 말이 아덜덜은 중흑꺼지베끼 못 시킬 거고 뚤은 국민흑교, 더 이상 못 시키켄 허연. 경허난 경 헐 걸로 허연 뚤, 아덜 이젠 중흑 나오니까 아덜을 문첨 보내서.(여기서 숨어서.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가 아주 어렵게 살고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들은 중학교까지밖에 못 시킬 거고 딸은 국민학교, 더 이상 못 시키겠다고 해. 그래서 그렇게 할 거로 해서 딸, 아들 이제 중학교 나오니까 아들을 먼저 보내서.)

45) '아방'은 '아버지'를 말하나 여기에서는 자기 '남편'을 가리킨다.

102001 @ 일본으로?(일본으로?)

102001 #1 으, 그디 또 증명혜근에 일본 사는 사름, 갓닥 왓닥 허는 사름덜이 잇엇주게. 안내자, 오랑덜 사름덜 안내혜영 ᄃᆞ려가고 허는 사름덜이.(으, 거기 또 증명해서 일본 사는 사람,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안내자, 와서들 사람들 안내해서 데려가고 하는 사람들이.)

102001 @ 으.(으.)

102001 #1 게난 그 사름덜이 막, 그때는 일본서 일헐 사름이 막 딸려 노난 일은 하고.(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그때는 일본서 일할 사람이 아주 달려 놓으니까 일은 많고.)

102001 @ 으.(으.)

102001 #1 겨난 가이도 열일곱 설인디 왕 ᄃᆞ려가. ᄃᆞ려가고 똘도 이제 국민혹교 졸업 마트난 열 멧 설인디 열시 설가 열네 설. 그때에 이제 그 이상 더 못 헌덴 허니까 이젠 헐 수 엇이 이젠 부산 식당에 아는 사름 식당에 보내연 그디 살암시난, 또 일본 고내 사름덜이 갓닥 왓닥 허는 사름덜이 또 데려가서 가이를.(그러니까 걔도 열일곱 살인데 와서 데려가. 데려가고 딸은 이제 초등학교 졸업 맡으니까 열 몇 살인데 열세 살인가 열네 살. 그때에 이제 그 이상 더 못 한다고 하니까 이젠 할 수 없이 이젠 부산 식당에 아는 사람 식당에 보내서 거기 살고 있으니까, 또 일본 고내 사람들이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또 데려가서 걔를.)

102001 @ 아.(아.)

102001 #1 부산으로 간. 경허영 또 오누이가.(부산으로 가서. 그래서 또 오누이가.)

102001 @ 아방신디예?(아버지에게요?)

102001 #1 아방은 아까 헷주만은 아방은 말짜 간. 게난 가네들이 ᄆᆞᆫ첨 간.(아버진 아까 했지만 아버지는 말째 갔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먼저 갔어.)

102001 @ 아, 아방이 말째 간 거?(아, 아버지가 말째 간 거?)

102001 #1 말짜에 간, 말짜에. 아이덜 둘 다 보내 뒨.(말째에 갔어. 말째에. 아이들 둘 다 보내 뒀어.)

102001 @ 아.(아.)

102001 #1 일 년 아덜 간 일년 뒈난 똘 간 그 다음에 아방 간.(일 년 아들 가서 일 년 되니까 딸 가서 그 다음에 아버지 갔어.)

102001 @ 아, 기과?(아, 그렇습니까?)

102001 #1 으.(으.)

102001 @ 게민 아덜 강 어디에 의지헹 살아서?(그럼 아들 가서 어디에 의지해서 살았어?)

102001 #1 그디 우리 오촌 조케가 셔난.(거기 우리 오촌 조카가 있었어.)

102001 @ 그 동경 간 거과?(그 동경 간 겁니까?)

102001 #1 동경, 동경. 동경더레 바로 간. 오촌 조케가 데려간.(동경, 동경. 동경

으로 바로 갔어. 오촌 조카가 데려갔어.)

102001 @ 아.(아.)

102001 #1 겐 그디 강 살멍. 그디 가믄 금방 일은, 헐 일은 나오는 거라. 돈은 벌게 뒌 거.(그래서 거기 가서 살면서. 거기 가면 금방 일은, 할 일은 나오는 거야. 돈은 벌게 된 거.)

102001 @ 그니까예. 거기는 일손이 딸리난?(그러니까요. 거기는 일손이 달리니까?)

102001 #1 으, 막 딸리난. 경헨덜 거기서 장게가고 시집가고 살단덜 이제 다 이녁 갈 디덜 가 불엇주만은.(으, 아주 달리니까. 그래서 거기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살다 이제 다 자기 갈 데들 가 버렸지만.)

102001 @ 겐 그민 아덜 하나랑 딸 하나는 아예 일본 강 자리 잡앙 거기서 시집가고 결혼헌 거?(그래서 그럼 아들 하나와 딸 하나는 아예 일본 가서 자리 잡고 거기서 시집가고 결혼한 거?)

102001 #1 으게, 그디서 증명허곡.(으, 거기서 증명하고.)

102001 @ 증명허고.(증명하고.)

102001 #1 증명허고 그디서 시집가고 장개가고 허연 살단. 아기덜토 다 낳고.(증명하고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서 살다가. 아기들도 다 낳고.)

102001 @ 게민 아방도 그쪽으로 간 것과?(그럼 아버지도 그쪽으로 간 겁니까?)

102001 #1 그 다음에 아방도 밀항으로 간 거라.(그 다음에 아버지도 밀항으로 간 거야.)

102001 @ 아덜, 뚤 이신 디?(아들, 딸 있는 데?)

102001 #1 으, 이시난. 그 엿날에 살아나고 허난게.(으, 있으니까. 그 옛날에 살았었고 하니까.)

102001 @ 음.(음.)

102001 #1 엿날에 살아나난 뭐 일본말도 잘 알고 또 뭐 그 질도 잘 알고. 게난 감만 허민 일은 얼마든지 헐 거난.(옛날에 살았으니까 뭐 일본말도 잘 알고 또 뭐 그 길도 잘 알고.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일은 얼마든지 할 거니까.)

102001 @ 음.(음.)

102001 #1 경헌디 몸이 약헤여근에 잘 허지 못 허여근에 허여도 헐 수 엇이게 여기서 거치 쎈 일이 아니니까. 일은 한걸헤 일본은. 경허난 간 살멍 그자 거기서 아이덜이영 아덜네영 ᄀᆞ치 살멍.(그런데 몸이 약해서 잘 하지 못 해서 해도 할 수 없이 여기서 같이 센 일이 아니니까. 일은 한가해 일본은. 그러니까 가서 살면서 그저 거기서 아이들과 아들과 같이 살면서.)

102001 @ 음.(음.)

102001 #1 경허단 혈압으로 쓰러젼.(그러다가 혈압으로 쓰러졌어.)

102001 @ 게민 일본에서 돌아가신 거.(그럼 일본에서 돌아가신 거.)

102001 #1 으, 경허연 일본서 흔 이십 년 사난 나가 이젠 박람회[46] 때에, 박람

회 때엔 이제 단체 증명을 허연 오렌 헌 거라.(으, 그래서 일본에서 한 이십 년 사니까 내가 이젠 박람회 때에, 박람회 때에 이제 단체 증명을 해서 오라고 한 거야.)

102001 @ 예. 일본 박람회 때?(예. 일본 박람회 때?)

102001 #1 으, 질 처음에 박람회 때. 제주도에서 일곱 사름 간. 그 증명덜 받안 이.(으, 제일 처음에 박람회 때. 제주도에서 일곱 사람 갔어. 그 증명들 받아서.)

102001 @ 예, 예.(예, 예.)

102001 #1 이 제주도에서 경헨 일곱 사름이 나간 서울 간 이틀 동안 무시것고?(이 제주도에서 그래서 일곱 사람이 나가서 서울 가서 이틀 동안 무엇이지?)

102001 @ 교육 받고?(교육 받고?)

102001 #1 으, 교육 받고.(으, 교육 받고.)

102001 @ 반공 교육. 북한 사름이랑 만나면 안 뒌다?(반공 교육. 북한 사람과 만나면 안 된다?)

102001 #1 으, 으. 뭐 볼펜 하나도 받지 말라. 수건 하나도 받지 말라. 뭐 이틀가 사흘 받앗어.(으, 으. 뭐 볼펜 하나도 받지 말라. 수건 하나도 받지 말라. 뭐 이틀인가 사흘 받았어.)

102001 @ 하하.(하하.)

102001 #1 경헨 받안 나간에 이십 년 만에 하르방[47]도 만나고 아기덜토 만나고 거기 강.(그래서 받아서 나가서 이십 년 만에 할아버지도 만나고 아기들도 만나고 거기 가서.)

102001 @ 아이고, 이십 년 만에.(아이고, 이십 년 만에.)

102001 #1 겐디 흔 스무나흘 살앗주만은 스무나흘 살아도 간 살아진 것 닮지 안 허연 오난 너무 섭섭허고 경헨게. 경헨 갓다 완 난 이디서 또 생활허고 이젠 또, 하르방은 또 이젠 일본서 사는 디, 여기서 그냥 굶주리멍 살고 몸에 병 싯고 허니까 막 몸이 홀쭉헤낫주게. 경헤난디 거기 강 하도 잘 먹어 노난 몸이 뚱뚱헤져서.(그런데 한 스무나흘 살았지만 스무나흘 살아도 가서 산 거 같지 않아서 오니까 너무 섭섭하고 그랬어. 그래서 갔다 와서 난 여기서 또 생활하고 이젠 또 할아버지는 또 이제 일본에서 사는 데, 여기서 그냥 굶주리면서 살고 몸에 병 있고 하니까 아주 몸이 홀쭉했었어. 그랬었는데 거기 가서 너무 잘 먹어 놓으니까 몸이 뚱뚱해져서.)

102001 @ 하하.(하하.)

102001 #1 경헤부난 혈압이 올라 분 거라. 혈압이 올라 부난 이젠 멧 년 엇언 흔 오십구 세, 팔세 뒈가난 멧 번 두 번 쯤 쓰러젼. 경헤도 큰 뭘 안 헌디 육십하나 나는 헤엔 여기 들어온 거라.(그러니까 혈압이 올라 버린 거야. 혈압이 올라 버리니까 이젠 몇 년 없어서 한 오십구 세, 팔 세 되가니까 몇 번 두 번 쓰러졌어. 그래도 큰 뭘 안 했는데 육십하나 되는 해에 여기 들어온 거야.)

---

46) '박람회'는 1970년 3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었던 '일본 만국 박람회'를 말한다.
47) '하르방'은 표준어로 '할아버지'다. 여기서는 남편을 가리킨다.

102001 @ 으.(으.)

102001 #1 여행으로. 메칠을 완 살단 가켄. 겐 들어완에 이젠 공기도 좋고. 그땐 또 여기 들어와도 아이덜이 대학도 다니고 그 일분서 살아가난 이디 신 아이덜은 대학도 허고.(여행으로. 며칠을 와서 살다가 가겠다고. 그래서 들어와서 이젠 공기도 좋고. 그땐 또 여기 들어와도 아이들이 대학도 다니고 그 일본에서 살아가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은 대학도 하고.)

102001 @ 공부시켜 줬구나.(공부시켜 줬구나.)

102001 #1 으, 뚤도 이제 우리 족은뚤이 이제 예순으섯이주만은 머리가 원체 좋안 오일육 장학생으로만 죽장 헷주게. 고등학교 들어가난 오일육 장학생으로만 허연. 경헤연 허게 뒈난 이제 교육대 들어간 허게 뒈고.(으, 딸도 이제 우리 작은딸이 이제 예순여섯이지만 머리가 원체 좋아서 오일육 장학생으로만 늘 했지.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오일육 장학생으로만 했어. 그래서 하게 되니까 이제 교육대 들어가서 하게 되고.)

102001 @ 으.(으.)

102001 #1 또 아덜도 이제 저 이제 어디 뎅기는, 이제 퉤직헷주기만은 저, 저 어디 뎅기는, 도청에.(또 아들도 이제 저 이제 어디 다니는, 이제 퇴직했지만 저, 저 어디 다니는, 도청에.)

102001 @ 축산 허는.(축산 하는.)

102001 #1 국장꺼지 올라간 경허난 퉤직허연 이제 축산에 들어간 허는 디, 그 아덜도 이젠 한참 대학 허게 뒈고. 오란 보니까 돈은 하영 들게 뭰 거라. 여기선 돈을 날 일이 엇어. 게도 이디서 살아보난 하도 공기 좋고 가긴 실펀.(국장까지 올라가서 그러니까 퇴직해서 이제 축산에 들어가서 하는 데, 그 아들도 이젠 한참 대학하게 되고. 와서 보니까 돈은 많이 들게 된 거야. 여기선 돈을 날 일이 없어. 그래도 여기서 살아보니까 너무 공기 좋고 가긴 싫어.)

102001 @ 하.(하.)

102001 #1 육십하나에.(육십하나에.)

102001 @ 육십하나.(육십하나.)

102001 #1 환갑에.(환갑에.)

102001 @ 으.(으.)

102001 #1 겐 가기 실펑 여기서 그럭저럭 늦췻주게. 증명을 두 달 증명을 헤 온디 넉 덜을 살아서. 스월덜에 오란 구월덜에 가신가?(그래서 가기 싫어서 여기서 그럭저럭 늦췄지. 증명을 두 달 증명을 해 왔는데 넉 달을 살았어. 사월에 와서 구월에 갔나?)

102001 @ 아.(아.)

102001 #1 스월덜에 오란 구월덜꺼지 늦추완 산디, 간에 이젠 혼 석 덜쯤 일허단 일헤가난 팍 쓰러젼. 이제 닐모리 제사라.(사월에 와서 구월까지 늦춰서 살았는데, 가서 이젠 한 석 달쯤 일하다가 일해가니까 팍 쓰러졌어. 이제 낼모레 제사야.)

102001 @ 아.(아.)

102001 #1 십일 월 이십팔 일에 오꼿 돌아가 불언.(십일 월 이십팔 일에 그만 돌아가 버렸어.)

102001 @ 여기 왕 넉 덜 살고 강, 아이고게.(여기 와서 넉 달 살고 가서, 아이고.)

102001 #1 여기 온 때 마침 여로[48]엔 헌 거 헐 때라. 엿날에 막 유명헌 그 테레비.(여기 왔을 때 마침 여로라고 하는 거 할 때야. 옛날에 아주 유명한 그 텔레비전.)

102001 @ 드라마.(드라마.)

102001 #1 그거 오랑 메날 보고. 어디 놀레 갓당 들어왕 보곡 허멍 참 재미나덴 허단 간게만은 경헨. 일본 강 넉 덜 살안. 넉 덜도 못 살앗구나. 구월덜에 강 십일월덜에. 이디 오란 넉 덜 살고 일본 간 석 덜 살고 헨 돌아간. 게난 일본서 이젠 장례 지내고.(그거 와서 만날 보고. 어디 놀러 갔다가 들어와서 보고 하면서 참 재미있다고 하다가 가더니만 그랬어. 일본 가서 넉 달 살았어. 넉 달도 못 살았구나. 구월에 가서 십일월에. 여기 와서 넉 달 살고 일본 가서 석 달 살고 해서 돌아갔어.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젠 장례 지내고.)

102001 @ 예.(예.)

102001 #1 여기 오란 모시고, 돌아단.(여기 와서 모시고, 데려다가.)

102001 @ 아, 게난 묻기는 여기 묻고?(아, 그러니까 묻기는 여기 묻고?)

102001 #1 으, 여기 오란 묻언.(으, 여기 와서 묻었어.)

102001 @ 으.(으.)

102001 #1 경헤연 이젠.(그래서 이젠.)

102001 @ 게민 일본 간 큰 자식이 둘이라예. 여기서 큰 자식이 멧 명?(그럼 일본 가서 큰 자식이 둘이지요. 여기서 큰 자식이 몇 명?)

102001 #1 네 명.(네 명.)

102001 @ 게난 일본 강 돈 벌멍 학비덜은 다 대 준 거?(그러니까 일본 가서 돈 벌면서 학비들은 다 대 준 거?)

102001 #1 어게. 글후에 이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는 다 헷주게.(어. 그 후에 이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는 다 했지.)

102001 @ 예.(예.)

102001 #1 그 전이는 얼마 경 들진 안헷주만은. (그 전에는 얼마 그렇게 들진 않았지만.)

102001 @ 으.(으.)

102001 #1 중학교, 첨 고등학교부터는 일본서 대 줫주게. 넷, 넷 경헨 다 이제 결혼꺼지 다 허여 놓고 이 막내 사고로 가 불고. 여기서.(중학교, 첨 고등학교부터는 일본에서 대 줬지. 넷, 넷 그래서 다 이제 결혼까지 다 해 놓고 이 막내 사고로

48) '여로'는 1972년 4월에서 9월까지 방송되었던 드라마 제목이다.

가 버리고. 여기서.)

102001 @ 게난 저기 여기서 어머니는 그냥 농서만 지엇던 거라?(그러니까 저기 여기서 어머니는 그냥 농사만 지었던 거야?)

102001 #1 농사만 짓고. 농서도 짓고 소소헌 장서도 ᄒᆞ꼼 헤 봔.(농사만 짓고. 농사도 짓고 소소한 장사도 조금 해 봤어.)

102001 @ 어떤 장서덜 헷수과?(어떤 장사들 했습니까?)

102001 #1 소소헌 거는 뭐 고기 장서도 헤 보고 무신 옷 장서도 헤 보고, 뭐 쏠 장시도 헤 보고, 그자 만이 경 오래 허지는 안헤도 지연 뎅기멍 ᄑᆞ는 거.(소소한 거는 뭐 고기 장사도 해 보고 무슨 옷 장사도 해 보고, 뭐 쌀장사도 해 보고, 그저 많이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아도 지고 다니면서 파는 거.)

102001 @ 지영 뎅기멍?(지고 다니면서?)

102001 #1 으.(으.)

102001 @ 오일장에도 강 ᄑᆞ는 거 아니?(오일장에도 가서 파는 거 아니?)

102001 #1 오일장에도 간 풀고, 여기서 꿰 열 말씩 지엉 시에도 걸언 가 오고.(오일장에도 가서 팔고, 여기서 깨 열 말씩 져서 시에도 걸어서 갔다 오고.)

102001 @ 으.(으.)

102001 #1 고기도 이디서 이제.(고기도 여기서 이제.)

102001 @ 고기는 생선, 물고기?(고기는 생선, 물고기?)

102001 #1 생선, 북바리 거튼 거.(생선, 붉바리 같은 거.)

102001 @ 북바리.(붉바리.)

102001 #1 저 벤자리 그런 거 여름에 경헨 지영 강 풀고.(저 벤자리 그런 거 여름에 그렇게 지고 가서 팔고.)

102003 @ 지영 간 풀고예, 경헨 산 거라. 게난 부모님은 원래가 외도인 것과? 어머님, 아버님?(지고 가서 팔고요, 그렇게 산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은 원래가 외도인 겁니까?)

102003 #1 동귀[49].(동귀.)

102003 @ 아, 동귀, 동귀.(아, 동귀, 동귀.)

102003 #1 원래가. 아, 원래. 원래가 저 어머님은 신엄[50].(원래가. 아, 원래. 원래가 저 어머님은 신엄.)

102003 @ 신엄. 아버지는 동귀?(신엄. 아버지는 동귀?)

102003 #1 원래가 동귀.(원래가 동귀.)

102002 @ 동귀예. 게난 부모님들은 아까 아버지는 바당 강?(동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아까 아버지는 바다 가서?)

102002 #1 으, 허단 허단 그냥.(으, 하다가 하다가 그냥.)

102002 @ 어머님도 해녀 허고?(어머님도 해녀 하고?)

---

49) '동귀'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의 동쪽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이다.

50) '신엄'은 제주시 애월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인 '신엄리'를 말한다.

102002 #1 으, 해녀 허고.(으, 해녀 하고.)

102002 @ 게민 농사도 짓고?(그럼 농사도 짓고?)

102002 #1 농사도 짓고.(농사도 짓고.)

102002 @ 그 일도.(그 일도.)

102002 #1 으, 으. 경허난 뭐 트멍이 엇엉 막.(으, 으. 그러니까 뭐 틈이 없어서 마구.)

102002 @ 으.(으.)

102002 #1 바빤.(바빴어.)

102002 @ 어렸을 때 막 소 보레도 다니고?(어렸을 때 많이 소 보러도 다니고?)

102002 #1 몰 보레도 뎅기고.(말 보러도 다니고.)

102002 @ 몰 보레도 다니고 촐도 헹 오고.(말 보러도 다니고 꼴도 해 오고.)

102002 #1 으.(으.)

102004 @ 헤신디 영 동생덜토 잇엇지만 놀기도 헤신 거 아니?(했는데 이렇게 동생들도 있었지만 놀기도 한 거 아니?)

102004 #1 노는 시간이 엇어.(노는 시간이 없어.)

102004 @ 아, 놀 시간이 엇어. 하하하.(아, 놀 시간이 없어. 하하하.)

102004 #1 하이고, 노는 시간이 엇어. 나는 또 성질이 추분허니까 집안에 일허고 밧딧일. 우리 또 두 설 밑에 동생은 성질이 왈왈 왈왈 허영 이 즘상허는[51] 집안일을 못 허니까 가이는 밖에서 영 물도 질어오고.(하이고, 노는 시간이 없어. 나는 또 성질이 차분하니까 집안에 일하고 밭엣일. 우리 또 두 살 밑에 동생은 성질이 왈왈 왈왈 해서 이 꼼꼼한 집안일을 못 하니까 걔는 밖에서 이렇게 물도 길어오고.)

102004 @ 으.(으.)

102004 #1 또 놀레도 다니고 무시거 허고 헤난 그 기억이 잇어.(또 놀러도 다니고 무엇 하고 했던 그 기억이 있어.)

102004 @ 게난 뭐 곱을락이라든지 바닷가 가서 조개잡고 그런 거?(그러니까 뭐 숨바꼭질이라든지 바닷가 가서 조개잡고 그런 거?)

102001 #1 아, 그런 것사 소소헌 거 헷지만은 우리 그 어린 때는 모자엔 헌 거 줄아낫주게, 모자.(아, 그런 거야 소소한 거 했지만 우리 그 어린 때는 모자라고 하는 거 결었었지, 모자.)

102001 @ 총?(총?)

102001 #1 총으로.(총으로.)

102001 @ 양태 줄아낫수과?(양태 결었었습니까?)

102001 #1 양탠 아니고 우리 모자 꼴 헤영 모자.(양탠 아니고 우리 모자 왕골 해서 모자.)

102001 @ 모자 줄아난?(모자 결었었어?)

102001 #1 으, 모자덜 줄아난. 흔 예닐곱 설 뒈난 그 밤이덜 그, 낮인 헐 시간

51) '즘상허다'는 사리를 헤아림이 꼼꼼하고 자세하다는 의미다.

엇고.(으, 모자들 결었어. 한 예닐곱 살 되니까 그 밤에들 그, 낮엔 할 시간 없고.)

102001 @ 예, 예.(예, 예.)

102001 #1 밤이 그 무신 촛불도 쌍 헤 봑, 지름불도 쌍 헤 봑.(밤에 그 무슨 촛불도 켜서 해 보고, 기름불도 켜서 해 보고.)

102001 @ 게민 모자 ᄌᆞ는 거는 뭘로 가지고 ᄌᆞ는 거?(그럼 모자 겯는 거는 뭐로 가지고 겯는 거?)

102001 #1 ᄆᆞᆯ총.(말총)

102001 @ ᄆᆞᆯ총으로예. 그럼 갓, 갓?(말총으로요. 그럼 갓, 갓?)

102001 #1 갓. 갓에 이디.(갓. 갓에 여기.)

102001 @ 우에 거예?(위에 거요?)

102001 #1 으. 양태는 영, 영 망.(으. 양태는 이렇게, 이렇게 망.)

102001 @ 망이고?(망이고?)

102001 #1 아니, 둘레.(아니, 둘레.)

102001 @ 둘레이고 이디, 이 부분?(둘레이고 여기, 이 부분?)

102001 #1 으, 으. 모자는 이런 꼭다리에 거.(으, 으. 모자는 이런 꼭대기에 거.)

102001 @ 아, 모자 ᄌᆞ는 거 헤낫구나.(아, 모자 겯는 거 했었구나.)

102001 #1 으, 으. 우리 그런, 그런 건. 모자 꼴 헤근에 그런 건 줄아난. 그런 거 헤낫어.(으, 으. 우리 그런, 그런 건. 모자 왕골 해서 그런 건 결었었어. 그런 거 했었어.)

102001 @ 아. 줄아난 거예? 그거 동귀에서가 그런 일들 막 하영 헷수과?(아. 결었던 거요? 그거 동귀에서가 그런 일들 아주 많이 했습니까?)

102001 #1 하영 헤연. 동귀에선 그런 모자.(많이 했어. 동귀에서 그런 모자.)

102001 @ 아, 게민 양태랑 모자 부찌는 거는 어디서 헤낫수과?(아, 그럼 양태랑 모자 붙이는 거는 어디서 했었습니까?)

102001 #1 이, 이 서촌[52]더레 헤나실 거라.(이, 이 '서촌'으로 했었을 거야.)

102001 @ 서촌더레.('서촌'으로.)

102001 #1 으.(으.)

102001 @ 게민 지난번에 우리 양태판 사진 찍엇잖아예. 그거 누게가 헤난 것과? 양태판. 저번에 션게?(그럼 지난번에 우리 양태판 사진 찍었잖아요. 그거 누가 했던 겁니까? 양태판. 저번에 있었어?)

102001 #1 그거 우리 시어머님이 헤난 거.(그거 우리 시어머님이 했던 거.)

102001 @ 아, 시어머님이 헤난 거.(아, 시어머님이 했던 거.)

102001 #1 으. 그거 시어머님 물림이주게.(으. 그거 시어머님 물림이지.)

102001 @ 아.(아.)

102001 #1 난 엿날 건 엇어. 나 이디 온 후엔 엇언. 거 시어머님이.(난 옛날 건 없어. 나 여기 온 후엔 없어. 거 시어머님이.)

52) '서촌'은 서쪽 지역에 위치한 마을을 말한다.

102001 @ 아. 기구나, 기구나. 여기 옛날에 일본 군대덜 왕 지내낫잖아?(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기 옛날에 일본 군대들 와서 지냈잖아?)

102001 #1 으.(으.)

102001 @ 해방뒈기 전까진예?(해방되기 전까지요?)

102001 #1 으, 으.(으, 으.)

102005 @ 그때 뭐 공출허고 그런 거 엇어낫수과?(그때 뭐 공출하고 그런 거 없었습니까?)

102005 #1 무사 공출 안 헤서? 공출 헷주기게. 우린 온 후에는 일 년가 이 년베낀 안 헤연. 일본서 오란.(왜 공출 안 했어? 공출 했지. 우린 온 후에는 일 년인가 이 년밖에 안 했어. 일본에서 와서.)

102005 @ 그거 말고 어렸을 때 가기 전에, 일본 가기 전에? 그때도 일본 군인덜이 들어왕 있던 시기잖아?(그거 말고 어렸을 때 가기 전에, 일본 가기 전에? 그때도 일본 군인들이 들어와서 있던 시기잖아?)

102005 #1 나 일본 가기 전에는 그런 공출 거튼 건 엇고.(나 일본 가기 전에는 그런 공출 같은 건 없고.)

102005 @ 예.(예.)

102006 #1 이런 그, 동귀는이 ᄉᆞ삼에 떠드는 사름이 만헤낫주게.(이런 그, 동귀는 사삼에 떠드는 사람이 많았었지.)

102006 @ 예.(예.)

102006 #1 경허난이 그 외도, 이제 도꼬내[53] 외도 거기 그 주재소에서 지서에서, 지서에서 순경덜이 밤이 오랑 무시거 산.(그러니까 그 외도, 이제 도꼬내 외도 거기 그 주재소에서 지서에서, 지서에서 순경들이 밤에 와서 무엇 섰어.)

102006 @ 뭐 보초 서고?(뭐 보초 서고?)

102006 #1 으, 입초 사. 경허난 경허기 때문에 우리 공부도 못 헨게. 야학, 야간도 못 헤서.(으, 입초 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부도 못 했어. 야학, 야간도 못 했어.)

102006 @ 음.(음.)

102006 #1 그런 ᄉᆞ상에 떠들어근에 그런 공부나 헴시카부덴. 오란 마딱 입초 사는 때문에.(그런 사상에 떠들어서 그런 공부나 하고 있을까 봐. 와서 모두 입초 사는 따문에.)

102006 @ 으.(으.)

102006 #1 그런 건 셧주게.(그런 건 있었지.)

102005 @ 게난 막 공출허고 그런 건 엇어낫구나?(그러니까 마구 공출하고 그런 건 없었구나?)

102005 #1 그때는 엇고. 그때는 엇고, 우리 일본에서 온 후에 보난 공출헴선게.(그때는 없고. 그때는 없고, 우리 일본에서 온 후에 보니까 공출하고 있었어.)

53) '도꼬내'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마을 지명의 하나다.

102005 @ 아.(아.)

102005 #1 일본, 일본 신 때부떠덜 헤난. 우리 일본 신 때덜.(일본, 일본 신 때부터들 했었어. 우리 일본 있을 때들.)

102005 @ 아.(아.)

102005 #1 헌디 우리 온 후에 이 년 만엔가 우리 오란 저 멘네.(그런데 우리 우리 온 후에 이 년 만인가 우리 와서 저 면화.)

102005 @ 예.(예.)

102005 #1 멘네도 갈앙 공출허라. 또 무신 뭐, 뭐 감저도 공출허라 또 무시것덜 공출허라 허는디 우리 오란 뒷해엔 끈어져 불언.(면화도 갈아서 공출해라. 또 무슨 뭐, 뭐 고구마도 공출해라 또 무엇들 공출해라 하는데 우리 와서 뒷해엔 끊어져 버렸어.)

102005 @ 아.(아.)

102005 #1 공출허지 말렌.(공출하지 말라고.)

102005 @ 해방됀니까 공출허지 말렌 헌 거지예?(해방되니까 공출하지 말라고 한 거지요?)

102005 #1 어, 어. 해방됀난 공출허진 말렌.(어, 어. 해방되니까 공출하지 말라고.)

102006 @ 게민 사삼은 영 들어왕 겪은 거 아니예? 사십팔 년도난.(그럼 사삼은 이렇게 들어와서 겪은 거 아니요? 사십팔 년도니까.)

102006 #1 들어완, 들어완.(들어왔어, 들어왔어.)

102006 @ 그때 잇어난 일들 골아줍서. 들어왕은 바로 여기로, 고내로 온 거 아니?(그때 있었던 일들 말해주세요. 들어와서는 바로 여기로, 고내로 온 거 아니?)

102006 #1 고내로 완.(고내로 왔어.)

102006 @ 예, 그때 고내 분위기는 어떵헤낫수과, 사삼 일어났을 때?(예, 그때 고내 분위기는 어떠했었습니까, 사삼 일어났을 때?)

102006 #1 군인덜게 이디 일본 군인도 오랑 살아나고.(군인들 여기 일본 군인도 와서 살았었고.)

102006 @ 으.(으.)

102006 #1 일본 군인 우리 저 웃집이 살 때 안거리도 쪼그만허고 밧거리에 방이 하나 잇엇어. 밧거리에 방 하나 허고 저 이문간[54]이엔 헤근에 이문간 하나 방. 그 이문간 하나에 일본 군인이 댓 사람 완 살아도나고.(일본 군인 우리 저 윗집이 살 때 안채도 조그마하고 바깥채에 방이 하나 있었어. 바깥채에 방 하나 하고 저 '이문간'이라고 해서 '이문간' 하나 방. 그 '이문간' 하나에 일본 군인이 댓 사람 와서 살았었고.)

102006 @ 그 전쟁 끝난 해방됀난 그 일본 군인 다 나가 분 거 아니?(그 전쟁 끝나서 해방되니까 그 일본 군인 다 나가 버린 거 아니?)

54) '이문간'은 집 입구의 대문 옆에 있는 집채를 말한다.

102006 #1 나가 분디 그 해방뒈기 전이덜 막 부수 들어와낫주게.(나가 버렸는데 그 해방되기 전에들 아주 많이 들어왔었지.)

102006 @ 아.(아.)

102006 #1 경헌디 우리 밧거리도 오란에 집 빌리렌 헨 그 방에 살아나서.(그런데 우리 바깥채에도 와서 집 빌리라고 해서 그 방에 살았었어.)

102006 @ 살아난?(살었었어?)

102006 #1 으, 오랜 안 살고 잠깐.(으, 오랜 안 살고 잠깐.)

102006 @ 예, 그럼 사삼 때 누게가 막 잡혀가고 경 헤낫수과?(예, 그럼 사삼 때 누가 마구 잡혀가고 그렇게 했었습니까?)

102006 #1 아이고 잡혀 가곡 말곡게. 그때덜사게. 우에서덜 또시 이젠 그 폭도덜게.(아이고 잡혀 가고 말고. 그때들이야. 위에서들 또 이젠 그 폭도들.)

102006 @ 으.(으.)

102006 #1 폭도덜 오랑 밤인 또시 불 부쪄 불고 사름덜 죽여 불고. 총칼로 무신, 무신 칼로 죽이고게.(폭도들 와서 밤엔 또 불 붙여 버리고 사람들 죽여 버리고. 총칼로 무슨, 무슨 칼로 죽이고.)

102006 @ 으, 죽창?(으, 죽창?)

102006 #1 으, 죽창으로 죽이곡 죽창으로 막 찔러 불고. 또 뭐 저 삐라덜 막 놀리곡게.(으, 죽창으로 죽이고 죽창으로 마구 찔러 버리고. 또 뭐 저 삐라들 마구 날리고.)

102006 @ 삐라 날리고.(삐라 날리고.)

102006 #1 놀리곡.(날리고.)

102006 @ 겐 친척들 중에 그것 때문에 피해 입거나 경헌 사름을 엇어?(그래서 친척들 중에 그것 때문에 피해 입거나 그런 사람은 없어?)

102006 #1 우리 친촉은 하진 안허여. 우린 좌씨니까. 이디 좌씨가 우리뿐이주게.(우리 친척은 많진 않아. 우린 좌씨니까. 여기 좌씨가 우리뿐이지.)

102006 @ 좌과?(좌입니까?)

102006 #1 좌가, 우리 시가가 좌가고 난 고가고.(좌가, 우리 시가가 좌가고 난 고가고.)

102006 @ 예.(예.)

102006 #1 시가가 좌가. 저 고산[55], 신창[56]더렌 하도 이 고낸 엇어.(시가가 좌가. 저 고산, 신창으로는 많아도 이 고내는 없어.)

102006 @ 아.(아.)

102006 #1 이제 나 떠나 불민 이디 좌씨 엇어. 아들덜 시에 강 살아 불고.(이제 나 떠나 버리면 여기 좌씨 없어. 아들들 시에 가서 살아 버리고.)

102006 @ 아, 기구나. 좌씨?(아, 그렇구나. 좌씨?)

---

55) '고산'은 제주시 한경면 행정 마을 중 하나인 '고산리'를 말한다.

56) '신창'은 제주시 한경면 행정 마을 중 하나인 '신창리'를 말한다.

102006 #1 으, 좌씨, 좌씨.(으, 좌씨, 좌씨.)

102006 @ 게난 막 그때 피해, 하르부지가 피해 입거나 그런 건 엇어난? 잡혀 가거나?(그러니까 마구 그때 피해, 할아버지가 피해 입거나 그런 거 없었어? 잡혀 가거나?)

102006 #1 아니, 하르부지도 몸 약허고 뭣헤도 죽창 들렁 직허렌 뎅겨낫주게. 직허레 뎅기고 또 혼 번은, 혼 번은 산에선가 이디선가 다 나오믄 무시거 훈련들 시키켄.(아니, 할아버지도 몸 약하고 뭣해도 죽창 들고 지키라고 다녔었지. 지키러 다니고 또 한 번은, 한 번은 산에선가 이디선가 다 나오면 무엇 훈련들 시키겠다고.)

102006 @ 아.(아.)

102006 #1 겐 우리 아기덜 업으멍 영 들어오는디 요디 집 앞이 밧, 쪼그만 헌 밧이 잇어. 백만 원짜리 밧이 잇는디 그 밧디 혼 백 평쯤 뒌 밧디 나오면은 여저고 남저고 아이고 어른이고 다 나오믄 훈련시키켄 허연 겐, 겐 나갓주게게. 나간 허난 저, 저 순경덜, 군인덜이라. 군인덜.(그래서 우리 아기들 업으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기 집 앞에 밭 조그마한 밭이 있어. 백만 원짜리 밭이 있는데 그 밭에 한 백 평쯤 된 밭에 나오면 여자고 남자고 아이고 어른이고 다 나오면 훈련시키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래서 나갔지. 나가서 하니까 저, 저 순경들, 군인들이야. 군인들.)

102006 @ 군인덜이 나오렌 헌 거예?(군인들이 나오라고 한 거요?)

102006 #1 으, 경헨 허난 다 나가난, 아기덜 업으멍 나간디, 아, 그 중에서도 확확 확확 뽑으멍 남자덜만 믄딱 끗어가 부는 거라. 그때 고내에서. 그래 이제 고내에 남저가 엇인 거라. 이 중늙은이덜 다. 이제 살아시믄덜 혼 백 설, 구십 설덜은 낫주만은. 어떵 어떵 허멍 그 사름덜이 그디 간 후로 그럭 저럭 남제가 벨로 엇어.(으, 그렇게 하니까 다 나가니까, 아기들 업으면서 나갔는데, 아, 그 중에서도 확확 확확 뽑으면서 남자들만 모두 끌어가 버리는 거야. 그때 고내에서. 그래 이제 고내에 남자가 없는 거야. 이 중늙은이들 다. 이제 살았으면 한 백 살, 구십 살들은 됐지만.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간 후로 그럭저럭 남자가 별로 없어.)

102006 @ 죽여 분 거라?(죽어 버린 거야?)

102006 #1 경허난 이제 혼 칠팔십 명을 ᄃᆞ랑 가 분 거라. 저 도꼬내[57], 도꼬내 주재소러레.(그러니까 이제 한 칠팔십 명을 데리고 가 버린 거야. 저 도꼬내, 도꼬내 주재소로.)

102006 @ 예.(예.)

102006 #1 훈련시키켄 헤연. 겐 우린 돌아오고 우리 집이 하르방[58]도 가고.(훈련시키겠다고 해서. 그래서 우린 돌아오고 우리 집의 할아버지도 가고.)

102006 @ 예.(예.)

102006 #1 경헨 헌디 한 메칠 동안 소문을 못 듣는 거라.(그렇게 했는데 한 며

57) '도꼬내'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마을 지명의 하나다.
58) '하르방'은 표준어로 '할아버지'다. 여기서는 남편을 가리킨다.

칠 동안 소문을 못 듣는 거야.)

102006 @ 하르방 소문을?(할아버지 소문을?)

102006 #1 아무 소문도 못 들어 고내 사름덜. 겡헨 메칠 뒈니까 그 심어간 중에서도 또 뽑아내언. 저 우이서 사름덜 이름덜. 우이서 오랑 올려간 사름덜, 억지로 올려갓주게게. 이 고낸 산 쪽 부터난 사름 하나토 엇어.(아무 소문도 못 들어 고내 사람들 그래서 며칠 되니까 그 잡아간 중에서 또 뽑아냈어. 저 위에서 사람들 이름들. 위에서 와서 올려간 사람들, 억지로 올려갔지. 이 고낸 산 쪽 붙었던 사람 하나도 없어.)

102006 @ 아.(아.)

102006 #1 혼 사름산디, 두 사름산디.(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102006 @ 게난 산에 있는 사람덜안티 명단 올라간 사름덜만?(그러니까 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단 올라간 사람들만?)

102006 #1 올려간 사름덜만 거기 가난 다 뽑안 죽이켄, 죽여불 걸로. 또 멩단 안 올라간 사름덜은 돌려보내고. 돌려보내고 멩단 올라간 사름덜. 겐디 우리 집이 하르방도 그때 죽이는 더레 가긴 갓어.(올려간 사람들만 거기 가니까 다 뽑아서 죽이겠다고, 죽여버릴 걸로. 또 명단 안 올라간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돌려보내고 명단 올라간 사람들. 그런데 우리 집의 할아버지도 그때 죽이는 쪽으로 가긴 갔어.)

102006 @ 아, 멩단 올라가난?(아, 명단 올라갔었어?)

102006 #1 고내광, 고내광 저 어디 신엄 사이.(고내와, 고내와 저 어디 신엄 사이.)

102006 @ 예, 예.(예, 예.)

102006 #1 아니, 아니. 외도 사이에 연뒤[59]엔 헌 디 거디. 저 외도파출소에 심어갓주기게. 경허난 이젠, 그 눈치는 모르고. 또 우리 집이 하르방은 엿날에 우린, 나영 하르방이영 저 미싱[60], 줍음틀 하나 놘 혹생복덜 수선도 허고 무신 엿날에 미녕옷덜도 헤나고 혹생복덜 헤나서게.(아니, 아니. 외도 사이에 '연뒤'라고 하는 데 거기. 저 외도파출소에 잡아갔었어. 그러니까 이젠, 그 눈치는 모르고. 또 우리 집의 할아버지는 옛날에 우린 나와 할아버지와 저 재봉틀, 재봉틀 하나 놓고 학생복들 수선도 하고 무슨 옛날에 무명옷들도 했었고 학생복들 했었어.)

102006 @ 여기서, 고내에서?(여기서, 고내에서?)

102006 #1 고내서, 저 웃집이서. 경헨 헌디 그때에 그 혹꼼 영, 졸바로 공부도 잘 안 허고 뭣 헤난 사름이라도 혹꼼 눈치도 빠르고 말도 잘허곡 걸걸헌 사름이 셧주기게. 뭐 아방넨 근본은 좋지 안헤도 아덜이 경 웃사름덜광 교제도 잘허고 허는 사름이 셔난디, 우리가 그 사름네영 친헤영 뭐 옷도 헤주고 뭐 허민 그 사름넨 또 우리보단도 못 사니까 공짜로도 헤주고 뭣 헤난디 그 사름이 그 외도 지서에서도 책임을 헌 거라.(고내서, 저 윗집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에 그 조금 이렇게, 제대

59) '연뒤'는 제주시 애월읍 외도리 마을 지명의 하나다.
60) '미싱'은 일본어 'ミシン'으로 '재봉틀'을 말한다.

로 공부도 잘 안 하고 뭣 하니까 사람이라도 조금 눈치도 빠르고 말도 잘하고 걸걸한 사람이 있었지. 뭐 아버지네는 근본은 좋지 않아도 아들이 그렇게 윗사람들과 교제도 잘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과 친해서 뭐 옷도 해주고 뭐 하면 그 사람네는 또 우리보다도 못 사니까 공짜로도 해주고 뭐 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외도 지서에서도 책임을 한 거야.)

102006 @ 음.(음.)

102006 #1 게난 그 사름이 우리 집이 하르방은 빼 준 거라.(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집의 할아버지는 빼 준 거야.)

102006 @ 아.(아.)

102006 #1 게난 아니 죽을 펜더레 세와 준 거.(그러니까 안 죽을 편으로 세워 준 거.)

102006 @ 예, 예.(예, 예.)

102006 #1 멧사름은 멧사름을 뽑아내연, 뽑아내연 뒷줄, 뒷줄 두 줄은 안 죽일 사름 앞줄 두 줄은 죽일 사름.(몇 사람은 몇 사람은 뽑아내서, 뽑아내서 뒷줄, 뒷줄 두 줄은 안 죽일 사람 앞줄 두 줄은 죽일 사람.)

102006 @ 음.(음.)

102006 #1 게난 어느 쪽이 사름이 죽을 줄을 몰라 가지고덜 정말 막 그냥 조메조메 헷주게.(그러니까 어느 쪽이 사람이 죽을 줄을 몰라 가지고들 정말 아주 그냥 조마조마 했지.)

102006 @ 아.(아.)

102006 #1 겨난 이젠 밤이덜은 팡팡 허레 온 거 아니? 겨난 우리 집이 하르방 읖이 산 하르방 둘은 ᄀᆞ만이 사시민 아니 죽을 건디, 아무 디 사도 죽을 거니까 앞이 나강 죽으켄 허멍 앞더레 나가 불언게. 게난 오꼿 그 사름네도 죽어 불엇주게게. 줴 엇이. 우리 집이 하르방넨 살고.(그러니까 이젠 밤에는 팡팡 하러 온 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의 할아버지 옆에 선 할아버지 둘은 가만히 섰으면 안 죽을 겐데, 아무 데 서도 죽을 거니까 앞에 나가서 죽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만 그 사람네도 죽어 버렸지 죄 없이. 우리 집의 할아버지네는 살고.)

102006 @ 으.(으.)

102006 #1 겐 살안 멧 사름은 이제 돌아온 거라. 돌아오난 이제 또 죽은 집이서덜은 어떵 허난 돌아와져닌 또 물어보레덜 오고. 경헨 그때 그 시절도 넘고, 경헨 돌아오난 이젠 또 목 직허레 뎅기는 거 아니 죽창 들렁.(그래서 살아서 몇 사람은 이제 돌아온 거야. 돌아오니까 이제 또 죽은 집에서들은 어떻게 하니까 돌아올 수 있었냐 또 물어보러들 오고. 그래서 그때 그 시절도 넘고, 그래서 돌아오니까 이젠 또 목 지키러 다니는 거 아니 죽창 들고.)

102006 @ 으.(으.)

102006 #1 기추룩 헨 또 멧 년 동안 뎅견.(그렇게 해서 또 몇 년 동안 다녔어.)

102006 @ 성 쌓으레도 뎅기고?(성 쌓으러도 다니고?)

102006 #1 으, 성 싸레 나, 우리덜이 뎅겨완. 하르방 약허고 허니까 나가 간 막 돌 지멍 다왓주게.(으, 성 쌓으러 나, 우리들이 다녔어. 할아버지 약하고 하니까 내가 가서 마구 돌 지면서 쌓았지.)

102006 @ 아.(아.)

102006 #1 메칠을 뎅겨시, 성 다우레.(며칠을 다녔지, 성 쌓으러.)

102006 @ 성 다우레.(성 쌓으러.)

102006 #1 예, 성도 답고게. 아니 헤 본 거 엇어.(예, 성도 쌓고. 안 해 본 거 없어.)

102006 @ 아, 게난 죽장 직허고 성도 다우렝 다니고 경헤서.(아, 그러니까 계속 지키고 성도 쌓으러 다니고 그래서.)

102006 #1 어, 어.(어, 어.)

102006 @ 경헤서. 먹을 거는 곤란허지 안 헷수과?(그래서. 먹을 거는 곤란하지 안 했습니까?)

102006 #1 무사 아니 곤란헤게. 먹을 거는.(왜 안 곤란해. 먹을 거는.)

102006 @ 산에서 왕 먹을 것도 뺏앙 가고 경 헷수과?(산에서 와서 먹을 것도 빼앗아 가고 그렇게 했습니까?)

102006 #1 게난 그 비라 같은 것만 밤에 부치주게. 우리 고내리엔 경 오라근에 무신 양석 빼 가고 경 벨로 안 헌디 저 동귀러렌 뭐 우리 어머니도이 무시거 영 담요도 더껑 놔두민 문딱 헤 가불고 이불도 다 가져 가 불고 헤영 막 털곡 뭣 허곡 허멍 엿날에 헷주기만은.(그러니까 그 삐라 같은 것만 밤에 부치지. 우리 고내리에는 그렇게 와서 무슨 양식 빼 가고 그렇게 별로 안 했는데 저 동귀로는 뭐 우리 어머니도 무엇 이렇게 담요도 덮어서 놔두면 모두 해 가 버리고 이불도 다 가져 가버리고 해서 아주 떨고 뭐 하고 하면서 옛날에 했지만.)

102006 @ 그쪽에는 산에 사름이 많앗수게.(그쪽에는 산에 사람이 많았지요.)

102006 #1 으게.(으.)

102006 @ 그지게.(그렇지.)

102006 #1 그디, 그디가 하나부난, 학교가.(거기, 거기가 많으니까, 학교가.)

102006 @ 학교 잇어나부니까?(학교 있었으니까?)

102006 #1 예, 하난. 우리 고내엔 벨로 올라간 사름이 엇언.(예, 많으니까. 우리 고내에 별로 올라간 사람이 없어.)

102006 @ 예, 예.(예, 예.)

102006 #1 엇어도 저 칼 맞앙 두 가시 죽고, 그때. 요 즛끗디 죽언, 죽여 불언. 또 불덜도 멧 밧디 부쪄 불고 집덜.(없어도 저 칼 맞아서 부부 죽고, 그때. 요 근처 죽었어, 죽여 버렸어. 또 불들도 몇 군데 붙여 버리고 집들.)

102006 @ 음.(음.)

102006 #1 좋은 집덜 다 부쪄 불고.(좋은 집들 다 붙여 버리고.)

102007 @ 그 아까 결혼은 일본에서 결혼하실 때 중매랏수과, 연애랏수과?(그

아까 결혼은 일본에서 결혼하실 때 중매였습니까, 연애였습니까?)

102007 #1 중매, 중매.(중매, 중매.)

102007 @ 중매?(중매?)

102007 #1 중매게. 아니 게난 우리 집이 하르방도 흔 번 가난 어른이고 나도 가나고 허난 간단허게 헷주게.(중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의 할아버지도 한 번 갔었던 어른이도 나도 갔었고 하니까 간단하게 했지.)

102007 @ 예.(예.)

102007 #1 중매헤도. 크게 안 허연.(중매해도. 크게 안 해.)

102008 @ 사주 안 보고?(사주 안 보고?)

102008 #1 ᄉᆞ주고 무시거고 필요 엇어.(사주고 무엇이고 필요 없어.)

102008 @ 필요 엇어?(필요 없어?)

102008 #1 그자 연령만 멧 설, 멧 설이다 헌 것만 혜영 그냥.(그저 연령만 몇 살, 몇 살이다 하는 것만 해서 그냥.)

102009 @ 게난 여기서 결혼허실 때는 아까 일본 강 벌어온 걸로 이불이영 두 채 막 헹 갓잖아예?(그러니까 여기서 결혼하실 때는 아까 일본 가서 벌어온 걸로 이불과 두 채 많이 해서 갔잖아요?)

102009 #1 두 채? 다섯 채.(두 채? 다섯 채.)

102009 @ 아, 다섯 채 헹 갓잖아예? 거기선 어떵 헷수과? 동경에서 결혼헐 때는, 혼수?(아, 다섯 채 해서 갔잖아요? 거기선 어떻게 했습니까? 동경에서 결혼할 때는, 혼수?)

102009 #1 그디선 아무것도, 서로 아무것도 안 허연.(거기선 아무것도, 서로 아무것도 안 했어.)

102009 @ 서로 아무것도?(서로 아무것도?)

102009 #1 으, 우리 집 하르방도 막 아프고 뭣 허난 돈도 흔 푼 엇고.(으, 우리 집 할아버지도 많이 아프고 뭣 하니까 돈도 한 푼 없고.)

102009 @ 어.(어.)

102009 #1 빈 몸뗑이.(빈 몸둥이.)

102009 @ 게난 빈 몸뗑이라신디 어느, 어느 사이에 돈 벌엉 그 가게를 차려진 거라?(그러니까 빈 몸둥이었는데 어느, 어느 사이에 돈 벌어서 그 가게를 차릴 수 있었던 거야?)

102009 #1 그 둘이 부지런히 헌 거라. 난 아기 돌아도.(그 둘이 부지런히 한 거야. 난 아기 돌봐도.)

102009 @ 결혼하고 나서?(결혼하고 나서?)

102009 #1 으, 나서, 결혼하고 나서.(으, 나서, 결혼하고 나서.)

102009 @ 겐 경 벌어진 거라?(그래서 그렇게 벌 수 있었던 거야?)

102009 #1 예, 벌어젼.(예, 벌 수 있었어.)

102009 @ 벌어젼?(벌 수 있었어?)

102009 #1 으, 으. 그땐 뭐 일만 부지런히 허믄 돈만 버는 거니까.(으, 으. 그땐 뭐 일만 부지런히 하면 돈만 버는 거니까.)

102009 @ 게난.(게난.)

102009 #1 집도 사고.(집도 사고.)

102009 @ 집도 사고, 아까 집 사 가지고 미싱 여덜 채 들여 놧덴 허난예?(집도 사고, 아까 집 사 가지고 재봉틀 여덟 채 들여 놨다고 하니까요?)

102009 #1 으, 으. 미싱, 좁음틀 여덟 채 들여놘.(으, 으. 재봉틀, 재봉틀 여덟 채 들여놓고.)

102009 @ 게니까.(그러니까.)

102009 #1 인부 여덥 사름 들여놓고, 또 그레 아래 허는 사름도 ᄋᆞ덥 사름.(인부 여덟 사람 들여놓고, 또 그리 아래 하는 사람도 여덟 사람.)

102009 @ 시따바리예?('시따바리'요?)

102009 #1 으, 시따바리[61].(으, '시따바리'.)

102009 @ 게민 거기서 결혼할 때 혼수는?(그럼 거기서 결혼할 때 혼수는?)

102009 #1 혼수 아무것도 안 헨게.(혼수 아무것도 안 했어.)

102010 @ 결혼식도 안 허고?(결혼식도 안 하고?)

102010 #1 결혼식도 안 허고.(결혼식도 안 하고.)

102010 @ 사진도 안 찍고?(사진도 안 찍고?)

102010 #1 사진도 안 찍고.(사진도 안 찍고.)

102011 @ 하하. 그럼 그때 신혼살림은 어디서 차린 거과?(하하. 그럼 그때 신혼살림은 어디서 차린 겁니까?)

102011 #1 유센지[62].('유센지'.)

102011 @ 아, 유센지. 방 하나 빈 거?(아, '유센지'. 방 하나 빌린 거?)

102011 #1 방 하나 빌언, 방 하나 빌언.(방 하나 빌렸어, 방 하나 빌렸어.)

102011 @ 아, 처음 갔을 때 유센지에서 결혼헐 때까지 계속 유센지에 살앗구나.(아, 처음 갔을 때 '유센지'에서 결혼할 때까지 계소 '유센지'에서 살았구나.)

102011 #1 으, 으. 뚠 디 살단 그디 그냥 헤연 살고. ᄒᆞ꼼 ᄯᅳ로 살아보단 또 이젠 안 뒈켄 헤연 ᄒᆞ꼼 낫은, ᄒᆞ꼼 널른 집 빌언 일을 시작허연 헌 거라. 유센지서부떠.(으, 으. 다른 데 살다가 거기 그냥 해서 살고. 조금 따로 살아보다가 보니까 또 이젠 안 되겠다고 해서 조금 나은, 조금 넓은 집 빌려서 일을 시작해서 한 거야. 유센지에서부터.)

102012 @ 아들 먼저 그디서 낳고 그 다음 뚤? 아들 낳고 뚤 낳고?(아들 먼저 거기서 낳고 그 다음 딸? 아들 낳고 딸 낳고?)

102012 #1 으.(으.)

102012 @ 경 들어완. 여기서는 순서가 어떵 됩니까?(그렇게 들어왔어. 여기서는

61) '시따바리'는 일본어 'したばり'로, 어떤 일을 할 때 밑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62) '유센지'는 기후현(岐阜県)의 미노가모시(美濃加茂市)에 있는 한 지역 이름이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102012 #1 여기서 이젠 총총 뚤 싯 나 뒌.(여기서 이젠 총총 딸 셋 낳아 두고.)

102012 @ 뚤 싯 나 뒌.(딸 셋 낳아 두고.)

102012 #1 또 아들.(또 아들.)

102012 @ 아덜 난 거.(아들 낳은 거.)

102012 #1 또 아덜 난.(또 아들 낳았어.)

102012 @ 또 아덜?(또 아들?)

102012 #1 으, 아덜 싯, 뚤 싯.(으, 아들 셋, 딸 셋.)

102012 @ 게민예, 우에, 우에?(그럼요, 위에, 위에?)

102012 #1 아덜.(아들.)

102012 @ 우에 아덜.(위에 아들.)

102012 #1 그 다음 뚤.(그 다음 딸.)

102012 @ 뚤.(딸.)

102012 #1 그 다음은 뚤.(그 다음은 딸.)

102012 @ 뚤 두 개?(딸 두 개?)

102012 #1 싯.(셋.)

102012 @ 시 개. 그 다음?(세 개. 그 다음?)

102012 #1 아덜, 아덜.(아들, 아들.)

102012 @ 아덜, 아덜. 아, 예.(아들, 아들. 아, 예.)

102012 #1 아덜 싯, 뚤 싯.(아들 셋, 딸 셋.)

102012 @ 일곱 갠디?(일곱 갠데?)

102012 #1 무사, 우에 아덜 하나.(무사, 위에 아들 하나.)

102012 @ 아덜 하나.(아들 하나.)

102012 #1 싯은 뚤. 게믄 넷 아니?(셋은 딸. 그럼 넷 아니?)

102012 @ 아, 맨 우에 뚤 잇는 거 아니?(아, 맨 위에 딸 있는 거 아니?)

102012 #1 밋밋[63] 뚤을 싯 난 거라?('밋밋' 딸을 셋 낳은 거야?)

102012 @ 일본에서가?(일본에서가?)

102012 #1 으, 일본에서가 아덜, 뚤.(으, 일본에서가 아들, 딸.)

102012 @ 아덜, 뚤. 이디 완 딸 둘.(아들, 딸. 여기 와서 딸 둘.)

102012 #1 으, 밑으로 아덜 둘.(으, 밑으로 아들 둘.)

102013 @ 예, 예. 뚤 셋, 아덜 셋. 경헷엇던 거. 경헨 여기 왕 일본에서 결혼허난 시집살인 안 헌 거다예?(예, 에. 딸 셋, 아들 셋. 그랬었던 거. 그래서 여기 와서 일본에서 결혼하니까 시집살인 안 한 거네요?)

102013 #1 으, 으.(으, 으.)

102013 @ 여기 왕도 바로 시어머니 돌아가셔 부난 시집살인 안 헷다예?(여기 와서도 바로 시어머니 돌아가셔 버리니까 시집살인 안 했지요?)

63) '밋밋'은 거침없이 줄곧 넘어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2013 #1 안 헨. 시집살인.(안 했어. 시집살인.)

102013 @ 하하.(하하.)

102013 #1 이녁 즈유.(자기 자유.)

102013 @ 으.(으.)

102013 #1 즈유, 즈유.(자유, 자유.)

102013 @ 시아버지는 엇어나고?(시아버지는 없었었고?)

102013 #1 아이고 저. 저 무시것고 우리 집이 하르방 막 어린 때에 밴 때 물 장시 허레 육지 갓당 그냥 바당에서 풍파 만난. 어느제 죽은 날을 모르난 생일날로 헌 셍이라, 제사.(아이고 저. 저 무엇이고 우리 집의 할아버지 아주 어렸을 때에 밴 때 말 장사 하러 육지 갔다가 그냥 바다에서 풍파 만나서. 언제 죽은 날을 모르니까 생일날로 한 모양이야, 제사.)

102013 @ 아.(아.)

102013 #1 제사.(제사.)

102013 @ 어디서 죽은 지도 모르고?(어디서 죽은 지도 모르고?)

102013 #1 몰르고.(모르고.)

102013 @ 경헨 생일날?(그래서 생일날?)

102013 #1 경허고 이제 음력 동짓덜 초엿새 날이 제사주만은.(그리고 이제 음력 동짓달 초엿새 날이 제사지만.)

102014 @ 게난 이 자식덜 여섯 개는 결혼은 다 시켯수과?(그러니까 이 자식들 여섯 개는 결혼은 다 시켰습니까?)

102014 #1 다 시켠.(다 시켰어.)

102014 @ 다 시켯고?(다 시켰고?)

102014 #1 으, 공부 다 시키고 결혼 다 시켠.(으, 공부 다 시키고 결혼 다 시켰어.)

102014 @ 일본에 잇는 아이덜은?(일본에 있는 아이들은?)

102014 #1 가 불고 이디도 막둥이 스나이, 아기 오누이, 결혼허연 오누이 난 가 불고. 사고로 즈동차 사고로.(가 버리고 여기도 막둥이 사나이, 아기 오누이, 결혼해서 오누이 낳고 가 버렸어. 사고로 자동차 사고로.)

102014 @ 아이고.(아이고.)

102014 #1 저 애월 농협에 이십 년 헤연 부장꺼진 올라 놘, 올라 놘에 이젠 밤이 어디 저 상가 사름이 시꺼다 주켄 헨 시꺼 오단 요, 이디 고등학교 잇어, 요디.(저 애월 농협에 이십 년 해서 부장까진 올라 놓고, 올라 놓고 이젠 밤에 어디 저 상가 사람이 실어다 주겠다고 해서 싣고 오다가 요, 여기 고등학교 있어, 요기.)

102014 @ 예.(예.)

102014 #1 그 앞에서 전봇대에 부닥쳔. 술, 술덜, 운전수가 술 먹어난 셍이라. 절로 오면은 우녁쪽으로 올 거 아니?(그 앞에서 전봇대에 부딪쳤어. 술, 술들, 운전수가 술 먹었던 모양이야. 절로 오면 위쪽으로 올 거 아니?)

102014 @ 예.(예.)

102014 #1 알력쪽 전봇대에 부닥천 알력 밧더레 들어간 거라.(아래쪽 전봇대에 부딪쳐서 아래쪽 밭으로 들어간 거야.)

102014 @ 아.(아.)

102014 #1 경헨 그 운전수는 살고 우리 집이, 이 이디가 직사헤 불언.(그래서 그 운전수는 살고 우리 집의, 이 여기가 즉사해 버렸어.)

102014 @ 아이고.(아이고.)

102014 #1 서른여섯에.(서른여섯에.)

102014 @ 서른여섯에? 아이고.(서른여섯에? 아이고.)

102015 #1 우리 메누린 스물아홉.(우리 며느린 스물아홉.)

102015 @ 아이고.(아이고.)

102015 #1 우리 메누리도 농협에 뎅견 그때 십 년. 십 년 넘언. 우리 집이 아덜도 이제 혼 십 멧 년 뒈연 부장급까지 올란. 원체 똑똑허고 완전 일을 잘 보니까 농협 짓을 때에도 총무 메껸 돈 책임이고 뭣이고 다 맡안 헤연 짓어나고 다 헷주게. 겨난 가 부난 그냥 고내 할망덜 제금헷던 돈덜 다 춪아오고이. 그 사름 엇이믄 우린.(우리 며느리도 농협 다녀서 그때 십 년. 십 년 넘었어. 우리 집의 아들도 이제 한 십 몇 년 돼서 부장급까지 올랐어. 워냑 똑똑하고 완전 일을 잘 보니까 농협 짓을 때에도 총무 맡겨서 돈 책임이고 뭣이고 다 맡아서 해서 지었었고 다 했지. 그러니까 가 버리니까 그냥 고내 할머니들 저금했던 돈들 다 찾아오고. 그 사람 없으면 우린.)

102015 @ 거기 헐 거 아니라고.(거기 할 거 아니라고.)

102015 #1 못 뎅기켄.(못 다니겠다고.)

102015 @ 아.(아.)

102015 #1 그추룩 허멍 막 울멍. 멧 년 동안을 경 잊히지 안허영, 이제도 골아, 이제도 골아. 원체 일을 잘 보고 저, 경 막 그냥 일도 잘 보고 언강도 싯고 할망덜을 잘 헤주곡. 경허멍 허영. 헌디 메누리도 ᄀᆞ치 뎅기단 거기서 알안 시집 장게갓주게.(그렇게 하면서 마구 울면서.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잊히지 않아서, 이제도 말해, 이제도 말해. 원체 일을 잘 보고 저, 그렇게 마구 그냥 일을 잘 보고 아양도 있고 할머니들을 잘 해주고. 그러면서 해서. 그런데 며느리도 같이 다니다가 거기서 알아서 시집 장가갔지.)

102015 @ 경헨 아들, 딸 ᄒᆞ나씩 낳고?(그렇게 아들, 딸 하나씩 낳고?)

102015 #1 ᄒᆞ나 오누이 난. 견 이제 스물아홉에 홀어멍 드난 난 일흔 멧 설이고 이 애기덜 때 뒁 메누리가 가 불민 어떵헹 살코 매날 이젠 막.(하나 오누이 낳고. 그래서 이제 스물아홉에 홀어머니 드니까 나는 일흔 몇 살이고 이 아기들 떼어 두고 며느리가 가 버리면 어떠해서 살까 만날 이젠 아주.)

102015 @ ᄌᆞ들앗구나[64].(근심했구나.)

64) '조들다'는 걱정되는 일이 있어 매우 근심하다의 의미다.

102015 #1 삼 년, 시어멍 메누리가 삼 년을 이 집이서 운 거라. 이 집이서 시집오고 이 집이서 아기덜 낳고 이 집이서 경허멍 막 아덜 죽어 부난 막 울어간다 씰어간다 허멍. 경헨 살단 이젠 메누리가, 농협에선 메누리ᄀᆞ라 오란 농협에만 뎅기렌 헤도 아이 가켄. 아이 가켄. 흔 멧 년 쉬엇단 이젠 어디 시에 가근에 이제 상점이나 허여근에 가게나 하나 보켄 허멍. 겐 간 어디 헤연게만은 도남 간에 그때 도남덜 저 아파트가 아니고 발전 안 뒐 때.(삼 년, 시어머니 며느리가 삼 년을 이 집에서 운 거야. 이 집에서 시집오고 이 집에서 아기들 낳고 이 집에서 그러면서 아주 아들 죽어 버리니까 마구 울어간다 쓸어간다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젠 며느리가, 농협에선 며느리에게 와서 농협에만 다니라고 해도 안 가겠다고. 안 가겠다고. 한 몇 년 쉬었다가 이젠 어디 시에 가서 이제 상점이나 해서 가게나 하나 보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가서 어디 하더니만 도남 가서 그때 도남들 저 아파트가 아니고 발전 안 될 때.)

102015 @ 으.(으.)

102015 #1 집덜토 엇고 헌 땐디, 흔 이십 멧 년 전이난게. 경헨 이젠 거기 강 도남성환상가.(집들도 없고 한 땐데, 한 이십 몇 년 전이니까. 그래서 이젠 거기 가서 도남성환상가.)

102015 @ 음. 가게 냈구나.(음. 가게 냈구나.)

102015 #1 산 가게 낸, 가게 산.(사서 가게 냈어, 가게 샀어.)

102015 @ 아.(아.)

102015 #1 가게 산에 이젠 헤 두고, 이젠 살 집을 이제 시에 강 마련허젠 허난 나 보고 이젠 어무니 시에 가야 이 아이덜을 이제 봄을 봐야주기. 하나는 우이 지집아이는 국민학교 일학년 뒈고.(가게 사서 이젠 해 두고, 이젠 살 집을 이제 시에 가서 마련하려고 하니까 나 보고 이젠 어머니 시에 가야 이 아이들을 이제 보기를 봐야지. 하나는 위에 계집아이는 국민학교 일학년 되고.)

102015 @ 아.(아.)

102015 #1 족은 거는, 아래 ᄉᆞ나이 놈은 저 유치원 마지막 뒐 거난.(작은 거는 아래 사나이 놈은 저 유치원 마지막 될 거니까.)

102015 @ 애기 봐 달렌 허는 거 아니?(아기 봐 달라고 하는 거 아니?)

102015 #1 으, 봐 달렌. 이디 살멍도 보고 그디 강 봐야주 애기덜만 놔둬은 경헨. 아이고 어떵헨 시에 강 살코, 어떵헨 살코. 어무니가 못 가켄 허믄 난 시에 못 갑니다.(으, 봐 달라고. 여기 살면서 보고 거기 가서 봐야지 아기들만 놔두고는 그렇게. 아이고 어떡해서 시에 가서 살까, 어떡해서 살까. 어머니가 못 가겠다고 하면 난 시에 못 갑니다.)

102015 @ 으.(으.)

102015 #1 경허게 뒈믄 헐 수 엇다. 나가 가야지. 겐 ᄯᅳ라갓주게. 경허난 또 사는 집은 마침 서쪽에서 동 끝으로 강 아파틀 마련헌 거라.(그러하게 되면 할 수 없다. 내가 가야지. 그래서 따라갔지. 그러니까 또 사는 집은 마침 서쪽에서 동 끝으

로 가서 아파트를 마련한 거야.)

102015 @ 으.(으.)

102015 #1 저 신천지.(저 신천지.)

102015 @ 예, 신천지 아파트.(예, 신천지 아파트.)

102015 #1 신천지 아파트. 짓기 전에.(신천지 아파트. 짓기 전에.)

102015 @ 예.(예.)

102015 #1 짓기 전에 간 봔 오란 저기, 여기우다. 아이고, 이딜 어떵헨 고내에서 뎅기느니, 뎅기느니? 헐 수가 엇수다게, 이디. 그땐 경 아파트도 늘어지지 안헌 때 주만은 어디 노형 근처에, 노형 근처에 아파트 엇은 때.(짓기 전에 가서 보고 와서 저기, 여기입니다. 아이고, 여길 어떻게 고내에서 다니느니, 다니느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땐 그렇게 아파트도 많지 않을 때지만 어디 노형 근처에, 노형 근처에 아파트 없을 때.)

102015 @ 엇어.(없어.)

102015 #1 엇은 때.(없을 때.)

102015 @ 아, 신천지가 처음에 생기난.(아, 신천지가 처음에 생기니까.)

102015 #1 예, 겐 경헨 이제 그디 다 짓게 뒈난 지집아인 그디 강, 사학년 때, 사학년 때 그디 강 사학년으로 들어가고 ᄉᆞ나이 놈은 일학년으로 들어가게 뒈난 ᄀᆞ치 둘앙 간. 그디 강 나가 살멍 십 년을 살안.(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거기 다 짓게 되니까 계집아인 거기 가서, 사학년 때, 사학년 때 거기 가서 사학년으로 들어가고 사나이 놈은 일학년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같이 데리고 갔어. 거기 가서 내가 살면서 십 년을 살았어.)

102015 @ 시에 강 십 년 살안.(시에 가서 십 년 살았어.)

102015 #1 십 년 살아도 매 일요일, 토요일날 ᄌᆞ냑인 이디 왕.(십 년 살아도 매 일요일, 토요일 저녁엔 여기 와서.)

102015 @ 농사지엇구나?(농사지었구나?)

102015 #1 농사는 안 지어도 집 보고 그자 이디 우영에 무시거 ᄉᆞᆼ키여 혜 뒁 가믄 그거 오랑 ᄒᆞ꼼 허곡 토요일 ᄌᆞ냑이 오랑 일요일날 ᄌᆞ냑이 가.(농사는 안 지어도 집 보고 그저 여기 터앝에 무엇 푸성귀며 해 두고 가면 그거 와서 조금 하고 토요일 저녁에 와서 일요일 저녁에 가.)

102015 @ 아.(아.)

102015 #1 매, 매. 어느 날 떨어지는 날 엇이.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왓다 갓주게. 경허믄 신천지에서 버스 타레 오젠 허믄 이디서 저기 저 읍사무소 헌 만이 걸엉강 버스 탕 오곡 가곡.(매, 매. 어느 날 떨어지는 날 없이.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왔다 갔지. 그럼 신천지에서 버스 타러 오려고 하면 여기서 저기 저 읍사무소 한 만큼 걸어가서 버스 타서 오고 가고.)

102015 @ 아.(아.)

102015 #1 허멍, ᄂᆞ렁 또 걸엉 가고. 경허멍 허단 가네덜 중학 가게 뒈난 버쳔.

(하면서, 내려서 또 걸어서 가고. 그러면서 하다가 걔네들 중학 가게 되니까 부쳤어.)

102015 @ 아.(아.)

102015 #1 말은 잘 듣는디 어떵 허당 그래도 실수헐 때가 잇잖어게, 아이덜이.(말은 잘 듣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래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 아이들이.)

102015 @ 으.(으.)

102015 #1 경허민 어멍이 가이덜신디 욕 헤 가민 나가 아이 펜벡들민 아이 펜벡 들엄젠 허고, 손지 펜벡들엄젠 허고 또 메누리 펜벡들어 가민 아으덜은 날ᄀᆞ라 나쁘덴 허고.(그러면 어머니가 걔들에게 욕 해 가면 내가 아이 편들면 아이 편든다고 하고, 손지 편든다고 하고 또 며느리 편들어 가면 아이들은 나에게 나쁘다고 하고.)

102015 @ 으.(으.)

102015 #1 헐 거난 아예, 아예 나가 고내 오란 메칠썩 아이 가 불엇주게. 또 아이덜은 안 왐젠 안 허여? 무사 할머니 빨리 옵서, 빨리 옵서. 기여게 나 메칠 시민 가켜게. 나 이디 볼일 봉 가켜, 가켜 허멍 ᄎᆞᄎᆞᄎᆞᄎᆞ 떨어젼 이디.(할 거니까 아예, 아예 내가 고내 와서 며칠씩 안 가 버렸지. 또 아이들은 안 온다고 안 해? 왜 할머니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래 나 며칠 있으면 가겠어. 내가 여기 볼일 보고 가겠어, 가겠어 하면서 차차차차 떨어졌어 여기.

102015 @ 하하 경 눌어부턴?(하하 그렇게 눌어붙었어?)

102015 #1 어. 중학교 때부떠 떼젼.(어. 중학교 때부터 떼어졌어.)

102015 @ 게난 메누리 또 시집 안 간?(그러니까 며느리 또 시집 안 갔어?)

102015 #1 안 간.(안 갔어.)

102015 @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102015 #1 그냥 첨이 나가 막 나 메껴 뒁 그 아기덜, 가 불믄 그냥 읔은 건 다섯 설이고 어린 건 두 설이라낫주게. 경허난 그것덜 열 설 전이라도 가 불믄 어떵헐 거라.(그냥 첨에 내가 아주 나 맡겨 두고 그 아기들, 가 버리면 그냥 큰 건 다섯 살이고 어린 건 두 살이었지. 그러니까 그것들 열 살 전에라도 가 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102015 @ 게난.(그러니까.)

102015 #1 어떵헨 살코, 어떵헨 살코 매날 울어 간다 씰어 간다 헌디 원 어드레 갈. 원체 우리 아덜이 아무 즌소리도 안 허고 흔 오륙 년을 살아도 그렇게 사이좋게덜 살아나부난 뚠 디 강 살질 못허여.(어떠해서 살까, 어떠해서 살까 만날 울어 간다 쓸어 간다 했는데 원 어디 갈. 원체 우리 아들이 아무 잔소리도 안 하고 한 오륙 년 살아도 그렇게 사이좋게들 살았었으니까 딴 데 가서 살지 못해.)

102015 @ 경허난, 경허난.(그러니까, 그러니까.)

102015 #1 이 테레비라도 보멍 부부간이 싸우나 어떵 허민 저추룩 헹 어떵 살아? 경헌 말만 허주기게.(이 텔레비전이라도 보면서 부부간이 싸우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그러한 말만 하지.)

102015 @ 아.(아.)

102015 #1 막 아이고 나 이추룩 혜영 나 혼자 살리, 안 허여. 경허고 어떵 어떵 우리 메누리가 원체 머리가 똑똑허고 츰을성도 잇고 경 뭣허는 아이난 돈이 추곡추곡 부떤게.(마구 아이고 나 이처럼 해서 나 혼자 살까, 안 해.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우리 며느리가 원체 머리가 똑똑하고 참을성도 있고 그렇게 뭣하는 아이니까 돈이 차곡차곡 붙었어.)

102015 @ 아이고.(아이고.)

102015 #1 밧도 ᄒᆞ꼼 나 흔 칠백 평 물려준 것이, 가이 물려주난 밧 값도 점점 올르고 한질 들어간 돈들도 가이 마튼 후에 얼마 흔 멧 펭 들어간 것도 돈덜 만이 나오고.(밭도 조금 내가 한 칠백 평 물려준 것이, 걔 물려주니까 밭 값도 점점 오르고 한길 들어간 돈들도 걔 맡은 후에 얼마 한 몇 평 들어간 것도 돈들 많이 나오고.)

102015 @ 으.(으.)

102015 #1 나 헐 때 들어간 건 천 멧 평이란디 한질로 다 들어가단 남은 것이 칠백 멧 펭인디 나 헐 때는 돈 안 줜. 한질 들어갈 때. 경허멍.(내가 할 때 들어간 건 천 몇 평이었는데 한길로 다 들어가다가 남은 것이 칠백 몇 평인데 내가 할 때는 돈 안 줬어. 할길 들어갈 때. 그러면서.)

102015 @ 음.(음.)

102015 #1 헤난디 어떵 어떵 아파트는 헹 가고 가게도 혜연 출련 그디 무시거 그럭저럭 헨 허젠 허난 일억오천을 들어서, 그때.(했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아파트 해서 가고 가게도 해서 차려서 거기 무엇 그럭저럭 해서 하려고 하니까 일억오천을 들었어, 그때.)

102015 @ 으.(으.)

102015 #1 이십 년 전에. 이십 년이 무시거라, 이제 이십오 년 거저 뒛구나. 경허영 헌디 그거 출려 놓고 아파트 허고 이디 또 나 물려준 밧 싯고, 경 정 허난 경 막 돈에 곤란은 안 헷주게.(이십 년 전에. 이십 년에 무엇이야, 이제 이십오 년 거의 됐구나. 그래서 했는데 그거 차려 놓고 아파트 하고 여기 또 나 물려준 밭 있고, 그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렇게 아주 돈에 곤란은 안 했지.)

102015 @ 아이고, 다행, 다행.(아이고, 다행, 다행.)

102015 #1 이녁냥으로 또시 가게 혜연 또 벌멍 그땐 장서가 잘 뒈난.(자기대로 다시 가게 해서 또 벌면서 그땐 장사가 잘 되니까.)

102015 @ 으.(으.)

102015 #1 처음에 문방구로 허단 이 하도 이젠 문방구덜이 널어져부난 문방군 안 허연. 이제 이것저것 혜 보단 이젠 숙녀복으로 허연. 이제 흔 덜에 흔 번 육지 강 그 동대문, 서대문 강.(처음에 문방구로 하다가 이 너무 이젠 문방구들이 많으니까 문방군 안 했어. 이제 이것저것 해 보다가 이젠 숙녀복으로 했어. 이제 한 달에

한 번 육지 가서 그 동대문, 서대문 가서.)

102015 @ 물건 헤 왕.(물건 해 와서.)

102015 #1 물건 헤영, 숙녀복 헤단 풀고 이넉냥으로 경.(물건 해서, 숙녀복 해다가 팔고 자기대로 그렇게.)

102015 @ 음.(음.)

102015 #1 경허멍 헤영 그자 ᄆᆞ음 부쩡 살아가난 또 애기덜도 시집, 장게를 제기 가켄 헌 거라게.(그러면서 해서 그저 마음 붙여서 살아가니까 또 아기들도 시집, 장가를 재게 가겠다고 한 거야.)

102015 @ 벌써 그때가 뒌 거?(벌써 그때가 된 거?)

102015 #1 경허난 이제 뚤도 스물ᄋᆞ덥에 가켄 헨 시집 가 불고.(그러니까 이제 딸도 스물여덟에 가겠다고 해서 시집 가 버리고.)

102015 @ 으.(으.)

102015 #1 그 다음엔 뒷해에는 아덜이 장게가켄 헌 거라, 스물ᄋᆞ덥에.(그 다음엔 뒷해에는 아들이 장가가겠다고 하는 거야, 스물여덟에.)

102015 @ 아.(아.)

102015 #1 게난 작년에, 올리 올리. 올리 장게갓고 이제 아덜 난, 또.(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올해. 올해 장가갔고 이제 아들 낳았어, 또.)

102015 @ 아이고.(아이고.)

102015 #1 뚤은이 스물ᄋᆞ덥에 가도 시어멍이 원체이, 어디 육지 강원도 사는 사름인디 가령찬 시어멍인고라 헤치 보면서 그 헤치에 아기 나믄 안 뒌덴 헤연 ᄒᆞᆫ 이년 더 싯당 나렌 헤부난 이젠 엇언게.(딸은 스물여덟에 가도 시어머니가 원체, 어디 육지 강원도 사는 사람인데 가령찬 시어머니인지 띠 보면서 그 띠에 아기 낳으면 안 된다고 해서 한 이 년 더 있다가 낳으라고 해버리니까 이젠 없어.)

102015 @ 안 생겻구나.(안 생겼구나.)

102015 #1 게난 어제 생일 넘은 아이보단도 지네 동생보단도 ᄆᆞᆫ첨 가도 아이가 엇어.(그러니까 어제 생일 넘은 아이보다도 자기네 동생보다도 먼저 가도 아이가 없어.)

102015 @ 아, 게민 야이가?(아, 그럼 얘가?)

102015 #1 야이가 생일.(얘가 생일.)

102015 @ 게민 아부지가 돌아가신 아이가 야이?(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이가 얘?)

102015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2015 @ 야이 아니?(얘 아니?)

102015 #1 야이 아니. 가이는, 가이는 야이게.(얘 아니. 걔는, 걔는 얘.)

102015 @ 아.(아.)

102015 #1 이것이 가이 헤 줫주게, 야이가 헤 줫주게.(이것이 걔 해 줬지, 얘가 해 줬지.)

102015 @ 손지가 헤 준 거 전화?(손지가 해 준 거 전화?)

102015 #1 으, 이거, 이거.(으, 이거, 이거.)

102015 @ 아이고, 좋수다.(아이고, 좋습니다.)

102015 #1 게난 난 이거 가졍 뎅김뿐이주게. 이거 세금이고 무시거고 가이가 다 내.(그러니까 난 이거 가지고 다닐 뿐이지. 이거 세금이고 무엇이고 걔가 다 내.)

102015 @ 하, 좋다예. 손지가 이런 것도 챙겨 주고.(하, 좋네요. 손지가 이런 것도 챙겨 주고.)

102015 #1 일주일에 흔 번씩 이걸로 전화 와, 이걸로. 할머니 건강헙서. 처음엔 이 이거 헤줄 때꺼지도 할머니 나 장게갈 때까지만 꼭 살아양, 살아양.(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로 전화 와, 이걸로. 할머니 건강하세요. 처음엔 이거 해줄 때까지도 할머니 나 장가갈 때까지만 꼭 사세요, 사세요.)

102015 @ 으.(으.)

102015 #1 아이구야, 난 장담 못 허켜. 난 어떵사 헤질지 몰르켜. 난 그때꺼지 살지 못허민 어떵 허코? 아니 경 꼭 살아사 헙니다. 경허단 보난 올 삼월엔 장게가켄, 스월에 장게가켄 헨 장게간. 애기가 셔부난 헐 수 엇이 어멍도 이젠, 재작년에 뚤 풀고. 야, 이거 누님 시집가근에 오래지 안헤영 나 어떵 헤근에 허느니. 돈을 족족 들어게.(아이구야, 난 장담 못 하겠어. 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난 그때까지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아니 그렇게 꼭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삼월엔 장가가겠다고, 사월에 장가가겠다고 해서 장가갔어. 아기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어머니도 이젠, 재작년에 딸 팔고. 야, 이거 누님 시집가서 오래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니. 돈을 족족 들어.)

102015 @ 으, 집도 빌어주고 허젠 허민예?(으, 집도 빌려주고 하려고 하면요?)

102015 #1 집도 빌어주고. 또 가는 비용, 서울서 호텔로 허켄 험젠, 서울 간 살아노난.(집도 빌려주고. 또 가는 비용, 서울에서 호텔로 하겠다고 한다고, 서울 가서 사니까.)

102015 @ 아, 서울 강 사는 거?(아, 서울 가서 사는 거?)

102015 #1 오누이가 다 서울 살암주.(오누이가 다 서울 살고 있지.)

102015 @ 하하.(하하.)

102015 #1 뚤은 이디 살 때라도 웨국 그 유학을 두 번을 가 왓주게. 두 나라, 두 번. 그 웨국어 베우레.(딸은 여기 살 때여도 외국 그 유학을 두 번을 갔다 왔어. 두 나라, 두 번. 그 외국어 배우러.)

102015 @ 으.(으.)

102015 #1 영어 베우레. 겐 웨국 갓단 서울 남저를 알안게.(영어 배우러. 그래서 외국 갔다가 서울 남자를 알았어.)

102015 @ 겐 시집가켄 헌 거?(그래서 시집가겠다고 한 거?)

102015 #1 시집가켄 헨 간 허난. 막 남자가 순허고 존 아이 남저는. 아기만 셔 불민 걱정은 엇인디.(시집가겠다고 해서 가서 하니까. 아주 남자가 순하고 좋은 아

이, 남자는. 아기만 있으면 걱정은 없는데.)

102015 @ 게난 메누리도 고생헤신게예, 가이네 다 공부시키젠 허난?(그러니까 며느리도 고생했네요, 걔네 다 공부시키려도 하니까?)

102015 #1 아이고, 고생사. 족족헌 사름이믄 못 허여.(아이고, 고생이야. 족족한 사람이면 못 해.)

102015 @ 유학시킬 정도로 벌엉?(유학시킬 정도로 벌어서?)

102015 #1 유학가젠 허난 또 돈을 얼마나 그냥. 그냥 돈 떨이 헷주게, 돈 떨이. 경헤도 꼬딱 소리 엇이 헌 거라. 허난 장사도 허고 어디 땅덜도 ᄒᆞ꼼씩 삿단 또. 점점 올르니까.(유학가려고 하니까 또 돈을 얼마나 그냥. 그냥 돈 떨이 했지, 돈 떨이. 그래도 까딱 소리 없이 한 거야. 하니까 장사도 하고 어디 땅들도 조금씩 샀다가 또. 점점 오르니까.)

102015 @ 으.(으.)

102015 #1 허곡 아덜도 장게갈 때, 뚤 시집갈 때꺼지는 미천 신 걸로 어떵 어떵헹 헌 셍이고. 또 큰 돈 들게 안 뒈난 허곡. 아덜은 장게가게 뒈믄 집 빌어주고 무시거 허고 허젠 허믄 하영 들 거난 집터 하나를 시에 삿단, 어디 제주대학 ᄌᆞ끗디.(그리고 아들도 장가갈 때, 딸 시집갈 때까지는 미천 있는 걸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한 모양이고. 또 큰 돈 들게 안 되니까 하고. 아들은 장가가게 되면 집 빌려주고 무엇 하고 하려고 하면 많이 들 거니까 집터 하나를 시에 샀다가, 어디 제주대학교 근처.)

102015 @ 으.(으.)

102015 #1 겐 그거 ᄑᆞ난에 이억 얼마 받안 그걸로.(그래서 그거 파니까 이억 얼마 받아서 그걸로.)

102015 @ 아이고.(아이고.)

102015 #1 그걸로 헨 집 허연 전세헤 주고 아덜도 또 대출 받안 얼만 내 놘. 전세만 허젠 헤도 삼억인가 ᄉᆞ억인가 헷젠.(그걸로 해서 집 해서 전세해 주고 아들도 또 대출 받아서 얼마 내 놨어. 전세만 하려고 해도 삼억인가 사억인가 했다고.)

102015 @ 음.(음.)

102015 #1 경허난 경헨 이제 아덜넨 헨 살고 아덜 낳고. 어멍이 이젠 큰 걱정은 엇어도 아기덜 제기 보내 부난 어제도 ᄀᆞᆯ앗주게, 느 애기덜 제기 시집, 장게 보내 부난 큰 걱정 엇다게. 보낼 때는 뭣 헷주만은 경헨. 막 너무 착헤, 너무 고마워.(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네는 해서 살고 아들 낳고. 어머니가 이젠 큰 걱정은 없어도 아기들 재게 보내 버리니까 어제도 말했지, 너 아기들 재게 시집, 장가 보내 버리니까 큰 걱정 없다. 보낼 때는 뭣 했지만 그래서. 아주 너무 착해, 너무 고마워.)

102015 @ 게난 이 아덜은 거꾸로 두 번째 아덜?(그러니까 이 아들은 거꾸로 두 번째 아들?)

102015 #1 으, 으. 저 누님덜 아래. 니 번채, 다섯 번채.(으, 으. 저 누님들 아래. 네 번째, 다섯 번째.)

102015 @ 게민 이디 아덜도 메누리 막 착허고.(그럼 여기 아들도 며느리 아주 착하고.)

102015 #1 으, 막 착헌디 아판게.(으, 아주 착한데 아팠어.)

102015 @ 지난번에 전화헐 때 메누리가 받안게 그 메누리과?(지난번에 전화할 때 며느리가 받았는데 그 며느리입니까?)

102015 #1 그 메누릴 거라.(그 며느릴 거야.)

102015 @ 게도 가끔 왐구나예?(그래도 가끔 오고 있군요?)

102015 #1 일주일에 흔 번씩 둘이 와 그디. 책임성이 셔노난 걱정뒈연. 오지 말렌 헤도 오랑 얼굴이라도 봉 가켄 허멍 와. 자이, 이건 족은 메누리고 야이.(일주일에 한 번씩 둘이 와 거기. 책임성이 있으니까 걱정돼서.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얼굴이라도 보고 가겠다고 하면서 와. 쟤, 이건 작은 며느리고 얘.)

102015 @ 으, 완전 고운게 메누리도. 사위덜은 어떵허과, 사위덜은?(으, 완전 곱네 며느리도. 사위들은 어떠합니까, 사위들은?)

102015 #1 사위도 하난 가 불언.(사위도 하난 가 버렸어.)

102015 @ 아, 가 불언.(아, 가 버렸어.)

102015 #1 으, 이제 살아시믄 일흔. 흔 쉰 멧에 가 불엇주.(으, 이제 살았으면 일흔, 한 쉰 몇에 가 버렸지.)

102015 @ 아이구.(아이구.)

102015 #1 경헌디 그디도 뚤은 야이고. 야이네 스나이가 가 불고.(그러면 거기도 딸은 얘고. 얘네 사나이가 가 버리고.)

102015 @ 게민 둘째, 셋째?(그럼 둘째, 셋째?)

102015 #1 으?(으?)

102015 @ 큰뚤은 일본 강?(큰딸은 일본 가서?)

102015 #1 일본 강 큰사운 살고.(일본 가서 큰사윈 살고.)

102015 @ 으, 살고.(으, 살고.)

102015 #1 또 큰메누리 일본 싯고.(또 큰며느리 일본 있고.)

102015 @ 으.(으.)

102015 #1 일본도 손지덜이 핫주게, 이제.(일본도 손자들이 많지, 이제.)

102015 @ 아. 메누리랑 사위는 잇고?(아. 며느리랑 사위는 있고?)

102015 #1 잇고. 메누리, 사위 일본 살암서, 이제. 손지덜이랑 다 살멘. 게난 왕랜 허주게.(있고. 며느리, 사위 일본 살고 있어, 이제. 손자들이랑 다 살고 있어. 그러니까 왕랜 하지.)

102015 @ 으.(으.)

102015 #1 경허고 야이, 야네 스나인 저디, 저것에 그디 남자. 이거, 이거.(그리고 얘, 얘네 사나인 저기, 저것이 거기 남자. 이거, 이거.)

102015 @ 이거 어무니우다게.(이거 어머니입니다.)

102015 #1 또 하나 셔.(또 하나 있어.)

102015 @ 이건가? 이거, 이거 이 사진.(이건가? 이거, 이거 이 사진.)

102015 #1 으, 그 사진. 이 사진에 이거 앚은 거, 앚은 것이 족은사위.(으, 그 사진. 이 사진에 이거 앉은 거, 앉은 것이 작은사위.)

102015 @ 으.(으.)

102015 #1 산 거는 족은사위네 아덜.(선 거는 작은사위네 아들.)

102015 @ 아덜예?(아들요?)

102015 #1 경헌 허난 그자 족은메누리가 너무 너무 착허고 고마워.(그래서 하니까 그저 작은며느리가 너무 너무 착하고 고마워.)

102015 @ 그지예, 아이고.(그렇죠, 아이고.)

102015 #1 나 생각을 그렇게 잘헤주고. 어머님 아니라시믄 이 아이덜 어떵허영 성공허영 키와집니겐.(내 생각을 그렇게 잘해주고. 어머님 아니었으면 이 아이들 어떠해서 성공해서 키울 수 있겠습니까라며.)

102015 @ 어무닌 다른 디 시집가불카부덴 막?(어머닌 다른 데 시집가버릴까 봐 아주?)

102015 #1 으, 난 경허영 막 걱정. 아이고, 가 불믄 어떵허코?(으, 난 그래서 아주 걱정. 아이고, 가 버리면 어떠할까?)

102015 @ 게난 스물여덟에 남편 죽은 건디 메누리 다른 디 안 간 것도 고마운 거 아니과?(그러니까 스물여덟에 남편 죽은 건데 며느리 다른 데 안 간 것도 고마운 거 아닙니까?)

102015 #1 경허난 너무 고맙주게, 너무 고마와. 이 세상엔 엇어, 이 세상엔 엇어. 그렇게 스물아홉에 혼자 들어근에 살카부덴 생각을 허느냐만은 그자 오로지 아이덜 키울 생각, 오로지 빗 엇이 살 생각. 그냥 막, 잘도. 이녁네 동생이 다섯 오누인디 다 잘 살아. 저 구엄이여만은 다 잘 살고.(그러니까 너무 고맙지. 너무 고마워. 이 세상엔 없어, 이 세상엔 없어. 그렇게 스물아홉에 혼자 들어서 살까 봐 생각을 하느냐만 그저 오로지 아이들 키울 생각, 오로지 빚 없이 살 생각. 그냥 아주, 잘도. 자기네 동생이 다섯 오누인데 다 잘 살아. 저 구엄이여만 다 잘 살고.)

102015 @ 예.(예.)

3. 밭일

보리농사

103002 @ 보리농사 짓는 거 골아줍서.(보리농사 짓는 거 말해주세요.)

103002 #1 보리농사?(보리농사?)

103002 @ 예.(예.)

103002 #1 보리농사는게 음력 구월덜 나민 씨 뿌렁게.(보리농사는 음력 구월 되면 씨 뿌려서.)

103002 @ 아, 저 먼저, 먼저예, 이것부터 물어보쿠다.(아, 저 먼저, 먼저요, 이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103002 #1 뭣이과?(뭣입니까?)

103001 @ 저기 고내리에서 농사는 어떤 농서를 지어낫수과?(저기 고내리에서 농사는 어떤 농사를 지었었습니까?)

103001 #1 보리농사, 조 농사, 감저 농사, 고구마, 고구마 농사.(보리농사, 조 농사, 고구마 농사, 고구마, 고구마 농사.)

103001 @ 고구마, 옛날 말로 골아줍서. 옛날 말로.(고구마, 옛날 말로 말씀해주세요. 옛날 말로.)

103001 #1 감저, 우리 동네에서 저 감제엔 헤.(고구마, 우리 동네에서 저 '감제'라고 해.)

103001 # 감제, 감제.(고구마, 고구마.)

103001 @ 감제예?(고구마요?)

103001 #1 우리 동네에선 감제엔 헤.(우리 동네에서 고구마라고 해.)

103001 @ 아.(아.)

103001 #1 콩.(콩.)

103001 @ 콩.(콩.)

103001 #1 이제 그 외에는 뭐. 그것이 대목[65] 짓어, 대목 헷수게.(이제 이 외에는 뭐. 그것이 주로 지어, 많이 했습니다.)

103001 @ 으.(으.)

103001 #1 그 농사가.(그 농사가.)

103001 @ 그 농사가예.(그 농사가요.)

103001 #1 예, 우리 논도 엇고 허니까예, 밧뿐이난 보리, 조, 감자, 콩 그 농사가 주로 헷수다.(예, 우리 논도 없고 하니까요, 밭뿐이니까 보리, 조, 고구마, 콩 그 농사가 주로 했습니다.)

103002 @ 아, 그 농사가 주로 헐 거예. 게민 보리농서 짓젠 허민 뭐부터 준비헷수과?(아, 그 농사가 주로 할 거요. 그럼 보리농사 지으려고 하면 뭐부터 준비했습니까?)

103002 #1 보리농서 짓젠 허민 거름게. 거름은 옛날은 없으니까 집 주위에, 우리 집 에염에 통시가 잇엇수궤. 도야지 질루는 통시.(보리농사 지으려고 하면 거름. 거름은 옛날은 없으니까 집 주위에, 우리 집 옆에 변소가 있었지요. 돼지 기르는 변소.)

103002 @ 예.(예.)

103002 #1 그디 도야지 질롸근에 도새기 질롱.(거기 돼지 길러서 돼지 길러서.)

103002 @ 예.(예.)

103002 #1 이제 그디, 질루면은 그디 그 통시레 히여지렁헌 찌꺼기덜 막 그레

65) '대목'은 가장 중요한 시기를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로'의 의미로 쓰였다.

가져당 놉니게. 뭐, 검질이고 무신 거고 그레 통시레만 가져당 놓면 도새기는 그거 짓블르멍 그디서 살면서 그거 걸름됍니다게. 내중에 썩어 가지고.(이제 거기, 기르면 거기 그 돼지우리에서 어지러운 찌꺼기들 마구 거기에 가져다가 놓지요. 뭐 검불이고 무슨 거고 그리에 돼지우리에만 가져다 놓으면 돼지는 그거 짓밟으면서 거기서 살면서 그거 거름됩니다. 나중에 썩어 가지고.)

103002 @ 음.(음.)

103003 #1 경허민 일 년에 흔 번 그 걸름을 우리가 꺼내영마씨.(그러면 일 년에 한 번 그 거름을 우리가 꺼내서요.)

103003 @ 내는 거예, 걸름 내는 거?(내는 거요, 거름 내는 거?)

103003 #1 내여놩 베꼇디 내여놩 이제 물 빠졍 그거 물라가면은 그거를 이제 조금씩 멩텡이에 담아 가지고 경헤근에 이젠 밧디 져다근에 거름이 됌엿든 안 됌엿든 골루루 뿌려줍니께.(내어놓고 바깥에 내어놓고 이제 물 빠져서 그거 말라가면 그거를 이제 조금씩 망태기에 담아 가지고 그래서 이젠 밭에 져다가 거름이 되었든 안 되었든 골고루 뿌려줍니다.)

103003 @ 음.(음.)

103003 #1 예, 그것이 대목 헌 걸름. 소, 소. 이 쉐 질룹는 디는 쉐걸름이 대목이고 쉐 안 질루는 디, 우리 도새기덜만 질루는 디는 도새기걸름이 대목이고. 그게 대목이랏수다.(예, 그것이 주로 한 거름. 소, 소. 이 소 기르는 데는 쇠두엄이 주이고 소 안 기르는 데, 우리 돼지들만 기르는 데는 돼지거름이 주로이고. 그게 주였습니다.)

103003 @ 그게 대목이라서예?(그게 주였어요?)

103003 #1 예.(예.)

103003 @ 게민예 농서짓젠 허민 걸름은 언제 내수과, 어느 덜에?(그럼요 농사지으려고 하면 거름은 언제 냈습니까, 어느 달에?)

103003 #1 어느 덜에 내져신고?(어느 달에 냈나?)

103003 @ 통시 걸름.(돼지우리 거름.)

103003 #1 어, 구월, 아니 구월부터 허난에 여름 때에 헙니다. ᄀᆞ실에, ᄀᆞ실에. ᄀᆞ실리.(어, 구월, 아니 구월부터 하니까 여름 때에 합니다. 가을에, 가을에. 가을에.)

103003 @ ᄀᆞ실에 거름을 낼 거예?(가을에 거름을 낼 거요?)

103003 #1 예. 거름을 내영 헤 놧당 이제 구월덜 나믄, 음력 구월덜이민 이제 밧디 져다근에 뿌립니게. 겡허민 이제 쉐로 갈아, 그거를.(예. 거름을 내서 해 놨다가 이제 구월 나면, 음력 구월이면 이제 밭에 져다가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소로 갈아, 그거를.)

103003 @ 게민 걸름 밧디 지여 놔서예, 걸름을 밧디 지여 놧잖아예, 게민 걸름을 먼저 뿌릴 것과?(그럼 거름 밭에 지어 놓고요, 거름을 밭에 지어 놨잖아요, 그럼 거름을 먼저 뿌릴 겁니까?)

103003 #1 뿌려마씨.(뿌려요.)

103003 @ 어떵?(어떻게?)

103003 #1 그걸 이제 벙뎅이 진 거는 손으로 풀멍게.(그걸 이제 덩어리 뭉친 거는 손으로 풀면서.)

103003 @ 손으로 다.(손으로 다.)

103003 #1 예게.(예.)

103003 @ 그거 골체에 담앙 안 허고.(그거 삼태기에 담아서 안 하고.)

103003 #1 골체에도 담앙 뎅기멍 뿌리곡게. 골체에도 담앙 뎅기멍 뿌리고 또 가까운 딘 손으로 뿌리고 먼 딘 골체에 담앙 뎅기멍 뿌리곡.(삼태기에도 담아서 다니면서 뿌리고. 또 가까운 덴 손으로 뿌리고 먼 덴 삼태기에 담아서 다니면서 뿌리고.)

103003 @ 게민 저기 걸름 내잖아예, 통시 걸름 내 가지고 집이 영 놔둘 때는 쌓아 가지고 눌 눌엉 놔두는 형태로 헤 둡니까?(그럼 저기 거름 내잖아요, 돼지우리 거름 내어 가지고 집에 이렇게 놔둘 때는 쌓아 가지고 가리 가려서 놔두는 형태로 해 둡니까?)

103003 #1 영, 영 읖에 울타리 읖에.(이렇게, 이렇게 옆에 울타리 옆에.)

103003 @ 울타리 옆에 헤 두는 거잖아예?(울타리 옆에 해 두는 거잖아요?)

103003 #1 예.(예.)

103003 @ 헤 두민 영 우에 뭐 새도 씌우고?(해 두면 이렇게 위에 뭐 새도 씌우고?)

103003 #1 예, 우에 더꺼근에 비 맞지 말렌 헹 그대로 물류왕. 그대로 썩어가면서 짐이 팡팡 납니다게.(예, 위에 덮어서 비 맞지 말라고 해서 그대로 말려서. 그대로 썩어가면서 김이 팡팡 납니다.)

103003 @ 예.(예.)

103003 #1 그대로 놔두면 것이 뜨거왕.(그대로 놔두면 것이 뜨거워.)

103003 @ 겡 밧디 졍 갓잖아예? 멕에 놩 졍 가면.(그래서 밭에 지고 갔잖아요? 멱에 놓고 지고 갔잖아요? 멱에 지고 사면.)

103003 #1 멕에 놩 졍 가.(멱서리에 놓고 지고 가.)

103003 @ 밧디서는 다시 그렇게 눌 눌어 놓지는 안허고?(밭에서는 다시 그렇게 가리 가려 놓지는 않고?)

103003 #1 골로로 밧 골로로 뿌릴 만썩.(골고루 밭 골고루 뿌릴 만큼.)

103003 @ 골로로 져다 놓는 거.(골고루 져다 놓는 거.)

103003 #1 으, 그 거림이 하면 한 대로 만이 뿌리고 줏게 뿌리고.(으, 그 거름이 많으면 많은 대로 많이 뿌리고 잦게 뿌리고.)

103003 @ 으.(으.)

103003 #1 족으민 족은 대로 널리 뿌리고.(적으면 적은 대로 널리 뿌리고.)

103003 @ 경헨, 경헨 걸름을 허는 거예. 게민 보통 보리 갈 때는 뒈지거름을 하

영 헷수과, 여기는 통시 걸름을 하영 헷수과?(그래서, 그래서 거름을 하는 거요. 그럼 보통 보리 갈 때는 돼지거름을 많이 했습니까, 여기는 돼지우리 거름을 많이 했습니까?)

103003 #1 통시 것이 우리는, 쉐가 엇어 부난.(돼지우리 것이 우리는, 소가 없어 버리니까.)

103003 @ 아, 쉐가 엇어 부난.(아, 소가 없어 버리니까.)

103003 #1 쉐 신 집이 쉐걸름 허고. 우린 쉐가 엇이 도새기뿐이난 그거로 뿐. 그거로만. 경허믄 또 내중에 또 오줌 거튼 것도 오줌 항에 메와다가 그것도 허벅에 지어다가 또 뿌리고.(소 있는 집에 쇠두엄 하고. 우린 소가 없이 돼지뿐이니까 그거로 뿐. 그거로만. 그러면 또 나중에 또 오줌 같은 것도 오줌 항에 메워다가 그것도 허벅에 지어다가 또 뿌리고.)

103003 @ 아, 오줌도 뿌리고?(아, 오줌도 뿌리고?)

103003 #1 예. 오줌 뿌리고.(예. 오줌 뿌리고.)

103003 @ 예, 겐 정 갓수다예, 밧디 걸름을 정 강 영 술술술술 골체에 헨 손으로 헤 뿌령. 경헤민 이제 밧을 갈 거?(예, 그래서 지고 갔지요, 밭에 거름을 지고 가서 이렇게 살살살살 삼태기에 해서 손으로 해서 뿌려서. 그러면 이제 밭을 갈 거?)

103004 #1 갈아.(갈아.)

103004 @ 보리밧을 갈 거.(보리밭을 갈 거.)

103004 #1 아, 경헤영 이제 씨 뿌려. 그 다음에 씨 뿌려, 보리씨 뿌려.(아, 그렇게 이제 씨 뿌려. 그 다음에 씨 뿌려, 보리씨 뿌려.)

103004 @ 갈아난 다음에?(갈아난 다음에?)

103004 #1 아니. 뿌령 놩 갈아. 뿌려 놩 갈아.(아니. 뿌려 놓고 갈아. 뿌려 놓고 갈아.)

103004 @ 아, 게민 그거구나예. 저기 걸름은 먼저 뿌리고.(아, 그럼 그거구나. 저기 거름은 먼저 뿌리고.)

103004 #1 걸름 뿌리고.(거름 뿌리고.)

103004 @ 그 우이 씨 뿌리고.(그 위에 씨 뿌리고.)

103004 #1 씨 뿌리고.(씨 뿌리고.)

103004 @ 그 다음 가는 거?(그 다음 가는 거?)

103004 #1 가는 거. 겐 갈아근에 이젠 섬피로 끗어. 보리는 끗지 안허주만은 조 같은 건 무시건 끗엉 불려근에.(가는 거. 그래서 갈아서 이젠 끙게로 끌어. 보리는 끌지 않지만 조 같은 건 무엇은 끌어서 밟아서.)

103004 @ 그럼 여기는, 다른 쪽에서 들으난 거기는 거름 위에 씨를 뿌렷덴예?(그럼 여기는, 다른 쪽으로 들으니까 거기는 거름 위에 씨를 뿌렸다고요?)

103004 #1 아, 그거는.(아, 그거는.)

103004 # 쉐로 건 불리멍.(소로 그건 밟으면서.)

103004 #1 그거 남군[66]에 우리 세계에 경 헷주.(그거 남군에 우리 세계에 그렇게 했지.)

103004 @ 예, 예. 경 헙디다예.(예, 예. 그렇게 합니다.)

103004 # 씨 뿌령 막 볼라, 쉐 이껑 막 볼라.(씨 뿌려서 마구 밟아, 소 이끌어서 마구 밟아.)

103004 @ 거름 낸 다음에 거름이 좀 ᄆᆞ르면. 게난 이것도예 보리농서 짓는 것도 달라, ᄐᆞ나 저기영.(거름 낸 다음에 거름이 좀 마르면. 그러니까 이것도 보리농사 짓는 것도 달라, 달라 저기랑.)

103004 #1 게고 어떤 딘예, 어떤 부락엔 제주도서도 보리씨 허고 걸름 허고 서텅, 서텅 찌엉, 막 볼라 볼랑 그걸 이젠 ᄒᆞ꼼 묵형 경헤근에 그걸 이제 좁아 놔. 그런 디도 이십니다만 우리 동넨 그거 아니.(그리고 어떤 덴요, 어떤 부락엔 제주도에서도 보리씨 하고 거름 하고 섞어서, 섞어서 쪄서, 마구 밟아 밟아서 그걸 이젠 조금 묵혔다가 그래서 그걸 이제 집어 놔. 그런 데도 있습니다만 우리 동넨 그거 아니.)

103004 @ 아, 그거 아니.(아, 그거 아니.)

103004 #1 씬 씨대로, 걸름은 걸름대로.(씬 씨대로, 거름은 거름대로.)

103004 @ 아, ᄐᆞ난게.(아, 다르네.)

103004 #1 ᄐᆞ나, ᄐᆞ나 제주도 안에서도 ᄐᆞ나. 말도 조금 제주 사투리도 ᄐᆞ나고 농서짓는 것도 ᄒᆞ꼼 ᄐᆞ나고.(달라, 달라 제주도 안에서도 달라. 말도 조금 제주 사투리도 다르고 농사짓는 것도 조금 다르고.)

103004 @ 그럼 그건게예, 걸름을 다 뿌려난 다음에.(그럼 그거네요, 거름을 다 뿌려난 다음에.)

103004 #1 예, 뿌려 놩.(예, 뿌려 놓고.)

103004 @ 보리씰 뿌령.(보리씰 뿌려서.)

103004 #1 씨 뿌려 놩 그 다음 이제 쉐로 갈앙.(씨 뿌려 놓고 그 다음 이제 소로 갈아서.)

103004 @ 예.(예.)

103004 #1 그것이 보리는 끝.(그것이 보리는 끝.)

103004 @ 게민 보리농서는 몇 월에 갈아마씨?(그럼 보리농사는 몇 월에 가나요?)

103004 #1 음력 구월덜.(음력 구월.)

103004 @ 음력 구월. 게민 보리 가는 게.(음력 구월. 그럼 보리 가는 게.)

103004 #1 예, 이 덜에 이제 갈아야지. 이 덜에.(예, 이 달에 이제 갈아야지. 이 달에.)

103004 @ 이제 가는 거예?(이제 가는 거요?)

---

66) '남군'은 '남제주군'을 말한다. 남제주군은 제주특별자치도 남부 지역을 가리키는 행정 구역 명칭으로 2006년에 서귀포시로 통합되었다.

103004 #1 예, 이 덜 내내 갈아사.(예, 이 달 내내 갈아야.)
103004 @ 밧 갈 때는 뭐로 갑니까?(밭 갈 때는 뭐로 갑니까?)
103004 #1 밧, 쉐로게.(밭, 소로.)
103004 @ 쉐에 뭐 이껑?(소로 뭐 이끌어서?)
103004 #1 멍에. 멍에 메왕.(멍에, 멍에 메워서.)
103004 @ 멍에?(멍에?)
103004 #1 멍에 영 앞이 모가지에 걸려 놩.(멍에 이렇게 앞에 모가지에 걸려 놓고.)
103004 @ 쉐 목에 허는 건 멍에라예?(소 목에 하는 건 멍에지요?)
103004 #1 멍에.(멍에.)
103004 @ 영 밧 가는 데 쓰는 건 뭐?(이렇게 밭 가는 데 쓰는 건 뭐?)
103004 #1 장귀.('장귀'.)
103004 @ 다시 한 번 골아줍서.(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103004 #1 장귀.('장귀'.)
103004 @ 장귀?('장귀'?)
103004 #1 으.(으.)
103004 # 잠대, 잠대.(쟁기, 쟁기)
103004 @ 잠대예?(쟁기요?)
103004 # 쟁기.(쟁기.)
103004 #1 쟁기, 쟁기.(쟁기, 쟁기.)
103004 @ 그럼, 쟁기로 갈잖아예. 쟁기에 영 끼우는 거 이름도 알아지쿠과?(그럼, 쟁기로 갈잖아요. 쟁기에 이렇게 끼우는 거 이름도 알겠습니까?)
103004 #1 보섭.(보습.)
103004 @ 예, 보섭 끼우고예. 보섭 옆에 영 세워진 건 뭐과?(예, 보습 끼우고요. 보습 옆에 이렇게 세워진 건 뭡니까?)
103004 #1 벳, 벳, 벳. 옆이 건 벳. 잠대에 보섭 메왕 그디 벳 메와사 밧 갈주.(볏, 볏, 볏. 옆에 건 볏. 쟁기에 보습 메우고 거기 볏 메워야 밭 갈지.)
103004 @ 잠대랑 쉐랑 영 이어주는 줄이 잇잖아예. 그건 뭐렌 골읍니까?(쟁기랑 소랑 이렇게 이어주는 줄이 있잖아요. 그건 뭐라고 말합니까?)
103004 #1 그거는 무시거여만은. 저, 저 쉐앗배[67]. 질게 영 앞이 멍에에 이어 가지고 뒤에 그 장기레 돌아메영 영 손 양짝더레 걸령 걸엉 장기 영 심엉 허는 거.(그거는 무엇이여만. 저, 저 봇줄. 길게 이렇게 앞에 멍에에 이어 가지고 뒤에 그 쟁기에 달아매서 이렇게 손 양쪽으로 걸려서 걸어서 쟁기 이렇게 잡아서 하는 거.)
103004 @ 보리는 언제 씨 뿌리는 거라마씨?(보리는 언제 씨 뿌리는 거예요?)
103004 #1 구월덜. 음력 구월덜.(구월. 음력 구월.)

67) '쉐앗배'는 소의 등에 짐을 실을 때 동여 묶는 조금 굵직하고 기다란 밧줄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봇줄을 뜻한다.

103004 @ 아까 거름 뿌렁, 그 우이 씨 뿌렁 그 다음은 밧 가는 거라예?(아까 거름 뿌려서, 그 위에 씨 뿌려서 그 다음은 밭 가는 거지요?)

103004 #1 으.(으.)

103004 @ 뭐로 가는 거라?(뭐로 가는 거야?)

103004 #1 소.(소.)

103004 @ 쉐.(소.)

103004 #1 쉐. 쉐로. 쉐로 가는 거.(소. 소로. 소로 가는 거.)

103004 @ 쉐에 잠대 헤 가지고.(소에 쟁기 해 가지고.)

103004 #1 으, 쉐에 장기 메왕.(으, 소에 쟁기 메워서.)

103004 @ 장기 메왕.(쟁기 메워서.)

103004 #1 예, 멍에 헤영 쉐앗배로 영 이엉. 거기 영 줄라메영, 줄라메영 이젠 두우로 장기 헤영, 이젠 보섭 헤영.(예, 멍에 해서 봇줄로 이렇게 이어서. 거기 이렇게 잘라매서, 잘라매서 이젠 뒤로 쟁기 해서, 이젠 보습 해서.)

103004 @ 보섭 헤영.(보습 해서.)

103004 #1 보섭 찔렁.(보습 찔러서.)

103005 @ 게민 보리씨 뿌릴 때는 어떵 뿌립니까?(그럼 보리씨 뿌릴 때는 어떻게 뿌립니까?)

103005 #1 보리씨 뿌릴 때는 무신 저 옛날 좀팍[68]. 흔 뒈, 이제 거트민 뒈싱 흔 뒈 드는 좀팍. 그것에 놔 가지고 영 심어 가지고 이짝 손으론 심고 이짝 손으로 뿌리는 거라.(보리씨 뿌릴 때는 무슨 저 옛날 '좀팍'. 한 되, 이제 같으면 되승 한 되 드는 '좀팍'. 그것에 놔 가지고 이렇게 잡아 가지고 이쪽 손으로 잡고 이쪽 손으로 뿌리는 거야.)

103005 @ 으, 뒈약세기 들렁.(으, 식되 들고.)

103005 #1 좀팍, 좀팍.('좀팍', '좀팍'.)

103005 @ 아, 좀팍 들렁.(아, '좀팍' 들고.)

103005 #1 뒈약세긴 작으니까.(식되는 작으니까.)

103005 @ 아.(아.)

103005 #1 뒈약세기로 다섯 개 드는가, 좀팍이.(식되로 다섯 개 드는가, '좀팍'이.)

103005 @ 아, 좀팍이 큰 것과?(아, '좀팍'이 큰 겁니까?)

103005 #1 으, 크주게. 좀팍은 크고. 대싱 흔 뒈, 이제 거트민 대싱 흔 뒈 드는 거.(으, 크지. '좀팍'은 크고. 되승 한 되, 이제 같으면 되승 한 되 드는 거.)

103005 @ 대싱 흔 뒈 드는 거.(되승 한 되 드는 거.)

103005 #1 으. 그것이 좀팍. 옛날 우리 써난 좀팍 불림질도 영 영 허는 좀팍. 그걸로 허고.(으. 그것이 '좀팍'. 옛날 우리 썼던 '좀팍' 불림질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68) '좀팍'은 '한 되들이만큼 하게 나무를 파서 만든 둥그스름한 그릇'을 말한다. 곡물을 뜰 때 사용하는 도구로 지역에 따라 '좀박, 손박, 솔박'이라고도 한다.

‘좀팍’. 그걸로 하고.)

103005 @ 그걸로 흔 손엔 들고 흔 손으로 영 뿌리는 거라예. 게민 씨 뿌릴 때 씨는 여자가 뿌리는 거?(그걸로 한 손엔 들고 한 손으로 이렇게 뿌리는 거지요. 그럼 씨 뿌릴 때 씨는 여자가 뿌리는 거?)

103005 #1 여자도 뿌리고 남저도 뿌리곡. 남저 엇으민 여자 뿌려. 우린.(여자도 뿌리고 남자도 뿌리고. 남자 없으면 여자 뿌려. 우린.)

103004 @ 남자 밧 갈아야 헐 거 아니?(남자 밭 갈아야 할 거 아니?)

103004 #1 으, 남자는 헤도 밧 가는 사름이 매 집이 엇어.(으, 남자는 해도 밭 가는 사람이 매 집에 없어.)

103004 @ 으.(으.)

103004 #1 우리 마을이믄 흔, 우리 마을이믄 스무 사름쯤 신가? 경허민 그 삯 줘근에게게 빌어당.(우리 마을이면 한, 우리 마을이면 스무 사람쯤 있을까? 그러면 그 삯 줘서 빌려다가.)

103004 @ 밧 가는 사름 빌어당?(밭 가는 사람 빌려다가?)

103004 #1 으, 빌어단게. 매 집이 엇어, 우리 집도 엇어난 엇어난.(으, 빌려다가. 매 집에 없어, 우리 집도 없으니까 없으니까.)

103004 @ 그민 그 밧 가는 사람이 쉐 키우는 사람이과?(그럼 그 밭 가는 사람이 소 키우는 사람입니까?)

103004 #1 으, 으. 쉐 키우는 사람이 밧 가는 사름.(으, 으. 소 키우는 사람이 밭 가는 사람.)

103004 @ 밧갈쉐[69] 키우는 사름?(‘밧갈쉐’ 키우는 사람?)

103004 #1 으, 밧갈쉐 키우젠 헤영 영 키우주게. 밧 갈젠 헤영 영 키우고 엿날엔 밧덜 갈젠. 경헨 촐덜 헤당 멕이곡.(으, ‘밧갈쉐’ 키우려고 해서 이렇게 키우지. 밭 갈려고 해서 이렇게 키우고 옛날엔 밭들 갈려고. 그래서 꼴들 해다가 먹이고.)

103004 @ 게민 그 밧 갈젠 허민 그 옛날에 밧 가는 삯으로 얼마나, 뭐 줘나신디 알아지쿠과? 돈은 안 줘실 거라예. 쏠 줘신가?(그럼 그 밭 갈려고 하면 그 옛날에 밭 가는 삯으로 얼마나, 뭐 줬었는지 알겠어요? 돈은 안 줬을 거지요. 쌀 줬을까?)

103004 #1 아니 돈도 조끔 줘야주게.(아니 돈도 조금 줘야지.)

103004 @ 얼마 줘난지 알아지쿠과?(얼마 줬었는지 알겠습니까?)

103004 #1 그때는 얼마 안 줘져실 걸.(그때는 얼마 안 줬을 걸.)

103004 @ 안 줘져실 거라예?(안 줬을 거지요?)

103004 #1 예, 그때는 멧 백 원이지, 멧 백 원 뒐 처렌가이. 잊어불어졋져만은.(예, 그때는 몇 백 원이지, 몇 백 원 될 셈인가. 잊어버렸지만.)

103004 @ 게난 어무니네 그거 빌엉 밧 간 거마씨?(그러니까 어머니네 그거 빌려서 밭 가는 거요?)

---

69) ‘밧갈쉐’는 밭을 가는 데 부리는 소를 말한다.

103004 #1 빌엉, 빌엉. 밧 갈젠 허민 메칠 전이부떠 강 부탁허영 빌엉.(빌려서, 빌려서. 밭 갈려고 하면 며칠 전에부터 가서 부탁하고 빌려서.)

103005 @ 으, 그럼 씨는 남자 어른이 뿌리고?(으, 그럼 씨는 남자 어른이 뿌리고?)

103004 #1 씨는 언제나 나가 뿌려.(씨는 언제나 내가 뿌려.)

103004 @ 할무니가 뿌려?(할머니가 뿌려?)

103004 #1 어. 나가 뿌렷지 누게가 뿌려. 거름이고 뭣이고 나가. 우리 집이 하르방[70]이 일본 강 살아 불고.(어. 내가 뿌렸지 누가 뿌려. 거름이고 뭣이고 내가. 우리 집의 할아버지가 일본 가서 살아 버리고.)

103004 @ 아, 일본 강 엇어낫수과?(아, 일본 가서 없었습니까?)

103004 #1 으, 여기 나 혼자 살고. 애기덜 키우면서 나 혼자 살고.(으, 여기 나 혼자 살고. 아기들 키우면서 나 혼자 살고.)

103006 @ 게민예, 보리 종류에는 어떤 게 잇수과?(그럼요, 보리 종류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103006 #1 술보리.(쌀보리.)

103006 @ 술보리허고 또?(쌀보리하고 또?)

103006 #1 우린 술보리만 헤난.(우린 쌀보리만 했어.)

103006 @ 술보리만 헤난.(쌀보리만 했어.)

103006 #1 으, 아무것도 다른 보린 엇어. 어떤 사름덜은 맥주보리.(으, 아무것도 다른 보린 없어. 어떤 사람들은 맥주보리.)

103006 @ 맥주보리.(맥주보리.)

103006 #1 밀.(밀.)

103006 @ 밀.(밀.)

103006 #1 그런 거 헷주만은, 우린 그런 거 아니. 술보리만.(그런 거 했지만, 우린 그런 거 아니. 쌀보리만.)

103006 @ 보리 종류에는 아까 술보리가 잇고.(보리 종류에는 아까 쌀보리가 있고.)

103006 #1 맥주보리가 잇고.(맥주보리가 있고.)

103006 @ 또 다른 보리도 잇수과?(또 다른 보리도 있습니까?)

103006 #1 여기는 그거 두 가지.(여기는 그거 두 가지.)

103006 @ 두 가지베끼 엇고예.(두 가지밖에 없고요.)

103007 #1 보리밧 밧 갈면 붋는 건 안 헙니까?(보리밭 밭 갈면 밟는 건 안 합니까?)

103007 @ 아니 보린 그렇지 안혜.(아니 보린 그렇지 않아.)

103007 #1 보리 안 불라.(보리 안 밟아.)

103007 @ 으, 보린 안 불라.(으, 보린 안 밟아.)

---

70) '하르방'은 표준어의 '할아버지'에 대응하나, 여기서는 자신의 남편을 가리킨다.

103007 #1 조는 봌라도.(조는 밟아도.)

103007 @ 아, 보린 안 봌라.(아, 보린 안 밟아.)

103007 #1 보린 안 봌라 그냥. 처음에 걸름 뿌렁 씨 뿌렁 그 다음에 그냥 쉐로 갈믄 그것이 끗.(보린 안 밟아 그냥. 처음에 거름 뿌려서 씨 뿌려서 그 다음에 그냥 소로 갈면 그것이 끝.)

103007 @ 아, 끗는 것도 안 허고.(아, 끄는 것도 안 하고.)

103007 #1 으, 끗는 것도 안 허고. 조는 이거 폐라와.(으, 끄는 것도 안 하고. 조는 이거 폐로워.)

103008 @ 존 이땅 물어보쿠다예. 조는 이땅 물어보고 보리밧디 검질멥니까?(조는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조는 이따가 물어보고 보리밭에 김맵니까?)

103008 #1 아이고, 검질메곡 말곡. 경헌디 저 ᄒᆞ꼼 검질 엇은 밧딘 두 번쯤 돌아앚앙 메민 뒈는데, 처음 초불 ᄒᆞᆫ 번 메고 또 짓으민 또 ᄒᆞᆫ 불 메민 뒈는디 짓어난 밧디는 세 불쯤 메야지. 보리 검질도. 겐디 엇어난 밧디는 ᄒᆞᆫ 불 메민 보리 검질은 끝나, 보리 검질은.(아이고, 김매고 말고. 그런데 저 조금 김 없는 밭은 두 번쯤 돌아앉아서 매면 되는데, 처음 초벌 한 번 매고 또 짓으면 또 한 벌 매면 되는데 짓었던 밭에는 세 벌쯤 매야지. 보리 김도. 그런데 없었던 밭에는 한 벌 매면 보리 김은 끝나, 보리 김은.)

103008 @ 검질 짓은 디는?(김 짓은 데는?)

103008 #1 짓은 디는 세 불까지도 메여.(짓은 데는 세 벌까지도 매.)

103009 @ 게민 보리밧디 나는 검질은 뭐가 잇수과?(그럼 보리밭에 나는 김은 뭐가 있습니까?)

103009 #1 보리밧디 나는 검질덜은 뭐 그 엿날에 무신 저 진풀.(보리밭에 나는 김들은 뭐 그 옛날에 무슨 저 별꽃.)

103009 @ 으.(으.)

103009 #1 또 무신 쒜비눔, 물릇.(또 무슨 쇠비름, 무릇.)

103009 @ 물릇도 보리밧디 납니까?(무릇도 보리밭에 납니까?)

103009 #1 예, 물릇도 경 나. 이제는 물릇 엇어져 불언.(예, 무릇도 그렇게 나. 이제는 무릇도 없어져 버렸어.)

103009 @ 엇어져 불언.(없어져 버렸어.)

103009 #1 우리 밧덜도 이제 여기, 여기 천이백 평 이디 잇주만은 그디도 물릇이 엇어, 지금은 영 보니까.(우리 밭들도 이제 여기, 여기 천이백 평 여기 있지만 거기도 무릇이 없어,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103009 @ 아.(아.)

103009 #1 지금은 취ᄂᆞ물 갈고 무시거 허난 경헌 디사.(지금은 취나물 갈고 무엇 하니까 그런 데야.)

103009 @ 게난 쒜비눔 나고?(그러니까 쇠비름 나고?)

103009 #1 진풀 나고.(별꽃 나고.)

103009 @ 진풀 나고.(별꽃 나고.)

103009 #1 또 물릇 나고, 쑥 나고.(또 무릇 나고, 쑥 나고.)

103009 @ 쑥?(쑥?)

103009 #1 예.(예.)

103009 @ 쑥 나고. 또 잇수과, 나는 거?(쑥 나고. 또 있습니까, 나는 거?)

103009 #1 또 이실 거라덜, 몰라도.(또 있을 거야들, 몰라도.)

103009 @ 보리처럼 막 키 크는 풀도 잇고?(보리처럼 아주 키 크는 풀도 있고?)

103009 #1 키 키는 풀은 벨로 엇어. 보리 철엔.(키 키는 풀은 별로 없어. 보리 철엔.)

103009 @ 예. 게민 보리 익언.(예. 그럼 보리 익었어.)

103009 #1 익언.(익었어.)

103010 @ 이제 수확허젠 허민, 들이젠 허민 어떵 헙니까?(이제 수확하려고 하면, 들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103010 #1 들이젠 허민 익은 줄 알믄 이젠 호미로 이녁만 강 비는 거라.(들이려고 하면 익은 줄 알면 이젠 낫으로 자기만 가서 베는 거야.)

103010 @ 비영, 경헨.(베어서, 그래서.)

103010 #1 이젠 비영 나란히 눅져 놩. 다 비여지믄 이젠 문첨 빈 ᄎᆞ례로 무꺼, 무꺼 이만씩. 이만씩 무껑.(이젠 베어서 나란히 눕혀 놔서. 다 베면 이젠 먼저 벤 차례로 묶어, 묶어 이만큼씩. 이만큼씩 묶어.)

103010 @ 으.(으.)

103010 #1 무껑 이젠 그거 엿날엔 흔 밧더레 밧 가운더레 가져당 메와. 데며놔. 데며놩 이제 비 왐직 허민 뭘 가져당 더꺼.(묶어서 이젠 그거 옛날엔 한 밭으로 밭 가운데로 가져다가 메워. 쟁여놔. 쟁여놔서 이제 비 올 거 같으면 뭘 가져다가 덮어.)

103010 @ 으.(으.)

103010 #1 옛날엔 가빠도 엇고 그냥 뭐 그디 무신 것덜.(옛날엔 가빠도 없고 그냥 뭐 거기 무슨 것들.)

103010 @ 뭐로 더꺼서, 가빠 엇이난?(뭐로 덮었어, 가빠 없으니까?)

103010 #1 에고, 가빠 엇언 무시거로 더꺼나져신고 엿날에?(에고, 가빠 없어서 무엇으로 덮었었는고 옛날에?)

103010 @ 새 비영?(새 베어서?)

103010 #1 으, 그걸 거라. 새 비영, 무신 저 새로, 엿날 새, 집 이는 초가집 이는 새가 잇엇주게. 그걸로 ᄂᆞ람쥐엔 헌 것이 잇엇주게, ᄂᆞ람쥐.(으, 그걸 거야. 새 베어서, 무슨 저 새로, 옛날 새, 집 이는 초가집 이는 새가 있었지. 그걸로 이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 이엉.)

103010 @ 으.(으.)

103010 #1 그거 여껏던 거 헤다근에 더꺼져실 거라. 밧디 메와 놩.(그거 엮었던

거 해다가 덮었을 거야. 밭에 메워 놓고.)

103010 @ 게민 저 보리 빌 때는 뭐로 비여서?(그럼 저 보리 벨 때는 뭐로 베였어?)

103010 #1 호미로, 호미.(낫으로, 낫.)

103010 @ 예, 호미로 비영 물려 놓잖아.(예, 낫으로 베여서 말려 놓잖아.)

103010 #1 으.(으.)

103010 @ 무끌 때는 어만큼 헹?(묶을 때는 어느만큼 해서?)

103010 #1 무끌 때는 요만씩, 요만씩 그자.(묶을 때는 요만큼씩, 요만큼씩 그저.)

103010 @ 그게 흔 뭇?(그게 한 뭇?)

103010 #1 흔 뭇, 흔 뭇.(한 뭇, 한 뭇.)

103010 @ 흔 뭇이 보리는 몇 개면 흔 바리가 됩니까?(한 뭇이 보리는 몇 개면 한 바리가 됩니까?)

103010 #1 그러니까 그 흔 바리, 두 바리 허는 거는.(그러니까 그 한 바리, 두 바리 하는 거는.)

103010 @ 으.(으.)

103010 #1 그거는 그런 말이나 쉐나 기운이 쎈 것에는 만이 들어가고 기운이 족으민 작게 시끄고.(그거는 그런 말이나 소나 기운이 센 것에는 많이 들어가고 기운이 적으면 적게 싣고.)

103010 @ 아, 작게 시끄고.(아, 적게 싣고.)

103010 #1 그거 흔정이 엇어.(그거 한정이 없어.)

103010 @ 게민 뭇 헹 무끌 때, 이 무끈 걸 뭇이렌 헙니까?(그럼 뭇 해서 묶을 때, 이 묶은 걸 뭇이라고 합니까?)

103010 #1 뭇이렌. 흔 뭇, 두 뭇.(뭇이라고. 한 뭇, 두 뭇.)

103010 @ 이렇게 묶는 거는 뭐로 무꺼?(이렇게 묶는 거는 뭐로 묶어?)

103010 #1 보리로.(보리로.)

103010 @ 보리로.(보리로.)

103010 #1 이거는 보리 고고리지, 보리 고고리, 보리썰 나는 고고리.(이거는 보리 이삭이지, 보리 이삭. 보리쌀 나는 이삭.)

103010 @ 으.(으.)

103010 #1 겐 욜로다가 영 획허게 데와다 놔 가지고 영 자쳐 가지고 나무데기를 자쳐 가지고 그걸로 무꺼.(그래서 욜로다가 이렇게 획하게 꼬아 놔 가지고 이렇게 젖혀 가지고 나뭇 가지를 젖혀 가지고 그걸로 묶어.)

103010 @ 게민 지께[71]인 거다예?(그럼 '지께'인 거네요?)

103010 #1 으. 보리 지께지게. 보리 지께.(으. 보리 '지께'지. 보리 '지께'.)

103010 @ 보리낭 그대로 묶는 거난예?(보릿짚 그대로 묶는 거니까요?)

71) '지께'는 곡식 단 따위를 묶을 때 그 곡식의 줄기를 꼬아 묶는 매끼를 말한다.

103010 #1 보리 곡다리로 데와 가지고 그거를 이제 풀어지지 못허게 헤근에 그거 보릿대로 이젠 반으로 갈랑 영, 영 갈랑. 경헤근에 허민 이디 풀어지지 안 헤영 그대로 무꺼져.(보리 꼭지로 꼬아 가지고 그거를 이제 풀어지지 못하게 해서 그거 보리대로 이젠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이렇게 갈라서. 그래서 하면 여기 풀어지지 않아서 그대로 묶을 수 있어.)

103010 @ 아, 경헨 모다 놧당.(아, 그렇게 모아 놨다가.)

103010 #1 모다 놧당.(모아 놨다가.)

103010 @ 눌 눌어 놧당.(가리 가려 놨다가.)

103010 #1 눌 눌어 놧당 이젠.(가리 가려 놨다가 이젠.)

103010 @ 어떵 헤?(어떻게 해?)

103011 #1 경헤여근에 이젠 밧디설 홀트던가 클로, 클로.(그리해서 이젠 밭에서 홅던가 틀로, 틀로.)

103011 @ 으.(으.)

103011 #1 경 안 허민 집이 그걸 지어다 놩.(그렇게 안 하면 집에 그걸 지어다 놓고.)

103011 @ 으.(으.)

103011 #1 짐으로 지어다 놔 가지고 집이 오란 데메 둬근에 또 그 저 보리클.(짐으로 지어다 놔 가지고 집에 와서 쟁여 둬서 또 그 저 보리그네.)

103011 @ 으.(으.)

103011 #1 보리클로 홀타.(보리그네로 홅아.)

103011 @ 홀타.(홅아.)

103011 #1 홀타근에 이젠 기계로 장만허여. 홀탕 기계 엇인 때엔 마께로 두들고.(홅아서 이젠 기계로 장만해서. 홅아서 기계 없을 때엔 방망이로 두드리고.)

103011 @ 으.(으.)

103011 #1 엿날에 완전히 저 보리클덜 엇은 때엔. 경헌 때 헷주만은 중간에 보리클덜 나니까 클로 헷주게, 기계로.(옛날엔 완전히 저 보리그네들 없을 때에는. 그럴 때 했지만 중간에 보리그네들 나니까 틀로 했지, 기계로.)

103011 @ 클로 긁어낭.(틀로 긁어내서.)

103011 #1 으, 저 보리, 보리 홀트는 클이 잇어.(으, 저 보리, 보리 홅는 틀이 있어.)

103011 @ 으.(으.)

103011 #1 홀트는 클로 홀타 놩 이제 그 으물만 헤영. 막 데며 놧당 이젠 클 오랑 불렁 놓민. 것도 흔 마을에 우리 마을에 하나베끼 엇어주게. 거 클 허는 사름덜이.(홅는 틀로 홅아 놓고 이제 그 여물만 해서. 마구 쟁여 놨다가 이젠 틀 와서 불러 놓으면. 것도 한 마을에 우리 마을에 하나밖에 없었지. 거 틀 하는 사람들이.)

103011 @ 으.(으.)

103011 #1 기계로 허는 사름덜이.(기계로 하는 사람들이.)

103011 @ 으.(으.)

103011 #1 그걸로 오라근에 장만헤 줘.(그걸로 와서 장만해 줘.)

103011 @ 아, 게민 보리클로 헌 걸 다시 모아 놩 기계로 장만허는 거?(아, 그러면 보리그네로 한 걸 다시 모아 놔서 기계로 장만하는 거?)

103011 #1 아, 클로 허지 안허영 장만허기 전에는, 전에도 고고리만 헤여 놔근에.(아, 틀로 하지 않고 장만하기 전에는, 전에도 이삭만 해 놓고.)

103011 @ 아.(아.)

103011 #1 고고리만 보리클로 홀타놔근에. 이 대는, 보릿대는 엇어지고 보릿대는 뚜로 앗앙 눌고.(이삭만 보리그네로 홅아놓고. 이 대는 보릿대는 없어지고 보릿대는 따로 가져서 가리고.)

103011 @ 으.(으.)

103011 #1 그거 눌엇다가 또 불 때고, 밥헐 때에 불 솜고. 경허고 고고리, 으물은 으물대로 헤근에, 헤 놧당 기계 오믄 장만허믄 쏠이 뒈는 거. 보리가 뒈는 거.(그거 가렸다가 또 불 때고, 밥할 때에 불 때고. 그리고 이삭, 여물은 여물대로 해서, 해 놨다가 기계 오면 장만하면 쌀이 되는 거. 보리가 되는 거.)

103011 @ 그 기계는 뭐렌 부르는 것과?(그거 가렸다가 또 불 때고, 밥할 때에 불 때고. 그리고 이삭, 여물은 여물대로 해서, 해 놨다가 기계 오면 장만하면 쌀이 되는 거. 보리가 되는 거.)

103011 #1 기계는 저 보리클, 보리클.(기계는 저 보리그네, 보리그네.)

103011 @ 홀틀 때 쓰는 게 보리클 아니고?(홅을 때 쓰는 게 보리그네 아니고?)

103011 #1 홀틀 때 쓰는 거는 저 무신 클. 잊어불어졋져이. 홀트 때 쓰는 것이 보리클인가?(홅을 때 쓰는 거는 저 무슨 틀. 잊어버렸어. 홅을 때 쓰는 것이 보리그네인가?)

103011 @ 으. 홀틀 때 쓰는 게 보리클.(으. 홅을 때 쓰는 게 보리그네.)

103011 #1 이거는, 이거는 방에 공장에서 나오는 클이니까 무신 클이엔 헤낫저만은 잊어불어졋저이. 맞아, 맞아 홀틀 때 허는 건 보리클.(이거는, 이거는 방아 공장에서 나오는 틀이니까 무슨 틀이라도 했었지만 잊어버렸어. 맞아, 맞아 홅을 때 하는 건 보리그네.)

103011 @ 으.(으.)

103011 #1 보리클도 우리 집이 어디 돌아져실 거라.(보리그네도 우리 집에 어디 달렸을 거야.)

103011 @ 아, 잇수과, 보리클.(아, 있습니까, 보리그네.)

103011 #1 어디 실 거라. 창고에.(어디 있을 거야.)

103011 @ 게난 보리클은 영헨 이렇게 이렇게 막 박아진 거잖아예?(그러니까 보리그네는 이런 이렇게 이렇게 마구 박힌 거잖아요?)

103011 #1 으, 박아진 거, 박아진 거.(으, 박힌 거, 박힌 거.)

103011 @ 게난 여기 영 나무 세왕?(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무 세워서?)

103011 #1 으.(으.)
103011 @ 여기에 영 찍 놩?(여기에 이렇게 짚 놔서?)
103011 #1 어, 어. 둥기는 것이 보리클.(어, 어. 당기는 것이 보리그네.)
103011 @ 게민 고고리만 톹아질 거?(그럼 이삭만 뜯어질 거?)
103011 #1 으, 으.(으, 으.)
103011 @ 그 고고리 톹아진 거 모여 놧당.(그 이삭 뜯어진 거 모여 놨다가.)
103012 #1 모여 놧당 방에 클, 방에 공장에 클로.(모여 놨다가 방아 틀, 방아 공장에 틀로.)
103012 @ 아, 방에 클?(아, 방아 틀?)
103012 #1 으. 방에 클.(으, 방아 틀.)
103012 @ 이거 톹으는 건 보리클이고.(이거 뜯는 건 보리그네이고.)
103012 #1 으, 보리클.(으, 보리그네.)
103012 @ 그 다음에 방에클에 놓는 거예?(그 다음에 보리그네에 놓는 거요?)
103012 #1 으, 방에 클.(으, 방아 틀.)
103012 @ 게민 방에 클 없을 때는?(그럼 방아 틀 없을 때는?)
103012 #1 두드렷던 거주게.(두드렸던 거지.)
103012 @ 두드리는 거는 뭐로 두드리는 거라?(두드리는 거는 뭐로 두드리는 거야?)
103012 #1 도께, 도께.(도리깨, 도리깨.)
103012 @ 으.(으.)
103012 #1 으, 도께로 마당에 널어 놩 도께로 두드렁 장만헤낫주.(으, 도리깨로 마당에 널어 놔서 도리깨로 두드려서 장만했었지.)
103012 @ 으, 으. 이제 도께로 장만 다 헷수다.(으, 으. 이제 도리깨로 장만 다 했습니다.)
103012 #1 예게.(예.)
103012 @ 다 헌 다음에 이젠 뭐 헤?(다 한 다음에 이젠 뭐 해?)
103012 #1 이젠 얼멩이로 치영, 치영 우이 거 앗아 뒁 이젠 불려.(이젠 어레미로 쳐서, 쳐서 위에 거 가져 둬서 이젠 불려.)
103012 @ 불려?(불려?)
103012 #1 으, 경헨 이제 불령 허민 뒈는 거.(으, 그래서 이제 불려서 하면 되는 거.)
103012 @ 쌀은?(쌀은?)
103012 #1 쏠은 쏠대로 방에.(쌀은 쌀대로 방아.)
103012 @ 으.(으.)
103012 #1 방에, 큰 방에가 잇지게.(방아, 큰 방아가 있지.)
103012 @ 그걸 무슨 방에렌 불러?(그걸 무슨 방아라고 불러?)
103012 #1 저 물방에.(저 연자매.)

103012 @ 물방에.(연자매.)

103012 #1 물방에. 물방에 물로도 짓고 우리 사람으로도 으섯 사름, 일곱 사름 수눌엉 가멍 허영 지어당 먹어낫주게.(연자매. 연자매 말로도 짓고 우리 사람으로도 여섯 사람, 일곱 사람 품앗이해 가면서 해서 지어다 먹었었지.)

103012 @ 으.(으.)

103012 #1 경헌디 그 다음에 보리클 그 기계를 나난 기계로 강 가까와나고.(그런데 그 다음에 보리그네 그 기계를 나니까 기계로 가서 깎아왔었고.)

103012 @ 기곗방에 강.(방앗간에 가서.)

103012 #1 기곗방에 강. 고내도 혼 밧디 잇어낫주게.(방앗간에 가서. 고내도 한 군데 있었어.)

103012 @ 기곗방 하나 잇어낫수과?(방앗간 하나 있었습니까?)

103012 #1 잇어난, 잇어난.(있었어, 있었어.)

103012 @ 으. 게민 아까 보리 씨 뿌리는 거는 음력 구월에 헷잖아예?(으. 그럼 아까 보리 씨 뿌리는 거는 음력 구월에 했잖아요?)

103012 #1 예, 음력 구월.(예, 음력 구월.)

103012 @ 보리 비는 거는?(보리 베는 거는?)

103012 #1 비는 거는 오월덜, 음력 오월덜.(베는 거는 오월, 음력 오월.)

103012 @ 오월덜에 보리 비고 타작도 다 오월덜에 헤?(오월에 보리 베고 타작도 다 오월에 해?)

103012 #1 예, 예. 비여 놓면은 타작허고, 장만허는 클 엇은 땐 타작으로 헤낫주, 도께로.(예, 예. 베어 놓으면 타작하고, 장만하는 틀 없을 땐 타작으로 했었지, 도리깨로.)

103012 @ 자, 도께 다 끝낫수다예. 아까 물방에 가 가지고 할 때, 물방에 가 가지고 할 때 사람이, 물이 엇이면?(자, 도리깨 다 끝났습니다. 아까 연자매에 가 가지고 할 때, 연자매 가 가지고 할 때 사람이, 말이 없으면?)

103012 #1 사람으로.(사람으로.)

103012 @ 사람으로 어.(사람으로 어.)

103012 #1 여섯 사름.(여섯 사람.)

103012 @ 여섯 사름. 아, 여섯 사름이 여기 메영.(여섯 사람. 아, 여섯 사람이 여기 메서.)

103012 #1 메영 영 질빵 헤영 메영.(메서 이렇게 질빵 해서 메서.)

103012 @ 음.(음.)

103012 #1 질빵이나 경 안허믄 짐패[72]나.(질빵이나 그렇지 않으면 '짐패'나.)

103012 @ 으.(으.)

103012 #1 그냥 저 무시거로 꼰 짐패. 그걸로나 질빵으로나 메영 둥기곡 또 멧 사름은 밀리곡.(그냥 저 무엇으로 꼰 '짐패'. 그걸로나 질빵으로나 메어서 당기고 또

72) '짐패'는 짐을 지는 데 쓰는 줄을 말한다. 표준어의 질빵에 해당한다.

몇 사람은 밀고.)

103012 @ 으.(으.)

103012 #1 영 ᄌᆞ룩이 잇주게.(이렇게 자룩이 있어.)

103012 @ 낭, 밀리는 거?(나무, 미는 거?)

103012 #1 으, 으. 방엣ᄌᆞ룩.(으, 으. 방앗자루.)

103012 @ 방엣ᄌᆞ룩.(방앗자루.)

103012 #1 방엣ᄌᆞ룩은 밀려주고 앞으로 ᄃᆞᆼ겨주고.(방앗자루는 밀어주고 앞으로 당겨주고.)

103012 @ 여섯 사람이 경 밀리는 거.(여섯 사람이 그렇게 미는 거.)

103012 #1 여섯 사람이.(여섯 사람이.)

103012 @ 건 번갈아 가멍 허는 거?(건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

103012 #1 으, 번갈아 가멍 수눌엉.(으, 번갈아 가면서 품앗이해서.)

103012 @ 수눌엉.(품앗이해서.)

103012 #1 수눌엉. 흔 번은 이 사람네 거 허고 흔 번은 저 사람네 거 허고 경 수눌엉.(품앗이해서. 한 번은 이 사람네 거 하고 한 번은 저 사람네 거 하고 그렇게 품앗이해서.)

103012 @ 아까 걸름 지여 갈 때도 이펜이 앚은 할머니가 수눌엉 걸름 지어 갓덴.(아까 거름 져서 갈 때도 이편에 앉은 할머니가 품앗이해서 거름 지어 갔다고.)

103012 #1 수눌엉 걸름 지고. 뭣이라도 수눌엉, 걸름 지고.(품앗이해서 거름 지고. 뭣이라도 품앗이해서, 거름 지고.)

103012 @ 친구들끼리 그것도 장만헐 때도 경 헷구나예?(친구들끼리 그것도 장만할 때도 그렇게 했군요?)

103012 #1 으, 으.(으, 으.)

103012 @ 게민 보리 장만헐 때 ᄆᆞᆯ방에서 보리 물 놓멍 영 가는 거마씨?(그럼 보리 장만할 때 연자매에서 보리 물 넣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요?)

103012 #1 예, 물 놓멍. 어느 정도.(예, 물 넣으면서. 어느 정도.)

103012 @ 얼마나 영 돌리민 ᄀᆞᆯ아집니까?(얼마나 이렇게 돌리면 갈아집니까?)

103012 #1 아이고, 그거는 시간 제한이 엇어. 시간 제한이 엇엉 그거 영 봐근에 잘 벳겨진 줄 알면은 그만헐 거니까. ᄒᆞ꼼 오래긴 허여. ᄆᆞᆯ방에에서 허는 것이 오래긴 허주게.(아이고, 그거는 시간 제한이 없어. 시간 제한이 없어서 그거 이렇게 봐서 잘 벗겨진 줄 알면 그만할 거니까. 조금 오래긴 해. 연자매에서 하는 것이 오래긴 하지.)

103012 @ 아. 게민 보통 할머니는 보리농서 지을 때 얼마나 지어낫수과? 몇 섬이나 지어낫수과?(아. 그럼 보통 할머니는 보리농사 지을 때 얼마나 지었었습니까? 몇 섬이나 지었었습니까?)

103012 #1 보리 장만헌 거 열다섯 섬까진 지어난.(보리 장만한 거 열다섯 섬까진 지었었어.)

103012 @ 게민 그거.(그럼 그거.)

103012 #1 게난 다 장만헌 거 이디 놓고 저 구들에 놓고도 헤난.(그러니까 다 장만한 거 여기 놓고 저 구들에 놓고도 했었어.)

103012 @ 아.(아.)

103012 #1 그 쏠로, 보리, 보리. 보리로 장만헌 쏠로.(그 쌀로, 보리, 보리. 보리로 장만한 쌀로.)

103012 @ 예, 보리로.(예, 보리로.)

103012 #1 막 기계 오랑 저디서 장만허믄 이레 그냥 놀 디 엇으니까 여기 막 담앙.(마구 기계 와서 저기서 장만하면 이리 그냥 놀 데 없으니까 여기 마구 담아서.)

103012 @ 게민 그 보리는 물방에 안 간 보리를 말허는 거잖아예?(그럼 그 보리는 연자매 안 간 보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103012 #1 으, 안 간, 물방에 안 간 보리.(으, 안 간, 연자매 안 간 보리.)

103012 @ 이렇게 장만헌 보리를 널어놧당 물렷당.(이렇게 장만한 보리를 널어놨다가 말렸다가.)

103012 #1 물렷당.(말렸다가.)

103012 @ 파싹 물려.(바싹 말려.)

103012 #1 파싹 물려.(바싹 말려.)

103012 @ 파싹 물렷당 그 다음 물방에 가는 거잖아예?(바싹 말렸다가 그 다음 연자매 가는 거잖아요?)

103012 #1 으.(으.)

103012 @ 그 열다섯 섬은 흔꺼번에 물방에에 강?(그 열다섯 섬은 한꺼번에 연자매에 가서?)

103012 #1 아니, 아니. 먹을 만썩.(아니, 아니. 먹을 만큼씩.)

103012 @ 먹을 만썩?(먹을 만큼씩?)

103012 #1 으, 으. 다 항에 놓나 푸대에 놓나 다 놔뒷당 먹을 만썩 지어 오주게.(으, 으. 다 항에 넣으나 부대에 넣으나 다 놔뒀다가 먹을 만큼씩 찧어 오지.)

103012 @ 으, 으.(으, 으.)

103012 #1 흔 뻔에 열 말 정도.(한 번에 열 말 정도.)

103012 @ 흔 번에 열 말?(한 번에 열 말?)

103012 #1 예, 열 말 그 정도 물방에에 져.(예, 열 말 그 정도 연자매에 찧어.)

103012 @ 흔 번에 열 말 져.(한 번에 열 말 찧어.)

103012 #1 열 말.(열 말.)

103012 @ 흔 섬이 몇 말이과?(한 섬이 몇 말입니까?)

103012 #1 열닷 말.(열닷 말)

103012 @ 흔 섬까지는 아니다예?(한 섬까지는 아니지요?)

103012 #1 으, 흔 섬꺼지는 못 허고 열 말.(으, 한 섬까지는 못 하고 열 말.)

103012 @ 게민 열다섯 섬 헐 때 이거 다 먹은 것과, 아니면?(그럼 열다섯 섬 할 때 이거 다 먹은 겁니까, 아니면?)

103012 #1 아니, 더러 풀안. 더러 풀안.(아니, 더러 팔았어. 더러 팔았어.)

103012 @ 푼 거. 일 년 먹젠 허민 몇 말?(판 거. 일 년 먹으려고 하면 몇 말?)

103012 #1 처음에 우리 이 비료도 아무것도 엇인 때에는 저 칠백 평 밧디.(처음에 우리 이 비료도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저 칠백 평 밭에.)

103012 @ 으.(으.)

103012 #1 저 밧이 칠백 평이면은. 칠백 평이면은 열 멧 말베끼 아니 난게.(저 밭에 칠백 평이면. 칠백 평이면 열 몇 말밖에 안 났어.)

103012 @ 열 멧 말?(열 몇 말?)

103012 #1 예, 걸름 엇어 부난.(예, 거름 없어 버리니까.)

103012 @ 무사 영 안 나.(왜 이렇게 안 나.)

103012 #1 걸름 엇어 부난 그냥 천리 하나 만리 하나난 그냥, 거베끼 안 난 거라. 경헌디 열다섯 섬 헐 때는 걸름이 나온 때. 그때는 열다섯 섬 뒈연게.(거름 없어 버리니까 그냥 천리 하나 만리 하나니까 그냥, 거밖에 안 난 거야. 그런데 열다섯 섬 할 때는 거름이 나온 때. 그때는 열다섯 섬 되었어.)

103012 @ 으.(으.)

103012 #1 이디 천이백 평 밧디 허고 칠백평 밧디 허니까 그거 허여젼.(여기 천이백 평 밭에 하고 칠백평 밭에 하니까 그거 할 수 있었어.)

103012 @ 게민 열다섯 섬이 천이백 평에, 칠백 펭 헹 천구백 평에서 열다섯 섬이 나온 거라?(그럼 열다섯 섬이 천이백 평에, 칠백 평 해서 천구백 평에서 열다섯 섬이 나온 거야?)

103012 #1 으.(으.)

103012 @ 그럼 그때는 쉐걸름 들인 것과?(그럼 그때는 쇠두엄 들인 겁니까?)

103012 #1 아니 ᄒᆞ꼼 그때는 비료 걸름이 나오난 거.(아니 조금 그때는 비료 거름이 나오니까 거.)

103012 @ 비료 거름 나온 거.(비료 거름 나온 거.)

103012 #1 으, 나온 때 곳세 골아지고 아니 나온 때는 그 수량이면은 ᄒᆞᆫ 뻔에 보리 갈지 못허영 이제 천이백 평에 보리 갈면은 칠백 평에는 유채 ᄂᆞ물 갈고 또 칠백 평에 보리 갈면은 천이백 평에 유채 ᄂᆞ물 갈고.(으, 나온 때 곧 갈 수 있고 안 나온 때는 그 수량이면 한 번에 보리 갈지 못해서 이제 천이백 평에 보리 갈면 칠백 평에는 유채 나물 갈고 또 칠백 평에 보리 갈면 천이백 평에 유채 나물 갈고.)

103012 @ 으.(으.)

103012 #1 어, 바꾸멍.(어, 바꾸면서.)

103012 @ 으.(으.)

103012 #1 경헨 헤낫주게.(그렇게 했었지.)

103012 @ 일 년 살젠 허면은 보리는 얼마나 먹어집니까?(일 년 살려고 하면 보

리는 얼마나 먹을 수 있습니까?)

103012 #1 아이고, 게메. 식구가 하면 한 대로 먹고 작으민 작은 대로 먹엇주만은 그거 지정 못허엿주기.(아이고, 글쎄. 식구가 많으면 많은 대로 먹고 적으면 적은 대로 먹었지만 그거 지정 못했지.)

103012 @ 아까 흔 번 갈민 열 말을 갈앗덴 헷잖아예?(아까 한 번 갈면 열 말을 갈았다고 했잖아요?)

103012 #1 예, 열 말 지여 와.(예, 열 말 찧어 와.)

103012 @ 열 말 졍 오민 그건 얼마나 먹어져서?(열 말 찧어 오면 그건 얼마나 먹을 수 있어?)

103012 #1 열 말 지엉 오민 흔 흔 덜 정도.(열 말 찧어 오면 한 한 달 정도.)

103012 @ 아, 흔 덜 정도. 게민 물방에에도 자꾸 가사큰게.(아, 한 달 정도. 그럼 연자매에도 자꾸 가야겠네.)

103012 #1 예게, 이녁 시민 갈 거고게, 엇이민 못 가고. 엇이민 엇인 대로 어떻게 헤근에 그럭저럭. 돈으로 풀아당 먹곡.(예, 이녁 있으면 갈 거고, 없으면 못 가고.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떻게 해서 그럭저럭. 돈으로 팔아다가 먹고.)

103012 @ 예. 이제 물방에 강 골앙 왓수다. 골앙 오민 또 어떻게 헐 거 보리썰?(예. 이제 연자매 가서 갈아서 왔습니다. 갈아서 오면 또 어떻게 할 거 보리쌀?)

103012 #1 지엉 오민.(찧어 오면.)

103012 @ 졍 오민.(찧어 오면.)

103012 #1 또 ᄀᆞ레로 골아.(또 맷돌로 갈아.)

103012 @ ᄀᆞ레로 골아.(맷돌로 갈아.)

103012 #1 으, 그거. 이제 벌러.(으, 그거. 이제 쪼개.)

103012 @ 무슨 ᄀᆞ레로?(무슨 맷돌로?)

103012 #1 그냥 우리, 우리 보리썰 ᄀᆞ는 ᄀᆞ레, 돌 ᄀᆞ레.(그냥 우리, 우리 보리쌀 가는 맷돌, 돌 맷돌.)

103012 @ 예, 돌 ᄀᆞ레예, 돌 ᄀᆞ레로 골앙.(예, 돌 맷돌요, 돌 맷돌로 갈아서.)

103012 #1 골아.(갈아.)

103012 @ 그걸 뭐 헌덴 헙니까? 거핀덴 헙니까?(그걸 뭐 한다고 합니까? 거피한다고 합니까?)

103012 #1 아니, 거피지 안허영 저 보리쏠로 ᄀᆞ는 무신 것이 잇어, 조정이 잇어.(아니, 거피하지 않고 저 보리쌀로 가는 무슨 것이 있어, 조정이 있어.)

103012 @ 으, 조정이.(으, 조정이.)

103012 #1 으. 조정이 잇어. 그거 ᄀᆞ레가 우이가 무거와근에 허면은 우이 영 중시리[73]가 잇주게. 아래 영 들어가는 중시리가.(으. 조정이 있어. 그거 맷돌이 위가 무거워서 하면 위에 이렇게 '중시리'가 있지. 아래 이렇게 들어가는 '중시리'가.)

---

73) '중시리'는 맷돌의 위짝을 아래짝에 끼워 돌릴 때 벗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돌릴 수 있게 아래짝 가운데 뾰쪽하게 박아 세운 쇠나 나무로 된 기둥 같은 것을 말한다.

103012 @ 으.(으.)

103012 #1 게민 그디 뭐 바탕, ᄒᆞ꼼 밥헹 먹을 정도로 ᄀᆞᆯ아지게끔.(그럼 거기 뭐 바쳐서, 조금 밥해 먹을 정도로 갈아지게끔.)

103012 @ 아. 요걸 뭐렌 부르는 거, 돌 ᄆᆞ레 아랫 거를 뭐렌 부릅니까?(아. 요걸 뭐라고 부르는 거, 돌 맷돌 아래 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103012 #1 아래 거는 게 아래착.(아래 거는 그래 아래짝.)

103012 @ 우이 거는?(위에 거는?)

103012 #1 우이 거는 우이착.(위에 거는 위짝.)

103012 @ 게민 우이착에 영 나왕 여기 꼽는 거라예?(그럼 위짝에 이렇게 나와서 여기 꼽는 거지요?)

103012 #1 예, 영 꼽는 거.(예, 이렇게 꼽는 거.)

103012 @ 게민 여기 구멍난 거는 여기는 뭐렌 ᄀᆞᆯ아?(그럼 여기 구멍난 거는 여기는 뭐라고 말해?)

103012 #1 저 중시리, 이건 중시리 고냥.(저 '중시리', 이건 '중시리' 구멍.)

103012 @ 이건 중시리, 이건 중시리 고냥. 그럼 이 중시리를 가지고 이 높이를 조절허는 거라?(이건 '중시리', 이건 '중시리' 구멍. 그럼 이 '중시리'를 가지고 이 높이를 조절하는 거야?)

103012 #1 예, 조절. ᄆᆞ루를 ᄀᆞᆯ젠 허면은 요만츰 허게 허영 ᄀᆞᆯ고.(예, 조절. 가루를 갈려고 하면 요만큼 하게 해서 갈고.)

103012 @ 으.(으.)

103012 #1 또 보리쏠로 우리 밥헹 먹을 걸로 허젠 허민 요만큼 허영.(또 보리쌀로 우리 밥해서 먹을 걸로 하려고 하면 요만큼씩 해서.)

103012 @ 어.(어.)

103012 #1 그디 뭐 소곱에 담앙.(거기 뭐 속에 담아서.)

103012 @ 담앙.(담앙.)

103012 #1 겐 들러지게 허면은 이것이 쏠이 홁게 나오고.(그래서 들리게 하면 이것이 쌀이 굵게 나오고.)

103012 @ 아.(아.)

103012 #1 또 야트게 허면은 ᄆᆞ룰로 나오고.(또 얕게 하면 가루로 나오고.)

103012 @ 아, 기다예.(아, 그렇군요.)

103012 #1 ᄆᆞ레에 경헌 조정을 헤근에, 이 동글락헌 ᄆᆞ레덜.(맷돌에 그렇게 조정을 해서, 이 동그란 맷돌들.)

103012 @ 겐 알착, 우착.(그래서 아래짝, 위짝.)

103012 #1 우착.(위짝.)

103012 @ 중시리, 중시리 구멍. 또 우착에 고망은 무시거렌 ᄀᆞᆫ는 거라?('중시리', '중시리' 구멍. 또 위짝에 고망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야?)

103012 #1 그거는?(그거는?)

103012 @ 쏠 들어가는 고망.(쌀 들어가는 구멍.)

103012 #1 쏠 들어가는 고냥은 그거 쏠 들어가는 고냥이 무시거엔 헤낫주기만은 그거는, 우에 무엇이엔 헤낫저만은 잊어불언. 그건 잊어불엇저.(쌀 들어가는 구멍은 그거 쌀 들어가는 구멍이 무엇이라고 했었지만 그거는, 위에 무엇이라고 했었지만 잊어버렸어. 그런 잊어버렸어.)

103012 @ 나중에 물어보쿠다. 나중에 생각나믄, 튼내지믄 골아줍서. 또 물어보쿠다. 그믄 영 손 잡는 건 뭐렌 골아?(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생각나면 말해주세요.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손 잡는 건 뭐라고 말해?)

103012 #1 저 ᄀᆞ레 ᄎᆞ룩.(저 맷돌 자루.)

103012 @ 다시 한 번.(다시 한 번.)

103012 #1 ᄀᆞ레 ᄎᆞ룩.(맷돌 자루.)

103012 @ 아, ᄎᆞᄅᆞᆨ이엔 골을 거.(아, 자루라고 말할 거.)

103012 #1 ᄀᆞ렛 자락, ᄀᆞ렛 자룩. 옛날에 그자 ᄀᆞ렛 ᄎᆞ룩, ᄀᆞ렛 ᄎᆞ룩 헤낫주.(‘ᄀᆞ렛 자락’, ‘ᄀᆞ렛 자룩’. 옛날에 그저 ‘ᄀᆞ렛 ᄎᆞ룩’, ‘ᄀᆞ렛 ᄎᆞ룩’ 했었지.)

103012 @ 예, 옛날 곧는 말로 골아줍서.(예, 옛날 말하는 말로 말해주세요.)

103012 #1 ᄀᆞ렛 ᄎᆞ룩.(맷돌 자루.)

103012 @ 영 보리쎨을 ᄀᆞ는 거라예, 돌 ᄀᆞ레에?(이렇게 보리쌀을 가는 거지요, 돌 맷돌에?)

103012 #1 으. 보리쏠도 골고 ᄀᆞ룰로도 골고 그자 뭐 즘쏠[74]로도 골젠 허민 골고 그자. 우이 그 중시리에 호렝이[75]라.(으. 보리쌀도 갈고 가루로도 갈고 그저 뭐 ‘즘쏠’로도 갈려고 하면 갈고 그저. 위에 그 ‘중시리’에 ‘호렝이’야.)

103012 @ 음.(음.)

103012 #1 중시리 호렝이.(‘중시리’ ‘호렝이’.)

103012 @ 경헨 보리쎨 골아지민 이제 밥헤 먹는 거, 그걸로?(그래서 보리쌀 갈리면 이제 밥해 먹는 거, 그걸로?)

103012 #1 으.(으.)

103012 @ 보리쎨 골앙?(보리쌀 갈아서?)

103012 #1 보리쎨로 밥은 헤 먹는 거고.(보리쌀로 밥은 해 먹는 거고.)

103012 @ 영 보리쎨 ᄀᆞ는 거는 거핀덴은 얘기 안 헙니까?(이렇게 보리쌀 가는 거는 거피한다고는 얘기 안 헙니까?)

103012 #1 거피덴, 거피는 거는 거피는 대로 즘쏠밥[76]이엔 헨 즘쏠.(거피한덴, 거피하는 거는 거피하는 대로 ‘즘쏠밥’이라고도 해서 ‘즘쏠’.)

103012 @ 거피는 거는 다른 거?(거피하는 거는 다른 거?)

103012 #1 즘쏠. 아래 그 아래 즘쏠.(‘즘쏠’. 아래 그 아래 ‘즘쏠’.)

103012 @ 아, 즘쏠로.(아, ‘즘쏠’로.)

---

74) ‘즘쏠’은 잘게 간 보리쌀 등을 말한다.

75) ‘호렝이’는 ‘집줄’, 참바 따위를 틀 때 사용하는 도구다.

76) ‘즘쏠밥’은 잘게 간 보리쌀로 지은 밥을 말한다.

103012 #1 그 보리쏠 허는 알로 또 체가 세 질이라.(그 보리쌀 하는 아래로 또 체가 세 종류라.)

103012 @ 음.(음.)

103012 #1 대체.(대체.)

103012 @ 음.(음.

103012 #1 거름체[77], 총체[78].('거름체', '총체'.)

103012 @ 음.(음.)

103012 #1 경허믄 대체로 나오는 거는 밥헹 먹고 또 거름체로 나오는 거는 제게 헤지는 밥이 잇주게.(그러면 대체로 나오는 거는 밥해서 먹고 또 '거름체'로 나오는 거는 재게 할 수 있는 밥이 있지.)

103012 @ 으.(으.)

103012 #1 물만 꿰와근에 그냥 그거 놓면은 얼른 헤져. 경허는 거.(물만 끓어서 그냥 그거 넣으면 얼른 할 수 있어. 그러는 거.)

103012 @ 게민 그 거름체에 나오는 거는 제게 헤지는 거난 보리가 갈라진 거 아니?(그럼 그 '거름체'에 나오는 거는 재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보리가 쪼개지는 거 아니?)

103012 #1 으, 으. 보리쏠이 좀질이 나오는 거게. ᄀᆞ튼 보리썰이라도 홁게 나오고 좀질이 나오고 허는 거.(으, 으. 보리쌀이 가늘게 나오는 거. 같은 보리쌀이라도 굵게 나오고 가늘게 나오고 하는 거.)

103013 @ 그럼 보리쏠로는 주로 뭐 헹 먹엇수과?(그럼 보리쌀로는 주로 뭐 해서 먹었습니까?)

103013 #1 보리쏠로는. 보리쏠로는 밥헤 먹고게, 밥헤 먹고 그걸로 또 좀질이 골앙 떡도 허고.(보리쌀로는. 보리쌀로는 밥해 먹고, 밥해 먹고 그걸로 또 가늘게 갈아서 떡도 하고.)

103013 @ 떡 허고.(떡 하고.)

103013 #1 으, 그거주게.(으, 그거지.)

103013 @ 보리썰로 무슨 떡 헤져신고예?(보리쌀로 무슨 떡 했었나요?)

103013 #1 보리썰로 귀주떡도 허고, 또, 또 저 무시거 헤근에, 누룩 허영 막걸리 거치 헤 놩.(보리쌀로 기주떡도 하고, 또, 또 저 무엇 해서, 누룩 해서 막걸리 같이 해 놔서.)

103013 @ 으.(으.)

103013 #1 겡헹 그거 헤근에 찌여근에 귀주떡덜 헤 먹고. 떡 멘들앙도 먹고게. 또 좀썰밥이엔 헤근에 급허게 뭐 허는 것이 셔. 좁썰이영 서껑.(그래서 그거 해서 쪄서 기주떡들 해 먹고. 떡 만들어서도 먹고. 또 '좀썰밥'이라고 해서 급하게 뭐 하는 것이 있어. 좁쌀과 섞어서.)

---

77) '거름체'는 체의 한 종류다. 체의 종류에는 크기에 따라 '대체, 대거름체, 거름체, ᄀᆞ는체' 등이 있다.
78) '총체'는 마소의 총으로 만든 체인데, 쳇불을 가늘게 짠 '가는체'를 말한다.

103013 @ 아, 좁썰밥도 헤 먹고. 게민 보리 갈지 안헤영 보리 그 자체로 보까 가지고도.(아, 좁썹밥도 해 먹고. 그럼 보리 갈지 않고 보리 그 자체로 볶아 가지고도.)

103013 #1 그건 개역게.(그건 미숫가루.)

103013 @ 개역.(미숫가루.)

103013 #1 개역.(미숫가루.)

103013 @ 개역, 개역은 어떵 만들앗수과?(미숫가루, 미숫가루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3013 #1 개역은 보리 철 나면은 보리 장만허면은 보리 물려 가지고, 장만헌 보리를 막 물려 가지고 이젠 보깡. 엿날 솟두껑에서.(미숫가루는 보리 철 되면 보리 장만하면 보리 말려 가지고, 장만한 보리를 잘 말려 가지고 이젠 볶아서. 옛날 솥뚜껑에서.)

103013 @ 으.(으.)

103013 #1 솟두껑에서 놔근에 막 보까근에 이젠 또 그거 ᄀᆞ레로 골아근에 경헨 개역 헹 먹엇주.(솥뚜껑에서 놔서 마구 볶아서 이젠 또 그거 맷돌로 갈아서 그래서 미숫가루 해서 먹었지.)

103013 @ 그 ᄀᆞ레 갈 때도 돌 ᄀᆞ레 헤영.(그 맷돌 갈 때도 돌 맷돌 해서.)

103013 #1 예, 돌 ᄀᆞ레 조정헤영.(예, 돌 맷돌 조정해서.)

103013 @ 조정헤영 돌 ᄀᆞ레로.(조정해서 돌 맷돌로.)

103013 #1 으, 으. 돌 ᄀᆞ레로. 돌 ᄀᆞ레로게, 옛날엔 돌 ᄀᆞ레로.(으, 으. 돌 맷돌로. 돌 맷돌로, 옛날엔 돌 맷돌로.)

103014 @ 그민 이제 보리 골아나민 보리 껍질? 보리 껍질 뭐렌 골읍니까? 보리쏠 나오고 보리 껍질 벳겨진 게 나오지예?(그럼 이제 보리 갈아나면 보리 껍질? 보리 껍질 뭐라고 말합니까? 보리쌀 나오고 보리 껍질 벗겨진 게 나오지요?)

103014 #1 으.(으.)

103014 @ 보리 껍질 벳겨진 건 뭐렌 골읍니까? 보릿겨?(보리 껍질 벗겨진 건 뭐라고 갑니까? 보릿겨?)

103014 #1 보리 껍죽. 보리 껍주게.(보리 껍질. 보리 껍질.)

103014 @ 그 보리 껍죽은 뭐 헙니까?(그 보리 껍질은 뭐 합니까?)

103014 #1 보리 껍죽은 벨로 무시거 그건 벨로 필요 엇어낫주게. 보리 껍죽은.(보리 껍질은 별로 무엇 그건 별로 필요 없었지. 보리 껍질은.)

103014 @ 도새기 먹이 줘?(돼지 먹이 줘?)

103014 #1 아, 그 첨 맞다. 도새기.(아, 그 참 맞다. 돼지.)

103014 @ 도새기.(돼지.)

103014 #1 도새기 것 허는 거.(돼지 먹이 하는 거.)

103014 @ 도새기 주는 거예?(돼지 주는 거요?)

103014 #1 으, 그건 도새기 것으로 헤영 숢앙 것 줘낫주게.(으. 그건 돼지 먹이

로 해서 삶아서 먹이 줬었지.)

103014 @ 솖앙, 그냥 안 주고 솖앙 주는 거?(삶아서, 그냥 안 주고 삶아서 주는 거?)

103014 #1 솖앙 줘야지.(삶아서 줘야지.)

103014 @ 그럼 죽처럼.(그럼 죽처럼.)

103014 #1 죽 거치 허영. 경 서껑 다른 것에 뭣에 서껑.(죽 같이 해서. 그렇게 섞어서 다른 것에 뭣에 섞어서.)

103014 @ 뭐 콩?(뭐 콩?)

103014 #1 예, 아니. 콩도 아니고 그자 무신 그냥 서끄는 것이 셔낫주기만은.(예, 아니. 콩도 아니고 그저 무슨 그냥 섞는 것이 있었지만.)

103014 @ 보리찍은 뭐 헷수과?(보릿짚은 뭐 했습니까?)

103014 #1 으?(으?)

103014 @ 보리찍?(보릿짚?)

103014 #1 불 솜안게, 밥헐 때.(불 땠어, 밥할 때.)

103014 @ 게민 데명 놔뒀당.(그럼 쟁여 놔뒀다가.)

103014 #1 데명 눌어근에 그냥 물 아니 들게. 썩지 못허게 허영.(쟁여서 가렸다가 그냥 물 안 들게. 썩지 못하게 해서.)

103014 @ 으.(으.)

103014 #1 그 새로 헹 ᄂᆞ람쥐 헹영 더꺼근에. 그 주젱이 헹 창 더끄고.(그 새로 해서 이엉 해서 덮어서. 그 주저리 해서 창 덮고.)

103014 @ 겐 보리 까끄라기는 뭐 헷수과?(그래서 보리 까끄라기는 뭐 했습니까?)

103014 #1 보리깍?('보리깍'?)

103014 @ 아니 보리 까끄라기, ᄀᆞ시락?(아니 보리 까끄라기, 까끄라기?)

103014 #1 ᄀᆞ시락. ᄀᆞ시락은 굴묵[79] 때연.(까끄라기. 까끄라기는 '굴묵' 땠어.)

103014 @ ᄀᆞ시락은 굴묵 때연.(까끄라기는 '굴묵' 땠어.)

103014 #1 굴묵게 방 뜨겁게 굴묵 때연. 막 굴묵에 가져당 데며근에 막 그냥 완전 뭐 그건 겨울, 겨울에 이제 보일러 지름 놩 허듯이 그건 겨울에 헐 걸로 허영.('굴묵' 방 뜨겁게 '굴묵' 땠어. 마구 '굴묵'에 가져다가 쟁여서 마구 그냥 완전 뭐 그건 겨울, 겨울에 이제 보일러 기름 놔서 하듯이 그건 겨울에 할 걸로 해서.)

103014 @ 으.(으.)

103014 #1 경헨 온돌 거치, 온돌 거치도 아니 헹 요만큼 아궁지 헤여근에.(그래서 온돌 같이, 온돌 같이도 안 해서 요만큼 아궁이 해서.)

103014 @ 음.(음.)

103014 #1 그디베끼 안 듯아. 옛날엔.(거기밖에 안 따뜻해. 옛날엔.)

103014 @ 예.(예.)

---

79) '굴묵'은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불을 땔 수 있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말한다.

103014 #1 ᄀᆞ시락으로 헐 때는.(까끄라기로 할 때는.)

103014 @ ᄀᆞ시락으로 헐 때는?(까끄라기로 할 때는?)

103014 #1 으.(으.)

103014 @ 하하. 들어가는 그 질만.(하하. 들어가는 그 길만.)

103014 #1 으, 한가운데 그자 굴묵 어귀, 어귀로 영.(으, 한가운데 그저 '굴묵' 어귀, 어귀로 이렇게.)

103015 @ 게민 영 보리농사 지으멍 재밌는 일, 기억 남는 일, 생각나는 일 잇수과?(그럼 이렇게 보리농사 지으면서 재밌는 일, 기억 남는 일, 생각나는 일 있습니까?)

103015 #1 보리농사 지어날 때 생각날 일이엔 헌 거는 혼자 허젠 허믄 너무 궤롭고 너무 지치고 그냥 그런 거나베끼 다른 거 뭐.(보리농사 지을 때 생각날 일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 하려고 하면 너무 괴롭고 너무 지치고 그냥 그런 거나밖에 다른 거 뭐.)

103015 @ 삼춘은 남자 어른이 일본 잇어 부난 여기 혼자 산 거?(삼촌은 남자 어른이 일본 있어 버리니까 여기 혼자 산 거?)

103015 #1 혼자.(혼자.)

103015 @ 애기는?(아기는?)

103015 #1 애기덜 ᄋᆞ섯.(아기들 여섯.)

103015 @ 애기덜 ᄋᆞ섯 헤 가지고 혼자?(아기들 여섯 해 가지고 혼자?)

103015 #1 으.(으.)

103015 @ 시부모님도 여기 엇고?(시부모님도 여기 없고?)

103015 #1 시부모님도 엇고. 나 스물다섯에 시어머니 나 일본 살단 스물다섯에 오는 디, 오란 혼 멧 덜만이 돌아가 부난. 해방뒈는 헤에 돌아가 불언.(시부모님도 없고. 내가 스물다섯에 시어머니 내가 일본 살다가 스물다섯에 오는 데, 와서 한 몇 달만에 돌아가 버리니까. 해방되는 해에 돌아가 버렸어.)

103015 @ 아.(아.)

103015 #1 시어머니가. 경허난 아이덜 허고. 아이덜도 우로 중학교, 큰아덜 중학교 졸업 마탕 일본 가 불고.(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아이들 하고. 아이들도 위로 중학교, 큰아들 중학교 졸업 맡아서 일본 가 버리고.)

103015 @ 으.(으.)

103015 #1 못 사니까, 어려우니까.(못 사니까, 어려우니까.)

103015 @ 으.(으.)

103015 #1 또 큰뚤은 국민학교 졸업 마탕 나가 불고 그 다음에.(또 큰딸은 국민학교 졸업 맡아서 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103015 @ 으.(으.)

103015 #1 또 이제 하르방[80]도 그 다음에 나가 불고, 우리 집이 아방. 경허난

80) '하르방'은 표준어로 '할아버지'다. 여기서는 남편을 가리킨다.

나도 그 알로 헹 너오누이.(또 이제 할아버지도 그 다음에 나가 버리고, 우리 집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도 그 아래로 해서 네 오누이.)

103015 @ 아, 하르부지도 들어와낫구나.(아, 할아버지도 들어왔었구나.)

103015 #1 으, ᄀᆞ치 들어와난게. 스물다섯에 올 때. 나보다 일곱나 우이난에 이제 난 스물다섯이고 서른 멧 살에 들어완.(으, 같이 들어왔었어. 스물다섯에 올 때. 나보다 일곱이나 위니까 이제 난 스물다섯이고 서른 몇 살에 들어왔어.)

103015 @ 으.(으.)

103015 #1 들어왓단 여기 살단, 그럭저럭 ᄒᆞ꼼 살아보단 또 나간, 일본 나간.(들어왔다가 여기 살다가, 그럭저럭 조금 살아보다가 또 나갔어, 일본 나갔어.)

103015 @ 아.(아.)

103015 #1 우리 집이 하르방도 어린 때부터 일본 강 살단 일본서덜 ᄀᆞ치 들어왓주.(우리 집의 할아버지도 어린 때부터 일본 가서 살다가 일본에서들 같이 들어왔지.)

103015 @ 예.(예.)

조 농사

103016 @ 아까 보리농사 지을 때는 걸름을 준비헷잖아예, 조 농사지을 때는?(아까 보리농사 지을 때는 거름을 준비했잖아요, 조 농사지을 때는?)

103016 #1 걸름 필요 엇어.(거름 필요 없어.)

103016 @ 아, 걸름 필요 엇어?(아, 거름 필요 없어?)

103016 #1 으, 물만 맞추민 뒈여.(으, 물만 맞추면 돼.)

103016 @ 뭘, 뭘 맞추민 뒈여?(뭘, 뭘 맞추면 돼?)

103016 #1 이 물, 물 때. 비가, 비가 만이 오면 못허고.(이 물, 물 때. 비가, 비가 많이 오면 못하고.)

103016 @ 아.(아.)

103016 #1 비만 영 땅에 조정만 맞촹.(비만 이렇게 땅에 조정만 맞춰서.)

103016 @ 음.(음.)

103016 #1 그냥 땅 너미 ᄆᆞ르지도 안혀고 너미 젖지도 안혀고 질지도 안혀고.(그냥 땅 너무 마르지도 않고 너무 젖지도 않고 질지도 않고.)

103016 @ 으.(으.)

103016 #1 그 정도 헤근에 그냥 갈아근에 갈면은 이제, 갈아 놓면은.(그 정도 해서 그냥 갈아서 갈면 이제, 갈아 놓으면.)

103016 @ 그민, 조 농사짓젠 허민 ᄯᅳ로 준비헐 건 엇수과?(그럼, 조 농사지으려고 하면 따로 준비할 건 없습니까?)

103016 #1 뭐.(뭐.)

103016 @ 미릿.(미리.)

103016 #1 미릿 준비허는 건 뭐 그디 섬피허고 무신 거 그냥, 이제 이녁이 불르

고 그런 거나베끼.(미리 준비하는 건 뭐 거기 끙게하고 무슨 거 그냥, 이제 자기가 밟고 그런 거나밖에.)

103016 @ 아.(아.)

103016 #1 걸름은 별로 안 헤도 뒈여.(거름은 별로 안 해도 돼.)

103016 @ 혹시 여기는, 아, 건 ᄆᆞ물이구나.(혹시 여기는, 아, 건 메밀이구나.)

103016 #1 우린 ᄆᆞ물도 엇고 이렌.(우린 메밀도 없고 이런.)

103016 @ 게민.(그럼.)

103016 #1 보리, 조, 감저, 콩이나베끼 엇어.(보리, 조, 고구마, 콩이나밖에 없어.)

103018 @ ᄆᆞ물도 엇고. 게민예 조는 언제 갑니까?(메밀도 없고. 그럼요 조는 언제 갑니까?)

103018 #1 조는 ᄃᆞᆺ임 철에, 어느, 어느 때 헤나신고? 하여튼 보리 끝나면 조 허여.(조는 따뜻한 철에, 어느, 어느 때 했었나? 하여튼 보리 끝나면 조 해.)

103018 @ 보리 다 거둬들.(보리 다 거둬들.)

103018 #1 으, 거둬뒁.(으, 거둬두고.)

103018 @ 거둬들인 다음에.(거둬들인 다음에.)

103018 #1 으. 다음에 조 허여.(으. 다음에 조 해.)

103018 @ 게민 조 갈젠 허민 뭐 걸름 따로 필요 엇수과?(그럼 조 갈려고 하면 뭐 거름 따로 필요 없습니까?)

103018 #1 걸름 따로 필요 엇고.(거름 따로 필요 없고.)

103018 @ 필요 엇고예. 좁씨는 어떵?(필요 없고요. 좁씨는 어떻게?)

103018 #1 좁씨는 조 간 때에 ᄋᆞ문 걸로 ᄀᆞᆯ왕 씨 헤영 놔뒷다근에 그거 삐여.(좁씨는 조 간 때에 여문 걸로 골라서 씨 해서 놔뒀다가 그거 뿌려.)

103018 @ 어떵 삡니까?(어떻게 뿌립니까?)

103018 #1 그것도 그대로. 그대로 좀팍에 놔근에 그대로 알아 맞촹.(그것도 그대로. 그대로 '좀팍'에 놔서 그대로 알아 맞춰서.)

103018 @ 아까 보리는 거름 허고 씨 뿌리고 갈앗잖아예?(아까 보리는 거름 하고 씨 뿌리고 갈았잖아요?)

103018 #1 으.(으.)

103018 @ 조는 어떵 헤마씨?(조는 어떻게 해요?)

103018 #1 조는 갈아 놩.(조는 갈아 놔서.)

103018 @ 음.(음.)

103018 #1 이젠 섬피로 끗어 놩.(이젠 끙게로 끌어 놓고.)

103018 @ 음.(음.)

103018 #1 이제 씨 골루루 뿌려 가지고 이제 ᄇᆞᆯ라, ᄇᆞᆯ라 발로.(이제 씨 골고루 뿌려 가지고 이젠 밟아, 밟아 발로.)

103018 @ 아.(아.)

103018 #1 물이나 쉐나 신 디는 그걸로도 허주만은 그거 엇이믄 사람 발로 불라나서, 엿날엔.(말이나 소나 있는 데는 그걸로도 하지만 그것 없으면 사람 발로 밟았었어, 옛날엔.)

103018 @ 음.(음.)

103018 #1 이제는 안 불라도 뒈는데, 이젠 조도 안 불라도 뒈여.(이제는 안 밟아도 되는데, 이젠 조도 안 밟아도 돼.)

103018 @ 하하.(하하.)

103018 #1 그냥 씨만 뿌령, 갈앙 씨만 뿌령 끗엉만 내불민 뒈는디 엿날엔 거 불라야만. 경허믄 그 지펭이, 지펭이 닮은 걸로 영 찔러 보멍 그걸 딱 만이 안 들어가믄 잘 불라진 거고 만이 들어가믄 잘 안 불라진 거고 경헤나서. 우리 조 농사 헐 때. 겨고 물 하영 허면은 죽어 불고.(그냥 씨만 뿌려서, 갈아서 씨만 뿌려서 끌어서 만 내버리면 되는데 옛날엔 거 밟아야만. 그러면 그 지팡이, 지팡이 닮은 걸로 이렇게 찔러 보면서 그걸 딱 많이 안 들어가면 잘 밟힌 거고 많이 들어가면 잘 안 밟힌 거고. 그랬었어. 우리 조 농사 할 때. 그리고 물 많이 하면 죽어 버리고.)

103018 @ 물 하영 헌다는 건 비 하영 온다는 거?(물 많이 한다는 건 비 많이 온다는 거?)

103018 #1 비 하영 오는 거. 첨 비 하영 오믄 죽어 불고 비 하영 안 오민.(비 많이 오는 거. 첨 비 많이 오면 죽어 버리고 비 많이 안 오면.)

103018 @ 으.(으.)

103018 #1 우리 것도 밧도 질왓[81], 말왓[82]이엔 헌 것이 잇어.(우리 것도 밭도 '질왓', '말왓'이엔 헌 것이 있어.)

103018 @ 으.(으.)

103018 #1 질왓이엔 헌 거는 비 하영 오믄 골랑 물에 버청, 비에 버쳐근에 조가 다 죽어불어.('질왓'이라고 하는 거는 비 많이 오면 고여서 물에 부쳐서, 비에 부쳐서 조가 다 죽어버려.)

103018 @ 말왓?('말왓'?)

103018 #1 질왓, 말왓.('질왓', '말왓'.)

103018 @ 아, 질왓, 말왓.(아, '질왓', '말왓'.)

103018 #1 질왓은 물 하영 오민 죽어 부는 밧, 말왓은 물 하영 와도 그냥 그대로. 그대로 그냥 농사가 뒈 가고. 건 조가 좋고.('질왓'은 물 많이 오면 죽어 버리는 밭, '말왓'은 물 많이 와도 그냥 그대로. 그대로 그냥 농사가 돼 가고. 건 조가 좋고.)

103018 @ 음.(음.)

103018 #1 또 이 콩 농사, 뭐 저 감저 농산 비가 하영 와도 뒈고 족게 와도 뒈고 그런 건 소소헌 밧디 다 뒈는 거고.(또 이 콩 농사, 뭐 저 고구마 농산 비가 많

81) '질왓'은 돌멩이가 없고 맨 흙이 깔려 있는 밭을 말한다.
82) '말왓'은 자잘한 돌멩이가 많은 밭으로, 물 빠짐이 좋은 밭을 말한다.

이 와도 되고 적게 와도 되고 그런 건 소소한 밭에 다 되는 거고.)

103018 @ 음.(음.)

103018 #1 조 농사는 까다로와.(조 농사는 까다로워.)

103018 @ 조 농사는.(조 농사는.)

103018 #1 어, 조 농사는.(어, 조 농사는.)

103018 @ 물 맞추젠 허니까.(물 맞추려고 하니까.)

103018 #1 예, 조 농사는 밧도 골류고 비도 골류고.(예, 조 농사는 밭도 고르고 비도 고르고.)

103018 @ 밧도 골릅니까?(밭도 고릅니까?)

103018 #1 예, 밧도 골려.(예, 밭도 골라.)

103018 @ 아.(아.)

103018 #1 비, 저 물 하영 안 골르는 밧이라야 조가 뒈고.(비, 저 물 많이 안 고이는 밭이라야 조가 되고.)

103018 @ 으.(으.)

103018 #1 물 골르는 밧은 조가 아니 뒈여.(물 고이는 밭은 조가 안 돼.)

103018 @ 아, 게난 아까 조 갈 때 밧 갈아난 다음, 섬피로 끗은 다음에 씨를 뿌리는 거과?(아, 그러니까 아까 조 갈 때 밭 간 다음, 끙게로 끌은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겁니까?)

103018 #1 예게, 밧을 펜펜히 멘, 멘들앙. 좁씨가 원체 저, 저.(예, 밭을 편편히 만, 만들어서. 조씨가 원체 저, 저.)

103018 @ 족은 거난.(작은 거니까.)

103018 #1 족으난.(작으니까.)

103018 @ 으.(으.)

103018 #1 족으난 그 엉상허게 헤 불믄 소곱에 들어가 불민 너미 지피 들어가 불민 나질 안허여.(작으니까 그 엉성하게 해 버리면 속에 들어가 버리면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 나지 않아.)

103018 @ 으.(으.)

103018 #1 나오질, 나오기가 페로와.(나오질, 나오기가 힘들어.)

103018 @ 예.(예.)

103020 #1 어려우니까 펜펜허게 곱닥허게 헤 가지고 솔솔솔솔 뿌려서 그 다음에는 볼라 가, 볼라 가면은 또 이제 씨를 감촤질 거난.(어려우니까 편편하게 곱게 해 가지고 살살살살 뿌려서 그 다음에는 밟아 가, 밟아 가면 또 이제 씨를 감춰질 거니까.)

103020 @ 으, 볼라 가민 감춰지는 거?(으, 밟아 가면 감춰지는 거?)

103020 #1 으, 감촤져. 감촤지게꾸리 그렇게.(으, 감춰져. 감춰지게끔 그렇게.)

103020 @ 게민 영 더프는 거는 섬피?(그럼 이렇게 덮는 거는 끙게?)

103020 #1 으, 끗는 거는 섬피.(으, 끄는 거는 끙게.)

103020 @ 섬피. 끄슬퀴렌은 안 헙니까?(끙게. '끄슬퀴'라고는 안 합니까?)

103020 #1 으?(으?)

103020 @ 끄슬퀴.('끄슬퀴'.)

103020 #1 끄슬퀴엔 안 헤. 이딘 섬피.('끄슬퀴'라고 안 해. 여긴 '섬피'.)

103020 @ 섬피는 무슨 낭으로 섬피를 만들어?(끙게는 무슨 나무로 끙게를 만들어?)

103020 #1 그냥 아무 남이라도 영 이런 가젱이.(그냥 아무 나무라도 이렇게 이런 가지.)

103020 @ 으, 가젱이.(가지.)

103020 #1 가젱이 영 벌겨진 것만 그차 오믄. 가젱이 벌겨지고 이런 디 영 무끄기 좋게시리.(가지 이렇게 벌어진 것만 끊어 오면. 가지 벌어지고 이런 데 이렇게 묶기 좋게끔.)

103020 @ 영 헌 거라예. 이디 가젱이 이파리 있는 거고?(이렇게 한 거지요. 여기 가지 잎 있는 거고?)

103020 #1 예, 게민 이만이 영.(예, 그럼 이만큼 이렇게.)

103020 @ 여기 이 앞을 뗑기멍.(여기 이 앞을 당기면서.)

103020 #1 뚜러메영.(둘러메서.)

103020 @ 뚜러메영?(둘러메서?)

103020 #1 으.(으.)

103020 @ 줄 멩?(줄 매서.)

103020 #1 줄 메영.(줄 매서.)

103020 @ 예.(예.)

103020 #1 줄 메영 그것에 돌, 돌 지들황.(줄 매서 그것에 돌, 돌 지질러서.)

103020 @ 지들황.(지질러서.)

103020 #1 무겁지 안허민 끗어지지 못 헐 거난. 무겁게 헤영.(무겁지 않으면 끌리지 못 할 거니까. 무겁게 해서.)

103020 @ 게민 그것 끗는 거는 사람이?(그럼 그것 끄는 거는 사람?)

103020 #1 사람으로.(사람으로.)

103020 @ 사람으로. 하하. 뭘 잇고 쉐 잇는 사름들은 거기 쉐 담아놩 불룹게 헤?(사람으로. 하하. 말 있고 소 있는 사람들은 거기 소 담아놓고 밟게 해?)

103020 #1 뭘 잇고 쉐 잇어도 불르는 거는 마찬가지. 게, 뭘 시면는 뭘로도 불룹긴 허여, 뭘도.(말 있고 소 있어도 밟는 거는 마찬가지. 그래, 말 있으면 말로도 밟기 해, 말도.)

103020 @ 으.(으.)

103020 #1 뭘로도 불르믄 쉬웁주. 뭘 엇으믄 사름으로 불르젠 허면은 옛날엔 그렇게 다리도 아프고 힘들어.(말로도 밟으면 쉽지. 말 없으면 사람으로 밟으려고 하면 옛날엔 그렇게 다리도 아프고 힘들어.)

103020 @ 힘들쿠다게.(힘들겠어요.)

103020 #1 어, 조 농서헐 때 볼르는 것이 힘들어게, 진짜.(어, 조 농사할 때 밟는 것이 힘들어, 진짜.)

103020 @ 힘들크라.(힘들겠어.)

103020 #1 ᄒᆞ루 종일 걸어뎅기젠 허민.(하루 종일 걸어다니려고 하면.)

103020 @ 영 영 영 영 볼르멍.(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밟으면서.)

103020 #1 예, 영 영 영 영 그냥 이리 갓닥 저리 갓닥 그냥 완전 막뎅이 안 들어가게 영 지펑 막뎅이 안 들어갈 정도로.(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냥 완전 막대기 안 들어갈 정도로.)

103020 @ 으.(으.)

103020 #1 경헤야만 뒈여. 지금은 그추룩 안 헤도 뒈는 걸.(그래야만 돼. 지금은 그처럼 안 해도 되는 걸.)

103020 @ 안 헤도 뒈는 거예?(안 해도 되는 거요?)

103020 #1 으.(으.)

103020 @ 무사 경 헤신고예?(왜 그렇게 했나요?)

103020 #1 으, 옛날엔. 어리석언게.(으, 옛날엔. 어리석었어.)

103019 @ 음. 게난 좁씨 뿌리는 거나 보리씨 뿌리는 거나.(음. 그러니까 조씨 뿌리는 거나 보리씨 뿌리는 거나.)

103019 #1 뿌리는 건.(뿌리는 건.)

103019 @ ᄀᆞ타예?(같아요?)

103019 #1 예, 영 분발만 헤근에. 그냥 알아맞촹, 간격만 알아맞추멍 뿌리민 뒈는 거.(예, 이렇게 분발만 해서. 그냥 알아맞춰서, 간격만 알아맞추면서 뿌리면 되는 거.)

103019 @ 아. 예, 예. 조팟 볼를 때 혹시 남태 그런 건 안 써낫수과?(아. 예, 예. 조밭 밟을 때 혹시 남태 그런 건 안 썼었습니까?)

103020 #1 남태엔 헌 거 몰라 뭣산디.(남태라고 하는 거 몰라 뭐인지.)

103020 @ 그냥 섬피로만?(그냥 끙게로만?)

103020 #1 섬피로 끗어근에 볼를 때 발로 볼랑.(끙게로 끌어서 밟을 때 발로 밟아.)

103022 @ 그럼 이젠 조팟 갈아시난, 씨 뿌령 볼라시난 조금 이시난 조가 나올 거 아니? 이제 조팟도 검질메야 뒐 거 아니과?(그럼 이젠 조밭 갈았으니까, 씨 뿌려서 밟았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조가 나올 거 아니? 이제 조밭도 김매야 될 거 아닙니까?)

103022 #1 으, 조팟디 검질은 뭐 ᄀᆞ라지 거튼 거여 뭐, 똑 조 닮은 검질이 잇어.(으, 조밭에 김은 뭐 가라지 같은 거여 뭐, 똑 조 닮은 김이 있어.)

103022 @ 으.(으.)

103022 #1 꼭 조 닮은 검질.(꼭 조 닮은 김.)

103022 @ 그게 뭐?(그게 뭐?)

103022 #1 ᄀᆞ라지.(가라지.)

103022 @ ᄀᆞ라지. 조 닮은 검질.(가라지. 조 닮은 김.)

103022 #1 으. 돈돈히 안 보민 조도 닮고 검질도 닮고 허는 디 모른 사름덜은 조도 다 매 부는 수가 잇어. ᄀᆞ라지엔 헌 거.(으. 돈돈히 안 보면 조도 닮고 김도 닮고 하는 데 모른 사람들은 조도 다 매 버리는 수가 있어. 가라지라고 하는 거.)

103022 @ 하하.(하하.)

103022 #1 꼭 조 닮게 나오는 검질이. 그거 만이 나와.(꼭 조 닮게 나오는 김이. 그거 많이 나와.)

103022 @ 아, 알쿠다. 이렇게(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103022 #1 보콜. 으, 그건 꼭 조 거치 그냥 굳작허게 나와.(깨풀. 으, 그건 꼭 조 같이 그냥 곧게 나와.)

103022 @ 으, 굳작허게 나오는 거. 그 다음 뭐 보콜.(으, 곧게 나오는 거. 그 다음 뭐 깨풀.)

103022 #1 보콜.(깨풀.)

103022 @ 또?(또?)

103022 #1 그 다음에는 으, 여름 검질이니까 여름에 나오는 검질이 하지.(그 다음에는 으, 여름 김이니까 여름에 나오는 김이 많지.)

103022 @ 으.(으.)

103022 #1 조팟디.(조밭에.)

103022 @ 뭐 제환지 거튼 것도 나오고.(뭐 바랭이 같은 것도 나오고.)

103022 #1 으, 제환지, 제환지. 밋붉은제환진[83] 더 그냥 질기고.(으, 바랭이, 바랭이. '밋붉은제환지'는 더 그냥 질기고.)

103022 @ 밋붉은제환지?('밋붉은제환지'?)

103022 #1 예, 밑에가 붉어. 밋붉은제환지 잇고 그냥 제환지도 잇고.(예, 밑에가 붉어. '밋붉은제환지' 있고 그냥 바랭이도 있고.)

103022 @ 것도 나오고 또 잇수과? 쒜비눔도?(것도 나오고 또 있습니까? 쇠비름도?)

103022 #1 쒜비눔은 겨울에.(쇠비름은 겨울에.)

103021 @ 아, 겨울에. 게민 조팟디 검질은 멧 번이나 멥니까?(아, 겨울에. 그럼 조밭에 김은 몇 번 맵니까?)

103021 #1 아이고, 조팟디 검질은 흔이 엇어. 열 불이라도 메주민 좋아.(아이고, 조밭에 김은 한이 없어. 열 벌이라도 매주면 좋아.)

103021 @ 무사마씨?(왜요?)

103021 #1 경 만이 나고 여름 때고이.(그렇게 많이 나고 여름 때이고.)

103021 @ 검질이 경 하?(김이 그렇게 많아?)

---

83) '밋붉은제환지'는 풀 종류의 하나다.

103021 #1 하, 하. 또 ᄉᆞ까도 주고.(하, 하. 또 솎아도 주고.)

103021 @ 조는 ᄉᆞ까야 뒈?(조는 솎아야 돼?)

103021 #1 으, 으. ᄉᆞ까야. 이디 하나 시민 영, 영 이 정도로 듬싱듬싱 그렇게 헤야 고고리가 커. 조코고리가. 경 안 허민 줄아. 줒으민 줄아.(으, 으. 솎아야. 여기 하나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로 듬성듬성 그렇게 해야 이삭이 커. 조 이삭이. 그렇지 않으면 잘아. 잦으면 잘아.)

103021 @ 게난 조팟이 검질은 열 불이라도.(그러니까 조밭에 김은 열 벌이라도.)

103021 #1 으, 경허난 뭐 닥치는 대로. 검질 읏을 때꺼지 메영, 조가 이만이 헐 때까지라도 막 메여. 메곡 ᄉᆞ까주곡.(으, 그러니까 뭐 닥치는 대로. 김 없을 때까지 매서, 조가 이만큼 할 때까지라도 마구 매. 매고 솎아주고.)

103021 @ 아. 게민 조는 막 크는 거 아니과? 이 정도 막 크는 거 아니?(아, 그럼 조는 아주 크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막 크는 거 아니?)

103021 #1 으, 요 정도까진 크지.(으, 요 정도까진 크지.)

103021 @ 그지예.(그렇지요.)

103021 #1 크민 흔이 뒈민 고고리 피여근에 이젠 영 수국 수국 수국.(크면 한이 되면 이삭 피어서 이젠 이렇게 '수국 수국 수국'.)

103023 @ 예. 이제 컷수다예, 크난 이제 베여야 뒐 거 조도.(예. 이제 컸습니다, 크니까 이제 베여야 될 거 조도.)

103023 #1 비여야주게.(베어야지.)

103023 @ 비젠 허민.(베려고 하면.)

103023 #1 비젠 허민 호미로.(베려고 하면 낫으로.)

103023 @ 어떵 비여낫수과?(어떻게 베었습니까?)

103023 #1 그냥 보리 비듯.(그냥 보리 베듯.)

103023 @ 보리 비듯.(보리 베듯.)

103023 #1 으, 보리 비듯. 경헤도 보리거치 경 만이 엉구진 못헤도 이 좃대가 술지니까.(으, 보리 베듯. 그래도 보리같이 그렇게 많이 엉구진 못해도 그 좃대가 살찌니까.)

103023 @ 으.(으.)

103023 #1 경허난 멧, 멧 개씩 헤여근에 비영 그것도 영 나란히 널엉 물류왕.(그러니까 몇, 몇 개씩 해서 베어서 그것도 이렇게 나란히 널어서 말려서.)

103023 @ 으.(으.)

103023 #1 그것도 무꺼.(그것도 묶어.)

103023 @ 게민.(그럼.)

103024 #1 그건 무껑 또 무껑 이젠 다 비여지면은 톹아야 호미로.(그건 묶어 또 묶어서 이젠 다 베면 뜯어야 호미로.)

103024 @ 으.(으.)

103024 #1 그걸 밧디서.(그걸 밭에서.)
103024 @ 밧디서 튿는 거?(밭에서 뜯는 거?)
103024 #1 밧디서 튿아.(밭에서 뜯어.)
103024 @ 고고리를?(이삭을?)
103024 #1 고고리를.(이삭을.)
103024 @ 으.(으.)
103024 #1 경헹 튿앙 멕으로, 멕에 담앙 집이 지어 왕.(그래서 뜯어서 멱으로, 멱에 담아서 집에 지어 와서.)
103024 @ 으.(으.)
103025 #1 겐 그거 또 그거는 또 물방에 가져당 물방에로 또시 누르떠근에 장만헤여.(그래서 그거 또 그거는 또 연자매에 가져다가 연자매로 따시 누르면서 장만해.)
103025 @ 조도 물방에.(조도 연자매.)
103025 #1 물방에서 누르떠.(연자매에서 눌러.)
103025 @ 헙니까?(합니까?)
103025 #1 어. 물방에 강.(어. 연자매에 가서.)
103025 @ 조코고리 멕에 튿아 논 걸 졍 강.(조 이삭 멱에 뜯어 놓은 걸 지고 가서.)
103025 #1 졍 강. 물방에 져당 놔둠서. 것도 수눌멍.(지고 가서. 연자매 지어다 놔두면서. 것도 품앗이해서.)
103025 @ 하하하.(하하하.)
103025 #1 보통이 아니라낫주게.(보통이 아니었었지.)
103025 @ 게난 물방에 강.(그러니까 연자매 가서.)
103025 #1 경허난 고고리도 물방에 강 부수고 또 이제 부수와 논 쏠 조도 쏠 멘들젠 허민 물방에 강 지곡. 물방에서.(그러니까 이삭도 연자매 가서 부수고 또 이제 부셔 놓은 쌀 조도 쌀 만들려고 하면 연자매 가서 찧고. 연자매에서.)
103025 @ 음. 쏠도?(음. 쌀도?)
103025 #1 쏠도. 쏠도 물방에서.(쌀도. 쌀도 연자매에서.)
103025 @ 아니, 고고리.(아니, 이삭.)
103025 #1 경허믄 거 겁죽 엇이 막 영 보면서 겁죽 엇이 헤근에 영 지는 거라. 너미 헤불어도 뿟아져 불고.(그러면 거 거죽 없이 아주 이렇게 보면서 거죽 없이 해서 이렇게 찧는 거야. 너무 해버려도 빻아져 버리고.)
103025 @ 게난 물방에는 돌이 막 무겁잖수과?(그러니까 연자매는 돌이 아주 무겁잖습니까?)
103025 #1 무겁주.(무겁지.)
103025 @ 크고?(크고?)
103025 #1 으.(으.)

103025 @ 게민 좁쌀 같은 건 쪼그만 허난 다 굴아져 불지 안헤?(그럼 좁쌀 같은 건 조그만 하니까 다 갈아져 버리지 않아?)

103025 #1 아니, 그냥 만이 놩 영 비로, 비로 쓸어 올렷다 올렷다 허영 그디 뭇아지지 안헐 정도로.(아니, 그냥 많이 놔서 이렇게 비로, 비로 쓸어 올렸다 올렸다 해서 거기 마이지 않을 정도로.)

103025 @ 아, 그냥.(아, 그냥.)

103025 #1 조정 맞추멍.(조정 맞추면서.)

103025 @ 아, 게난 요만이 헌 그 돌 조를 막 하영 놓는 거라?(아, 그러니까 요만큼 한 그 돌 조를 아주 많이 놓는 거야?)

103025 #1 예, 영 막 하영 놔근에 그냥 가운딘 이디 지둥 잇주게, 지둥. 지둥 시민 이디 큰 돌, 맷돌 돌게꾸룸 뒌 거 아니.(예, 이렇게 마구 많이 놔서 그냥 가운덴 여기 기둥 있어, 기둥. 기둥 있으면 여기 큰 돌, 맷돌 돌게끔 된 거 아니.)

103025 @ 으.(으.)

103025 #1 경허면은 이제 이디가 많허면은 뭇아지지 안허고 경허민 자꾸 비로 안에 거 쓸어 주고 베껏디로 쓸어 올리고.(그러면 이제 여기가 많으면 빻이지 않고 그러면 자꾸 비로 안의 거 쓸어 주고 밖으로 쓸어 올리고.)

103025 @ 무슨 비로, 무슨 비치락으로?(무슨 비로, 무슨 빗자루로?)

103025 #1 저, 섯비[84]게.(저, '섯비'.)

103025 @ 예?(예?)

103025 #1 저런 비.(저건 비.)

103025 @ 저건 비. 저런 비를 뭐렌 굴아? 그냥 비치락?(저건 비. 저런 비를 뭐라고 말해? 그냥 빗자루?)

103025 #1 대죽, 대죽비게.(대, 대비.)

103025 @ 대죽비로?(대비로?)

103025 #1 으, 대죽비로게.(으, 대비로.)

103025 @ 스레비로 아니고?(싸라비로 아니고?)

103025 #1 스레비론 못 허여, 엉경. 못 허여 그런 거 거친 거나 베끼 스레비로. 이 저, 저 스레비론 못 허여.(싸리비론 못 해, 엉겨서 못 해, 그런 거 거친 거나밖에 싸리비로. 이 저, 스레비비론 못 해.)

103025 @ 게민 이건 대축비?(그런 이건 대비?)

103025 #1 으, 대죽비. 대죽비로.(으, 대비, 대비로.)

103025 @ 옆이서 쓸어 주는 거, 올리는 거다예?(옆에서 쓸어 주는 거, 올리는 거네요?)

103025 #1 으, 올리고 가운디 거, 안에서 영 누리고 가운디로만. 돌 신디 돌 도는 디로만 메우쳐 노는 거라, 자꾸 영. 경허민 뭇아지지 안허여. 경허믄 돌리는 것도 조정을 맞춰근에.(으, 올리고 가운데 거, 안에서 이렇게 내리고 가운데로만. 돌

84) 제보자는 대비를 '섯비'라 하였다.

있는 돌 도는 데로만 메워서 놓는 거야, 자꾸 이렇게. 그럼 마아지지 않아. 그럼 돌리는 것도 조정을 맞춰서.)

103023 @ 예, 맞춰 가지고예. 게민 아까 조코고리를 튿잖아예. 조 비여 놩?(예, 맞춰 가지고요. 그럼 아까 조 이삭을 뜯잖아요, 조 베어 놔서?)

103023 #1 비여 놩 밧디서 튿아. 널어, 널어진양 튿아. 건 언주지[85] 안허영, 무끄지 안허영.(베어 놔서 밭에서 뜯어. 널어, 넌 양 뜯어. 건 모으지 않고, 묶지 않고.)

103023 @ 아, 무끄지 안 헹.(아, 묶지 않아.)

103023 #1 무끄지 안 허영 그대로 튿아. 밧딜로 그냥.(묶지 않고 그대로 뜯어. 밭에서 그냥.)

103023 @ 그거 조 비영 메칠이나 영 널어 놉니까?(그거 조 베어서 며칠이나 이렇게 널어 놓니까?)

103023 #1 아니 그자 비여 놓면은 그냥 튿으멍 고고리로 몰려 와. 고고리 튿아당.(아니 그저 베 놓으면 그냥 뜯으면서 이삭 말려 와. 이삭 뜯어다가.)

103023 @ 아. 게민 보리는 보리찍으로 몰리잖아예?(아, 그럼 보리는 보릿짚으로 말리잖아요?)

103023 #1 으.(으.)

103023 @ 비여 놓고 몰령 무끄는 거 아니?(베어 놓고 말려서 거 묶는 거 아니?)

103023 #1 아니, 그것도 처음 며칠 뒈주게게. 혼 밧 비젠 허민.(아니, 그것도 처음 며칠 되지. 한 밭 베려고 하면.)

103023 @ 음.(음.)

103023 #1 게민 처음 빈 딜로부터 허여 가민 몰라 가는 거. 역불로 몰리젠 안 헤도.(그럼 처음 벤 데로부터 해 가면 말라 가는 거. 일부로 말리려고 안 해도.)

103023 @ 아, 밧 다 비젠 허면.(아, 밭 다 베려고 하면.)

103023 #1 으, 오래여 메칠 걸려.(으, 오래, 며칠 걸려.)

103023 @ 메칠 걸리난 처음 빈 것서부터 무꺼 가는 거.(며칠 걸리니까 처음 벤 것서부터 묶어 가는 거.)

103023 #1 으, 무꺼 가면 추추 몰라 가고 비 오람직 헤 가민 그냥 막 억질로 무꺼대고. 또 날이나 좋암직 허민 메칠 널엉 내불고. 잘 ᄆᆞ르믄 장만허기도 좋곡게.(으, 묶어 가면 차차 말라 가고 비 올 거 같으면 그냥 마구 억지로 묶어대고. 또 날이나 좋을 거 같으면 며칠 널어서 내버리고. 잘 마르면 장만하기도 좋고.)

103024 @ 게난 조는 묶지도 안헹 바로 고고리로 튿아 부는 거라예?(그러니까 조는 묶지도 않고 바로 이삭으로 뜯어 버리는 거지요?)

103024 #1 으, 고고리로 튿앙 고고리로 몰리우는 거.(으, 이삭으로 뜯어서 이삭으로 말리는 거.)

---

85) '언주다'는 흩어져 있는 것을 '그러모으다'의 의미다.

103027 @ 그럼, 그 고고리 다 튿앙 조칩은 어떵 헤?(그럼, 그 이삭 다 뜯어서 조짚은 어떻게 해?)

103027 #1 조칩만 무꺼.(조짚만 묶어.)

103027 @ 무꺼?(묶어?)

103027 #1 으, 그건 또시 이젠 눌어다근에 불 숨고. 또 쉐 신 집인 쉐 멕이고.(으, 그건 또 이젠 가렸다가 불 때고. 또 소 있는 집은 소 먹이고.)

103027 @ 아, 쉐 멕이고.(아, 소 먹이고.)

103027 #1 으, 조칩은 쉐 먹어.(으, 조짚은 소 먹어.)

103024 @ 게민 고고리 튿을 때는 뭐로 튿는 거라?(그럼 이삭 뜯을 때는 뭐로 뜯는 거야?)

103024 #1 호미로.(낫으로.)

103024 @ 호미 세워 놩 영.(낫 세워 놓고 이렇게.)

103024 #1 영, 영 이디 영 젭져근에.(이렇게, 이렇게 여기 사이에 꽂아서.)

103024 @ 젭경. 무릅에 이디 영 젭경?(사이에 꽂아서. 무릎에 여기 이렇게 사이에 꽂아서?)

103024 #1 으, 이디 영 놔근에 톡톡톡톡.(으, 여기 이렇게 놔서 톡톡톡톡.)

103024 @ 헤 가지고 고고리는 멕에.(해 가지고 이삭은 멱에.)

103024 #1 으, 멕에 담고.(으, 멱에 담고.)

103024 @ 담아 놓고예?(담아 놓고요?)

103024 #1 으, 께는 낭[86]은 이레 놓고.(으, 매끼는 조짚은 이리 놓고.)

103024 @ 예.(예.)

103024 #1 경헨 무꺼근에.(그렇게 묶어서.)

103024 @ 그 조코고리를 마께도 때리거나 영은 안 헤낫수과?(그 조 이삭을 방망이로 때리거나 이렇게는 안 했었습니까?)

103024 #1 그건 건 하 건 못 허여. 족은 거나베끼.(그건 건 많아 건 못 해. 적은 거나밖에.)

103024 @ 족은 거.(적은 거.)

103024 #1 뭐 씨나 허젠 헤영 덩드렁마께[87]로 두드리주게. 그추룩 안 허민 물방에 가야.(뭐 씨나 하려고 해서 '덩드렁마께'로 두드리지. 그처럼 안 하면 연자매에 가야.)

103024 @ 어쨌든 조코고리를 들렁 멕에 담앙.(어쨌든 조 이삭을 들고 멱에 담아서.)

103024 #1 물방에 가야.(연자매 가야.)

103024 @ 도께질도 안 허고.(도리깨질도 안 하고.)

103024 #1 도께로 조는 잘 못헤여.(도리깨로 조는 잘 못해.)

---

86) '낭'에 대응하는 표준어는 '나무'다. 여기서 '낭'은 조짚을 가리킨다.

87) '덩드렁마께'는 짚이나 대 따위를 두드리는 방망이를 말한다.

103025 @ 아. 게난 ᄆᆞᆯ방에 간 거. ᄆᆞᆯ방에 간 한 번 ᄀᆞᆯ아서예. 그냥 고고리 다 튿어내고 ᄊᆞᆯ, ᄊᆞᆯ.(아, 그러니까 연자매 간 거. 연자매 가서 한 번 갈았어요. 그냥 이삭 다 뜯어내고 쌀, 쌀.)

103025 #1 조.(조.)

103025 @ 좁썰.(좁쌀.)

103025 #1 좁썰 만들지 못 허지게. 조로만 나왕.(좁쌀 만들지 못 하지. 조로만 나와서.)

103025 @ 조로 나와. 겐 좁썰 만들젠 허민.(조로 나와. 그래서 좁쌀 만들려고 하면.)

103025 #1 좁썰 게메 아까게. 좁썰 만들제 헤도 방에 가근에게 그걸게 비로 안에 안에 거 영 허고 베꼇디 거 쓸어 놓곡 헤근에게 이만큼 허면은.(좁쌀 글쎄 아까. 좁쌀 만들려고 해도 방아 가서 그걸 비로 안에 안에 거 이렇게 하고 밖에 거 쓸어 놓고 해서 이만큼 하면.)

103025 @ 게민, 게민 조코고리 튿은 날 바로 좁썰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그럼, 그럼 조 이삭 뜯는 날 바로 좁쌀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

103025 #1 아니라, ᄆᆞᆯ려 놔야 또. 조로 ᄆᆞᆯ려.(아니야, 말려 놔야 또. 조로 말려.)

103025 @ 조로 얼마나 ᄆᆞᆯ려?(조로 얼마나 말려?)

103025 #1 조로, 조로 벳 난 날 ᄒᆞᆫ 이틀, 사흘 ᄆᆞᆯ려야 헐 거라.(조로, 조로 볕 난 날 한 이틀, 사흘 말려야 할 거야.)

103025 @ ᄆᆞᆯ령 놔뒷당.(말려서 놔뒀다가.)

103025 #1 ᄆᆞᆯ령 담앙 멕에 담앙 놔뒷단 이제 또 그걸 이제 먹게 뒈민 강 지어 오는 거라.(말려서 담아서 멱에 담아서 놔뒀다가 이제 또 그걸 이제 먹게 되면 가서 찧어 오는 거야.)

103025 @ 아이고, 게난 ᄆᆞᆯ방에 또 가야 뒈는 거.(아이고, 그러니까 연자매 또 가야 되는 거.)

103025 #1 또 가야 뒈고, 또 가야 뒈고. 경허난 ᄆᆞᆯ방에덜이 하낫주게, 엿날엔.(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연자매들이 많았었지, 옛날엔.)

103025 @ 고내에도 하낫수과?(고내에도 많았었습니까?)

103025 #1 어. 고내도 하낫어. 이젠 하나토 엇어도.(어. 고내도 많았어. 이젠 하나도 없어도.)

103025 @ 아.(아.)

103025 #1 요 아까 가 오란 집 그 골목에도 셔나고. 이제도 돌방에 셔, 그디 저 우영에. 알력집 우영에. 아까 할망네 알력집 우영에.(요 아까 갔다 온 집 그 골목에도 있었고. 이제도 돌방아 있어, 거기 저 터앝에. 아랫집 터앝에. 아까 할머니네 아랫집 터앝에.)

103025 @ ᄆᆞᆯ방에 헷던 거 잇수과?(연자매 했던 거 있습니까?)

103025 #1 ᄆᆞᆯ방에 영 둥그렁헌 거.(연자매 이렇게 둥그런 거.)

103025 @ 아, 잇수과?(아, 있습니까?)

103025 #1 으. 뚜로뚜로 떼여지긴 헤도 메와지진 안헌디 그 옆이 셔나난 그디 잇어.(으. 따로따로 떼어지긴 해도 메워지진 않았는데 그 옆에 있었으니까 거기 있어.)

103025 @ 아, 잇어예? 나 나중에 사진 찍으쿠다.(아, 있어요? 내가 나중에 사진 찍겠습니다.)

103025 #1 그거 잘 못 볼 거라. 풀 짓어부난.(그거 잘 못 볼 거야. 풀 무성하니까.)

103025 @ 아, 풀 짓어부난.(아, 풀 무성하니까.)

103025 #1 그디 그냥 테역밧 뒈 불언.(거기 그냥 떼밭 돼 버렸어.)

103025 @ 예, 나중에 물어보쿠다. 이제 좁썰 장만헷수다. 물방에 강 골앙예?(예,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좁쌀 장만했습니다. 연자매 가서 갈아서요?)

103025 #1 으.(으.)

103025 @ 게민 아까 보리는 한 번 골 때 물방에 강 장만헐 때 한 열 말 정도 장만헷잖아예?(그럼 아까 보리는 한 번 갈 때 연자매 가서 장만할 때 한 열 말 정도 장만했잖아요?)

103025 #1 어.(어.)

103025 @ 좁썰은 어떵 헙니까? 혼 번 강 헐 때?(좁쌀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가서 할 때?)

103025 #1 좁썰은 막상 허믄 혼 댓 말 뒈카, 닷 말쯤.(좁쌀은 막상 하면 한 댓 말 될까, 닷 말쯤.)

103025 @ 댓 말예?(댓 말요?)

103025 #1 음.(음.)

103026 @ 좁썰 장만헤시난 이제 좁썰로는 뭐 헹 먹읍니까?(좁쌀 장만하니까 이제 좁쌀로는 뭐 해서 먹습니까?)

103026 #1 좁썰론 조팝도 헹 먹고게. 또 보리썰에 서껑도 먹고.(좁쌀론 조밥도 해서 먹고. 또 보리쌀에 섞어서도 먹고.)

103026 @ 으.(으.)

103026 #1 서껑도 밥헹 먹고. 또 좁썰로 이제 물 웃져근에 저 남방에가 잇어.(섞어서도 밥해서 먹고. 또 좁쌀로 이제 물 담가서 저 남방아가 있어.)

103025 @ 으, 남방에.(으, 남방아.)

103025 #1 요만이헌 도고 남방에, 도고 남방에엔 헹.(요만한 함지박 남방아, 함지박 남방아라고 해서.)

103025 @ 으.(으.)

103025 #1 그 저 방엣골로.(그 저 절굿공이.)

103025 @ 방엣골예?(절굿공이요?)

103025 #1 방엣골 이만이 진 거, 이만이헌 거 헹.(절굿공이 이만큼 긴 거, 이만

한 거 해서.)

103025 @ 영 진 거, 찍는 진 거는 뭐렌 골읍니까?(이렇게 긴 거, 찧는 긴 거는 뭐라고 말합니까?)

103025 #1 방엣골게.(절굿공이.)

103025 @ 방엣골. 여기 남방에 주변에는 나무잖아예?(절굿공이. 여기 남방아 주변에는 나무잖아요?)

103025 #1 으, 나무.(으, 나무.)

103025 @ 안에는 돌로 뒈고.(안에는 돌로 되고.)

103025 #1 돌로 뒈고. 이제는 그냥 도꼬 남방에엔 헨 돌로 안 뒈도 그냥, 그냥 판 것도 잇어낫주게.(돌로 되고. 이제는 그냥 함지박 남방아라고 해서 돌로 안 돼도 그냥, 그냥 판 것도 있었지.)

103025 @ 그 가운데 돌로 뒌 부분은 뭐렌 골읍니까?(그 가운데 돌로 된 부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03025 #1 방에틕.(방아확.)

103025 @ 방에틕.(방아확.)

103025 #1 으, 방에틕, 혹.(으, 방아확, 확.)

103025 @ 아, 방에혹.(아, 방아확.)

103025 #1 혹.(확.)

103025 @ 이거는?(이거는?)

103025 #1 건, 그거는 저 무시것고?(건 그거는 저 무엇이지?)

103025 @ 방엣귀?(절굿공이)

103025 #1 방엣귀, 방엣귀.(절굿공이, 절굿공이.)

103025 @ 방에혹에 좁썰 놩 방엣귀로.(방아확에 좁쌀 놔서 방아확으로.)

103025 #1 뻣아. 뻣음도 허고 원체 한 거는 또 그것도 물방에 강 뻣아.(빻아. 빻기도 하고 원체 많은 거는 또 그것도 연자매 가서 빻아.)

103025 @ 아.(아.)

103025 #1 물 웃져당, 물 웃졍.(물 담갔다가, 물 담가서.)

103025 @ 물 웃져?(물 담가?)

103025 #1 물, 물 컷당 물 허여근에 그냥 그것이 딱딱허지 않을 정도로 헤근에 건졍 강덜 물방에에 강.(물, 물 담갔다가 물 해서 그냥 그것이 딱딱하지 않을 정도로 해서 건져서 가서들 연자매에 가서.)

103025 @ 게민 물 크는 걸 아까 어무니 물 웃지다?(그럼 물 담그는 걸 아까 어머니 물 '웃지다'?)

103025 #1 물 웃지는 물 웃져, 물 웃져.(물 담그는 물 담가, 물 담가.)

103025 @ 아, 물 웃졋당 그걸 다시 물방에에 다시.(아, 물 담갔다가 그걸 다시 연자매에 다시.)

103025 #1 으, 다시 이제.(으, 다시 이제.)

103026 @ ᄀᆞ는 거라.(가는 거야.)

103026 #1 으, 떡 허젠 허믄 엿날덜 시리떡덜, 엿날은, 엿날. 경헌 건 또 물방에 강 삣아당도 허고.(으, 떡 하려고 하면 옛날들 시루떡들, 옛날은, 옛날. 그런 건 또 연자매 가서 빻아다가도 하고.)

103026 @ 게민 물방에 강 ᄀᆞ레 골앙 와예, 물 웃진 쏠?(그럼 연자매 가서 가루 갈아서 와요, 물 담근 쌀?)

103026 #1 물 웃진 쏠, 좁썰을 막 물방에에서 막 ᄀᆞ는 거라. 경헨 큰 시리 엿날에. 엿날엔 못 살아도.(물 담근 쌀, 좁쌀을 마구 연자매에서 마구 가는 거야. 그러해서 큰 시루 옛날에. 옛날엔 못 살아도.)

103026 @ 으.(으.)

103026 #1 그 대소상 때에는 뭐 스무 시리여, 열 시리여덜 막 헤낫주게게.(그 대소상 때에는 뭐 스무 시루며, 열 시루며 마구 했었지.)

103026 @ 경헷지예. 막 하영 헷지예?(그랬지요. 아주 많이 했지요?)

103026 #1 경 그디 강 삣아당 막 하영덜. 경헨 빗[88]으로덜 갈랑덜.(그렇게 거기 가서 빻았다가 아주 많이들. 그래서 '빗'으로 갈라서들.)

103026 @ 게민 ᄀᆞ찌 쪙 왕 갈르는 거?(그럼 같이 쪄서 와서 가르는 거?)

103026 #1 아니.(아니.)

103026 @ 빗으로 갈른덴 허는 건.('빗'으로 가른다고 하는 건.)

103026 #1 아니, 시리에 쪙게.(아니, 시루에 쪄서.)

103026 @ 아.(아.)

103026 #1 ᄀᆞ를 골아당 시리에 찌여 가지고. 찌여근에 이젠 또 비와 놔근에 칼로 끄창 먹는 거주게.(가루 갈아다가 시루에 쪄 가지고. 쪄서 이젠 또 베어 놔서 칼로 끊어서 먹는 거지.)

103026 @ 게난 그 좁썰로 만드는 시리를?(그러니까 그 좁쌀로 만드는 시루를?)

103026 #1 조침떡.(조 시루떡.)

103026 @ 조침떡?(조 시루떡?)

103026 #1 조침떡.(조 시루떡.)

103026 @ 아, 조침떡 헤 먹젠 강 골앙 오는 거라예?(아, 조 시루떡 해 먹으려고 가서 갈아서 오는 거지요?)

103026 #1 으, 음. 쏠로 허는 건 설귀떡.(으, 음. 쌀로 하는 건 백설기.)

103026 @ 설귀떡. 나중에 물어볼 거우다. 그거는 어떵 만들어신지. 오늘은 농사 허는 거 물어보고예. 좁썰로는 아까 조팝 헤 먹고 떡 헤 먹고 또 뭐 먹어?(백설기.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오늘은 농사하는 거 물어보고요. 좁쌀로는 아까 조밥 해 먹고 떡 해 먹고 또 뭐 먹어?)

103026 #1 좁썰론?(좁쌀론?)

103026 @ 으.(으.)

88) '빗'은 칼로 베어낸 시루떡의 낱개 또는 그것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103026 #1 또 술도 허고.(또 술도 하고.)
103026 @ 술.(술.)
103026 #1 막걸리 술.(막걸리 술.)
103026 @ 막걸리.(막걸리.)
103026 #1 경허난 소주 빠고.(그러니까 소주 빼고.)
103026 @ 막걸리 헤 놩 소주 빠는 거라?(막걸리 해 놔서 소주 빼는 거야?)
103026 #1 으, 막걸리로 담아 놧다근에 궤여 가면은. 또 청주 빠는 수도 잇고. 말강헌 물, 물이 나오주게. 게민 그거 청주엔 헤근에 빠 뒁 또 막걸리로 먹는 수도 잇고.(으, 막걸리로 담아 놨다가 괴어 가면. 또 청주 빼는 수도 있고. 말간 물, 물이 나오지. 그럼 그거 청주라고 해서 빼 두고 또 막걸리로 먹는 수도 있고.)
103026 @ 게난 그것도 다 만들어난 거 아니예?(그러니까 그것도 다 만들었던 거 아니요?)
103026 #1 으.(으.)
103026 @ 이제 떡, 밥, 술 경 헷수다예. 이걸로 개역은, 조로 개역은 안 헤 먹는 거라예?(이제 떡, 밥, 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로 미숫가루는, 조로 미숫가루는 안 해 먹는 거지요?)
103026 #1 조로 개역은 아니, 보리로.(조로 미숫가루는 아니, 보리로.)
103027 @ 쏠로는 그거 헷고 조칩으로는 뭐 허는 거?(쌀로는 그거 했고 조짚으로는 뭐 하는 거?)
103027 #1 조찝?(조짚?)
103027 @ 으, 조찝.(으, 조짚.)
103027 #1 조찝은 쉐덜 멕이는 거.(조짚은 소들 먹이는 거.)
103027 @ 쉐 멕이고 그 다음?(소 먹이고 그 다음?)
103027 #1 불도 솜는 딘 불도 솜고 쉐도 멕이고.(불도 때는 덴 불도 때고 소도 먹이고.)
103027 @ 으, 으. 혹시 조칩이나 보리찝 같은 거 지금 여긴 잔디 심어신디 옛날엔 다 흑이랏잖아예?(으, 으. 혹시 조짚이나 보릿짚 같은 거 지금 여긴 잔디 심었는데 옛날엔 다 흙이었잖아요?)
103027 #1 흑게, 흑.(흙, 흙.)
103027 @ 여기 깔고는 안 헷수과, 마당에?(여기 깔고는 안 했습니까, 마당에?)
103027 #1 마당에 웨 끌게 뒈민 끌아낫주만은 그추룩 만이 끌아보진 안헤여.(마당에 왜 깔게 되면 깔았었지만 그처럼 많이 깔아 보진 않았어.)
103027 @ 만이 끌아 보진 안헤?(많이 깔아 보진 않았어?)
103027 #1 으, 으.(으, 으.)
103027 @ 마당에 꼬는 건 뭐 끌아낫어?(마당에 까는 건 뭐 깔았었어?)
103014 #1 마당에 꼬는 건 보릿대, 보릿낭.(마당에 까는 건 보릿대, 보릿대.)
103014 @ 보릿낭.(보릿대.)

103027 #1 으, 보릿낭. 조칩도 끌기 끌지만은 보리 저, 조칩은 쉐덜 멕이는 때문에 아까와.(으, 보릿대. 조짚도 깔기 깔지만 보리 저, 조짚은 소들 먹이는 때문에 아까워.)

103027 @ 귀헌 거구나.(귀한 거구나.)

103027 #1 귀헌 거. 쉐촐로도 나가 부난.(귀한 거. 소꼴로도 나가 버리니까.)

103027 @ 쉐촐로 나가난예?(소꼴로 나갔어요?)

103014 #1 보릿낭은 쉐 안 먹으난 그것덜 만이 마당에 끌아낫주게. 이 멍석 끌앙, 멍석 끌앙 날레[89] 널젠 허믄. 보리나 조나 널젠 허믄 밑에 보리낭 끌아난.(보릿대는 소 안 먹으니까 그것들 많이 마당에 깔았었지. 이 멍석 깔아서, 멍석 깔아서 '날레' 널려고 하면. 보리나 조나 널려고 하면 밑에 보릿대 깔았었어.)

103014 @ 보리낭 끌아난?(보릿대 깔았었어?)

103014 #1 으, 보리낭 많이 끌아낫주기게.(으, 보릿대 많이 깔았었지.)

103014 @ 아까 보리찝은 보리낭이엔 골암수다예?(아까 보릿짚은 '보리낭'이라고 말하네요?)

103014 #1 보리낭.('보리낭'.)

103027 @ 보리낭. 조칩은 그냥?('보리낭'. 조짚은 그냥?)

103027 #1 조칩, 조칩.(조짚, 조짚.)

103027 @ 보리칩이엔은 잘 안 허고?(보릿짚이라고는 잘 안 하고?)

103027 #1 보리낭, 보리낭.('보리낭'. '보리낭'.)

103027 @ 조칩이엔 허고예?(조짚이라고 하고요?)

103027 #1 조는 조칩.(조는 조짚.)

103016 @ 예, 예. 그럼 좁씨 보관은, 씨 보관은 어떵 헷수과?(예, 예. 그럼 조씨 보관은, 씨 보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103016 #1 씨 보관은 저 다 몰리우면은 그런대로.(씨 보관은 저 다 말리면 그런대로.)

103016 @ 골르는 거 아니 훍은 걸로?(고르는 거 아니 굵은 걸로?)

103016 #1 훍은 걸로 골리왕, 조코고리도 골리우고.(굵은 걸로 골라서, 조 이삭도 고르고.)

103016 @ 으, 골리왕.(으, 골려서.)

103024 #1 조코고리 골리왓당 뚜로 널엉 그걸 이제 뭣으로 마께로라도 이제 장만헤영.(조 이삭 골랐다가 따로 널어서 그걸 이제 뭐로 방망이로라도 이제 장만해서.)

103024 @ 그건 하지 안허난.(그건 많지 않으니까.)

103024 #1 하지 안 허난, 물방에 안 가.(많지 않으니까, 연자매 안 가.)

103024 @ 안 가예?(안 가요?)

103024 #1 그건 집이서 장만헤영, 장만헤근에 이제 다 마련허영 불령 허영 이젠

89) '날레'는 볕을 쐬기 위하여 멍석에 널어놓는 곡식을 말한다.

잘 물류왕 이젠 무신 저 찰리에 담앙.(그건 집에서 장만해서, 장만해서 이제 다 마련해서 불려서 해서 이젠 잘 말려서 이젠 무슨 저 자루에 담아서.)

103024 @ 으.(으.)

103024 #1 담앙 걸어 두나 경 안 허민 어디 항 소곱엘 놔두나.(담아서 걸어 두거나 그렇게 안 하면 어디 항아리 속엘 놔두거나.)

103024 @ 항 소곱에.(항아리 속에.)

103024 #1 으, 경헷다근에.(으, 그랬다가.)

103016 @ 씨 같은 거 보관허는 건 거의 다 항에 보관헷수과, 옛날에 씨 뭐 보리씨 같은 거 보관헹 놔뒷당 뿌렷잖아예?(씨 같은 거 보관하는 건 거의 다 항아리에 보관했습니까, 옛날에 씨 뭐 보리씨 같은 거 보관해 놔뒀다가 뿌렸잖아요?)

103016 #1 으.(으.)

103016 @ 게민 그거 어디?(그럼 그거 어디?)

103016 #1 항에덜.(항아리에들.)

103016 @ 항에덜.(항아리에들.)

103016 #1 항에.(항아리에.)

103016 @ 항에.(항아리에.)

103016 #1 뚜로.(따로.)

103016 @ 뚜로예. 허벅에도 담앙 놔두고?(따로요. 허벅에도 담아서 놔두고?)

103016 #1 허벅에도 질곡게. 항에도 질고.(허벅에고 긷고. 항아리에도 긷고.)

103016 @ 으, 허벅에도 질엉 놔두고예.(으, 허벅에도 길어서 놔두고요.)

콩 농사

103029 @ 콩 농사도 헷수과, 콩?(콩 농사도 했습니까, 콩?)

103029 #1 콩도 헤낫주게.(콩도 했었지.)

103029 @ 콩 농사는 어떵 준비헤야 뒐 것과?(콩 농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겁니까?)

103029 #1 콩 농사는 콩은 간단허여. 그자 씨 뿌령 갈앙만 내불어도 나.(콩 농사는 콩은 간단해. 그저 씨 뿌려서 갈아서만 내버려도 나.)

103031 @ 거름 안 허고?(거름 안 하고?)

103031 #1 으, 거름 안 헤도 나.(으, 거름 안 해도 나.)

103031 @ 아, 콩은 거름 안 헤도 나.(아, 콩은 거름 안 해도 나.)

103031 #1 으, 콩은 거름 안 헤도.(으, 콩은 거름 안 해도.)

103030 @ 그럼 씨를 먼저 뿌리는 것과?(그럼 씨를 먼저 뿌리는 겁니까?)

103030 #1 으, 씨를 먼저 뿌려 놩 갈앙만 그냥 내부는 거.(으, 씨를 먼저 뿌려 놔서 갈아서만 그냥 내버리는 거.)

103030 @ 갈앙만.(갈아서만.)

103030 #1 그건, 그건 간단헤여.(그건, 그건 간단해.)

103030 @ 콩은 언제 갑니까?(콩은 언제 갑니까?)

103030 #1 콩도 조 헐 때 여름에.(콩도 조 할 때 여름에.)

103030 @ 여름에.(여름에.)

103030 #1 으, 여름에.(으, 여름에.)

103030 @ 으, 조 헐 때.(으, 조 할 때.)

103030 #1 이제, 이제, 이제 콩 익엇지게. 이제 노란 콩덜, 검은콩, 노란콩 푸린콩 이제 싱거 놔둔 것덜 다 단풍 일어 가지고 이제 다 익어 감서.(이제, 이제, 이제 콩 익었지. 이제 노란 콩들, 검은콩 노란콩 푸른콩 이제 심어 놔둔 것들 다 단풍 일어 가지고 이제 다 익어 가고 있어.)

103030 @ 꺼껌십디다.(꺾고 있습디다.)

103030 #1 여름에 헹 놔두민 이제 거둬들이는 거. 가을에 이 구월덜에 그건 거둬들여.(여름에 해서 놔두면 이제 거둬들이는 거. 가을에 그 구월에 그건 거둬들여.)

103035 @ 아, 예. 콩 꺼껑십디다.(아, 예. 콩 꺾고 있습디다.)

103035 #1 으.(으.)

103035 @ 하하하.(하하하.)

103035 #1 이제 콩덜 꺼끄레 강 막 콩 꺼끄는 거 막 비싸주기게. 이제, 이제 거둬들이는 거라.(이제 콩들 꺾으러 가서 마구 콩 꺾는 거 아주 비싸지. 이제, 이제 거둬들이는 거야.)

103035 @ 이제 거둬들이는 거예.(이제 거둬들이는 거요.)

103035 #1 그건 여름에, 한여름에덜 헤여근에.(그건 여름에, 한여름에들 해서.)

103031 @ 콩밧 거름은 안 허고, 콩밧 거름은 안 허는 거라예?(콩밭 거름은 안 하고, 콩밭 거름은 안 하는 거지요?)

103031 #1 안 허여.(안 해.)

103032 @ 콩씨 어떵 뿌립니까?(콩씨 어떻게 뿌립니까?)

103032 #1 콩씨도 마찬가지게. 콩씨는 홁으니까 홁은 대로 알아맞촹 그자 뿌령 내불민 나.(콩씨도 마찬가지. 콩씨는 굵으니까 굵은 대로 알아맞혀서 그저 뿌려서 내버리면 나.)

103032 @ 으, 좀팍에 놩?(으, '좀팍'에 놔서?)

103032 #1 으, 좀팍[90]에 놔근에 손으로 영 영.(으, '좀팍'에 놔서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103033 @ 아, 밑으로. 밑으로 영 영예? 게민 콩밧디 검질멥니까?(아,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요? 그럼 콩밭에 김맵니까?)

103033 #1 메. 검질 경 안 메도 뒈긴 허여. 콩이 어우러져 가민 검질이 삭아져 불엉.(매. 김도 그렇게 안 매도 되긴 해. 콩이 어우러져 가면 김이 삭아 버려서.)

103033 @ 어.(어.)

90) '좀팍'은 '한 되들이만큼 하게 나무를 파서 만든 둥그스름한 그릇'을 말한다. 곡물을 뜰 때 사용하는 도구로 지역에 따라 '좀박, 손박, 솔박'이라고도 한다.

103033 #1 콩으로.(콩으로.)

103033 @ 콩으로 삭아지는 거.(콩으로 삭아지는 거.)

103033 #1 으, 게난 콩밧디는 멧 불 안 메도 뒈여.(으, 그러니까 콩밭 몇 불 안 매도 돼.)

103033 @ 보통 콩밧딘 멧 불?(보통 콩밭은 몇 불?)

103033 #1 혼 불쯤 메민 뒈지. 혼 불 메민 그자 그걸로. 그런대로 콩은 탁 어우러지니까.(한 벌쯤 매면 되지. 한 벌 매면 그저 그걸로. 그런대로 콩은 탁 어우러지니까.)

103033 @ 으.(으.)

103033 #1 이파리로 어우러지니까.(잎으로 어우러지니까.)

103033 @ 으.(으.)

103033 #1 빈 땅이 우로 못 봐, 콩은.(빈 땅이 위로 못 봐, 콩은.)

103033 @ 으.(으.)

103033 #1 다른 곡석 닮지 안허여. 경허난 콩밧디는 검질 만이 안 메.(다른 곡식 닮지 않아. 그러니까 콩밭에는 김 많이 안 매.)

103033 @ 안 메는 거예? 콩은 소끌 필요도 없잖아예?(안 매는 거요? 콩은 솎을 필요도 없잖아요?)

103033 #1 으, 소꿀 필요도 엇고.(으, 솎을 필요도 없고.)

103033 @ 엇고.(없고.)

103033 #1 싱글 필요도 엇고 싱거도 뒈지 안허고.(심을 필요도 없고 심어도 되지 않고.)

103034 @ 싱거도 뒈지 안허고. 게민 콩밧디는 어떤 검질덜 납니까?(심어도 되지 않고. 그럼 콩밭에는 어떤 김들 납니까?)

103034 #1 콩밧디 보콜.(콩밭에 깨풀.)

103034 @ 보콜?(깨풀?)

103034 #1 보콜 거튼 거. 그디도 저 제환지.(깨풀 같은 거. 거기도 저 바랭이.)

103034 @ 아, 제환지.(아, 바랭이.)

103034 #1 예, 보콜 제환지. 이런 무신 저 뭐 무신. 그디도 으라 가지 나긴 허는디 대목[91] 나는 거는 보콜, 제환지.(예, 깨풀 바랭이. 이런 무슨 저 뭐 무슨. 거기도 여러 가지 나긴 하는데 주로 나는 거는 깨풀, 바랭이.)

103035 @ 으, 대목 나는 건 보콜, 제환지예?(으, 주로 나는 건 깨풀, 바랭이요?)

103035 #1 으, 으.(으. 으.)

103035 @ 이제 콩은 여름에 갈아 가지고 이제 수확헐 건디.(이제 콩은 여름에 갈아 가지고 이제 수확할 건데.)

103035 #1 이제 수확헐 때.(이제 수확할 때.)

103035 @ 수확허젠 허민 어떵 꺼끕니까? 콩은 꺾는 거라예?(수확하려고 하면

91) '대목'은 가장 중요한 시기를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로'의 의미로 쓰였다.

어떻게 꺾습니까? 콩은 꺾는 거지요?)

103035 #1 꺼끄는 거, 꺼끄는 거.(꺾는 거, 꺾는 거.)

103035 @ 어떵 꺼끕니까, 그거는?(어떻게 꺾습니까, 그거는?)

103035 #1 호미로 그거는 그냥 영 대여근 그자.(낫으로 그거는 그냥 이렇게 대서 그저.)

103035 @ 으.(으.)

103035 #1 딱 딱 딱 딱.(딱 딱 딱 딱.)

103035 @ 으, 호미.(으, 낫.)

103035 #1 익어 가면은 꺼꺼. 거 무거와 ᄒᆞ꼼. 힘들어.(익어 가면 꺾어. 거 무거워 조금. 힘들어.)

103035 @ 콩 꺾는 게?(콩 꺾는 게?)

103035 #1 으, 겨난.(으, 그러니까.)

103035 @ 힘으로 헹 밀령 꺾는 거난?(힘으로 해서 밀려서 꺾는 거니까?)

103035 #1 밀령 꺾진 안헤도 거 호미로 영 줍아뎅경 보리, 조거치 비질 못허니까.(밀려서 꺾진 않아도 거 낫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보리, 조같이 베질 못하니까.)

103035 @ 으.(으.)

103035 #1 이짝은 영 앞더레 힘주고 호미는 줍아뎅기곡 경허멍 영 꺾어. 꺼끄난 콩은 꺼끈다, 꺼끈다 허주.(이쪽은 이렇게 앞으로 힘주고 낫은 잡아당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꺾어. 꺾으니까 콩은 꺾는다, 꺾는다 하지.)

103035 @ 콩 꺼끄레 가는 거예?(콩 꺾으러 가는 거요?)

103035 #1 콩 꺼끄레 가는 거.(콩 꺾으러 가는 거.)

103035 @ 콩 저도 하영 꺼껏수다.(콩 저도 많이 꺾었습니다.)

103035 #1 기?(그래?)

<중략>

103035 @ 게민 이제 콩 영 영 꺼껏수다예. 콩 꺼끄민 ᄆᆞᆯ령 무끌 거? 어떵 헤 장만허젠 허민?(그럼 이제 콩 이렇게 이렇게 꺾었습니다. 콩 꺾으면 말려서 묶을 거? 어떻게 해 장만하려고 하면?)

103035 #1 그냥 꺼끄멍 무꺼.(그냥 꺾으면서 묶어.)

103035 @ 꺼끄멍 바로 무꺼?(꺾으면서 바로 묶어?)

103035 #1 어, 어. 꺼끄멍 무끄멍 말멍 그냥 그디서 그자 뭐 무신 푸데나, 푸데나 무시거 영 헤영 저, 저, 저 가빠나 그거 놔근에 그자 거 무겁지 안허는 거니까.(어, 어. 꺾으면서 묶으면서 말면서 그냥 거기서 그저 뭐 무슨 자루나, 자루나 무엇 이렇게 해서 저, 저, 저 가빠나 그거 놔서 그저 거 무겁지 않은 거니까.)

103035 @ 으.(으.)

103035 #1 경허난 경허단 모여다 놩 기계로 장만헤여, 밧디서.(그러니까 그러다가 모여다 놔서 기계로 장만해, 밭에서.)

103035 @ 기계 나오기 전에는?(기계 나오기 전에는?)

103035 #1 나오기 전에는 도께로.(나오기 전에는 도리깨로.)
103035 @ 도께로.(도리깨로.)
103035 #1 도께나 마께나.(도리깨나 방망이나.)
103035 @ 게난 무끄지 안혜영?(그러니까 묶지 않아서?)
103035 #1 아니, 무끄지 안헐 정도로. 그건 무끄지 안헤도 뒈여.(아니, 묶지 않을 정도로. 그건 묶지 않아도 돼.)
103035 @ 게난 무끄지 안헤영 모다도 뒈는 거?(그러니까 묶지 않고 모아도 되는 거?)
103035 #1 모여 놔도 뒈여.(모여 놔도 돼.)
103035 @ 모여 놩 그냥 그 밧디서 도께질, 두드리는 거?(모여 놔서 그냥 그 밭에서 도리깨질, 두드리는 거?)
103035 #1 으, 밧디서 저 기계로도 밧디 이젠. 저 엿날엔 그냥 도께로 헤도 밧디서.(으, 밭에서 저 기계로도 밭에 이젠. 저 옛날엔 그냥 도리깨로 해도 밭에서.)
103035 @ 도께질 허젠 허민 바닥에 뭐 깝니까?(도리깨질 하려고 하면 바닥에 뭐 깝니까?)
103035 #1 옛날엔 멍석.(옛날엔 멍석.)
103035 @ 멍석 깔아 놓고.(멍석 깔아 놓고.)
103035 #1 이제 지금은 가빠라도.(이제 지금은 가빠라도.)
103035 @ 가빠라도예?(가빠라도요?)
103035 #1 옛날엔 멍석.(옛날엔 멍석.)
103035 @ 멍석 깔아 놩 그 우에 막 콩 앗아당 두드리는 거라예?(멍석 깔아 놔서 그 위에 마구 콩 가져다가 두드리는 거지요?)
103035 #1 으, 으.(으, 으.)
103035 @ 콩은 아래 떨어지고 찝은?(콩은 아래 떨어지고 짚은?)
103035 #1 거둬 내곡.(거둬 내고.)
103036 @ 거둬 내고예. 예, 경헹 도께질 헐 거예. 이제 콩 장만헷수다예.(거둬 내고요. 예, 그래서 도리깨질 할 거요? 이제 콩 장만했습니다.)
103036 #1 으.(으.)
103036 @ 콩 장만허난 콩알덜은 영 봉가 내고 우이 찍들은 이제 버려두고. 콩으로는 이제 뭐 헐 것과?(콩 장만했던 콩알들은 이렇게 주워 내고 위에 짚들은 이제 버려두고. 콩으로는 이제 뭐 할 겁니까?)
103036 #1 콩으로 장 담고게.(콩으로 장 담고.)
103036 @ 장 담고.(장 담고.)
103036 #1 으, 메주 솖앙.(으, 메주 삶아서.)
103036 @ 또?(또?)
103036 #1 경도 헹 먹고 골앙 죽도 쒕 먹고 국도 끌령 먹고 뭐 다 허지 뭐 콩으로는.(그렇게도 해서 먹고 갈아서 죽도 쒀서 먹고 국도 끓여서 먹고 뭐 다 하지

뭐 콩으로는.)

103036 @ 아, 죽도 쒕 먹고 국도 끌령 먹고.(아, 죽도 쒀서 먹고 국도 끓여서 먹고.)

103036 #1 으, 으. 보깡도 먹고.(으, 으. 볶아서도 먹고.)

103036 @ 그걸로 ᄂᆞ물 키웡 먹엇수과?(그걸로 나물 키워서 먹었습니까?)

103036 #1 으?(으?)

103036 @ ᄂᆞ물, ᄂᆞ물?(나물, 나물?)

103036 #1 ᄂᆞ물 어떵?(나물 어떻게?)

103036 @ 콩지름, 콩으로 콩지름도 질뤄나고?(콩나물, 콩으로 콩나물도 키웠었고?)

103036 #1 으, 콩으로 콩지름도 놩 먹곡. 콩지름 놓는 콩은 뚜난 콩 허영 줌진 거. 콩ᄂᆞ물 허는 콩이 뚜로 잇주게.(으, 콩으로 콩나물도 놔서 먹고. 콩나물 놓는 콩은 다른 콩 해서 잔 거. 콩나물 하는 콩이 따로 있지.)

103036 @ 게민 그런 콩덜도 뚜로 질롸?(그럼 그런 콩들도 따로 길러?)

103036 #1 메주콩 뚜로 잇고.(메주콩 따로 있고.)

103036 @ 아, 메주콩 뚜로 잇고.(아, 메주콩 따로 있고.)

103036 #1 게도 갈 땐 다 비슷허게 ᄀᆞ치 갈고 씨만 뚜나.(그래도 갈 땐 비슷하게 같이 갈고 씨만 달라.)

103036 @ 아, 씨만 뚜나. 게난 콩지름도 헤 먹고?(아, 씨만 달라. 그러니까 콩나물도 해 먹고?)

103036 #1 헤 먹는 콩 잇고.(해 먹는 콩 있고.)

103036 @ 메주도 헤 먹고.(메주도 해 먹고.)

103036 #1 메주, 으, 메주 헤 먹고.(메주, 으, 메주 해 먹고.)

103036 @ 둠비도 헹 먹고?(두부도 해서 먹고?)

103036 #1 둠비 헤 먹는 콩은 메주허는 거나 비싯허고.(두부 해 먹는 콩은 메주하는 거나 비슷하고.)

103036 @ 비슷허고. 그럼 콩 종류 무슨 콩, 무슨 콩 일름이 잇수과?(비슷하고. 그럼 콩 종류 무슨 콩, 무슨 콩 이름이 있습니까?)

103036 #1 머드레콩 거튼 거. 쌍콩[92].(머드레콩 같은 거. '쌍콩'.)

103036 @ 다시 한 번, 머드리콩?(다시 한 번, 머드리콩?)

103036 #1 머드레콩.(머드레콩.)

103036 @ 그 다음 쌍콩?(그 다음 '쌍콩'?)

103036 #1 쌍콩.('쌍콩'.)

103036 @ 또?(또?)

103036 #1 주눈이콩[93].('주눈이콩'.)

92) '쌍콩'은 콩 종류의 하나다.
93) '주눈이콩'은 콩 종류의 하나다.

103036 @ 주?(주?)
103036 #1 눈이콩.(눈이콩.)
103036 @ 주눈이콩?(‘주눈이콩’?)
103036 #1 으.(으.)
103036 @ 주눈이콩. 또? 요거 정도?(‘주눈이콩’. 또? 요거 정도?)
103036 #1 으.(으.)
103036 @ 머드레콩으론 뭐 헹 먹어?(머드레콩으론 뭐 해서 먹어?)
103036 #1 머드레콩으론 밥에도 놩 먹고 요새덜은 뭐 약제로도 볶앙덜 먹고. 검은콩, 붉은콩, 저 푸린콩, 노란콩.(머드레콩으론 밥에도 놔서 먹고 요새들은 뭐 약제로도 볶아서들 먹고. 검은콩, 붉은콩, 저 푸른콩, 노란콩.)
103036 @ 아.(아.)
103036 #1 머드레콩은 색제가 세 가지나 잇어.(머드레콩은 색채가 세 가지나 있어.)
103036 @ 아, 기구나. 쌍콩은?(아, 그렇구나. ‘쌍콩’은?)
103036 #1 쌍콩은 저 골아근에 그냥 메주도 쓰곡게. 메주.(‘쌍콩’은 저 갈아서 그냥 메주도 쓰고, 메주.)
103036 @ 아, 이거는 메주 쓰는 콩?(아, 이거는 메주 쓰는 콩?)
103036 #1 으, 메주.(으, 메주.)
103036 @ 주눈이콩은?(‘주눈이콩’은?)
103036 #1 주눈이콩도 그거 메주레 다 들어가고 그건 뭐, 그것도 무신 약제로도 들어간덴 헤라만은. 주눈이콩도.(‘주눈이콩’도 그거 메주로 다 들어가고 그건 뭐, 그것도 무슨 약제로도 들어간다고 하더라만. ‘주눈이콩’도.)
103036 @ 음.(음.)
103036 #1 막 줌질아 ᄒᆞ꼼.(아주 잘아 조금.)
103036 @ 줌진 거예?(잔 거요?)
103036 #1 으, 줌진 거.(으, 잔 거.)
103036 @ 콩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잇어?(콩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103036 #1 으, 세 가지.(으, 세 가지.)
103037 @ 콩찝은 뭐 헙니까?(콩짚은 뭐 합니까?)
103037 #1 으?(으?)
103037 @ 콩찝.(콩짚.)
103037 #1 콩찝은 콩찝도 소, 쉐도 멕여.(콩짚은 콩짚도 소, 소도 먹여.)
103037 @ 쉐 멕여?(소 먹여?)
103037 #1 으, 쉐 멕이고 쉐 멕이지 안허민 불 솜고.(으, 소 먹이고 소 먹이지 않으면 불 때고.)
103037 @ 아.(아.)

103037 #1 옛날에 밥 헤 먹엉.(옛날에 밥 해 먹어서.)
103037 @ 콩찝을 깔거나는 안 헷수과?(콩짚을 깔거나는 안 했습니까?)
103037 #1 뭣에 끌아?(뭐에 깔아?)
103037 @ 마당에.(마당에.)
103037 #1 아니, 콩으로는 안 허여.(아니, 콩으로는 안 해.)
103037 @ 아니.(아니.)
103037 #1 거 ᄂᆞ실아 불고 안 허여.(거 날카로워 버리고 안 해.)
103038 @ 예, 콩농사 지으멍 뭐 기억나는 일 잇수과?(예, 콩농사 지으면서 뭐 기억나는 일 있습니까?)
103038 #1 우리 콩농사는 경 만이 지어지지 안허여. 콩 헐 때는 조 허는 때문에 조를 만이 헤낫지.(우리 콩농사는 그렇게 많이 짓지 않아. 콩 할 때는 조 하는 때문에 조를 많이 했었지.)
103038 @ 조를 만이.(조를 많이.)
103038 #1 조를 만이 헤낫지. 콩은 경 만이 안 헤나부난.(조를 많이 했었지. 콩은 그렇게 많이 안 했었으니까.)
103038 @ 원래 고내리 자체가 조를 더 만이 헤낫수과?(원래 고내리 자체가 조를 더 많이 했었습니까?)
103038 #1 예, 고내리에는 기자 보리, 조 만이 헤낫주게.(예, 고내리에는 그저 보리, 조 많이 했었지.)
103038 @ 보리, 조.(보리, 조.)
103038 #1 감저, 고구마.(고구마, 고구마.)
103038 @ 감저예?(고구마요?)
103038 #1 으, 그거.(으, 그거.)
103038 @ 만이 헤난 거예?(많이 했던 거요?)
103038 #1 으, 만이 헤낫주. 다른 농선 경.(으, 많이 했었지. 다른 농산 그렇게.)

밭벼 농사

103040 #2 산디 농서는 삼월덜에 헙니다.(밭벼 농사는 삼월에 합니다.)
103040 @ 산디 농사?(밭벼 농사?)
103040 #2 예.(예.)
103039 @ 게민 산디 농사허젠 허민 뭐 준비헤야 됩니까?(그럼 밭벼 농사하려고 하면 뭐 준비해야 됩니까?)
103039 #2 아니 산디 농서는 준비허고 안 허고 헐 게 엇입니다게.(아니 밭벼 농사는 준비하고 안 하고 할 게 없습니다.)
103039 @ 거름 안 헙니까?(거름 안 합니까?)
103039 #2 거름 허주만은 그땐 거름이 뭐 셔수과게?(거름 하지만 그땐 거름이 뭐 있습니까?)

103040 @ 음. 게민 산디는 언제 갈 거마씨?(음. 그럼 밭벼는 언제 갈 거요?)

103040 #2 삼월덜에 갈아.(삼월에 갈아.)

103040 @ 음력 삼월?(음력 삼월?)

103040 #2 예. 멘네 갈 때.(예, 면화 갈 때.)

103041 @ 멘네 갈 때. 거름, 거름 엇이난.(면화 갈 때. 거름, 거름 없으니까.)

103041 #2 거름이 엇주기게. 엇엉 무신 비료가 알 비료 셔시카? 흔 방울썩, 비료엔 헌 거 나온 거 보믄 헤영헌 거 나온 거 쪼금 뿌리곡 경헷수다. 경허니까 막 삶이 곤란헷주.(거름이 없지. 없어서 무슨 비료가 밑 비료 있었을까? 한 방울씩, 비료라고 하는 거 나온 거 보면 하얀 거 나온 거 조금 뿌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삶이 곤란했지.)

103042 @ 게민 산디 씨 뿌리젠 허민 어떵 뿌려난?(그럼 밭벼 씨 뿌리려고 하면 어떻게 뿌렸었어?)

103042 #2 산디 씬 그냥 뿌려근에 저 끗시믄 뒙니다. 저 섬피 허여근에 갈아 놩 뿌령.(밭벼 씬 그냥 뿌려서 저 끌면 됩니다. 저 끙게 해서 갈아 놔서 뿌려.)

103042 @ 저 밧을 먼저 갈아 놩?(저 밭을 먼저 갈아 놔서?)

103042 #2 으.(으.)

103042 @ 그 다음 산디 씨 뿌릴 거?(그 다음 밭벼 씨 뿌릴 거?)

103042 #2 으, 뿌려근에 이젠 영 섬피 넙싹헌 거 소낭 가지라도 너벌허게 멘들아근에 영 끗이믄 씨 막아지게[94].(으, 뿌려서 이젠 이렇게 끙게 넓적한 거 소나무 가지라도 넓적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끌면 씨 막히게.)

103042 @ 으, 씨 막아질 거. 밧 갈아 낭 씨 뿌령 그 다음 뭐 헐 거예?(으, 씨 막힐 거. 밭 갈고 나서 씨 뿌려서 그 다음 뭐 할 거요?)

103043 #2 예. 경헹 산디밧디 검질 여름에 내내 흔 세불 메야 뒐 거라.(예. 그리해서 밭벼밭에 김 여름에 내내 한 세벌 매야 될 거야.)

103043 @ 세불?(세벌?)

103043 #2 으. 초불 메영 그거. 초불 메여근에 이젠 또 쪼금 시믄 그것이 거리멍[95] 커 갈 거 아니?(으. 초벌 매서 그거. 초벌 매서 이젠 또 조금 있으면 그것이 '거리면서' 커 갈 거 아니?)

103043 @ 으.(으.)

103043 #2 겨믄 또 두불 메영 세불은 메 가믄 이만이 새밧거치 올라와근에 거꺼지카 부덴 굽어근에 조심헤영.(그럼 또 두벌 매서 세벌은 매 가면 이만큼 새밭같이 올라와서 꺾어질까 봐 굽어서 조심해서.)

103044 @ 음. 게민 산디밧디 검질은 어떤 검질덜이 납니까?(음. 그럼 밭벼밭에 김은 어떤 김들이 납니까?)

103044 #2 산디밧디 나는 검질 뭐, 그때 옛날 나는 건 무신 상고지도 나고 보쿨

94) 여기서 '씨 막아지게'는 '씨 덮히게'의 의미다.

95) '거리다'는 나뭇가지 따위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나오는 것을 말한다.

도 나고 제환지도 나고.(밭벼밭 나는 김 뭐, 그때 옛날 나는 건 무슨 방동사니도 나고 깨풀도 나고 바랭이도 나고.)

103044 @ 으.(으.)

103044 #2 밋붉은제환지엔 헌 것도 나고.(민바랭이라고 한 것도 나고.)

103044 @ 밋붉은?(민?)

103044 #2 제환지.(바랭이.)

103044 @ 아, 그런 것덜 날 거예?(아, 그런 것들 날 거요?)

103044 #2 제환지, 민바랭이에 제환지. 제환지엔 헌 건 북제환지라고 헤양헌 제환지도 잇어.(바랭이, 민바랭이에 바랭이, 바랭이라고 하는 건 조개풀이라고 하얀 바랭이도 있어.)

103044 @ 음.(음.)

103044 #2 겨믄 그거. 또 보쿨 또 저 무시거 쉐터럭. 또 뭣이냐 허믄 가마귀횃줄이여 뭐 검질이 만주게.(그럼 그거. 또 깨풀 또 무엇 김의털. 또 뭐냐 하면 괭이밥이며 뭐 김이 많지.)

103044 @ 음. 그 검질덜 보믄 다 알아질 거 아니?(음. 그 김들 보면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

103044 #2 예.(예.)

103044 @ 밖에도 보면 다는 엇어도 몇 개 검질덜 잇어예?(밖에도 보면 다는 없어도 몇 개 김들 있어요?)

103044 #2 예, 예.(예, 예.)

103044 @ 나중에.(나중에.)

103044 #2 잇어도, 여기 잇어도 그 으름에 나는 검질이 다 읏어. 보쿨허고 저 제환지 이제 알아지는 거는. 다른 거 나질 안허영게. 저 다른 검질을 만이 나, 이제 나는 건.(있어도, 여기 있어도 그 여름에 나는 김이 다 없어. 깨풀하고 저 바랭이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나질 않아. 저 다른 김을 많이 나, 이제 나는 건.)

103044 @ 으, 검질도 다 들어왕 이젠.(으, 김도 다 들어와서 이젠.)

103044 #2 이젠 다른 검질 나는 따문에.(이젠 다른 김 나는 때문에.)

103044 @ 으.(으.)

103044 #2 제환지허고 밋붉은제환지도 어디 실 거라. 싯고 저 거세기 천상풀 이제 나는 건.(바랭이하고 민바랭이도 어디 있을 거야. 있고 저 거시기 망초 이제 나는 건.)

103039 @ 산디 씨 뿌리젠 허민 산디 씨를 어떵 보관을 헤야 뒐 거 아니예?(밭벼 씨 뿌리려고 하면 밭벼 씨를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요?)

103039 #2 아니, 농사헤 먹으멍 바싹 물령 놧당.(아니, 농사해서 먹으면서 바싹 말려 놨다가.)

103039 @ 그거 어디 담앙 놔둬.(그거 어디 담아서 놔둬.)

103039 #2 항아리 거튼 것에게. 엿날 다 항아리덜 씨엿주게.(항아리 같은 것에.

옛날 다 항아리들 썼었지.)

103039 @ 으, 항아리.(으, 항아리.)

103039 #2 망데기[96] 항아리 그런 것덜.('망데기' 항아리 그런 것들.)

103039 @ 거기 놔뒷당?(거기 놔뒀다가?)

103040 #2 게믄 그것에 놧당 삼월 나믄.(그럼 그것에 놨다가 삼월 되면.)

103040 @ 삼월 나민 씨 뿌령 뭐 헐 거예?(삼월 되면 씨 뿌려서 뭐 할 거요?)

103040 #2 으.(으.)

103040 @ 그럼 이제 산디밧디 검질 다 멧수다예?(그럼 이제 밭벼밭에 김 다 맸어요?)

103040 #2 예.(예.)

103045 @ 산디덜 익으난 거둬들여야 헐 거 아니과?(밭벼들 익으니까 거둬들여야 할 거 아닙니까?)

103045 #2 예, 예.(예, 예.)

103045 @ 거둬들이젠 허난 어떵 헤야 뒐 것과?(거둬들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103045 #2 거둬들임은 그냥 산디 익으믄 비여근에 밧디서 물류주게. 영 비여놩. 어느 정도 물르믄 이제 무꺼 와. 무꺼 오믄 집이 오믄 그 산딜 장만헤얄 거 아니라게?(거둬들이기는 그냥 밭벼 익으면 베여서 밭에서 말리지. 이렇게 베어놔서. 어느 정도 마르면 이제 묶어 와. 묶어 오면 집에 오면 그 밭벼 장만해얄 거 아니야?)

103045 @ 으.(으.)

103045 #2 게믄 산디 장만허는 식이 여러 식이라낫어. 그냥 좀진 보리 훌트는 클 닮은 거 잇엇주기.(그럼 밭벼 장만하는 식이 여러 식이었어. 그냥 잔 보리 훑는 틀 닮은 거 있었지.)

103045 @ 으.(으.)

103045 #2 그것에서 영 훌트젠 헤도 그게 엉살엉살[97] 뒈영 보리 헐 때 보리 고고리 홀타난 거난 못 허주기게. 경허믄 이젠 그거를 저 두드려. 두드려근에 그냥 뭇채.(그것에서 이렇게 훑으려고 해도 그게 '엉살엉살' 되어서 보리 할 때 보리 이삭 훑았던 거니까 못 하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저 두드려. 두드려서 그냥 뭇째.)

103045 @ 으.(으.)

103045 #2 조금만씩 무꺼근에 영 나란히 놩 도께로 영 영 때리믄 건 거 문 때려지면은 이젠 뭇 클러근에 이젠 그거를 조그만씩 줴멍. 이제 ᄀᆞ를 치는 체 잇지 안 허여?(조그만씩 묶어서 이렇게 나란히 놔서 도리깨로 이렇게 이렇게 때리면 건 거 모두 때리면 이젠 뭇 풀어서 이젠 그거를 조그만씩 쥐면서. 이제 가루 치는 체 있지 않아?)

103045 @ 으.(으.)

---

96) '망데기'는 중두리 정도 크기의 중배가 부르지 않은 옹기를 말한다.

97) '엉살엉살'은 구멍이나 사이 간격이 성긴 것을 나타낸 말이다.

103045 #2 동글랑헌 거 그 망.(동그란 거 그 망.)

103045 @ 으.(으.)

103045 #2 그거 허여근에 그거 이렇게 놩 이렇게 작작 작작 작작 허믄 싹싹 그냥 그 산디는 홀타졍 나오랑 허고 그 찝은 헷당 저기 신도 삼곡.(그거 해서 그거 이렇게 놔서 이렇게 작작 작작 작작 하면 싹싹 그냥 그 밭벼는 홅아져서 나와서 하고 그 짚은 했다가 저기 신도 삼고.)

103045 @ 아, 그 찝을 다 그 체 속으로 영 뽑아내는 거?(아, 그 짚을 다 그 체 속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거?)

103045 #2 으.(으.)

103045 @ 그민 찝도 영 골고루 골라지고.(그럼 짚도 이렇게 골고루 골라지고.)

103045 #2 쳇망게. 그 쳇망 잇지 안허냐게?(쳇바퀴. 그 쳇바퀴 있지 않니?)

103045 @ 예, 예.(예, 예.)

103045 #2 망이 동글랑헌 거주기게. 동글락헌 걸로 이렇게 저 조그만씩 조그만씩 무끈 거 탕탕 두드리면은 건 거는 나룩이 털어지거든. 산디가 털어지면은 이젠 건. 이제 털어진 거는 뭣 헤 뒁 산디 이제 털어 놩 거 산디낭은 뭇채 헌 거니까 뚜로 이제 이렇게 털면서 앗아 놧다가 이런 낭 판에서이.(바퀴가 동그란 거지. 동그란 걸로 이렇게 저 조그만씩 조그만씩 묶은 거 탕탕 두드리면 건 거는 벼가 떨어지거든. 밭벼가 떨어지면 이젠 건. 이제 떨어진 거는 뭐 해 둬서 밭벼 이제 떨어 놔서 거 밭볏짚은 뭇째 한 거니까 따로 이제 이렇게 털면서 가져 놨다가 이런 나무 판에서.)

103045 @ 으.(으.)

103045 #2 이런 도구릴 어프던가 이런 딜 허여근에 이젠 그거를 그 쳇망으로 쪼금씩 줴영 영 박박 박박 허믄 나룩은 싹 저레 홀타졍 산딘 나가믄 찝은 이제 찝만 또 ᄏᆞ찡 ᄏᆞ찡 놓멍 쪼그만씩 무꺼근에게.(이런 함지박 엎던지 이런 델 해서 이젠 그거를 그 쳇바퀴로 조금씩 쥐어서 이렇게 박박 박박 하면 벼는 싹 저리 홅아져 밭벼 나가면 짚은 이제 짚만 또 가지런 가지런 놓으면서 조그만씩 묶어서.)

103045 @ 으.(으.)

103045 #2 경허는 거.(그러는 거.)

103045 @ 게민예, 산디 베어 놧을 때 좀 ᄆᆞᆯ려야 뒐 거 아니?(그럼요, 밭벼 베어 놨을 때 좀 말려야 될 거 아니?)

103045 #2 ᄆᆞᆯ려야지.(말려야지.)

103045 @ 며칠 정도 ᄆᆞᆯ려 놩 무끕니까?(며칠 정도 말려 놔서 묶습니까?)

103045 #2 아니, 그거는 ᄒᆞᆫ 삼일이나.(아니, 그거는 한 삼일이나.)

103045 @ 예.(예.)

103045 #2 그렇게 헤영. 더 ᄆᆞᆯ리젠 헤도 일기예보도 몰르곡 허니깐 비 왐직 허믄 무꺼근에 밧디.(그렇게 해서. 더 말리려도 해도 일기예보도 모르고 하니깐 비 올 것 같으면 묶어서 밭에.)

103045 @ 어만큼씩 무꺼?(어느 만큼씩 묶어?)

103045 #2 조그만씩, 조그만씩 요만씩, 요만씩.(조그만씩, 조그만씩 요만큼씩, 요만큼씩.)

103045 @ 조그만씩.(조그만씩.)

103045 #2 조그만씩 무꺼야 이렇게 물르믄 때리는 걸로, 도께로 두드려도 건 거는 털어지지만은 낭에 소곱에 이런 디 영 만이 싯거든.(조그만씩 묶어야 이렇게 마르면 때리는 걸로, 도리깨로 두드려도 건 거는 떨어지지만 나무에 속에 이런 데 이렇게 많이 있거든.)

103045 @ 어.(어.)

103045 #2 경허믄 그건 털엉 산딘 ᄐᆞ로 헤 뒁 그 뭇은 이제 ᄯᆞ로 쳇망으로 이렇게 허믄 마지막으로 허는 거.(그럼 그건 털어서 밭벼 따로 해 두고 그 뭇은 이제 따로 쳇바퀴로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거.)

103045 @ 아. 게민 저 뭇은 무끌 때는 뭐로 씁니까?(아. 그럼 저 뭇은 묶을 때는 뭐로 씁니까?)

103045 #2 그걸로게.(그걸로게.)

103045 @ 산디로 그대로. 자기 께로, 지께[98]로?(밭벼로 그대로. 자기 매끼로 '지께'로?)

103045 #2 으, 자기.(으, 자기.)

103045 @ 지께?('지께'?)

103045 #2 요만인 이렇게 산딜 모여 놩.(요만큼은 이렇게 밭벼를 모여 놔서.)

103045 @ 예.(예.)

103045 #2 요렇게 돔뿍은 아니라도 요렇게 ᄒᆞᆫ 좀 줴영. 줴여근에 요렇게 데왕 허믄 무꺼진다고.(요렇게 듬뿍은 아니라도 요렇게 한 줌 쥐어서. 쥐어서 요렇게 틀어서 하면 묶인다고.)

103045 @ 아, 영 데왕.(아, 이렇게 틀어서.)

103045 #2 데우질 안허고 요렇게 영 거끄면은 그게 요렇게 가면은 이젠.(틀지 않고 요렇게 이렇게 꺾으면 그게 요렇게 가면 이젠.)

103045 @ 가달을 벌리는 거?(다리를 벌리는 거?)

103045 #2 가달을 벌령 이젠 허믄 산디 고고리 ᄌᆞ끗디 요거는 요렇게 가고 탁 무꺼지거든게.(다리를 벌려서 이젠 하면 밭벼 이삭 근처 요거는 요렇게 가고 탁 묶이거든.)

103045 @ 예.(예.)

103045 #2 경허영.(그러해서.)

103045 @ 게민 산디도 영 한 번 보리클에 홀트는 거 아니예?(그럼 밭벼도 이렇게 한 번 보리그네에 홅는 거 아니요?)

103045 #2 보리클에 홀트젠 허믄 보리클이 엉겨서 잘 홀타지지 안허여.(보리그

98) '지께'는 곡식 섬이나 곡식 단 따위를 묶을 때 쓰는 매끼를 그 곡식 줄기를 틀어 만든 것을 말한다.

네에 홅으려고 하면 보리그네가 엉겨서 잘 홅아지지 않아.)

103045 @ 게니까 경헌 다음 다시 두드리는 거 아니예?(그러니까 그러해서 다음 다시 두드리는 거 아니요?)

103045 #2 으.(으.)

103045 @ 두드릴 때는 뭐로 두드리는 거과?(두드릴 때는 뭐로 두드리는 겁니까?)

103045 #2 도께게.(도리깨.)

103045 @ 도께로 두드리는 거예?(도리깨로 두드리는 거요?)

103045 #2 으.(으.)

103045 @ 그리고 나서 다시 쳇망에?(그리고 나서 다시 쳇바퀴에?)

103045 #2 으.(으.)

103045 @ 게믄 세불이나 작업허는 거다예? 훌텅 도께 두드렁?(그럼 세벌이나 작업하는 거지요? 홅어서 도리깨 두드려서?)

103045 #2 아니, 훌트지 안 허영게.(아니, 홅지 않아.)

103045 @ 아, 아예 훌트지 안헤영.(아, 아예 홅지 않고.)

103045 #2 요만씩 헐 때에 그냥 무꺼 오면은 바싹 밧디서 물르믄 더구나 좋고.(요만큼씩 할 때에 그냥 묶어 오면 바싹 밭에서 말리면 더구나 좋고.)

103045 @ 예, 예.(예, 예.)

103045 #2 비가 왐 직허면은, 흔 이틀쯤 물랑 비 왐 직허면은 날씨를 몰르니까 무꺼 오는 거라, 그거를.(비가 올 거 같으면, 한 이틀쯤 말려서 비 올 거 같으면 날씨를 모르니까 묶어 오는 거야, 그거를.)

103045 @ 으, 으.(으, 으.)

103045 #2 경헷당 이젠 저 날 좋으면은 뭇채 이렇게 나란히 널엇당 이젠 멍석 페와근에. 저 세멘 바닥 시민 더 좋주만은 세멘도 헌 바닥이 엇엇주게. 그땐 마당에.(그랬다가 이젠 저 날 좋으면 뭇째 이렇게 나란히 널었다가 이젠 멍석 펴서. 저 시멘트 바닥 있으면 더 좋지만 시멘트도 한 바닥이 없었지. 그땐 마당에.)

103045 @ 마당 다 흑 바닥이엇주.(마당 다 흙 바닥이었지.)

103045 #2 흑 바닥이주. 게믄 멍석이.(흙 바닥이지. 그럼 멍석이.)

103045 @ 예.(예.)

103045 #2 멍석 페와근에가 그걸 양쪽으로 놔. 고고릴 요렇게 가게 놓고 이짝으론 이렇게 가게 놓고.(멍석 펴서 그걸 양쪽으로 놔. 이삭 요렇게 가게 놓고 이쪽으론 이렇게 가게 놓고.)

103045 @ 으.(으.)

103045 #2 영허믄 도께로 여기 두드리고 여기 두드리고. 그냥 영 두드리는 거주게. 두드려.(이러면 도리깨로 여기 두드리고 여기 두드리고. 그냥 이렇게 두드리는 거지. 두드려.)

103045 @ 도께질 헐 때는 뭇은 다 풀러 놩?(도리깨질 할 때는 뭇은 다 풀러 놔

서?)

103045 #2 아니게.(아니.)

103045 @ 그냥 무끈차.(그냥 묶은째.)

103045 #2 무끈채. 경헤영 뚜로 뒤집엉 두드리고.(묶은째. 그래서 또 뒤집어서 두드리고.)

103045 @ 예.(예.)

103045 #2 경허영. 찝 만딱 허꺼져 불렌. 경 안 허믄.(그러해서. 짚 모두 흩어져 버리라고. 그렇게 안 하면.)

103045 @ 예, 예.(예, 예.)

103045 #2 경헤영 뒤집어 놩 영 영 또 때리곡. 경허믄 이젠 그 뭇은 털어져도 방울이 돌아진 것이 만이 잇주게, 거기.(그러해서 뒤집어 놔서 이렇게 이렇게 또 때리고. 그러면 이젠 그 뭇은 떨어져도 방울이 달린 것이 많이 있지, 거기.)

103045 @ 예.(예.)

103045 #2 경허믄 그거는 이젠 영 흔 좀 줴영 이렇게 놩 작작 작작 작작 쳇망으로 요렇게 긁으면은 산디는 저렇게 긁어지고 찝 나오면은.(그러면 그거는 이젠 이렇게 한 줌 쥐어서 이렇게 놔서 작작 작작 작작 쳇바퀴로 요렇게 긁으면 밭벼는 저렇게 긁히고 짚 나오면.)

103045 @ 아.(아.)

103045 #2 그 무꺼난 무셍이, 따시 뭇을 이제 고고리를 요렇게 데왕 헤난 거라도 따시 클르면은 그것이 짝짝 홀트민 다 찝 뒐 거 아니?(그 묶었던 매끼, 다시 뭇을 이제 이삭을 요렇게 틀어서 했던 거여도 다시 풀면 그것이 짝짝 홅으면 다 짚 될 거 아니?)

103045 @ 으.(으.)

103045 #2 경 찝 뒈믄 그 찝으로 또 무끄는 거게.(그렇게 짚 되면 그 짚으로 또 묶는 거.)

103045 @ 으, 찝으로 무끄는 거예. 게민 이제 저기 테작은 다 헌 거우다예.(으, 짚으로 묶는 거요. 그럼 이제 저기 타작은 다 한 겁니다.)

103045 #2 으.(으.)

103045 @ 게민 산디를 장만헤야 쏠이 뒐 거 아니?(그럼 밭벼를 장만해야 쌀이 될 거 아니?)

103045 #2 장만헤야 쏠이 뒐 거난 옛날은 물방에 잇잖아?(장만해야 쌀이 될 거니까 옛날은 연자매 있잖아?)

103045 @ 예, 물방에 강.(예, 연자매 가서.)

103045 #2 으, 물방에서.(으, 연자매에서.)

103045 @ 그거 골아 와야 뒐 거?(그거 갈아 와야 될 거?)

103045 #2 물방에에 바싹 물류왕 방에를 물방에서 그거를 보리도 물방에서 벳겨와근에 이젠.(연자매에 바싹 말려서 방아를 연자매에서 그거를 보리도 연자매에서

벗겨와서 이젠.)

103045 @ 음.(음.)

103045 #2 ᄀᆌ에서 ᄀᆞᆯ앙 보리썰을 ᄀᆞᆯ아근에 먹곡. 그 이제 산디는 그냥 그 ᄆᆞᆯ방에에서 지엉이 멧 불 그거 헤사 쏠이 뒈는 거.(맷돌에서 갈아서 보리쌀을 갈아서 먹고. 그 이제 밭벼는 그냥 그 연자매에서 찧어서 몇 벌 그거 해야 쌀이 되는 거.)

103045 @ 멧 불이나 집니까?(몇 벌이나 찧습니까?)

103045 #2 몰라, 세불 헐 거라?(몰라, 세벌 할 거야?)

103045 @ 세불 정도. 게민 우리 보리썰 질 때는 ᄆᆞᆯ방에 강 물 좀 서끄멍 허잖아예?(세벌 정도. 그럼 우리 보리쌀 찧을 때는 연자매 가서 물 좀 섞으면서 하잖아요?)

103045 #2 으.(으.)

103045 @ 산디 헐 때도 물 좀 서끕니까?(밭벼 할 때도 물 좀 섞습니까?)

103045 #2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3045 @ 아니.(아니.)

103045 #2 산디 헐 땐 아니 헤.(밭벼 할 땐 아니 해.)

103045 @ 아, 보리 헐 때만 물 서껑, 물 뿌리멍 허는 거구나예?(아, 보리 할 때만 물 섞어서, 물 뿌리면서 하는 거군요?)

103045 #2 으.(으.)

103045 @ 게민 이것도 산디쏠도 ᄆᆞᆯ방에 강 지어 왕 다시 돌ᄀᆞ레에 다시 허여?(그럼 이것도 밭벼쌀도 연자매 가서 찧어 와서 다시 맷돌에 다시 해?)

103045 #2 돌ᄀᆞ레에 안 허여. ᄆᆞᆯ방에에서 그냥 곱게 져야 뒈는 거.(맷돌에 안 해. 연자매에서 그냥 곱게 찧어야 되는 거.)

103045 @ 지어 왕 식게 때나?(찧어 와서 제사 때나?)

103045 #2 ᄀᆞᆯ이. 그걸 ᄒᆞᆫ 벌, 초벌 지엉 오랑 불령.(깨끗하게. 그걸 한 벌, 초벌 찧어 와서 불려서.)

103045 @ 예.(예.)

103045 #2 불려근에 따시 놔근에 또 방에에 강 헤사.(불려서 다시 놔서 또 방아에 가서 해야.)

103045 @ 아, ᄒᆞᆫ 벌 헹 왕 다시?(아, 한 벌 해서 와서 다시?)

103045 #2 또 허곡 또 허곡 헤사.(또 하고 또 하고 해야.)

103045 @ 다시 강.(다시 가서.)

103045 #2 쏠이 경 헤야 ᄀᆞᆯ 능겨져근에 헤영헐 거 아니?(쌀이 그렇게 해야 깨끗이 능겨서 하얄 거 아니?)

103045 @ 아, 경헌 거라예?(아, 그런 거지요?)

103045 #2 으.(으.)

103046 @ 게민 이 산디쏠로는 뭐 헤 먹읍니까, 주로?(그럼 이 밭벼쌀로는 뭐 해서 먹습니까, 주로?)

103046 #2 제서 때에게.(제사 때에.)
103046 @ 제서 때에 밥허고?(제사 때에 밥하고?)
103046 #2 으.(으.)
103046 @ 밥허고?(밥하고?)
103046 #2 게, 제서 때에 밥베끼 더 헤서?(게, 제사 때에 밥밖에 더 했어?)
103046 @ 떡?(떡?)
103046 #2 떡도 허고.(떡도 하고.)
103047 @ 산디찝으로는 이제 뭐 헐 거?(밭볏짚으로는 이제 뭐 할 거?)
103047 #2 산디찝으론 겨울 들면은 독독 두드려근에 그 찝으로 신도 삼곡이.(밭볏짚으론 겨울 들면 톡톡 두드려서 그 짚으로 신도 삼고.)
103047 @ 예.(예.)
103047 #2 또 멍석 ᄌᆞ는 사름은 멍석도 줄고. 멍석허곡 ᄀᆞ렛방석. 그거 안 허믄 살질 못 허여, 옛날은.(또 멍석 겯는 사람은 멍석도 겯고. 멍석하고 맷방석. 그거 안 하면 살지 못 해, 옛날은.)
103047 @ 으. ᄀᆞ렛방석도 이것도 다 허고 멕도 줄앗겟다예?(으. 맷방석도 이것도 다 하고 멱도 결었겠네요?)
103047 #2 멕도 줄고.(멱도 겯고.)
103047 @ 예. 멕도 줄고예.(예, 멱도 겯고요.)
103047 #2 또 씨 놔두는 그 부게[99] 망, 부게라고 저 영 둘아메여근에 허는 거, 가방거추룩 헌 거 동글랑허게 줄앙.(또 씨 놔두는 그 멱둥구미라고 저 이렇게 달아매서 하는 거, 가방같이 한 거 동그랗게 결어서.)
103047 @ 씨부게렌 헙니까? 그냥 부게렌 헙니까?('씨부게'라고 합니까? 그냥 '부게'라고 합니까?)
103047 #2 씨부게, 씨부게.('씨부게', '씨부게'.)
103047 @ 씨부게. 그것도 줄고예?(멱둥구미. 그것도 겯고요?)
103047 #2 으.(으.)
103047 @ 맞아마씨. 겐 산디 농사지으멍 기억나는 일 잇수과?(맞아요. 그런데 밭벼 농사지으면서 기억나는 일 있습니까?)
103047 #2 기억나는 일은게 쳇망으로 그거 허곡게 그런 거 다 헤낫주게.(기억나는 일은 쳇바퀴로 그거 하고 그런 거 다 했었어.)
103060 @ 게민 수박 농사, 참웨 농사, 고치 거튼 거 헤낫수과?(그럼 수박 농사, 참외 농사, 고추 같은 거 했었습니까?)
103060 #2 아니, 고친 난 안 헤난.(아니, 고춘 난 안 했었어.)
103060 @ 수박은?(수박은?)
103060 #2 수박도 허여낫주만은 수박은 그 줄을 짝 벋으면은 그 멧 가달만 넴

99) '부게'는 짚으로 날을 촘촘하게 엮은 뒤 아가리를 주먹이 드나들 정도로 좁게 하여 목이 있게 만든, 아주 작은 멱둥구미를 말한다. '씨부게'라고도 한다.

겨둬근에 자꾸 따 불어야 뒈는 거지. 커 올 때는. 경헤야 정 벋어 가근에.(수박도 했었지만 수박은 그 줄을 짝 뻗으면 그 몇 가닥만 남겨두고 자꾸 따 버려야 되는 거지. 커 올 때는. 그러해야 저렇게 뻗어 가서.)

103060 @ 수박은 언제 씨 뿌리는 것과? 씨 뿌리는 것과, 줄 놓는 것과?(수박은 언제 씨 뿌리는 겁니까? 씨 뿌리는 겁니까, 줄 놓는 겁니까?)

103060 #2 그거는 모종을 하우스에 가근에 무신거 허는디 옛날은 하우스도 아닌 디서 모종 놔근에 나면은 밧디 거 싱그는 거주. 간격 어느 만큼썩 널찍널찍허게 놩.(그거는 모종을 하우스에 가서 무엇 하는데 옛날은 하우스도 아니 데서 모종 놔서 나면 밭에 거 심는 거지. 간격 어느 만큼씩 넙적넙적하게 놔서.)

103060 @ 으.(으.)

103060 #2 경헤 커 가믄 그땐 약도 엇이난 그 버렝이 막 먹어 불어근에 이파리 믄 틀어 먹엉.(그래서 커 가면 그땐 약도 없으니까 그 벌레 마구 먹어 버려서 잎 모두 뜯어 먹어서.)

103060 @ 으.(으.)

103060 #2 겐 수박 열믄게 ᄉᆞ월 넘엉 오월덜광 유월덜엔 이젠 따멍 풀아야주.(그래서 수박 열면 사월 넘어서 오월과 유월엔 이젠 따면서 팔아야지.)

103060 @ 예, 알앗수다.(예, 알겠습니다.)

고구마 농사

103039 @ 보리농사, 조농사, 콩농사까지 영 여쭤봔예. 오늘은 산디농사부터 여쭤보쿠다. 여기도 산디 헤낫수과?(보리농사, 조농사, 콩농사까지 이렇게 여쭤봤어요. 오늘은 밭벼농사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도 밭벼 했었습니까?)

103039 #1 아니, 허는 사름은 가끔 헤도 우린 안 헤 봔.(아니, 하는 사람은 가끔 해도 우린 안 해 봤어.)

103039 @ 안 헤 봔예.(안 해 봤어요.)

103039 #1 예.(예.)

103049 @ 게민 감저 물어보쿠다, 감저.(그럼 고구마 물어보겠습니다, 고구마.)

103049 #1 으, 감저.(으, 고구마.)

103049 @ 감저 농서허젠 허민 이제 뭐 준비헤야 헐 것과?(고구마 농사하려고 하면 이제 뭐 준비해야 할 겁니까?)

103049 #1 감저 농서는 뭐 특별히 거름은 엇고 거름 헤지면은 바당에 그저 옛날엔 몸.(고구마 농사는 뭐 특별히 거름은 없고 거름 하면 바다에 그저 옛날엔 모자반.)

103049 @ 예.(예.)

103051 #1 노랑몸[100]이엔 헌 몸이 잇어. 그거 헤당 영 밧고지 고랑에 ᄀᆞᆯ아근에 이제 쉐로 갈아 놓면은 것이 퉤비 뒈영 거름 뒈영 잘 헤난디.('노랑몸'이라고 하는

100) '노랑몸'은 모자반의 한 종류다.

모자반이 있어. 그거 해다가 이렇게 밭이랑 고랑에 깔아서 이제 소로 갈아 놓으면 것이 퇴비 되어서 거름 되어서 잘 했었는데.)

103051 @ 음.(음.)

103051 #1 그것도 매 사람 못 허고 그때도 다, 그때도 고구마 헐 때도 통시 걸름 ᄒᆞ꼼 놓면은 잘 들고 경 안 허면은 잘 안 들어.(그것도 매 사람 못 하고 그때도 다, 그때도 고구마 할 때도 돼지우리 거름 조금 놓으면 잘 들고 그렇게 안 하면 잘 안 들어.)

103051 @ 어쨌든 거름?(어쨌든 거름?)

103051 #1 조끔 놔야.(조금 놔야.)

103051 @ 놔야?(놔야?)

103051 #1 으, 쪼끔 놔야 아멩헤도 다르지.(으, 조금 놔야 아무래도 다르지.)

103051 @ 그럼 아까 몸, 노랑몸?(그럼 아까 모자반, '노랑몸'?)

103051 #1 노랑몸.('노랑몸'.)

103051 @ 그 노랑몸을 뭐렌 불럿수과, 일름을?(그 '노랑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름을?)

103051 #1 노랑몸.('노랑몸'.)

103051 @ 그냥 노랑몸?(그냥 '노랑몸'?)

103051 #1 예, 그냥 노랑몸.(예, 그냥 '노랑몸'.)

103051 @ 게민 이거는 몸국 헤 먹는 몸이랑은?(그럼 이거는 모자반국 해 먹는 모자반과는?)

103051 #1 아니, 거름 허는 거. 이건 거름만 허는 거.(아니, 거름 하는 거. 이건 거름만 하는 거.)

103051 @ 거름만 허는 거. 게민 몸 허젠 허민 개인적으로, 개별로 강?(거름만 하는 거. 그럼 모자반 하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개별로 가서?)

103051 #1 으, 개인적으로 옛날엔 헤난디 지금은 하나토 엇어 불어서. 그런 몸이. 엇어, 엇어 엇어젼. 옛날엔 너무 너무 그냥 바닷가에 가면 그것이 막 그냥 밀려왕, 바닷가에 그거 시믄 지어당 헤난디 지금은 엇어.(으, 개인적으로 옛날엔 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 버렸어. 그런 모자반이. 없어, 없어, 없어졌어. 옛날엔 너무 너무 그냥 바닷가에 가면 그것이 마구 그냥 밀려와서, 바닷가에 그거 있으면 지어다가 했었는데 지금은 없어.)

103051 @ 그민 그건 누구에게 안 ᄀᆞᆯ앙 그냥?(그럼 그건 누구에게 안 말하고 그냥?)

103051 #1 안 ᄀᆞᆯ아도 그건 아무라도 헤 오는 사름이 임제. 문첨 헤 오는 사름이 임제.(안 말해도 그건 아무라도 해 오는 사람이 임자. 먼저 해 오는 사람이 임자.)

103050 @ 그럼 그 거름 헤 가지고 고구마는 언제 준비헙니까?(그럼 그 거름 해 가지고 고구마는 언제 준비합니까?)

103050 #1 고구마는.(고구마는.)

103050 @ 아니, 감저 감저.(아니, 고구마 고구마.)
103050 #1 감저 싱글 때?(고구마 심을 때?)
103050 @ 싱글 때.(심을 때.)
103050 #1 싱글 때.(심을 때.)
103050 @ 아니 감저 싱그기 전이 어쨌든 모종을 놔야 뒐 거 아니?(아니 고구마 심기 전에 어쨌든 모종을 놔야 될 거 아니?)
103050 #1 모종을 놔야.(모종을 놔야.)
103050 @ 그 모종은 언제 놉니까?(그 모종은 언제 놓습니까?)
103050 #1 모종은 음, 삼월 ᄉᆞ월덜에 놓지.(모종은 음, 삼월 사월에 놓지.)
103050 @ 모종을 삼월, 사월에 놓면 그민.(모종은 삼월, 사월에 놓으면 그럼.)
103052 #1 이제 줄 나면 줄이 크면 묘가 나오면, 나오면은 이젠 오월 음력 오월덜, 유월덜 전이 싱거야.(이제 줄 나면 줄이 크면 모종이 나오면, 나오면 이젠 오월 음력 오월, 유월 전에 심어야.)
103052 @ 유월덜 전이 싱그는 거라.(유월 전에 심는 거야.)
103052 #1 으, 이제, 이제 파종덜 헴주게.(으, 이제, 이제 파종들 하고 있지.)
103052 @ 게민 음력 삼월덜에 묘종 놔 가지고예, 그거 줄 잘랑?(그럼 음력 삼월에 모종 놔 가지고요, 그거 줄 잘라서?)
103052 #1 자, 줄랑. 줄 줄랑.(자, 잘라서. 줄 잘라서.)
103052 @ 줄 줄랑.(줄 잘라서.)
103052 #1 으, 줄 줄라당 이제 밧 갈아 놓면은 밧 갈아 놓면은 ᄀᆞᆯ겡이로 영 영 헤치멍 그 줄을 영 놩 겡 또 흑 더껑.(으, 줄 잘라다가 이제 밭 갈아 놓으면 밭 갈아 놓으면 호미로 이렇게 이렇게 그 줄을 이렇게 놔서 그래서 또 흙 덮어.)
103052 @ 그럼 거름은 밧 갈기 전이 뿌리는 거?(그럼 거름은 밭 갈기 전에 뿌리는 거?)
103052 #1 으, 밧 갈기 전에.(으, 밭 갈기 전에.)
103052 @ 갈기 전에.(갈기 전에.)
103052 #1 으, 놔지면은 놓는 거고 특별히 뭐 감저는 거름은 뭐 허나 안 허나. 헤도 허면은 잘 들지만은 안 허민 잘 안 드는 수도 잇고. 안 혀도 뒈긴 뒈여.(으, 놓을 수 있으면 놓는 거고 특별히 뭐 고구마는 거름은 뭐 하나 안 하나. 해도 하면 잘 들지만 안 하면 잘 안 드는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긴 돼.)
103052 @ 안 헤도 뒈여?(안 해도 돼?)
103052 #1 으, 안 헤도 뒈여. 이 보리 닮지 안 허여.(으, 안 해도 돼. 이 보리 닮지 않아.)
103052 @ 그럼 모종 싱글 때도 거름 안 허여?(그럼 모종 심을 때도 거름 안 해?)
103052 #1 안 허여, 안 허여.(안 해, 안 해.)
103049 @ 그럼 모종 싱글 때 삼월덜에 모종 싱그는 거부터 ᄀᆞᆯ아 줍서. 모종을

어떵 싱거?(그럼 모종 심을 때 삼월에 모종 심는 거부터 말해 주세요. 모종을 어떻게 심어?)

103049 #1 모종은 그 감저 그냥 그때 뒈면은 싹 나는 것도 싯고 아니 나는 것도 시니까.(모종은 그 고구마 그냥 그때 되면 싹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으니까.)

103049 @ 음.(음.)

103049 #1 그냥 가져다근에 쪼그만씩 헌 거 하나씩 영 찔렁 놔둬 영. 요만씩 요만씩 새 띄와 가지고.(그냥 가져다가 조그만씩 한 거 하나씩 이렇게 찔러서 놔둬 이렇게. 요만큼씩 요만큼씩 새 띄워 가지고.)

103049 @ 그럼 그 감자는 전 해에 거?(그럼 그 고구마는 전 해에 거?)

103049 #1 으, 작년에 거.(으, 작년에 거.)

103049 @ 작년에 거 보관헷당?(작년에 거 보관했다가?)

103049 #1 으, 보관헷당. 올리 이제, 이제 파당 보관헷당 이제 봄 나믄 싱그는 거. 삼월, 사월덜에.(으, 보관했다가. 올해 이제, 이제 파다가 보관했다가 이제 봄 되면 심는 거. 삼월, 사월에.)

103049 @ 감저를 이만큼 큰 거 안 헤영 조그만헌 거.(고구마를 이만큼 큰 거 안 해서 조그마한 거.)

103049 #1 으, 조금만씩 헌 거.(으, 조그만씩 한 거.)

103049 @ 짤라근에는 안 허고?(잘라서는 안 하고?)

103049 #1 쫄랑은 안 뒈고.(잘라서는 안 되고.)

103049 @ 그냥 조그만헌 거 골랑?(그냥 조그마한 거 골라서?)

103049 #1 으, 으. 만약 쫄르게 뒈면 그 눈 나는 바둑[101]이 잇어. 그것만 쫄라지게 헤도 뒈주만은 그렇게 쫄랑 뭣 허당은 썩어 불고. 게난, 뭘 수 이시민 조그만씩 헌 거 헤근에 그냥 싱거 놔두믄. 또 큰 거 싱그믄 큰 대로 싹이 만이 나고.(으, 으. 만약 자르게 되면 그 눈 나는 곳이 있어. 그것만 잘리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잘라서 뭐 했다가는 썩어 버리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조그만씩 한 거 해서 그냥 심어 놔두면. 또 큰 거 심으면 큰 대로 싹이 많이 나고.)

103049 @ 예, 예.(예, 예.)

103049 #1 이것이 만이 나고. 작으민 작은 대로 혼 세 개도 나고 두 개도 나고.(이것이 많이 나고. 작으면 작은 대로 한 세 개도 나고 두 개도 나고.)

103049 @ 그럼 그 감저 싱글 때 그 간격을 얼마씩 헹 싱거?(그럼 그 고구마 심을 때 그 간격을 얼마씩 해서 심어?)

103049 #1 메종? 묘종, 묘종?(모종? 모종, 모종?)

103049 @ 감자줄 놀 때, 묘종을 찔를 때?(고구마줄 놓을 때, 모종을 찌를 때?)

103049 #1 찔를 때. 이만씩게.(찌를 때. 이만씩.)

103049 @ 아, 이만씩.(아, 이만씩.)

---

101) '바둑'은 공간적인 또는 추상적인 일정한 자리나 지역을 가리킨다. 표준어 '곳'에 대응한다.

103049 #1 요디 하나 놓민 요디 하나 놓고.(요기 하나 놓으면 요기 하나 놓고.)
103049 @ 게민 놩 이시민 한 두 덜 정도 삼, 사월이니까 유월덜이민 두 달.(그럼 놔서 있으면 한 두 달 정도 삼, 사월이니까 유월이면 두 달.)
103049 #1 혼 석 달. 두 덜, 석 덜은 걸려.(한 석달. 두 달, 석 달은 걸려.)
103049 @ 석 덜은 키우는 거잖아예. 막 감자 썹 나고.(석 달은 키우는 거잖아요. 마구 고구마 잎 나고.)
103049 #1 으, 으 놔 낭.(으, 으 놓고 나서.)
103052 @ 그민 이제 그걸.(그럼 이제 그걸.)
103052 #1 으, 쫄라당 하나 하나 쫄라당.(으, 잘라다가 하나 하나 잘라다가.)
103052 @ 호미로?(낫으로?)
103052 #1 으, 호미로. 호미로 쫄랑. 호미로 쫄랑 이젠 밧 갈아 놩 게믄 이제 갈아 놔도 골겡이로 영 헹 고랑 짓엉, 고랑 짓엉 그 줄을 가져당 그레 놩.(으, 낫으로. 낫으로 잘라서. 낫으로 잘라서 이젠 밭 갈아 놔서 그럼 이제 갈아 놔도 호미로 이렇게 해서 고랑 지어서, 고랑 지어서 그 줄을 가져다가 그리 놔서.)
103052 @ 음.(음.)
103052 #1 영 탁, 이파리 우터레, 이파리 우터레 흑 가지 못허게 줄 영 놓면은 이제 이레 흑을 영 더꺼.(이렇게 탁, 잎 위로, 잎 위로 흙 가지 못하게 줄 이렇게 놓으면 이제 이리 흙을 이렇게 덮어.)
103052 @ 예.(예.)
103052 #1 경 헹.(그렇게 해서.)
103052 @ 기민 이렇게 어쨋든 밧 갈민 고랑을 만들 거 아니예?(그럼 이렇게 어쨌든 밭 갈면 고랑을 만들 거 아니요?)
103052 #1 만들 거.(만들 거.)
103052 @ 게민 여기는 이 밑을 뭐렌 부릅니까?(그럼 여기는 이 밑을 뭐라고 부릅니까?)
103052 #1 고량게.(고랑.)
103052 @ 이걸 고랑이렌.(이걸 고랑이라고.)
103052 #1 고량 이령 고량.(고랑 이랑 고랑.)
103052 @ 으.(으.)
103052 #1 높은 디는 이령.(높은 데는 이랑.)
103052 @ 이렁?(이랑?)
103052 #1 으, 이령. 야픈 디는 고량.(으, 이랑. 얕은 데는 고랑.)
103052 @ 고량?(고랑?)
103052 #1 으, 고량.(으, 고랑.)
103052 @ 게민 감저는 이랑에 찔를 거? 감자 썹은?(그럼 고구마는 이랑에 찌를 거? 고구마 잎은?)
103052 #1 이령허고 고량허고 그 사이에.(이랑하고 고랑하고 그 사이에.)

103052 @ 아, 요기에?(아, 요기에?)

103052 #1 으, 으.(으, 으.)

103052 @ 여기에 찔렁, 쏙 쏙 쏙 감저줄 이런 디 찔르는 거라예?(여기에 찔러서, 쏙 쏙 쏙 고구마줄 이런 데 찌르는 거지요?)

103052 #1 예.(예.)

103052 @ 이런 디 찔렁 그 다음 이 이랑에 흑을 영 묻어 부는 거?(이런 데 찔러서 그 다음 이 이랑에 흙을 이렇게 묻어 버리는 거?)

103052 #1 으, 으 이랑에 흑을 헤다근에 그 이파리는 살리고, 이파리는 살리고 줄거리만 줄만 영 감추는 거. 그렇지 않으믄 죽어 불어. 햇빗에.(으, 으 이랑에 흙을 해다가 그 잎은 살리고, 잎은 살리고 줄거리만 줄만 이렇게 감추는 거. 그렇지 않으면 죽어 버려. 햇빛에.)

103052 @ 아, 햇빗에.(아, 햇빛에.)

103052 #1 죽어불 거니까 햇빗에 죽어 불지 안 헐 정도로 흑을 영 더퍼 부는 거주.(죽어 버릴 거니까 햇빛에 죽어 버리지 않을 정도로 흙을 이렇게 덮어 버리는 거지.)

103052 @ 우이가 이랑이라예?(위가 이랑이지요?)

103052 #1 이렁, 우이가 이렁.(이랑, 위가 이랑.)

103052 @ 밑에가 고랑?(밑에가 고랑?)

103052 #1 고량.(고랑.)

103052 @ 게민 요거를 셀 때 흔 고랑 헙니까, 흔 이랑 헙니까?(그럼 요거를 셀 때 한 고랑 합니까, 한 이랑 합니까?)

103052 #1 흔 고지.(한 '고지'.)

103052 @ 아, 한 고지.(아, 한 이랑.)

103052 #1 흔 고지에 이렁, 고량.(한 이랑에 이랑, 고랑.)

103052 @ 한 고지.(한 이랑.)

103052 #1 으, 흔 고지에 이렁, 고량.(으, 한 이랑에 이랑, 고랑.)

103052 @ 고구마, 아니 감저 밧디 거름은 아까?(고구마, 아니 고구마 밭에 거름은 아까?)

103052 #1 엇어도 뒈고.(없어도 되고.)

103052 @ 엇어도 뒈고.(없어도 되고.)

103052 #1 시믄 신 대로 허여지면 좋주만은 엇으믄 엇은 대로 또 그런 대로. 저 그 감저 싱거근에 잘 드는 밧이 이런 밧도 질왓[102], 말왓[103]이 잇어. 질왓은 비만 쪼금 와도 물 골르는 밧. 물이 얼른 빠지지 안허영.(있으면 있는 대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그런 대로. 저 그 고구마 심어서 잘 드는 밭이 이런 밭도 '질왓', '말왓'이 있어. 질왓은 비만 조금 와도 물 고이는 밭. 물이 얼른 빠지지

102) '질왓'은 돌멩이가 없고 맨 흙이 깔려 있는 밭을 말한다.

103) '말왓'은 자잘한 돌멩이가 많은 밭으로, 물 빠짐이 좋은 밭을 말한다.

않아서.)

103052 @ 으.(으.)

103052 #1 또 말왓이엔 헌 거는 비가 하영 와도 그 자리에서 빠져 부는 밧이 난.(또 '말왓'이라고 하는 거는 비가 많이 와도 그 자리에서 빠져 버리는 밭이니까.)

103052 @ 아.(아.)

103052 #1 말왓이엔 헌 디 싱그민 잘 들어.('말왓'이라고 하는 데 심으면 잘 들어.)

103052 @ 아, 조도 경허지 안헷수과?(아, 조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103052 #1 으, 조도 경허고. 조허고 감저는 똑ᄀᆞ타.(으, 조도 그렇고. 조하고 고구마는 똑같아.)

103052 @ 아, 조허고 감저는.(아, 조하고 고구마는.)

103052 #1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조보단 감저 농서는 ᄒᆞ꼼 쉬웁지.(아, 그래도 어느 정도 조보단 고구마 농사는 조금 쉽지.)

103052 @ 조보다.(조보다.)

103028 #1 페랍지 안허지. 조는 뭐 비만 만이 왓다 허민 다 죽어 불어. 고고리가 영 피영 이만씩 헤영 영 헷당이라도 다 죽어 불어.(폐롭지 않지. 조는 뭐 비만 많이 왔다 하면 다 죽어 버려. 이삭이 이렇게 피어서 이만큼씩 해서 이렇게 했다가 다 죽어 버려.)

103028 @ 아, 다 커신디도.(아, 다 컸는데도.)

103028 #1 커근에 고고리 평.(커서 이삭 펴서.)

103028 @ 음.(음.)

103028 #1 고고리 펴근에 익어도 비만 왕 하영 오민 다 죽어 불어.(이삭 펴서 익어도 비만 와서 많이 오면 다 죽어 버려.)

103028 @ 아, 그런 것과?(아, 그런 겁니까?)

103028 #1 너무 억울헤여.(너무 억울해.)

103028 @ 아, 다 키와신디 죽어 불민.(아, 다 키웠는데 죽어 버리면.)

103028 #1 다 키왕 이제 다 먹게 뒌 것도 다 죽어 불어. 경허민 ᄋᆞ물이 안 나.(다 키워서 이제 다 먹게 된 것도 다 죽어 버려. 그러면 여물이 안 나.)

103028 @ 아이고, 아이고. 조 농사가 경 페롭구나.(아이고, 아이고. 조 농사가 그렇게 폐롭구나.)

103028 #1 페로와 페로와 조 농사는.(폐로워 폐로워 조 농사는.)

103053 @ 게민 감저 밧디도 검질 멥니까?(그럼 고구마 밭에도 김 맵니까?)

103053 #1 검질? 검질 감저 밧딘 잘 안 메여.(김? 김 고구마 밭엔 잘 안 매.)

103053 @ 잘 안 메여예?(잘 안 매요?)

103053 #1 그 이파리로 더꺼지니까.(그 잎으로 덮이니까.)

103053 @ 더꺼지니까예.(덮이니까요.)

103053 #1 워낙 하면은 ᄒᆞ꼼씩 메여 주주만은 그렇지 안 허면 안 메도 어느 정

도 감춰져.(워냑 많으면 조금씩 매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매도 어느 정도 감춰져.)

103054 @ 그럼 감저 밧디도 나는 검질들이 이실 거 아니?(그럼 고구마 밭에도 나는 김들이 있을 거 아니?)

103054 #1 나는 검질은 저 조팟디 나는 검질이나 비슷허게 나주게. 저 제완지 같은 거 ᄀᆞ랏 거튼 거.(나는 검질은 저 조밭에 나는 김이나 비슷하게 나지. 저 바랭이 같은 거. 가라지 같은 거.)

103054 @ 조 가는 거랑 감저 가는 거랑 시기가 비슷헌 것과?(조 가는 거랑 고구마 가는 거랑 시기가 비슷한 겁니까?)

103054 #1 ᄀᆞ타, ᄀᆞ타.(같아, 같아.)

103054 @ ᄀᆞ트난 같은 시기에?(같으니까 같은 시기에?)

103054 #1 으, ᄀᆞ튼 시기.(으, 같은 시기.)

103054 @ 제완지 같은 거 나는 거예?(바랭이 같은 거 나는 거요?)

103054 #1 으, 으.(으, 으.)

103054 @ 이제 경헹 감저 유월덜에 싱그난 음력 유월에 싱그난 파는 건 지금?(이제 그래서 고구마 유월에 심으니까 음력 유월에 심으니까 파는 건 지금?)

103054 #1 지금. 지금 이 상강, 상강이엔 헤근에 흔이 잇주게. 이때가 막 팔 때.(지금. 지금 이 상강, 상강이라고 해서 한이 있지. 이때가 마구 팔 때.)

103054 @ 지금 음력이 멧 월이과?(지금 음력이 몇 월입니까?)

103054 #1 음력이 이거 구월.(음력이 이거 구월.)

103054 @ 구월이난 지금이 막 팔 때.(구월이니까 지금이 마구 팔 때.)

103054 #1 구월 초 열흘가 초 아흐레 뒈실 거라.(구월 초열흘인가 초아흐레 됐을 거야.)

103054 @ 아, 그럼 그때 상강 헐 때가 막 팔 때.(아, 그럼 그때 상강 할 때가 마구 팔 때.)

103054 #1 막 팔 때.(마구 팔 때.)

103054 @ 감저 팔 때.(감저 팔 때.)

103054 #1 그 후에는 크지도 안허고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실 거난 그때꺼지 크면은 그때 뒈면 다 파는 거.(그 후에는 크지도 않고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 크면 그때 되면 다 파는 거.)

103054 @ 게난 감저도 흔 석 덜 크는 거다예?(그러니까 고구마도 한 석 달 크는 거네요?)

103054 #1 예, 경허는 거.(예, 그러는 거.)

103054 @ 모종헹 입 날 때까지가 한 두석 달.(모종해서 잎 날 때까지가 한 두석 달.)

103054 #1 두석 달.(두석 달.)

103054 @ 그 다음 모종 싱경 감저 팔 때까지가 한 석 달 정도예?(그 다음 모종

심어서 고구마 팔 때까지가 한 석 달 정도요?)

103054 #1 으, 으. 석 덜쯤. (으, 으. 석 달쯤.)

103054 @ 키우는 건디 이제 다 컷수다. 검질도 다 메고예.(키우는 건데 이제 다 컸습니다. 김도 다 매고요.)

103054 #1 다 메고.(다 매고.)

103055 @ 이제 커시난 감저 수확을 허젠 헐 거.(이제 컸으니까 고구마 수확을 하려고 할 거.)

103055 #1 수확을.(수확을.)

103055 @ 수확허젠 허면은 어떵 헐 거?(수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거?)

103055 #1 수확은 허젠 허면은 이제 쉐 엇은 집이는 골겡이로 파고. 골겡이로. 줄은 문저 다 비여 놓고 줄은 다 비여 제쳐 놓고.(수확은 하려고 하면 이제 소 없는 집에는 호미로 파고. 호미로. 줄은 먼저 다 베어 놓고 줄은 다 베어 제쳐 놓고.)

103055 @ 호미로 다.(낫으로 다.)

103055 #1 호미로.(낫으로.)

103055 @ 걷어 뒁.(걷어 둬서.)

103055 #1 걷엉. 비멍. 비영 걷엉 영 영 뭉쳐 놩 바둑[104] 바둑이 뭉쳐 놔두고 골겡이로 파.(걷어서. 베면서. 베면서 걷어서 이렇게 이렇게 뭉쳐 놔서 '바둑' '바둑'이 뭉쳐 놔두고 호미로 파.)

103055 @ 음.(음.)

103055 #1 경허고 또 소덜 신 딘, 쉐 신 딘 쉐로 갈아 부는 디도 잇곡.(그러고 또 소들 있는 덴, 소 있는 덴 소로 갈아 버리는 데도 있고.)

103055 @ 쟁기로?(쟁기로?)

103055 #1 쟁기로.(쟁기로.)

103055 @ 잠대로 거 갈아 불민 막 감자.(쟁기로 거 갈아 버리면 마구 고구마.)

103055 #1 어떤 디 막 갈아지주게. 긁어, 끄차져.(어떤 데 마구 갈아지지. 긁어, 끊어져.)

103055 @ 음.(음.)

103055 #1 곱지 안허여. 쉐로 가는 딘. 게 워냑 만이 허는 디는 허여도 쪼그만씩 허는 디는 다 골겡이로 파고.(곱지 않아. 소로 가는 덴. 그래 워낙 많이 하는 데는 해도 조그만씩 하는 데는 다 호미로 파고.)

103055 @ 골겡이로 파고.(호미로 파고.)

103055 #1 파도 파기 쉬우면은 것도 만이 파져.(파도 파기 쉬우면 것도 많이 팔 수 있어.)

103056 @ 예, 예. 게민 감저 팟수다예?(예, 예. 그럼 고구마 팠어요?)

103056 #1 으.(으.)

103055 @ 감저 파민 이제 보관을 어떵 헐 거라?(고구마 파면 이제 보관을 어떻

104) 여기서 '바둑'은 낫으로 벤 고구마 줄은 한 데 모아 놓은 덩이를 세는 단위로 쓰였다.

게 할 거야?)

103056 #1 보관은 그 엿날 우리 옛날에는 공출 시대는 공출허젠 허면은 더러 저 생채도 바찌고 또 ᄀᆞᆯ앙 저 그걸 영 호미로 썰엇든, 기계로 썰엇든 썰어 가지고.(보관은 그 옛날 우리 옛날에는 공출 시대에는 공출하려고 하면 더러 저 생째도 바치고 또 갈아서 저 그걸 이렇게 낫으로 썰었든, 기계로 썰었든 썰어 가지고.)

103056 @ 그거 써는 걸 뭐 헌덴 헙니까?(그거 써는 걸 뭐 한다고 합니까?)

103056 #1 절간. 절간, 절간 헤여, 허여 놩 밧디서 ᄆᆞᆯ리우는 거. ᄆᆞᆯ뢍 곱게 헤영 ᄆᆞᆯ리우면은 ᄆᆞᆯ뢍 풀기도 허고 ᄲᆞᆺ앙 먹음도 허고.(절간. 절간, 절간 해, 해 놩 밭에서 말리는 거. 말려서 곱게 해서 말리면 말려서 팔기도 하고 빻아서 먹기도 하고.)

103056 @ 음. 그럼 이제 절간 안 헷수다. 절간 안 헌 고구마도 영 보관헐 거 아니?(음. 그럼 이제 절간 안 했습니다. 절간 안 한 고구마도 이렇게 보관할 거 아니?)

103056 #1 보관헐 거.(보관할 거.)

103056 @ 겨울내낭 먹을 거민예?(겨울내낭 먹을 거면요?)

103056 #1 먹을 거.(먹을 거.)

103056 @ 그거 보관허젠 허민 어떵 헤낫수과?(그거 보관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었습니까?)

103056 #1 엿날엔 보관허젠 허민 저 ᄀᆞ시락이엔 헨에 저 보리 장만헤난 가시락.(옛날엔 보관하려고 하면 저 까끄라기라고 해서 저 보리 장만했던 까끄라기.)

103056 @ 으, ᄀᆞ시락.(으, 까끄라기.)

103056 #1 그거 소곱에도 놓곡.(그거 속에 놓고.)

103056 @ 으, 그거 소곱에도 놓고.(으, 그거 속에도 놓고.)

103056 #1 경 안허민 조 장만헤난 조칵메기[105] 그거 소곱에도 놩 에워싸끈에 헷당.(그렇지 않으면 조 장만하고 난 조 깍지 그거 속에도 놔서 에워싸서 했다가.)

103056 @ 땅 팡 눌, 감저눌 눌 거 아니?(땅 파서 가리, 고구마 가리 가릴 거 아니?)

103056 #1 으, 땅 파진 안 허여. 이 제주돈 잘 파지 안허여.(으, 땅 파진 않아. 이 제주돈 잘 파지 않아.)

103056 @ 아, 여긴 안 팝니까?(아, 여긴 안 팝니까?)

103056 #1 여긴 안 파 잘.(여긴 안 파 잘.)

103056 @ 동쪽만 헤도 땅 파신디.(동쪽만 해도 땅 팠는데.)

103056 #1 으, 이디는 그냥 놩 에워싸근에 허고 안에덜도 다 보관허고게. 이젠 안 허여. 엿날.(으, 여기는 그냥 놔서 에워싸서 하고 안에도 다 보관하고. 이젠 안 해. 옛날.)

103056 @ 예, 엿날, 엿날.(예, 옛날, 옛날.)

---

105) '조칵메기'는 조 이삭에서 열매를 털어 버리고 남은 줄기나 깍지 따위를 말한다. 표준어 '깍지'에 해당하는 말이다.

103056 #1 엿날에 엿날에는 우리는 그냥 대목 저 무신 ᄀᆞ시락 허영 허곡. 경 안 허면 조코고리, 조 털어난 각메기가 잇어, 각메기.(옛날에 옛날에는 우리는 그냥 주로 저 무슨 까끄라기 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 이삭, 조 털었던 깍지가 있어, 깍지.)

103056 @ 예, 예.(예, 예.)

103056 #1 그 소곱에 놔둠수루 먹곡.(그 속에 놔두면서 먹고.)

103056 @ 게민 감젓눌은 안 눌어낫수과?(그럼 고구마 가리는 안 가렸습니까?)

103056 #1 감저 경 하영 눌게시리 허지 안허연게. 조그만씩게. 조 농서만 만이 헷지 감저는 그자.(고구마 그렇게 많이 가리게끔 하지 않았어. 조그만씩. 조 농사가 많이 했지 고구마는 그저.)

103056 @ 아. 만이 안 허난.(아. 많이 안 하니까.)

103056 #1 만이 허는 사름은 만이 허영 눌기도 허여.(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해서 가리기도 해.)

103056 @ 눌, 눌젠 허민 어떵 헤나시고예, 그 사름덜 하영 허는 사람들, 감저 눌 눌젠 허민?(가리, 가리려고 하면 어떻게 했었나요, 그 사람들 많이 하는 사람들, 고구마 가리 가리려고 하면?)

103056 #1 하영 허는 사름덜 눌젠 허면은 저 무시것고 밑에 보리낭 놓고 또 콩꼬질 놓고 또 경허근에 감저 흔 징 놩 또 그거 징징이 헤근에 에워싸근에 헤영도 눌어남도 허곡 또 그대로 또시 첨 에워싸근에 놓기도 허고 안에 무신것에 놓기도 허고 항에도 담앙 놔둠서 먹곡 항에.(많이 하는 사람들 가리려고 하면 저 무엇이고 밑에 보릿짚 놓고 또 콩깍지 놓고 또 그래서 고구마 한 징 놔서 또 그거 층층이 해서 에워싸서 해도 가렸었기도 하고 또 그대로 또 참 에워싸서 놓기도 하고 안에 무엇에 놓기도 하고 항아리에도 담아 놔두면서 먹고 항아리에.)

103056 @ 항에도?(항아리에도?)

103056 #1 어, 항에도.(어, 항아리에도.)

103056 @ 항에 논 거 썩어 불지 안 헙니까?(항아리에 놓은 거 썩어 버리지 않습니까?)

103056 #1 아니 그냥 임시 먹는 건 경 안 허여.(아니 그냥 임시 먹는 건 그렇지 않아.)

103056 @ 임시 먹는 거라예?(임시 먹는 거지요?)

103056 #1 으, 임시 임시 먹는 것들.(으, 임시 임시 먹는 것들.)

103056 @ 그민 이제 아까 감저 가져 가지고 씨 헐 거는 그냥 보관헐 거 아니예?(그럼 이제 아까 고구마 가져 가지고 씨 할 거는 그냥 보관할 거 아니요?)

103056 #1 씨?(씨?)

103056 @ 예. 멩년이 씨 허젠 허민 그냥 보관헐 거고.(예. 명년 씨 하려고 하면 그냥 보관할 거고.)

103056 #1 으, 그냥 보관헐 거. 무신 멩텡이에나. 멩테이에나 하꼬[106]에나 놩.

(으, 그냥 보관할 거. 무슨 망태기에나. 망태기에나 상자에나 놔서.)

103056 @ 놔 가지고 보관헐 거고?(놔 가지고 보관할 거고?)

103056 #1 으.(으.)

103057 @ 절간고구마 썰어근에 다 몰렷수다예?(절간고구마 썰어서 다 말렸어요?)

103057 #1 예.(예.)

103057 @ 그거 몰린 거는 바치기도 허고?(그거 말린 거는 바치기도 하고?)

103057 #1 그때는 바쳐낫주게. 공출 때는 바치단.(그때는 바쳤었지. 공출 때는 바치다가.)

103057 @ 공출 때렌 헌 게 언제과?(공출 때라고 하는 게 언제입니까?)

103057 #1 공출 때는 그 해방, 해방뒈는 다음 해꺼지.(공출 때는 그 해방, 해방되는 다음 해까지.)

103057 @ 아, 그때꺼지 공출헤난 거?(아, 그때까지 공출했던 거?)

103057 #1 어, 어. 해방뒈는 해방.(어, 어. 해방되는 해방.)

103057 @ 그럼 해방 전이랑 해방뒈는 다음 해꺼진.(그럼 해방 전이랑 해방되는 다음 해까진.)

103057 #1 으. 쪼끔 다음 해꺼지 공출헤연 끄차져 불언, 끈어져 불언.(으. 조금 다음 해까지 공출해서 끊어져 버렸어, 끊어져 버렸어.)

103057 @ 게민 그 절간고구마 만들젠 허민 썰어야 뒐 거 아니?(그럼 그 절간고구마 만들려고 하면 썰어야 될 거 아니?)

103057 #1 썰어, 썰어.(썰어, 썰어.)

103057 @ 그거 뭐로 썰어마씨?(그거 뭐로 썰어요?)

103057 #1 기계로도 잇어, 기계.(기계로도 있어, 기계.)

103057 @ 써는 기계?(써는 기계?)

103057 #1 으.(으.)

103057 @ 영 놓면, 영 돌리면?(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돌리면?)

103057 #1 어, 어. 영 우로 영 놓면은 일로 영 영 돌리민 일로 이만씩 나와.(어, 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놓으면 일로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이만큼씩 나와.)

103057 @ 일로 이만씩 나와.(일로 이만큼씩 나와.)

103057 #1 어, 나와. 탁 탁 탁 탁 나와. 경허민 그거 이젠 일일이 널어.(어, 나와. 탁 탁 탁 탁 나와. 그러면 그거 이젠 일일이 널어.)

103057 @ 게민 그 기계가 해방 전이도 잇어낫수과?(그럼 그 기계가 해방 전에도 있었습니까?)

103057 #1 해방 전인 엇엇지.(해방 전엔 없었지.)

103057 @ 그지예?(그지요?)

103057 #1 으, 그냥 저 무시거 깔로만 썰엇지.(으, 그냥 저 무엇 칼로만 썰었

106) '하꼬'는 일본어(はこ)로 상자를 의미한다.

지.)

103057 @ 예, 해방 전이는.(예, 해방 전에는.)

103057 #1 손으로만 썰고.(손으로만 썰고.)

103057 @ 손으로.(손으로.)

103057 #1 또 해방 전이는 그런 써는 것도 만이 썰지 못허지게. 그대로, 그대로 그자 솖으멍 먹엇주기게, 놔둠서. 치멍, 치멍.(또 해방 전에는 그런 써는 것도 많이 썰지 못하지. 그대로, 그대로 그저 삶으면서 먹었지, 놔두면서. 찌면서, 찌면서.)

103057 @ 게민 그 절간고구마 써는 기계를 뭐렌 불르는 일름 잇어낫수과?(그럼 그 절간고구마 써는 기계를 뭐라고 부르는 이름 있었습니까?)

103057 #1 그거 불르는 일름 잇어난디 그것ᄀᆞ라 뭣이엔 헤낫저만은 잊어불어저이.(그거 부르는 이름 있었는데 그것보고 뭐라고 했었지만 잊어버렸어.)

103057 @ 예, 예 좋수다, 좋수다. 튼나지민 나중에라도 ᄀᆞᆯ아 줍서예.(예,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생각나면 나중에라도 말해 주세요.)

103057 #1 으 으, 알앗어.(으 으, 알았어.)

103057 @ 경헹 이제 절간고구마는 아까 ᄆᆞᆯ린 거 어떵 헹 먹어난마씨, 절간고구마?(그래서 이제 절간고구마는 아까 말린 거 어떻게 해서 먹었었습니까, 절간고구마?)

103057 #1 절간고구마 그거 막 ᄆᆞᆯ르면은 방에서 강 ᄲᆞᆺ아당.(절간고구마 그거 잘 마르면 방아에서 가서 빻아다가.)

103057 @ 방에에 ᄲᆞᆺ아당.(방아에 빻아다가.)

103057 #1 으.(으.)

103057 @ 아이고 방에 쓸 일 많수다예?(아이고 방아 쓸 일 많네요?)

103057 #1 으, 방에 쓸 일 핫주게. 엿날엔 기계, 이제 기계나 마찬가지로 엿날에는.(으, 방아 쓸 많지. 옛날엔 기계, 이제 기계나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103057 @ 아니, 그럼 방에를 우리집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름덜이 다 쓰는 거잖아예?(아니, 그럼 방아를 우리 집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쓰는 거잖아요?)

103057 #1 으.(으.)

103057 @ 게민 그 방에 쓰젠 허민 내일은 나 쓰켜, 모레는 나 쓰켜?(그럼 그 방아 쓰려고 하면 내일은 나 쓰겠어, 모레는 나 쓰겠어?)

103057 #1 으, 으. 미릇 맞춰 둬야.(으, 으. 미리 맞춰 둬야.)

103057 @ 아.(아.)

103057 #1 그것도 당번 순서 번이 잇엉.(그것도 당번 순서 번이 있어서.)

103057 @ 아.(아.)

103057 #1 경헹 내일 멧 시쯤엔 우리 집이 허쿠다.(그래서 내일 몇 시쯤엔 우리 집에 하겠습니다.)

103057 @ 아.(아.)

103057 #1 내일 어느 때까진, 저냑 땐 우리 허쿠다, 아침 때 우리 허쿠다. 경헹 강 골아 둬야.(내일 어느 때까진, 저녁 땐 우리 하겠습니다, 아침 때 우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말해 둬야.)

103057 @ 게민 그거 누구안티 강 골아?(그럼 그거 누구에게 가서 말해?)

103057 #1 지는 사름안티. 영 영 지는 사름.(찧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렇게 찧는 사람.)

103057 @ 방에도 담당헤 가지고 지는 사름이 잇어낫구나?(방아도 담당해 가지고 찧는 사람이 있었었구나?)

103057 #1 아니, 문첨 지는 사람. 거기서.(아니, 먼저 찧는 사람. 거기서.)

103057 @ 아.(아.)

103057 #1 거기 그냥 임시 지는 사름이 임제주기게.(거기 그냥 임시 찧는 사람이 임자지.)

103057 @ 아.(아.)

103057 #1 순서, 순서로 강. 다음에 누게네 질 거우광? 허믄 아무 질 거엔 허믄 그 사람 다음에는 우리 허쿠다. 경 골아 뒁 오면은 그거, 그것이 순서라.(순서, 순서로 가서. 다음에 누구네 찧을 겁니까? 하면 아무 찧을 거라고 하면 그 사람 다음에는 우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 두고 오면은 그거, 그것이 순서야.)

103057 @ 아, 그것이 순서라. 어쨌든 다 동네니까예?(아, 그것이 순서야. 어쨌든 다 동네니까요?)

103057 #1 으, 동네니까. 다 ᄀᆞ튼, ᄀᆞ튼 반이니까.(으, 동네니까. 다 같은, 같은 반이니까.)

103057 @ 게난 방에에 강 ᄀᆞ레 골앙도 먹고?(그러니까 방아에 가서 맷돌 갈아서도 먹고?)

103057 #1 먹고.(먹고.)

103057 @ ᄀᆞ레 골앙 뭐 헤 먹어?(맷돌 갈아서 뭐 해 먹어?)

103057 #1 ᄀᆞ레 골앙 떡 헤영게.(맷돌 갈아서 떡 해서.)

103057 @ 아, 절간고구마로?(아, 절간고구마로?)

103057 #1 으. 범벅도 헹 먹고게.(으. 범벅도 해서 먹고.)

103057 @ 범벅도 헹 먹고.(범벅도 해서 먹고.)

103057 #1 으, ᄀᆞ레 골앙.(으, 맷돌 갈아서.)

103057 @ 또 절간고구마로 뭐 헤 먹읍니까?(또 절간고구마로 뭐 해 먹습니까?)

103057 #1 아니, 그걸로 그거 허영 골앙덜 그냥 먹곡 치영덜도 먹고게. 꽈베기로 헤영덜 그냥.(아니, 그걸로 그거 해서 갈아다가 그냥 먹고 쪄서들도 먹고. 꽈배기로 해서들 그냥.)

103057 @ 으.(으.)

103057 #1 또 치영덜도 먹고게. 그것도 식량으로.(또 쪄서들도 먹고. 그것도 식량으로.)

103057 @ 그 믈린 양 치는 거라예?(그 말린 양 찌는 거지요?)

103057 #1 으, 으.(으, 으.)

103057 @ 그 절간고구마 혹시 뻣데기렌도 골앗수과?(그 절간고구마 혹시 '뻣데기'라고도 말했습니까?)

103057 #1 뻣데기. 뻣데기렌 옛날은.('뻣데기'. '뻣데기'라고 옛날은.)

103058 @ 뻣데기. 쳥 먹는 거예. 아까 고구마 팔 때, 감저 팔 때 그 줄기 비엿잖아예. 그 줄은 뭐에 씁니까?(절간고구마 쳐서 먹는 거요. 아까 고구마 팔 때, 고구마 팔 때 그 줄기 베었잖아요. 그 줄은 뭐에 씁니까?)

103058 #1 줄은 믈류와근에 쉐 멕여.(줄은 말려서 소 먹여.)

103058 @ 아, 쉐 멕이고.(아, 소 먹이고.)

103058 #1 쉐, 믈 그거 양석으로.(소, 말 그거 양식으로.)

103058 @ 양석으로.(양식으로.)

103058 #1 으, 그거 양석으로덜 막 그냥 그거 질루는 사름덜 다 오랑 가져가고. 풀진 안허여. 그대로 그냥.(으, 그거 양식으로들 마구 그냥 그거 기르는 사람들 다 와서 가져가고. 팔진 않아. 그대로 그냥.)

103058 @ 줘 부는 거?(줘 버리는 거?)

103058 #1 널어 놔두면 줘 부는 거.(널어 놔두면 줘 버리는 거.)

103058 @ 아, 줘 부는 거.(아, 줘 버리는 거.)

103058 #1 으.(으.)

103058 @ 게민 준 값으로 뭐라도 가져가야.(그럼 준 값으로 뭐라도 가져가야.)

103058 #1 아니 경허난 준 갑으로 그 사람네가 생각 이시믄 갈아도 주곡게.(아니 그러니까 준 값으로 그 사람네가 생각 있으면 갈아도 주고.)

103058 @ 아.(아.)

103058 #1 수눌어근에게. 그거 멕여시니까 가져단 멕여시니까 밧 갈아 주겟다.(품앗이해서. 그거 먹였으니까 가져다가 먹였으니까 밭 갈아 주겠다.)

103058 @ 맞아, 맞아. 그거라도 헤야지예?(맞아, 맞아. 그거라도 해야지요?)

103058 #1 으, 으. 경, 경.(으, 으. 그렇게, 그렇게.)

103059 @ 게난 감저 농서지으면 뭐 생각나는 일 잇수과?(그러니까 고구마 농사지으면서 뭐 생각나는 일 있습니까?)

103059 #1 감저 농서 우린 만이 경 지어보지 안허난양.(고구마 농사 우린 많이 그렇게 지어보지 않으니까.)

103059 @ 예.(예.)

103059 #1 조그만씩, 조그만씩. 경 전지가 경 한 것도 아니고.(조그만씩, 조그만씩 그렇게 전지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103059 @ 아.(아.)

103059 #1 그자 조, 보리 헤 불고, 조 헤 불고 무신 콩이나 갈아 불고 허믄 감저 농서도 벨로 안 헤낫주게.(그저 조, 보리 해 버리고, 조 해 버리고 무슨 콩이나

갈아 버리고 하면 고구마 농사도 별로 안 했었지.)
103059 @ 게난 제일 하영 헤난 농서는?(그러니까 제일 많이 했던 농사는?)
103059 #1 질 하영 헤난 건 보리, 조.(제일 많이 했던 건 보리, 조.)
103059 @ 보리, 조. 역시 밥 먹을 거예?(보리, 조. 역시 밥 먹을 거요?)
103059 #1 이녁이 식량 먹엉 살아 나갈 거.(자기가 식량 먹고 살아 나갈 거.)
103059 @ 먹엉 살아 나갈 거.(먹고 살아 나갈 거.)
103059 #1 감저 거튼 건 대용식이니까게. 아멩헤도게.(고구마 같은 건 대용식이니까. 아무래도.)
103059 @ 아멩헤도예.(아무래도요.)
103059 #1 감저, 콩은 대용식이난.(고구마, 콩은 대용식이니까.)
103059 @ 예, 예.(예, 예.)
103059 #1 조, 보리는 뭐 그건 없으면 안 뒈지.(조, 보리는 뭐 그건 없으면 안 되지.)
103059 @ 예. 기라예.(예. 그렇지요.)

기타 농사

103060 @ 혹시 수박 갈아낫수과?(혹시 수박 갈았었습니까?)
103060 #1 수박도 안 허여.(수박도 안 해.)
103061 @ 참웨?(참외?)
103061 #1 참웨도 안 허여. 난 아무 것도 그런 건 안 허여.(참외도 안 해. 난 아무 것도 그런 건 안 해.)
103062 @ 고치?(고치?)
103062 #1 고치도 안 허고.(고치도 안 하고.)
103062 @ 먹을 거, 먹을 거.(먹을 거, 먹을 거.)
103062 #1 먹을 것도 안 헤 봔.(먹을 것도 안 해 봤어.)
103062 @ 안 헤 봔.(안 해 봤어.)
103062 #1 사당 먹주. 쪼금씩 먹어지게 뒈민 사단 먹엇주.(사다가 먹지. 조금씩 먹게 되면 사다가 먹었지.)
103063 @ 음. 배, 배추?(음. 배, 배추?)
103063 #1 배추도 안 헤 보고.(배추도 안 해 보고.)
103064 @ 무우?(무?)
103064 #1 무우도 만인 안 허영 저추룩 쪼끔씩이나베끼 엿날도.(무도 많이는 안 해서 저처럼 조금씩이나밖에 옛날도.)
103064 @ 게난 저추룩 조금씩.(그러니까 저처럼 조금씩.)
103064 #1 어, 쪼금씩.(어, 조금씩.)
103064 @ 게난 저건 어떵헹 씨 뿌리는 거마씨?(그러니까 저건 어떠해서 씨 뿌리는 거요?)

103064 #1 저건 뫼종으로.(저건 모종으로.)

103064 @ 묘종으로?(모종으로?)

103064 #1 아, 아. 저건 씨로, 씨로. 씨로 헤도 씨로 꼬집아 놔두면 뒈여.(아, 아. 저건 씨로, 씨로. 씨로 해도 꼬집어 놔두면 돼.)

103064 @ 그냥 갈아 놩.(그냥 갈아 놔서.)

103064 #1 으, 영 ᄀᆞᆯ겡이로 긁어 놩, 긁어 놩 이젠 바둑[107], 바둑이 씨 흔 방울씩 들이쳥 놔두면 나는 거난.(으, 이렇게 호미로 긁어 놔서 긁어 놔서 이젠 '바둑', '바둑'에 씨 한 방울씩 들이쳐서 놔두면 나는 거니까.)

103064 @ 무수는 저거는 몇 월에 영 허는 것과?(무는 저거는 몇 월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103064 #1 저건 이제 금방 흔 둘도 안 뒌디.(저건 이제 금방 한 달도 안 됐는데.)

103064 @ 게민 음력 팔월.(그럼 음력 팔월.)

103064 #1 음력 팔월.(음력 팔월.)

103064 @ 여름에예?(여름에요?)

103064 #1 으, 으. 음력 팔월.(으, 으. 음력 팔월.)

103064 @ 좁앙 놔두면 크는 거.(집어서 놔두면 크는 거.)

103064 #1 크는 거.(크는 거.)

103064 @ 게민 몇 월에 먹어지는 거라?(그럼 몇 월에 먹을 수 있는 거야?)

103064 #1 이제라도 먹젠 허민 먹는 거지.(이제라도 먹으려고 하면 먹는 거지.)

103064 @ 이파리는 지금?(잎은 지금?)

103064 #1 이파리는 지금도 먹고. 뽑앙 먹젠 허민 뽑앙도 이제, 이제 요만씩베끼 아니 드난.(잎은 지금도 먹고. 뽑아서 먹으려고 하면 뽑아서도 이제, 이제 요만큼씩밖에 안 드니까.)

103064 @ 무수를 영 뽑아서예?(무를 이렇게 뽑아서요?)

103064 #1 으, 뽑아.(으, 뽑아.)

103064 @ 영 뽑으면 이디는 무수가 달려 잇고 이건 썹이라예?(이렇게 뽑으면 여기는 무가 달려 있고 이건 잎이지요?)

103064 #1 으, 썹이라.(으, 잎이야.)

103064 @ 이건 썹이렌 허고 이거는 뭐렌 ᄀᆞᆯ읍니까?(이건 잎이라고 하고 이거는 뭐라고 말합니까?)

103064 #1 그건.(그건.)

103064 @ 이게 무수?(이게 무?)

103064 #1 그건 놈삐.(그건 무.)

103064 @ 이 밑에 잇는 건?(이 밑에 있는 건?)

103064 #1 밑에는 놈삐.(밑에는 무.)

---

107) 여기서 '바둑'은 일정한 크기의 공간을 의미한다.

103064 @ 그지예?(그렇죠?)

103064 #1 이젠 무수, 무수 허지만은 그 전인 놈삐.(이젠 '무수', '무수' 하지만 그 전엔 '놈삐'.)

103064 @ 우에 건 썹이고.(위에 건 잎이고.)

103064 #1 으, 썹 츠마기[108], 썹.(으, 잎 '츠마기' 잎.)

103064 @ 초?(초?)

103064 #1 츠마기. 츠마기 썹.('츠마기'. '츠마기' 잎.)

103064 @ 아.(아.)

103064 #1 아래 건 놈삐.(아래 건 '놈삐'.)

103064 @ 아, 맞아, 맞아. 게민 츠마기 썹 여린 때는 츠마기 썹으로도 짐치 헤 먹을 거 아니?(아, 맞아, 맞아. 그럼 '츠마기' 잎 여린 때는 '츠마기' 잎으로도 김치 해 먹을 거 아니?)

103064 #1 짐치도 헹 먹고 솖앙도 먹고.(김치도 해서 먹고 삶아서도 먹고.)

103064 @ 아, 솖앙 먹고.(아, 삶아서 먹고.)

103064 #1 으, 솖앙도 먹고.(으, 삶아서도 먹고.)

103065 @ 지슬도 갈아 봣수과, 지슬?(감자도 갈아 봤습니까, 감자?)

103065 #1 으?(으?)

103065 @ 지슬?(감자?)

103065 #1 아니, 지슬도 안 헤 보고.(아니, 감자도 안 해 보고.)

103065 @ 먹을 것도 안 허고?(먹을 것도 안 하고?)

103065 #1 먹을 것도 안 허여. 이디, 이 우리 부근에 토지엔 지슬 잘 안 뒈여.(먹을 것도 안 해. 여기, 이 우리 부근에 토지엔 감자 잘 안 돼.)

103065 @ 아, 기구나.(아, 그렇구나.)

103065 #1 그것도 뒈는 장소가 다 잇어.(그것도 되는 장소가 다 있어.)

103066 @ 피?(피?)

103066 #1 피도 안 헤 보고.(피도 안 해 보고.)

103067 @ 피도 안 헤 보고. ᄆᆞ물도 여기 안 헷지예?(피도 안 해 보고. 메밀도 여기 안 했지요?)

103067 #1 ᄆᆞ물도 안 허고. ᄆᆞ물도 안 뒈여, 이딘.(메밀도 안 하고. 메밀도 안 돼, 여긴.)

103068 @ 담배도 안 허고?(담배도 안 하고?)

103068 #1 담배도 안 허고.(담배도 안 하고.)

103068 @ 안 허고예. 예.(안 하고요. 예.)

4. 들일

108) '츠마기'는 뿌리가 들기 전의 무를 말한다.

소 기르기

104001 @ 쉐 질러난 거 여쭤보쿠다. 쉐는 어떵 헹 질뤄낫수과?(소 길렀던 거 여쭤보겠습니다. 소는 어떻게 해서 길렀었습니까?)

104001 #3 겨난 저 결혼혜 가지고 부모님네가 좀 가난허게 살아서마씨. 가난허게 살아 가지고 저 학교도 못 헷습니다. 경혜 가지고 어 베꼇디 나완 살다가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어 가지고. 어디 일본이라도 가 보카 허단 멧 번 돌아다니단. 형님이 일본에 가 잇고 또 동생도 일본에 갓다 왓다 허는 입장이고 헤서 난 또 군대도 갓다 오고 이렇게 헤서 집에 살아야 뒈겠다 헤 가지고.(그러니까 저 결혼해 가지고 부모님네가 좀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아 가지고 저 학교도 못 햇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 밖에 나와서 살다가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어 가지고. 어디 일본에라도 가 볼까 하다가 몇 번 돌아다니다가. 형님이 일본에 가 있고 또 동생도 일본에 갔다 왔다 하는 입장이고 해서 난 또 군대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집에 살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104001 @ 예.(예.)

104001 #3 나머지 또 십오 년 살앗습니다.(나머지 또 십오 년 살았습니다.)

104001 @ 게민 중간에 쭉장 여기서 자란 건 아니다예?(그럼 중간에 죽장 여기서 자란 건 아니네요?)

104001 #3 경혜도 사십 세 사십삼 세까진 여기 쭉 살앗습니다. 여기 쭉 살앗는데 일본에 가끔 갓다 왓다 헷습니다.(그래도 사십 세 사십삼 세까진 여기 쭉 살았습니다. 여기 쭉 살았는데 일본에 가끔 갔다 왔다 했습니다.)

104001 @ 아.(아.)

104001 #3 헤여 가지고 이젠 농촌에 벗어저쳐서마씸.(해 가지고 이젠 농촌에 벗어젖혔어요.)

104001 @ 예.(예.)

104001 #3 농촌에 벗어저쳐 가지고 이젠 쉐를 하나 산 쪼그마헌 거양, 산 부림 시작혜서마씨.(농촌에 벗어젖혀 가지고 이제 소를 하나 사서 조그마한 거, 사서 부리기 시작했어요.)

104001 @ 거 몇 살에 쉐를?(거 몇 살에 소를?)

104001 #3 에, 혼. 아버지네 시절부터 소는 좀 길뤗습니다.(에, 한. 아버지네 시절부터 소는 좀 길렀습니다.)

104001 @ 집에서예?(집에서요?)

104001 #3 예, 길르는 걸 토대 삼아 가지고 아버지네도 돌아가고 어머니는 살아계신데 솔 하나 이젠 사서마씨. 산 멕이는디 아, 열심히 멕여서마씨. 겨난 이 부락에선 두 번째로 안 간 쉐로 막 멕여나서마씨.(예, 기르는 걸 토대 삼아 가지고 아버지네도 돌아가고 어머니는 살아 계신데 솔 하나 이제 샀어요. 사서 먹이는데 아, 열심히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락에선 두 번째로 안 가는 소로 마구 먹였었어요.)

104001 @ 아, 예. 경 소 만이 질뤗을 때는 몇 마리나?(아, 예. 그렇게 소 많이

길렀을 때는 몇 마리나?)

104001 #3 한 마리.(한 마리.)

104001 @ 한 마리 가졍.(한 마리 가져서.)

104001 #3 경헤서 한 마리 헤서 이젠 풀고 사고 영 허니까 돈이 쪼금 뒈는 거라양. 딴 것 허고는 달라 가지고.(그래서 한 마리 해서 이젠 팔고 사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조금 되는 거예요. 딴 거 하고는 달라 가지고.)

104001 @ 게민 송애기를 상 질뢍 크민 풀고 경헌 것과?(그럼 송아지를 사서 길러서 크면 팔고 그런 겁니까?)

104001 #3 예, 예. 경헤서 거 남보다는 없으니까 이거라도 헤서 좀 용돈이라도 벌기 위해서 밤낮으로 거의 막 파 들엉 허다시피 헤서마씨.(예, 예. 그래서 거 남보다는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서 좀 용돈이라도 벌기 위해서 밤낮으로 거의 마구 파 들어서 하다시피 했어요.)

104001 @ 예.(예.)

104001 #3 거니까 쉐 잘 멕염다고 헤서 좋은 쉐가 뒈니까 상인덜이예, 자꾸 찾아와마씨.(거니까 소 잘 먹인다고 해서 좋은 소가 되니까 상인들이요, 자꾸 찾아와요.)

104001 @ 음.(음.)

104001 #3 쉐가 좋다고 헤서.(소가 좋다고 해서.)

104001 @ 아, 예.(아, 예.)

104001 #3 돈은 애끼지 안헤서 주겠다고 헤 가지고.(돈은 아끼지 않고 주겠다고 해 가지고.)

104001 @ 예, 예.(예, 예.)

104001 #3 돈을 좀 받으면서 한 다섯, 여섯 처레 쉘 바꾸멍 길롸서마씨.(돈을 좀 받으면서 한 다섯, 여섯 차례 솔 바꾸면서 길렀어요.)

104001 @ 그민 송애기 상.(그럼 송아지 사서.)

104001 #3 예, 예.(예, 예.)

104001 @ 송애기 난 거 길른 거마씨, 아니면 송애기 상?(송아지 난 거 기른 거요, 아니면 송아지 사서?)

104001 #3 송애기 상.(송아지 사서.)

104001 @ 상.(사서.)

104001 #3 한 세 설짜리 사근에 큰 쉐 만들아근에 풀고.(한 세 살짜리 사서 큰 소 만들어서 팔고.)

104001 @ 아.(아.)

104001 #3 예, 경허근에 허믄 한 일 년, 이 년 길르믄 또 팔아 둬근에 또 교체허는 거라마씨. 용돈 좀 빼 둬근에 또 송애기 또 사가지고 키우고. 그렇게 허면서 한 마흔까지 헤서예.(예, 그렇게 하면 한 일 년, 이 년 기르면 또 팔아 둬서 또 교체하는 거예요. 용돈 좀 빼 두고 또 송아지 사서 키우고. 그렇게 하면서 한 마흔까

지 했어요.)
104001 @ 몇 살 때서부터?(몇 살 때서부터?)
104001 #3 한, 에 군인 나가 가가지고, 군인 스물한 살에 간 스물다섯 나는 해에 제대헷수다. 제대헨 완 결혼 한 스물일곱에 헤 가지고 그 뭐 첨 그때부턴 열심히 뛰어도 밥 먹기가 힘들었습니다.(한, 에 군인 나가 가지고, 군인 스물한 살에 가서 스물다섯 되는 해에 제대했습니다. 제대해서 와서 결혼 한 스물일곱에 해 가지고 그 뭐 참 그때부턴 열심히 뛰어도 밥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104001 @ 아, 스물일곱 살부터 한 마흔 살까지는 계속?(아, 스물일곱 살부터 한 마흔 살까지는 계속?)
104001 #3 예.(예.)
104001 @ 한 여섯 마리 정도예?(한 여섯 마리 정도요?)
104001 #3 예.(예.)
104001 @ 겐 송애기 상.(그래서 송아지 사서.)
104001 #3 예, 교체허면서.(예, 교체하면서.)
104001 @ 게민 보통 세 살 난 걸 삽니까?(그럼 보통 세 살 되는 걸 삽니까?)
104001 #3 예, 세 살.(예, 세 살.)
104005 @ 그럼 이 쉐 나이를 어떵 세낫는지 알아지쿠과?(그럼 이 소 나이를 어떻게 세었는지 알겠습니까?)
104005 #3 예, 사릅 송애기렌 헤마씨, 세 설은?(예, 사릅 송아지라고 해요, 세 살은?)
104005 @ 흔 설은 뭐렌 헙니까?(한 살은 뭐라고 합니까?)
104005 #3 금숭.(하릅.)
104005 @ 금숭.(하릅.)
104005 #3 다간.(두습.)
104005 @ 다간.(두습.)
104005 #3 사릅 송애기.(사릅 송아지.)
104005 @ 사릅 송애기. 그 다음 네 살은?(사릅 송아지. 그 다음 네 살은?)
104005 #3 네 살 나릅.(네 살 나릅.)
104005 @ 나릅. 다섯 살은마씨?(나릅. 다섯 살은요?)
104005 #3 다섯 설은 흔, 나릅, 다섯 설은 뭣이엔 골앗신지?(다섯 살은 한, 나릅, 다섯 살은 뭐라고 했는지?)
104005 @ 다습이렌 헷수과, 다습?(다습이라고 했습니까, 다습?)
104005 #3 예.(예.)
104005 @ 다습, 으습?(다습, 여습?)
104005 #3 예, 경헤서마씨.(예, 그랬어요.)
104005 @ 예.(예.)
104005 #3 경허난 난 한 나릅에, 사릅에, 다간에 사근에 사릅에 헤영 밧 ᄀᆞ르치

고 헤여근에 갈당 나릅, 다습 나는 해엔 풀아서마씨.(그러니까 난 한 나릅에, 사릅에, 두습에 사서 사릅에 해서 밭 가르치고 해서 갈다가 나릅, 다습 되는 해엔 팔았어요.)

104005 @ 아, 게민.(아, 그럼.)

104005 #3 자꾸 교체혜야.(자꾸 교체해야.)

104005 @ 다간에, 다간 두 설에 사는 거다예?(두습에, 두습 두 살에 사는 거지요?)

104005 #3 두 설, 세 설.(두 살, 세 살.)

104005 @ 다간, 사릅에 상.(두습, 사릅에 사서.)

104005 #3 예, 예.(예, 예.)

104003 @ 게민 숫쉐 삿수다예?(그럼 수소 샀네요?)

104003 #3 예. 경헤근에 이제 집이서 정신 출려근에 멕이게 뒈믄 돈이 꿰 남아마씨.(예. 그래서 이제 집에서 정신 차려서 먹이게 되면 돈이 꽤 남아요.)

104003 @ 그 숫쉐면은 밧갈쉐[109]로 산 거?(그 수소면 '밧갈쉐'로 산 거?)

104003 #3 예, 예. 겐 밧도 갈고.(예, 예. 그래서 밭도 갈고.)

104003 @ 아, 밧도 갈고.(아, 밭도 갈고.)

104003 #3 밧도 갈고 뭐 온갖 헌다 허는 건 다 허는 거라마씨. 겐 놈의 밧도 갈레 다니고.(밭도 갈고 뭐 온갖 한다 하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밭도 갈러 다니고.)

104003 @ 놈의 밧도 갈레 다니고.(남의 밭도 갈러 다니고.)

102001 #3 예. 경헨 이제 뭐 저 한 마흔 넘도록 남의 집 살앗수다.(예. 그래서 이제 뭐 저 한 마흔 넘도록 남의 집 살았습니다.)

102001 @ 음.(음.)

102001 #3 마흔 뒈도록 남의 집 살아서마씨.(마흔 되도록 남의 집 살았어요.)

102001 @ 음.(음.)

102001 #3 겐 그렇게 허다가 병이 팍 나서마씨. 병이 팍 나 가지고.(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병이 팍 났어요. 병이 팍 나 가지고.)

102001 @ 아팟수과?(아팠습니까?)

102001 #3 예, 아파 가지고 병원 생활도 여러 번 헷수다.(예, 아파 가지고 병원 생활도 여러 번 했습니다.)

102001 @ 어디 편찮으셨던 거마씨?(어디 편찮으셨던 거요?)

102001 #3 저 바당에 간 그 고기 쏩는디 같이 휘여 다니다가 저 폐농양 걸련. 숨 다 먹어서. 겐 그 시에 도립병원이 저 중앙로에 잇엇잖우과양? 거기 한 백 날썩 입원허고.(저 바다에 가서 그 고기 쏘는데 같이 휘어 다니다가 저 폐농양 걸렸어. 숨 다 먹어서. 그래서 그 시에 도립병원이 저 중앙로에 있었잖습니까? 거기 한 백 날씩 입원하고.)

---

109) '밧갈쉐'는 밭을 가는 힘센 부룩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102001 @ 아이구.(아이구.)

102001 #3 그렇게 허다가 이젠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엇언 막 병원 생활헐 땐 첨 몹쓸 말로 죽어 불 생각도 만이 가졋고.(그렇게 하다가 이젠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어서 마구 병원 생활할 땐 첨 몹쓸 말로 죽어 버릴 생각도 많이 가졌고.)

102001 @ 힘들어근에.(힘들어서.)

102001 #3 경헤도 살고 봐야 뒈지 안허카. 늙은 부모님네 계신 거라서양. 이렇게 헤서는 안 뒈겟다 헤 가지고 그때부터 막 결심헤서 이것도 마흔 나는 해에 이녁 집이엔 헨 삿수다.(그래도 살고 봐야 되지 않을까. 늙은 부모님네 계신 거여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결심해서 이것도 마흔 되는 해에 자기 집이라고 해서 샀습니다.)

102001 @ 예.(예.)

102001 #3 마흔 나는 해에.(마흔 되는 해에.)

102001 @ 집 지어진 걸 그냥 산 거마씨?(집 지어진 걸 그냥 산 거요?)

102001 #3 아니, 아니. 초가집 그대로 더프니까 도저히 일어 가기가 힘들어 가지고 마흔에 상 마흔 셋 나는 해엔 일본 갓다 왕 집을 지엇수다.(아니, 아니. 초가집 그대로 덮으니까 도저히 이어 가기가 힘들어 가지고 마흔에 사서 마흔 셋 되는 해엔 일본 갔다 와서 집을 지었습니다.)

102001 @ 음.(음.)

102001 #3 더프기가 곤란헤 가지고.(덮기가 곤란해 가지고.)

104002 @ 아, 초가 이는 게 힘든 거라예?(아, 초가 이는 게 힘든 거지요?)

104002 #3 안팟거리[110] 허난, 그땐 이 초가집만 면헤져시민 좋겟다 허연 그자 대략헤연 엿날 집으로 허연 지엉 여태꺼지 살앗왓수다게.('안팟거리' 하니까, 그땐 이 초가집만 면해졌으면 좋겠다 해서 그저 대략해서 옛날 집으로 해서 지어서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104002 @ 예. 쉐 길르멍예 쉐도 영 종류가 이실 거 아니마씨?(예. 소 기르면서 소도 이렇게 종류가 있을 거 아니요?)

104002 #3 쉐도예.(소도요.)

104002 @ 털 색깔이나 뭐 뿔 모양에 따라.(털 색깔이나 뭐 뿔 모양에 따라.)

104002 #3 예. 뿔 모냥이나 저 색깔이나양. 난 그 황소.(예. 뿔 모양이나 저 색깔이나. 난 그 황소.)

104002 @ 황소.(황소.)

104002 #3 그 노란 쉐.(그 노란 소.)

104002 @ 노란 쉐를 황소렌 골안예?(노란 소를 황소라고 말해요?)

104002 #3 예, 그 쉐만 쭉 길롯수다. 검은 쉐도 안 키우고. 어떤 일인지 또 모냥도 그 쉐 좋다. 영헌 것에 뚤라 부터서마씨. 좋다 허는 거에 뚤라 부텅.(예, 그 소만 쭉 길렀습니다. 검은 소도 안 키우고. 어떤 일인지 또 모양도 그 소 좋다. 이러한

110) '안팟거리'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안채와 바깥채를 말한다.

것에 따라 붙었어요. 좋다 하는 거에 따라 붙어서.)

104002 @ 그럼, 그 다간이나 사릅 쉐는 어디 강 사옵니까?(그럼, 그 두습이나 사릅 소는 어디 가서 사옵니까?)

104002 #3 이 중산간[111] 부락에, 영 뉴스 들으믄 이 부락에도 쉐 장시덜이 멧 분 계시니까 그 사 온 것도 보고 또 저, 나 쉐 바꾸젠 헴시메 어디 좋은 거 하나 봉가 옵서.(이 중산간 부락에, 이렇게 뉴스 들으면 이 부락에도 소 장수들이 몇 분 계시니까 그 사 온 것도 보고 또 저, 나 소 바꾸려고 하고 있으니 어디 좋은 거 하나 구해 오세요.)

104002 @ 아.(아.)

104002 #3 경허민 몰아 와마씨 몰아 왕 그 사람네도 담배 갑이나 남아야 이제 풀고 뭐 허는데 또 좋은 건 경 까끄지 안허연 사서마씨.(그러면 몰아 와요. 몰아 와서 그 사람네도 담배 값이나 남아야 이제 팔고 뭐 하는데 또 좋은 건 그렇게 깎지 않고 샀어요.)

104002 @ 경 질르기는 어떻든 황쉐를 질뤄신디.(그렇게 기르기는 어떻든 황소를 길렀는데.)

104002 #3 예.(예.)

104002 @ 어쨌든 다른 이름덜은 영 들어나실 거 아니예?(어쨌든 다른 이름들은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니요?)

104002 #3 예.(예.)

104002 @ 그 우선은 남자 쉐는 뭐렌 헙니까?(그 우선은 남자 소를 뭐라고 합니까?)

104002 #3 부룽이.(부룩소.)

104002 @ 부룽이?(부룩소?)

104002 #3 예.(예.)

104002 @ 여자 쉐는?(여자 소는?)

104002 #3 암쉐. 암송아지, 숫송아지. 다간꺼지는. 두 설꺼지는.(암소. 암송아지, 수송아지. 두습까지는. 두 살까지는.)

104002 @ 아. 두 설꺼지는 암송아지, 숫송아지 허고 그 이후엔.(아. 두 살까지는 암송아지, 수송아지 하고 그 이후엔.)

104002 #3 그 후엔 저 암쉔 암쉐엔 허고 또 숫송아지덜은 사릅, 나릅 다 영 헤근에 허곡.(그 후엔 암손 암소라고 하고 또 수송아지들은 사릅, 나릅 다 이렇게 해서 하고.)

104002 @ 예, 숫송아진 부룽이렌 부르고예?(예, 수송아진 부룩소라고 부르고요?)

104002 #3 예, 예. 이 금숭, 다간꺼진 부룽이. 암송아지 이 정도라양. 어린 소라헤 가지고.(예, 예. 이 하릅, 두습까진 부룩소. 암송아지 이 정도지요. 어린 소라 해

111) '중산간'은 해발 100미터에서 300미터의 고지대를 말한다.

가지고.)

104002 @ 으. 게민 그 부룽이가 밧갈쉐과?(으. 그럼 그 부룩소가 '밧갈쉐'입니까?)

104002 #3 부룽이가 세 설, 네 설 나릅 나는 해에 밧을 ᄀᆞ르치는 거라.(부룩소가 세 살, 네 살 나릅 되는 해에 밭을 가르치는 거야.)

104002 @ 아.(아.)

104002 #3 나릅 나는 해에. ᄀᆞ르쳐근에 이제 그때부턴 이녁 쉐로 헤근에 한 일 년, 오래 길루면 이 년을 길롸야.(나릅 되는 해에. 가르쳐서 이제 그때부턴 자기 소로 해서 한 일 년, 오래 기르면 이 년을 길러야.)

104002 @ 예.(예.)

104002 #3 이 년 길롸서 이제 돈이 뭼직 허믄 교차허는 거라마씨.(이 년 길러서 이제 돈이 될 거 같으면 교차하는 거예요.)

104002 @ 예, 예.(예, 예.)

104002 #3 교차헤서 풀앙 좀 빼곡 또 사릅 부룽이 어린 거 사다근에 잘 멕여근에 이젠 또 밧도 ᄀᆞ르치고 영 헤근에 밧 갈아근에 이젠 헤근에 흔 다섯쯤 뒈 가믄 이제 쉐 거 안 풀커라, 허민 또 풀고.(교차해서 팔아서 좀 빼고 또 사릅 부룩소 어린 거 사다가 잘 먹여서 이젠 또 밭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밭 갈아서 이젠 해서 한 다섯쯤 돼 가면 이제 소 거 안 팔겠어, 하면 또 팔고.)

104002 @ 아. 그건 쉐 장시덜이 와 가지고?(아. 그건 소 장수들이 와 가지고?)

104002 #3 예, 예. 그럼 그 분덜도 상 가근에 또 넴기는 거라마씨. 게난 좋은 쉐는 상인이 많고 쉐도양. 또 어떵 몰멩허나 뭐 헌 건 상인이 드물어마씨.(예, 예. 그럼 그 분들도 사서 가서 또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는 상인이 많고, 소도요. 또 어떻게 시원찮거나 뭐 한 건 상인이 드물어요.)

104002 @ 으.(으.)

104002 #3 경헤영 한 마흔꺼지, 마흔꺼지 허다가.(그래서 한 마흔까지, 마흔까지 하다가.)

104002 @ 게민 아까 쉐 종류가 여자는 암쉐, 남저는 숫쉐?(그럼 아까 소 종류가 여자는 암소, 남자는 수소?)

104002 #3 예.(예.)

104002 @ 그 다음 부렝이, 밧갈쉐 그런 명칭덜이 잇고.(그 다음 부룩소, '밧갈쉐' 그런 명칭들이 있고.)

104002 #3 예.(예.)

104002 @ 털 색깔은 아까?(털 색깔은 아까?)

104002 #3 털 색깔은.(털 색깔은.)

104002 @ 황쉐?(황소?)

104002 #3 예, 저 검은 쉐.(예, 저 검은 소.)

104002 @ 검은 쉐.(검은 소.)

104002 #3 또 신쉐[112]라고 그 푸리롱헌 검은 쉐도 잇어마씨.(또 '신쉐'라고 그 푸르스름한 검은 소도 있어요.)

104002 @ 예. 저 슥쉐?(예. 저 '슥쉐'?)

104002 #3 예.(예.)

104002 @ 슥쉐예?('슥쉐'요?)

104002 #3 예. 또 저 노랑허면서도 저, 노랑, 다 잊어불언네.(예, 또 저 노라면서도 저 노랑, 다 잊어버렸네.)

104002 @ 그 물에 막 줄무늬 잇는 것처럼 한 거 어럭쉐렌 골읍니까?(그 말에 마구 줄무늬 있는 것처럼 한 거 얼럭소라고 말합니까?)

104002 #3 어럭쉐. 노랑어럭쉐.(얼럭소. 노랑얼럭소.)

104002 @ 노랑어럭쉐. 아, 그걸 노랑어럭쉐렌 헙니까?(노랑얼럭소. 아, 그걸 노랑얼럭소라고 합니까?)

104002 #3 예, 예. 어럭쉐.(예, 예. 얼럭소.)

104002 @ 그 다음 그거 말고 또 엇수과, 쉐 이름?(그 다음 그거 말고 또 없습니까, 소 이름?)

104002 #3 예?(예?)

104002 @ 그거 말고 또 엇수과?(그거 말고 또 없습니까?)

104002 #3 노랑 백쉐, 얼룩베기 쉐.(노랑 백소, 얼룩빼기 소.)

104002 @ 아, 얼룩베기 쉐?(아, 얼룩빼기 소?)

104002 #3 예, 노란 것에 이제 하얀 거.(예, 노란 것에 이제 하얀 거.)

104002 @ 예.(예.)

104002 #3 반 서꺼진 것이 이십주게. 겐 노랑얼룩쉐.(반 섞인 것이 있습지요. 그래서 노랑얼룩소.)

104002 @ 노랑얼룩쉐예?(노랑얼룩소요?)

104002 #3 예.(예.)

104002 @ 그럼 뿔 모양 보민 영 곧게 뒌 건 뭐렌 헙니까?(그럼 뿔 모양 보면 이렇게 곧게 된 건 뭐라고 합니까?)

104002 #3 천상, 영 올라간 건 천상 뿔.(천상, 이렇게 올라간 건 천상 뿔.)

104002 @ 아, 천상 뿔.(아, 천상 뿔.)

104002 #3 또 영 앞더레 영 헌 건 골체 뿔거치 앞더레 모냥 좋게 휘여지는 쉐가 잇십주게.(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한 건 삼태기 뿔같이 앞으로 모양 좋게 휘어지는 소가 있습죠.)

104002 @ 예, 예.(예, 예.)

104002 #3 경허믄 저 뿔이 호미자룩거치 호미같이 이렇게 앞더레 들앙 첨 보기 좋다 허여근에.(그러면 저 뿔이 낫자루같이 호미같이 이렇게 앞으로 달려서 참 보기 좋다 해서.)

112) '신쉐'는 털 색이 흑색과 회색인 섞인 소를 말한다. '슥쉐', '식쉐'라고도 한다.

104002 @ 아, 그럼 그런 쉐를 따로 불르는 이름은 엇고.(아, 그럼 그런 소를 따로 부르는 이름은 없고.)

104002 #3 따로 불르는 것은 모냥이 좋덴 허지. 거 세부적인 건 모르쿠다. 하하하.(따로 부르는 것은 모양이 좋다고 하지. 거 세부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하하하.)

104002 @ 어쨌든 영 뻗는 건 천상 뿔?(어쨌든 이렇게 뻗는 건 천상 뿔?)

104002 #3 천상 뿔. 하늘, 하늘 솟기 좋다, 천상 뿔.(천상 뿔. 하늘, 하늘 솟기 좋다, 천상 뿔.)

104003 @ 아, 예. 그럼 쉐는 뭐 헐 때 이용헙니까?(아, 예. 그럼 소는 뭐 할 때 이용합니까?)

104003 #3 쉐는 첫째는 농서짓는 사름은 밧 갈기 위해서 우선은 그 당시만 헤도 기계가 안 나온 때니까 농서짓는 사름은 필히 밧을 갈기 위해서.(소는 첫째는 농사짓는 사람은 밭 갈기 위해서 우선은 그 당시만 해도 기계가 안 나온 때니까 농사짓는 사람은 필히 밭을 갈기 위해서.)

104003 @ 예.(예.)

104003 #3 또 놉 빌엉 갈젠 허믄 막 일삭 쿰이 비쌉주게. 게난 밧 갈기 위해서, 이제 그 농서짓길 위해서 이 쉘 사릅에 사당 나릅 나는 해에 ᄀᆞ르치민 자기 농서도 짓곡.(또 놉 빌려서 갈려고 하면 아주 일삯 삯이 비싸죠. 그러니까 밭 갈기 위해서, 이제 농사짓길 위해서 이 솔 사릅에 사다가 나릅 되는 해에 가르치면 자기 농사도 짓고.)

104003 @ 예.(예.)

104003 #3 또 어디 강 밧 갈아 주민 일도 왕 헤여 주고. 영 수눌어 가면서 허면 좀 편리도 허고.(또 어디 가서 밭 갈아 주면 일도 와서 해 주고. 이렇게 품앗이해 가면서 하면 좀 편리도 하고.)

104003 @ 예, 경헷던 거.(예, 그랬던 거.)

104003 #3 이렇게 헤근에 쭉 농촌에서 살아십주. 허다가 에, 한, 이 뭐 기계 나온 지도 한 삼십 년.(이렇게 해서 쭉 농촌에서 살았죠. 하다가 에, 한, 이 뭐 기계 나온 지도 한 삼십 년.)

104003 @ 삼십 년.(삼십 년.)

104003 #3 예, 이 정도일 거우다. 게난 삼십 년 전후우다.(예, 이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삼십 년 전후입니다.)

104003 @ 그 전에는 쉐로 헹, 쉐 밧 갈젠 허민 뭐 이엉 헐 것과?(그 전에는 소로 해서, 소 밭 갈려고 하면 뭐 이어서 할 겁니까?)

104003 #3 쉐 밧 갈젠 허민 쟁기.(소 밭 갈려고 하면 쟁기.)

104006 @ 그거 쟁기를 여기서, 고내리에선 뭐렌 골앗수과?(그거 쟁기를 여기서, 고내리에선 뭐라고 말했습니까?)

104006 #3 쟁기렌 헙니다.(쟁기라고 합니다.)

104006 @ 쟁기렌 헷수과?(쟁기라고 했습니까?)

104006 #3 예, 또 여기 그 멍에 영 낭 헤여근에 궁기 뚤랑 모가지 영 헌 건 접궤[113], 쉐 접궤.(예, 또 여기 그 멍에 이렇게 나무 해서 구멍 뚫어서 모가지 이렇게 하는 건 목대, 소 목대.)

104006 @ 쉐 접궤. 여기 멍에에 영 휘여진 걸 쉐 접궤?(소 목대. 여기 멍에에 이렇게 휘어진 걸 소 목대?)

104006 #3 예, 휘여진 거 쉐 접궤.(예, 휘어진 거 소 목대.)

104006 @ 예.(예.)

104006 #3 또 일로 줄로 헤여근에 뒤에 강 영 허는 건 솜비줄.(또 일로 줄로 해서 뒤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건 봇줄.)

104006 @ 송비줄? 어, 안 들어 봐난 거우다. 솜비줄?(송비줄? 아, 안 들어 봤던 겁니다. 봇줄?)

104006 #3 예.(예.)

104006 @ 잠깐만예, 솜비줄. 그럼 이거 하나 보여드리쿠다. 이거 밧 가는 거잖아예. 어디가 솜비줄마씨?(잠깐만요, 봇줄. 그럼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밭 가는 거잖아요. 어디가 봇줄요?)

104006 #3 이걸 전체 솜비줄이엔 헙주. 요꺼지가.(이걸 전체 봇줄이라고 합죠. 요까지가.)

104006 @ 아.(아.)

104006 #3 요꺼지가 요거 다 통틀어서.(요까지가 요거 다 통틀어서.)

104006 @ 예.(예.)

104006 #3 요것이 접궤고.(요것이 목대고.)

104006 @ 잠시만예. 예, 골아 줍서.(잠시만요. 예, 말해 주세요.)

104006 #3 요것이 멍에에서 영 내려왓수게양. 양쪽으로?(요것이 멍에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양쪽으로?)

104006 @ 예.(예.)

104006 #3 요건 접궤고.(요건 목대고.)

104006 @ 어디 여기가?(어디 여기가?)

104006 #3 아니, 아니. 요 나무 쪽에게.(아니, 아니. 요 나무 쪽에.)

104006 @ 아, 나무, 나무.(아, 나무, 나무.)

104006 #3 요거양?(요거요.)

104006 @ 예. 오리목을?(예. '오리목'을?)

104006 #3 오리목[114]이 아니고.('오리목'이 아니고.)

104006 @ 예.(예.)

104006 #3 오리목은 요걸 오리목이렌 헙니다.('오리목'은 요걸 '오리목'이라고 합니다.)

---

113) '접궤'는 멍에 양편에 각각 꿰어서 목 아래로 휘어다가 매게 된 나뭇가지를 말한다. 표준어의 '목대'에 해당한다.

114) '오리목'은 봇줄 끝에 매어진 나무와 쟁기의 성에와의 사이에 잇대어 매는 줄을 말한다.

104006 @ 아, 여기 끝에.(아, 여기 끝에.)

104006 #3 예. 쟁기에서 연결시키는 이걸 오리목이엔 허고 이건 저 접궤.(예. 쟁기에서 연결시키는 이걸 '오리목'이라고 하고 이건 저 목대.)

104006 @ 접궤.(목대.)

104006 #3 예. 낭이로 영 헹 모가지에 영 허여야 이디 걸어져야 소가 이거 힘으로 쭉 뗑경 가믄 밧이 갈아지게 뒈십주.(예. 나무로 이렇게 해서 모가지에 이렇게 해야 여기 걸려야 소가 이거 힘으로 쭉 당겨서 가면 밭이 갈리게 되죠.)

104006 @ 예.(예.)

104006 #3 이거 엇이믄 쉐가 그대로 나가 붑주게.(이거 없으면 소가 그대로 나가 버리죠.)

104006 @ 나가 부는 거라예?(나가 버리는 거지요?)

104006 #3 예, 예. 경허고.(예, 예. 그리고.)

104006 @ 게민 이 접궤는 무슨 낭으로 만듭니까?(그럼 이 목대는 무슨 나무로 만듭니까?)

104006 #3 윤노리.(윤노리.)

104006 @ 윤노리낭예?(윤노리나무요?)

104006 #3 예, 윤노리.(예, 윤노리.)

104006 @ 잘 휘여지는 걸로 헤야 뒐 거 아니예?(잘 휘어지는 걸로 해야 될 거 아니요?)

104006 #3 예, 예.(예, 예.)

104006 @ 윤노리낭.(윤노리나무.)

104006 #3 윤노리낭도 허고 또 저 개불낭. (윤노라나무도 하고 또 저 산괴불나무.)

104006 @ 개불낭?(산괴불나무?)

104006 #3 예, 예.(예, 예.)

104006 @ 아, 그걸로 만들 거예?(아, 그걸로 만들 거요?)

104006 #3 예, 그걸 허고 요거 끝나면은 요 알로 노끈네기 헤근에 영 대어나십주. 영 헤게 뒈믄 일로 빙빙 감앙 허당 거 끌러근에 이거 풀어근에 이건 뚜로. 게곡 쟁긴 쟁기대로 허곡 또 이 줄은 이거 영 심어 둠수루 영 좁아뎅기민 소가 이레 오고 이레 허민 이레 오고 허는 건 가른석.(예, 그걸 하고 요거 끝나면 요 아래로 노끈 해서 이렇게 대십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일로 빙빙 감아서 하다가 거 풀어서 이거 풀어서 이건 따로. 그리고 쟁기는 쟁기대로 하고 또 이 줄은 이거 이렇게 잡아두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소가 이리 오고 이리 하면 이리 오고 하는 건 고삐.)

104006 @ 가른석.(고삐.)

104006 #3 예, 가른석.(예, 고삐.)

104006 @ 예, 예 가른석.(예, 예 고삐.)

104006 #3 양쪽에양.(양쪽에요.)

104006 @ 줄예? 게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웬쪽으로 가라.(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104006 #3 예.(예.)

104006 @ 줍아뎅길 때예.(잡아당길 때요.)

104006 #3 거 웬쪽으로 돌리고 싶으민 웬쪽 줍아뎅기고 오른쪽이로 돌리고 싶으믄 오른쪽으로 줍아뎅기고 그렇게 헤서 허기 때문이 이건 가른석이고 이건 쟁기고양.(거 왼쪽으로 돌리고 싶으면 왼쪽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고삐고 이건 쟁기고요.)

104006 @ 예.(예.)

104006 #3 영 헤근에 갈다근에 영 삼십 분 이상 갈아 가믄 ᄒᆞ쏠 ᄒᆞᆫ 십 분 쉬어사 헤여마씨.(이렇게 해서 갈다가 이렇게 삼십 분 이상 갈아 가면 조금 한 십 분 쉬어야 해요.)

104006 @ 예.(예.)

104006 #3 ᄒᆞᆫ 번에 계속 갈진 못 헤여마씨.(한 번에 계속 갈진 못 해요.)

104008 @ 이 멍에는 무슨 낭으로 만듭니까 보통?(이 멍에는 무슨 나무로 만듭니까 보통?)

104008 #3 에, 보통 그 오동낭양.(에, 보통 그 오동나무요.)

104008 @ 오동낭, 멍에는.(오동나무, 멍에는.)

104008 #3 오동낭이나 저 노가리.(오동나무나 저 주목.)

104008 @ 노가리?(주목?)

104008 #3 예, 노가리 멍에나 오동낭이나 그걸로 헤마씨.(예, 주목 멍에나 오동나무나 그걸로 해요.)

104008 @ 음, 게민 여기는 아까 접궤고 이 줄은 가린석이잖아예?(음, 그럼 여기는 아까 목대고 이 줄은 고삐잖아요?)

104008 #3 예.(예.)

104008 @ 요거 요 등에 멘 벳줄[115]은 뭐과?(요거 요 등에 맨 '벳줄'은 뭡니까?)

104008 #3 이건 저, 요거 전체는 솜비줄이고.(이건 저, 요거 전체는 봇줄이고.)

104008 @ 솜, 다시 한 번 소리내 봅서.(솜, 다시 한 번 소리내 보세요.)

104008 #3 솜비줄.('솜비줄'.)

104008 @ 예, 솜비줄.(예,봇줄.)

104008 #3 요것은 등, 다 잊어불언 모르쿠다.(요거는 등, 다 잊어버려서 모르겠습니다.)

104006 @ 아, 예. 예, 알앗수다. 이거는 고내리에서는 쟁기렌 ᄀᆞᆯ은덴 헤서예?(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고내리에서는 쟁기라고 말한다고 했지요?)

104006 #3 예, 쟁기마씨, 쟁기.(예, 쟁기요, 쟁기.)

104006 @ 그럼 여기 명칭덜 ᄒᆞᆫ 번 알아지는 거 ᄀᆞᆯ아 줍서.(그럼 여기 명칭들

115) '벳줄'은 쟁기 몸체에 볏을 고정시킬 때 묶는 줄을 말한다.

한 번 알 수 있는 거 말해 주세요.)
104006 #3 이, 이건 저.(이, 이건 저.)
104006 @ 알아지는 것만 ᄀᆞᆯ아 줍서.(아는 것만 말해 주세요.)
104006 #3 요건 무꿀.(요건 쟁깃술.)
104006 @ 아, 이거는 무꿀?(아, 이거는 쟁깃술?)
104006 #3 예.(예.)
104006 @ 몽클 아니고 무꿀?(‘몽클’ 아니고 ‘무꿀’?)
104006 #3 예, 무꿀.(예, ‘무꿀’.)
104006 @ 예.(예.)
104006 #3 무꿀이고 이것은, 에, 모르쿠다. 이것도. 이건 손젭이, 손젭인데.(쟁깃술이고 이것은, 에,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건 손잡이, 손잡인데.)
104006 @ 손젭이예?(손잡이요?)
104006 #3 아, 이건 성에, 성에.(아, 이건 성에, 성에.)
104006 @ 예.(예.)
104006 #3 성에, 성에.(성에, 성에.)
104006 @ 성에예, 긴 게 성에예?(성에요, 긴 게 성에요?)
104006 #3 예, 성에고 요것도 별도로 거.(예, 성에고 요것도 별도로 거.)
104006 @ 이거 양짓머리렌?(이거 양지머리라고?)
104006 #3 예, 양짓머리. 양짓머리 잘 알암신게.(예, 양지머리. 양지머리 잘 알고 있네요.)
104006 @ 아까 여기가 오리목이라고요?(아까 여기가 ‘오리목’이라고요?)
104006 #3 여기서, 요것에서 요레 저 오리목을 끼웁주게게.(여기서, 요것에서 요기 저 ‘오리목’을 끼우지요.)
104006 @ 아, 끼우는 게 잇수과?(아, 끼우는 게 있습니까?)
104006 #3 예, 요디도 요만이 헌 낭이 셔마씨양.(예, 요기도 요만큼 한 나무가 있어요.)
104006 @ 예.(예.)
104006 #3 낭이 시면은 이게 줄이 영 ᄃᆞᆯ아멘 걸 요레 와근에 딱 혜영 무꺼마씨.(나무가 있으면 이게 줄이 이렇게 달아맨 걸 요기 와서 딱 해서 묶어요.)
104006 @ 아.(아.)
104006 #3 무꺼야 ᄯᆡᆼ기지 그대로는 ᄯᆡᆼ기질 못 헙주게.(묶어야 당기지 그대로는 당기질 못 하지요.)
104006 @ 예.(예.)
104006 #3 게난 건 오리목이엔 허고 이거 전체는 솜비줄이엔 허고 성에, 무클, 이건 또 저.(그러니까 거 ‘오리목’이라고 하고 이거 전체는 봇줄이라고 하고 성에, 쟁깃술, 이건 또 저.)
104006 @ 양짓머리.(양지머리.)

104006 #3 양짓머리. 요건 보섭.(양지모리. 요건 보습.)

104006 @ 보섭, 요건?(보습, 요건?)

104006 #3 이건 벳.(이건 볏.)

104006 @ 벳. 여기 기울이젠 영 설치허는 거 잇수과? 작데기 끼우는 거?(볏. 여기 기울이려고 이렇게 설치하는 거 있습니까? 작대기 끼우는 거?)

104006 #3 예, 벳칼.(예, 볏칼.)

104006 @ 벳칼.(볏칼.)

104006 #3 예.(예.)

104006 @ 게민 이 벳 각도를 조절허젠 딱 끼우는 거예, 밑에?(그럼 이 볏 각도를 조절하려고 딱 끼우는 거요, 밑에?)

104006 #3 예, 예. 경허난 이디 벳줄[116]이라고양.(예, 예. 그러니까 여기 '벳줄'이라고요.)

104006 @ 예.(예.)

104006 #3 요만쯤 이제 그 벳 뒤에 궁기가 요만쯤 시난 노가 두 개 잇수다. 두 개 시믄 그 벳칼로 그걸 조정헹 요레 낍고 요레 맞추와근에 영 헤근에 딱 영 허믄 손보기 전엔 안 풀어져마씨.(요만큼쯤 이제 그 볏 뒤에 구멍이 요만큼씩 있으니까 노가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으면 그 볏칼로 그걸 조정해서 요기 끼우고 요기 맞춰서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하면 손보기 전에 안 풀려요.)

104006 @ 아.(아.)

104006 #3 게난 이젠 뭐 이런 것도 다 옛날.(그러니까 이젠 뭐 이런 것도 다 옛날.)

104006 @ 그니까. 요 부분을 골으는 거 잇수과?(그니까. 요 부분을 말하는 거 있습니까?)

104006 #3 예, 것도 잇는데.(예, 것도 있는데.)

104006 @ 설치? 아니?(한마루? 아니?)

104006 #3 에, 설치가 아니고 거 뭐.(에, 한마루가 아니고 거 뭐.)

104006 @ 예, 알앗수다, 알앗수다. 영 기억나는 거만예. 영 쟁기 봣고예. 혹시 쉐에, 쉐를 밧 갈 때도 썻주만은 짐 시끌 때도 써낫지 안 헷수과 쉐예?(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억나는 거만요. 이렇게 쟁기 봤고요. 혹시 소에, 소를 밭 갈 때도 썼지만 짐 실을 때도 썼었지 않습니까, 소요?)

104006 #3 예, 예.(예, 예.)

104007 @ 등에 짐 시끌 때?(등에 짐 실을 때?)

104007 #3 예, 예.(예, 예.)

104007 @ 그때는 우에, 쉐 우에 뭐 씨웡 허지 안허여?(그때는 위에, 소 위에 뭐 씌워서 하지 않아요?)

104007 #3 저.(저.)

---

116) '벳줄'은 쟁기 몸체에 볏을 고정시킬 때 묶는 줄을 말한다.

104007 @ 질메?(길마?)

104007 #3 질메. 하하하.(길마. 하하하.)

104007 @ 저 잘 알암지예?(저 잘 알고 있지요?)

104007 #3 하하하, 잘 알암신게마씨.(하하하. 잘 알고 있네요.)

104007 @ 등어리에 그냥 뭐 못 시끼는 우에, 우에 딱 질메 엊져 놔 가지고 짐 시끌 때 쓸려고예. 게민 질메에서 뭐 불러난 이름 같은 거 생각나는 거 잇수과? 질메 부분에 이름은 혹시 생각나는 거?(등에 그냥 뭐 못 싣는 위에, 위에 딱 길마 얹어 놔 가지고 짐 실을 때 쓰려고요. 그럼 길마에서 뭐 불렀던 이름 같은 거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길마 부분에 이름은 혹시 생각나는 거?)

104007 #3 질메, 만딱 잊어불언. 하하하.(길마, 모두 잊어버렸어. 하하하.)

104007 @ 잊어불언예. 예, 예 알앗수다. 멍에 부분에도 부분 명칭이 이실 건디예?(잊어버렸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멍에 부분에도 부분 명칭이 있을 건데요?)

104007 #3 아까 멍에마씸?(아까 멍에요?)

104007 @ 예, 아까 멍에에도. 사진을 찾아보쿠다. 영 허면.(예, 아까 멍어에도. 사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04008 #3 요건 접궤.(요건 목대.)

104008 @ 아, 접궤 맞구나.(아, 목대 맞구나.)

104008 #3 예, 예. 접궤. 요건 멍에양.(예, 예. 목대. 요건 멍에요.)

104008 @ 예.(예.)

104008 #3 이 낭만 멍에.(이 나무만 멍에.)

104008 @ 예.(예.)

104008 #3 이건 저 솜비줄.(이건 저 봇줄.)

104008 @ 예.(예.)

104008 #3 요것도 더러 뭐 있었는디 잊어불언 모르쿠다.(요것도 더러 뭐 있었는데 잊어버려서 모르겠습니다.)

104006 @ 아, 여기 이 낭을?(아, 여기 이 나무를?)

104006 #3 이 낭을. 양짓머리, 무클, 성에, 보섭, 벳.(이 나무를. 양지머리, 쟁깃술, 성에, 보습, 볏.)

104006 @ 이 낭을 오리목이엔 부른 거 아니예?(이 나무를 '오리목'이라고 부른 거 아니요?)

104006 #3 이 줄, 이 줄.(이 줄, 이 줄.)

104006 @ 아, 이 줄을.(아, 이 줄을.)

104006 #3 이건 뭣이렌?(이건 뭐라고?)

104006 @ 고들게?(껑거리?)

104006 #3 고들게 아니우다.(껑거리 아닙니다.)

104006 @ 고들게 아니라마씨. 이 줄을 오리목이렌 헤서?(껑거리 아니예요. 이 줄을 '오리목'이라고 했어?)

104006 #3 오리목, 오리목. 게난 이것도 저 고지 강양. 소리낭 껍데기.(‘오리목’, ‘오리목’. 그러니까 이것도 저 숲 가서요. 소리나무 껍데기.)

104006 @ 소리낭 껍데기?(소리나무 껍데기.)

104006 #3 예, 소리낭 껍데기 영 베꼇다근에. 그걸로 허면 비 올 때 맞아도 오래가고 허니까 그걸로 헤근에 노인덜 헤근에, 그 막 아이덜 시켜근에 헤근에 영 호렝이[117] 닮은 걸로 노 꼬아근에양 드려근에 헙주게.(예, 소리나무 껍데기 이렇게 벗겨다가. 그걸로 하면 비 올 때 맞아도 오래가고 하니까 그걸로 해서 노인들 해서, 그 아주 아이들 시켜서 해서 이렇게 ‘호렝이’ 닮은 걸로 노 꼬아서 드려서 합지요.)

104006 @ 예.(예.)

104006 #3 딴 걸로 그 당시만 헤도. 이젠 나일론 끈이 흔전허니까 허주. 질긴 것이 엇어마씨.(딴 걸로 그 당시만 해도. 이젠 나일론 끈이 흔전하니까 하지. 질긴 것이 없어요.)

104006 @ 음.(음.)

104006 #3 뭐 그런 걸로 허면은 오래가지 안허여. 이걸로 허니까 허다가 글후에는 이 저 남총예, 그런 걸로 허여서 또 드려서 허고.(뭐 그런 걸로 하면 오래가지 않아. 이걸로 하니까 하다가 그 후에는 이 저 종려나무요, 그런 걸로 해서 또 드려서 하고.)

104006 @ 그 남총을 한 게 멧 살 때쯤이랏수과, 어르신이?(그 종려나무를 한 게 몇 살 때쯤이었습니까, 어르신이?)

104006 #3 에, 남총은 한, 나가 알기로는 한 서른예.(에, 종려나무는 한, 내가 알기로는 한 서른요.)

104006 @ 그때도 남총낭이 잇엇수과?(그때도 종려나무가 있었습니까?)

104006 #3 예, 예. 그때 헤서 남총 헤다근에 또 드려 가지고 이거 허고 그런 정도라서마씨.(예, 예. 그때 해서 종려나무 해다가 또 드려 가지고 이거 하고 그런 정도였어요.)

104006 @ 예.(예.)

104006 #3 거믄 또 이 보섭은 한 해 내지 두 해 쓰면은 몽글아 불어마씨. 게민 교체헤야 헤여. 교체헤야 허고 이 벳은 뭐 저 얼른 다이지 안허니까 흔 대 쓰고 또 물려주는 사름도 잇어마씨.(그럼 또 이 보습은 한 해 내지 두 해 쓰면 닳아 버려요. 그럼 교체해야 해. 교체해야 하고 이 볏은 뭐 저 얼른 닳지 않으니까 한 대 쓰고 또 물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104006 @ 아, 게믄 보섭은 물리는 거 아니과?(아, 그럼 보습은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104006 #3 물리는데 흔 해, 두 해쯤 쓰면 바꽈사 헤여. 뭐 땅이 세 부난게 가단 돌에도 박치고 막 하하하.(물려주는데 한 해, 두 해쯤 쓰면 바꿔야 해. 뭐 땅이 세 버리니까 가다가 돌에도 박치고 마구 하하하.)

---

117) ‘호렝이’는 새끼줄 따위를 꼴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호롱이’, ‘훼롱이’라고도 한다.

104006 @ 맞아, 맞아마씨.(맞아, 맞아요.)

104006 #3 몽글아 부난.(닳아 버리니까.)

104006 @ 게난 요거는 막 대 물리멍 오래 쓰는 건데, 보섭은 경 허는 거마씨?(그러니까 요거는 마구 대 물려주면서 오래 쓰는 건데, 보습은 그렇게 하는 거요?)

104006 #3 예.(예.)

104006 @ 이 잠대 만들 때 이 나무덜은 이건 보통 나무로 다 헷던 거라예?(이 쟁기 만들 때 이 나무들은 이건 보통 나무로 다 했던 거지요?)

104006 #3 이건 보통예. 저 소리낭, 굴무기, 먹사오기 그런 걸로 허여야 이 춤낭이 뒈여서 길다허기 때문에 잘못허면 일로 잘 나가 불어마씨.(이건 보통요. 저 소리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그런 걸로 해야 이 참나무가 되어서 기다랗기 때문에 잘못하면 일로 나가 버려요.)

104006 @ 깨져?(깨져?)

104006 #3 깨어져 불어. 허기 때문에 그런 낭이로 허고, 이것도 그런 낭이로 허연 소낭 같은 건 오래가질 안허난.(깨져 버려. 하기 때문에 이런 나무로 하고. 이것도 그런 나무로 해서 소나무 같은 건 오래가질 않으니까.)

104006 @ 아.(아.)

104006 #3 무쿨, 성에. 이것도 알아짐직 헌디 모르고.(쟁깃술, 성에. 이것도 알 것 같은데 모르고.)

104006 @ 설칫 아니과? 설칫?(한마루 아닙니까? 한마루?)

104006 #3 설치렌 허는가? 맞는 거 같수다. 또, 또 요 끄트머리에 요 영헌 낭이 잇수다.(한마루라고 하는가? 맞는 거 같습니다. 또, 또 요 끄트머리에 요 이러한 나무가 있습니다.)

104006 @ 이거 돌벵이뿔 아니?(이거 까막머리 아니?)

104006 #3 하하하, 돌벵이뿔.(하하하, 까막머리.)

104006 @ 그지예, 나무 영 요만허게 나온 거?(그렇죠. 나무 이렇게 요만하게 나온 거?)

104006 #3 경허난 이 줄이 이디 왕 걸어졍 무끄게 뒈 잇수게.(그러니까 이 줄이 여기 와서 걸려서 묶게 돼 있습니다.)

104006 @ 아. 게난 이건 어쨌든 줄 걸리젠 허는 용도구나예?(아.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줄 걸려고 하는 용도군요?)

104006 #3 걸어졍 이 우로 또 혼 번 무끕니다.(걸려서 이 위로 또 한 번 묶습니다.)

104006 @ 무꺼사. 예.(묶어야. 예.)

104006 #3 돌벵이뿔에 무끄는 줄 헤영.(까막머리에 묶는 줄 해서.)

104006 @ 예, 예. 게난 쉐 질루멍 영 기억나는 일이 잇수과?(예, 예. 그러니까 소 기르면서 이렇게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까?)

104010 #3 기억나는 일은예, 그 옛날에는 할로산에 사계절 놩 내부는 소가 잇어

마씨. 그 저 드릇소.(기억나는 일은요, 그 옛날에는 한라산에 사계절 놔서 내버리는 소가 있어요. 그 저 들소.)

104010 @ 드릇소.(들소.)

104010 #3 드릇소엔도 허고 뭣인엔 헌다만은 여기 보통 여기 사름이 길르는 소 허고 성질이 틀려마씨. 뭐 저 사냥개 닮아마씨. 그 쉐 성질이. 경허난 그런 쉐덜토 또 여기 사다가 잘 길롸서 잘 ᄀᆞ르쳥 허믄 밧도 잘 ᄃᆞᆼ기고 큰 쉐가 뒈는 수가 잇어마씨. 그게 좀 싸마씨.(들소라고도 하고 뭐라고 한다만 여기 보통 여기 사람이 기르는 소하고 성질이 달라요. 뭐 저 사냥개 같아요. 그 소 성질이. 그러니까 그런 소들도 또 여기 사다가 잘 길러서 잘 가르쳐서 하면 밭도 잘 당기고 큰 소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게 좀 싸요.)

104010 @ 음.(음.)

104010 #3 겐데 그런 소덜이 여기 혜근에 잘 못 다니당은 사름이 하나 죽는 건 문제 아니라마씨. 막 사고가 일으켜마씨. 그대론 천냥만냥 사름 가 가민 ᄃᆞᆯ아나불고. 줄 끗엉 ᄃᆞᆯ아나 불고예.(그런데 그런 소들이 여기 해서 잘 못 다니다가는 사람이 하나 죽는 건 문제 아니에요. 막 사고가 일으켜요. 그대론 멀리멀리 사람 가 가면 달아나 버리고. 줄 끌고 달아나 버리고요.)

104010 @ 예, 예.(예, 예.)

104010 #3 그렇게 허기 때문에 그런 산쉐, 드릇소? 그 뭣엔 헤낫는데.(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산소, 들소? 그 뭐라고 했었는데.)

104010 @ 그런 소들은 아예 방목헹 내부는 거라?(그런 소들은 아예 방목해서 내버리는 거야?)

104010 #3 방목헹 내부는 거.(방목해서 내버리는 거.)

104010 @ 집이서 쉐 키울 때 여름에 방목은 안 헤낫수과?(집에서 소 키울 때 여름에 방목은 안 했었습니까?)

104010 #3 방목 헤마씨.(방목 해요.)

104010 @ 어느 기간에 방목을?(어느 기간에 방목을?)

104010 #3 방목은 언제 허는고 허민 오월 그물믄 이제 농서가 다 끝나마씨.(방목은 언제 하는가 하면 오월 저물면 이제 농사가 다 끝나요.)

104010 @ 예, 예.(예, 예.)

104010 #3 끝나면은 오월 혼 스무닷새부터 유월 초, 음력으로 초 닷새 사이에 어느 목장, 고낸 이제 산 멧 번지민 산 멧 번지에 이제 그 고내리 이제 그 출신이 고내 구역에 고내 목장이 있기 때문, 마을에서 운영허는 목장이 있기 때문 거기 강 이제 소 봐 줄 사름이 나타납니다.(끝나면 오월 한 스무닷새부터 유월 초, 음력으로 초 닷새 사이에 어느 목장, 고낸 이젠 산 몇 번지면 산 몇 번지에 이제 그 고내리 이제 그 출신이 고내 구역에 고내 목장이 있기 때문, 마을에서 운영하는 목장이 있기 때문 거기 가서 이제 소 봐 줄 사람이 나타납니다.)

104010 @ 음.(음.)

104010 #3 경허민 한 해 사십 일 내지 한 오십 일 길루는 삭 받젠, 삭 받젠 헤근에 몰아가면은 거기서 인수 받아근에 거기서 고내 부락 한 이천 평, 삼천 평 헌디 담이 이렇게 쌓여 잇어양.(그러면 한 해 사십 일 내지 오십 일 기르는 삯 받으려고, 삯 받으려고 해서 몰아가면 거기서 인수 받아서 거기서 고내 부락 한 이천 평, 삼천 평 한 데 담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104010 @ 음.(음.)

104010 #3 게민 그 주위에 매날 돌면서 그 쉐 파악하고 또 그 안엔 그 자연 수도 잇주만은 물통을 좀, 소 멕이는 물 파 가지고 번번허게 헤서 그 물도 먹엄사 안 먹엄사 허고.(그럼 그 주위에 만날 돌면서 그 소 파악하고 또 그 안엔 그 자연 수도 있지만 물통을 좀, 소 먹이는 물 파 가지고 번번하게 해서 그 물도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하고.)

104010 @ 음.(음.)

104010 #3 또 경허는 동안에 두 덜을 키우는데 대부분은. 소 임제덜은 한 덜쯤 뒈민 영 보레 가마씨.(또 그러는 동안에 두 달을 키우는데 대부분은. 소 임자들은 한 달 쯤 되면 이렇게 보러 가요.)

104010 @ 쉐 보레.(소 보러.)

104010 #3 쉐 동태가 어떵헴신고 헤서. 가다가 이제 나도 한 열, 열일곱, 열으덥쯤 뒌 땐디 아부지가, 나가 샛아덜입주게.(소 동태가 어떠한지 해서. 가다가 이제 나도 한 열, 열일곱, 열여덟쯤 된 땐데 아버지가, 내가 둘째아들이죠.)

104010 @ 음.(음.)

104010 #3 샛아덜이난, 샛놈아 붉아 가건 저 산물 번지 강 쉐 강 봉 오라.(둘째 아들이니까, 둘째야 밝아 가건 저 산물 번지 가서 소 가서 보고 와라.)

104010 @ 아, 하하.(아, 하하.)

104010 #3 영 허는 거라마씨. 그땐 또 유월에는 그 방이 영 안 헤서 초집이 더우니까 마당에 잡니다.(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땐 또 유월에는 그 방이 이렇게 안 해서 초집이 더우니까 마당에 잡니다.)

104010 @ 예, 예.(예, 예.)

104010 #3 멍석 끌아근에.(멍석 깔아서.)

104010 @ 멍석 끌앙. 맞수다, 맞수다 멍석 끌앙.(멍석 깔아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멍석 깔아서.)

104010 #3 자는디 시계도 엇고 헌 때 자단 벌떡 깨어나니까, 아이고, 아부지 쉐 강 봉 오렌 헷는데. 간다고 그대로 혼자 뛰는 거라마씨. 혼자 뛰는데.(자는데 시계도 없고 한 때 자다가 벌떡 깨어나니까, 아이고, 아버지 소 가서 보고 오라고 했는데. 간다고 그대로 혼자 뛰는 거지요. 혼자 뛰는데.)

104010 @ 몇 시 뒌 줄도 몰랑?(몇 시 된 줄도 몰라서?)

104010 #3 예. 그 대략 길은 쪼끔 아는 거라마씨. 아는데 여기서 산물 번지 가젠 허믄 한 육, 칠 키로 뒐 거우다.(예. 그 대략 길은 조금 아는 거예요. 아는데 여

기서 산물 번지 가려고 하면 한 육, 칠 킬로미터 될 겁니다.)

104010 @ 산물 번진 어느 지경이과?(산물 번진 어느 지경입니까?)

104010 #3 저 상가[118] 알아마씨?(저 상가 알아요?)

104010 @ 예.(예.)

104010 #3 그 우에 쭉 올라간 디라마씨.(그 위에 쭉 올라간 데예요.)

104010 @ 아.(아.)

104010 #3 어디 그 큰바르메[119] 앞쯤 뒈지 안허카 허는데.(어디 그 '큰바르메' 앞쯤 되자 않을까 하는데.)

104010 @ 예.(예.)

104010 #3 한 번은 이거 우스운 말이우다만은 뛰어가단 보난양 가시왓 트멍에 들어가젼. 붉기 전에양.(한 번은 이거 우스운 말입니다만 뛰어가다가 보니까 가시밭 틈에 들어갔어. 밝기 전에요.)

104010 @ 음.(음.)

104010 #3 겐 영 붉앙 보난 그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가시밧디 들어강 그런 고통도 겪은 적이 잇엇수다.(그래서 이렇게 밝아서 보니까 그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가시밭에 들어가서 그런 고통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104010 @ 하하.(하하.)

104010 #3 경허난 붉으난 갓다 완 아부지신디 말씀 드리고 그런 시절도 겪엇수다.(그러니까 밝으니까 갔다 와서 아버지에게 말씀 드리고 그런 시절도 겪었습니다.)

104010 @ 아, 예.(아, 예.)

104010 #3 경허난 스물하나에 나 군인 갓는데 열다섯 넘엉 스물 나니까양 무서운 디가 어십디다. 날개 시면 날 정도, 그런 정도로 헨 스물하나 나는 해엔 군대 들어가십주게. 군대 들어간 육군 본부 통신대에서 오 년 근무헷수다. 흔 자리에서.(그러니까 스물하나에 나 군인 갔는데 열다섯 넘어서 스물 되니까 무서운 데가 없습디다. 날개 있으면 날 정도, 그런 정도로 해서 스물하나 되는 해엔 군대 들어갔습니다. 군대 들어가서 육군 본부 통신대에서 오 년 근무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104010 @ 오 년을마씨?(오 년을요?)

<중략>

104004 @ 쉐 이제 밧 갈젠 허민 질들여야 뒐 거 아니마씨?(소 이제 밭 갈려고 하면 길들여야 될 거 아니요?)

104004 #3 예, 예.(예, 예.)

104004 @ 게난 아까 사릅 뒐 때 연습을 시키잖아예?(그러니까 아까 사릅 될 때 연습을 시키잖아요?)

104004 #3 예.(예.)

---

118) '상가'는 제주시 애월읍 행정 마을 중의 하나인 '상가리'를 말한다.

119) '큰바르메'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위치한 오름이다.

104004 @ 게민 쉐 밧갈쉐로 키우젠 질들일 때 어떵 허멘마씨?(그럼 소 '밧갈쉐'로 키우려고 길들일 때 어떻게 해요?)

104004 #3 잘 물엄수다. 밧 갈 때 뒈믄 사릅에 사다근에양 겨울에 콩죽 쑤면서 한 메틀, 한 보름간 한 영 멧 사발썩 멕입네다. 게믄 사릅, 나릅 나는 달 한 삼월쯤 나민 풀 멕이민 쉐가 막 할랑할랑[120]허게 살찝니다.(잘 묻습니다. 밭 갈 때 되면 사릅에 사다가 겨울에 콩죽 쑤면서 한 며칠, 한 보름간 한 이렇게 몇 사발씩 먹입니다. 그럼 사릅, 나릅 되는 달 한 삼월쯤 되면 풀 먹이면 소가 아주 '할랑할랑'하게 살찝니다.)

104004 @ 예.(예.)

104004 #3 경헤근에 밧 갈아짐 직허믄 쉐 이제 코 뀁니다.(그래서 밭 갈 수 있음 직하면 소 이제 코 뀁니다.)

104004 @ 음.(음.)

104004 #3 말을 안 들으니까 코를 뀌마씨. 나무에 돌아메근에 멕바농[121] 곶다근에 이제.(말을 안 들으니까 코를 뀌어요. 나무에 달아매서 '멕바농' 갖다가 이제.)

104004 @ 멕바농으로?('멕바농'으로?)

104004 #3 멕바농이로 이제 끄내기 헤근에 콜 뀌마씨. 콜 뀌근에 이젠 영 헤근에 놈 허는 거 보아다근에 영 헤영 허믄, 이젠 쉔 ᄀᆞ르치젠 허믄, 아무 것도 안 허는 사름도 국민학교 가젠 허믄 아무 것도 안 헤나니까 서툴지 안헙니까?('멕바농'으로 이제 끈 해서 콜 뀌어요. 콜 뀌어서 이젠 이렇게 해서 남 하는 거 봤다가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젠 손 가르치려고 하면, 아무 것도 안 허는 사람도 국민학교 가려고 하면 아무 것도 안 했었으니까 서툴지 않습니까?)

104004 @ 예.(예.)

104004 #3 쉐도 마찬가집니다.(소도 마찬가집니다.)

104004 @ 예.(예.)

104004 #3 마찬가지로 이젠, 멍엔 그건 다 가트고 이 쟁기만 이젠 그 저 오리목[122]에 돌을 요만이헌 거 헤 가지고 흔 사람, 힘 좋은 사름 지을 정도로 그것에 돌에 궁길 뚤라마씨.(마찬가지고 이젠, 멍엔 그건 다 같고 이 쟁기만 이젠 그 저 '오리목'에 돌을 요만한 거 해 가지고 한 사람, 힘 좋은 사람 지을 정도로 그것에 돌을 구멍 뚫어요.)

104004 @ 음.(음.)

104004 #3 궁길 뚤라 가지고 베로 영 걸어근에 그 오리목에다가 걸어마씨. 걸어근에 이젠 쉐를 몰면은 쉐가 제멋대로 하늘꺼지 들려켜마씨. 경헤근에 흔 사흘 허민 쉐가 좀 수근허게 이제 누그러져마씨.(구멍 뚫어 가지고 참바로 이렇게 걸어서 그 '오리목'에다가 걸어요. 걸어서 이젠 소를 몰면 소가 제멋대로 하늘까지 날뛰어요. 그래서 한 사흘 하면 소가 좀 수굿하게 이제 누그러져요.)

---

120) '할랑할랑'은 소가 통통하게 살찐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121) '멕바농'은 멱둥구미가 떨어질 적에 귀에 가는 새끼 따위를 꿰어서 얽어매는 큰 바늘을 말한다.
122) '오리목'은 봇줄 끝에 매어진 나무와 쟁기의 성에와의 사이에 잇대어 매는 줄을 말한다.

104004 @ 음.(음.)

104004 #3 누그려진 다음은 이젠 그 나무를 두 발 정도 뭔 거 이만이 살진 거예.(누그러진 다음은 이젠 그 나무를 두 발 정도 된 거 이만큼 살진 거요.)

104004 @ 예, 예.(예, 예.)

104004 #3 그걸 메와 가지고 그걸 헤근에 허면 흔 사흘간 끗읍니다. 게민 쉐가 이제 막 어느 정도 질들어 가.(그걸 메워 가지고 그걸 해서 하면 한 사흘간 끕니다. 그럼 소가 이제 아주 어느 정도 길들어 가.)

104004 @ 아.(아.)

104004 #3 질들어 가근에 어질고 헤여 가믄 이젠 쟁길 메와 가지고 단번에 곧장 안 갑주게. 경허민 이제 집이 사름 보고 쉘 이끄라고 말이지.(길들어 가서 어질고 해 가면 이젠 쟁길 메워 가지고 단번에 곧장 안 가지요. 그럼 이제 집사람 보고 솔 이끌라고 말이지.)

104004 @ 예.(예.)

104004 #3 쉐뿔에 석 끼와 가지고.(소뿔에 석 끼워 가지고.)

104004 @ 쉐석[123].(소굴레.)

104004 #3 영 좁아뎅기믄 쉐가 그대로 갑니까? 안 가지. 이레도 갓당 저레도 갓당 허믄 이레 가저 허믄 가린석 이쪽 좁아뎅기곡 이쪽 허면 이레 좁아뎅기곡. 그렇게 허면서 한 삼사 일, 한 오 일 헤 가믄 어느 정도 쉐도 영 눈치 알아 가지고 그자 사람 앞이만 사도 뜨라가마씨.(이렇게 잡아당기면 소가 그대로 갑니까? 안 가지. 이리도 갔다가 저리도 갔다가 하면 이리 가지 하면 고삐 이쪽 잡아당기고 이쪽 하면 이리 잡아당기고. 그렇게 하면서 한 삼사 일, 한 오 일 해 가면 어느 정도 소도 이렇게 눈치 알아 가지고 그저 사람 앞에만 서도 따라가요.)

104004 @ 아.(아.)

104004 #3 뜨라가다근에 이젠 한 일주일, 열흘 뒈 가믄 사름 없이 헤도 밧 영 흔 번 고지 터 가민 돌아올 땐 또 그 고지 터 간 것이 거멍허지 안협니까?(따라가다가 이젠 한 일주일, 열흘 돼 가면 사람 없이 해도 밭 이렇게 한 번 이랑 터 가면 돌아올 땐 또 그 이랑 터 간 것이 거멓지 않습니까?)

104004 @ 예.(예.)

104004 #3 그 줄기로 어느 정도 따라다녀마씨.(그 줄기로 어느 정도 따라다녀요?)

104004 @ 아.(아.)

104004 #3 경허영 흔 열흘 정도 뒈민 어느 정도 소소헌 밧은 갊 시작허는 거라마씨.(그러해서 한 열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소소한 밭은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104004 @ 게난 처음에는 쟁기 안 메왕 오리목에 돌 얹엉.(그러니까 처음에는 쟁기 안 메워서 '오리목'에 돌 얹어서.)

104004 #3 돌 그 버금은 나무. 건 웨 그런고 허게 뒈믄 어린 송아지덜 헤영 경

123) '쉐석'은 소의 대가리를 걸려 잡아매어 끄는 줄을 말한다. '소굴레'에 해당한다.

헤 놓믄 막 천 냥 만 냥 들러큅주게.(돌 그 버금은 나무. 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어린 송아지들 해서 그러해 놓으면 천 냥 만 냥 날뛰지요.)

104004 @ 예.(예.)

104004 #3 게난 쟁기 메우민 천 냥 만 냥 부수와 불어. 게난 낭 헤서 뛸 대로 뛰라 힘 겝기는[124] 겁주게.(그러니까 쟁기 메우면 천 냥 만 냥 부숴 버려. 그러니까 나무 해서 뛸 때로 뛰어라 힘 '겝기'는 거지요.)

104004 @ 아, 예.(아, 예.)

104004 #3 경허난 처음엔 돌 메왕 흔 이틀 허당 그 버금은 낭 메왕 흔 사흘 허당 그 버금은 이젠 쟁기 메와근에 이끄곡 헤여근에 좋은 밧디 가근에 갊 시작헤십주.(그러니까 처음엔 돌 메워서 한 이틀 하다가 그 버금은 나무 메워서 한 사흘 하다가 그 버금은 이젠 쟁기 메워서 이끌고 해서 좋은 밭에 가서 갈기 시작했지요.)

말 기르기

104014 @ 예, 예. 혹시 말, 아까 쉐 나이가 잇어낫잖아예?(예, 예. 혹시 말, 아까 소 나이가 있었잖아요?)

104014 #3 예, 예.(예, 예.)

104014 @ 물도 나이가 이신 거 알아지쿠과?(말도 나이가 있는 거 알겠습니까?)

104014 #3 물은 잘 몰라마씨. 물은 뭐 소제 붙엉. 일 손가 이 손가 그런.(말은 잘 몰라요. 말은 뭐 소자 붙어서. 일 손가 이 손가 그런.)

104014 @ 이수, 삼수?(이수, 삼수?)

104014 #3 예, 예 그런.(예, 예 그런.)

104014 @ 금숭은 같고예. 이수, 삼수, 사수.(하릅은 같고요. 두습, 사릅, 나릅.)

104014 #3 예, 예. 그 안 길롸나불기 따문에 그, 잘 모르쿠다.(예, 예. 그 안 길렀었기 때문에 그, 잘 모르겠습니다.)

먹이

104016 @ 그럼 이제 쉐 기를 때, 쉐 질루젠 허민 이제 먹이 헤얄 거 아니과예?(그럼 이제 소 기를 때, 소 기르려고 하면 이제 먹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104016 #3 예, 예.(예, 예.)

104016 @ 먹이는 어떤 거 헤낫수과?(먹이는 어떤 거 했었습니까?)

104016 #3 먹이는예.(먹이는요.)

104016 @ 쉐 먹이?(소 먹이?)

104016 #3 이제 팔월 추석 뒈지 안헙니까양?(이제 팔월 추석 되지 않습니까?)

104016 @ 예.(예.)

104016 #3 이제 팔월 추석 뒈면은 그 빨리 출리는 사름은 추석 ᄉᆞ시부터 어 입추 칠월절 들어근에 헤 가게 뒈믄 산에 가근에 자기 그 이제 촐왓 십니다게.(이제

124) '겝기다'는 힘이나 기운 따위를 몸에서 없어지게 하는 것으로 힘을 '빼다'의 의미다.

팔월 추석 되면 그 빨리 차리는 사람은 추석 사시부터 어 입추 칠월절 들어서 해 가게 되면 산에 가서 자기 그 이제 꼴밭 있습니다.)

104016 @ 음.(음.)

104016 #3 촐왓디 가근에 비여근에, 놉 빌엉 가근에 비여근에 혼 댓썩 빌어근에 비여근에 아침에 가믄 점심 멕이고 헤근에 비영 거기 이제 물류왕 무껑 눌엇당 이젠 시꺼당 집이 왕 또 눌 누는 거라마씨.(꼴밭에 가서 베여서, 놉 빌려서 가서 베어서 한 댓씩 빌려서 베어서 아침에 가면 점심 먹이고 해서 베어서 거기 이제 말려서 묶어서 가렸다가 이젠 실어다가 집에 와서 또 가리 가리는 거예요.)

104016 @ 음.(음.)

104016 #3 눌 눌어 둠서 혼 뭇썩 경 빠멍 주는 거라마씨. 경허면서 이젠 또 경 헤 놓민 퉤비가 이제 만이 나올 거 아니과?(가리 가려 두면서 한 뭇씩 그렇게 빼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젠 또 그래 놓으면 퇴비가 이제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104016 @ 예.(예.)

104016 #3 게민 퉤비도 이제 혼 덜에 시믄 혼 덜에 혼 번은 내영 어드레 데멋당, 그거 헤근에 이제 농서질 때 밧디 시꺼 가긴에, 져 가고, 시꺼 가긴에 쉐로 이제 저 질메 지와근에 시꺼가고 경 헤근에 농서짓고.(그럼 퇴비도 이제 한 달에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은 내서 어디 쟁였다가, 그거 해서 이제 농사질 때 밭에 실어 가서 져 가고, 실어 가서 소로 이제 저 길마 지워서 실어가고 그렇게 해서 농사짓고.)

104016 @ 음.(음.)

104016 #3 경허난 쉐 길루젠 허민 그 촐 헤 들이는 거양,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우다.(그러니까 소 기르려고 하면 그 꼴 해 들이는 거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104016 @ 보통 일 아니라예?(보통 일 아니지요?)

104016 #3 보통 일이 아니우다.(보통 일이 아닙니다.)

104018 @ 그 촐 허젠 허민 이젠 팔월? 음력 팔월 뒈민 비레 갈 거라예?(그 꼴 하려고 하면 이젠 팔월? 음력 팔월 되면 베러 갈 거지요?)

104018 #3 예, 예.(예, 예.)

104018 @ 놉 빌엉 가는 것과?(놉 빌려서 가는 겁니까?)

104018 #3 놉 빌엉 가는 거. 겨난 쪼금 헌 거 허주만은 경 안 헌 건 놉 빌엉 안 가게 뒈민. 경허당 비가 맞아 불믄 그것이 터 불어마씨. 겐 쉐가 안 먹어.(놉 빌려서 가는 거. 그러니까 조금 한 거 하지만 그렇게 안 한 건 놉 빌려서 안 가게 되면. 그러다가 비가 맞아 버리면 그것이 터 버려요. 그래서 소가 안 먹어.)

104018 @ 아.(아.)

104018 #3 경허난 날 좋은 때에 일기 잘 들으면서 오널 비면은 낼, 모리는 무끄는 거라마씨. 거 저 하늬ᄇᆞ름 올라오기 전이.(그러니까 날 좋은 때에 일기 잘 들으면서 오늘 베면 낼, 모레는 묶는 거예요. 거 저 하늬바람 올라오기 전에.)

104018 @ 그럼 한 이틀은 몰리는 거다예?(그럼 한 이틀은 말리는 거네요?)

104019 #3 예. 흔 사흘 몰라와근에 허믄 확 놉 빌엉 강 무꺼근에 거기 눌어 두는 거라.(예. 한 사흘 말려서 하면 확 놉 빌려서 가서 묶어서 거기 가려 두는 거야.)

104019 @ 예.(예.)

104019 #3 지금 가트면 구루마 이제 차 거튼 거 시난 확 시꺼당 눌어 불민 뒈는디 그 당시만 헤도 차가 잇수과게. 쉐에 질메 지왕 가근에 이제 출 시껑 운반허는 사람. 또 대부분 그거라마씨 소로양.(지금 같으면 수레 이제 차 같은 거 있으니까 확 실어다가 가려 버리면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차가 있습니까. 소에 길마 지워서 가서 이제 꼴 실어서 운반하는 사람. 또 대부분 그거예요. 소로요.)

104019 @ 예.(예.)

104019 #3 헤근에. 그 당시엔 니야까, 구루마 그런 것도 엇고.(해서. 그 당시엔 리어카, 수레 그런 것도 없고.)

104018 @ 게민 촐 비젠 허민 뭐로 빌 것과?(그럼 꼴 베려고 하면 뭐로 벨 겁니까?)

104018 #3 호미로게.(낫으로.)

104018 @ 여긴 낫[125] 안 비엇수과?(여긴 '낫' 안 베었습니까?)

104018 #3 호미, 호미.(낫, 낫.)

104018 @ 그니까, 그니까. 호민 산디 비는, 보리 비는 호미 얘기 허는 거 아니예?(그러니까, 그러니까. 낫은 밭벼 베는, 보리 베는 낫 얘기 하는 거 아니요?)

104018 #3 예, 예.(예, 예.)

104018 @ 그거 말고 긴 낫 안 썻수과? 촐 빌 때 쓰는 낫?(그거 말고 긴 '낫' 안 썼습니까? 꼴 벨 때 쓰는 '낫'?)

104018 #3 육지는 어떵헷는디 여기 다 이런 거게. 요거 영 영 영, 영 영.(육지는 어떠했는지 여기 다 이런 거. 요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04018 @ 아. 게민 그 촐 비는 거 남자, 여자 상관엇겟다예?(아. 그럼 그 꼴 베는 거 남자, 여자 상관없겠네요?)

104018 #3 상관없이게 놉 빌엉 가곡게.(상관없이 놉 빌려서 가고.)

104018 @ 놉 빌엉 가고마씨. 아, 경헤난, 그민 어무니도 ᄀᆞ치 촐 비여나고마씨?(놉 빌려서 가고요. 아, 그러니까, 그럼 어머니도 같이 꼴 베어나고요?)

104018 #3 ᄀᆞ치 강 비주. 거 어떵헙니까?(같이 가서 베지. 거 어떡합니까?)

104018 @ 저가예, 저가 원래가 고향이 한동이우다. 구좌읍 한동마씨.(제가요, 제가 원래가 고향이 한동입니다. 구좌읍 한동요.)

104018 #3 아, 예.(아, 예.)

104018 @ 송당 밑에. 거난 우리도 쉐 한 일고여덥 개 질롸신디 우리는 여자는 촐 안 빕니다.(송당 밑에. 그러니까 우리도 소 한 일고여덟 개 길렀는데 우리는 여자는 꼴 안 벱니다.)

---

125) 여기서 '낫'은 곧장 서서 꼴 같은 것을 베는 자루가 긴 낫을 말한다.

104018 #3 아.(아.)

104018 @ 남자덜이 낫 가져 강 삭 비영 허민 여자덜이 그거 가 가지고 무끌 때만 헤 가지고.(남자들이 '낫' 가져 가서 삭 베어서 하면 여자들이 그거 가 가지고 묶을 때만 헤 가지고.)

104018 #3 데쓰다이[126]만 헴구나?(돕기만 하고 있구나?)

104018 @ 무끌 때는 다 여자덜이. 남자들은 비는 것만 허고.(묶을 때는 다 여자들이. 남자들은 베는 것만 하고.)

104018 #3 아, 여자덜이 무껑? 무끄는 건?(아, 여자들이 묶어서? 묶는 건?)

104018 @ 예. 무끄고, 날르고. 눌 때만 아부지가 가 가지고 눌고예. 여자덜이 다 무껑 모당 올려 주민.(예. 묶고 나르고. 가릴 때만 아버지가 가 가지고 가리고요. 여자들이 다 묶어서 모아서 올려 주면.)

104018 #3 아, 예.(아, 예.)

104018 #4 우리는 놉 빌엉 강, 아침 혼 ᄋᆞ섯 시 뒈민 걸엉 저 땅동산[127]이엔 헌 디 저 웃드리[128]레 가는 디 저 땅동산이엔 헌 디 한두 시간 정도 걸엉강. 이제 호미로 다 비엇주게.(우리는 놉 빌려서 가서, 아침 한 여섯 시 되면 걸어서 저 '땅동산'이라고 하는 데 저 '웃드리'로 가는 데 저 '땅동산'이라고 하는 데 한두 시간 정도 걸어가서. 이제 낫으로 다 베었지.)

104018 @ 호미로 다 비엿던 거라예. 게민 ᄆᆞᆯ르민, 촐 비여난 거 혼 사흘 ᄆᆞᆯ류왕 무끈덴 헷잖아예?(낫으로 다 베었던 거지요. 그럼 마르면, 꼴 베었던 거 한 사흘 말려서 묶는다고 했잖아요?)

104018 #3 예.(예.)

104018 @ 무끌 때는 뭐로 무끕니까?(묶을 때는 뭐로 묶습니까?)

104018 #4 아, 그건 그걸로, 그걸로.(아, 그건 그걸로, 그걸로.)

104018 #3 촐로. 촐로 영 헤영.(꼴로. 꼴로 이렇게 해서.)

104018 @ 지께[129] 헤가지고예?('지께' 해 가지고요?)

104018 #3 예, 예.(예, 예.)

104018 @ 게민 보통 하루 가민 혼 사름이 몇 뭇 정도나 비여집니까?(그럼 보통 하루 가면 한 사람이 몇 뭇 정도나 벨 수 있습니까?)

104018 #3 글쎄예. 저 뭐.(글쎄요. 저 뭐.)

104018 #4 서른 뭇이 한 바린가, 멧 뭇이 혼 바리라?(서른 뭇이 한 바린가, 몇 뭇이 한 바리야?)

104018 #3 예순 뭇, 예순 뭇.(예순 뭇, 예순 뭇.)

104018 #4 예순 뭇.(예순 뭇.)

104018 @ 아, 여기 뭇, 뭇 쪽다예?(아, 여기 뭇, 뭇 작네요?)

---

126) '데쓰다이'는 일본어 'てつだい(手伝い)'로 '도움'이라는 의미다.
127) '땅동산'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지명의 하나다.
128) '웃드리'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 이루어진 마을을 말한다.
129) '지께'는 곡식이나 꼴단 따위를 묶을 때 쓰는 매끼를 그 곡식이나 꼴 줄기를 틀어 만든 것을 말한다.

104018 #4 예, 요만씩.(예, 요만큼씩.)

104018 @ 아, 요만씩베끼 안 헤? 겐 예순 못이 한 바리라?(아, 요만큼씩밖에 안 해? 그래서 예순 뭇이 한 바리야?)

104018 #3 예, 예.(예, 예.)

104018 @ 아, 쪽구나.(아, 작구나.)

104018 #4 게민 한 두어 바리 비는가?(그럼 한 두어 바리 베는가?)

104018 #3 두 바리, 두 바리.(두 바리, 두 바리.)

104018 @ 아, 완전 쪼그만허게 무끄는구나.(아, 완전 자그마하게 묶는구나.)

104018 #4 흔 요만썩 헤여. 석 줌, 석 줌 헤여근에.(한 요만큼씩 해. 석 줌 석 줌 해서.)

104018 @ 게민 요만썩인게.(그럼 요만큼씩이네요.)

104018 #4 이레 석 줌, 이레 석 줌, 으섯 줌 헤여근에.(이리 석 줌, 이리 석줌, 여섯 줌 해서.)

104018 @ 예.(예.)

104018 #4 경헨 그 촐로 요 영 헹 데와근에 영헤영 영 무끄젠 허믄 경 하영 무꺼져게? 그 비여 논 걸로 영 영 헤근에 똑 무끄젠 허믄.(그래서 그 꼴로 요 이렇게 해서 틀어서 이러해서 이렇게 묶으려고 하면 그렇게 많이 묶을 수 있어? 그 베어 놓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톡 묶으려고 하면.)

104018 @ 아.(아.)

104018 #4 하영 못 무끄주게.(많이 못 묶지.)

104018 @ 하영 못 무꺼?(많이 못 묶어?)

104018 #4 그것에서 쪼금 긴 걸로 영 데와근에 허믄.(그것에서 조금 길 걸로 이렇게 틀어서 하면.)

104018 @ 예, 예.(예, 예.)

104018 #4 경 허여.(그렇게 해.)

104019 @ 게민 이제 다 무껑 모다지난 눌 눌 거 아니, 거기예?(그럼 이제 다 묶어서 모으면 가리 가릴 거 아니, 거기요?)

104019 #3 예, 예.(예, 예.)

104019 @ 눌 눌민 영 더플 때는 뭐로 더퍼? 영 지붕을 만들어야 헐 거 아니?(가리 가리면 이렇게 덮을 때는 뭐로 덮어?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

104019 #3 예, 예.(예, 예.)

104019 #4 그때는 어욱.(그때는 억새.)

104019 @ 어욱.(억새.)

104019 #4 으, 어욱 비영 놧당 걸로 더끌 거.(으, 억새 베어 놨다가 걸로 덮을 거.)

104019 #3 어욱 비영 놧당 허고 또 저 ᄂᆞ람쥐라고양.(억새 베어 놨다가 하고 또 저 이엉이라고요.)

104019 @ 예.(예.)
104019 #3 새로 영.(새로 이렇게.)
104019 #4 건 집이 왕 헐 거고 밧디서는 그냥.(건 집에 와서 할 거고 밭에서는 그냥.)
104019 #3 어욱 주로 밧디선.(억새 주로 밭에선.)
104019 #4 새로 헹 ᄂᆞ람쥐.(새로 해서 이엉.)
104019 @ ᄂᆞ람쥐.(이엉.)
104019 #3 예.(예.)
104019 @ 촐 눌도 ᄂᆞ람쥐로 헙니까?(꼴 가리도 이엉으로 합니까?)
104019 #4 으, ᄂᆞ람쥐로 더끌 거.(으, 이엉으로 덮을 거.)
104019 #3 밧디서는 주로 어욱 비여근에 주로 더퍼 둡니다. 어욱 비여근에.(밭에서는 주로 억새 베어서 주로 덮어 둡니다. 억새 베어다가.)
104019 #4 건 밧디서 더플 때 경허고 집이 올 때 새로 허곡게.(건 밭에서 덮을 때 그러고 집에 올 때 새로 하고.)
104019 #3 새로 ᄂᆞ람쥐 여껑 놧당.(새로 이엉 엮어 놨다가.)
104019 #4 여껑.(엮어서.)
104019 @ 게민 촐 눌이 막 크지 안헷수다예?(그럼 꼴 가리 아주 크지 않았네요?)
104019 #3 아이, 크는 집인 커마씨.(아니, 큰 집은 커요.)
104019 #4 쉐가 만허민 크곡.(소가 많으면 크고.)
104019 @ 그민 막 큰 디도 ᄂᆞ람쥐로 다 더꺼져?(그럼 아주 큰 데도 이엉으로 다 덮을 수 있어?)
104019 #4 으, 다 ᄂᆞ람쥐.(으, 다 이엉.)
104019 #3 예.(예.)
104019 #4 혼두 판이, 세 판이 헤여근에. 것도 새 한두 뭇 정도 허믄 한 판이.(한두 판, 세 판 해서. 것도 새 한두 뭇 정도 하면 한 판.)
104019 @ 예.(예.)
104019 #4 경허믄 크믄은 만이 더끄곡.(그러면 크면 많이 덮고.)
104019 @ 혼 판이라고 헌 게 어떤 것과?(한 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104019 #3 새를 두 뭇 정도 허영 ᄂᆞ람쥐를 여끄주게.(띠를 두 뭇 정도 해서 이엉을 엮어.)
104019 @ 예.(예.)
104019 #4 여기서 거트믄 새를 영 헤근에 영 영 영 영 허게시리 여꺼 가는 거라.(여기서 같으면 띠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게끔 엮어 가는 거야.)
104019 @ 예, 예.(예, 예.)
104019 #4 그추룩 기추룩 헤여근에 허믄 혼 새 혼 뭇, 두 뭇 헤사 혼 판인 허는

가?(그처럼 그처럼 해서 하면 한 띠 한 뭇, 두 뭇 해야 한 판 하는가?)

104019 #3 두 뭇 헤사 흔 판이. 두 뭇 여끄믄.(두 뭇 해야 한 판. 두 뭇 엮으면.)

104019 @ 그니까 이렇게?(그러니까 이렇게?)

104019 #4 이만이 새 뭇은 이만이.(이만큼 띠 뭇은 이만큼.)

104019 @ 아, 새 뭇은 이만이.(아, 띠 뭇은 이만큼.)

104019 #4 으.(으.)

104019 @ 게민 새 뭇은 몇 뭇이 한 바리라?(그럼 띠 뭇은 몇 뭇이 한 바리야?)

104019 #4 건 바리 엇어.(바리 없어.)

104019 @ 건 바리 엇어마씨?(건 바리 없어요?)

104019 #4 건 뭇, 멧 뭇.(건 뭇, 몇 뭇.)

104019 @ 이만이 헌 게?(이만큼 한 게?)

104019 #4 한 뭇.(한 뭇.)

104019 @ 흔 뭇.(한 뭇.)

104019 #4 거 두 개 정도.(거 두 개 정도.)

104019 @ 두 개 정도 허면 영 여끄면 질게, 한 요 정도 뒈겟다예?(두 개 정도 하면 이렇게 엮으면 길게, 한 요 정도 되겠네요?)

104019 #4 무신. 여기 거 거트믄.(무슨. 여기 거 같으면.)

104019 @ 한참?(한참?)

104019 #3 흔 너 발.(한 너 발.)

104019 @ 너 발?(너 발?)

104019 #4 두 발이 무시거라게. 이디서 허민 저 우리 저 마당까지나 가사주.(두 발이 무엇이라. 여기서 하면 저 우리 저 마당까지나 가야지.)

104019 #3 흔 너 발, 닷 발쯤 헤여마씀.(한 너 발, 닷 발쯤 해요.)

104019 #4 요만썩 줴여.(요만큼씩 쥐어.)

104019 @ 예.(예.)

104019 #3 촐 눌이 클 때는 흔두 번은 돌아오주기게.(꼴 가리 클 때는 한두 번은 돌아오지.)

104019 @ 아.(아.)

104019 #4 으, 음. 두어 번 돌아야 헐 거주게. 큰 눌도.(으, 음. 두어 번 돌아야 할 거지. 큰 가리도.)

104019 @ 게민 여기 쉐 하영 질루는 집도 눌은 다 동글랑허게 만들앗구나.(그럼 여기 소 많이 기르는 집도 가리는 다 동그랗게 만들었구나.)

104019 #3 예, 예.(예, 예.)

104019 #4 으, 그걸로. 막 큰 눌은 흔 세 판이도 더끄곡, 두 판이도 더끄곡 새 두 못 헤영 흔 판이 만들엉. 경헌디 줴기는 흔 이만썩베끼 안 줴여, 줴는 거는. 요 뭇은.(으, 그걸로. 아주 큰 가리는 한 세 판도 덮고, 두 판도 덮고 띠 두 뭇 해서 한

판 만들어서. 그런데 쥐기는 한 이만큼씩밖에 안 쥐어, 쥐는 거는. 요 뭇은.)

104019 @ 알아지쿠다. 한 요 정도민 한 번 꼬으고.(알겠습니다. 한 요 정도면 한 번 꼬고.)

104019 #4 한 번 꼬으고 또 한 번 꼬으고. 겐 이것이 메기면 또 잇어근에 또 흔 번 꼬으고. 흔 번 꼬으고. 경 여껴 갈 거 아니가게?(한 번 꼬고 또 한 번 꼬고.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또 이어서 또 한 번 꼬고. 한 번 꼬고. 그렇게 엮어 갈 거 아니냐?)

104019 @ 예, 예. 아, 경헨 다 ᄂᆞ람쥐 만들암구나?(예, 예. 아, 그래서 다 이엉 만들고 있구나?)

104019 #4 으, ᄂᆞ람쥐 만들앙 촐 눌 더프는 거.(으, 이엉 만들어서 꼴 가리 덮는 거.)

104019 @ 촐 눌 더프는 거예?(꼴 가리 덮는 거요?)

104019 #4 으, 경허여 엿날엔.(으, 그랬어 옛날엔.)

104019 @ 게난 서쪽이랑 동쪽도 달라마씨. 우리 동쪽에서는 저기 촐 눌 헐 때는 ᄂᆞ람쥐 안 헹 헙디다. 웨냐면 촐 눌이 워낙에 길고예.(그러니까 서쪽이랑 동쪽도 달라요. 우리 동쪽에서는 저기 꼴 가리 할 때는 이엉 안 하고 합디다. 왜냐하면 꼴 가리가 워낙에 길고요.)

104019 #3 길게.(길게.)

104019 #4 으, 그추룩 허드라.(으, 그처럼 하더라.)

104019 @ 길게 헤마씨.(길게 해요.)

104019 #3 아.(아.)

104019 #4 길게 기냥.(길게 그냥.)

104019 @ 이렇게 동그랑허게 데미질 안허고 길게 데멍. 빨 때도 끝에서부떠 빠.(이렇게 동그랗게 쟁이질 않고 길게 쟁여서. 뺄 때도 끝에서부터 빼.)

104019 #3 아, 아. 한쪽으로?(아, 아. 한쪽으로?)

104019 @ 한쪽으로 빠. 게난 촐 눌이 점점 점점 없어지는 거마씨. 게난 우이 다 새로.(한쪽으로 빼. 그러니까 꼴 가리가 점점 점점 없어지는 거요. 그러니까 위에 다 띠로.)

104019 #4 으, 여기는 셋으로 욜로도 빠곡 욜로도 빠곡 욜로도 빠곡. 촐이 내중에 엇어져 갈 거 아니가게. 납작헤 가근에.(으, 여기는 셋으로 욜로도 빼고 욜로도 빼고 욜로도 빼고. 꼴이 나중에 없어져 갈 거 아니냐. 납작해 가서.)

104019 @ 알아지쿠다, 알아지쿠다. 경허난. 아, 다른 거다예. 그럼 이젠 날라 오젠 허면 다 졍 왓수과?(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다른 거네요. 그럼 이젠 날라 오려고 하면 져서 왔습니까?)

104019 #4 으, 다 졍 와. 질러레 내청.(으, 다 져서 와. 길로 내쳐서.)

104019 #3 주로 그 쉐 시꺼마씨. 질메 지와근에.(주로 그 소 실어요. 길마 지워서.)

104019 @ 질메 지왕?(길마 지워서?)

104019 #3 경헨 이제 한쪽에 한 저 에, 한 마흔 뭇 시믄 여든 뭇쯤 허곡.(그래서 이제 한쪽에 한 저 에, 한 마흔 뭇 있으면 여든 뭇쯤 하고.)

104019 @ 예.(예.)

104019 #3 촐 흔 바리썩양.(꼴 한 바리씩요.)

104019 @ 예.(예.)

104019 #3 겐 주로 쉐로 많이 경 운반헤마씨.(그래서 주로 소로 많이 그렇게 운반해요.)

104019 #4 겐디 내중에라 가니까 이제 경운기 나니까.(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이제 경운기 나니까.)

104019 @ 예.(예.)

104019 #3 경운기 나난.(경운기 나니까.)

104019 #4 길 내쳐근에.(길 내쳐서.)

104019 #3 한량이랏주.(한량이었지.)

104019 @ 기주, 편헷지예?(그렇지, 편했지요?)

104019 #4 경운기 내쳐근에. 우리 시대 뒈 가난 정운기로 헷어.(경운기 내쳐서. 우리 시대 돼 가니까 경운기로 했어.)

104019 @ 아.(아.)

104019 #4 옛날엔 쉐로 헤도 우리 시대 뒈난 질러레 내청 경운기로 시꺼 와.(옛날엔 소로 해도 우리 시대 되니까 길로 내쳐서 경운기로 실어 와.)

104019 @ 길러레 내쳐 가지고 경운기 시꺼 와?(길에 내쳐 가지고 경운기 실어 와?)

104019 #3 예.(예.)

104019 @ 게민 아까 쉐에 질메 졍 시꺼 올 때는 몇 못씩 시꺼 와서?(그럼 아까 소에 길마 지워서 실어 올 때 몇 뭇씩 실어 와서?)

104019 #3 에, 주로예, 한쪽에 서른 뭇 정도 헤근에 저 흔 바리.(에, 주로요, 한쪽에 서른 뭇 정도 해서 저 한 바리.)

104019 @ 육십 뭇?(육십 뭇?)

104019 #3 예, 육십 뭇.(예, 육십 뭇.)

104019 @ 게난 육십 뭇이 흔 바리였던 거라예, 뭇 쪼그난예?(그러니까 육십 뭇이 한 바리였던 거지요, 뭇 작으니까요?)

104019 #3 예, 예.(예, 예.)

104019 @ 경헨 집이 왕 눌엉 ᄂᆞ람쥐 더껑 그거 하나씩 빼멍 멕였던 거?(그래서 집에 와서 가려서 이엉 덮어서 그거 하나씩 빼면서 먹였던 거?)

104019 #3 예, 예.(예, 예.)

104020 @ 그 촐 말고, 촐 말고 쉐 또 뭐 멕엿수과?(그 꼴 말고, 꼴 말고 소 또 뭐 먹였습니까?

104020 #3 쉐 게난 그 옛날도 감제 싱것거든예.(소 그러니까 그 옛날도 고구만 심었거든요.)

104020 @ 예.(예.)

104020 #3 감제줄 물롸다근에 것도 헤당 눌어 둠서 쪼금썩 빠멍 멕여마씨.(고구마줄 말렸다가 것도 해다가 가려 두면서 조금씩 빼면서 먹여요.)

104020 @ 아, 감저줄도 눌어 논 거?(아, 고구마줄도 가려 놓은 거?)

104020 #3 예. 경허고 또.(예. 그러고 또.)

104020 #4 감저를 만이 싱것지.(고구마를 많이 심었지.)

104020 #3 또 콩깍지.(또 콩깍지.)

104020 @ 콩깍지.(콩깍지.)

104020 #3 콩깍지. 조 헐 땐 조코고리 튿아근에 이제 물방에 강 돌려 나믄 이제 조코고리 그 대만 신 거, 것 뭣이엔?(콩깍지. 조 할 땐 조 이삭을 뜯어서 이제 연자매 가서 돌리고 나면 이제 조 이삭 그 대만 있는 거, 것 뭐라고?)

104020 #4 붕뎅이.(겨.)

104020 #3 붕뎅이, 조풍뎅이.(겨, 조 겨.)

104020 @ 으.(으.)

104020 #4 건 조풍뎅이.(건 조 겨.)

104020 #3 그건 또 곡석이 쪼꼼 흔 방울씩 부트난산에 잘 먹어마씨.(그건 또 곡식이 조금 한 방울씩 붙으니까 잘 먹어요.)

104020 @ 음. 조풍뎅이.(음. 조 겨.)

104020 #4 게, 조칩허고.(그래, 조짚하고.)

104020 @ 촐은 영 썰엉 먹여나진 안허고?(꼴은 이렇게 썰어서 먹이진 않고?)

104020 #3 글후제 그것이 들어와서마씨. 글우후에.(그 후에 그것이 들어왔어요. 그 후에.)

104020 @ 아.(아.)

104020 #4 무시거?(무엇?)

104020 #3 촐 썰엉 작두로.(꼴 썰어서 작두로.)

104020 @ 작두로.(작두로.)

104020 #4 작뒤.(작두.)

104020 #3 그것이 중간에 들어와서마씨. 글 후로, 후로.(그것이 중간에 들어왔어요. 그 후로, 후로.)

104020 @ 중간에 아.(중간에 아.)

104020 #3 나가 이제꺼지 얘기 헌 건 옛날 시절이고.(내가 이제까지 얘기 한 건 옛날 시절이고.)

104020 @ 옛날예.(옛날요.)

104020 #3 그 후로 촐을 작두로 썸 시작헤가난 기계가 차차 차차 막 이렇게.(그 후로 꼴을 작두로 썰기 시작하니까 기계가 차차 차차 마구 이렇게.)

104020 #4 뭐 사료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뭐 사료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104020 @ 아, 예.(아, 예.)

104020 #3 나오는 것이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나옴 시작허니까 팍 이렇게 발전뒈서마씨.(나오는 것이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팍 이렇게 발전되었어요.)

104020 @ 아, 예 예. 게민 이젠 그 촐 촐 영 베러 다니멍 촐 비멍 생각나는 건 엇고? 쉐 먹이 허멍 기억나는 일?(아, 예 예. 그럼 이젠 그 꼴 꼴 이렇게 베러 다니면서 꼴 베면서 생각나는 건 없고? 소 먹이 하면서 기억나는 일?)

104020 #3 하하하. 이제양.(하하하. 이제요.)

104020 @ 예.(예.)

104020 #3 멩질 때 뒈 가믄 촐도 묵은 촐 없지예.(명절 때 돼 가면 꼴도 묵은 꼴 없지요.)

104020 @ 예.(예.)

104020 #3 또 멩질날은, 떡 허는 날허고 멩질날은 논덴 허지. 엿날도. 논덴 허니까 쉐가 집이 한 마리, 두 마리 신 사름은 집이서 이제 메여 둠서 멕일 촐을 비여 들이는 거라. 풀 촐로.(또 명절날은, 떡 하는 날하고 명절날은 논다고 하지. 옛날도. 논다고 하니까 소가 집에 한 마리, 두 마리 있는 사람은 집에서 이제 매어 두면서 먹일 꼴을 베어 들이는 거야. 풀 꼴로.)

104020 #4 퍼렁헌 거.(퍼런 거.)

104020 @ 퍼렁헌 거.(퍼런 거.)

104020 #4 혼 이틀 놀 거난 그디 비여당 놔뒴주게.(한 이틀 놀 거니까 거기 베어다가 놔두지요.)

104020 #3 하하.(하하.)

104020 @ 아.(아.)

104020 #3 경허믄 쉐 하나가 이제 하룰에 한 다섯 뭇 먹넨 허믄 열 뭇, 혼 두 짐은 비여와야 뒈.(그러면 소 하나가 이제 하루에 한 다섯 뭇 먹는다고 하면 열 뭇, 한 두 짐은 베어 와야 돼.)

104020 @ 예.(예.)

104020 #3 게난 쉐가 두 마리면 혼 서넉 짐은 미릇에 비여다가 재경 놔둬. 게민 영 봐근에 촐 어디 좋아서라 허믄 놈의 밧디도 가근에 도둑질 헹 오는 거라. 하하하.(그러니까 소가 두 마리면 한 서넉 짐은 미리 베어다가 재어 놔둬. 그럼 이렇게 봐서 꼴 어디 좋았더라 하면 남의 밭에도 가서 도둑질 해서 오는 거야. 하하하.)

104020 #4 아니라, 풀 촐 헐 땐 경 안 헷어.(아니야, 풀 꼴 할 땐 그렇게 안 했어.)

104020 @ 아.(아.)

104020 #3 경, 경 허는 수가 만이 셔마씨.(그렇게, 그렇게 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104020 @ 예, 예. 그럼 일 년에 촐, 한 마리 키워나시난 이 촐, 한 마리 멕이젠, 흔 ᄆᆞ리 멕이젠 허민 촐 몇, 몇 바리 정도 필요허과?(예, 예. 그럼 일 년에 꼴, 한 마리 키웠었으니까 이 꼴, 한 마리 먹이려고, 한 마리 먹이려고 하면 꼴 몇, 몇 바리 정도 필요합니까?)

104020 #3 촐이 한.(꼴이 한.)

104020 @ 집에 메는 기간이 얼마나 뒙니까? 두 달만 빼고 다 집에 메는 거 아니, 여기는?(집에 매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두 달만 빼고 다 집에 매는 거 아니, 여기는?)

104020 #3 어 정월 그물엉, 음력으로 정월 그뭄이니까 이월 말 뒐 거우다.(어 정월 저물어서, 음력으로 정월 그믐이니까 이월 말 될 겁니다.)

104020 @ 예.(예.)

104020 #3 그때꺼지는 집에 메고.(그때까지는 집에 매고.)

104020 @ 집에 메고.(집에 매고.)

104020 #3 그믄.(그럼.)

104020 #4 팔월에 촐은 비여.(팔월에 꼴은 베어.)

104020 #3 촐은 팔월에 비는데 시월, 시월.(꼴은 팔월에 베는데 시월, 시월.)

104020 #4 동짓덜, 섣덜.(동짓달, 섣달.)

104020 #3 시월 한 보름쯤 뒈 가민 들여 메여마씨.(시월 한 보름쯤 돼 가면 들여 매요.)

104020 @ 으.(으.)

104020 #3 그 전에는 이 농사덜 져난 밧디 염에 뭐 먹을 거 잇다 헤서 영 가을에도 밧디덜 놓고.(그 전에는 이 농사들 졌던 밭 가에 뭐 먹을 거 있다 해서 이렇게 가을에도 밭에들 놓고.)

104020 @ 아, 밧디.(아, 밭에.)

104020 #3 이렇게 허다가 또 음력으로 한 시월 보름 뒈 가믄.(이렇게 하다가 또 음력으로 한 시월 보름 돼 가면.)

104020 @ 추워 가민.(추워 가면.)

104020 #3 추워 가민 들여 메마씨. 그러면 십일월 보름 십이월 보름 정월 보름 이월 보름, 한 넉 달 정도는 집이서예.(추워 가면 들여 매요. 그러면 십일월 보름 십이월 보름 정월 보름 이월 보름, 한 넉 달 정도는 집에서요.)

104020 @ 집이서 메는 거예?(집에서 매는 거요?)

104020 #3 예.(예.)

104020 @ 넉덜 정도 멜 때는 어쨌든 촐 멕여야 뒐 거 아니?(넉 달 정도 맬 때는 어쨌든 먹여야 될 거 아니?)

104020 #3 예, 촐 멕이는.(예, 꼴 먹이는.)

104020 @ 게민 그거 허젠 허민 흔 몇 바리 정도.(그럼 그거 하려고 하면 한 몇 바리 정도.)

104020 #4 아마도 흔 바리, 흔 쉐 ᄒᆞ나가 흔 ᄋᆞ섯 바리.(아마도 한 바리, 한 소 하나가 한 여섯 바리.)

104020 #3 여섯 바리, 일곱 바리양. 겨난 쉐가 두 마리만 뒈면은 한 열댓 바리 헤사 아, 금년은 쉐 촐은 풍부허켜, 이 정도라마씨.(여섯 바리, 일곱 바리요. 그러니까 소가 두 마리만 되면 한 열댓 바리 해야 아, 금년은 소 꼴은 풍부하겠어, 이 정도예요.)

104020 @ 게민 삼백육십 뭇 정도 뒈겟다예?(그럼 삼백육십 뭇 정도 되겠네요?)

104020 #3 예.(예.)

104020@ 삼백육십 뭇 정도. 예, 촐 헤난 건 여기까지 물어보고예.(삼백육십 뭇 정도. 예, 꼴 했던 건 여기까지 물어보고요.)

104020 #3 예.(예.)

사냥

104028 @ 사농헤낫수과, 사농?(사냥했었습니까, 사냥?)

104028 #3 예?(예?)

104028 @ 사냥, 사냥?(사냥, 사냥?)

104028 #3 사냥 안 헷수다.(사냥 안 했습니다.)

104028 @ 꿩 꿩 안 봉가 왓수과?(꿩 꿩 안 주워 왔습니까?)

104028 #3 하하하.(하하하.)

104028 #4 안 봉가 완. 우리 아방[130]은 사냥은 안 헨.(안 주워 왔어. 우리 아버지는 사냥은 안 했어.)

104028 @ 사냥 안 헨?(사냥 안 했어?)

104028 #3 안 헤낫수다. 하하.(안 했었습니다. 하하.)

104028 #4 웃드리 사름덜이 건 헷주.('웃드리' 사람들이 건 했지.)

104028 @ 예?(예?)

104028 #4 웃드리. 상가 사름덜.('웃드리'. 상가 사람들.)

104028 @ 그지예. 고내리는 따로 웃드리[131] 알드리[132] 헐 디가 없지예? 이 지경이니까?(그렇지요. 고내리는 따로 '웃드리' '알드리' 할 데가 없지요? 이 지경이니까?)

104028 #4 우리 고내 사름은 사냥허는 사름이 엇어.(우리 고내 사람은 사냥하는 사람이 없어.)

104028 @ 엇어? 꿩도 잘 안 잡아?(없어? 꿩도 잘 안 잡아?)

104028 #4 아니 꿩코[133]도 잘 안 놔.(아니 '꿩코'도 잘 안 놔.)

104028 #3 그 꿩덜 젊은 아이덜.(그 꿩들 젊은 아이들.)

---

130) '아방'은 표준어의 '아버지'에 대응한다. 여기서 '아방'은 자신의 남편을 가리킨다.
131) '웃드리'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 이루어진 마을을 말한다.
132) '알드리'는 해변 마을을 말한다.
133) '꿩코'는 꿩을 잡기 위한 올가미를 말한다.

104028 @ 예.(예.)

104028 #3 코 놔 가지고 하나 두 개 잡아단 먹다가 것도 순간에 싹 지나 불엇수다.(덫 놔 가지고 하나 두 개 잡아다가 먹다가 것도 순간에 싹 지나 버렸습니다.)

104028 @ 음.(음.)

104028 #3 그 웨로 먹을 것이 만이 나오니까게. 이제도 그 묘종 밧디나 뭐 허면은 그 꿩 약 쪼금 놉니다.(그 외로 먹을 것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도 그 모종 밭에나 뭐 하면 그 꿩 약 조금 놉니다.)

104028 @ 음.(음.)

104028 #3 놧자 그 사름 먹을 수 잇는 것도 안 가졍 옵니다. 던져 불엉. 그 세대가 그만큼.(놓더라도 그 사람 먹을 수 있는 것도 안 가지고 옵니다. 던져 버려서. 그 세대가 그만큼.)

104028 @ 지나 불언예?(지나 버렸어요?)

104028 #3 예. 지나 불엇수게게.(예. 지나 버렸어요.)

104028 #4 난 꿩 봉가져도 안 봉가 와. 그거 뭐 허믄 더 덧나카 부덴.(난 꿩 주울 수 있어도 안 주워 와. 그거 뭐 하면 더 덧날까 봐.)

104028 @ 아, 예.(아, 예.)

104028 #3 옛날엔예, 그거 한 번 누가 꿩 하나 봉강 왓젠 흔 잔 먹게 뒈엇다 영 헤근에 모여근에 요리헹덜 먹엇는데 그 시절은 옛날로 돌아가 불엇수다.(옛날엔요, 그거 한 번 누가 꿩 하나 주워 왔다고 한 잔 먹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모여서 요리해서들 먹었는데 그 시절은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104028 @ 아이고, 예.(아이고, 예.)

땔감

104022 @ 겨울에 지들커 같은 거 허레 다녓수궤?(겨울에 땔깜 같은 거 하러 다녔지요?)

104022 #1 아이고, 다니고 말고.(아니고, 다니고 말고.)

104022 @ 지들커예?(땔감요?)

104022 #1 어.(어.)

104022 @ 지들커에는 종류가 뭐, 뭐 잇어낫수과?(땔감에는 종류가 뭐, 뭐 있었습니까?)

104022 #1 지들커에는?(땔감에는?)

104022 @ 예.(예.)

104022 #1 솔입썹.(솔가리.)

104022 @ 으, 솔입썹. 또?(으, 솔가리. 또?)

104022 #1 뭐 집이서 나는 거는 콩꼬질.(뭐 집에서 나는 거는 콩깍지.)

104022 @ 콩꼬질.(콩깍지.)

104022 #1 으, 저 보리낭대.(으, 저 보릿대.)

104022 @ 보리낭대.(보릿대.)

104022 #1 조칩대. 그런 다 지들커레 들어갓주게.(조짚. 그런 다 땔감에 들어갔지.)

104022 @ 게민 낭?(그럼 나무?)

104022 #1 그 웨에 남은 소, 소낭.(그 외에 나무는 소, 소나무.)

104022 @ 소낭.(소나무.)

104022 #1 소낭허고 또 삭다리. 삭다리엔 헨에 그 나무 썪은 거. 영 사근 거 딱딱 꺾어다근에. 그런 거 허고.(소나무하고 또 삭정이. 삭정이라고 해서 그 나무 썪은 거. 이렇게 삭은 거 딱 딱 꺾어다가. 그런 거 하고.)

104022 @ 음.(음.)

104022 #1 또 저 고지 가면은 츰나무 삭다리덜도 시난 그런 것덜도 허고.(또 저 숲 가면 참나무 삭정이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하고.)

104022 @ 음.(음.)

104022 #1 경헨 불 땟주게.(그러해서 불 땠지.)

104023 @ 저기 굴묵 짇을 때 똥, 쉐똥, 물똥은?(저기 '굴묵' 땔 때 똥, 소똥, 말똥은?)

104023 #1 쉐똥, 물똥도 주워나고.(소똥, 말똥도 주웠었고.)

104023 @ 주워나서예.(주웠었어요.)

104023 #1 으, 그거 줏어당 물리왕 굴묵[134] 짓고.(으, 그거 주워다가 말려서 '굴묵' 때고.)

104023 @ 물리는 거라?(말리는 거야?)

104023 #1 으, 으.(으, 으.)

104023 @ 게민 쉐똥, 물똥으로 굴묵 짇을 때 좋았던 거 뭐과?(그럼 소똥, 말똥으로 '굴묵' 땔 때 좋았던 거 뭡니까?)

104023 #1 완전 오래가고.(완전 오래가고.)

104023 @ 그게 오래가?(그게 오래가?)

104023 #1 으, 오래가고 뜻시고.(으, 오래가고 따뜻하고.)

104023 @ 뜻시고.(따뜻하고.)

104023 #1 이런 ᄀᆞ시락 같은 거 다른 건 재기 그냥 활 활 활 활 부떠 불어.(이런 까끄라기 같은 거 다른 건 재게 그냥 활 활 활 활 붙어 버려.)

104023 @ 음.(음.)

104023 #1 경허난 뜻시질 안허는디 그런 거는 오래 오래 부뜨면서 듯아.(그러니까 따뜻하질 않는데 그런 거는 오래 오래 붙으면서 따뜻해.)

104023 @ 게민 쉐똥, 물똥 줏으레는 어디 가낫수과? 여기서 고내리에서는?(그럼 소똥, 말똥 주우러 어디 갔었습니까? 여기서 고내리에서는?)

104023 #1 고내리에선 이 저 고내봉[135]에도 가고.(고내리에선 이 저 '고내봉'에

134)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말한다.

도 가고.)

104023 @ 맞아, 고내봉 있다, 고내봉예.(맞아, '고내봉' 있다, '고내봉'요.)

104023 #1 으, 고내봉에도 가곡 이 농서허는 밧디덜도 농서 안 헐 때에, 안 헐 때에 그냥 소, 물덜 놩 놔두주기게. 엿날엔, 겨난 이제 돌담. 저 밧담덜 다운 디 그냥 그레 들이청덜 그레 물이나 쉐나 강 놩 놔두민 먹으면서 똥 싼 거 셔. 게민 그거 주워당.(으, '고내봉'에도 가고 이 농사하는 밭에도 농사 안 할 때에, 안 할 때에 그냥 소, 말들 놔서 놔두지. 옛날엔 그러니까 이제 돌담. 저 밭담들 쌓은 데 그냥 그리 몰아넣어서들 그리 말이나 소나 가서 놔서 놔두면 먹으면서 똥 싼 거 있어. 그럼 그거 주워다가.)

104023 @ 그거 줏어 와 베도 뭴 것과?(그러 주워 와 버려도 될 겁니까?)

104023 #1 게.(그럼.)

104023 @ 아니, 웨냐면 그 밧들 바령[136] 들이젠 영 쉐 놔두고 물 들여 놔둔 거 아니?(아니, 왜냐하면 그 밭들 '바령' 들이려고 이렇게 소 놔두고 말 들여 놔둔 거 아니?)

104023 #1 아니, 경 안 혜.(아니, 그렇게 안 해.)

104023 @ 경 안 헤여.(그렇게 안 해.)

104023 #1 경 안 헤여. 그거 줏어 와도 뒈여.(그렇게 안 해. 그거 주워 와도 돼.)

104024 @ 솔입, 아까 솔입?(솔가리, 아까 솔가리?)

104024 #1 솔입도 고내봉에 강 긁어 오고.(솔가리도 '고내봉'에 가서 긁어 오고.)

104024 @ 솔입 걷젠 허민 뭐 가졍 갓수과?(솔가리 그러모으려고 하면 뭐 가지고 갔습니까?)

104024 #1 글겡이.(갈퀴.)

104024 @ 글겡이.(갈퀴.)

104024 #1 글겡이, 솔입 걷는.(갈퀴, 솔가리 그러모으는.)

104024 @ 글겡이로 긁엉 모두민?(갈퀴로 긁어서 모으면?)

104024 #1 모도우민 이제 모도우민 이젠 저 얼멩이엔 헌 거 잇어. 얼멩이 엉상엉상[137]허게, 저 우리 테왁, 해녀덜 가졍 다니는 망사리[138] 잇지 안허여, 망사리.(모으면 이제 모으면 이젠 저 얼망이라고 하는 거 있어. 얼망 '엉상엉상'하게, 저 우리 테왁, 해녀들 가지고 다니는 '망사리' 있지 않아, '망사리'.)

104024 @ 예, 예.(예, 예.)

104024 #1 그 닮은 거라도 막 크게 헤영.(그 닮은 거라도 아주 크게 해서.)

104024 @ 예.(예.)

---

135) '고내봉'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136) '바령'은 경작할 밭에 소나 말을 가두어 먹이면서 그 배설물로 밭을 걸게 하는 것을 말한다.
137) '엉상엉상'은 매우 성긴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38) '망사리'는 바다에서 해녀가 해산물을 채취하고서 담아 넣는, 그물로 엮어 만든 물건을 말한다.

104024 #1 크게 헤여근에 막 엉상 엉상 엉상허게 줄앙, 묻앙.(크게 해서 아주 '엉상 엉상 엉상'하게 결어서, 맺어서.)

104024 @ 예.(예.)

104024 #1 그거 가졍 강 그것에 담아. 얼멩이엔 허주게 얼멩이에 담앙 지영도 오고 경 안 허민 탁탁탁탁 잘 받쳐 가지고 거기 짐 질만썩 만들아 가지고 두 봉다리나 시 봉다리 헤영 지영 오고.(그거 가져 가서 그것에 담아. 얼망이라고 하지, 얼망에 담아서 지어서도 오고 그렇게 안 하면 탁 탁 탁 탁 잘 받쳐 가지고 거기 짐 질만큼씩 만들어 가지고 두 봉지나 세 봉지 해서 져서 오고.)

104024 @ 솔입을 놩 짐 만드는 방법을 골아 줍서.(솔가리를 놔서 짐 만드는 방법을 말해 주세요.)

104024 #1 만드는 방법은 그냥 글겡이로.(만드는 방법은 그냥 갈퀴로.)

104024 @ 음.(음.)

104024 #1 글겡이로 영, 영 긁어당 혼 모둠, 혼 모둠씩 헤영 놔근에 그 모둠을 시 무덤으로 지럭실 만드는 거라.(갈퀴로 이렇게, 이렇게 긁어다가 한 모둠, 한 모둠씩 해서 놔서 그 모둠을 세 모둠으로 길이를 만드는 거야.)

104024 @ 지럭시?(길이?)

104024 #1 이만씩, 이만씩 헌 무덤 시 개썩 헤영 허민 이만이 뒈주.(이만큼씩, 이만큼씩 한 모둠 세 개씩 해서 하면 이만큼 되지.)

104024 @ 예.(예.)

104024 #1 이, 지럭쉬가.(이, 길이가.)

104024 @ 예.(예.)

104024 #1 경허민 그 우이 놕, 그 우이 놕. 그만씩 헌 거. 그 우이 놕, 그 우이 놕, 허면이 요만이 허면은 혼 짐 뒈여.(그럼 그 위에 놓고, 그 위에 놓고. 그만큼씩 한 거. 그 위에 놓고, 그 위에 놓고, 하면은 요만큼 하면 한 짐 돼.)

104024 @ 게민 밋에 뭐 낭가젱기나 안 놩?(그럼 밑에 뭐 나뭇가지나 안 놔서?)

104024 #1 아니 헤도 지깍허게 잘 뒈여. 잘 만들아 놔.(안 해도 직각하게 잘 돼. 잘 만들어 놔.)

104024 @ 그럼 모돔을 막.(그럼 모돔을 마구.)

104024 #1 예, 예. 팍팍 치면 지깍허게 잘 뒈여. 원 푸더지지도 안허고.(예, 예. 팍팍 치면 직각하게 잘 돼. 원 넘어지지도 않고.)

104024 @ 아, 혼 모돔 허민 이 정도 헹 막 다져 놓은 거?(아, 한 모둠 하면 이 정도 해서 마구 다져 놓은 거?)

104024 #1 으, 으. 다져 놓는 거. 곱닥허게 다졍. 경 안 헤근에 그냥 대강 대강 허젠 허민 얼멩이엔 헌 거 가졍 강 그레 막 담아.(으, 으. 다져 놓은 거. 곱닥하게 다져.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대강 대강 하려고 하면 얼망이라고 하는 거 가져 가서 그리 마구 담아.)

104024 @ 음.(음.)

104024 #1 경헨 그걸로 졍 오라.(그러해서 그걸로 져서 와.)

104024 @ 게민 그 모둠을 이렇게 세 개 헹 밋에 끌고 또.(그럼 그 모둠을 이렇게 세 개 해서 밑에 깔고 또.)

104024 #1 또 그만이 헹 그 우이 영 끌고.(또 그만큼 해서 그 위에 이렇게 깔고.)

104024 @ 끌고. 멧 개나 올려?(깔고. 몇 개나 올려?)

104024 #1 멧 개, 혼 다섯, 으섯. 이, 이 우리 지엉 올만큼.(몇 개, 한 다섯, 여섯. 이, 이 우리 지어서 올만큼.)

104024 @ 예.(예.)

104024 #1 너미 무거와도 안 뒈곡게.(너무 무거워도 안 되고.)

104024 @ 그민 그거 영 무꺼야 뒐 거 아니과?(그럼 그거 이렇게 묶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4024 #1 으, 베로 무껑.(으, 바로 묶어서.)

104024 @ 베.(바.)

104024 #1 베로 무껑게.(바로 묶어서.)

104024 @ 베는 가졍 가는 거?(바는 가져서 가는 거.)

104024 #1 예, 베는 가졍가야지. 쉐, 저 짐페엔 헌 거. 찝으로 꼬와근에.(예, 바는 가져가야지. 소, 저 짐바라고 하는 거. 짚으로 꼬아서.)

104024 @ 게민 이거 모둠 한 거 옆에 뭐로 묶지?(그럼 이거 모둠 한 거 옆에 뭐로 묶지?)

104024 #1 안 헤여, 안 헤도 뒈여.(안 해, 안 해도 돼.)

104024 @ 와 잘 만들엇다. 이거예.(와, 잘 만들었다. 이거요.)

104024 #1 예, 옛날에는 그것이 뭐. 그렇게도 헹 허고 대강 그렇지, 그렇지 못허는 사름은 얼멩이엔 헌 거에 담앙 졍 오고.(예, 옛날에는 그것이 뭐. 그렇게도 해서 하고 대강 그렇지,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얼망이라고 하는 거에 담아서 져서 오고.)

104024 @ 얼멩이는 뭐로 만들앗수과?(얼망이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104024 #1 얼멩이는 저 엿날에 그 찝으로 꼬앙. 막 좀질이 꼬아근에 그 얼멩이를 만들어낫주게.(얼망은 저 옛날에 그 짚으로 꼬아서. 아주 잘게 꼬아서 그 얼망을 만들었었지.)

104024 @ 그 얼멩이는 우리 저기 보리 담는 그런 거추룩 막 튼튼허게 만든 건 아니라예.(그 얼망은 우리 저기 보리 담는 그런 거처럼 아주 튼튼하게 만든 건 아니지요.)

104024 #1 아니, 그냥 얼망얼망 얼망얼망. 요만씩게.(아니, 그냥 숭숭 숭숭. 요만큼씩.)

104024 @ 해녀덜 그물 허는 거예?(해녀들 그물 하는 거요?)

104024 #1 으, 으. 모양으로 헤영.(으, 으. 모양으로 해서.)

104024 @ 거기에 담으면 마다리처럼예?(거기에 담으면 마대처럼요?)

104024 #1 으, 으. 마다리처럼. 경헹 우이 영. 그렇게만 허면 그자 안심은 뒈주게. 안심은 뒈여도 그렇게 얼멩이에 담앙 정 오믄 안심은 뒈고. 겨고 보따리 헤도 어떵 안 허여 올 때.(으, 으. 마대처럼. 그리해서 위에 이렇게. 그렇게만 하면 그저 안심은 되지. 안심은 되어도 그렇게 얼망에 담아서 져서 오면 안심은 되고. 그리고 보따리 해도 어떻게 안 해 올 때.)

104024 @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까 보따리엔 헷수과? 단이렌 헷수과? 하나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까 보따리라고 했습니까? 단이라는 했습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

104024 #1 저, 저, 저?(저, 저, 저?)

104024 @ 보단?(‘보단’?)

104024 #1 보단치는 거. 보달치는[139] 거. 보달.(‘보단치는’ 거. ‘보달치는’ 거. ‘보달’.)

104024 @ 그거 하나 만드는 거를 보달친덴 헤예?(그거 하나 만드는 거를 ‘보달친다’고 해요?)

104024 #1 으, 보달.(으, ‘보달’.)

104024 @ 어쨌든 영 네모나게든?(어쨌든 이렇게 네모나게?)

104024 #1 으, ᄒᆞ꼼 영.(으, 조금 이렇게.)

104024 @ 영 영 영 영. 메주 다지듯이?(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메주 다지듯이?)

104024 #1 으, 메주 다지듯이 허영.(으, 메주 다지듯이 해서.)

104024 @ 헹 이렇게 세 개를 놓는 거라?(해서 이렇게 세 개를 놓는 거야?)

104024 #1 으, 놓는 거라.(으, 놓는 거야.)

104024 @ 우에 또 이렇게 놓고 놓고 헹 다섯 개 정도 놩.(위에 또 이렇게 놓고 놓고 해서 다섯 개 정도 놔서.)

104024 #1 으, 이 정도 허면은 ᄒᆞᆫ 짐.(으, 이 정도 하면 한 짐.)

104024 @ ᄒᆞᆫ 짐. 이거를 보달 치다 허는구나.(한 짐. 이거를 ‘보달’ 치다 하는구나.)

104024 #1 보달쳐.(‘보달쳐’.)

104025 @ 예, 예. 경헨 가져 올 거. 게민 나무는 삭다리 말고.(예, 예. 그래서 가져 올 거. 그럼 나무는 삭정이 말고.)

104025 #1 삭다리 말고.(삭정이 말고.)

104025 @ 그냥 큰 나무들도 헤? 멀쩡헌 나무들도?(그냥 큰 나무들도 해? 멀쩡한 나무들도?)

104025 #1 멀쩡헌 나무 우리 긴력으로 못 허주게.(멀쩡한 나무 우리 근력으로 못 하지.)

---

139) ‘보달’은 솔가리 뭉치 따위를 매끼로 단단하게 동여 묶어 등짐으로 꾸려 놓은 묶음을 말한다. 이렇게 묶음을 만드는 것을 ‘보달치다’라고 한다.

104025 @ 못 허여.(못 해.)

104025 #1 예, 그건 톱이나 가정 가야만 헐 거난. 우린 작뒤[140]엔 헌 것이 잇어, 엿날엔 작뒤.(예, 그건 톱이나 가져서 가야만 할 거니까. 우린 '작뒤'라고 하는 것이 있어. 옛날엔 '작뒤'.)

104025 @ 작뒤?('작뒤'?)

104025 #1 으, 작뒤.(으, '작뒤'.)

104025 @ 예, 작뒤 가정 강 헌 거?(예, '작뒤' 가져서 가서 하는 거?)

104025 #1 으, 작뒤 가정 강 탁탁 헤근에 그자 이 부락에덜은 언제나 헤 와. 작뒤로.(으, '작뒤' 가져서 가서 탁탁 해서 그저 이 부락에들은 언제나 해 와. '작뒤'로.)

104025 @ 으.(으.)

104025 #1 우이 술진 건 톱이라야.(위에 살진 건 톱이어야.)

104025 @ 작뒤랑 톱이랑 다르과?('작뒤'랑 톱이랑 다릅니까?)

104025 #1 다르지게. 톱은 실랑실랑실랑 이제도 톱질덜은 잇고. 작뒤는 지금은 잘 안 써. 작뒤는 호미 비싯해도 이렇게 뒌 거라, 이렇게. 작뒤는.(다르지. 톱은 실랑실랑실랑 이제도 톱질들은 있고. '작뒤'는 지금은 잘 안 써. '작뒤'는 호미 비슷해도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작뒤'는.)

104025 @ 게난 이렇게 뒌 거 아니마씨? 여기 날 잇엉.(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요? 여기 날 있어서.)

104025 #1 날 잇어.(날 있어.)

104025 @ 여기 손잡이, 탁탁 치는 거.(여기 손잡이, 탁탁 치는 거.)

104025 #1 요 영, 요 영 헌 거주게. 요 영.(요 이렇게 , 요 이렇게 하는 거지. 요 이렇게.)

104025 @ 아.(아.)

104025 #1 이거 ᄌᆞ룩이고 이거는.(이거 자루고 이거는.)

104025 @ 장호미같이 생긴 거구나.('장호미'같이 생긴 거구나.)

104025 #1 으, 으.(으, 으.)

104025 @ 영 헤영 여기 ᄌᆞ룩.(이렇게 해서 여기 자루.)

104025 #1 으, 으.(으, 으.)

104025 @ 이거 여기 날이고, 이거 ᄌᆞ룩이고.(이거 여기 날이고, 이거 자루고.)

104025 #1 으.(으.)

104025 @ 낭 탁탁 찍는 거?(나무 탁탁 찍는 거?)

104025 #1 이렇게 허면은 일론 찍고 이건 줴고.(이렇게 하면 일론 찍고 이건 쥐고.)

104025 @ 으.(으.)

104025 #1 영 줴영 영 착 착 착 착 허멍.(이렇게 쥐어서 이렇게 착 착 착 착 하

140) '작뒤'는 '작두'를 말하나 여기서는 '자귀'의 뜻으로 쓰였다.

면서.)

104025 @ 그걸 작뒤렌 허는 거?(그걸 '작뒤'라고 하는 거?)

104025 #1 으, 작뒤.(으, '작뒤'.)

104025 @ 톱을 작뒤렌은 안 헤서?(톱을 '작뒤'라고 안 해서?)

104025 #1 아니, 아니. 톱은 톱.(아니, 아니. 톱은 톱.)

104025 @ 예, 예.(예, 예.)

104025 #1 톱은 톱대로 뚜로 잇고. 톱덜은 이제도 톱은 사용허여. 이제도 톱은 사용허는디 작뒤는 지금은 잘 쓰지 안허주게.(톱은 톱대로 따로 있고. 톱들은 이제도 톱은 사용해. 이제도 톱은 사용하는데 '작뒤'는 지금은 잘 쓰지 않지.)

104025 @ 게민 낭 허레 갈 때 톱은 안 가졍 가고?(그럼 나무 하러 갈 때 톱은 안 가지고 가고?)

104025 #1 아이, 톱도 가졍 가긴 가졍 가. 신 사름은. 겐디 톱 신 사름덜이 벨로 엇어주게, 그땐.(아니, 톱도 가져서 가긴 가져서 가. 있는 사람은. 그런데 톱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 그땐.)

104025 @ 아.(아.)

104025 #1 작두덜은 싯고 호미, 골갱이 그런 건 막 쉬와도.('작두'들은 있고 낫, 호미 그런 건 아주 쉬워도.)

104025 @ 거난 작두 가졍 강 탁탁 찍으멍 낭을 헌 거라예?(그러니까 '작두' 가져서 가서 탁탁 찍으면서 나무를 하는 거지요?)

104025 #1 으. 이제 저 노꼬메[141], 검은오름[142], 큰바르메[143], 족은바르메[144], 뭐 하꼬네 그런, 그런 디 다 뎅겻주게. 여름에.(으. 이제 저 '노꼬메', '검은오름', '큰바르메', '족은바르메', 뭐 '하꼬네' 그런, 그런 데 다 다녔지. 여름에.)

104025 @ 아, 하꼬네도? 어디, 어디?(아, '하꼬네'도? 어디, 어디?)

104025 #1 저, 저 새별오름[145]. 하꼬네엔 헤점저. 새별오름.(저, 저 '새별오름'. '하꼬네'라고 하네. '새별오름'.)

104025 @ 새별오름예.('새별오름'요.)

104025 #1 새별오름, 검은오름. 우리가 걸어서 다 뎅겻지, 엿날에.('새별오름', '검은오름', 우리가 걸어서 다 다녔지, 옛날에.)

104025 @ 옛날에.(옛날에.)

104025 #1 밤 혼 혼 시, 두 시에 나가면 붉기 전이 들어가는 거라.(밤 한 한 시, 두 시에 나가면 밝기 전에 들어가는 거야.)

104025 @ 겐 혼 짐 허면 하루가 끝나는 거?(그래서 한 짐 하면 하루가 끝나는 거?)

---

141) '노꼬메'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위치한 오름이다. '큰노꼬메오름'과 '족은노꼬메오름'이 있다.
142) 여기서 '검은오름'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 있는 '검은데기오름'을 말한다.
143) '큰바르메'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위치한 '큰바리메오름'을 말한다.
144) '족은바르메'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에 위치한 '족은바리메오름'을 말한다.
145) '새별오름'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 위치한 오름이다.

104025 #1 하루가 끝나는 거. 밤이 나강.(하루가 끝나는 거. 밤에 나가서.)

104025 @ 밤이 나강.(밤에 나가서.)

104025 #1 아이고.(아이고.)

104026 @ 숫도 구워낫수과?(숯도 구웠습니까?)

104026 #1 아니, 우린 안 구워난.(아니, 우린 안 구웠었어.)

104026 @ 안 구원.(안 구웠어.)

104026 #1 숫은 안 구워난.(숯은 안 구웠었어.)

104026 @ 그럼 제사 때 뭐 구젠 허민 숫 어떵 헹 써나서?(그럼 제사 때 뭐 구우려고 하변 숯 어떻게 해서 썼었어?)

104026 #1 우리가 그 남을 떼주게. 낭 헤땅 떼는 거 그거 끼왕 놔뒁당.(우리가 그 나무를 때지. 나무를 했다가 때는 거 그거 꺼 놔뒀다가.)

104026 @ 그거 끼왕 놔뒁당.(그거 꺼 놔뒀다가.)

104026 #1 으, 겐 숫 만들앙. 그걸로, 그걸로.(으, 그래서 숯 만들어서. 그걸로, 그걸로.)

104026 @ 그걸로 겐 숫 만들진 안 허고?(그걸로 그래서 숯 만들진 않고?)

104026 #1 으, 화리에도 그걸로 놩 떼고.(으, 화로에도 그걸로 놔서 때고.)

104026 @ 게민 숫, 숫, 저기 사당 쓰지도 안 허고?(그럼 숯, 숯, 저기 사다가 쓰지도 않고?)

104026 #1 이녁대로 만들앙, 옛날엔. 중간에사게, 이젠 만들지 안 허는 때난. 불 아니 솜을 때는 사 왓지만은 우리가 아궁이에 불 뗄 때는 그걸로 헷주게.(자기대로 만들어서, 옛날엔. 중간에야, 이젠 만들지 않을 때니까. 불 안 땔 때는 사 왔지만 우리가 아궁이에 불 땔 때는 그것로 했지.)

104027 @ 그럼 아까 그 먼 디까지 허레 가낫잖아예. 낭 허레, 그때 뭐 기억나는 일 엇수과? 솔입 걷으레 낭 허레 다니멍, 똥 줏으레 다니멍?(그럼 아까 그 먼 데까지 하거 갔었잖아요. 나무 하러, 그때 뭐 기억나는 일 없습니까? 솔가리 그러모으러 나무 하러 다니면서, 똥 주우러 다니면서?)

104027 #1 똥은 뭐 가까운 디서 줏고 나무 허레만 먼 데 가고 솔입 긁으레는 이디서민 저, 저 어디 소랑중[146] 그런 디 어디 소랑중이엔 헌 디, 미럭당[147]이엔 헌 디 그런 디 가낫주.(똥은 뭐 가까운 데서 줍고 나무 하러만 먼 데 가고 솔가리 그러모으러는 여기서면 저, 저 어디 '소랑중' 그런 데 어디 '소랑중'이라고 하는 데, '미럭당'이라고 하는 데 그런 데 갔었지.)

104027 @ 소랑중이 숲 이름이과?('소랑중'이 숲 이름입니까?)

104027 #1 으, 소랑중.(으, '소랑중'.)

104027 @ 숲 이름이 소랑중, 그 다음 미륵당 아까?(숲 이름이 '소랑중'. 그 다음 '미륵당' 아까?)

146) '소랑중'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지명의 하나다.
147) '미럭당'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지명의 하나다.

104027 #1 으, 미륵당.(으, '미륵당'.)

104027 @ 미륵당. 이거는 뭐 당 이름?('미륵당'. 이거는 뭐 당 이름?)

104027 #1 으, 당사 잇는디 미륵당, 미륵당 허여. 거기 가면은 큰 산 잇고.(으, 당사 있는데 '미륵당', '미륵당' 해. 거기 가면 큰 산 있고.)

104027 @ 아, 여기도 산?(아, 여기도 산?)

104027 #1 으, 산 잇고 저 쉬는 디 잇고.(으, 산 있고 저 쉬는 데 있고.)

104027 @ 예.(예.)

104027 #1 소랑중이엔 헌 디는 이런 민짝헌 요런 ᄆᆞ을 넘어간 디 저 우에.('소랑중'이라고 하는 데는 이런 미끈한 요런 마을 넘어간 데 저 위에.)

104027 @ 으.(으.)

104027 #1 그디 가면은 소나무덜도 하고 다른 잡나무덜 하고 헌 디 그디가 소랑중이주게. 그디 만이 뎅기주.(거기 가면 소나무들도 하고 다른 잡나무들 하고 하는 데 거기가 '소랑중'이지.)

104027 @ 으, 기민 솔입 걷으레 이디 다니고 낭 허젠 허민 더 멀리?(으, 그럼 솔가리 그러모으러 여기 다니고 나무 하려고 하면 더 멀리?)

104027 #1 더 멀리 가고.(더 멀리 가고.)

104027 @ 더 멀리 가고.(더 멀리 가고.)

104027 #1 으, 으. 솔입 긁으레 고내봉도 만이 다니주게. 고내봉도 솔나무 하니까. 솔나무도 그 솔썹이 털어지는 그 때가 잇어 다. 경허민 그땐 가면은 만이 긁어지주게, 때가.(으, 으. 솔가리 그러모으러 고내봉도 많이 다니지. 고내봉도 솔나무 하니까. 솔나무도 그 솔잎이 떨어지는 그 때가 있어 다. 그러면 그땐 가면 많이 그러모을 수 있지, 때가.)

104027 @ 솔썹이렌 ᄀᆞᆯ암신디 솔썹 걷으레 간 것과 솔입 걷으레 간 것과?('솔썹'이라고 말하는데 '쏠섭' 그러모으러 간 것과 '솔입' 그러모으러 간 겁니까?)

104027 #1 솔썹.('솔썹'.)

104027 @ 아, 솔썹예. 솔썹 걷으레 간 거예.(아, 솔가리요. 솔가리 그러모으러 간 거요.)

104027 #1 솔입이엔도 허고 솔썹이엔도 허곡게. 그냥 그자 그건 솔, 솔썹.('솔입'이라고도 하고 '솔썹'이라고도 하고. 그냥 그저 그건 솔, 솔가리.)

104027 @ 아, 낭 허레 가젠 허민 뻰또도 쌍 가고?(아, 나무 하러 가려고 하면 도시락도 싸서 가고?)

104027 #1 그자 무시거 조끔 싼 강, 그자 감저 거튼 거나.(그저 무엇 조금 싸고 가서, 그저 고구마 같은 거나.)

104027 @ 숢앙?(삶아서?)

104027 #1 으, 숢앙, 치여근에 가졍 가고, 밥도 쪼금 어떤 때 가졍 가고.(으, 삶아서, 쪄서 가지고 가고, 밥도 조금 어떤 때 가지고 가고.)

104027 @ 으.(으.)

104027 #1 쪼끔씩은 먹어야 조반 겸 점심 겸.(조금씩은 먹어야 조반 겸 점심 겸.)

사냥

104028 @ 여기 혹시 꿩 거튼 거 사농도 헤나신가예?(여기 혹시 꿩 같은 거 사냥도 했었나요?)

104028 #1 꿩?(꿩?)

104028 @ 꿩.(꿩.)

104028 #1 꿩 사냥 같은 거 여긴 안 헤난.(꿩 사냥 같은 거 여긴 안 했었어.)

104028 @ 뭐 지다리 같은 거?(뭐 오소리 같은 거?)

104028 #1 지다리도 안 헤 봔.(오소리도 안 해 봤어.)

104028 @ 안 헤 보고예.(안 해 보고요.)

5. 바다일

105001 @ 바당에 다녀낫수과?(바다에 다녔었습니까?)

105001 #1 바당에?(바다에?)

105001 @ 예, 바당에.(예, 바다에.)

105001 #1 바당에 메역 쪼끔 ᄌᆞ물레 뎅겨낫주게.(바다에 미역 조금 캐러 다녔었지.)

105001 @ 그럼 여기에는 바당에서 허는 일들이 뭐, 뭐 이실 건고예? 어무니 메역 ᄌᆞ문 거 말고 다른 일덜도 다 ᄀᆞᆯ으민?(그럼 여기에는 바다에서 하는 일들이 뭐, 뭐 있을 건가요? 어머니 미역 캔 거 말고 다른 일들도 다 말하면?)

105001 #1 다 여기 좀녀덜사 뭐 생복게.(다 여기 잠녀들이야 뭐 생복.)

105001 @ 으, 생복허고.(으, 생복하고.)

105001 #1 생복, 저 구젱기게 옛날말로. 이젠 소라여.(생복, 저 소라 옛날말로. 이제 소라야.)

105001 @ 으.(으.)

105001 #1 요샌 소라엔. 저 옛날말로 점복.(요샌 소라라고. 저 옛날말로 전복.)

105001 @ 전복?(전복?)

105001 #1 구젱이.(소라.)

105001 @ 구젱이.(소라.)

105001 #1 구살.(성게.)

105001 @ 구살.(성게.)

105001 #1 그런 저 무신 수두리보말. 그런 건 ᄀᆞᆺ디도 잇주만은 바당에 나는 거는 무신 저 무꾸럭 같은 것도 바당에 나고.(그런 거 무슨 두드럭고둥. 그런 건 가에

도 있지만 바다에 나는 거는 무슨 저 문어 같은 것도 바다에 나고.)

105001 @ 예.(예.)

105001 #1 그런 것덜 줌녜덜 허주게.(그런 것들 잠녀들 하지.)

105001 @ 줌녜덜예.(잠녀들요.)

105001 #1 으.(으.)

105001 @ 그거 헛물질. 그거.(그거 '헛물질'. 그거.)

105001 #1 미, 저 저 미.(해삼, 저 저 해삼.)

105001 @ 으.(으.)

105001 #1 저, 저, 저, 저 무신 거옌 허느니? 그것ᄀᆞ라 미, 해섬, 이젠 해섬이엔 허주만은 미 그런 거 허주게. 미.(저, 저, 저, 저 무슨 거라고 하니? 그것보고 '미', 해삼, 이젠 해삼이라고 하지만 '미' 그건 거 하지. 해삼.)

105001 @ 게난 이거는 헛물질 갈 때 허는 거라예?(그러니까 이거는 '헛물질' 갈 때 허는 거지요?)

105001 #1 으, 헛물질[148] 갈 때 허고.(으, '헛물질' 갈 때 하고.)

105001 @ 예.(예.)

105001 #1 메역 물에는 메역만 강 헤 오고.(미역 물에는 미역만 가서 해 오고.)

105001 @ 예. 여기 우미는 안 헙니까?(예. 여기 우뭇가사리는 안 합니까?)

105001 #1 우미 안 허여. 잘 안 허여. 우미 몰라 올리덜 허긴 헤실 거라. 상줌녜[149]덜, 큰줌녜, 잘 허는 줌녜덜.(우뭇가사리 안 해. 잘 안 해. 우뭇가사리 몰라 올해들 하긴 했을 거야. '상줌녜'들, '큰줌녜', 잘하는 잠녀들.)

105001 @ 아, 상줌녜.(아, '상줌녜.)

105001 #1 으.(으.)

105001 @ 어무니 상줌녜가 아니랏수과?(어머니 '상줌녜'가 아니었습니까?)

105001 #1 아니. 우린 메역만. 다른 건 안 헤 봔, 안 헤 봔.(아니. 우린 미역만. 다른 건 안 해 봤어.)

105001 @ 헛물질 안 헤 봔마씨?('헛물질' 안 해 봤어요?)

105001 #1 헛물질도 안 헤 보고.('헛물질'도 안 해 보고.)

105001 @ 게민 먹을 거는?(그럼 먹을 거는?)

105001 #1 먹을 것만 기자, 메역 이녁 먹을 거 ᄆᆞᆯ류앗당 ᄉᆞᆼ키[150]로 먹을 거.(먹을 거만 그저, 미역 자기 먹을 거 말렸다가 'ᄉᆞᆼ키'로 먹을 거.)

105002 @ 으. 여기서는 듬북 거튼 거나 감태 같은 거 보리 농서헐 때?(으. 여기서는 듬북 같은 거나 감태 같은 거 보리농사할 때?)

105002 #1 그런 것도 안 허여.(그런 것도 안 해.)

105002 @ 걸름 안 헙니까?(거름 안 합니까?)

---

148) '헛물질'은 해녀들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소라나 전복 따위를 잡는 것을 말한다. 해녀들이 소라나 전복 등을 캐러 물에 들어가는 일이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헛될 수도 있으므로 '헛물질'이라고 한다.

149) '상줌녜'는 물질할 때 기량이 뛰어난 해녀를 말한다. '큰줌녜', '상군'이라고도 한다.

150) 'ᄉᆞᆼ키'는 채소, 나물을 가르키는 말로 표준어의 '푸성귀'에 대응한다. 여기서는 반찬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105002 #1 안 허여, 안 허여.(안 해, 안 해.)

105002 @ 고내리는.(고내리는.)

105002 #1 아, 저 감태덜은 허는 사름은 멧 사름 잇어서.(아, 저 감태들은 하는 사람은 몇 사람 있어서.)

105002 @ 으.(으.)

105002 #1 경 매 사름 허진 안허곡게.(그렇게 매 사람 하진 않고.)

105002 @ 매 사름 허진 안허고?(매 사람 하진 않고?)

105002 #1 으, 역불로 물에 들엉 허진 안허고.(으, 일부러 물에 들어서 하진 않고.)

105002 @ 게난 오는 거, 오는 거.(그러니까 오는 거, 오는 거.)

105002 #1 오는 거, 밀려오는 거.(오는 거, 밀려오는 거.)

105002 @ 으.(으.)

105002 #1 큰 ᄇᆞ름 불어 나믄.(큰 바람 불고 나면.)

105002 @ 으.(으.)

105002 #1 그런 땐 저디 남뚜루[151]엔 헌 디 가근에 저 무신 거둬다근에 물류왕 밧디덜 걸름으로 헤낫주. 허는 사름덜 멧 사름 잇어서. 우린 안 헤 봣주만은.(그런 땐 저기 '남뚜루'라고 하는 데 가서 저 무슨 거둬다가 말려서 밭에들 거름으로 했었지. 하는 사람들 몇 사람 있어서. 우린 안 해 봤지만.)

105002 @ 듬북도?(듬북도?)

105002 #1 듬북은 이디 엇어. 감태나 싯주, 감태, 노랑ᄆᆞᆷ[152], 무신.(듬북은 여기 없어. 감태나 있지, 감태, '노랑ᄆᆞᆷ', 무슨.)

105002 @ 듬북 고내 엇어?(듬북 고내 없어?)

105002 #1 고내 잘 엇어. 저 우리 친정 동넨 셔낫주만은 이디 고낸 잘 엇어.(고내 잘 없어. 저 우리 친정 동넨 있었지만 여기 고낸 잘 없어.)

105002 @ 바당도 틀리다예?(바다도 다르네요?)

105002 #1 으, 예. 이디는 저 먹돌[153] 바당이 하고 모살 바당이 싯고 다 틀려, 틀려.(으, 예. 여기는 저 '먹돌' 바다가 많고 모래 바다가 있고 다 달라, 달라.)

105002 @ 게민, 아까 감태는 헷덴 헷잖아예?(그럼, 아까 감태는 한다고 했잖아요?)

105002 #1 으. 감태 같은 건 물렷당 눌엇당 걸름으로덜.(으. 감태 같은 건 말렸다가 가렸다가 거름으로들.)

105002 @ 게민 그거 허젠 허민 개인으로 헙니까, 접으로 헙니까?(그럼 그거 하려고 하면 개인으로 합니까, 계로 합니까?)

105002 #1 개인으로 헤난.(개인으로 했었어.)

105002 @ 접 엇어?(계 없어?)

---

151) '남뚜루'는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지명의 하나다.
152) '노랑ᄆᆞᆷ'은 모자반 종류의 하나다.
153) '먹돌'은 아주 딴딴하고 광택이 나는 돌을 말한다.

105002 #1 으, 그 전엔, 엿날엔. 지금은 감태도 엇고 아무, 그런 거 엇이니깐 허지도 안 헴주만은.(으, 그 전엔, 옛날엔. 지금은 감태도 없고 아무, 그런 거 없으니까 하지도 안 하고 있지만.)

105002 @ 으.(으.)

105002 #1 그 쪼끔씩 헐 때는 개인으로.(그 조금씩 할 때는 개인으로.)

105002 @ 개인으로 헙니까?(개인으로 합니까?)

105002 #1 으, 허는 사람만 그자 그 바당에.(으, 하는 사람만 그저 그 바다에.)

105002 @ 예.(예.)

105002 #1 다녀근에 허주.(다녀서 하지.)

105002 @ 개인으로 허게 뒈면 나가 여기 가당 보난 감태 보이난 그냥 강 나 몸대로 헹 와도 뒐 거? 누게안티 안 골앙?(개인으로 하게 되면 내가 여기 가다가 보니까 감태 보이니까 그냥 가서 내 마음대로 해서 와도 될 거?)

105002 #1 으, 그냥 그 물ᄀᆞ에 올랑 시난게.(으, 그냥 그 물가에 올라서 있으니까.)

105002 @ 으.(으.)

105002 #1 담 우이덜.(담 위에들.)

105002 @ 으.(으.)

105002 #1 바당서 건져 오는 것이 아니고. 메여진 거.(바다에서 건져 오는 것이 아니고. 매인 거.)

105002 @ 게난 메여진 거 봉가 오는 거구나.(그러니까 매인 거 주워 오는 거구나.)

105002 #1 봉가 오는 거.(주워 오는 거.)

105002 @ 물에.(물에.)

105002 #1 물에 강 헤여 오는 것이 아니고.(물에 가서 해 오는 것이 아니고.)

105002 @ 으, 으. 휩쓸려 온 거예?(으, 으. 휩쓸려 온 거요?)

105002 #1 휩씰려 온 거.(휩쓸려 온 거.)

105002 @ 으, 으.(으, 으.)

105002 #1 밀려온 거, 밀려온 거.(밀려온 거, 밀려온 거.)

105004 @ 우리 아까 보말?(우리 아까 고둥?)

105004 #1 으.(으.)

105004 @ 보말 여기서 뭐렌?(고둥 여기서 뭐라고?)

105004 #1 수두리보말.(두드럭고둥.)

105004 @ 수두리보말. 또 보말 종류 뭐가 잇수과?(두드럭고둥. 또 고둥 종류 뭐가 있습니까?)

105004 #1 먹보말.(밤고둥.)

105004 @ 수두리보말, 먹보말, 또?(두드럭고둥, 밤고둥, 또?)

105004 #1 곰셍이.(‘곰셍이’.)

105004 @ 곰셍이, 또?(‘곰셍이’, 또?)

105004 #1 또 저, 저. 저 저 저 하나 무시거여만은. 음, 하나 영 두껑, 두껑 쎄게 헌 것ᄀᆞ라 문다닥, 문다닥지.(또 저, 저. 저 저 저 하나 무엇이여만. 음, 하나 이렇게 뚜껑, 뚜껑 세게 한 것보고 ‘문다닥’, 눈알고둥.)

105004 @ 문다닥지?(눈알고둥?)

105004 #1 으, 문다닥지.(으, 눈알고둥.)

105004 @ 어무니 이거 보민 알아집니까? 어느 게 곰셍이고 어느 게?(어머니 이거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어느 게 ‘곰셍이’고 어느 게?)

105004 #1 알아지고 말고.(알 수 있고 말고.)

105004 @ 하하하.(하하하.)

105004 #1 알아져. 이제라도 아져당 놓민 다 알지.(알 수 있어. 이제라도 가져다가 놓으면 다 알지.)

105004 @ 아, 수두리, 먹보말, 곰셍이, 문다닥지예?(아, 두드럭고둠, 밤고둥, ‘곰셍이’, 눈알고둥요?)

105004 #1 으. 문다닥지.(으, 눈알고둥.)

105004 @ 문다닥지.(눈알고둥.)

105004 #1 메우니.(‘메우니’.)

105004 @ 메, 메우니렌 헷수과?(메, ‘메우니’라고 했습니까?)

105004 #1 으, 메우니.(으, ‘메우니’.)

105004 @ 메옹이 안 허고?(‘메옹이’ 안 하고?)

105004 #1 메옹이.(‘메옹이’.)

105004 @ 다시 한 번.(다시 한 번.)

105004 #1 메옹이.(‘메옹이’.)

105004 @ 메옹이?(‘메옹이’?)

105004 #1 으. 군벗.(으. 군부.)

105004 @ 군벗도 보.(군부도 보.)

105004 #1 보말로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고둥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

105004 @ 으. 군벗 나중에 물어보쿠다. 군벗도 잇고예. 메옹이도 보말 종류 아니예?(으. 군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군부도 있고요. ‘메옹이’도 고둥 종류 아니요?)

105004 #1 보말 종류.(고둥 종류.)

105004 @ 수두리, 먹보말, 곰셍이, 문다닥지, 메옹이.(두드럭고둥, 밤고둥, ‘곰셍이’, 눈알고둥, ‘메옹이’.)

105004 #1 메옹이, 다 보말로 들어가는 거.(‘메옹이’, 다 고둥으로 들어가는 거.)

105005 @ 으. 깅이 종류에는 뭐 잇수과?(으. 게 종류에는 뭐 있습니까?)

105005 #1 깅인 깅이. 깅이는 저 춤깅이.(게 게. 게는 저 참게.)

105005 @ 으.(으.)

105005 #1 또 듬북깅이.(또 '듬북깅이'.)
105005 @ 춤깅이?(참게?)
105005 #1 으, 바당깅이.(으, 바닷게.)
105005 @ 으.(으.)
105005 #1 또 깅이 종류도 여러 종류주만은 다른 종륜 잘 모르켜.(또 게 종류도 여러 종류지만 다른 종륜 잘 모르겠어.)
105005 @ 세 갠게예, 바당깅이.(세 개네요, 바닷게.)
105005 #1 으, 여러 가지 셔.(으, 여러 가지 있어.)
105005 @ 춤깅이, 듬북깅이, 바당깅이.(참게, '듬북깅이', 바닷게.)
105005 #1 심방깅이엔 헌 것도 셔, 붉은 거, 빨강헌 거 심방깅이.(점박이민꽃게라고 하는 것도 있어. 붉은 거. 빨간 거 점박이민꽃게.)
105005 @ 심방깅이?(점박이민꽃게.)
105005 #1 으.(으.)
105005 @ 네 개. 춤깅이, 듬북깅이, 바당깅이.(네 개. 참게, '듬북깅이', 바닷게.)
105005 #1 으.(으.)
105005 @ 심방깅이.(점박이민꽃게.)
105005 #1 으.(으.)
105003 @ 와, 기구나. 게민 이 보말허고 깅이는 어떵 잡아낫수과?(와, 그렇구나. 그럼 이 고둥하고 게는 어떻게 잡았었습니까?)
105003 #1 보말허고 깅이는 돌 일렁. 요만씩 헌 돌 일렁. 바닷가에 물 싸 가믄. 건 질, 질 곳디 잇어.(고둥하고 게는 돌 일으켜서. 요만큼씩 한 돌 일으켜서. 바닷가에서 물 써 가면. 건 길, 길 가에 있어.)
105003 @ 으.(으.)
105003 #1 물만 쪼끔만 쌋다 허믄 깅이 잇고.(물만 조금만 썼다 하면 게가 있고.)
105003 @ 음.(음.)
105003 #1 보말은 ᄒᆞ꼼 물 더 내려강 보면은 돌 우이덜 잇고.(고둥은 조금 물 더 내려가서 보면 돌 위에들 있고.)
105003 @ 아, 게민 맨 곳디가 깅이.(아, 그럼 맨 가가 게.)
105003 #1 깅이. 곳디가 깅이 그 다음에 보말.(게. 가가 게 그 다음에 고둥.)
105003 @ 보말.(고둥.)
105003 #1 그 다음에 저, 깅이 다음에 보말은 곰셍이, 문다닥지.(그 다음에 저, 게 다음에 고둥은 '곰셍이', 눈알고둥.)
105003 @ 깅이 다음에 보말은 곰셍이, 문다닥지.(게 다음에 고둥은 '곰셍이', 눈알고둥.)
105003 #1 으. 그 다음에는 수두리, 먹보말.(으. 그 다음에는 두드럭고둥, 밤고둥.)

105003 @ 어. 잠깐만예. 깅이가 잇고 곰셍이, 문다닥지가 잇고, 그 다음.(어. 잠깐만요. 게가 있고 '곰셍이', 눈알고둥이 있고, 그 다음.)

105003 #1 으, 물 ᄀᆞ음이 틀려.(으, 물 감이 달라.)

105003 @ 아, 물 ᄀᆞ음이 틀려예.(아, 물 감이 달라요.)

105003 #1 틀려. 저 수두리보말허고 먹보말은 물이 쪼끔 더 ᄂᆞ려가야 잇어.(달라. 저 두드럭고둥하고 밤고둥은 물이 조금 더 내려가야 있어.)

105003 @ 음. 그럼, 보말 영 잡젠 허민, 깅이는 물만 싸민 잡을 거난. 깅이 영 잡젠 허민 물때가 몇 물 때민?(음. 그럼, 고둥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게는 물만 써면 잡을 거니까. 게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물때가 몇 물때면?)

105003 #1 물때 네 물.(물때 네 물.)

105003 @ 네 물?(네 물?)

105003 #1 으, 네 물, 다섯 물이민 보말 잡아.(으, 네 물, 다섯 물이면 고둥 잡아.)

105003 @ 네 물이엔 헙니까, 여기는?(네 물이라고 합니까, 여기는?)

105003 #1 너 물.(너 물.)

105003 @ 혼 물, 두 물.(한 물, 두 물.)

105003 #1 두 물, 서 물, 너 물(두 물, 서 물, 너 물.)

105003 @ 너 물예? 너 물이나 다섯 물쯤에는?(너 물요? 너 물이나 다섯 물쯤에는?)

105003 #1 어, 어.(어, 어.)

105003 @ 보말 잡을 거예?(보말 잡을 거요?)

105003 #1 어.(어.)

105003 @ 깅이는 몇 물 때?(게는 몇 물 때?)

105003 #1 깅이는 뭐 두 물, 서 물에도 가도 잡아.(게는 뭐 두 물, 서 물에도 가도 잡아.)

105003 @ 두 물, 서 물에도?(두 물, 서 물에도?)

105003 #1 으, 두 물, 서 물에도 가도.(으, 두 물, 서 물에도 가도.)

105003 @ 가도 잡을 거?(가도 잡을 거?)

105003 #1 으, 으.(으, 으.)

105003 @ 그냥 ᄀᆞ디 강.(그냥 가 가서.)

105003 #1 ᄀᆞ디 강.(가 가서.)

105003 @ 돌만 일르민?(돌만 일으키면?)

105003 #1 예, 예. 이만씩헌 돌만 일러도 깅이 잡아지는 거.(예, 예. 이만한 돌만 일으켜도 게 잡을 수 있는 거.)

105006 @ 기라예. 우리 바당에 강 불 쌍도 뭐 잡고 헤낫수과?(그렇지요. 우리 바다에 가서 불 켜서도 뭐 잡고 했었습니까?)

105006 #1 어, 그건 저 낙지.(어, 그건 저 낙지.)

105006 @ 낙지.(낙지.)

105006 #1 밤에 그 저, 물 ᄀᆞ음허고 바다 저 돌 ᄀᆞ음. 바닷물 ᄀᆞ음허고 그디 그 ᄀᆞ음이 잇엉 바당물 영 밤이도 싼 때 들어오는 ᄀᆞ음. 그, 그 ᄀᆞ음에 요만씩 헌 옹뎅이가 잇어.(밤에 그 저, 물 감하고 바다 저 돌 감. 바닷물 감하고 거기 그 감이 있어서 바닷물 이렇게 밤에도 썰 때 들어오는 감. 그, 그 감에 요만큼씩 한 옹당이가 있어.)

105006 @ 으.(으.)

105006 #1 물 츤, 짠물 앚는.(물 짠, 짠물 앉는.)

105006 @ 으.(으.)

105006 #1 골르는 옹뎅이.(고이는 옹당이.)

105006 @ 으.(으.)

105006 #1 그디 가근에 영 뭣에 횃불 싸근에 영 허면은 낙지가 찰락 나와.(거기 가서 이렇게 뭐에 횃불 켜서 이렇게 하면 낙지가 찰락 나와.)

105006 @ 아, 영 옹뎅이에 강?(아, 이렇게 옹당이에 가서?)

105006 #1 그 물 우에로 영 불이 비추면은.(그 물위로 이렇게 불이 비추면.)

105006 @ 으.(으.)

105006 #1 그것이 그 낙지가 고냥에 잇엇다가 땅 고냥에 잇엇다가 탁 나와.(그것이 그 낙지가 구멍에 있었다가 땅 구멍에 있었다가 탁 나와.)

105006 @ 게민 그것도 물때에 맞춰 가얄 거우다. 물때예?(그럼 그것도 물때에 맞춰서 가얄 겁니다. 물때요?)

105006 #1 으, 으. 물이 ᄒᆞ꼼 ᄀᆞᆯ아져사. 물 ᄂᆞ려강 ᄒᆞ꼼 싸사.(으, 으. 물이 조금 깔려야. 물 내려가서 조금 써야.)

105006 @ 게민 그것도 물 너 물, 다섯 물 뒈사?(그럼 그것도 물 너 물, 다섯 물 되어야?)

105006 #1 아니 그건 밤이.(아니 그건 밤에.)

105006 @ 밤이.(밤에.)

105006 #1 불 쌍 가는 건 밤이.(불 켜서 가는 건 밤에.)

105006 @ 밤이난 몇 물 때?(밤이니까 몇 물 때?)

105006 #1 밤이도 초저냑이 물 싸젠 허면은 ᄒᆞᆫ 열, 열ᄒᆞᆫ 물, 열두 물.(밤에도 초저녁에 물 썰려고 하면 한 열, 열한 물, 열두 물.)

105006 @ 열두 물쯤에.(열두 물쯤에.)

105006 #1 으, 그 ᄉᆞ시에.(으, 그 사시에.)

105006 @ 그때 가 가지고.(그때 가 가지고.)

105006 #1 으, 으.(으, 으.)

105006 @ 낙지 잡안?(낙지 잡았어?)

105006 #1 낙지. 우리는, 우리는 안 헤 본디 경 허멍 잡는 사름덜이 잇어낫주게.(낙지. 우리는, 우리는 안 해 봤는데 그렇게 하면서 잡는 사람들이 있었어.)

105006 @ 그때 싸는 불을 뭐렌 헙니까?(그때 켜는 불을 뭐라고 합니까?)

105006 #1 횃불, 횃불.(횃불, 횃불.)

105006 @ 그냥 횃불예, 횃불 쌍. 횃불은 뭐에 부쩡 갓수과?(그냥 횃불요, 횃불 켜서. 횃불은 뭐에 붙여서 갔습니까?)

105006 #1 횃불 저 막뎅이 헤근에 저 검질 감앙, 무신 저.(횃불 저 막대기 해서 저 검불 감아서, 무슨 저.)

105006 @ 천, 검질?(천, 검불?)

105006 #1 무시거 그디 조칩이라도 만이 헹 감아근에게.(무엇 거기 조짚이라고 많이 해서 감아서.)

105006 @ 예.(예.)

105006 #1 감앙 딱 무껑. 게근에 경 불부찌민.(감아서 딱 묶어서. 그래서 그렇게 불붙이면.)

105006 @ 으.(으.)

105006 #1 지금덜은 그 웨에는, 그 웨에는 쒜줄, 쒜줄 술진 거 헤영 쒜줄 끄트머리에 험벅, 험벅에 지름 멕영.(지금들은 그 외에는, 그 외에는 쇠줄, 쇠줄 살진 거 해서 살진 거 해서 쇠줄 끄트머리에 헝겊, 헝겊에 기름 먹여서.)

105006 @ 지름 멕영.(기름 먹여서.)

105006 #1 지름 멕여근에 허믄 오래가주게 그건. 경헨 거 비추고.(기름 먹어서 하면 오래가지 그건. 그래서 거 비추고.)

105006 @ 쒜줄은 쒜 막데기 얘기 허는 거?(쇠줄은 쇠막대기 얘기 하는 거?)

105006 #1 으, 쒜막데기. 나무엔 카 불 거난.(으, 쇠막대기. 나무엔 타 버릴 거리니까.)

105006 @ 아, 불부떠 불카 부덴.(아, 불붙어 버릴까 봐.)

105006 #1 불 부뜰 거난, 쒜.(불붙을 거니까, 쇠.)

105006 @ 쒜에 허민 여기 손잡이 뜨겁거나 허진 안헙니까?(쇠에 하면 여기 손잡이 뜨겁거나 하지 않습니까?)

105006 #1 아니, 끄트머리에만 헐 거난.(아니, 끄트머리에만 할 거니까.)

105007 @ 으, 쒜에 천에 헹예. 그럼 여기에는 고내리에는 갯담[154], 원담이 엇어낫수과?(으, 쇠에 천에 해서요. 그럼 여기에는 고내리에는 '갯담', '원담'이 없었습니까?)

105007 #1 원담 잇어나서.('원담' 있었어.)

105007 @ 원담에서 뭐 잡아난?('원담'에서 뭐 잡았었어?)

105007 #1 저, 멜.(저, 멸치.)

105007 @ 그럼 여기도 멜 잡는 거 헤난예?(그럼 여기도 멸치 잡는 거 했었어요?)

154) '갯담'은 해변 조간대에 만을 이루는 듯한 곳에 돌담을 축조해 놓고 밀물을 따라 몰려든 고기떼를 썰물이 나면 그 안에 가둬 놓아 쉬 잡을 수 있게 장치해 둔 곳이다. '원담'이라고도 한다.

105007 #1 예.(예.)
105007 @ 원담 이름 뭐 잇수과?(‘원담’ 이름 뭐 있습니까?)
105007 #1 상뒷돈[155].(‘상뒷돈’.)
105007 @ 상뒤?(상뒤?)
105007 #1 으, 상뒷돈.(으, ‘상뒷돈’.)
105007 @ 상뒤돈.(‘상뒤돈’.)
105007 #1 으, 상뒤돈 원담.(으, ‘상뒤돈’ ‘원담’.)
105007 @ 하나 잇어난?(하나 있었어?)
105007 #1 으, 하나, 하나.(으, 하나, 하나.)
105009 @ 게민, 멜 거리젠 허민 어떵 가 사람들?(그럼, 멸치 뜨려고 하면 어떻게 가 사람들?)
105009 #1 사람들 멜 거리젠 허민 새벡이, 아침 새벡이 때 영 돌아뎅기는 사름이 잇어.(사람들 멸치 뜨려고 하면 새벽에, 아침 새벽에 때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105009 @ 그런 멜 거튼 거 올라시냐, 어떵 안 헤시냐?(그런 멸치 같은 거 올랐는지, 어떻게 안 했는지?)
105009 #1 그 사름덜 보면은 새벡 세 시에도 가곡 네 시에도 가곡.(그 사람들 보면 새벽 세 시에 가고 네 시에도 가고.)
105009 @ 그럼 그것도 다 개인으로?(그럼 그것도 다 개인으로?)
105009 #1 개인으로. 빠르게, 빠르게 들린 사름은 헤당 먹고.(개인으로. 빠르게, 빠르게 들린 사람은 해다가 먹고.)
105009 @ 안 헌 사름은 못 헤당 먹고.(안 한 사람은 못 해다가 먹고.)
105009 #1 겐 만이 헤 오면은 사당덜도 먹고게.(그래서 많이 해 오면 사다가들도 먹고.)
105009 @ 아, 사당덜도 먹고?(아, 사다가들도 먹고?)
105009 #1 으, 빌어당도 먹고.(으, 빌어다가도 먹고.)
105009 @ 게난 여기는 접으로 바당일은 안 헤낫구나?(그러니까 여기는 접으로 바닷일은 안 했었구나?)
105009 #1 으, 그런 건 벨로 엇어. 그 원담이 작고 허니까 그 영업으로 허진 안 허고 부락에 심심헌 사름덜 개인으로, 부지런헌 사름덜은 헤당 먹고 겡 안 헌 사름은 못 헤당 먹고게.(으, 그런 건 별로 없어. 그 ‘원담’이 작고 하니까 그 영업으로 하진 않고 부락에 심심한 사람들 개인으로, 부지런한 사람들은 해다가 먹고 그렇게 안 한 사람은 못 해다가 먹고.)
105009 @ 으, 게민 원담에 들어왕 잡는 거는 멜만 잡는 거? 다른 건 엇어?(으, 그럼 ‘원담’에 들어와서 잡는 거는 멸치만 잡는 거? 다른 건 없어?)
105009 #1 다른 것도 들어오게 뒈면은 들어오주만은 다른 건 잘 안 들어와.(다

155) ‘상뒷돈’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에 있는 ‘갯담’ 이름의 하나다.

른 것도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지만 다른 건 잘 안 들어와.)
105009 @ 멜이라예, 주로 들어오는 건.(멸치예요, 주로 들어오는 건.)
105009 #1 멜, 주로 멜.(멸치, 주로 멸치.)
105009 @ 멜 들엇수다예. 그럼 멜 거린덴 허잖아예.(멸치 들었네요. 그럼 멸치 뜬다고 하잖아요.)
105009 #1 거리는 건 족바지.(뜨는 건 뜰채.)
105009 @ 족바지.(뜰채.)
105009 # 족바지, 족바지, 사둘. 사둘이엔 헌 건 ᄒᆞ꼼 큰 거. 족바진 쪼그만헌 거. 우리라도 가졍 뎅기는 건 족바지.(뜰채, 뜰채, 사둘. 사둘이라고 하는 건 조금 큰 거. 뜰챈 조그마한 거. 우리라도 가지고 다니는 건 뜰채.)
105009 @ 사둘은 어떵?(사둘은 어떻게?)
105009 #1 큰 거, 그 종류라도 ᄒᆞ꼼 큰 거. 이 자리 거리는 거.(큰 거, 그 종류라도 조금 큰 거. 이 자리돔 뜨는 거.)
105009 @ 예.(예.)
105009 #1 그것ᄀᆞ란 사둘, 사둘.(그것보고 사둘, 사둘.)
105009 @ 그거 족바지랑 비슷허게 생겻수과?(그거 뜰채랑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105009 #1 비슷허여, 비슷허긴. 작고 크긴 허주. 족고 큰 거.(비슷해, 비슷하긴. 작고 크긴 하지. 작고 큰 거.)
105009 @ 아, 작은 건 족바지.(아, 작은 건 뜰채.)
105009 #1 족바지.(뜰채.)
105009 @ 큰 건.(큰 건.)
105009 #1 그물.(그물.)
105009 @ 사둘?(사둘?)
105009 #1 사둘.(사둘.)
105009 @ 사둘, 사둘은 뭐로 멘들아신고예?(사둘, 사둘은 뭐로 만들었는가요?)
105009 #1 그것도 그 솔진 주낫, 주낫.(그것도 그 살진 주낙, 주낙.)
105009 @ 으.(으.)
105009 #1 주낫으로 사둘 영 ᄋᆞ꽝.(주낙으로 사둘 이렇게 엮어서.)
105009 @ 주낫이 뭐과?(주낙이 뭡니까?)
105009 #1 주낫이엔 허믄 저 실.(주낙이라고 하면 저 실.)
105009 @ 으.(으.)
105009 #1 멘네 그런 걸로 다 헤 가지고 허는 거주게.(면화 그런 걸로 다 해 가지고 하는 거지.)
105009 @ 그믄 그 주낫으론 주로 뭐 만들아? 줄 만드는 거, 그 낙시줄 같은 거?(그럼 그 주낙으론 주로 뭐 만들어? 줄 만드는 거, 그 낚싯줄 같은 거?)
105009 #1 낙시줄도 허고 그런 걸로 베도 허고 뭣이라도 허주. 뭐, 못 허는 것

이 셔, 그런 건.(낚싯줄도 하고 그런 걸로 바도 하고 뭣이라도 하지. 뭐, 못 하는 것이 있어, 그런 건.)

105009 @ 그럼 멘네를 막 여러 번.(그럼 면화를 아주 여러 번.)

105009 #1 예, 여러 번 헤근에 그냥 헤 가면 솔지게도 나오고. ᄀᆞ늘게도 나오고 그런 걸로 다 그거 허는 거주게.(예, 여러 번 해서 그냥 해 가면 살지게도 나오고. 가늘게도 나오고 그런 걸로 다 그거 하는 거지.)

105009 @ 게민 이 사둘 그물도 주낫으로 허는 거군아예. 낭은?(그럼 이 사둘 그물도 주낙으로 하는 거군요. 나무는?)

105009 #1 낭은, 나무는 낭은 저 사둘 허는 낭은 저 고지 강.(나무는, 나무는 나무는 저 사둘 하는 나무는 저 숲 가서.)

105009 @ 어.(어.)

105009 #1 그런, 그런 일름 잇어, 나무 일름이.(그런, 그런 이름 있어, 나무 이름이.)

105009 @ 으.(으.)

105009 #1 그런 거 헤다근에 영 불 때여근에 ᄒᆞ꼼씩 구워 가지고. 카지 못헐 정도로. 쪼끔씩, 쪼끔씩 허민 영 이렇게 휘여져.(그런 거 해다가 이렇게 불 때어서 조금씩 구워 가지고. 타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조금씩 하면 이렇게 이렇게 휘어져.)

105009 @ 열 가해 가지고 휘여?(열 가해 가지고 휘어?)

105009 #1 으, 으. 경헹 무꺼근에.(으, 으. 그래서 묶어서.)

105009 @ 무껑.(묶어서.)

105009 #1 경헨 그물 ᄋᆞ꽈근에 이젠.(그래서 그물 엮어서 이젠.)

105009 @ 아. 게민 그거 할 때 그 낭 이름?(아. 그럼 그거 할 때 그 나무 이름?)

105009 #1 그건.(그건.)

105009 @ 생각 안 나고?(생각 안 나고?)

105009 #1 저 저 저 저, 그거 무신 낭이고?(저 저 저 저, 그거 무슨 나무인고?)

105009 @ 뒛수다, 뒛수다.(됐습니다, 됐습니다.)

105009 #1 윤노리낭.(윤노리나무.)

105009 @ 윤노리낭?(윤노리나무?)

105009 #1 윤노리낭 거튼 거.(윤노리나무 같은 거.)

105009 @ 윤노리낭.(윤노리나무.)

105009 #1 노가리 거튼 거.(주목 같은 거.)

105009 @ 노가리낭.(주목.)

105009 #1 으, 노가리, 윤노리.(으, 주목, 윤노리.)

105009 @ 노가리, 윤노리낭예, 손잡이도?(주목, 윤노리나무요, 손잡이도?)

105009 #1 손잡이는, 손잡이는 아무런 거라도 뒈여. 소낭으로도 허는디.(손잡이는, 손잡이는 아무런 거라도 돼. 소나무로도 하는데.)

105009 @ 허는디 휘젠 허면 윤노리?(하는데 휘려고 하면 윤노리?)

105009 #1 으, 그런 것이 질겨. 불 때고 뭐 영 헤가도 꺼꺼지지 안 헤, 이거.(으, 그런 것이 질겨. 불 때고 뭐 이렇게 해 가도 꺾이지 않아, 이거.)

105009 @ 그런 걸로예. 게민 갯담에 갈 땐 그거 들렁 가는 거라예?(그런 걸로요. 그럼 '갯담'에 갈 땐 그거 들고 가는 거네요?)

105009 #1 으.(으.)

105009 @ 사둘이나.(사둘이나.)

105009 #1 족바지.(뜰채.)

105009 @ 족바지나. 구덕?(뜰채나. 바구니?)

105009 #1 구덕은 대구덕.(바구니는 대바구니.)

105009 @ 대구덕 들렁 가고.(대바구니 들고 가고.)

105009 #1 으.(으.)

105009 @ 족바지 들렁 물 지치멍 어이 들어가라 허젠 허민 뭐 솔박이라도 안 가졍 갑니까?(뜰채 들고 물 끼얹으면서 어이 들어가라 하려고 하면 뭐 '솔박'이라고 안 가지고 갑니까?)

105009 #1 솔박[156], 솔박이라도 뒈긴 뒈주기만은게.('솔박', '솔박'이라도 되긴 되지만.)

105009 @ 그냥 족바지?(그냥 뜰채?)

105009 #1 으, 사름으로만.(으, 사람으로만.)

105009 @ 손으로?(손으로?)

105009 #1 으, 으. 손으로도 허고 솔박도 첨, 좀팍도 가졍 가고.(으, 으. 손으로도 하고 '솔박'도 첨, '좀팍'도 가지고 가고.)

105009 @ 좀팍도 가졍 가야. 족바지 이신 거 구덕에라도 담아 놓을 거.('좀팍'도 가지고 가야. 뜰채 있는 거 바구니라도 담아 놓을 거.)

105009 #1 족바진 그냥이라도 들 수 잇주만은 사둘은 체우쳐[157]야.(뜰채 그냥이라도 들 수 있지만 사둘은 한쪽 끝을 들어 올려야.)

105009 @ 아, 체우쳥.(아, 한쪽 끝을 들어 올려서.)

105009 #1 영 헹 거려, 거려 놔.(이렇게 해서 떠, 떠 놔.)

105009 @ 좀팍으로예.('좀팍'으로요.)

105009 #1 으, 거려. 체우쳥.(으, 떠. 한쪽 끝을 들어 올려서.)

105009 @ 거려 놔예, 구덕에 담아예?(떠 놔요, 바구니에 담아요?)

105009 #1 으, 담앙.(으, 담아서.)

105009 @ 게민 여기는 멜 막 하영 거렁, 그 멜을.(그럼 여기는 멸치 아주 많이 떠, 그 멸치를.)

105009 #1 하영 경 거렁 그 멜 헐 것이 엇고 먹을 거베끼 안 허여. 걸름이나 뭣

156) '솔박'은 '한 되들이만큼 하게 나무를 파서 만든 둥그스름한 그릇'을 말한다. 곡물을 뜰 때 사용하는 도구로 지역에 따라 '좀팍, 좀박, 손박'이라고도 한다.

157) '체우치다'은 안에 들어 있는 것을 걷어 모을 수 있게 한쪽 끝은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한다.

허게 들진 안허난.(많이 그렇게 뜨게 그 멸치 할 것이 없고 먹을 거밖에 안 해. 거름이나 뭐 하게 들진 않으니까.)

105009 @ 아, 여기는예?(아, 여기는요?)

105009 #1 예, 예.(예, 예.)

105009 @ 걸름허게는 안 허고.(거름하게는 안 하고.)

105009 #1 예, 예. 이 이 바당이 넓으질 안 헤 가지고. 이 이 엉장 돌덜이 하고 모래 바당이고 그렇게 허니까 만이 들지를 안허여. 그런 건.(예, 예. 이 아 바다가 넓질 안 해 가지고. 이 이 낭떠러지 돌들이 많고 모래 바다이고 그렇게 하니까 많이 들지 않아. 그런 건.)

105008 @ 게민 원담 이제 막 담들 멀어져 불민 그 담덜 다우고 헤야잖아예?(그럼 '원담' 이제 아주 담들 무너져 버리면 그 담들 쌓고 해야잖아요?)

105008 #1 예. 모다들엉 다울 때 모다들엉 다와. 겐디 지금은 헤싸져 불엉 멜도 안 들고 경, 이제도 흔적은 잇어.(예. 모여서 쌓을 때 모여서 쌓아. 그런데 지금은 허물어져 버려서 멸치도 안 들고 그렇게, 이제도 흔적은 있어.)

105008 @ 으.(으.)

105008 #1 흔적은 잇주만은 잘 들지 안 헤여, 지금은.(흔적은 있지만 잘 들지 않아, 지금은.)

105008 @ 옛날에 그거 보수허젠 허민 사름덜 막 모입서.(옛날은 그거 보수하려고 하면 사람들 마구 모이세요.)

105008 #1 으, 모영 원담덜 다웁서, 다우레 나옵서 허면은 남저 신 집이덜은 강, 나강 다웁고.(으, 모여서 '원담'들 쌓으세요, 쌓으러 나오세요 하면 남자 있는 집에 들은 가서, 나가서 쌓고.)

105008 @ 으. 그건 누게가 왕 골아?(으. 그건 누가 와서 말해?)

105008 #1 거 반장이 잇주기게.(거 반장이 있지.)

105008 @ 반장이?(반장이?)

105008 #1 으, 으. 통장.(으, 으. 통장.)

105009 @ 그민 멜, 원담 다울 때는 어쨌든 반장이 다 불렁 영 헤신디, 멜 거릴 때는 멜 들엇수다, 다 나옵서.(그럼 멸치, '원담' 쌓을 때는 어쨌든 반장이 다 불러서 이렇게 했는데, 멸치 뜰 때는 멸치 들었습니다, 다 나오세요.)

105009 #1 아니, 경은 안 허여. 경 허게끔 만이 들지 안헹게.(아니, 그렇게는 안 해. 그렇게 하게끔 많이 들지 않아.)

105009 @ 아, 게난 먼저 강 봐지는 대로.(아, 그러니까 먼저 가서 보이는 대로.)

105009 #1 예, 봐지는 대로 그냥 거렁 허면은게. 또 아는 사름 가민 그냥도 주고.(예, 보이는 대로 그냥 떠서 하면. 또 아는 사람 가면 그냥도 주고.)

105009 @ 으.(으.)

105009 #1 빌어당덜도 먹곡게.(빌려다가도 먹고.)

105009 @ 아, 게민 멜 잡아당 그거는 주로 뭐 헹 먹엇수과?(아, 그럼 멸치 잡아

다가 그거는 주로 뭐 해서 먹었습니까?)

105009 #1 국 끌령게.(국 끓여서.)

105009 @ 국 끌령 먹고.(국 끓여서 먹고.)

105009 #1 으, ᄂᆞ물 놓고 헤영. 배추 놩.(으, 나물 넣고 해서. 배추 놔서.)

105009 @ 또 젓은, 멜첫?(또 젓갈은, 멸치젓?)

105009 #1 아, 멜첫도 허고. 멜첫도 헤영 먹고.(아, 멸치젓도 하고. 멸치젓도 해서 먹고.)

105009 @ 페쌍 ᄆᆞ리지는 안허고?(배를 갈라서 말리지는 않고?)

105009 #1 여기서는 ᄆᆞ려 보진 벨로 안허여.(여기서는 말려 보진 별로 않아.)

105009 @ 아, 그때 먹은 걸로 끝이구나.(아, 그때 먹은 걸로 끝이구나.)

105009 #1 으, 으. 그자 젓이나 허고 끌령 먹고 지졍 먹곡.(으, 으. 그저 젓갈이나 하고 끓여서 먹고 지져서 먹고.)

105010 @ 물궤기도 나까낫수과? 바다, 바닷궤기?(물고기도 낚았었습니까? 바다, 바닷고기?)

105010 #1 우리?(우리?)

105010 @ 예.(예.)

105010 #1 아니.(아니.)

105010 @ 낙시대로 헹?(낚싯대로 해서?)

105010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5010 @ 안 헤 봔?(안 해 봤어?)

105010 #1 그런 거 안 헤 봔.(그런 거 안 해 봤어.)

105010 @ 게민 물에 들엇을 때 작살로, 물에 들엇을 때 고기는 안 쏘아 봣수과?(그럼 물에 들었을 때 작살로, 물에 들었을 때 고기는 안 쏘아 봤습니까?)

105010 #1 아니.(아니.)

105013 @ 안 쏘아 봔. 그 여기 고깃베 잇수과?(안 쏘아 봤어. 그 여기 고깃배 있습니까?)

105013 #1 저, 무시것고 오징에 거리레 가고 경 큰 베들은 엇어.(저, 무엇인가 오징어 뜨러 가고 그렇게 큰 배들이 없어.)

105013 @ 아, 고내 오징어 허는 배는 엇어?(아, 고내 오징어 하는 배가 없어?)

105013 #1 으. 멧 개 실 거라.(으. 몇 개 있을 거야.)

105013 @ 옛날에, 옛날에.(옛날에, 옛날에.)

105013 #1 옛날에는 엇고, 중간에부터 셔낫주게.(옛날에는 없고, 중간에부터 있었어.)

105013 @ 아.(아.)

105013 #1 엿날에, 옛날에덜은 뭐 저 갈치, 고등어 그런 거 허레는 뎅겨나서.(옛날에, 옛날에들은 뭐 저 갈치, 고등어 그런 거 하러는 다녔었어.)

105013 @ 그런 거 허레 갈 때 배는 무슨 베?(그런 거 하러 갈 때 배는 무슨

배?)

105013 #1 낙베.(낚배.)

105013 @ 낙베렌 헤난?(낚배라고 했었어?)

105013 #1 으, 낙베. 기계 엇은 배, 낙베.(으, 낚배. 기계 없는 배, 낚배.)

105013 @ 예, 기계 엇인 배. 옛날에는 기계 엇어 가지고 뭐 달령 다녓잖아예?(예, 기계 없는 배. 옛날에는 기계 없어 가지고 뭐 달려서 다녔잖아요?)

105013 #1 베 초석[158].(배 초석.)

105013 @ 그거 베 초석이렌 헤?(그거 배 초석이라고 해?)

105013 #1 베 초석.(배 초석.)

105013 @ 베 초석. 엿날 배 요런 거 아니?(배 초석. 옛날 배 요런 거 아니?)

105013 #1 으게, 거 초석, 저거.(으, 거 초석, 저거.)

105013 @ 이거 초석?(이거 초석?)

105013 #1 으, 초석.(으, 초석.)

105013 @ 이 베를 아까 무슨 베라고 헷다고?(이 배를 아까 무슨 배라고 했다고?)

105013 #1 낙베.(낚배.)

105013 @ 아, 낙베렌 헷수과?(아, 낚배라고 했습니까?)

105013 #1 으, 으. 기계 엇은 베 낙베.(으, 으. 기계 없는 배 낚배.)

105013 @ 기계 엇은 베예?(기계 없는 배요?)

105013 #1 으.(으.)

105013 @ 여기 명칭덜 모르지예? 알아지쿠과? 이건 베 초석예?(여기 명칭들 모르지요? 알겠습니까? 이건 배 초석요?)

105013 #1 베 초석.(배 초석.)

105013 @ 베 머리를 뭐렌 골아? 몰라?(배 머리를 뭐라고 말해? 몰라?)

105013 #1 머린 뭐, 머리 끄트머리 그거 무신 뭐.(머린 뭐, 머리 끄트머리 그거 무슨 뭐.)

105013 @ 예, 뭣수다. 그럼 낙베만 잇고 자리 잡는 벤 엇어낫수과?(예, 됐습니다. 그럼 낚배만 있고 자리 잡는 밴 없었습니까?)

105013 #1 무사 테우.(왜 떼.)

105013 @ 테우.(떼.)

105013 #1 테우 셔낫주게.(떼 있었지.)

105013 @ 예, 그것도 잇고예?(예, 그것도 있고요?)

105013 #1 으.(으.)

105014 @ 게민 낙시는 그냥 넘어가고. 좀녀들이 물에 들엉 잡는 해산물은, 물에 들엉예, 물에 들엉 잡는 건 뭐, 뭐 잇어낫수과?(그럼 낚시는 그냥 넘어가고. 잠녀들이 물에 들어서 잡는 해산물은, 물에 들어서요, 물에 들어서 잡는 건 뭐, 뭐 있었습

158) '베 초석'은 낚싯배 등에 돛으로 달았던 초석으로, 돛을 말한다.

니까?)

105014 #1 뭐 저, 전복.(뭐 저, 전복.)

105014 @ 전복.(전복.)

105014 #1 구젱이.(소라.)

105014 @ 구젱이.(소라.)

105014 #1 미.(해삼.)

105014 @ 미.(해삼.)

105014 #1 무꾸럭.(물꾸럭.)

105014 @ 무꾸럭.(물꾸럭.)

105014 #1 그거. 저, 저 미. 미 골앗지양?(그거. 저, 저 해삼. 해삼 말했지요?)

105014 @ 예, 예.(예, 예.)

105014 #1 그거.(그거.)

105014 @ 전복허고 소라를 영.(전복하고 소라를 이렇게.)

105014 #1 구젱이.(소라.)

105014 @ 구젱이를 잡을 때 다 개인으로 허는 거 그런 거.(소라를 잡을 때 다 개인으로 하는 거 그런 거.)

105014 #1 옛날엔 개인으로, 옛날엔. 막지 안헤영. 어촌계영 무시거영 엇어낫주게. 엿날은게.(옛날엔 개인으로, 옛날엔. 막지 않아서. 어촌계랑 무엇이랑 없었었지. 옛날은.)

105014 @ 예. 개인으로 영 잡아 오민, 전복 보민 전복도 여저, 남자가 잇어낫수과?(예. 개인으로 이렇게 잡아 오면, 전복 보면 전복도 여자, 남자가 있었습니까?)

105014 #1 잇주게. 잇어. 모냥도 틀려.(있지. 있어. 모양도 달라.)

105014 @ 게민, 여자는 뭐렌 골아?(그럼, 여자는 뭐라고 해?)

105014 #1 암천복.(암전복.)

105014 @ 남자는?(남자는?)

105014 #1 숫천복.(수전복.)

105014 @ 아. 모냥이 어떵 ᄐᆞ납니까?(아. 모양이 어떻게 다릅니까?)

105014 #1 모냥이 수천복은 영 소랑허고 암천복은 영 쪼금 동그랑허고. 틀려.(모양이 수전복은 이렇게 길쭉하고 암전복은 이렇게 조금 동그랗고. 달라.)

105014 @ 뒤에가 오목헌 게?(뒤가 오목한 게?)

105014 #1 오모록허영 소랑헌 것이 수천복.(오목해서 길쭉한 것이 수전복.)

105014 @ 수천복.(수전복.)

105014 #1 베짝헤영 영 ᄒᆞ꼼 쫄랑 동고롯헌 것이 암천복.(납작해서 이렇게 조금 짧아서 둥긋한 것이 암전복.)

105014 @ 겐 암천복은 베짝헹 영 동그락헌 거라예?(그래서 암전복은 납작해서 이렇게 동그란 거예요?)

105014 #1 으.(으.)

105014 @ 오몽헹, 좀 길쭉허멍 오목헌 건.(오목해서, 좀 길쭉하면서 오목한 건.)

105014 #1 으, 건 수천복.(으, 건 수전복.)

105015 @ 아, 기구나. 좀녀덜 바다에 이렇게 잡으레 가젠 허민 뭐, 뭐 가져갑니까?(아, 그렇구나. 잠녀들 바다에 이렇게 잡으러 가려고 하면 뭐, 뭐 가져갑니까?)

105015 #1 뭐, 뭐 가져가. 엿날엔게 구덕 지고. 궤에기[159]엔 헌 것이 셔, 궤에기엔 저 이 쉐가죽으로 만든 거. 궤에기.(뭐, 뭐 가져가. 옛날에는 바구니 지고. '궤에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 '궤에기'라고 저 이 소가죽으로 만든 거. '궤에기'.)

105015 @ 다시 한 번 골아 줍서.(다시 한 번 말해 주세요.)

105015 #1 궤야기, 궤야기.('궤야기', '궤야기'.)

105015 @ 궤야기. 궤야기가 뭐과?('궤야기', '궤야기'가 뭡니까?)

105015 #1 소가죽으로 만든, 쉐가죽으로 만든.(소가죽으로 만든, 소가죽으로 만든.)

105015 @ 뭐 헐 때 쓰는 거?(뭐 할 때 쓰는 거?)

105015 #1 거 물 아니 흘치지 못허게 허는 거.(거 물 안 흘리지 못하게 하는 거.)

105015 @ 예.(예.)

105015 #1 쉐가죽 바짝 ᄆᆞᆯ르믄 버쩍 영 이젠 덜 ᄆᆞᆯ를 때에 이렇게 영 ᄒᆞ꼼.(소가죽 바짝 마르면 버쩍 이렇게 이젠 덜 마를 때에 이렇게 이렇게 조금.)

105015 @ 으.(으.)

105015 #1 이제 지게, 지게 신 집이덜은 지게에 그 궤야기를 놓젠 허믄, 지게가 영 오모룩헤영 지게가달이 잇주게, 가달. 가달허고 이런 등뗑이 대는 디가 이렇게 뒌 디 요 요렇게 허젠 허면, 궤에기엔 헌 걸 영 오무룩허게 헤여 놔근에.(이제 지게, 지게 있는 집에들은 지게에 그 '궤야기'를 놓으려고 하면, 지게가 이렇게 오목해서 지겟다리가 있지, 다리. 다리하고 이런 등때기 대는 데가 이렇게 된 데 요 요렇게 하려고 하면, '궤에기'라고 한 걸 이렇게 오목하게 해서 나서.)

105015 @ 지겟가지예?(지겟가지요?)

105015 #1 으, 지겟가지에 맞게, 이디 맞게시리. 오그령 ᄆᆞᆯ롸근에 그거 대영 물 앚지[160] 못허게 허영 그 우에 구덕 놩.(으, 지겟가지에 맞게, 여기 맞게끔. 오그려서 말려서 그거 대서 물 앉지 못하게 해서 그 위에 바구니 놔서.)

105015 @ 으.(으.)

105015 #1 그것에 메역도 지영 뎅기곡 뭣 헤낫주.(그것에 미역도 지어서 다니고 뭐 했었지.)

105015 @ 게민 지게도 여자덜이 져낫수과?(그럼 지게도 여자들이 졌었습니까?)

105015 #1 저 우리 친정엔 헤도 이 고낸 여저덜 안 져.(저 우리 친정엔 해도 이 고낸 여자들 안 져.)

---

159) '궤에기'는 바구니에 물기 있는 물건을 넣어 질 때에, 그 바구니 밑에 까는 깔개를 말한다. 제보자는 '궤야기'라고도 했다.

160) '앚다'는 '앉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여기서 '물 앚다'는 '물이 괴다'의 의미다.

105015 @ 안 지고.(안 지고.)
105015 #1 남저덜만 지고.(남자들만 지고.)
105015 @ 남저덜만, 예. 게민 여저덜은 질구덕[161]에?(남자들만, 예. 그럼 여자들은 '질구덕'에?)
105015 #1 짐페, 베로, 그 궤에기만 대영.(짐바, 바로, 그 '궤에기'만 대어서.)
105015 @ 밑에 대는 거?(밑에 대는 거?)
105015 #1 으, 밑에 대는 거.(으, 밑에 대는 거.)
105015 @ 으.(으.)
105015 #1 밑에 대영 물 아니 흘치는 거.(밑에 대어서 물 안 흘리는 거.)
105015 @ 이게, 이게 구덕이면 영 등짝 허영?(이게, 이게 바구니면 이렇게 등짝해서?)
105015 #1 영, 영.(이렇게, 이렇게.)
105015 @ 밑으로 헹 헴구나예?(밑으로 해서 하는군요?)
105015 #1 이거이 궤에기민게 영 허영 요 정도.(이거 '궤에기'면 이렇게 해서 요 정도.)
105015 @ 이 정도.(이 정도.)
105015 #1 이디 구덕 놩.(여기 바구니 놔서.)
105015 @ 구덕 놩.(바구니 놔서.)
105015 #1 이젠 베 혜영 이레 영.(이젠 바 해서 이리 이렇게.)
105015 @ 예.(예.)
105015 #1 이건 등더레 가는 거.(이건 등으로 가는 거.)
105015 @ 등더레.(등으로.)
105015 #1 이건 알러레.(이건 아래로.)
105015 @ 게난 등짝에도 물 젖지 말렌?(그러니까 등짝에도 물 젖지 말라고?)
105015 #1 으, 젖지 말렌.(으, 젖지 말라고.)
105015 @ 궤야기를 대영.('궤야기'를 대서.)
105015 #1 예, 궤에기 헹.(예, '궤에기' 해서.)
105015 @ 그건 쉐가죽으로마씨?(그건 소가죽으로요?)
105015 #1 쉐가죽으로.(소가죽으로.)
105015 @ 그럼 궤야기 놓고 구덕 놩. 그 구덕 안에는 뭐 담앙 갈 것과?(그럼 '궤야기' 놓고 바구니 놔서. 그 구덕 안에는 뭐 담고 갈 겁니까?)
105015 #1 갈 때?(갈 때?)
105015 @ 으.(으.)
105015 #1 갈 땐 검질게. 보리낭이나 조칩이나. 경 안 허민 무신 저 꿰, 꿰 털어난 나무나 아무 거라도 불부트는 건 다 가졍 가.(갈 땐 검불. 보릿대나 조짚이나. 그렇게 안 하면 무슨 저 깨, 깨 털었던 나무나 아무 거라도 불붙는 건 다 가지고

161) '질구덕'은 물건을 넣어서 지고 다니는 큰 바구니를 말한다.

가.)

105015 @ 그거 뭐 헐 거? 가져가는 거?(그거 뭐 할 거? 가져가는 거?)

105015 #1 가져가는 거?(가져가는 거?)

105015 @ 으.(으.)

105015 #1 물에 들엉 나오민 초울 거.(물에 들어서 나오면 쬘 거.)

105015 @ 어, 초울 거.(어, 쬘 거.)

105015 #1 불턱[162]이엔 헨 잇주게. 불턱, 불턱에.('불턱'이라고 해서 있지. '불턱', '불턱'에.)

105015 @ 예, 예.(예, 예.)

105015 #1 불턱에 불살롱덜 그걸로 초왕 이젠 ᄒᆞ꼼 ᄃᆞ시민 또 들어가근에 또 헤어 오고.('불턱'에 불살라서들 그걸로 쬐어서 이젠 조금 따뜻하면 또 들어가서 또 해 오고.)

105015 @ 헹 오고. 게민 이제 구덕에 불 초일 거.(해서 오고. 그럼 이제 바구니 불 쬘 거.)

105015 #1 담앙 강 놔뒁당. 나오민 그거 가졍 강 그걸로 때여.(담고 가서 놔뒀다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가서 그걸로 때.)

105015 @ 테왁도?(테왁도?)

105015 #1 경 안 허민 저 낭 썩은 것덜. 거 ᄆᆞᆯ륜 거. 그것도 가졍 강 그건 오래 가주게.(그렇게 안 하면 저 나무 썩은 것들. 거 말린 거. 그것도 가지고 가서 그건 오래가지.)

105015 @ 예, 낭 삭다리덜예?(예, 나무 삭정이들요?)

105015 #1 으, 삭다리덜.(으, 삭정이들.)

105015 @ 으, 그거 오래가니까.(으, 그거 오래가니까.)

105015 #1 오래가는 거.(오래가는 거.)

105015 @ 게민 그것도 가졍 가고, 테왁도 담앙 가고.(그럼 그것도 가지고 가고, 테왁도 담아서 가고.)

105015 #1 테왁 담앙 가고. 또 빗창[163].(테왁 담아서 가고. 또 '빗창'.)

105015 @ 빗창.('빗창'.)

105015 #1 호미.(낫.)

105015 @ 호미.(낫.)

105015 #1 으, 골겡이. 그런 것덜도 다 가졍 가고.(으, 호미. 그런 것들도 다 가지고 가고.)

105015 @ 으. 물에 드는 호미랑, 저기 밧 검질메는 호미랑?(으. 물에 드는 낫이랑, 저기 밭 김매는 낫이랑?)

105015 #1 틀려.(달라.)

---

162) '불턱'은 해녀가 물질을 하다가 나와서 불을 피워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쉬거나 옷을 갈아입는 곳을 말한다.

163) '빗창'은 해녀들이 바닷속에서 전복 따위를 캐는 데 쓰는 쇠붙이로 된 길쭉한 모양의 도구를 말한다.

105015 @ 틀려예. 게민 물에 드는 호미를 무슨 호미렌 헙니까?(달라요. 그럼 물에 드는 낫을 무슨 낫이라고 합니까?)

105015 #1 무신 거엔 헤낫저만은 그것ᄀᆞ라.(무슨 거라고 했었지만 그것보고.)

105015 @ 중게호미[164]?('중게호미'?)

105015 #1 중게호미.('중게호미'.)

105015 @ 으.(으.)

105015 #1 중게호미.(중게호미.)

105015 @ 으, 중게호미렌 불러나고.(으, '중게호미'라고 불렀었고.)

105015 #1 으.(으.)

105015 @ 중게호미. 모양 보면 보리 비는 호리랑 중게호미랑?('중게호미'. 모양 보면 보리 베는 낫이랑 '중게호미'랑?)

105015 #1 틀려, 틀려, 틀려.(달라, 달라, 달라.)

105015 @ 어떵 ᄐᆞ납니까?(어떻게 다릅니까?)

105015 #1 틀려. 그거는 ᄒᆞ꼼 쯔르고.(달라. 그거는 조금 짧고.)

105015 @ 중게호미가 쫄라?('중게호미'가 짧아?)

105015 #1 으, 그 썹이, 놀이 쯔르고. 쫄르고.(으, 그 섶이, 날이 짧고. 짧고.)

105015 @ 으, ᄌᆞ룩은 어떵 ᄐᆞ나?(으, 자루는 어떻게 달라?)

105015 #1 ᄌᆞ룩은 으, ᄌᆞ룩은 뭐, ᄌᆞ룩도 쫄라.(자루는 으, 자루는 뭐, 자루도 짧아.)

105015 @ 으.(으.)

105015 #1 호미 뭐, 그냥 보리 비는 것보다 쫄르고 놀도 쫄르고. 또 경 뭐 보리 비는 것거치 ᄂᆞ실지 안헤도 뒈고.(낫 뭐, 그냥 보리 베는 것보다 짧고 날도 짧고. 또 그렇게 뭐 보리 베는 것같이 날카롭지 않아도 되고.)

105015 @ 아.(아.)

105015 #1 이건 메역만 끄치는 거니까.(이건 미역만 끊는 거니까.)

105015 @ ᄌᆞ룩이 보리 비는 건 영 길죽하다면.(자루가 보리 베는 건 이렇게 길쭉하다면.)

105015 #1 길쭉허여.(길쭉해.)

105015 @ 그 중게호미는 요기보다 그 끝이 좀 몽탕허잖아?(그 '중게호미'는 요기보다 그 끝이 좀 몽탕하잖아?)

105015 #1 몽탕허여, 몽탕허여.(몽탕해, 몽탕해.)

105015 @ 예, ᄌᆞ룩 빠지지 말렌.(예, 자루 빠지지 말라고.)

105015 #1 어, 어.(어, 어.)

105015 @ 그래서예, 우에 건 가늘어도.(그래서요, 위에 건 가늘어도.)

105015 #1 어, 어. 또 상줌녜[165]덜 전복 떼젠 허민 빗창.(어, 어. 또 기량이 좋

164) '중게호미'는 해녀들이 물속에서 미역·톳 등의 해초를 베어 낼 때 쓰는 호미다.

165) '상줌녜'는 작업하는 기량이 뛰어난 해녀를 말한다. '상군'이라고도 한다.

은 해녀들은 전복 떼려고 하면 '빗창'.)

105015 @ 빗창.('빗창'.)

105015 #1 빗창도 가정 가고. 빗창은 이디 영 이디 걸어근에.('빗창'도 가지고 가고. '빗창'은 여기 이렇게 여기 걸어서.)

105015 @ 예, 예.(예, 예.)

105015 #1 끈 헤영 걸엉 빗창도.(끈 해서 걸어서 '빗창'도.)

105017 @ 예, 예. 옛날에는 물에 들젠 허민, 지금이야 다 고무옷[166]이주만은.(예, 예. 옛날에는 물에 들려고 하면, 지금이야 다 고무옷이지만.)

105017 #1 고무옷. 옛날엔 속곳[167].(고무옷. 옛날엔 '속곳'.)

105017 @ 속곳 입어나서예?('속곳' 입었었지요?)

105017 #1 속곳, 우에 우에 적삼.('속곳'. 위에 위에 적삼.)

105017 @ 적삼.(적삼.)

105017 #1 물적삼[168].('물적삼'.)

105017 @ 머리는?(머리는?)

105017 #1 머리 수건.(머리 수건.)

105017 @ 수건.(수건.)

105017 #1 물수건[169] 줄라메영.('물수건' 잘라매어서.)

105017 @ 요것도 틀리지예?(요것도 다르지요?)

105017 #1 예, 예. 이 안경도 틀려. 쪽은 거, 쪽은 거.(예, 예. 이 안경도 달라. 작은 거, 작은 거.)

105017 @ 눈예?(물안경요?)

105017 #1 으, 눈만 하나 막아지는 거. 이젠 이디 영 통, 막아지는 거.(으, 물안경만 하나 막을 수 있는 거. 이젠 여기 이렇게 통, 막을 수 있는 거.)

105017 @ 게민 눈이 두 종류가 이신게예? 이렇게 눈이 두 개 들어 있는 눈을 뭐렌 골읍니까, 옛날 써난 거?(그럼 물안경이 두 종류가 있네요? 이렇게 물안경이 두 개 들어 있는 물안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옛날 썼던 거?)

105017 #1 옛날 써난 거?(옛날 썼던 거?)

105017 @ 예.(예.)

105017 #1 건.(건.)

105017 @ 족은눈이렌 헷수과?('족은눈'이라고 했습니까?)

105017 #1 그건 그냥, 그냥 줌수 눈인디 그것ᄀᆞ란 무신, 무신 눈이렌 헤라만은.(그건 그냥, 그냥 잠수 물안경인데 그것보고 무슨, 무슨 눈이라고 하더라만.)

105017 @ 옛날 눈이랑 지금 눈이랑 ᄐᆞ날 거?(옛날 물안경이랑 지금 물안경이랑

166) '고무옷'은 해녀들이 바닷속에서 해산물 등을 캘 때 입는 고무로 만든 잠수복을 말한다.
167) '속곳'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광목 따위로 만든 물옷을 말한다. '물소중이', '소중이', '소중기'라고도 한다.
168) '물적삼'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적삼을 말하다.
169) '물수건'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머리에 쓰는 무명 수건을 말한다.

다를 거?)

105017 #1 ᄐᆞ나주게, 지금은.(다르지, 지금은.)

105017 #1 @ 이거예?(이거요?)

105017 #1 #1 으, 지금은 이거.(으, 지금은 이거.)

105017 @ 요 눈을 뭐렌?(요 물안경을 뭐라고?)

105017 #1 뭐렌 헤나신고 아이고 잊어불어졋저이.(뭐라고 했었는지 아이고, 잊어버렸어.)

105017 @ 족은눈 안 헤난마씨?('족은눈' 안 했었습니까?)

105017 #1 족은눈[170], 족은눈.('족은눈', '족은눈'.)

105017 @ 이거는?(이거는?)

105017 #1 왕눈[171].('왕눈'.)

105017 @ 이건 왕눈?(이건 '왕눈'?)

105017 #1 왕눈, 크난 왕눈.('왕눈', 크니까 '왕눈'.)

105017 @ 으, 족은눈, 왕눈예? 그 기억이 남수과? 그 우리 속곳을 몇 살 정도까지 입어난 거 같으과? 기억 안나, 속곳?(으, '족은눈', '왕눈'요? 그 기억이 나네요? 그 우리 '속곳'을 몇 살 정도까지 입었던 거 같습니까? 기억 안나, '속곳'?)

105017 #1 그냥 나 뭐 일본도 강 살아나 불고 헤 부니까. 간 오란 그자 그럭저럭 헹 뎅기곡 스물다섯 후로 입어낫주게, 속곳도.(그냥 나 뭐 일본도 가서 살았었고 해 버리니까. 갔다 와서 그저 그럭저럭 해서 다니고 스물다섯 이후로 입었었지, '속곳'도.)

105017 @ 스물다섯?(스물다섯?)

105017 #1 으, 스물다섯 후에 여기 들어온 때부턴 메역 ᄌᆞ물아당 먹어나난.(으, 스물다섯 후에 여기 들어온 때부턴 미역 캐어다가 먹어났으니까.)

105017 @ 게민 어렸을 땐 물질 안 헤낫수과?(그럼 어렸을 때 물질 안 했었습니까?)

105017 #1 아니, 어렸을 때도 바당에 ᄒᆞ꼼 뎅겨나긴 헤도 ᄌᆞ물레, 메역 ᄌᆞ물레 뎅겨나진 안허고.(아니, 어렸을 때도 바다에 조금 다녔었긴 해도 캐러, 미역 캐러 다니진 않고.)

105017 @ 놀레?(놀러?)

105017 #1 그냥, 그냥 휘레 뎅경.(그냥, 그냥 헤엄치러 다녔어.)

105017 @ 휘레 뎅경 보말이나 잡고?(헤엄치러 다녀서 보말이나 잡고?)

105017 #1 어, 그런 거나 허고 그자 헷주게. 어린, 열다섯에 일본 가나 부난.(어, 그런 거나 하고 그저 했지. 어린, 열다섯에 일본 가 버리니까.)

105017 @ 일본 가나 부난.(일본 가 버리니까.)

105017 #1 으, 일본 간 살단 이디 오란 또 ᄒᆞ꼼 살단 또 가곡, 오곡 헤연. 음,

170) '족은눈'은 물안경의 한 종류로, 렌즈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물안경을 말한다.

171) '왕눈'은 물안경의 한 종류로, 렌즈가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족은눈'에 대비하여 '큰눈'이라고도 한다.

열아홉에 나간 스물다섯꺼지도 살단 들어오고.(으, 일본 가서 살다가 여기 와서 또 조금 살다가 또 가고, 오고 했어. 음, 열아홉에 나가서 스물다섯까지도 살다가 들어오고.)

105017 @ 아.(아.)

105017 #1 게난 그 사이엔 잘 안 허고 그 스물다섯 후로 메역 ᄌᆞ물레 뎅겨난.(그러니까 그 사이엔 잘 안 하고 그 스물다섯 후로 미역 캐러 다녔었어.)

105016 @ 그 예전이랑, 막 옛날이라예, 처음 어무니 물질헐 때, 그 스물다섯 살 때쯤이랑 지금이랑 물질허는 거 비교허민 어떵 ᄐᆞ낫과?(그 예전이랑, 아주 옛날이예요, 처음 어머니 물질할 때, 그 스물다섯 살 때쯤이랑 지금이랑 물질하는 거 비교하면 어떻게 다릅니까?)

105016 #1 편한 건 엇인디 그런.(편한 건 없는데 그런.)

105016 @ 아니, 아니 다른 점. 도구도 다르고?(아니, 아니 다른 점. 도구도 다르고?)

105016 #1 도구, 도구 다른 거주게. 최고로 다른 거는 도구. 이 고무옷이고 눈이고 그런 것덜 다 다른 거주게.(도구, 도구 다른 거지. 최고로 다른 거는 도구. 이 고무옷이고 물안경이고 그런 것들 다 다른 거지.)

105016 @ 음.(음.)

105016 #1 호미랑, 빗창이랑 ᄀᆞᆯ겡이는 ᄀᆞ트고.(낫이랑, '빗창'이랑 호미는 같고.)

105016 @ 음.(음.)

105016 #1 그 전이랑 비슷헌디.(그 전이랑 비슷한데.)

105016 @ 음.(음.)

105016 #1 고무옷허고 이런 발에 신는 무신 신. 그거허고 또 모자도 틀리고. 우린 미녕으로 만든 수건 헹 ᄌᆞᆯ라멩 뎅겨나고 헷주만은.(고무옷하고 이런 발에 신는 무슨 신. 그거하고 또 모자도 다르고. 우린 무명으로 만든 수건 해서 잘라매서 다녔었고 했지만.)

105016 @ 경헌 그 속곳덜은 다 이녁냥으로 만들앙?(그런 그 '속곳'들은 다 자기대로 만들어서?)

105016 #1 이녁냥으로 만들앙. 이녁냥으로.(자기대로 만들어서. 자기대로.)

105016 @ 예.(예.)

105016 #1 대강은 이녁냥으로 헤도 또 만드는, 거 전문으로 만드는 사름이 셔낫주만은. 대강은 이녁대로 헤영.(대강은 자기대로 해도 또 만드는, 거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었지만.)

105016 @ 으, 자기 입을 거는 자기냥으로.(으, 자기 입을 거는 자기대로.)

105016 #1 우리 많이 만들아나서.(우리 많이 만들었었어.)

105016 @ 많이 만들어나서예. 그 테왁은, 지금은 스폰지잖아예?(많이 만들었었지요. 그 테왁은, 지금은 스폰지잖아요?)

105016 #1 으, 그때는 ᄏᆞ박[172], ᄏᆞ테왁[173], ᄏᆞ으로 헌 테왁.(으, 그때는 'ᄏᆞ박',

‘ᄏᆞ테왁’, 박으로 한 테왁.)

105016 @ 으. ᄏᆞ은 집이서 질쾅.(으. 박은 집에서 길러서.)

105016 #1 질루기도 집이서 올기도 허곡 또 사당덜토 허곡.(기르기도 집에서 열기도 하고 또 사다가도 하고.)

105016 @ 아, ᄏᆞ도 사당 헷수과?(아, 박도 사다가 했습니까?)

105016 #1 예, 예, 사당덜도. 이녁 집이 엇으믄 헐 수 엇주게, 그건. 테왁으로덜헹 풀아낫주덜게.(예, 예, 사다가도. 자기 집에 없으면 할 수 없지, 그건. 테왁으로들 해서 팔았었지.)

105016 @ 예. 기민 지금이야 그 망사리 만드는 것도 다 나일론이주만은.(예. 그럼 지금이야 그 망사리 만드는 것도 다 나일론이지만.)

105016 #1 나일론 지금은.(나일론 지금은.)

105016 @ 예전에는 그 망사리는 뭐로?(예전에는 그 망사리는 뭐로?)

105016 #1 저 저 저 저 저 무시거, 무시것고 미[174]엔 혜연 미삐젱이, 미.(저 저 저저 저 무엇, 무엇인가 ‘미’, 억새꽃, ‘미’.)

105016 @ 예.(예.)

105016 #1 미, 이 저 어욱에 대.(‘미’, 이 저 억새의 대.)

105016 @ 어욱예.(억새요.)

105016 #1 으, 그것이 막 질겨. 그거 헤당 물령 깨영 두드령, 이제 걸로 새끼 꼬앙. 새끼 꼬앙근에 막 질겨.(으, 그것이 아주 질겨. 그거 해다가 말려서 깨서 두드려서, 이제 걸로 새끼 꼬아서. 새끼 꼬아서 아주 질겨.)

105016 @ 예, 미. 새끼 꼬앙 놔뒁 그 줄로 헹.(예, ‘미’. 새끼 꼬아서 놔두고 그 줄로 해서.)

105016 #1 그걸로 묻아근에.(그걸로 맺어서.)

105016 @ 묻앙.(맺어서.)

105016 #1 테왁, 저 저 망사리.(테왁, 저 저 망사리.)

105016 @ 망사리 만들엇던 거라. 게민 그거 좀 굵으게.(망사리 만들었던 거야. 그럼 그거 좀 굵게.)

105016 #1 홁으게도 허고 줌질게도 허고.(굵게 하고 자잘하게도 하고.)

105016 @ 막 홁으게 만든 게 아까 솔썹 걷을 때?(아주 굵게 만든 게 아까 솔가리 그러모을 때?)

105016 #1 얼멩이.(얼망.)

105016 @ 그 얼멩이도 그 미로 만들엇수과?(그 얼망도 그 ‘미’로 만들었습니까?)

105016 #1 얼멩이는 뭐 아무 걸로 헤도 건 솔지게, ᄒᆞ꼼 솔지게 꼬아도 뒐 거난. 찝으로 허여도 뒈여. 그런 건.(얼망은 뭐 아무 걸로 해도 건 살지게, 조금 살지

172) ‘ᄏᆞ박’은 박을 쪼개어 씨를 파내어 만든 바가지를 말한다. 여기서는 ‘ᄏᆞ테왁’을 가리킨다.
173) ‘ᄏᆞ테왁’은 박의 씨 통을 파내어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물질할 때 바다에 가서 타는 물건을 말한다.
174) ‘미’는 참억새의 꽃이 채 나오기 전에 그것을 싸고 있는 껍질을 말한다.

게 꼬아도 될 거니까. 짚으로 해도 돼. 그런 건.)

105016 @ 아, 이건 찝으로 헤도 뒈는 거고?(아, 이건 짚으로 해도 되는 거고?)

105016 #1 으, 건 미삐젱이로 허젠 허민 만이 들엉 안 뒈여.(으, 건 억새꽃으로 하려고 하면 많이 들어서 안 돼.)

105016 @ 음.(음.)

105016 #1 거 어려와.(거 어려워.)

105016 @ 게난 미삐젱이 허는 게 막 공드는 거과?(그러니까 억새꽃 하는 게 아주 공드는 겁니까?)

105016 #1 공들어. 쫄르고 요만이 헌 건디게. 그걸 질게 헤근에 크게 허젠 허민 얼마나 만이 들여야 헤여.(공들어. 자르고 요만큼 한 건데. 그걸 길게 해서 크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들어야 해.)

105016 @ 하하.(하하.)

105016 #1 그거 물류고 두드리고 깨고 그것도 공들어.(그거 말리고 두드리고 깨고 그것도 공들어.)

105016 @ 아.(아.)

105016 #1 그냥 헤당 허는 것이 아니고.(그냥 해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105016 @ 아. 게민 순서를 한번 골아줍서. 미삐젱이를 뽑아왕, 그 다음 두드려?(아, 그럼 순서를 한번 말해 주세요. 억새꽃을 뽑아와서. 그 다음 두드려?)

105016 #1 미삐젱이를 뽑아 왕 이젠 물령 두드령.(억새꽃을 뽑아 와서 이젠 말려서 두드려서.)

105016 @ 으.(으.)

105016 #1 두드령 깨영 좀질이 깨영 이젠 꼬앙.(두드려서 깨서 가늘게 깨어서 이젠 꼬아서.)

105016 @ 아, 두드린 다음에 깨는 거예?(아, 두드린 다음에 깨는 거요?)

105016 #1 두드령 깨는 거지.(두드려서 깨는 거지.)

105016 @ 깨여난 다음에 꼬는 거?(깬 다음에 꼬는 거?)

105016 #1 꼬앙.(꼬아서.)

105016 @ 물옷은, 좀녀들 입는 옷은 아까 속곳예. 아까 말씀하셨던 속곳.(물옷은, 잠녀들 입는 옷은 아까 '속곳'요. 아까 말씀하셨던 '속곳'.)

105016 #1 지금도 소곱에 그거, 살마다[175], 팬티 입엉 그거 입엄신가, 나 지금 입는 거 몰라.(지금도 속에 그거, 팬티, 팬티 입어서 그거 입나, 나 지금 입는 거 몰라.)

105016 @ 지금은 고무옷.(지금은 고무옷.)

105016 #1 고무옷 입는디 소곱에 뭐 그런 거 입어실 테주.(고무옷 입는데 속에 뭐 그런 거 입었을 테지.)

105016 @ 뭐 입엉 헴겟지.(뭐 입고서 하고 있겠지.)

175) '살마다'는 '팬츠, 잠방이'라는 의미의 일본어 'さるまた'에서 온 말로, '팬티, 속옷'을 말한다.

105016 #1 옛날엔 그냥 속곳만.(옛날엔 그냥 '속곳'만.)

105016 @ 속곳만예. 여기서, 여기 고내리에서 톳 안 헤낫수과?('속곳'만요. 여기서, 여기 고내리에서 톳 안 했었습니까?)

105016 #1 무사 이제도 허곡 옛날도 허곡.(왜 이제도 하고 옛날도 하고.)

105018 @ 게민 이 톳은 옛날에 공동이과, 개인이과?(그럼 이 톳은 옛날에 공동입니까, 개인입니까?)

105018 #1 개인. 우리, 우리 뎅길 때꺼지도 개인.(개인. 우리, 우리 다닐 때까지도 개인.)

105018 @ 여긴 공동 엇어낫수다예. 접으로 안 헤낫수다예?(여기 공동 없었습니다. 계로 안 했었네요?)

105018 #1 안 헤여. 아무 때나 강 헤당 먹어.(안 해. 아무 때나 가서 해다가 먹었어.)

105018 @ 아, 톳?(아, 톳?)

105018 #1 으, 으. 이것이 톳 나는 디믄 요만씩 헤 가믄 다 비어당 먹어난.(으, 으. 이것이 톳 나는 데면 요만큼씩 해 가면 다 베어다가 먹었었어.)

105018 @ 게민 톳 헐 때 물에 안 들어?(그럼 톳 할 때 물에 안 들어?)

105018 #1 물에, 물에 안 들어.(물에, 물에 안 들어.)

105018 @ 곳에서 그냥?(가에서 그냥?)

105018 #1 또 톳은 그냥 물 만이 싸지 안헤도 뒈여.(또 톳은 그냥 물 많이 써지 않아도 돼.)

105018 @ 아.(아.)

105018 #1 쪼끔만 싸도 뒈여, 톳은. 쪼끔 곳 영 가까운 디 이시니까.(조금만 써도 돼, 톳은. 조금 가 이렇게 가까운 데 있으니까.)

105018 @ 아. 물에 안 들엉 그냥 곳디서?(아. 물에 안 들어서 그냥 가에서?)

105018 #1 으, 곳딜로게, 물에 안 들엉.(으, 가에서, 물에 안 들어서.)

105018 @ 겐 호미로 영 비여당.(그래서 낫으로 이렇게 베어다가.)

105018 #1 으, 건 아무라도 비여당 먹어.(으, 건 아무라도 베어다가 먹어.)

105019 @ 아. 우미는 어떵 헤낫수과?(아. 우뭇가사리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105019 #1 우미는 가까운 디도 잇고 지픈 디도 잇고. 건 좀녀들이 허는 거.(우뭇가사리는 가까운 데도 있고 깊은 데도 있고. 건 잠녀들이 하는 거.)

105019 @ 좀녀들이.(잠녀들이.)

105019 #1 곳딜로도 물에 안 들어도 헐 순 잇어. 물만 싸믄 ᄒᆞ꼼 싸믄. 그 바당물 골르는 딘 우미가 잇어.(가로도 물에 안 들어도 할 순 있어. 물만 써면 조금 써면. 그 바닷물 고이는 덴 우뭇가사리가 있어.)

105019 @ 맞수다. 그거는 저도 어린 때 어무니 물에 들민 곳디 가 가지고 봉가당예. 봉가당. 게민 우미도 다 개인으로 허는 거예?(맞습니다. 그거는 저도 어린 때 어머니 물에 들면 가에 가 가지고 주워다가요. 주워다가. 그럼 우뭇가사리도 다 개

인으로 하는 거요?)

105019 #1 지금은 공동으로 헹 풀암신디 몰라. 아, 지금도 개인인가?(지금은 공동으로 해서 팔고 있는지 몰라. 아, 지금도 개인인가?)

105019 @ 개인인가?(개인인가?)

105019 #1 올리도 허는디.(올해도 하는데.)

105019 @ 어쨋든 옛날에는 다 개인으로 헌 거라예?(어쨌든 옛날에는 다 개인으로 한 거지요?)

105019 #1 엿날엔 집이서 먹젠덜이나 헤다근에게.(옛나엔 집에서 먹으려고들 해다가.)

105019 @ 아.(아.)

105019 #1 집에서 먹젠덜 헤 오주게. 경 풀고 뭣 허진 안헤낫주게.(집에서 먹으려고 해 오지. 그렇게 팔고 뭐 하진 안했었지.)

105022 @ 예. 아까 테우도 직접 여기서 다 만드는 거라서예?(예. 아까 떼도 직접 여기서 다 만드는 거였지요?)

105022 #1 으, 만드는 거. 만들앙 헷주게. 옛날엔.(으, 만드는 거. 만들어서 했지. 옛날엔.)

105024 @ 아까 베 명칭덜은 잘 모르고. 예, 알앗수다.(아까 배 명칭들은 잘 모르고. 예, 알겠습니다.)

6. 의생활

옷감

106001 @ 우선은 옷ᄀᆞ슴 종류에는 뭐가 잇수과, 옷ᄀᆞ슴 종류?(우선은 옷감 종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옷감 종류?)

106001 #2 옥이 뭐라?(옥이 뭐야?)

106001 @ 옷, 옷.(옷, 옷.)

106001 #2 옷?(옷?)

106001 @ 예.(예.)

106001 #2 옷은게 옛날이사게 여기서 미녕 짠 거게.(옷은 옛날이야 여기서 무명 짠 거.)

106001 @ 예. 미녕 잇고 또?(예. 무명 있고 또?)

106001 #2 미녕. 미녕 짜근에게 그, 메는 거는 ᄀᆞ시락 불리듯 이렇게 살랑 그냥 그디서 미녕을양 실을 줏인 걸 헤근에 이추룩 허믄 그거를 짜는 거를 멘들젠 허믄 바짝헤영, 헤여야 이거를 이렇게 짜는 거주게.(무명. 무명 짜서 그, 메는 거는 까끄라기 불리듯 이렇게 살라서 그냥 거기서 무명을 실을 자은 걸 해서 이처럼 하면 그거를 짜는 거를 만들려고 하면 바짝해서, 해야 이거를 이렇게 짜는 거지.)

106001 @ 으.(으.)

106001 #2 경허난 그거 짜근에게 이젠 무신 저 밧디 일허는 사름은 감, 감 뿟앙 감물 들영 입곡. 또 그 학교 다니는 아인 검정 물 들여근에 경헤영 그.(그러니까 그거 짜서 이젠 무슨 저 밭에 일하는 사람은 감, 감 빻아서 감물 들여서 입고. 또 그 학교 다니는 아인 검정 물 들여서 그래서 그.)

106001 @ 음, 감물은 들이는데, 검정 물은 뭐로 들여?(음, 감물은 들이는데, 검정 물은 뭐로 들여?)

106001 #2 검정 물은 물ᄀᆞᆷ 사당게.(검정 물은 물감 사다가.)

106001 @ 물ᄀᆞᆷ 사당. 게민 옷 만드는 거는 옷ᄀᆞ슴에, 옷감, 옷감은 아까 미녕 잇고?(물갈 사다가. 그럼 옷 만드는 거는 옷감에, 옷감, 옷감은 아까 무명 있고?)

106001 #2 으, 미녕.(으, 무명.)

106001 @ 또 뭐 잇수과?(또 뭐 있습니까?)

106001 #2 미녕이나베끼 뭐 엇주게.(무명이나밖에 뭐 없지.)

106001 @ 멩지?(명주?)

106001 #2 멩지허고 시렁목[176].(명주하고 '시렁목'.)

106001 @ 시렁목. 시렁목도 광목 아니예, 미녕 종류 아니예?('시렁목'. '시렁목'도 광목 아니요, 무명 종류 아니요?)

106001 #2 미녕 종류. 미녕 종륜디 막 얄븐 거.(무명 종류. 무명 종륜데 아주 얇은 거.)

106001 @ 게니까, 또 베 잇고?(게니까, 또 베 있고?)

106001 #2 베.(베.)

106001 @ 으, 베 잇고. 또 모시도 잇어낫수과?(으, 베 있고. 또 모시도 있었습니까?)

106001 #2 모시도 잇엇주게. 겐디 그건 제주에서 헌 건 아니.(모시도 있었지. 그런데 그건 제주에서 한 건 아니.)

106001 @ 아.(아.)

106001 #2 한산모시라고 육지.(한산모시라고 육지.)

106001 @ 예, 예.(예, 예.)

명주

106002 @ 게민예, 미녕부터, 멩지부터 한번 물어보쿠다.(그럼요, 무명부터, 무명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6002 #2 예.(예.)

106002 @ 멩지?(명주?)

106002 #2 멩지는 그 누에를 질롸서 그거를 뽕낭 입을 뚣앙 멕입니다게.(명주는 그 누에를 길러서 그거를 뽕나무 잎을 뜯어서 먹입니다.)

176) '시렁목'은 무명천 종류의 하나다.

106002 @ 으.(으.)

106002 #2 경허면은 우리도 건 헤 보진 안헌디 내가 본 말을 허는 거주게.(그러면 우리도 건 해 보진 않았는데 내가 본 말을 하는 거지.)

106002 @ 음.(음.)

106002 #2 누에를 질루면은 이젠 말짠 그게 막 크면은 그 저, 무신 소게거추룩허게 생겨 가멍 그게 그렇게 뒈는 거라게. 그 벌레가.(누에를 기르면 이젠 말짼 그게 아주 크면 그 저, 무슨 솜처럼 생겨 가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벌레가.)

106002 @ 으, 음.(으, 음.)

106002 #2 경허믄 그게 이제 그거 허영 그 저 엿날은 솜클이라고 그 테우는 클에 가근에게 그거를 테와단 부각허게[177] 헤근에 이렇게 소롬허게 영 물아, 이렇게. 그 정대 거튼 대 허여서 이렇게 물면 그걸 가져다가 이젠 이렇게 씰을 줏이는 거라.(그러면 그게 이제 그거 해서 그 저 옛날은 솜틀이라고 그 태우는 틀에 가서 그거를 태워다가 '부각하게' 해서 이렇게 갸름하게 이렇게 말아, 이렇게. 그 정대 같은 대 해서 이렇게 말면 그걸 가져다가 이젠 이렇게 실을 잣는 거야.)

106002 @ 음.(음.)

106002 #2 그렇게 헹 미녕 허는 거우다게.(그렇게 해서 무명 하는 겁니다.)

106002 @ 미녕 허는 거예. 그럼 멩지, 멩지?(무명 하는 거요. 그럼 명주, 명주?)

106002 #2 멩지는 우리 제줏 사름은 짜는 사름이 에려왓수다.(명주는 우리 제주 사람은 짜는 사람이 어려웠습니다.)

106002 @ 누에, 누에.(누에, 누에.)

106002 #2 길루기는 그렇게 헤영 누에 헤영 풀고 그렇겐 헤도.(기르기는 그렇게 해서 누에 해서 누에 해서 팔고 그렇겐 해도.)

106002 @ 으.(으.)

106002 #2 것도 육지에서가 멩지가 헷주게.(것도 육지에서가 명주가 했지.)

106002 @ 그럼 이 고내에서는 멩지 차는 사름이 경 엇어낫수과?(그럼 이 고내에서는 명주 짜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106002 #2 잘 엇엇수다. 토멩지[178]라고 그것 참 멩지 짜는 사름은 잘 엇엇주게. 베, 베 미녕은 짜는 사름 잇엇서.(잘 없었습니다. '토멩지'라고 그거 참 명주 짜는 사람은 잘 없었지. 베, 베 무명은 짜는 사람 있었어.)

106003 @ 게민 어무니 멩지실은 종류가 뭐 이신지 알아지쿠과? 멩지실 종류에?(그럼 어머니 명주실은 종류가 뭐 있는지 알겠습니까? 명주실 종류에?)

106003 #2 멩지실 종류가 그 누에 버렝이로 헤영 빠 분 거게.(명주실 종류가 그 누에 벌레로 해서 뽑아 버린 거.)

106003 @ 뽑는 게 멩지실이잖아예?(뽑는 게 명주실이잖아요?)

106003 #2 예.(예.)

177) '부각허다'는 거품이나 솜 따위가 잘 피어오른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78) '토멩지'는 재래식 방법으로 손으로 짠 실이 굵은 명주를 말한다.

106003 @ 그 실에도 영 종류가 이실 건가예?(그 실에도 이렇게 종류가 있을 건가요?)

106003 #2 종류는 그게 토멩지라고 쪼금 굵게 헤여근에 멩지를 두껍게 허는 건 토멩지고 그거 말고는 뚜로. 그것ᄀᆞ란 뭐엔 헷저만은 얄룬 거. 거 잇엇수다게.(종류는 그게 '토멩지'라고 조금 굵게 해서 명주를 두껍게 하는 건 '토멩지'고 그거 말고는 따로. 그것보고 뭐라고 했지만 얇은 거. 거 없었습니다.)

106003 @ 얄룬 것도 잇어난예?(얇은 것도 있었지요?)

106003 #2 예.(예.)

106003 @ 겐 굵은 게 토멩지였구나?(그래서 굵은 게 '토멩지'였구나?)

106003 #2 예, 토멩지. 굵엉 두꺼운 거 그건 토멩지.(예, '토멩지'. 굵어서 두꺼운 거 그건 '토멩지'.)

106004 @ 게민 멩지로는 무신 옷을 만들앙 입어신고예?(그럼 명주로는 무슨 옷을 만들어서 입었나요?)

106004 #2 멩지는 시집 장게갈 때에 결혼식 헐 때에.(명주는 시집 장가갈 때에 결혼식 할 때에.)

106004 @ 예.(예.)

106004 #2 그것도 빨강 물도 들이고 또 파랑 물도 들여지주기게.(그것도 빨강 물도 들이고 또 파랑 물도 들이지.)

106004 @ 예.(예.)

106004 #2 그러면은 여자는 장옷이라고 이제는 그런 거 안 입주만은.(그러면 여자는 장옷이라고 이제는 그런 거 안 입지만.)

106004 @ 음.(음.)

106004 #2 두루마기 닮은 거.(두루마기 닮은 거.)

106004 @ 예.(예.)

106004 #2 남저덜 제서 때에 입엉 절허는, 한복 입엉 절허는 그런 두루메기. 그거 비슷헌 종류라도 그게 저 거세기 무신 호상이라고 허영. 소곱에는 잘, 잘사는 집이는 좋은 베 헤서 안 놔근에 그 멩지에 안 놩 바지저고리허고 치마저고리 그추룩 헤영 그걸로. 경 헷수게.(남자들 제사 때에 입어서 절하는, 한복 입고 절하는 그런 두루마기. 그거 비슷한 종류라도 그게 저 거시기 무슨 수의라고 해서. 속에는 잘, 잘사는 집에는 좋은 베 해서 안감 놔서 그 명주에 안감 놔서 바지저고리하고 치마저고리 그처럼 해서 그걸로. 그렇게 했어요.)

106004 @ 입은 거고예?(입은 거고요?)

106004 #2 예.(예.)

106004 @ 어쨌든 치메저고리.(어쨌든 치마저고리.)

106004 #2 그렇게 입엉 머리도 이렇게 예껑 옛날은. 예꺼근에 쪽도 아니 찔렁 그렇게 헤영 옛날은 간디 그 다음부터는 족두리가 나와서 여기 앞이 씨영 허는 거.(그렇게 입어서 머리도 이렇게 엮어서 옛날은. 엮어서 쪽도 안 찔러서 그렇게 해서

옛날은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족두리가 나와서 여기 앞에 써서 하는 거.)

106004 @ 음.(음.)

106004 #2 이제는 그거 아니 헨 다 드레스 허주만은. 그때 다 그렇게 헷수다.(이제는 그거 안 하고 다 드레스 하지만. 그때 다 그렇게 했습니다.)

106004 @ 게난 멩지옷 입는 거는 옛날에는 거의 다 시집, 장게갈 때 그때만이엇구나?(그러니까 명주옷 입는 거는 옛날에는 거의 다 시집, 장가갈 때 그때만이었구나?)

106004 #2 예, 예, 그거게. 겨고 죽엉 갈 때에 막 잘허는 집이는 그 저 남자 도복이라고 두루막 다음에 큰 도복이 잇수다. 이디 오민 이만이 헌 거. 그런 거 헤근에 만약에 저 혹교에 무신 교장이라 허던가. 그런 무슨 장급덜은 그런 옷을 헤여근에 입저낫주게.(예, 예, 그거. 그리고 죽어서 갈 때에 아주 잘하는 집에는 그 저 남자 도포라고 두루마기 다음에 큰 도포가 있습니다. 여기 오면 이만큼 한 거. 그런 거 해서 만약에 저 학교에 무슨 교장이라 하던가. 그런 무슨 장급들은 그런 옷을 해서 입혔었지.)

106004 @ 게난 호상옷도 멩지로 헷다는 거 아니?(그러니까 수의도 명주로 했다는 거 아니?)

106004 #2 예, 예. 멩지로, 멩지로 헷수궤게.(예, 예. 명주로, 명주로 했습니다.)

106004 @ 잘사는 사름은?(잘사는 사람은?)

106004 #2 멩지로 헷수다게.(명주로 했습니다.)

106006 @ 게민 이 멩지 허젠 허민 누에 질쌍 실을 뽑아사 헐 거 아니라예?(그럼 이 명주 하려고 하면 누에 길러서 실을 뽑아야 할 거 아닌가요?)

106006 #2 실을 뽑아야 허여.(실을 뽑아야 해.)

106006 @ 누에 치는 거 알아지쿠과? 누에 질루젠 허민 어떵 헤나신지?(누에 치는 거 알겠습니까? 누에 기르려고 하면 어떻게 했었는지?)

106006 #2 누에 질루제 허민 쪼그만 그 벌레를 어디사 강 가져오는 건지 그건 몰라게. 겐디 그 요만큼씩 헌 무신 그 저 차롱이나 그런 이런 요만썩 헌 그릇이 잇엇주기. 무슨 나무 도고리나 그런 거. 경허믄 그디 막 그거를 놔서 이젠 그 이파리를 놓으면 막 곰상 곰상 곰상.(누에 기르려고 하면 조그만 그 벌레를 어딘가 가서 가져오는 건지 그건 몰라. 그런데 그 요만큼씩 한 무슨 그 저 채롱이나 그런 이런 요만큼씩 한 그릇이 있었지. 무슨 나무 함지박이나 그런 거. 그러면 거기 마구 그거를 놔서 이젠 그 이파리를 놓으면 마구 곰상 곰상 곰상.)

106006 @ 무슨 이파리?(무슨 이파리?)

106006 #2 뽕남 이파리.(뽕나무 이파리.)

106006 @ 뽕남 이파리.(뽕나무 이파리.)

106006 #2 썰엉.(썰어서.)

106006 @ 썰엉. 으, 썰엉. 거 멕이는 거라예.(썰어서. 으, 썰어서. 거 먹이는 거지요.)

106006 #2 예, 예.(예, 예.)

106006 @ 경헹?(그래서?)

106006 #2 경헹 그걸 막 오래 잘 질루면은 그게 이제 막 둔갑헤서 솜이 뒈여 가멍 그냥 그 벌레는 이제 그 번데기 잇지 안허여.(그래서 그걸 아주 오래 잘 기르면 그게 이제 아주 둔갑해서 솜이 되어 가면서 그냥 그 벌레는 이제 그 번데기 있지 않아.)

106006 @ 예.(예.)

106006 #2 서울 가믄.(서울 가면.)

106006 @ 예.(예.)

106006 #2 그 번데기가 그거라.(그 번데기가 그거야.)

106006 @ 예, 누에 쳐난 벌레 나온 거?(예, 누에 쳤던 벌레 나온 거?)

106006 #2 으, 으. 우리 제주 사름은 잘, 언마 허지 안허니까 그런 거 먹지도 안허고.(으, 으. 우리 제주 사람은 잘, 얼마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먹지도 않고.)

106006 @ 게난 고내리에도 누에 치는 사름이 잇어신가예?(그러니까 고내리에도 누에 치는 사람이 있었는가요?)

106006 #2 고내도. 읏어서. 하이구, 알아지크라. 누게 길롸난 걸 몰르큰게.(고내도. 없어서. 아이고, 알겠어. 누가 길렀던 걸 모르겠어.)

106006 @ 게민 그 누에는 요만헌 알을 가져왕 그거 깨우멍.(그러면 그 누에는 요만한 알을 가져와서 그거 깨우면서.)

106006 #2 깨우멍.(깨우면서.)

106006 @ 솜 될 때까지 키우젠 허민 얼마나 키와신고예, 그거를?(솜 될 때까지 키우려고 하면 얼마나 키웠는가요, 그거를?)

106006 #2 몰라도 흔 그게 무신 저 열흘이나 흔 둘로 뒈지 안허여. 흔 두어 덜 길롸실 거라. 두 덜이나 석 덜.(몰라도 한 그게 무슨 저 열흘이나 한 달로 되지 않아. 한 두어 달 길렀을 거야. 두 달이나 석 달.)

106002 @ 게민 그게 크면 거기서 솜이 봉상봉상[179].(그럼 그게 크면 거기서 솜이 '봉상봉상'.)

106002 #2 으, 그추룩 뒈여근에 이젠 벌레는 다 이젠 뚠 걸로 뚜로 떼져 나오고. 그거 허영 이제 솜틀에 강 테우민 부게기 솜이 올라오믄 그거를 이젠 요만이헌 ᄀᆞ는 정대가 잇어 이렇게 허는 거.(으, 그처럼 되어서 이젠 벌레는 다 이젠 딴 걸로 따로 떼어 나오고. 그거 해서 이제 솜틀에 가서 태우면 보각하게 솜이 올라오면 그거를 이젠 요만한 가는 정대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

106002 @ 예, 예.(예, 예.)

106002 #2 그거 허여근에 그걸 영 쫄닥쫄닥허게 영 ᄆᆞᆯ주게. 이추룩 헹. 겨민 그걸로 실허영 빠는 거라, 이렇게. 그 무르에로 이렇게 돌리멍.(그거 해서 그걸 이렇게 쫀쫀하게 이렇게 말지. 이처럼 해서. 그럼 그걸로 실해서 뽑는 거야, 이렇게. 그

179) '봉상봉상'은 솜이 부풀어 오른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물레로 이렇게 돌리면서.)

106002 @ 음.(음.)

106002 #2 다 이젠 그런 것덜이 엇어 불언게. 멘네씨 까는 저 목, 목. 그 저 거 세기 멘네.(다 이젠 그런 것들이 없어 버렸어. 면화씨 까는 저 목, 목. 그 저 거시기 면화.)

106002 @ 으.(으.)

106002 #2 그거 씨 빠야 그거를 허는 건디. 씨 빠는 것도 셔나고 우리 집이도, 실 즛는 거 다 셔나신디.(그거 씨 뽑아야 그거를 하는 건데. 씨 뽑는 것도 있었고 우리 집에도, 실 잣는 거 다 있었는데.)

106002 @ 게난 헤낫구나. 이 집이서, 이 집이도?(그러니까 했었구나. 이 집에서, 이 집에도?)

106002 #2 예?(예?)

106002 @ 삼춘네도 그거 헤낫구나? 이거 얘기허는 거지예?(삼촌네도 그거 했었구나? 이거 얘기하는 거지요?)

106002 #2 나 눈 보이지 안허여.(나 눈 보이지 않아.)

106002 @ 아, 눈.(아, 눈.)

106002 #2 눈 안 보이는 사름.(눈 안 보이는 사람.)

106002 @ 아.(아.)

106002 #2 눈이 수술헤도 안 보영.(눈이 수술해도 안 보여서.)

106002 @ 예, 예.(예, 예.)

106002 #2 무신 병원에만 흔 삼 년 뎅기단 보난 녹내장인디 영 수술을 못 허켄 헌 거 수술을 헤여 봐도 일반이고. 수술허난 더 안 뒈 불언.(무슨 병원에만 한 삼 년 다니다가 보니까 녹내장인데 이렇게 수술을 못 하겠다고 한 거 수술을 해 봐도 일반이고. 수술하니까 더 안 돼 버렸어.)

106002 @ 예. 게난 누에 헹 실 뽑젠 허민 그 뭐로 허는 거? 그 저기?(예. 그러니까 누에 해서 실 뽑으려고 하면 그 뭐로 하는 거? 그 저기?)

106002 #2 그 무르레, 물레.(그 물레, 물레.)

106002 @ 물레? 물레엔 불럿수과?(물레? 물레라고 불렀습니까?)

106002 #2 으, 이거 물레엔 헌 거는 물레, 이디서 이렇게 돌아라 헹 손젭이 요만이 싯곡, 그게 이제도 어디 실 거라. 저 박물관에도 가 보난 잘 엇더라, 거. 그걸로 이렇게 헤근에 쒜 요만이헌 정대라고 그 이디 실 즛는 딘 그걸 꼿아근에 글로 헹 무시거 헤영 이렇게 허면 그렇게 실을 나와게. 게민 그레 쪼르르 감앙 뚜로 이렇게 돌령 이만인 오민 또 쪼르르 감아근에.(으, 이거 물레라고 한 거는 물레, 여기서 이렇게 돌아라 해서 손잡이 요만큼 있고, 그게 이제도 어디 있을 거야. 저 박물관에도 가 보니까 잘 없더라, 거. 그걸로 이렇게 해서 쇠 요만한 정대라고 그 여기 실 잣는 덴 그걸 꽂아서 거기로 해서 무엇 해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실을 나와. 그럼 그리 쪼르르 감아서 따로 이렇게 돌려서 이만큼 오면 또 쪼르르 감아서.)

106002 @ 으.(으.)

106002 #2 경헤. 그것ᄀᆞ란 꼬리 꼬리 허여.(그래서. 그것보고 실톳 실톳 해.)

106002 @ 꼬리, 꼬리?(실톳, 실톳?)

106002 #2 으, 꼬리엔 허여근에.(으, 실톳이라고 해서.)

106002 @ 경헨 감아난 거예. 누에 쳐 가지고 누에 실 만들 때 경 헷었던 거라예?(그래서 감았던 거요. 누에 쳐 가지고 누에 실 만들 때 그렇게 했었던 거지요?)

106002 #2 예.(예.)

무명

106007 @ 게민 누에는 만이 안 헷지만 미녕은 헤나서예? 미녕은 하영예?(그럼 누에는 많이 안 했지만 무명은 했었어요? 무명은 많이요?)

106007 #2 미녕은 만이 헤난 사름이 만허주기게.(무명은 많이 했던 사람이 많지.)

106007 @ 예, 고내에도예?(예, 고내에도요?)

106007 #2 예. 죽어 부난 허주만은 만이 헤낫수다. 다 돌아가 불언 엇수다게.(예. 죽어 버리니까 하지만 많이 했었습니다. 다 돌아가 버려서 없습니다.)

106007 @ 미녕 종류에는 뭐, 뭐 잇수과?(무명 종류에는 뭐, 뭐 있습니까?)

106007 #2 미녕에는 종류 별로 엇수다.(무명에는 종류 별로 없습니다.)

106007 @ 아. 뭐 아까 저기 광목도 이실 거고.(아. 뭐 아까 저기 광목도 있을 거고.)

106007 #2 광목은, 광목은 우리 이런 디선 못 짜.(광목은, 광목은 우리 이런 데선 못 짜.)

106007 @ 못 짜, 기계로 허는 거?(못 짜, 기계로 하는 거?)

106007 #2 기계로 그거는 육지로 나온 거지. 제주에서 광목 허는 딘 엇고게.(기계로 그거는 육지로 나온 거지. 제주에서 광목 하는 덴 없고.)

106007 @ 으.(으.)

106007 #2 광목은 엇수다. 엇고, 미녕은 미녕은 보편으로 다 헤낫주.(광목은 없습니다. 없고, 무명은 무명은 보편으로 다 했었지.)

106007 @ 으.(으.)

106007 #2 여기도 고내 말고 다른 부락엔 멩주 짜난 사름도 싯긴 실 거라. 어디.(여기도 고내 말고 다른 부락엔 명주 짰던 사람도 있긴 있을 거야. 어디.)

106007 @ 음. 그 닷새미녕, 엿새미녕 허는 말을 모르쿠과?(음. 그 '닷새미녕', '엿새미녕' 하는 말을 모르겠습니까?)

106007 #2 닷새미녕[180], 엿새미녕[181]이엔 헌 거는 너비를 말허는 거. 너비 엿새미녕도 잇고 닷새미녕도 잇고.('닷새미녕', '엿새미녕'이라고 하는 거는 너비를 말하

180) '닷새미녕'에서 새는 피륙의 날을 세는 단위로, '닷새미녕'은 올이 가장 굵은 무명을 말한다.

181) '엿새미녕'은 '엿새무명'을 말한다. 백스무 올의 날실로 짠 무명으로 거칠고 품질이 좋지 못하다. '닷새미녕'은 품질이 더 좋지 않고, '일곱새미녕'은 아주 올이 고운 무명이다.

는 거. 너비 ‘엿새미녕’도 있고 ‘닷새미녕’도 있고.)

106007 @ 그럼 닷새미녕은?(그럼 ‘닷새미녕’은?)

106007 #2 요렇게 좁주기게, 미녕이. 겐 엿새미녕이엔 허믄 이렇게 넙주기게. 것ᄀᆞ란 엿새미녕이엔 허는 거.(요렇게 좁지, 무명이. 그래서 ‘엿새미녕’이리고 하면 이렇게 넙지. 것보고 ‘엿새미녕’이라고 하는 거.)

106007 @ 폭을 가지고?(폭을 가지고?)

106007 #2 폭을 가지고 말허는 거.(폭을 가지고 말하는 거.)

106007 @ 실, 거 실 가늘기를 가졍 말허는 게 아니고?(실, 거 실 가늘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106007 #2 가늘기가 아니고 넓이를 말허는 거. 그 말허자면 그 이렇게 애기덜 저 옛날엔 챙빗 셔낫주게, 챙빗.(가늘기가 아니고 넓이를 말하는 거. 그 말하자면 그 이렇게 아기들 저 옛날엔 참빗 있었지, 참빗.)

106007 @ 음.(음.)

106007 #2 챙빗거추룩 ᄀᆞ는 거 긴 것이 잇어. 그 소곱으로 실을 다 그디 꿰여근에 찰가닥 찰가닥 차는 건디 그게 실 이거 놓는 거를 닷새미녕이엔 허믄 막 좁게 놓는 거고. 엿새미녕이엔 허민 실을 더 놔서 더 놩 헌 것ᄀᆞ라 허는 거주.(참빗처럼 가는 거 긴 것이 있어. 그 속으로 실을 다 거기 꿰서 찰가닥 찰가닥 차는 건데 그게 실 이거 놓는 거를 ‘닷새미녕’이라고 하면 아주 좁게 놓는 거고. ‘엿새미녕’이라고 하면 실을 더 놔서 더 놔서 한 것보고 하는 거지.)

106008 @ 겐 미녕으론 어떤 옷을 만들아낫수과?(그래서 무명으론 어떤 옷을 만들었었습니까?)

106008 #2 미녕으론게 저 지금. 일후젠 몸빼덜 입주기만은 굴중의[182]라고이. 그 저 아래 다림 치고 헤영 허는 그런 갈중의[183].(무명으론 저 지금. 이후에 몸빼들 입지만 ‘굴중의’라고. 그 저 아래 대님 치고 해서 그런 ‘갈중의’.)

106008 @ 예.(예.)

106008 #2 거 감 들인 그런, 그런 거 입어나고. 우인 적삼, 적삼도 그런 걸로 막 헹 입곡. 그추룩 허단 보난 광목 같은 것이 육지에선 쪼금씩 나올 시절에는 이제 그 적삼 거튼 것도 광목 적삼도 헹 입곡 경 헷주게. 웨장목[184]이렌 헌 거 줌질아근에 더 줌질아근에 허곡.(거 감물 들인 그런, 그런 거 입었었고. 위엔 적삼, 적삼도 그런 걸로 마구 해서 입고. 그처럼 하다가 보니까 광목 같은 것이 육지에선 조금씩 나올 시절에는 이제 그 적삼 같은 것도 광목 적삼도 해서 입고 그렇게 했지. ‘웨장목’이라고 한 거 가늘어서 더 가늘어서 하고.)

106008 @ 웨광목?(‘웨광목’?)

106008 #2 웨장목, 웨장목 그냥 허주.(‘웨장목’, ‘웨장목’ 그냥 하지.)

106008 @ 아, 웨장목, 웨장목 허는 거?(아, ‘웨장목’, ‘웨장목’ 하는 거?)

---

182) ‘굴중의’는 허리편에 주름이 잡히고 보통 중의보다 폭이 넓은 부녀자들이 입는 중의를 말한다.
183)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중의를 말한다.
184) ‘웨장목’은 옷감의 한 종류다.

106008 #2 그거는 어디 웨국에서 나온 거난 웨장목이엔 헤실 거라. 헤양헨 막 즘진 거 잇어. 하양헹.(그거는 어디 외국에서 나온 거니까 '웨장목'이라고 했을 거야. 하얘서 아주 가늘 거 있어. 하얘서.)

106008 @ 게난 광목 나오난 막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앙 입어낫구나?(그러니까 광목 나오니까 마구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어서 입었었구나?)

106008 #2 으, 만들안 입엇주.(으, 만들어서 입었지.)

106009 @ 토목이엔 헌 건 뭐렌 헌 건지 모르쿠과? 토목?(토목이라고 한 건 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까? 토목?)

106009 #2 토목이 멩지광 그 거세기 멩지 진짜.(토목이 명주와 그 거시기 명주 진짜.)

106009 @ 토멩지[185].('토멩지'.)

106009 #2 토멩지, 토멩지.('토멩지', '토멩지'.)

106009 @ 토멩지를 토목이렌 헐 거예?('토멩지'를 토목이라고 할 거요?)

106009 #2 으, 토목, 광목.(으, 토목, 광목.)

106011 @ 으, 홍세미녕[186]은 뭐를 홍세미녕이렌 헐 것과?(으, '홍세미녕'은 뭐를 '홍세미녕'이라고 할 겁니까?)

106011 #2 홍세엔 헌 거는?('홍세'라고 한 거는?)

106011 @ 으.(으.)

106011 #2 옛날은 요만이헌 함이 잇엇주기게.(옛날은 요만한 함이 있었지.)

106011 @ 예.(예.)

106011 #2 그디 멩지를 멩지 거튼 거 놓는 사름은 엇고. 시집, 장겔가젠 허면은 그 새서방 칩이선 그 토목멩지[187]라도 저, 토목멩지도 아니고 저 미녕, 잇새미녕이나 닷새미녕이나 그거를 두 필을 개여근에 그 함 안에 놔게. 놩, 똑 그거 맞은 함이 짠 셔낫주기게, 엿날은. 이제도 셔.(거기 명주를 명주 같은 거 넣는 사람은 없고. 시집, 장갈가려고 하면 그 새서방 집에선 그 '토목멩지'라도 저, '토목멩지'도 아니고 저 무명, '엿새미녕'이나 '닷새미녕'이나 그거를 두 필을 개어서 그 함 안에 놔. 놔서, 꼭 그거 맞는 함이 짜 있었어, 옛날은. 이제도 있어.)

106011 @ 그 함을 홍세함이렌 헐 거?(그 함을 '홍세함'이라고 할 거?)

106011 #2 으. 홍세함이엔 헌 건 그거게, 그거. 경헨 곱닥허게 영 잘 그걸 잘 꾸미는 사름이 엇주게. 두께 더껑 곤 포 헤여근에 꼿거추룩 곱게 멘들앙 경헤영 옛날은 그 새시방 나가젠 허믄 그 하인. 하인이 잇엇주기.(으. 함이라고 한 건 그거, 그거. 그래서 곱게 이렇게 잘 그걸 잘 꾸미는 사람이 없지. 뚜껑 덮어서 고운 보자기 해서 꽃처럼 곱게 만들어서 그래서 옛날은 그 새서방 나가려고 하면 그 하인. 하인이 있었지.)

---

185) '토멩지'는 재래식 방법으로 손으로 짠 실이 굵은 명주를 말한다.

186) '홍세미녕'은 '홍세함'에 넣는 무명을 가리킨다. '홍세함'이란 혼례를 치룰 때 신랑집에서 마련한 예장 등을 넣고 신부 집에 가는 예물 함을 말한다.

187) '토목멩지'는 재래식 방법으로 손으로 짠 실이 굵은 명주를 말한다. 보통 '토멩지'라고 한다.

106011 @ 예.(예.)

106011 #2 그런 허면은 그 하인 각시가 물 타근에 그거를 등에 지던가 혜영 이젠 가게, 그 새서방 칩이를. 이렇게 머리에 이영을 가던가.(그런 하면 그 하인 각시가 말 타서 그거를 등에 지던가 해서 이젠 가, 그 새서방 집에를. 이렇게 머리에 이어서 가던가.)

106011 @ 으.(으.)

106011 #2 경헤낫주게. 경혜영 가졍 가믄 그 집이선 또 ᄂᆞ람쥐 탁 페와근에 ᄂᆞ람쥐. 이제 거트민 미녕이나 무시거 ᄃᆞ릴 놔주기만은.(그랬었지. 그래서 가져서 가면 그 집에선 또 이엉 탁 펴서 이엉. 이제 같으면 무명이나 무엇 다릴 놨지만.)

106011 @ 마당에 ᄁᆞ는 거?(마당에 까는 거?)

106011 #2 예, 마당에.(예, 마당에.)

106011 @ ᄂᆞ람쥐 ᄀᆞᆯ앙?(이엉 깔아서?)

106011 #2 으, ᄂᆞ람쥘 혜영 쫙 페우믄 글로 이제 걸어와 새서방이 걸어오민 딱 세와 둠서 그 홍세함을 올앙 보거든. 보믄 그 소곱에 무시거 다 씨여 논 것이 잇어게.(으, 이엉을 해서 쫙 펴면 글로 이제 걸어와 새서방이 걸어오면 딱 세워 두면서 그 함을 열어서 보거든. 보면 그 속에 무엇 다 써 놓은 것이 있어.)

106011 @ 아.(아.)

106011 #2 경허믄 그거를 잘못 씨면은 막 그디서 새서방 벌 받앙 얼른 안 들여 놓고 옛날은 경헷주게.(그럼 그거를 잘못 쓰면 아주 거기서 새서방 벌 받아서 얼른 안 들여 놓고 옛날은 그랬었지.)

106011 @ 하하하.(하하하.)

106011 #2 겐디 육지는 ᄯᅳ난. 지영 강 함 사세요, 함 사세요, 함 사세요. 육진 경 헨게.(그런데 육지는 다른. 지어서 가서 함 사세요, 함 사세요, 함 사세요. 육진 그렇게 했어.)

106011 @ 으.(으.)

106011 #2 제주도엔 그렇게 헷어.(제주도엔 그렇게 했어.)

106012 @ 이 미녕 허젠 허면은 목화 농서를?(이 무명 하려고 하면 목화 농사를?)

106012 #2 지어야.(지어야.)

106012 @ 멘네 농서를 지어야 뭴 거 아니예?(면화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요?)

106012 #2 멘네 농서를 지어야.(면화 농사를 지어야.)

106012 @ 그럼 멘네는 어떵 씨 뿌령 가는 것과, 멘네 농서짓는 거를 ᄀᆞᆯ아 줍서.(그럼 면화는 어떻게 씨 뿌려서 가는 겁니까, 면화 농사짓는 거를 말해 주세요.)

106012 #2 멘네씨는 까물까물 혜영 요만씩헌 건디.(면화씨는 까물까물 해서 요만큼한 건데.)

106012 @ 으.(으.)

106012 #2 그거를 멘네가 요렇게 요렇게. 이 귤만큼 허면은 그게 올면은, 올면은 자연적으로 욜로 요렇게, 요렇게 헤졍이.(그거를 면화가 요렇게 요렇게. 이 귤만큼 하면 그게 열면, 열면 자연적으로 욜로 요렇게, 요렇게 해서.)

106012 @ 그믓이 가?(금이 가?)

106012 #2 으, 그믓 그추룩 헤젼, 헤영허게 솜거추룩 나와게.(으, 금 그처럼 해서, 하얗게 솜처럼 나와.)

106012 @ 음.(음.)

106012 #2 경허믄 이제 그것만 강 속속 빼여 오주게.(그럼 이제 그것만 가서 속속 뽑아 오지.)

106012 @ 음.(음.)

106012 #2 경 안허면 그것에서 파리거치 들어 놓면 하영허질 안허주게. 미녕이 좋지 안허영. 경허영 솜, 이제도 어디 목화 허는 디가 신가? 요것이 쫙 벌어지믄 솜만 톡톡, 톡톡 앗아와져.(그렇게 안하면 그것에서 파리같이 들어 놓으면 하얗지 않지. 무명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솜, 이제도 어디 목화 하는 데가 있나? 요것이 쫙 벌어지면 솜만 톡톡, 톡톡 가져와.)

106012 @ 음.(음.)

106012 #2 그릇 받앙. 경허영 가져와근에. 이젠 그추룩 헤영 또 미녕을 짜젠 허면은 그런 실을 빠젠 허면은 이상헌 거라게. 이렇게 허면 요 트멍에 이렇게 접지면은 멘네는 절로 나가고 씨만 도록 도록[188] 털어졍. 겨민 그 씨 받아근에 멘네는 삼월덜이나 이월 그물어 가믄 이제 봄, 봄 밧 갈앙 헐 때에 그 멘네씨를 무신 물을 아이 줭 그때는 무신 오줌산디 무시거 줘근에 신발 신엉 막 비비더라고, 불치. 불 솜아난 불 껑게.(그릇 받아서. 그래서 가져와서. 이젠 그처럼 해서 또 무명을 짜려고 하면 그런 실을 뽑으려고 하면 이상한 거야. 이렇게 하면 요 틈에 이렇게 사이에 끼우면 면화는 절로 나가고 씨만 도르륵 도르륵 떨어져서. 그럼 그 씨 받아서 면화는 삼월이나 이월 저물어 가면 이제 봄, 봄 밭 갈아서 할 때에 그 면화씨를 무슨 물을 안 줘서 그때는 무슨 오줌인지 무엇 줘서 신발 신어서 마구 비비더라고, 재. 불 땠던 불껑.)

106012 @ 불치.(재.)

106012 #2 옛날은 막 검불을 솜으니깐.(옛날은 마구 검불을 때니까.)

106012 @ 불치.(재.)

106012 #2 불치 허영 그것에 놩 씨를 막 버물이면은 또록또록 헤영 영 삐기가 좋주게. 경헨 이제 그걸 막 비비어근에.(재 해서 그것에 놔서 씨를 마구 버무리면 '또록또록' 해서 이렇게 뿌리기가 좋지. 그래서 이제 그걸 마구 비벼서.)

106012 @ 으.(으.)

106012 #2 경 헹 강 밧디 씨 뿌령.(그렇게 해서 가서 밭에 씨 뿌려서.)

106012 @ 언제 몇 월에 씨 뿌려?(언제 몇 월에 씨 뿌려?)

188) '도록 도록'은 면화씨가 떨어지는 소리를 나타낸 말이다.

106012 #2 저 음력 삼월덜에.(저 음력 삼월에.)

106012 @ 가는 거라, 밧디 강.(가는 거야, 밭에 가서.)

106012 #2 음.(음.)

106012 @ 그럼 씨를 뿌린 다음 밧을 갑니까, 밧을 갈아낭 씨를 뿌립니까?(그럼 씨를 뿌린 다음 밭을 갑니까, 밭을 갈았던 씨를 뿌립니까?)

106012 #2 저, 갈아 놔근에 뿌령 끗어실 거라. 잊어불엉 걸 몰르켜. 우리 멘네도 타고 갈아도나고 헤낫는디.(저, 갈아 놔서 뿌려서 끌었을 거야. 잊어버려서 걸 모르겠어. 우리 면화도 타고 갈기도 했었는데.)

106012 @ 예, 예. 아, 불치에 서껑?(예, 예. 아, 재에 섞어서?)

106012 #2 불치에 서껑 막 비병. 무슨 저 오좀을 받아 논 거 허든가 뭐 헹. 경헹 막. 어쨌든 그 물인가 무신 거라도 주엉 이거를 씨를 똥글똥글허게 멘들아야 뒈여. 이거에 불치에 까맣게.(재에 섞어서 마구 비벼서. 무슨 저 오줌을 받아 놓은 거 하든가 뭐 해서. 그래서 마구. 어쨌든 그 물인가 무슨 거라도 주어서 이거를 씨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야 돼. 이거이 재에 까맣게.)

106012 @ 으.(으.)

106012 #2 멘네씨를 빠 논 거니까 쪼끔 그 그것이 삐지 못 허주기게.(면화씨를 뽑아 놓은 거니까 조금 그 그것이 뿌리지 못 하지.)

106012 @ 경헹 멘네씨를 뼈 놓면 언제, 멘네 밧디 검질도 메고?(그래서 면화씨를 뿌려 놓으면 언제, 면화 밭에 김도 매고?)

106012 #2 멘네 밧디 검질도 메곡.(면화 밭 김도 매고.)

106012 @ 검질도 메고 헙니까?(김도 매고 합니까?)

106012 #2 으, 여름 내낭.(으, 여름 내내.)

106012 @ 여름 내낭.(여름 내내.)

106012 #2 여름 내낭 검질 메믄 이때 뒈면은 쪼끔. 이때 뒈면은 헤양케 그게 피면은 강 요렇게 뽑아 오고 내중에 또 둘린 거는 다음에 가근에 뽑아 오곡 경허멍.(여름 내내 김 매면 이때 되면 조금. 이때 되면 하얗게 그게 피면 가서 요렇게 뽑아 오고 나중에 또 달린 거는 다음에 가서 뽑아 오고 그러면서.)

106012 @ 그 멘네.(그 면화.)

106012 #2 경헤영 그 멘넬 바싹 물류와근에 이젠 강 첨 집이서 씨를 빠근에 가져가는 거라. 테우는 디 가믄 이제 바삭이 테와 놓믄 요만인헌 정대라고 잇어게. 요만인헌 거. 그것에 영 솜 놔근에 영 물민 쫄락쫄락허게 뒈주게, 쪼그만씩. 요, 요, 요것거추룩 요만씩.(그래서 그 면활 바싹 말려서 이젠 가서 참 집에서 씨를 뽑아서 가져가는 거야. 태우는 데 가면 이제 바삭하게 태워 놓으면 요만한 정대라고 있어. 요만한 정대라고 있어. 요만한 거. 그것에 이렇게 솜 놔서 이렇게 말면 짤막짤막하게 되지, 조그만씩. 요, 요, 요것처럼 요만큼씩.)

106012 @ 음, 음.(음, 음.)

106012 #2 경허민 이젠 그거 가져당 실 짓이는 거.(그러면 이젠 그거 가져다가

실 잣는 거.)

106012 @ 그민 멘네 낭은 어느 정도 크기로 큽니까? 멘네낭은?(그럼 면화 나무는 어느 정도 크기로 큽니까? 면화 나무는?)

106012 #2 이만인 커. 이만인.(이만큼 커. 이만큼.)

106012 @ 게민 거기에 올메가 올릴 거 아니?(그럼 거기에 열매가 열릴 거 아니?)

106012 #2 막 올아 가멍 올아. 우 막아. 드물게 허영.(마구 열어 가면서 열어. 위 막아. 드물게 해서.)

106012 @ 그 올메를 뭐렌 불러?(그 열매를 뭐라고 불러?)

106012 #2 으?(으?)

106012 @ 멘네에 연 올매를 뭐렌 골읍니까?(면화에 연 열매를 뭐라고 말합니까?)

106012 #2 멘네ᄃᆞ레, 멘네ᄃᆞ레 허니까 뭐.(목화다래, 목화다래 하니까 뭐.)

106012 @ 멘네ᄃᆞ리?(목화다래?)

106012 #2 ᄃᆞ레.(다래.)

106012 @ 아, 멘네ᄃᆞ레, 멘네ᄃᆞ레.(아, 목화다래, 목화다래.)

106012 #2 멘네ᄃᆞ레기.(목화다래.)

106012 @ 아, 멘네ᄃᆞ레기예?(아, 목화다래요?)

106012 #2 으.(으.)

106012 @ 멘네ᄃᆞ레기 그거 솜 피기 전에.(목화다래 그거 솜 피기 전에.)

106012 #2 피기 전이 연헌 건 막 먹어져. 돌혜.(피기 전에 연한 건 마구 먹을 수 있어. 달아.)

106012 @ 아, 맛있어예. 그거 따 먹어 불고 헷수과?(아, 맛있어요. 그거 따 먹어 버리고 했습니까?)

106012 #2 으.(으.)

106012 @ 경헨 ᄀᆞ슬 들어가민 거기서 막 솜이 텅. 경헨 그거 가졍단.(그래서 가을 들어 가면 거기서 마구 솜이 터. 그래서 그거 가져다가.)

106012 #2 겨울엔 이젠 그거 허영 이 ᄀᆞ을벳디 ᄆᆞᆯ리왕 이 멘네영 ᄆᆞᆯ류와근에.(겨울엔 이젠 그거 해서 이 가을볕에 말려서 이 면화랑 말려서.)

106012 @ 으.(으.)

106012 #2 영 ᄇᆞ름 잔 날. 영 ᄆᆞᆫ지 들어가도 안 뒐 거난. 경헹 이제 그거 바싹 ᄆᆞᆯ려근에 강 테와 오민 겨울에는 일이 읏잖여게.(이렇게 바람 잔 날. 이렇게 먼지 들어가도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바싹 말려서 가서 태워 오면 겨울에는 일이 없잖아.)

106012 @ 예.(예.)

106012 #2 새 비어당 집만 일믄, 옛날은. 요새가 더 일이 더 만헤여.(띠 베어다가 집만 일면, 옛날은. 요새가 더 일이 많아.)

106012 @ 으.(으.)

106005 #2 경헨 겨울엔 돈 날 뭣도 엇고 일이 엇주게, 겨울에. 경허믄 그런 거 헌 할망덜은 이젠 그거를 줏아근에 실 줏앙, 실 줏으민 요렇게 저 거세기 꼬리 감는 것이 잇어. 그것에 이젠 감아근에 이렇게 드밀앙 찰칵 허는 것ᄀᆞ라 무시거엔 헌다만은 잊어불엇저, 원. 할망덜 다 죽어 부난 이젠 잊어불엉 알아지크라?(그래서 겨울엔 돈 날 뭣도 없고 일이 없지, 겨울에. 그러면 그런 거 한 할머니들은 이젠 그거를 자아서 실 자아서, 실 자으면 요렇게 저 거시기 실톳 감는 것이 있어. 그것에 이젠 감아서 이렇게 드밀어서 찰칵 하는 것보고 무엇이라고 한다만 잊어버렸어, 원. 할머니들 다 죽어 버리니까 이젠 잊어버려서 알겠어?)

106005 @ 으.(으.)

106005 #2 그거 잇어.(그거 있어.)

106005 @ 베틀?(베틀?)

106005 #2 아니 베틀은 짜는 것이 베틀이고. 꼬리 놔근에 이레 영 찰칵, 저레 영 찰칵헤야 짜져근에 뒈는 거주게. 그 꼬리 감는 거를.(아니 베틀은 짜는 베틀이고. 실톳 놔서 이리 이렇게 찰칵. 저리 이렇게 찰칵해야 짜져서 되는 거지. 그 실톳 감는 거를.)

106005 @ 으.(으.)

106005 #2 것ᄀᆞ라 무시건엔 ᄀᆞᆯ앗저만은.(것보고 무엇이라고 말했는데.)

106005 @ 으, 실도레기 말고?(으, 실패 말고?)

106005 #2 실도레기 아니. 무시거엔 ᄀᆞᆯ아서.(실패 아니. 무엇이라고 말했어.)

106005 @ 으. 나중에 튼내지민 ᄀᆞᆯ아 줍서.(으. 나중에 생각나면 말해 주세요.)

106005 #2 튼내질 못허크라 그건.(생각하지 못하겠어.)

106005 @ 으, 그거로 헹 거기에 막 실 감앙.(으, 그거로 해서 거기에 마구 실 감아서.)

106005 #2 에이구, 게메 그런 것도 없애지 말앙 놔두믄 좋을 건디.(아이고, 글쎄 그런 것도 없애지 말고 놔두면 좋을 건데.)

106005 @ 헷엇던 거예.(했었던 거요.)

106005 #2 이거 옛날에 무시거엔 ᄀᆞᆯ아근에.(이게 옛날에 무엇이라고 말해서.)

106005 @ 흐흐.(흐흐.)

106005 #2 즉앙 놔둬시믄.(적어서 놔뒀으면.)

106005 @ 하하하.(하하하.)

106005 #2 멘딱 없애 부난.(모두 없애 버리니까.)

106005 @ 생각납니다. 나중에 영 생각해 가믄예. 생각날 거고.(생각납니다.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가면요. 생각날 거고.)

모시

106013 @이제 모시 헤난 거 물어보쿠다. 모시실 만들젠 허민 어떵 헤난마씨.(이

제 모시 했었던 거 물어보겠습니다. 모시실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했었어요.)

106013 #2 모시실은 우리 제주에선 안 헤낫주기게.(모시실은 우리 제주에선 안 했었지.)

106013 @ 아, 모시실은. 안 헤난 거라?(아, 모시실은. 안 했던 거야?)

106013 #2 으, 안 헤난.(으, 안 했던.)

삼

106016 @ 그럼 삼은마씨?(그럼 삼은요?)

106016 #2 삼?(삼?)

106016 @ 으, 삼.(으, 삼.)

106016 #2 삼베는 허는 사름이 혹시 잇어실런지 모르주만은 삼베도 육지에서 짯주. 이디선 별로.(삼베는 하는 사람이 혹시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삼베도 육지에서 짰지. 여기선 별로.)

106016 @ 별로 안 헷던 거.(별로 안 했던 거.)

106016 #2 별로, 별로. 미녕베낀.(별로, 별로. 무명밖에.)

106016 @ 예, 예.(예, 예.)

106016 #2 멩지나 쪼끔 짜고 경헤서.(명주나 조금 짜고 그래서.)

106016 @ 예, 멩지나 쪼끔 짜고예.(예, 명주나 조금 짜고요.)

바느질

106022 @ 그럼 바느질헐 때 도구들 물어보쿠다. 바농질?(그럼 바느질할 때 도구들 물어보겠습니다. 바느질?)

106022 #2 바농질?(바느질?)

106022 @ 예. 바농질. 바농질허젠 허민 뭐, 뭐가 잇어야 헐 거라?(예. 바느질. 바느질하려고 하면 뭐, 뭐가 있어야 할 거야?)

106022 #2 바농질 건 제주 소리. 바농질이엔 헌 소리가.(바느질 건 제주 소리. 바느질이라고 한 소리가.)

106022 @ 그니까, 그니까. 바농질할 때.(그니까, 그니까. 바느질할 때.)

106022 #2 바농질헐 때에?(바느질할 때에?)

106022 @ 뭐, 뭐 잇어야 헐 거라?(뭐, 뭐 있어야 할 거야?)

106022 #2 저 요렇게 허영 윤디판이라고 요거 두 개만이 헤여근에 요거보단 ᄒᆞ꼼 넙어근에 윤디, 거 윤디엔 헌 거는 ᄌᆞ룩 돋고 쫄락헌 윤디 잇어.(저 요렇게 해서 인두판이라고 요거 두 개만 해서 요거보단 조금 넓어서 인두, 거 인두라고 하는 거는 자루 돋고 짧은 인두 있어.)

106022 @ 잇어예.(있어요.)

106022 #2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리는 거. 게니까 그 옷을 허젠 허면 호상옷을 허엿던 뭣을 허엿던 그 윤디, 윤디 허여근에 실밥을 이런 디 거꺼야 ᄀᆞ믓

을 알아질 거 아니라게?(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리는 거. 그러니까 그 옷을 하려고 하면 수의를 했든 뭣을 했든 그 인두, 인두 해서 실밥을 이런 데 꺾어야 금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106022 @ 예.(예.)

106022 #2 경허믄 그걸로 쭉 다리멍 영 영 영 영 꼬불려 놓면 그디를 짝 허게 뒈주기게.(그러면 그걸로 쭉 다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꼬부려서 놓으면 거기를 짝 하게 되지.)

106022 @ 아.(아.)

106022 #2 앞, 이런 앞섭도 저고리 허믄 요렇게 헤여근에 휙 돌아왕 요런 코 멘들앙 경헷주게.(앞, 이런 앞섶도 저고리 하면 요렇게 해서 휙 돌아와서 요런 코 만들어서 그랬지.)

106022 @ 게난.(그러니까.)

106022 #2 윤디, 윤디판.(인두, 인두판.)

106022 @ 윤디도 잇어야 뒈고. 바농질허젠 허난 바농도 잇어야 뒈고.(인두도 있어야 되고. 바느질하려고 하니까 바늘도 있어야 되고.)

106022 #2 바농허고 거뿐. 윤디허고.(바늘하고 거뿐. 인두하고.)

106022 @ 또?(또?)

106022 #2 윤디판.(인두판.)

106022 @ 으. 저기 옷ᄀᆞ슴, 영 자르젠 허민 뭐 잇어야 뒐 거?(으. 저기 옷감, 이렇게 자르려고 하면 뭐 있어야 될 거?)

106022 #2 자게, 자게.(자, 자.)

106022 @ 자영?(자랑?)

106022 #2 혼 치, 두 치 헌 거.(한 치, 두 치 한 거.)

106022 @ 으.(으.)

106022 #2 십, 십, 십 치가 혼 자주게.(십, 십, 십 치가 한 자지.)

106022 @ 예, 열 치가 혼 자예?(예, 열 치가 한 자요?)

106022 #2 으.(으.)

106022 @ 열 치가 혼 자인 거?(열 치가 한 자인 거?)

106022 #2 십 치 혼 자. 혼 자, 두 자 헌 거지 거.(십 치 한 자. 한 자, 두 자 한 거지 거.)

106022 @ 그럼 자도 잇어야 뒐 거고, 자르젠 허민?(그럼 자도 있어야 될 거고, 자르려고 하면?)

106022 #2 가위, 가위. ᄀᆞ세.(가위, 가위. 가위.)

106022 @ ᄀᆞ세렌 ᄀᆞᆯ앗지예? 옛날 말로 ᄀᆞᆯ아 주십서예.(가위라고 말했지요? 옛날 말로 말해 주십시오.)

106022 #2 ᄀᆞ세.(가위.)

106022 @ ᄀᆞ세. 경 바농상지에 뭐, 뭐 들어 잇수과? 바농상지과 바농 쏨지과,

여기는?(가위. 그렇게 반짇고리에 뭐, 뭐 들어 있습니까? '바농상지'입니까, '바농 쏨지'입니까, 여기는?)

106022 #2 바농상지.(반짇고리.)

106022 @ 바농상지에 들어 있는 거 다 골아 줍서.(반짇고리에 들어 있는 거 다 말해 주세요.)

106022 #2 바농상지에 들어 있는 거 무신, 바농상지에 들어 있는 게 뭣 잇어게. 실 검은실.(반짇고리에 들어 있는 거 무슨, 반짇고리에 들어 있는 게 뭐 있어. 실 검은실.)

106022 @ 검은실.(검은실.)

106022 #2 흰실.(흰실.)

106022 @흰실.(흰실.)

106022 #2 국방색실.(국방색실.)

106022 @ 어.(어.)

106022 #2 또 검은실. 그추룩 헹 셧주게. 노랑실도 허고 뭐 잇어나고.(또 검은실. 그처럼 해서 있었지. 노란실도 하고 뭐 있었고.)

106022 @ 실은 그냥 들어 이실 거 아니민 실ᄐᆞ레기에 감아졍 이실 거?(실은 그냥 들어 있을 거 아니면 실패에 감겨 있을 거?)

106022 #2 실?(실?)

106022 @ 으.(으.)

106022 #2 영 걸레에, 실 걸레 잇잖아?(이렇게 얼레에, 실 얼레 있잖아?)

106022 @ 으.(으.)

106022 #2 겨믄 아무 것에라도 영 감앙 쓰는디 실패, 실패 요만썩헌 거 낭으로 실패가 잇어. 낭으로 요만인헌 거. 그것에 영 영 영 감앙 바농 찔렁 거 바농상지에 놉네다.(그럼 아무 것에라도 이렇게 감아서 쓰는데 실패, 실패 요만한 거 나무로 실패가 있어. 나무로 요만한 거. 그것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감아서 바늘 찔러서 거 반짇고리에 놉니다.)

106022 @ 실패에 바농 찔르기도 허지만 우리 요만헌 오주메기[189]처럼 만들엉 영 바농 찔러 두는 것도 잇지예?(실패에 바늘 찌르기도 하지만 우리 요만한 '오주메기'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바늘 찔러 두는 것도 있지요?)

106022 #2 예게.(예.)

106022 @ 그거 뭐렌 곱니까?(그거 뭐라고 말합니까?)

106022 #2 그거 뭐여만은.(그거 뭐여만.)

106022 @ 바농쫄레?(바늘꽂이?)

106022 #2 아니, 바농쫄레 아니. 바농 쏨지.(아니, 바늘꽂이 아니. 바늘 쌈지.)

106022 @ 바농 쏨지는 상자를 바농 쏨지렌 헐 거 아니?(바늘 쌈지는 상자를 바

189) '오주메기'는 자그마한 주머니에 모래, 좁쌀 등을 넣어 공처럼 만든 놀이 도구를 말한다. 일본어 'おじめ'에서 왔다.

늘 쌈지라고 할 거 아니?)

106022 #2 아니, 아니. 바농상지 건. 상지.(아니, 아니. 반짇고리 건. 상자.)

106022 @ 아.(아.)

106022 #2 바농상지고 바농 쏨지엔 헤여근에 그 요것에 찔르는 게 잇엇주게.(반짇고리고 '바농 쏨지'라고 해서 그 요것에 찌르는 게 있었지.)

106022 @ 아, 그걸 바농 쏨지엔 헐 거?(아, 그걸 '바농 쏨지'라고 할 거?)

106022 #2 바농 쏨지, 바농 쏨이엔 헤실 거라, 거.('바농 쏨지', '바농 쏨'이라고 했을 거야, 거.)

106022 @ 바농 쏨, 으음.('바농 쏨', 으음.)

106022 #2 쏨지엔 허는 사름도 잇고 쏨이엔 허는 사름도 잇고.('쏨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06022 @ 그니까 다 놓아두는 건 바농상지고.(그러니까 다 놓아두는 건 반짇고리고.)

106022 #2 으, 바농상지.(으, 반짇고리.)

106022 @ 바농 찔러 두는 건 바농 쏨?(바늘 찔러 두는 건 '바농 쏨'?)

106022 #2 으.(으.)

106022 @ 또는 바농 쏨지예?(또는 바늘 쌈지요?)

106022 #2 으.(으.)

106022 @ 아, 기구나.(아, 그렇구나.)

106022 #2 거 실패 놓는 거.(거 실패 놓는 거.)

106022 @ 실패 놓는 거. 혹시 바농 쏨지도 담아 놓고 실 써난 것도 담아 놓고 허젠 요만허게 포 만든 거 잇지 안 허과? 그 고넹이포[190]렌 허는 거 엇어낫수과?(실패 놓는 거. 혹시 바늘 쌈지도 담아 놓고 실 썼던 것도 담아 놓고 하려고 요만하게 보자기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고넹이포'라고 하는 거 없었습니까?)

106022 #2 포는 엇엇주기게. 바농상지에.(포는 없었지. 반짇고리에.)

106023 @ 아, 바농상지는 포는 엇어난 거예? 게민 이젠 바농질을 헐 거예? 바농질을 허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영 듬성듬성허는 것도 잇고 촘촘이 허는 것도 잇고 영 바위 둘르멍 허는 것도 잇고. 그런 거 다 뭐렌 골앗수과?(아, 반짇고리는 보자기는 없었던 거요? 그럼 이젠 바느질을 할 거요? 바느질을 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렇게 듬성듬성하는 것도 있고 촘촘히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바위 둘르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 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3 #2 아, 저 바우 돌루는 거게.(아, 저 바위 두르는 거.)

106023 @ 바우 돌르는 거 뭐렌 골아?(바위 두르는 거 뭐라고 말해?)

106023 #2 이렇게 바우 돌르는 건 바우 돌리는 거엔 허주.(이렇게 바위 두르는 건 바위 두르는 거라고 하지.)

106023 @ 으, 또.(으, 또.)

---

190) '고넹이포'는 바늘이나 실, 실패, 헝겊 조각 따위를 넣어 두기 위해 네모나게 만든 주머니를 말한다.

106023 #2 겨고게 또 뒷바농질[191] 헌덴 건 건 뒤우로 영 가는 건 뒷바농질.(그리고 또 '뒷바농질' 한다고 건 건 뒤로 이렇게 가는 건 '뒷바농질'.)

106023 @ 으, 촘촘헌 거. 어느 게 촘촘헌 거?(으, 촘촘한 거. 어느 게 촘촘한 거?)

106023 #2 촘촘헨 좋은 건?(촘촘해서 좋은 건?)

106023 @으.(으.)

106023 #2 뒷바농질 허는 거.(박음질 하는 거.)

106023 @ 그냥 듬성듬성허는 건 뭐렌 헙니까?(그냥 듬성듬성하는 건 뭐라고 합니까?)

106023 #2 것ᄀᆞ란 무시거엔 허지 안허여.(것보고 무엇이라고 하지 않아.)

106023 @ 무시거렌 허지 안헤예?(무엇이라고 하지 않아?)

106023 #2 으. 그것ᄀᆞ란 무시거 아이고 무신 어디 ᄃᆞᆯ ᄒᆞ나 별 ᄒᆞ나 난 것 모냥으로 경 ᄀᆞᆯ으멍. 막 바농을 홁게 주면은 그추룩 허주게.(으. 그것보고 무엇 아이고 무슨 어디 달 하나 별 하나 난 것 모양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마구 바늘을 굵게 주면 그처럼 하지.)

106023 @ 아, 흐흐흐. 너무 듬성듬성허다 헐 때는 어디 ᄃᆞᆯ ᄒᆞ나 별 ᄒᆞ나 잇저.(아, 흐흐흐. 너무 듬성듬성하다 할 때는 어디 달 하나 별 하나 있어.)

106023 #2 으.(으.)

106023 @ 경 ᄀᆞᆫ는 거라예?(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옷 종류

106024 @ 옷 종류 여쭤볼게마씨. 남자 옷 종류에는 어떤 옷이 이신고예?(옷 종류 여쭤볼게요. 남자 옷 종류에는 어떤 옷이 있었나요?)

106024 #2 남자 옷은 저 중의 적삼.(남자 옷은 저 중의 적삼.)

106024 @ 중의 적삼.(중의 적삼.)

106024 #2 또 그 다음에는 바지저고리, 두루메기.(또 그 다음에는 바지저고리, 두루마기.)

106024 @ 음.(음.)

106024 #2 이런 도폭.(이런 도포.)

106024 @ 음.(음.)

106024 #2 그거.(그거.)

106024 @ 그거 잇고예?(그거 있고요?)

106024 #2 도폭은 무슨 지, 큰 지나 지낼 때는 그 높은 지관이 입어근에 허는 거. 또 저승 갈 때도 허고.(도포는 무슨 제, 큰 제나 지낼 때는 그 높은 지관이 입어서 하는 거. 또 저승 갈 때도 하고.)

106024 @ 아, 도폭은. 중의 적삼은 어떤 것과?(아, 도포는. 중의 적삼은 어떤 겁

191) '뒷바농질'은 바늘땀을 뒤로 놓는다고 해서 붙인 이름으로, 박음질을 말한다.

니까?)

106024 #2 중의 적삼은 얇은 거게. 아래 우이 입는 거. 적삼은 우이 거고 아래 거는 중의.(중의 적삼은 얇은 거. 아래 위에 입는 거. 적삼은 위에 거고 아래 거는 중의.)

106024 @ 중의?(중의?)

106024 #2 으.(으.)

106024 @ 얇은 거?(얇은 거?)

106024 #2 으.(으.)

106024 @ 그 다음 도포 얘기했고.(그 다음 도포 얘기했고.)

106024 #2 또 바지.(또 바지.)

106024 @ 바지.(바지.)

106024 #2 바지에도 저고리 잇고 바지 잇고.(바지에도 저고리 있고 바지 있고.)

106024 @ 저고리 잇고 바지 잇고예?(저고리 있고 바지 있고요?)

106024 #2 으, 조께 잇고.(으, 조끼 있고.)

106025 @ 그럼 여자 옷은 뭐 잇어나신고예?(그럼 여자 옷은 뭐 있었나요?)

106025 #2 뭐 여자 옷이사 무시것게. 여자 옷도 적삼.(뭐 여자 옷이야 무엇. 여자 옷도 적삼.)

106025 @ 음.(음.)

106025 #2 적삼허고 또 저 치마.(적삼하고 또 저 치마.)

106025 @ 치마렌 헷수과, 치메렌 헷수과?(치마라고 했습니까, '치메'라고 했습니까?)

106025 #2 치메. 이젯말론 치마주만은 치메, 치메.('치메'. 이젯말론 치마지만 치마, 치마.)

106025 @ 음. 치메 또.(음. 치마 또.)

106025 #2 치메저고리베낀 더 잇어수과게?(치마저고리밖에 더 있었습니까?)

106025 @ 안에 우리 물질허레 갈 때 입어난 건?(안에 우리 물질하러 갈 때 입었던 건?)

106025 #2 아, 건 소중의[192]. 소중의, 소중의 허주게. 우리 제줏말로.(아, 건 '소중의'. '소중의', '소중의' 허지. 우리 제주말로)

106025 @ 속곳이엔은 안 골앗수과?('속곳'이라고는 안 말했습니까?)

106025 #2 속곳이엔 곧는 사람 잇어도 속곳이 맞주게. 겐디 소중의.('속곳'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도 '속곳'이 맞지. 그런데 '소중의'.)

106025 @ 예.(예.)

106025 #2 속곳은 그거 말고도 속곳이 잇주게. 이추룩 헌 중의도 잇고 속에 또 반중의 요만이 헌 거 입는 것도 잇고. 고장중의라고 경.('속곳'은 그거 말고도 '속곳'

192) '소중의'는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광목 따위로 만든 물옷을 말한다. '물소중이', '소중기', '속곳'이라고도 한다.

이 있지. 이처럼 한 중의도 있고 속에 또 반중의 요만큼 한 거 입는 것도 있고. 고쟁이라고 그렇게.)

106025 @ 예. 게난 속에 입는 것도 속곳이엔 애기했었던 거라예?(예. 그러니까 속에 입는 것도 '속곳'이라고 애기했었던 거지요?)

106025 #2 으.(으.)

106026 @ 예. 그 다음 아이덜 옷에는 뭐 잇엇수과, 아이덜 옷?(예. 그 다음 아이들 옷에는 뭐 있었습니까, 아이들 옷?)

106026 #2 아이고 아이덜 옷 무시거 잇어서게. 그 어른거추룩 중의 적삼 그런 거 ᄒᆞ꼬메기 헤게 헹 입져근에. 그런 거주.(아이고, 아이들 옷 무엇 있어. 그 어른처럼 중의 적삼 그런 거 조그만 하게 해서 입혀서. 그런 거지.)

106026 @ 금방 태어난 애기 입지는?(금방 태어나 아기 입히는?)

106026 #2 금방 태어난 애기는 등뗑이 내중에. 이제덜은 경허지 안헤도. 그때는 베, 삼베.(금방 태어난 아기는 등때기 나중에. 이제들은 그렇지 않아도. 그때는 베, 삼베.)

106026 @ 으.(으.)

106026 #2 삼베 그냥 바지락헌 걸로이 그 애기 곤난애길 저고리 거치룩 멘들아도 그냥 간단허게 멘들앙. 아멩이나 간단허게 요만이 헹 멘들앙. 경헤연 그거 입정 ᄒᆞ꼼 싯다근에 이젠 큰 옷 헤근에 영 입져근에.(삼베 그냥 바삭한 걸로 그 아기 갓난아길 저고리처럼 만들어도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서. 아무렇게나 간단하게 요만큼 해서 만들어서. 그래서 그거 입혀서 조금 있다가 이젠 큰 옷 해서 이렇게 입혀서.)

106026 @ 아.(아.)

106026 #2 저고리거추룩 헌 거.(저고리처럼 한 거.)

106026 @ 그걸 뭐렌 ᄀᆞᆯ을 거, 게난?(그걸 뭐라고 말할 거, 그러니까?)

106026 #2 저구리.(저고리.)

106026 @ 저고리엔 헙니까, 붓딧창옷이엔 안 헤?(저고리라고 합니까, '붓딧창옷'이라고 안 해?)

106026 #2 아니, 아니. 거 저고리고 이제 거 체얌.(아니, 아니. 거 저고리고 이제 거 처음.)

106026 @ 체얌?(처음?)

106026 #2 ᄀᆞᆺ 난 때 입지는 것이 거 창옷게.(갓 난 때 입히는 것이 '창옷'.)

106026 @ 붓딧창옷예?('붓딧창옷'요?)

106026 #2 으, 붓딧창옷[193].(으, '붓딧창옷'.)

106026 @ 붓딧옷이렌 헐 거고. 아이덜 기저귀 찰 때 오줌 싸난 밑에 터진 옷도 입지 안허여?('붓딧옷'이라고 할 거고. 아이들 기저귀 찰 때 오줌 싸니까 밑에 터진 옷도 입지 않아?)

193) '붓딧창옷'은 아기가 태어나서 사흘 만에 입히는, 간편하게 만든 베옷을 말한다. '베창옷', '붓뒤적삼'이라고도 한다.

106026 #2 으, 터진 거 입주게.(으, 터진 거 입히지.)

106026 @ 그런 옷을 뭐렌? 강알 터진 거렌 헐 건가?(그런 옷을 뭐라고? 샅 터진 거라고 할 건가?)

106026 #2 아니. 거 터진 거는 거세기, 저, 터진 거엔 안 골앙 아래 고장중의엔 골아나서.(아니. 거 터진 거는 거시기, 저, 터진 거라고 안 말하고 아래 고쟁이라고 말했었어.)

106026 @ 아, 고장중의렌 골아나서.(아, 고쟁이라고 말했었어.)

106026 #2 으, 고젱이 중의, 고장. 이젠 고젱이엔 골아도 고장중의, 고장중의 헤연.(으, 고쟁이 중의, 고장. 이젠 고쟁이라고 말해도 '고장중의', '고장중의' 했어.)

106026 @ 아.(아.)

106026 #2 경혜연 그런 거 혜영 입져근에도 허주만은 지성치메라고 그런 거 만이 입진 사름도 잇주기게.(그래서 그런 거 해서 입혀서 하지만 처네라고 그런 거 많이 입힌 사람도 있지.)

106026 @ 예, 예, 지성치메예.(예, 예. 처네요.)

106026 #2 으. 지성치메엔 헌 거 어떵 허냐 허믄, 이렇게 혜영 애기들 와글와글 걸어 뎅겨 가도 이디 영 영 주름 앚져근에게 이디 스못 줍지 안 헤여근에 이디 끈 돌아근에 영 혜영 입지믄 걸어 뎅기주게 요디꺼진 돌아왕.(으. 처네라고 한 거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해서 아기들 와글와글 걸어 다녀 가도 여기 이렇게 이렇게 주름 잡아서 여기 사뭇 줍지 않고 여기 끈 달아서 이렇게 해서 입히면 걸어 다니지. 요기까지 돌아와서.)

106026 @ 으.(으.)

106026 #2 경 걸어 뎅기당 오줌 싸도게 그 아랜 거세기 허난게. 지성치메.(그렇게 걸어 다니다가 오줌 싸도 그 아랜 거시기 하니까. 처네.)

106026 @ 예, 예.(예, 예.)

106026 #2 지성치멜 만이 입졋주게, 그땐.(처넬 많이 입혔지, 그땐.)

106027 @ 지성치메예. 예, 맞수다, 맞수다. 옷을 멘들젠 허면 옷감 가져당 줄라야 뒐 거 아니과, 마름질헤야 헐 거 아니과?(처네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옷을 만들려고 하면 옷감 가져다가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마름질해야 할 거 아닙니까?)

106027 #2 으, 으. 바느질헤영 몰라야 뒐 거난.(으, 으. 바느질해서 말라야 될 거니까.)

106027 @ 몰를 때 허젠 허민 어떵 헤야 뒈?(마를 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106027 #2 몰를 때는 매 사름이 거 허는 거 아니.(마를 때는 매 사람이 거 하는 거 아니.)

106027 @ 아니.(아니.)

106027 #2 그 바느질 잘허는 사름이 흔 부락에 멧 사름 잇어이. 경헌디 그 바느질허는 사름은 잘살진 못허영 바느질 품 풀앙 살아근에. 경허민 그디 강 다 몰라

도렌 헨 그디서 만들기도 허곡 또 허여당 입지기도 허곡 경.(그 바느질 잘하는 사람이 한 부락에 몇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바느질하는 사람은 잘살진 못해서 바느질품 팔아서 살아서. 그러면 거기 가서 다 말라 달라고 해서 거기서 만들기도 하고 또 해다가 입히기도 하고 그렇게.)

106027 @ 음. 게난 아무나 다 ᄆᆞ름질.(음. 그러니까 아무나 다 마름질.)

106027 #2 허지 못허는 거.(하지 못하는 거.)

106027 @ 허지 못허는 거라예. ᄆᆞᆯ름질허젠 허민 뭐 본이 잇어야 뭴 건가? 옷본?(하지 못하는 거지요. 마름질하려고 하면 뭐 본이 있어야 될 건가? 옷본?)

106027 #2 그 어른들은 본 엇어도 짐작으로 착 착 허엿주기게.(그 어른들은 본 없어도 짐작으로 착 착 했지.)

106027 @ 아.(아.)

106027 #2 옛날은.(옛날은.)

106027 @ 이런 디 재여 가지고?(이런 데 재어 가지고?)

106027 #2 으, 으.(으, 으.)

106028 @ 혹시 옷 부분 명칭덜 알아지쿠과? 예를 들면 우리 저고리면, 저고리면 뭐 옷이 영 이실 거 아니우과, 그럼 저고리 여기는 뭐렌 ᄀᆞᆯ을 것과?(혹시 옷 부분 명칭들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저고리면, 저고리면 뭐 옷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고리 여기는 뭐라고 말할 겁니까?)

106028 #2 거기 소미.(거기 소매.)

106028 @ 소미. 게고 여기 뭐 잇지예?(소매. 그리고 여기 뭐 있지요?)

106028 #2 짓.(깃.)

106028 @ 짓.(깃.)

106028 #2 짓 우이 ᄃᆞ는 건 동전.(깃 위에 다는 건 동정.)

106028 @ 동전 ᄃᆞᆯ고예. 게민 이 앞에 부분은?(동정 달고요. 그럼 이 앞에 부분은?)

106028 #2 앞섭.(앞섶.)

106028 @ 앞섭. 안쪽에 들어가는 거는?(앞섶.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106028 #2 안 안섭.(안 앞섶.)

106028 @ 안 앞섭?(안 앞섶?)

106028 #2 안 안섭, 안 안섭.(안 안섶, 안 안섶.)

106028 @ 으, 안 안섭. 음.(으, 안 안섶. 음.)

106028 #2 베껏디 건 밧밧섭[194].(밖에 건 '밧밧섭'.)

106028 @ 밧섭이고 게민 여기는 다 섭인데.('밧섭'이고 그럼 여기는 다 섶인데.)

106028 #2 여기 또 소미.(여기 또 소매.)

106028 @ 소미.(소매.)

106028 #2 요딘 끗동 놓는 거, 질동.(요긴 끝동 놓는 거, 끝동.)

194) '밧밧섭'은 옷의 겉 부분에 달린 섶을 말한다.

106028 @ 음. 질동이렌 헤?(음. 끝동이라고 해?)

106028 #2 으.(으.)

106028 @ 게민 우에 여기 짓 우에 요기 있는 건 뭐렌 헤? 목 뒤에? 짓바데 잇수과, 이디?(그럼 위에 여기 깃 위에 요기 있는 건 뭐라고 해? 목 뒤에? 등바대 있습니까, 여기?)

106028 #2 짓바데 잇는 거는 적삼에 짓바데를 돌주. 다른 것엔 짓바데 안 ᄃᆞ는 거. 짓바데도 매 사름 돌지 안허여. 짓바데 ᄃᆞ는 적삼도 잇고 안 ᄃᆞ는 적삼도 잇고.(등바대 있는 거는 적삼에 등바대를 달지. 다른 것엔 등바대 안 다는 거. 등바대도 매 사람 달지 않아. 등바대 다는 적삼도 있고 안 다는 적삼도 있고.)

106028 @ 게민 짓바데는 무사 ᄃᆞ는 거마씸?(그럼 등바대는 왜 다는 거예요?)

106028 #2 몰라게.(몰라.)

106028 @ 튼튼허게 만들젠 짓바데를 허는 건가?(튼튼하게 만들려고 등바대를 하는 건가?)

106028 #2 짓바데 그거 허난 질기게 든든허게 험으로 그거 헴신디 몰라.(등바대 그거 하니까 질기게 단단하게 함으로 그거 하는지 몰라.)

106028 @ 아. 그럼예, 바지에는 이 부분은 뭐렌 헐 것과?(아, 그럼요, 바지에는 이 부분은 뭐라고 할 겁니까?)

106028 #2 바지허리게.(바지허리.)

106028 @ 허리. 여기는?(허리. 여기는?)

106028 #2 아, 거기는 저 다리 다림 치는 디.(아, 거기는 저 다리 대님 치는데.)

106028 @ 이 부분이 다림 아니예?(이 부분이 대님 아니요?)

106028 #2 으, 다림.(으, 대님.)

106028 @ 이 바지통은 뭐렌 부르는 거 엇어?(이 바지통은 뭐라고 부르는 거 없어?)

106028 #2 그딘 엇어. 몰라.(거긴 없어. 몰라.)

106028 @ 이 앞에 부분 뭐 부르는 거, 엉덩이 부분 부르는 거 잇어?(이 앞에 부분 뭐 부르는 거, 엉덩이 부분 부르는 거 있어?)

106028 #2 엉덩이 부분은 밋.(엉덩이 부분은 밑.)

106028 @ 아, 여기 밋. 밋, 여기 허리.(아, 여기 밑, 밑, 여기 허리.)

106028 #2 으, 밋.(으, 밑.)

106028 @ 여기 다림.(여기 대님.)

106028 #2 다림.(대님.)

106028 @ 다림예?(대님요?)

106028 #2 으, 것ᄀᆞ란 다림, 다림 허여.(으, 것보고 대님, 대님 해.)

106028 @ 예, 다림, 다림 허여예.(예, 대님, 대님 해요.)

106028 #2 게난 다림은 요만이헌 끈이 잇주기게. 남소록허게[195] 옛날은 멘들

앙.(그러니까 대님은 요만한 끈이 있지.(그러니까 대님은 요만한 끈이 있지. '남소록하게' 옛날은 만들어서.)

106028 @ 예, 예.(예, 예.)

106028 #2 요걸 요렇게 허여게 쪽 허여다가 이디 톡허게 무끄는 거.(요걸 요렇게 해서 쪽 해서 여기 톡하게 묶는 거.)

106028 @ 무끄는 거.(묶는 거.)

106028 #2 이걸 헐 충 모른 사름은 이렇게도 헌 사름 셔라. 요번이 멩질 때 보난.(이걸 할 줄 모른 사람은 이렇게도 한 사람 있었어. 요번에 명절 때 보니까.)

106028 @ 으. 다림 허는 거. 게민 치마의 부분 명칭, 한복 치마 영 허민 여기 무끄는 건?(으. 대님 하는 거. 그럼 치마의 부분 명칭, 한복 치마 이렇게 하면 여기 묶는 건?)

106028 #2 앞치메게.(앞치마.)

106028 @ 앞치메? 아니, 여기 허리, 허리렌 안 헤?(앞치마? 아니, 여기 허리, 허리라고 안 해?)

106028 #2 아니, 그건 치마허리고.(아니, 그건 치마허리.)

106028 @ 으, 으.(으, 으.)

106028 #2 치마 입은 다음에 무슨 일 허젠 허민 무슨 치마 입잖아.(치마 입은 다음에 무슨 일 하려고 하면 무슨 치마 입잖아.)

106028 @ 아니, 앞치마 말고 그거 말고.(아니, 앞치마 말고 그거 말고.)

106028 #2 그거 말고는.(그거 말고는.)

106028 @ 치마의 부분 명칭이라예?(치마의 부분 명칭이지요?)

106028 #2 치마에 있는 부분은 허리나베낀 엇어.(치마에 있는 부분은 허리나밖에 없어.)

106028 @ 허리나베낀 엇어.(허리나밖에 없어.)

106028 #2 허리끈 허고.(허리끈 하고.)

106028 @ 허리끈예?(허리끈요?)

106028 #2 허리 곰.(허리 고름.)

106028 @ 허리 뭐? 곰?(허리 뭐? 고름?)

106028 #2 허리 곰. 곰게, 것ᄀᆞ라 곰이엔 헤, 제줏말로.(허리 고름. 고름, 것보고 고름이라고 해, 제줏말로.)

106028 @ 맞수다. 허리 곰예. 보선 물어보쿠다, 보선. 보선인 경우에 영 하면 이거는 뭐렌 ᄀᆞᆯ읍니까?(맞습니다. 허리 고름요. 버선. 버선인 경우에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라고 말합니까?)

106028 #2 앞코.(앞코.)

106028 @ 여기는?(여기는?)

106028 #2 뒤치기.(뒤치기.)

---

195) '남소록허다'는 모양이 가늘고 길다는 의미다.

106028 @ 뒤치기. 이거 이 부분, 보선등이렌 허여.(뒤치기. 이거 이 부분, 버선등이라고 해.)

106028 #2 아니, 보선목. 첨 첨 이디ᄀᆞ란 보선목이엔 허여.(아니, 버선목. 첨 첨 여기보곤 버선목이라고 해.)

106028 @ 보선목. 게민 이디 부르는 건 엇고?(버선목. 그럼 여기 부르는 건 없고?)

106028 #2 요 우엔?(요 위엔?)

106028 @ 예.(예.)

106028 #2 엇주게, 엇어.(없지, 없어.)

106028 @ 엇어예. 코, 뒤치기, 보선목.(없어요. 코, 뒤치기, 버선목.)

106028 #2 으.(으.)

106028 @ 그렇게 얘기헐 거예?(그렇게 얘기할 거요?)

106028 #2 으.(으.)

106029 @ 그 지금은 우리 옷에 영 단추가 달렁 이신디 예전에는 그런 단추가 엇엇잖아예?(그 지금은 우리 옷에 이렇게 단추가 달려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단추가 없었잖아요?)

106029 #2 으, 단추 엇이난에 곰 헷주기게.(으, 단추 없으니까 고름 했지.)

106029 @ 곰예.(고름요.)

106029 #2 곰허고 또 동달리라고 요렇게 무시걸로 묻아근에.(고름하고 또 매듭단추라고 요렇게 무엇으로 맺어서.)

106029 @ 으.(으.)

106029 #2 묻앙 그것ᄀᆞ란 무시거엔 곧는고, 이젠 그거?(맺어서 그것보고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젠 그거?)

106029 @ 돌메기?(‘돌메기’?)

106029 #2 돌메기[196]가 아니고.(‘돌메기’가 아니고.)

106029 @ 벌ᄆᆞ작?(‘벌ᄆᆞ작’?)

106029 #2 아니, 동달리라고 요만이헌 거 잇어게.(아니, 매듭단추라고 요만한 거 있어.)

106029 @ 아.(아.)

106029 #2 요만이헌 거.(요만한 거.)

106029 @ 옛날에, 옛날에는 뭐렌 불럿수과, 그거?(옛날에,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거?)

106029 #2 그것ᄀᆞ라 동달리.(그것보고 매듭단추.)

106029 @ 동달리? 벌ᄆᆞ작이나 돌메기 같은 거 엇수과?(매듭단추? ‘벌ᄆᆞ작’이나 ‘돌메기’ 같은 거 없습니까?)

106029 #2 아니. 벌ᄆᆞ작이엔 안 허고게.(아니. ‘벌ᄆᆞ작’이라고 안 하고.)

196) ‘돌메기’는 매듭단추를 말한다. ‘돌마기’, ‘벌ᄆᆞ작’이라고도 하는데 제보자는 이를 ‘동달리’라고도 하였다.

106029 @ 속곳에, 속곳에 다는 건 뭐과?('속곳'에, '속곳'에 다는 건 뭡니까?)

106029 #2 그거, 그거주게. 소중의에 ᄃᆞ는 거.(그거, 그거지. '소중의'에 다는 거.)

106029 @ 그게 뭐?(그게 뭐?)

106029 #2 소중ᄃᆞᆯ마기[197].('소중ᄃᆞᆯ마기'.)

106029 @ 아, ᄃᆞᆯ마기, ᄃᆞᆯ마기예?(아, 매듭단추, 매듭단추요?)

106029 #2 으.(으.)

106029 @ ᄃᆞᆯ메기가 아니고 ᄃᆞᆯ마기엔 헤서예?('ᄃᆞᆯ메기'가 아니고 'ᄃᆞᆯ마기'라고 했어요?)

106029 #2 으.(으.)

106029 @ 소중ᄃᆞᆯ마기예.('소중ᄃᆞᆯ마기'요.)

106029 #2 으, 소중ᄃᆞᆯ메기. 소중의에 ᄃᆞᆯ메기.(으, '소중ᄃᆞᆯ메기'. '소중의'에 매듭단추.)

106029 @ 아, ᄃᆞᆯ메기엔 헴신게. 소중ᄃᆞᆯ메기. 게난 옛날에 단추 없을 때는 곰 헌다든지.(아, 'ᄃᆞᆯ메기'라고 하고 있네요. '소중ᄃᆞᆯ메기'. 그러니까 옛날에 단추 없을 때는 고름 한다든지.)

106029 #2 으, 그거. 이런 디. 어쨌든 그것ᄀᆞ란 동달리엔 허메게.(으, 그거. 이런데. 어쨌든 그것보고 매듭단추라고 해.)

106029 @ 아, 그 ᄃᆞᆯ메기랑 동달리가 ᄀᆞ튼 것과?(아, 그 'ᄃᆞᆯ메기'와 '동달리'가 같은 겁니까?

106029 #2 소중ᄃᆞᆯ메기, ᄃᆞᆯ메기 허주만은 그 동달리ᄀᆞ라 경 ᄀᆞᆯ는 거게.('소중ᄃᆞᆯ메기', 'ᄃᆞᆯ메기' 하지만 그 '동달리'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

106029 @ 아, 그럼 전체적으론 그걸 동달리인데.(아, 그럼 전체적으론 그걸 매듭단추인데.)

106029 #2 으, 동달리라. 그 묻은 것ᄀᆞ라는 동달리렌 ᄀᆞᆯ아.(으, 매듭단추야. 그 맺은 것보고 매듭단추라고 말해.)

106029 @ 그 소중의에 잇는 거.(그 '소중의'에 있는 거.)

106029 #2 소중의에 것도 그거, ᄀᆞ튼 거주만은 소중ᄃᆞᆯ메기엔 ᄀᆞᆯ메.('소중의'에 것도 그거, 같은 거지만 '소중ᄃᆞᆯ메기'라고 말해.)

재단과 염색

106031 @ 예, 예. 그거는 특별허게 소중ᄃᆞᆯ메기렌 ᄀᆞᆫ는 거예. 예, 예. 그 염색허젠 허민 아까 감물 들이는 것도 잇엇고, 감물 들이는 거는 감 따당 허는 거고.(예, 예. 그거는 특별하게 '소중ᄃᆞᆯ메기'라고 말하는 거요. 예, 예. 그 염색하려고 하면 아까 감물 들이는 것도 있었고, 감물 들이는 거는 감 따다가 하는 거고.)

106031 #2 감 따당 그거는 ᄲᆞᆺ앙.(감 따다가 그거는 빻아서.)

197) '소중ᄃᆞᆯ마기'는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었던 '소중의'의 매듭단추를 말한다. '소중ᄃᆞᆯ메기'라고도 했다.

106031 @ 예.(예.)

106031 #2 그 옷을 뒤집어근에, 뒤집엉 거 감께[198] 부텅 막 헐 거난.(그 옷을 뒤집어서, 뒤집어서 거 '감께' 붙어서 마구 할 거니까.)

106031 @ 으.(으.)

106031 #2 뒤집어근이 막 이렇게 물 쪼금, 막 뺏아 놩 물 쪼금 타근에 영 헤영 막 서껑이 그거를 막 뿔레 놀리듯 놀리믄 감이 다 들어질 거 아니라게.(뒤집어서 마구 이렇게 물 조금, 마구 빻아 놔서 물 조금 타서 이렇게 해서 마구 섞어서 그거를 마구 빨래 놀리듯 놀리면 감이 다 들 거 아니야.)

106031 @ 음.(음.)

106031 #2 경허믄 저런 바깟디 가근에 짝 페왕 널믄 햇볏이 오면은 그게 발강혜졍. 다시 막 물른 거 닮으민 또 물을 적져당 또 널고 두루 뭣 헌 거 시민 뚜로 뒤집어 널고 허믄 그게 발강케 뒈여게.(그러면 저런 밖에 가서 짝 펴서 널면 햇볕이 오면 그게 발개져. 다시 잘 마른 거 닮으면 또 물을 적셔다가 또 널고 두루 뭣 한 거 있으면 따로 뒤집어 널고 하면 그게 발갛게 돼.)

106031 @ 음.(음.)

106031 #2 겐 바지락허영.(그래서 바삭해서.)

106031 @ 경 물 무치멍 널엇당 널엇당 허는 걸 한 멧 번 정도 헙니까?(그렇게 물 묻히면서 널었다가 널었다가 하는 걸 한 몇 번 정도 합니까?)

106031 #2 세 번.(세 번.)

106031 @ 아, 세 번 정도?(아, 세 번 정도?)

106031 #2 으.(으.)

106031 @ 게민 영 감물 들이는 것은 옷을 다 멘든 다음에 허는구나?(그럼 이렇게 감물 들이는 것은 옷을 다 만든 다음에 하는구나?)

106031 #2 음.(음.)

106031 @ 천 먼저 물 들영?(천 먼저 물 들여서?)

106031 #2 아니, 천 먼저 들영 허는 거는 이제덜은 보난 그렇게 헤도, 그거 물 곰 들여서 감물이엔 헤도 감 쪼금 드나마나 헤선게.(아니, 천 먼저 들여서 하는 거는 이제들은 보니까 그렇게 해도, 그거 물감 들여서 감물이라고 해도 감 조금 드나마나 했어.)

106031 @ 아.(아.)

106031 #2 감물 짱 놔둠서 물곰, 그 물곰 들인 다음에 이렇게 들여근에 허는 셍이란게.(감물 짜서 놔두면서 물감. 그 물감 들인 다음에 이렇게 들여서 하는 모양이야.)

106031 @ 아. 기라예. 그믄 물곰 들이는 거는 이렇게 감물 들이는 거밖에 엇수과? 다른 건 뭐 잇수과?(아. 그렇지요. 그럼 물감 들이는 거는 이렇게 감물 들이는 거밖에 없습니까? 다른 건 뭐 있습니까?)

198) '감께'는 감을 빻아서 물을 들일 때 빻은 감 찌꺼기를 말한다.

106031 #2 감물 허고 검은 물, 검정 물.(감물 하고 검은 물, 검정 물.)

106031 @ 검은 물. 검은 물은?(검은 물. 검은 물은?)

106031 #2 검정 물허고 또 무신 빨강 물.(검정 물하고 또 무슨 빨강 물.)

106031 @ 게민 검은 물도 사당 허는 거고 빨간 물도 사당?(그럼 검은 물도 사다가 하는 거고 빨간 물도 사다가?)

106031 #2 사당. 장에 픈는 장서 셔낫어. 물ᄀᆞᆷ 장시, 물ᄀᆞᆷ 장시도 제주 사름이 아니고 다 전라도 사름덜. 못 살믄 그런 물ᄀᆞᆷ도 풀고.(사다가. 장에 파는 장수 있었어. 물감 장수, 물감 장수도 제주 사람이 아니고 다 전라도 사람들. 못 살면 그런 물감도 팔고.)

106031 @ 그럼 막 그 전이 아니고, 그 이후에?(그럼 마구 그 전에 아니고, 그 이후에?)

106031 #2 그 전이 잇어난 거는 감베낀 뭣 엇어실 거라.(그 전에 있었던 거는 감밖에 뭐 없었을 거야.)

106031 @ 푸린 물, 풀 뜯어당 푸린 물들이고 경은?(푸른 물, 풀 뜯어다가 푸른 물들이고 그렇게는?)

106031 #2 으, 그런 것도 셧주게.(으, 그런 것도 있었지.)

106031 @ 아. 푸린 물들이는 것도 셔나고?(아. 푸른 물들이는 것도 있었고?)

106031 #2 으. 풀 뜯어당 ᄲᆞᆺ앙. 경헷자 곱지도 안허여.(으. 풀 뜯어다가 빻아서. 그랬어도 곱지도 않아.)

106031 @ 안 고와?(안 고와?)

신발

106032 @ 이번에는 신발 종류 물어보쿠다. 옛날에 신발 종류에는 뭐 잇어나신고예?(이번에는 신발 종류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신발 종류에는 뭐 있었나요?)

106032 #2 신발 난 몰르쿠다. 찝신베낀 엇엇어, 옛날에.(신발 난 모르겠습니다. 짚신밖에 없었어, 옛날에.)

106032 @ 집신이렌 헷수과, 초신이엔 헷수과?(짚신이라고 했습니까, '초신'이라고 했습니까?)

106032 #2 초신.(짚신.)

106032 @ 나막신?(나막신?)

106032 #2 나막신은 나무로 영 코 ᄃᆞᆯ리고 헤영 아래 발 ᄃᆞᆯ리고 헤근에 나막신, 고무신, 코신 잇지 안허여이?(나막신은 나무로 이렇게 코 달리고 해서 아래 발 달리고 해서 나막신, 고무신, 코신 있지 않아?)

106032 @ 예.(예.)

106032 #2 똑 그 가다[199]로. 그추룩 헹 비 온 날은 물 이만인 허민 그거 영 영 신어근에 소 메믄 소 촐 주레도 가고. 마당에이.(똑 그 모양으로. 그처럼 해서 비

199) '가다'는 일본어 'かた(形)'로 모양이라는 뜻이다.

온 날은 물 이만큼 하면 그거 이렇게 이렇게 신어서 소 매면 소 꼴 주러도 가고. 마당에.)

106032 @ 나막신도 잇어나신게예?(나막신도 있었네요?)

106032 #2 으.(으.)

106032 @ 가죽신도 이실 게 아니?(가죽신도 있을 게 아니?)

106032 #2 가죽신도 잇어주게. 가죽신은 저 보선거추룩 헌 거게.(가죽신도 있었지. 가죽신은 저 버선처럼 한 거.)

106032 @ 보선거추룩 헌 거. 그건 언제 신어신고, 가죽신은?(버선처럼 한 거. 그건 언제 신었나요, 가죽신은?)

106032 #2 가죽신 난 때는 얼만 안 뒈고 건 일후제, 첨 첨 그후제라서. 가죽신도 거 아무 사름이나 신는 거 아니. 막 어려우니까 그건 못 신어 봣주게.(가죽신 난 때는 얼마 안 되고 건 이후에, 첨 첨 그 후였어. 가죽신도 거 아무 사람이나 신는 거 아니. 아주 어려우니까 그건 못 신어 봤지.)

106032 @ 시집, 장게갈 때 그런 거?(시집, 장가갈 때 그런 거?)

106032 #2 시집, 장게갈 적엔 가막창신[200]이라고.(시집, 장가갈 때 '가막창신'이라고?)

106032 @ 으.(으.)

106032 #2 까망헌 유단으로이 요런, 요런 천은 요 색깔거추룩 헌 걸로 요렇게 똑 이런 모양으로 요렇게이 물라서 기지[201]를 그렇게 헤영 보선거추룩 만들앙.(까만 유단으로 요런, 요런 천은 요 색깔처럼 한 걸로 요렇게 꼭 이런 모양으로 요렇게 말아서 천을 그렇게 해서 버선처럼 만들어서.)

106032 @ 예, 예.(예, 예.)

106032 #2 경은 허여도 지금 가막창신이엔 헌 건 이디가 가망허여 유단으로 허곡. 바닥은 가죽.(그렇게 해도 지금 '가막창신'이라고 한 건 여기가 가매서 유단으로 하고. 바닥은 가죽.)

106032 @ 으.(으.)

106032 #2 가죽에 동글락헹 납작헌 징 박은 그런 가막창신이 잇어서. 나안티도 셔낫는디 이젠 엇어져 불언.(가죽에 동그래서 납작한 징 박은 그런 '가막창신'이 있어서. 나한테도 있었는데 이젠 없어져 버렸어.)

106035 @ 아, 시집 장가갈 때 그런 거 신어난마씨? 가막창신 기구나. 게민 초신 만들젠 허민 어떵헤야 뒐 건고?(아, 시집 장가갈 때 그런 거 신었습니까? '가막창신' 그렇구나. 그럼 짚신 만들려고 하면 어떡해야 될 건고?)

106035 #2 초신은 찝 두드려근에게.(짚신은 짚 두드려서.)

106035 @ 으, 으.(으, 으.)

106035 #2 찝 두드령 다 그 잎이 거시기 허는 것ᄀᆞ라 무시거 무시거엔 헷저만

200) '가막창신'은 겉은 검은 우모직으로 싸고, 안은 융을 대고 바닥에는 징을 박아 신부나, 부잣집이나 관가의 여자나 신었던 신을 말한다. '가막+창신'의 구성으로 '가막'은 '가맣다'의 의미이고, '창신'은 가죽신을 말한다.

201) '기지'는 일본어 'きじ(生地)'로 옷감을 말한다.

은. 그거 헤여근에 이렇게, 이렇게 끈 매여 둠서 초신은 짜주기, 짜. 이녁 거시기 헤도 손으로. 경허멍 다 만들앙.(짚 두드려서 다 그 옆이 거시기 하는 것보고 무엇 무엇이라고 했지만. 그거 해서 이렇게, 이렇게 끈 매어 두면서 짚신은 짜지, 짜. 자기 거시기 해도 손으로. 그러면서 다 만들어서.)

106035 @ 꼬으는 거 아니라?(꼬는 거 아니야?)

106035 #2 꼬으멍.(꼬면서.)

106035 @ 찝 무슨 찝으로 헷수과?(짚 무슨 짚으로 했습니까?)

106035 #2 나룩찝게.(볏짚.)

106035 @ 나룩찝, 여기 나룩 엇지 안허여?(볏짚, 여기 벼 없지 않아?)

106035 #2 나룩찝, 그때는 그 저. 무사게 어디 산듸찝 거튼 것도 있지 안 허여.(볏짚, 그때는 그 저. 왜 어디 밭볏짚 같은 것도 있지 않아.)

106035 @ 예, 예.(예, 예.)

106035 #2 어쨌든 이런 저 쏠 종류 헌 것ᄀᆞ란 찝이엔 허주, 찝. 게민 그거를 좋아난 걸 가져당 덩드렁[202]이엔 헌 건 동글락 돌 미끈헌 거 영 놔 둠서 그것에서 나무로 뒌 이런 마께로 그냥 막 두드리민 보각헤지지.(어쨌든 이런 저 쌀 종류 한 것 보고 짚이라고 하지, 짚. 그럼 그거를 좋았던 걸 가져다가 '덩드렁'이라고 한 건 동그란 돌 미끈한 거 이렇게 놔두면서 그것에서 나무로 된 이런 마께로 그냥 마구 두드리면 보각해지지.)

106035 @ 음.(음.)

106035 #2 경 허영.(그렇게 해서.)

106035 @ 게민 그거 꼬아 가지고?(그럼 그거 꼬아 가지고?)

106035 #2 이젠 그런 초신 멘든 것도 천하일색으로 곱게 허영 아이고.(이젠 그런 짚신 만든 것도 천하일색으로 곱게 해서 아이고.)

106036 @ 게난 초신에도 영 종류가 잇어낫수과?(그러니까 짚신에도 이렇게 종류가 있었습니까?)

106036 #2 초신에도게 무신 그 읖이 그 이렇게 허는 것ᄀᆞ라 무시게엔 헷저만은 잊어불엉 몰르크라. 그거 허여근에 곱닥허게 초신도 두 가지랏주게.(짚신도 무슨 옆에 그 이렇게 하는 것보고 무엇이라고 했지만 잊어버려서 모르겠어. 그거 해서 곱게 짚신도 두 가지였지.)

106036 @ 으.(으.)

106036 #2 시집 가근에게 뒷날 물려주는 거 그 신 중에 그거.(시집 가서 뒷날 물려주는 거 그 신 중에 그거.)

106036 @ 음.(음.)

106036 #2 곱게 멘든 거.(곱게 만든 거.)

106036 @ 그걸 뭐렌 골아 지는 그거 이름 생각 안 나고?(그걸 뭐라고 말했었는지 그거 이름 생각 안 나고?)

---

202) '덩드렁'은 딴딴하고 둥글넓적한 돌로, 짚이나 대 따위를 두드릴 때 주로 사용했던 돌판이다.

106036 #2 초신, 초신.(짚신, 짚신.)

106036 @ 그냥 초신예?(그냥 짚신요?)

106036 #2 초신 막 고운 거게. 꼬리 초신이엔 헤실 거라.(짚신 마구 고운 거. 꼬리 짚신이라고 했을 거야.)

모자 등

106037 @ 음. 게민 모자 종류에는 뭐가 잇수과, 모자, 모저?(음. 그럼 모자 종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자, 모자?)

106037 #2 모자, 모자 씬 사름이 시어서?(모자, 모자 쓴 사람이 있었어?)

106037 @ 밧디 가젠 허더라도 뭔가 모자, 햇빗 가리젠 모자 썽 가실 거 아니?(밭에 가려고 하더라도 뭔가 모자, 햇빛 가리려고 모자 써서 가실 거 아니?)

106037 #2 저 허허. 밀낭 거튼 거 허영, 그 꼭대기에 거 헤영.(저 허허. 밀나무 같은 거 해서, 그 꼭대기에 거 해서.)

106037 @ 음.(음.)

106037 #2 그 무시거 줄앙게.(그 무엇 결어서.)

106037 @ 줄앙. 경헹.(결어서. 그러해서.)

106037 #2 줄앙 페렝이거추룩 멘들앙.(결어서 패랭이처럼 만들어서.)

106037 @ 맞아마씨, 페렝이.(맞아요, 패랭이.)

106037 #2 이제 페렝이가 그거라, 그거.(이제 패랭이가 그거야, 그거.)

106037 @ 예, 예.(예, 예.)

106037 #2 그거라도 나무 껍데기 헤여근에 이제 기계로덜 다 만들앙 헴주만은 옛날은 손으로 짠 거 셔서.(그거라도 나무 껍데기 해서 이제 기계로들 다 만들어서 하지만 옛날은 손으로 짠 거 있어.)

106044 @ 여름에는 그 페렝이 썽 다녓던 거고예? 비 올 때 보면은 여기는 새로 만든 거 쓰지예?(여름에는 그 패랭이 써서 다녔던 거고요? 비 올 때 보면 여기는 띠로 만든 거 쓰지요?)

106044 #2 으.(으.)

106044 @ 그걸 뭐렌 골아마씨?(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106044 #2 비옷이엔 헷주, 무시거엔 허여.(비옷이라고 했지, 무엇이라고 해.)

106044 @ 우장 안 헷수과?(우장 안 했습니까?)

106044 #2 우장, 우장이엔 헷어.(우장, 우장이라고 했어.)

106044 @ 새로 영 만든 거예?(띠로 이렇게 만든 거요?)

106044 #2 으.(으.)

106037 @ 우장 쓰고 우에는 뭐 썬? 그거 삿갓이엔 안 골앗수과?(우장 쓰고 우에는 뭐 썼어? 그거 삿갓이라고는 안 말했습니까?)

106037 #2 삿갓.(삿갓.)

106037 @ 삿갓예?(삿갓요?)

106037 #2 삿갓 씨곡 그 우장 입어근에 영.(삿갓 쓰고 그 우장 입어서 이렇게.)

106038 @ 우장 입엉 허고예. 그 여름에는 페렝이 썻주만은 겨울에 쓰는 모자도 잇어낫수과?(우장 입어서 하고요. 그 여름에는 패랭이 썼지만 겨울에 쓰는 모자도 있었습니까?)

106038 #2 겨울에 씨는 모저가 엇주기게. 경 모자가 씬 사름이 셔서. 워냑 잘 사는 사름은, 이제 그 저 시집 장게간 디 보면은 여저덜 무시거 등뗑이꺼지 주랑헌[203] 모자 영 씨는 거 잇언게. 그 가다로 헤여근에 하르방덜 씨여낫어.(겨울에 쓰는 모자가 없지. 그렇게 모자가 쓴 사람이 있어. 워낙 잘사는 사람은, 이제 그 저 시집 장가간 데 보면 여자들 무엇 등때기까지 '주랑한' 모자 이렇게 씨는 거 있었어. 그 모양으로 해서 할아버지들 썼었어.)

106038 @ 음. 거 뭐렌 불르는 일름은 몰르고?(음. 거 뭐라고 부르는 이름은 모르고?)

106038 #2 몰라.(몰라.)

106040 @ 모르고예. 경허고 여기는 고내리는 양태 같은 거 안 헤낫어예?(모르고요. 그리고 여기는 고내리는 양태 같은 거 안 했었어요?)

106040 #2 양태 안 헤낫어. 양태 안 헌 디가 고내주게. 양태는 일로 동쪽으로 가믄 군넹이[204]. 이젠 군넹이엔 안 허영, 동귀[205].(양태 안 했었어. 양태 안 한 데가 고내지. 양태는 일로 동쪽으로 가면 '군넹이'. 이젠 '군넹이'라고 안 해, 동귀.)

106040 @ 음.(음.)

106040 #2 그 ᄉᆞ방더레 만이 헷주게. 웨도[206].(그 사방으로 많이 했지. 외도.)

106040 @ 아, 웨도, 동귀.(아, 외도, 동귀.)

106040 #2 하귀, 동귀.(하귀, 동귀.)

106040 @ 헤낫구나. 고내는 그런 거 안 허고예?(했었구나. 고내는 그런 거 안 하고요?)

106040 #2 그거 모저 짜근에 허는 거 다 잇엇어.(그거 모자 짜서 하는 거 다 있었어.)

106040 @ 예.(예.)

106040 #2 양태 만들곡 허는 거.(양태 만들고 하는 거.)

106040 @ 예, 예. 고내는 그거 안 허고예?(예, 예. 고내는 그거 안 하고요?)

106040 #2 고낸 그거 안 허난. 거 허는 사름이 엇엇주게.(고낸 그거 안 했어. 거 하는 사람이 없었지.)

106040 @ 예.(예.)

106040 #2 그 제서헐 때 이렇게 써근에 허는 것도 그 동귀 사름덜은 헷어. 줄앗주게, 이렇게 헤영.(그 제사할 때 이렇게 써서 하는 것도 그 동귀 사람들은 했어.

203) '주랑하다'는 길게 늘어진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204) '군넹이'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의 동쪽 지역인 '동귀'의 옛 이름이다. 지금은 하귀1리에 해당한다.
205) '동귀'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의 동쪽 지역, 지금의 하귀1리를 말한다.
206) '웨도'는 제주시 행정 마을 중 하나인 외도동을 말한다.

결었지, 이렇게 해서.)
106040 @ 음. 기구나예.(음. 그렇군요.)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밥 종류에는 무신 밥, 무신 밥이 잇수과, 밥?(밥 종류에는 무슨 밥, 무슨 밥이 있습니까, 밥?)
107001 #1 보리밥.(보리밥.)
107001 @ 으, 보리밥.(으, 보리밥.)
107001 #1 조팝.(조밥.)
107001 @ 조팝.(조밥.)
107001 #1 쏠밥.(쌀밥.)
107001 @ 쏠밥. 쏠밥이 곤밥?(쌀밥. 쌀밥이 흰밥?)
107001 #1 곤밥. 첨, 곤밥. 보리밥, 조팝, 곤밥.(흰밥. 참, 흰밥. 보리밥, 조밥, 흰밥.)
107001 @ 으, 보리밥, 조팝, 곤밥. 또 다른 거. 서껑, 서껑 허는 거?(으, 보리밥, 조밥, 흰밥. 또 다른 거. 섞어서, 섞어서 하는 거?)
107001 #1 서껑 허는 건 뭐, 보리쏠에 풋도 서끄곡, 콩도 서끄곡.(섞어서 하는 건 뭐, 보리쌀에 팥도 섞고, 콩도 섞고.)
107001 @ 음. 그거 말고.(음. 그거 말고.)
107001 #1 또 범벅, 범벅 밥. 범벅이엔 헤근에 어려운 때 먹어난 거. 저 좁썰에 감저 서껑 먹어난 거. 그건 범벅.(또 범벅, 범벅 밥. 범벅이라고 해서 어려운 때 먹었던 거. 저 좁쌀에 고구마 섞어서 먹었던 거. 그건 범벅.)
107002 @ 게민 쏠 종류에는 무신 거 잇수과?(그럼 쌀 종류에는 무슨 거 있습니까?)
107002 #1 쏠?(쌀?)
107002 @ 으.(으.)
107002 #1 쏠 종류에는 무신 거, 보리썰, 좁썰, 곤썰.(쌀 종류에는 무슨 거, 보리쌀, 좁쌀, 흰쌀.)
107002 @ 으.(으.)
107002 #1 곤썰, 곤썰. 대목 그거.(흰쌀, 흰쌀. 주로 그거.)
107002 @ 대목 그거라예?(주로 그거지요?)
107002 #1 으, 그거. 우리 밥 헹 먹는 쏠은.(으, 그거. 우리 밥 해서 먹는 쌀은.)
107002 @ 게민 옛날에는 거의 보리밥이 만앗잖아예?(그럼 옛날에는 거의 보리밥이 많았잖아요?)

107002 #1 보리밥이 만헤.(보리밥이 많아.)

107002 @ 예.(예.)

107002 #1 질 만이 먹는 건 보리밥이주게.(젤 많이 먹는 건 보리밥이지.)

107003 @ 으, 이제 보리밥 헹 먹젠 허민 어떵 헤야 헐 것과, 한 번 쭉 ᄀᆞᆯ아 줍서. 보리쏠 장만허는 거서부터.(으, 이제 보리밥 해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겁니까, 한 번 쭉 말해 주세요. 보리쌀 장만하는 거에서부터.)

107003 #1 장만허는 거?(장만하는 거?)

107003 @ 으, 보리밥 헤 먹젠 허민 준비를 헤야 뒐 거 아니예?(으, 보리밥 해 먹으려고 하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요?)

107003 #1 준비는. 이건 뭐 이건 ᄊᆞᆯ로 장만헌 때부터 ᄀᆞᆫ젠 허믄.(준비는. 이건 뭐 이건 쌀로 장만할 때부터 말하려고 하면.)

107003 @ ᄊᆞᆯ로 장만헌 때부터 ᄀᆞᆯ아 줍서.(쌀로 장만한 때부터 말해 주세요.)

107003 #1 ᄊᆞᆯ로 장만헌 때부터 ᄀᆞᆫ젠 허믄, 이제 ᄉᆞᆯ보리를.(쌀로 장만한 때부터 말하려고 하면, 이제 쌀보리를.)

107003 @ ᄉᆞᆯ보리.(쌀보리.)

107003 #1 남방에 강 지영.(남방아 가서 져서.)

107003 @ 음.(음.)

107003 #1 거 거죽 벳경, 초불.(거 거죽 벗겨서, 초벌.)

107003 @ 남방에에 강 지는 거 아니면?(남방아에 가서 지는 거 아니면?)

107003 #1 아니, 저 ᄆᆞᆯ방에, ᄆᆞᆯ방에.(아니, 저 연자매, 연자매.)

107003 @ 예.(예.)

107003 #1 ᄆᆞᆯ방에 가근에 물 버무리고 헤영, 물 버물영, 거 ᄆᆞ른 채 허민 잘 안 벗어지니까.(연자매 가서 물 버무리고 해서, 물 버무리고 해서, 물 버무려서. 거 마른 채 하면 잘 안 벗어지니까.)

107003 @ 으.(으.)

107003 #1 물을 그디 촉촉허게 버물영, 경헨 ᄆᆞᆯ방에에서 이젠 거죽 다 벳경. 벳겨질 정도로 이젠 지영, 이젠 오랑 ᄆᆞᆯ려 가는 냥 ᄆᆞᆯ라 가는냥 그걸 불려. ᄆᆞᆯ르믄. 채를 ᄯᅳ로 떼여내여.(물을 거기 촉촉하게 버무려서, 그래서 연자매에서 이젠 거죽 다 벗겨. 벗겨질 정도로 이젠 져서, 이젠 와서 말려 가는 양 그걸 불려. 마르면. 채를 따로 떼어내.)

107003 @ 아, ᄆᆞᆯ려야?(아, 말려야?)

107003 #1 예, 예, ᄆᆞᆯ려야 그것이 나가, 그대로 안 나가.(예 예, 말려야 그것이 나가, 그대로 안 나가.)

107003 @ ᄆᆞᆯ려야 그게 나갈 거난.(말려야 그게 나갈 거니까.)

107003 #1 으, ᄆᆞᆯ령 나갈 거.(으, 말려서 나갈 거.)

107003 @ 음.(음.)

107003 #1 멍석에 널엉 ᄆᆞᆯ류왕.(멍석에 널어서 말려서.)

107003 @ 예, 예.(예, 예.)

107003 #1 물류왕 이젠 불렁.(말려서 이젠 불려.)

107003 @ 불렁.(불려서.)

107003 #1 이젠 쏠 만들앙, 이젠 ᄀᆞ레에서 또 골아. 그걸 반착 갈라야 반, 반으로 갈라야, 갈라야 밥을 빨리 뒈고. 밥도 먹기 좋고.(이젠 쌀 만들어서, 이젠 맷돌에서 또 갈아. 그걸 반쪽 갈라야 반, 반으로 갈라야, 갈라야 밥을 빨리 되고. 밥도 먹기 좋고.)

107003 @ 게난 물방에에서 골앙 온 건 온착?(그러니까 연자매에서 갈아서 온 건 통?)

107003 #1 물방에에서 지여 온 거를 ᄀᆞ레에서 골앙.(연자매에서 져서 온 거를 맷돌에서 갈아서.)

107003 @ 물방에에서 지영 오면 온착 보리썰.(연자매에서 져서 오면 통 보리쌀.)

107003 #1 으, 온착 보리. 겁죽만 벳겨져.(으, 통보리. 거죽만 벗겨져.)

107003 @ 겁죽만 벳겨진 거라.(거죽만 벗겨진 거야.)

107003 #1 으, 으, 통보리. 그것ᄀᆞ란 통보리.(으, 으, 통보리. 그것보고 통보리.)

107003 @ 기민 이거를 다시 골아?(그럼 이거를 다시 갈아?)

107003 #1 ᄀᆞ레에 골아.(맷돌에 갈아.)

107003 @ 거민 이젠?(그럼 이젠?)

107003 #1 겐 ᄀᆞ레에 골앙. 이젠 그거 이젠 저 홁은 쏠, 줌쏠[207]. 줌쏠, 홁은 쏠이 잇주게. 게민 체로 쳥 대거름체, 대거름체엔 헌 체로 쳥, 홁은 걸로 밥 헤 먹고 줌진 건 또 저 줌쏠밥[208]이엔 허영 뚜로 헤영 먹고.(그래서 맷돌에 갈아서. 이젠 그거 이젠 저 굵은 쌀, '줌쏠'. '줌쏠', 굵은 쌀이 있지. 그럼 체로 쳐서 '대거름체', '대거름체'라고 한 체로 쳐서, 굵은 걸로 밥 해 먹고 잔 건 또 저 '줌쏠밥'이라고 해서 따로 해서 먹고.)

107003 @ 음, 큰 거로?(음, 큰 거로?)

107003 #1 큰 건 주로 밥.(큰 건 주로 밥.)

107003 @ 게니까 밥헤 먹젠 허민 이제, 보리밥 짓젠 허민 보리썰 씻엉?(그러니까 밥해 먹으려고 하면 이제, 보리밥 지으려고 하면 보리쌀 씻어서?)

107003 #1 씻엉. 씻엉 이젠 물 놩, 그 또 좁썰도 서꺼.(씻어서. 씻어서 이젠 물 놔서, 그 또 좁쌀도 섞어서.)

107003 @ 아.(아.)

107003 #1 보리썰에. 좁썰, 보리썰만도 헹 먹주만은.(보리쌀에. 좁쌀, 보리쌀만도 해서 먹지만.)

107003 @ 예.(예.)

---

207) '줌쏠'은 잘게 간 보리쌀 등을 말한다.

208) '줌쏠밥'은 잘게 간 보리쌀로 지은 밥을 말한다.

107003 #1 보리썰 영 놔 가지고 물이 함 직허믄 좁썰, 좁썰은 금방 익으니까, 익으난 좁썰 ᄒᆞ꼼 서껑 먹으믄 맛이 좋아.(보리쌀 이렇게 놔 가지고 물이 많을 거 같으면 좁쌀, 좁쌀은 금방 익으니까, 익으니까 좁쌀 조금 섞어서 먹으면 맛이 좋아.)

107003 @ 보리썰은 솖아난 밥허는 건 아니고?(보리쌀은 삶았던 밥하는 건 아니고?)

107003 #1 그대로.(그대로.)

107003 @ 그대로.(그대로.)

107003 #1 물만 하영 놓민 그자 그대로 익어 가는 냥 밥이 뒈여.(물만 많이 놓으면 그저 그대로 익어 가는 양 밥이 돼.)

107003 @ 아. 막 오래 솖앙.(아. 아주 오래 삶아서.)

107003 #1 오래 솖아.(오래 삶아.)

107003 @ 게민 좁썰은 보리 다 익어 가민?(그럼 좁쌀은 보리 다 익어 가면?)

107003 #1 으, 그자 반쯤 익어 가면은 물이 함직 허믄 좁썰 하영 놓고 물이 족음직 허면은 좁썰 족게 놓고.(으, 그저 반쯤 익어 가면 물이 많을 것 같으면 좁쌀 많이 넣고 물이 적을 거 같으면 좁쌀 적게 넣고.)

107003 @ 아, 물 하면은 좁썰 하영 놓고?(아, 물 많으면 좁쌀 많이 넣고?)

107003 #1 예, 예. 물에 맞촹.(예, 예. 물에 맞춰서.)

107004 @ 물에 맞촹. 반지기밥[209] 알아지쿠과, 반지기밥?(물에 맞춰서. '반지기밥' 알겠습니까, '반지기밥'?)

107004 #1 반지기엔 헌 거는 보리썰에 곤썰게, 좁썰에 곤썰이나. 서끄는 것이 반지기.(반지기라고 하는 거는 보리쌀에 흰쌀, 좁쌀에 흰쌀이나. 섞는 것이

107004 @ 서끄는 것이 반지기라예. 반반 논 거.(섞는 것이 반지기지요. 반반 넣은 거.)

107004 #1 반반 논 것이 반지기.(반반 넣은 것이 반지기.)

107004 @ 기민 아까 보리썰에 좁썰 서끄는 거는?(그럼 아까 보리쌀에 좁쌀 섞는 거는?)

107004 #1 그냥 우리 보통 먹는 거난 그자 그대로 서숙밥이엔 허주게게. 좁썰에 보리썰은. 경허고 보리썰에 곤썰이나 좁썰에 곤썰이나 서끈 건 반지기.(그냥 우리 보통 먹는 거니까 그저 그대로 서속밥이라고 하지. 좁쌀에 보리쌀은. 그렇고 보리쌀에 흰쌀이나 좁쌀에 흰쌀이나 섞은 건 반지기.)

107004 @ 보리썰에 곤썰 서끄젠 허면 쏠 ᄀᆞ치 놩 허면?(보리쌀에 흰쌀 섞으려고 하면 쌀 같이 놔서 하면?)

107004 #1 안 뒈.(안 돼.)

107004 @ 그럼?(그럼?)

107004 #1 보리썰 막 익어 가믄. 곤썰도 좁썰만이빼낀 물 안 들어. 그, 그 시간

209) '반지기밥'은 보리쌀과 쌀을 반씩 섞어서 지은 밥으로, 보통 다른 두 종류의 쌀을 섞어 지은 밥을 말한다.

베낀 안 걸려, 곤썰도.(보리쌀 마구 익어 가면. 흰쌀도 좁쌀만큼밖에 물 안 들어. 그, 그 시간밖엔 안 걸려, 흰쌀도.)

107004 @ 아, 곤썰도?(아, 흰쌀도?)

107004 #1 으. ᄀᆞ찌 놩은 안 뒈고.(으. 같이 놔서는 안 되고.)

107004 @ ᄀᆞ찌 놩은 안 뒈여.(같이 놔서는 안 돼.)

107004 #1 으, 안 뒈여, 절대로. 보리썰 익히는 게 오래여.(으, 안 돼, 절대로. 보리쌀 익히는 게 오래.)

107004 @ 아, 보리썰 익히는 게.(아, 보리쌀 익히는 게.)

107004 #1 으, 보리썰 익히는 건 막 오래주게.(으, 보리쌀 익히는 건 아주 오래지.)

107004 @ 게난 폴 폴 폴 폴 허게 익어 가민 그때야 곤썰 놓는 거예?(그러니까 폴 폴 폴 폴 하게 익어 가면 그때야 흰쌀 넣는 거요?)

107004 #1 으, 으.(으, 으.)

107005 @ 이제 곤밥 ᄀᆞᆯ아 줍서, 곤밥. 곤밥은 언제 만들앙 먹어난 것과?(이제 흰밥 말해 주세요, 흰밥. 흰밥은 언제 만들어서 먹었던 겁니까?)

107005 #1 곤밥은 뭐, 곤썰은 아무 때나 나오는 거난게. 장만은, 장만허는 시기가 잇주기만은. 우리가 먹젠 허면 미릇에 받아당 놔뒁당.(흰밥은 뭐, 흰쌀은 아무 때나 나오는 거니까. 장만은, 장만하는 시기가 있지만. 우리가 먹으려고 하면 미리 받아다가 놔뒀다가.)

107005 @ 으.(으.)

107005 #1 그 필요헌 때 똑 먹을 때 뒈영. 식게 때나 멩질 때 생일 때.(그 필요한 때 꼭 먹을 때 돼서. 제사 때나 명절 때 생일 때.)

107005 @ 아, 생일 때도 곤밥 먹어졋수과?(아, 생일 때도 흰밥 먹을 수 있었습니까?)

107005 #1 생일 때도 식구덜 다 먹진 못허고.(생일 때도 식구들 다 먹지는 못하고.)

107005 @ 예.(예.)

107005 #1 그 주인 양반이믄 주인 양반, 혼 뒈 ᄃᆞ로 받아당 놔뒁당.(그 주인 양반이면 주인 양반, 한 되 따로 받아다가 놔뒀다가.)

107005 @ 예.(예.)

107005 #1 으, 경헷다근에 이제 생일 돌아와 가민 특별히.(으, 그랬다가 이제 생일 돌아와 가면 특별히.)

107005 @ 만약에 하르부지 생일날 영 곤밥 지어 주젠 허민 아이덜 거는 그냥 보리밥 헐 거 아니?(만약에 할아버지 생일날 이렇게 흰밥 지어 주려고 하면 아이들 거는 그냥 보리밥 할 거 아니?)

107005 #1 으, 그자 부족허민 부족헌 대로 쪼끔씩 갈라 먹곡 또 보리밥은 ᄃᆞ로 헷다근에 이제 또 식량이 차지 안허면 보리밥으로 떼곡게.(으, 그저 부족하면 부족

한 대로 조금씩 나눠서 먹고 또 보리밥은 따로 했다가 이제 또 식량이 차지 않으면 보리밥으로 때고.)

107005 @ 기민 밥을 두 번 헤야 뭴 거?(그럼 밥을 두 번 해야 될 거?)

107005 #1 두 번 헤야주게.(두 번 해야지.)

107005 @ 아이고.(아이고.)

107005 #1 양 솟, 두 솟디서 심앙.(양 솥, 두 솥에서 때서.)

107005 @ 두 솟디서?(두 솥에서?)

107005 #1 으, 심앙 헤 둬사주게. 경 안허믄 시장허믄 안 뭴 거난. 그거 아이덜 양 차게 헤 주젠 허민 곤썰이 하영 드난 곤썰은 딱 혼 뒈민 혼 뒈. 뒈싱 혼 뒈민 뒈싱 혼 뒈베끼 못 받아오주게게.(으, 때서 해 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하면 안 될 거니까. 그거 아이들 양 차게 해 주려고 하면 흰쌀이 많이 드니까 흰쌀은 딱 한 되면 한 되. 되승 한 되면 되승 한 되밖에 못 받아오지.)

107005 @ 아.(아.)

107005 #1 엿날엔.(옛날엔.)

107005 @ 엿날엔.(옛날엔.)

107005 #1 만이 받아 올 수가 엇어.(많이 받아 올 수가 없어.)

107005 @ 경헨 그것만 헤 줫던 거라예. 곤밥 잘 못 먹엇던 거잖아예?(그래서 그것만 해 줬던 거지요. 흰밥 잘 못 먹었던 거잖아요?)

107005 #1 식게 때도 숟구락으로 갈랑.(제사 때도 숟가락으로 나눠서.)

107005 @ 식게 때 숟구락으로 갈랑?(제사 때 숟가락으로 나눠서?)

107005 #1 으, 으. (으, 으.)

107005 @ 아니, 식게 때 이런 사발에?(아니, 제사 때 이런 사발에?)

107005 #1 아니, 사발에 놓주기만은 아이덜은 얼마 하영 못 먹고 어른덜도 혼 반 사발도 안 뒈지게. 식게 때도. 식게 때엔 헹 엿날에 경 하영 허진 못허연.(아니, 사발에 놓지만 아이들은 얼마 많이 못 먹고 어른들도 한 반 사발도 안 되지. 제사 때도. 제사 때엔 해서 옛날에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해.)

107005 @ 혼 사발 밥 거령 주지 안헷수과?(한 사발 밥 떠서 주지 않습니까?)

107005 #1 아이고, 홈치 혼 사발 어떵헹 혼 사발 거령.(아이고, 한꺼번에 한 사발 어떡해서 한 사발 떠서.)

107005 @ 게민?(그럼?)

107005 #1 멧밥이나 올리는 거난 혼 사발 거리주게. 그냥 허는 건 반 사발씩.(메나 올리는 거니까 한 사발 뜨지. 그냥 하는 건 반 사발씩.)

107005 @ 아, 반 사발?(아, 반 사발?)

107005 #1 으, 반 사발.(으, 반 사발.)

107005 @ 게민 아래는 보리밥 놓고 우이만 곤밥 더끄는 거?(그럼 아래는 보리밥 넣고 위에만 흰밥 덮는 거?)

107005 #1 경허는, 만약에 곤밥이 부족험 직허민 아래 보리밥도 놓주만은 그 쪼

끔씩 쪼끔씩 거렁 먹어근에 식량 차게 먹지 못허여, 곤밥은.(그러는, 만약에 흰밥에 부족할 것 같으면 아래 보리밥도 넣지만 그 조금씩 조금씩 떠서 먹어서 식량 차게 먹지 못해, 흰밥은.)

107005 @ 이제 곤밥 짓젠 허면은 쏠 씻엉 밥 언치는 건 마찬가지고.(이제 흰밥 지으려고 하면 쌀 씻어서 밥 얹는 건 마찬가지고.)

107005 #1 마찬가지. 이제나 그제나 마찬가지.(마찬가지. 이제나 그제나 마찬가지.)

107006 @ 조팝은 어떵 만듭니까? 만들어 봅서?(조밥은 어떻게 만듭니까? 만들어 보세요?)

107006 #1 조팝은, 조팝은 물 꿰영. 물이 삭삭 허면은 물 꿰영 허면 좁쌀 놔. 좁쌀.(조밥은, 조밥은 물 끓어서. 물이 팔팔 하면 물 끓어서 하면 좁쌀 넣어. 좁쌀.)

107006 @ 아, 조팝은 경 만드는 것과?(아, 조밥은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107006 #1 예, 물 꿰영 놔야.(예, 물 끓여서 놔야.)

107006 @ 물 꿰영.(물 끓엉.)

107006 #1 홈치 놔 불민 안 뒈여.(한꺼번에 놔 버리면 안 돼.)

107006 @ 홈치 놔 불민 안 뒈여?(한꺼번에 놔 버리면 안 돼?)

107006 #1 으, 물 삭삭 꿰 가민 어느 정도 좁썰이 흔 뒈면은 물이 얼마 드는 거 짐작혜영 놔근에.(으, 물 팔팔 끓어 가면 어느 정도 좁쌀이 한 되면 물이 얼마 드는 거 짐작해서 놔서.)

107006 @ 음.(음.)

107006 #1 경허믄 고실락허게 잘 뒈여.(그러면 고슬고슬하게 잘 돼.)

107006 @ 아, 기과?(아, 그렇습니까?)

107006 #1 으.(으.)

107007 @ 픗밥?(팥밥?)

107007 #1 픗밥?(팥밥?)

107007 @ 으.(으.)

107007 #1 픗밥은 픗으로 밥은 안 허고 픗죽.(팥밥은 팥으로 밥은 안 하고 팥죽.)

107007 @ 픗죽. 아니 픗 영 밥에?(팥죽. 아니 팥 이렇게 밥에?)

107007 #1 픗은 보리썰에 서껑.(팥은 보리쌀에 섞어서.)

107007 @ 서껑.(섞어서.)

107007 #1 보리썰에 그냥 서꺼도 뒈여, 픗은.(보리쌀에 그냥 섞어도 돼, 팥은.)

107007 @ 숢지 안헤?(삶지 않아?)

107007 #1 숢지 안헤도.(삶지 않아도.)

107007 @ 아, 뒙니까?(아, 됩니까?)

107007 #1 보리썰이 원체 오래니까.(보리쌀이 원체 오래니까.)

107007 @ 아.(아.)

107007 #1 보리썰이 오래 숢으니까 보리썰에 ᄀᆞ치 놔도 뒈여.(보리쌀이 오래 삶으니까 보리쌀에 같이 놔도 돼.)

107007 @ 아, ᄀᆞ치 놔도 뒈여.(아, 같이 놔도 돼.)

107007 #1 으, 으. 풋만 ᄯᅩ로 숢으지 안헤도 뒈여.(으, 으. 팥만 따로 삶지 않아도 돼.)

107008 @ 그리고 피밥도 먹어나수과?(그리고 피밥도 먹었었습니까?)

107008 #1 안 먹어 봔.(안 먹어 봤어.)

107008 @ 안 먹어 봔.(안 먹어 봤어.)

107008 #1 핀 갈아 보지도 안허고 먹어 보지도 안허고 우린.(핀 갈아 보지도 않고 먹어 보지도 않고 우린.)

107008 @ 아, 이 동네 피는 안 헤낫구나.(아, 이 동네 피는 안 했었구나.)

107008 #1 으. 우리 동네 피는 안 허여.(으. 우리 동네 피는 안 해.)

107009 @ 예. 감저밥 만들어 줍서, 감저밥.(예. 고구마밥 만들어 주세요, 고구마밥.)

107009 #1 감저밥?(고구마밥?)

107009 @ 으.(으.)

107009 #1 감저밥?(고구마밥?)

107009 @ 으.(으.)

107009 #1 감저밥은 좁썰에 감저, 보리썰에도 놓곡 좁썰에도 놓곡.(고구마밥은 좁쌀에 고구마, 보리쌀에도 넣고 좁쌀에도 넣고.)

107009 @ 게난 어떵 만들어?(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

107009 #1 만드는 건게 그냥 저 감저는 ᄀᆞ치 좁썰이영 ᄀᆞ치.(만드는 건 그냥 저 고구마는 같이 좁쌀이랑 같이.)

107009 @ 음.(음.)

107009 #1 아, 감저 문첨 놩 ᄒᆞ썰 익히당. 이제 좁썰 놩 숨아 가민 밥 뒈불주게.(아, 고구마 먼저 놔서 조금 익히다가. 이제 좁쌀 놔서 삶아 가면 밥 돼 버리지.)

107009 @ 감저 먼저 놩?(고구마 먼저 놔서?)

107009 #1 으.(으.)

107009 @ 감저를.(고구마를.)

107009 #1 썰어근에. 다 씻엉 겁죽 벳경 영 요만씩, 요만씩 썰엉 이젠 놩.(썰어서. 다 씻어서 거죽 벗겨서 이렇게 요만큼씩, 요만큼씩 썰어서 이젠 놔서.)

107009 @ 경 물에 놩 감저를 먼저 숢아?(그렇게 물에 놔서 고구마를 먼저 삶아?)

107009 #1 으, 숢당, 숢당.(으 삶다가, 삶다가.)

107009 @ 게민 영 찔러 봥 다 익으민?(그럼 이렇게 찔러 봐서 다 익으면?)

107009 #1 으, 익기 전에도 쪼끔, 익기 전에 놔야 좁썰도 ᄀᆞ치 익주게.(으, 익기 전에도 조금, 익기 전에 놔야 좁쌀도 같이 익지.)

107009 @ 아, 감저 다 익기 전에 놀 거예?(아, 고구마 다 익기 전에 놓을 거요?)

107009 #1 으.(으.)

107001 @ 그리고 저기 뭇 알아지쿠과, 뭇? 뭇이라고 물룻, 물룻?(그리고 저기 무릇 알겠습니까, 무릇? 무릇이라고 무릇, 무릇?)

107001 #1 물룻 알아지주게.(무릇 알지.)

107001 @ 그걸로도 밥헹 먹어낫수과?(그걸로도 밥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01 #1 난 안 헹 먹어 봔.(난 안 해서 먹어 봤어.)

107001 @ 안 헤 먹어 봔마씨?(안 해 먹어 봤어요?)

107010 #1 으, 다른 사름덜은 물룻에 페.(으, 다름 사람들은 무룻에 패.)

107012 @ 으.(으.)

107012 #1 페밥, 것ᄀᆞ라 페밥.(패밥, 것보고 패밥.)

107012 @ 패밥예?(패밥요?)

107012 #1 으, 페밥.(으, 패밥.)

107012 @ 물룻에 페밥 만들젠 허민 어떵 헤나신고?(무릇에 패밥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했었나요?)

107012 #1 물룻에 페밥은 허젠은 허믄 페를 메여당 그것을 깨껏이 씻엉.(무릇에 패밥은 하려고 하면 패를 매다가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107012 @ 으.(으.)

107012 #1 곱닥허게 씻어근에 이제 솖앙. 오래 솖아야 허여. 패는.(곱게 씻어서 이제 삶아서. 오래 삶아야 해. 패는.)

107012 @ 페를 오래 솖아야 허여.(패를 오래 삶아야 해.)

107012 #1 으, 으. 페도 오래 솖고, 물룻도 오래 솖고.(으, 으. 패도 오래 삶고, 무릇도 오래 삶고.)

107012 @ 으.(으.)

107012 #1 물룻도 완전 오래 솖아야 그냥, 그 물, 불 달게 말고 모롱허게 헤 둠서 오래 오래 솖아야 물룻도 솖아지곡.(무릇도 완전 오래 삶아야 그냥, 그 물, 불 닳게 약하게 해 두면서 오래 오래 삶아야 무릇도 삶아지고.)

107012 @ 으.(으.)

107012 #1 건데 우린 헨 먹어 보진 안헌디 물룻밥, 페밥 엿날덜 먹어난 사름덜은 먹어난.(그런데 우린 해서 먹어 보진 않았는데 무릇밥, 패밥 옛날들 먹었던 사람들은 먹었었어.)

107012 @ 게난 막 오래 솖아 가면 물, 페 솖아지잖아예?(그러니까 아주 오래 삶아 가면 물, 패 삶아지잖아요?)

107012 #1 으.(으.)

107012 @ 그 다음에 어떵헤?(그 다음에 어떡해?)

107012 #1 그 다음에 그 물룻도 ᄀᆞ치 솖아.(그 다음에 그 무릇도 같이 삶아.)

107012 @ 으.(으.)
107012 #1 경헤근에 이젠 쏠 ᄒᆞ꼼 놔근에게.(그래서 이젠 쌀 조금 놔서.)
107012 @ 겐 그거 건져냉 씻어놩?(그래서 그거 건져내서 씻어놔?)
107012 #1 아니 그냥 그냥. 그, 그대로 헴실 거라. 난 헤 보지 안 허연 먹어보지도 안허고 말만 들엇주기만은 그냥 허여야 그 쏠에 물 들어가고 쏠이 익어 가면은 밥이 뒈는 거.(아니 그냥 그냥. 그, 그대로 하고 있을 거야. 난 해 보지 않아서 먹어보지도 않고. 말만 들었지만 그냥 해도 그 쌀에 물 들어가고 쌀이 익어 가면은 밥이 되는 거.)
107012 @ 아, 밥이 뒈는 거라예?(아, 밥이 되는 거지요?)
107012 #1 으. 쏠 ᄒᆞ꼼 놔야 밥이 뒈주기게.(으. 쌀 조금 놔야 밥이 되지.)
107012 @ 으, 음.(으, 음.)
107012 #1 그거 저 아주 어려운 때에 이 쏠덜이 부족허니까 그건 조금 도움이 뒌, 경허영 먹어, 먹어난 셍이라.(그거 저 아주 어려운 때에 이 쌀들이 부족하니까 그건 조근 도움이 돼서, 그러해서 먹어, 먹었던 모양이야.
107012 @ 경헌 거라?(그러한 거지요?)
107012 #1 으, 음.(으, 음.)
107012 @ 게난 패밥도 안 먹어 봣수과?(그러니까 패밥도 안 먹어 봤습니까?)
107012 #1 안 먹어 봔.(안 먹어 봤어.)
107011 @ 톳밥은 어떵허과, 톳밥?(톳밥은 어떻습니까, 톳밥?)
107011 #1 톳밥도.(톳밥도.)
107011 @ 톨밥, 톨밥?(톳밥, 톳밥?)
107011 #1 톨이 톳.(‘톨’이 톳.)
107011 @ 으, 톳.(으, 톳.)
107011 #1 아이 먹어 봔.(안 먹어 봤어.)
107011 @ 것도 안 먹어 보고예?(것도 안 먹어 보고요?)
107011 #1 으.(으.)
107013 @ 게믄 밥은 이 정도 뒛고예, 밥헤시난 국 끌리쿠다, 국예. 국 종류에는 뭐가 잇수과?(그럼 밥은 이 정도 됐고요, 밥했으니까 국 끓이겠습니다, 국요. 국 종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107013 #1 국 종륜 뭐 놈삐국도 잇고 메역국도 잇고 배추국도 잇고 뭐 여러 가지 잇주기게.(국 종륜 뭐 무국도 있고 미역국도 있고 배추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107013 @ 으.(으.)
107013 #1 국덜은.(국들은.)
107013 @ 그런 거 넣는 거에 따라서예?(그런 거 넣는 거에 따라서요?)
107013 #1 콩ᄂᆞ물국도 잇고 뭐.(콩나물국도 있고 뭐.)
107013 @ 콩ᄂᆞ물국도 잇고.(콩나물국도 있고.)

107013 #1 국 종류에는 뭐 호박국도 잇고.(국 종류에는 뭐 호박국도 있고.)

107013 @ 으.(으.)

107013 #1 철에 뚜라 가지고 철에 뚜라.(철에 따라 가지고 철에 따라.)

107013 @ 자, ᄂᆞ물쿡을 끓이쿠다.(자, 나물국을 끓이겠습니다.)

107013 #1 ᄂᆞ물쿡.(나물국.)

107013 @ ᄂᆞ물쿡 끓이쿠다예?(나물국 끓이겠어요?)

107013 #1 으, ᄂᆞ물쿡.(으, 나물국.)

107014 @ ᄂᆞ물쿡 끓이젠 허민 어떵 헐 거? 이제 물 꿰우는 것부터 ᄀᆞᆯ아줍서.(나물국 끓이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거? 이제 물 끓이는 것부터 말해 주세요.)

107014 #1 ᄂᆞ물쿨 끓이젠 허민 물 꿰와근에, 이젠 뭐, 그 전인 뭐 경 다시 무신 멜치여 무시거여도 안 놔도 뒌장만 놓민 먹어졋주만은. 이젠 뒌장 놓고게, 메루치 놓고, 메루치 다시다나 메루치나 놓곡.(나물국 끓이려고 하면 물 끓여서, 이젠 뭐, 그 전엔 뭐 그렇게 다시 무슨 멸치며 무엇이며 안 놔도 된장만 넣으면 먹을 수 있어지만. 이젠 된장 넣고, 멸치 넣고, 멸치 다시다나 멸치나 넣고.)

107014 @ 이제 말고 옛날에 끓여 먹어난 거.(이제 말고 옛날에 끓여 먹었던 거.)

107014 #1 옛날에 그냥 뒌장허고 ᄂᆞ물만 놩 끓영게.(옛날에 그냥 된장하고 나물만 놔서 끓여서.)

107014 @ 게민, 물 끓어 가민?(그럼, 물 끓어 가면?)

107014 #1 으, 물 와상와상 끓어 가민 ᄂᆞ물 놔. 뒌장 놓고. ᄂᆞ물 놩 익어 가민 뒌장 놓고.(으, 물 바글바글 끓어 가면 나물 넣어. 된장 넣고. 나물 넣고 익어 가면 된장 넣고.)

107014 @ 아, 뒌장을 나중에 놓는 거?(아, 된장을 나중에 넣는 거?)

107014 #1 내중엘 놓나, 그건 이녁 ᄆᆞ음게.(나중엘 넣으나, 그건 자기 마음.)

107014 @ 이녁 ᄆᆞ음?(자기 마음?)

107014 #1 예, 예.(예, 예.)

107014 @ 하하하.(하하하.)

107014 #1 뭐 같이 놔도 뒈고.(뭐 같이 놔도 되고.)

107015 @ 음. 경헷던 거. 이제는 콩ᄂᆞ물국 끓여 줍서, 콩ᄂᆞ물국.(음. 그랬던 거. 이제는 콩나물국 끓여 주세요, 콩나물국.)

107015 #1 콩ᄂᆞ물국도게 콩ᄂᆞ물은 그냥 물 만이 놓지 말앙, 만이 놓민 막 콩ᄂᆞ물은 부꺼 불어 물이.(콩나물국도 콩나물은 그냥 물 많이 넣지 말고, 많이 넣으면 마구 콩나물은 끓어 넘쳐 버려, 물이.)

107015 @ 음.(음.)

107015 #1 솖젠 허믄. 부꺼 부난 조그만이 놩 솖아 놩.(삶으려고 하면. 끓어 넘쳐 버리니까 조그만 넣어서 삶아 놔서.)

107015 @ 으.(으.)

107015 #1 겐 익어 가는 냥 물 ᄒᆞ꼼 더 놩, 만이 놩.(그래서 익어 가는 양 물 조금 더 놔서, 많이 놔서.)

107015 @ 음.(음.)

107015 #1 경헨 콩ᄂᆞ물엔 장물.(그래서 콩나물엔 간장.)

107015 @ 아, 뒌장 아니고?(아, 된장 아니고?)

107015 #1 뒌장 아니 장물.(된장 아니 간장.)

107015 @ 장물 놔?(간장 넣어?)

107015 #1 으, 음. 콩ᄂᆞ물엔 장물.(으, 음. 콩나물엔 간장.)

107015 @ 장물 놔예?(간장 넣어요?)

107015 #1 아, 뒌장도 쪼금 놔도 뒈주만은 주로 장물 서꺼야주.(아, 된장도 조금 넣어도 되지만 주로 간장 섞어야지.)

107015 @ 게민 아까 물룻밥 안 헤나신디 국도 물룻국 안 헤난?(그럼 아까 무릇밥 안 했었는데 국도 무릇국 안 했었어?)

107015 #1 안 헤, 안 헤.(안 해, 안 해.)

107015 @ 안 헤난.(안 했었어.)

107015 #1 물룻도 아무것도 국도 난 안 먹어 봔.(무릇도 아무것도 국도 난 안 먹어 봤어.)

107015 @ 음.(음.)

107015 #1 허기는 허영 먹는 사름덜이, 먹어난 사름덜이 실 거라.(하기는 해서 먹는 사름들이, 먹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야.)

107016 @ 게민, 물룻 그거 말고 무우국예, 무우국. 무수로 만든 국?(그럼, 무릇 그것 말고 뭇국요, 뭇국. 무로 만든 국?)

107016 #1 으, 으. 저, 놈삐로 허는 거.(으, 으. 저 무로 하는 거.)

107016 @ 놈삐국.(무국.)

107016 #1 어. 그것도 물 꿰와근에 좀질이 썰엉 놔뒀다근에 물 꿰가민 놔근에, 그것도 뒌장 놩 끌리고.(어. 그것도 물 끓여서 가늘게 썰어서 놔뒀다가 물 끓어 가면 넣어서, 그것도 된장 넣어서 끓이고.)

107016 @ 뒌장 놩 끓이는 거?(된장 넣어서 끓이는 거?)

107016 #1 으. 뒌장 놩. 경 안 허믄 고기 놩 끓일 때는 장물 놓곡.(으. 된장 넣어서. 그렇게 안 하면 고기 놔서 끓일 때는 장물 넣고.)

107010 @ 아까 밥헐 때 물룻밥 말고 그냥 무수로도 밥헹 먹어낫수과?(아까 밥할 때 무릇밥 말고 그냥 무로도 밥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10 #1 으, 으. 경도 헹 먹어 봐도. 나도 그것도 안 헹 먹어 봔. 무수로도 놩, 무수도 서껑 먹어낫주게.(으, 으. 그렇게도 해서 먹어 봐도. 나도 그것도 안 해서 먹어 봤어. 무로도 넣어서, 무도 섞어서 먹었었지.)

107017 @ 아. 콩국은 어떵 끌립니까? 콩국?(아. 콩국은 어떻게 끓입니까?)

107017 #1 콩국?(콩국?)

107017 @ 예?(예?)

107017 #1 콩국은 그냥 물 놔근에 저 ᄒᆞ꼼 영 물이 궤여 가면은, 물이 불 슴앙 궤여 가면은 이제 숭키 ᄂᆞ물이나.(콩국은 그냥 물 놔서 저 조금 이렇게 물이 끓어 가면, 물이 불 때서 끓어 가면 이제 푸성귀 나물이나.)

107017 @ 음.(음.)

107017 #1 경 안 허민 놈삐나.(그렇게 안 하면 무나.)

107017 @ 음.(음.)

107017 #1 경헌 놔근에 이제 솖당 콩ᄀᆞ룰 영. 건 콩ᄀᆞ룰 놓는 거는 그 사름 이녁 저 무시거 배운 지썩. 배우니 지썩으로.(그렇게 놔서 이제 삶다가 콩가루를 이렇게. 건 콩가루를 넣는 거는 그 사람 자기 저 무엇 배운 제 만씩. 배운 제 만씩.)

107017 @ 으.(으.)

107017 #1 ᄆᆞ른 채 허끄는 사름도 잇고 우에, 또 물그릇에 영 허믄 낭푼이에 미지근헌 물에 그 콩ᄀᆞ루를 카근에 젓어근에 막 범벅거치 ᄒᆞ꼼 물랑허게 허영 우터러 솔허게 놓면은 그 콩쿡이 틀막 틀막 틀막[210] 뒈주게.(마른 채 섞는 사람도 있고 위에, 또 물그릇에 이렇게 하면 양푼이에 미지근한 물에 그 콩가루를 타서 저어서 마구 범벅처럼 조금 말랑하게 해서 위로 살살 넣으면 그 콩국이 '틀막 틀막 틀막' 되지.)

107017 @ 아.(아.)

107017 #1 경헨, 경헨 이제 불 약허게 헤근에 영 헤가믄 덩어리짓어. 경허믄 우터레 조금 소금은 놓나 경 안허믄 장물을 놓나 ᄒᆞ꼼 헤영 ᄀᆞᆫ 맞췅.(그래서, 그래서 이제 불 약하게 해서 이렇게 해 가면 덩어리져. 그럼 위로 조금 소금은 넣거나 그렇지 않으면 간장을 넣거나 조금 해서 간 맞춰서.)

107017 @ ᄀᆞᆫ 맞췅 먹는 거.(간 맞춰서 먹는 거.)

107017 #1 으, ᄀᆞᆫ 맞췅.(으, 간 맞춰서.)

107017 @ 아. 어무닌 풀어 놩 헷수과, 사발에?(아. 어머닌 풀어 놔서 했습니까, 사발에?)

107017 #1 으, 난 풀어 놩, ᄀᆞ룰 풀어 놩. 그냥 ᄂᆞ물이여, ᄂᆞ물 놔근에 ᄒᆞ꼼 발랑 발랑[211] 익어 가믄 그 우터레 놓믄 경헤근에 우린 그냥 경헨 끌령 먹언.(으, 난 풀어 놔서, 가루를 풀어 놔서, 그냥 나물이며, 나물 놔서 조금 '발랑 발랑' 익어 가면 그 위로 넣으면 그래서 우린 그냥 그렇게 끓여서 먹었어.)

107018 @ 이제랑 호박입국 끌려 주십서.(이제는 호박잎국 끓여 주세요.)

107018 #1 호박입은, 호박입도 물 놔근에 이제 궤여 가믄 호박입이 막, 호박입은이 손으로 영 영 무지려, 무지려.(호박잎은, 호박잎도 물 넣어서 이제 끓어 가면 호박잎이 마구, 호박잎은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무질러, 무질러.)

107018 @ 호박입 영 벗기지 안혜?(호박잎 이렇게 벗기지 않아?)

---

210) '틀막 틀막 틀막'은 된 국물이 끓는 것을 나타낸 말이다.

211) '발랑 발랑'은 점성이 있는 액체나 가루 따위가 한 덩어리가 되면서 굳어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7018 #1 벳겨, 첨.(벗겨, 첨.)
107018 @ 벳겨.(벗겨.)
107018 #1 그 뎅구리 벳경.(그 줄거리 벗겨서.)
107018 @ 예.(예.)
107018 #1 벳경 시쳥 이젠 칼로 써는 것보단 손으로 영 영 무지르멍.(벗겨서 씻어서 이젠 칼로 써는 것보단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무지르면서.)
107018 @ 무지렁.(무질러서.)
107018 #1 허여근에 이젠 꼭꼭 허게 이 그릇더레 놩, 냄비레 놩, 불 숨는 냄비레, 물 논 냄비레 놩.(해서 이젠 꼭꼭 하게 이 그릇에 넣어서, 냄비에 놔서, 불 때는 냄비에 물 넣은 냄비에 넣어서.)
107018 @ 예.(예.)
107018 #1 경헤근에 그냥 솖당 호박입이 조금 익어가는 거 닮으면은 밀ᄀᆞ룰.(그래서 그냥 삶다가 호박잎이 조금 익어 가는 거 같으면 밀가루.)
107018 @ 예.(예.)
107018 #1 그거 놓민 더 문작허영 좋아.(그거 넣으면 더 물러서 좋아.)
107018 @ 아.(아.)
107018 #1 밀ᄀᆞ룰 헤영 범벅거치 영 카근에 헷당 그냥 영 비우나, 경 안허면 쪼금, 쪼끔 뒈게 허여근에 숟구락으로 쏙 쏙 쏙 쏙 거려 놓면은 더 맛이 잇어.(밀가루를 해서 범벅같이 이렇게 타서 했다가 그냥 이렇게 붓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금, 조금 되게 해서 숟가락으로 쏙 쏙 쏙 쏙 떠 넣으면 더 맛이 있어.)
107018 @ ᄌᆞ베기처럼?(수제비처럼?)
107018 #1 ᄌᆞ베기처럼 헤도 ᄒᆞ꼼 물랑허게 헤영 ᄒᆞ꼼 졸게시리 헤영.(수제비처럼 해도 조금 무르게 해서 조금 작게끔 해서.)
107018 @ 아.(아.)
107018 #1 겡도 헹 끌리고. 겐 맛이 좋아.(그렇게도 해서 끓이고. 그래서 맛이 좋아.)
107018 @ 아.(아.)
107018 #1 요새 우리 노인당에서 매날 먹엇주게.(요새 우리 노인당에서 매날 먹었지.)
107018 @ 호박입국?(호박잎국?)
107018 #1 호박입국. 으, 으.(호박잎국. 으, 으.)
107018 @ 밀ᄀᆞ룰 풀어 놩예.(밀가룰 풀어 놔서요.)
107018 #1 으, 밀ᄀᆞ룰 풀어 놔야, 무신 ᄀᆞ를 놔야. 경 안허민 물컹헤영 안 뒈여. 맛이 엇어.(으, 밀가룰 풀어 놔야, 무슨 가룰 놔야. 그렇지 않으면 물컹해서 안 돼. 맛이 없어.)
107018 @ ᄆᆞ물ᄀᆞ루도 괜찬우과?(메밀가루도 괜찮습니까?)
107018 #1 ᄆᆞ물ᄀᆞ룰덜은 잘 놓지 안허주만은. ᄆᆞ물ᄀᆞ룰이 아멩헤도 비싸고 경

쉬웁지 안 헤여, 이디는.(메밀가루들은 잘 넣지 않지만. 메밀가루가 아무래도 비싸고 그렇게 쉽지 않아, 여기는.)

107018 @ 아.(아.)

107018 #1 으, 여긴 아멩헤도.(으, 여긴 아무래도.)

107018 @ 여기는 ᄆᆞ물 잘?(여기는 메밀 잘?)

107018 #1 안 갈아.(안 갈아.)

107018 @ 안 가는구나?(안 가는구나?)

107018 #1 으, 뒈질 안허여. 이 고내[212]는. 고내 지경엔.(으, 되질 않아. 이 고내는. 고내 지경엔.)

107018 @ 게난 옛날에도 ᄆᆞ물ᄀᆞ루로 막 뭐 헤 먹거나 경 허진 안헷구나?(그러니까 옛날에도 메밀가루로 마구 뭐 해 먹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구나?)

107018 #1 으, 안 헤연, 안 헤연. 받아 와야.(으, 안 했어, 안 했어. 받아 와야.)

107018 @ 아, 받아 와야?(아, 받아 와야?)

107018 #1 비싸게 줭 오일장에나 강 받아 와야.(비싸게 줘서 오일장에나 가서 받아 와야.)

107018 @ 경헤야 먹을 수 있는 거구나.(그래야 먹을 수 있는 거구나.)

107018 #1 예, 경헤사 먹어지주게. 겨고 식게 때 멩질 때 무신 떡이나 허젠 헤야 받아 오주. 경 안허민.(예, 그래야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제사 때 명절 때 무슨 떡이나 하려고 해야 받아 오지. 그렇지 않으면.)

107018 @ 으, 보통 때 먹는 건 아니구나?(으, 보통 때 먹는 건 아니구나?)

107018 #1 으, 그냥 보통 때는.(으, 그냥 보통 때는.)

107019 @ 이제, 이젤랑예 ᄆᆞᆷ쿡[213] 끓여 주십서.(이제, 이제는요 'ᄆᆞᆷ쿡' 끓여 주세요.)

107019 #1 ᄆᆞᆷ쿡?('ᄆᆞᆷ쿡'?)

107019 @ 예.(예.)

107019 #1 ᄆᆞᆷ도 ᄆᆞᆷ 헤여근에 저 ᄎᆞᆷᄆᆞᆷ[214].(모자반도 모자반 해서 저 'ᄎᆞᆷᄆᆞᆷ'.)

107019 @ 예.(예.)

107019 #1 ᄎᆞᆷᄆᆞᆷ 헤다근에 이젠 그냥 놀채덜도 솖아근에 허주만은 ᄆᆞᆯ류왕 그 ᄆᆞᆯ류왓당 이제 뿔앙.('ᄎᆞᆷᄆᆞᆷ' 해서 이젠 그냥 날짜도 삶아서 하지만 말려서 그 말렸다가 이제 빨아서.)

107019 @ ᄆᆞᆯ리는 건 놀채 ᄆᆞᆯ리는 거 솖앙 ᄆᆞᆯ리는 거?(말리는 건 날짜 말리는 거 삶아서 말리는 거?)

107019 #1 놀채.(날짜.)

107019 @ 놀채 ᄆᆞᆯ려?(날짜 말려?)

107019 #1 으, 음.(으, 음.)

---

212) '고내'는 제주시 애월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인 고내리를 말한다.
213) 'ᄆᆞᆷ쿡'은 돼지고기를 삶은 육수에 모자반을 넣어 끓인 국을 말한다. 'ᄆᆞᆷ국', 'ᄆᆞᆯ망국', 'ᄆᆞᆯ망쿡'이라고도 한다.
214) 'ᄎᆞᆷᄆᆞᆷ'은 모자반의 한 종류다.

107019 @ 놀채 ᄆᆞᆯ류왕.(날짜 말려서.)

107019 #1 톳은 솖앙 ᄆᆞᆯ려도.(톳은 삶아서 말려도.)

107019 @ 아.(아.)

107019 #1 톳은. ᄆᆞᆷ은 그냥 ᄆᆞᆯ려 츰ᄆᆞᆷ은.(톳은. 모자반은 그냥 말려 '츰ᄆᆞᆷ'은.)

107019 @ 예.(예.)

107019 #1 경헤영 ᄆᆞᆯ려근에 헷당 이제 먹을 만썩 ᄇᆞᆯ앙.(그래서 말려서 했다가 이제 먹을 만큼씩 빨아서.)

107019 @ ᄇᆞᆯ앙?(빨아서?)

107019 #1 으, ᄇᆞᆯ앙 이젠 썰엉.(으, 빨아서 이젠 썰어서.)

107019 @ 그때 ᄇᆞᆯ 때도 솖진 안허는 거? 그냥 물에만 컹 놔두민 뒙니까?(그때 빨 때도 삶진 않는 거? 그냥 물에만 담가 놔두면 됩니까?)

107019 #1 어, 어. ᄆᆞᆯ려난 거는 물에 커근에 허엿당 ᄇᆞᆯ믄 뒈는 거.(어, 어. 말렸던 거는 물에 담가서 했다가 빨면 되는 거.)

107019 @ 아. 경헹 이젠 썰엉?(아. 그래서 이젠 썰어서?)

107019 #1 컷당 이젠 ᄇᆞᆯ앙 썰엉.(담갔다가 이젠 빨아서.)

107019 @ 예.(예.)

107019 #1 경헤근에 이젠 그것도. 그거는 뭐 빼 딸린 국에도 끌리고.(그래서 이젠 그것도. 그거는 뭐 뼈 달인 국에도 끓이고.)

107019 @ 아.(아.)

107019 #1 그냥 빈 국에는 ᄆᆞᆷ은 안 허여, ᄆᆞᆷ은.(그냥 빈 국에는 모자반은 안 해, 모자반은.)

107019 @ ᄆᆞᆷ은 안 헤여.(모자반은 안 해.)

107019 #1 ᄆᆞᆷ은 그냥 무신이 소빼 같은 거, 저 도야지 빼. 그런 거, 그런 것에 끌리주, ᄆᆞᆷ쿡은.(모자반은 그냥 무슨 소뼈 같은 거, 저 돼지 뼈. 그런 거, 그런 것에 끓이지, 'ᄆᆞᆷ쿡'은.)

107019 @ 어쨌든 막 고기 솖아난 물?(어쨌든 마구 고기 삶았던 물?)

107019 #1 고기 솖아난 국물에나. 그런 거 ᄆᆞᆷ은, 그런 거.(고기 삶았던 국물에나. 그런 거 모자반은, 그런 거.)

107019 @ 으.(으.)

107019 #1 허고 자반, ᄆᆞᆷ차반[215]이엔 헤근에 무청도 먹어. 놀채, ᄇᆞᆯ앙.(하고 자반, 'ᄆᆞᆷ차반'이라고 해서 무쳐서도 먹어. 날짜 빨아서.)

107019 @ 아.(아.)

107019 #1 무쳐도 좋아.(무쳐도 좋아.)

107020 @ 으. 이제랑예, 생선국?(으. 이제는요, 생선국?)

107020 #1 생선국은게 물 삭삭 궤여근에 그 고기도.(생선국은 물 팔팔 끓어서 그 고기도.)

---

215) 'ᄆᆞᆷ차반'은 모자반을 조금 짭짤하게 졸이거나 무쳐서 만든 반찬을 말한다.

107020 @ 보통 무슨 고기 국 하영 끌렁 먹읍니까, 생선은?(보통 무슨 고기 국 많이 끓어서 먹습니까, 생선은?)

107020 #1 생선국게, 저.(생선국, 저.)

107020 @ 오토미 얘기허는 거?(옥돔 얘기하는 거?)

107020 #1 올토미.(옥돔.)

107020 @ 다시 한 번 골아줘 봅서.(다시 한 번 말해 주세요.)

107020 #1 이디서는 저 셍성, 셍선은 빨강헌 그 올토미 셍성.(여기서는 저 옥돔, 옥돔은 빨간 그 '올토미' 옥돔.)

107020 @ 아, 올토미렌 헤?(아, '올토미'라고 해?)

107020 #1 으, 셍선. 그거 허젠 허믄 물 삭삭 뀌여근에. 그런 바닷고기는 물 뀌영, 막 오래 솖앙 짐이 팡팡 나게 뒈영 그거 놔야 헤싸지질 안허여.(으, 옥돔. 그거 하려고 하면 물 삭삭 끓여서. 그런 바닷고기는 물 끓여서, 아주 오래 삶아서 김이 팡팡 나게 되어서 그거 놔야 헤어지지 않아.)

107020 @ 예.(예.)

107020 #1 겨난 경헨 놩 허곡 무수, 놈삐.(그러니까 그렇게 놔서 하고 무, 무.)

107020 @ 으.(으.)

107020 #1 그거.(그거.)

107020 @ 게민, 물 뀌면 거기에.(그럼, 물 끓으면 거기에.)

107020 #1 고기 놩.(고기 넣어서.)

107020 @ 고기 놩, 오토미 놩?(고기 넣어서, 옥돔 넣어서?)

107020 #1 으, 으. 오토미영, 놈삐영 ᄀᆞ치 놔도 뒈고. 경 안허민 오토미 놩 또 ᄒᆞ꼼 솖당 놈삐 놔도 뒈고.(으, 으. 옥돔이랑, 무랑 같이 넣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옥돔 넣어서 또 조금 삶다가 무 넣어도 되고.)

107020 @ 옛날에 끓여 먹을 때는, 요즘은 막 빼 ᄆᆞ녀 솖아 놩 막 빼 발르잖아? 생선 빼들, 옛날에는 경 안 헹 그냥 뼈차?(옛날에 끓여 먹을 때는, 요즘은 마구 뼈 먼저 삶아 놔서 마구 뼈 바르잖아? 생선 뼈들,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뼈째?)

107020 #1 빼차.(뼈째.)

107020 @ 뼈차?(뼈째?)

107020 #1 빼차, 빼차. 빼차 영 영 끄차, 끄차근에 영 헹.(뼈째, 뼈째. 뼈째 이렇게 이렇게 끊어, 끊어서 이렇게 해서.)

107020 @ 으.(으.)

107020 #1 물 뀌영 놓면은 그거 경 헤싸지지 안허여.(물 끓어서 놓으면 그거 그렇게 헤어지지 않아.)

107020 @ 으.(으.)

107020 #1 오곳오곳[216] ᄒᆞᆫ 점씩 거령.('오곳오곳' 한 점씩 떠서.)

---

216) '오곳오곳'은 물건이 상하지 않고 본디 모양 그대로인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107021 @ 으, 음. 이제랑 메역국 끓여 주십서.(으, 음. 이제는 미역국 끓여 주세요.)

107021 #1 메역도게, 메역도 물 꿰여근에 놓면은, 메역 ᄌᆞ물앙 오면은.(미역도, 미역도 물 끓여서 놓으면, 미역 캐서 오면.)

107021 @ 으.(으.)

107021 #1 ᄆᆞᆯ왕, 이젠 또 그걸 먹을 만썩 뿔앙, 뿔앙 썰엉.(말려서, 이젠 또 그걸 먹을 만큼씩 빨아서, 빨아서 썰어서.)

107021 @ 음.(음.)

107021 #1 이젠 뭐 고기국에 끓이나 경 안허믄 장쿡엘 허나, 저 뒌장 놩 장쿡에 허나.(이젠 뭐 고깃국에 끓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장국에 하거나, 저 된장 넣어서 장국에 하거나.)

107021 @ 으. 물 끓여 가민 메역 놩?(으. 물 끓어 가면 미역 넣어서?)

107021 #1 으, 메역 놩.(으, 미역 넣어서.)

107021 @ 뒌장 놓거나 장 놓거나예?(된장 넣거나 간장 넣거나?)

107021 #1 으, 으. 메역국은 첨 고기국에 놓나.(으, 으. 미역국은 첨 고깃국에 넣어.)

107021 @ 으.(으.)

107021 #1 메역도, 메역도 메역 먹는 시기가 잇어.(미역도, 미역도 미역 먹는 시기가 있어.)

107021 @ 언제 메역 먹읍니까?(언제 미역 먹습니까?)

107021 #1 아니, 겨울에, 겨울에. 그 셍성국 같은 것엔 메역도 놓민 좋주게.(아니, 겨울에, 겨울에. 그 옥돔국 같은 것엔 미역도 넣으면 좋지.)

107021 @ 으.(으.)

107021 #1 경허고 저 쉐고기국 끓일 때.(그러고 저 소고기국 끓일 때.)

107022 @ 예, 쉐고기국. 맞아마씨, 맞아예. 이제 여름엔 냉쿡덜 하영 헹 먹엇잖아예, 냉쿡예?(예, 소고기국. 맞아요, 맞아요. 이제 여름에 냉국들 많이 해서 먹었잖아요, 냉국요?)

107022 #1 으.(으.)

107022 @ 냉쿡 끓이젠 허민 어떵 헙니까?(냉국 끓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107022 #1 냉쿡 허젠 허민 여름에사 오이게, 오이냉쿡게. 오이냉쿡도 싯곡, 여름에 대목 오이냉쿡이주, 여름에.(냉국 하려고 하면 여름에야 오이, 오이냉국. 오이냉국도 있고, 여름에 주로 오이냉국이지, 여름에.)

107022 @ 대목예?(주로요?)

107022 #1 으, 대목, 대목.(으, 주로, 주로.)

107022 @ 자, 오이냉쿡 만들어 주십서, 맛있게 만들어 주십서. 하하.(자, 오이냉국 만들어 주세요,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 하하.)

107022 #1 난, 난 경 맛잇게 만들진 못허곡게.(난, 난 그렇게 맛있게 만들진 못

하고.)

107022 @ 하하.(하하.)

107022 #1 아니, 아니. 그건 첨, 요새 젊은 사름덜 하도 맛잇게 헤 놓난. 옛날엔 맛 싯곡 엇곡게.(아니, 아니. 그건 첨, 요새 젊은 사람들 하도 맛있게 해 놓으니까. 옛날에 맛 있고 없고.)

107022 @ 하하.(하하.)

107022 #1 엿날, 엿날엔 오이도 엇언.(옛날, 옛날엔 오이도 없었어.)

107022 @ 아, 오이 엇언. 맞지, 오이 엇엇지. 뭘로 헷수과?(아, 오이 없어. 맞지, 오이 없었지. 뭐로 했습니까?)

107022 #1 경허믄 엿날에 장쿡이엔 허믄 저 톳 장쿡.(그러면 옛날에 장국이라고 하면 저 톳 장국.)

107022 @ 톳 장쿡?(톳 장국?)

107022 #1 으, 그거 여름에.(으, 그거 여름에.)

107022 @ 물웨 엇엇수과?(물외 없었습니까?)

107022 #1 물웬 셧지. 첨, 물웨.(물왼 있었지. 첨, 물외.)

107022 @ 맞아.(맞아.)

107022 #1 오이 데력 물웨.(오이 대신 물외.)

107022 @ 맞아.(맞아.)

107022 #1 물웨로 장국덜 헹 먹엇지.(물외로 장국들 해서 먹었지.)

107022 @ 그지 물웨 장국.(그지 물외 장국.)

107022 #1 물웨, 물웨.(물외, 물외.)

107022 @ 우선 물웨 장국을 먼저 만들어 주십서.(우선 물외 장국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107022 #1 물웨, 물웨 장국도게 그냥 썰어근에, 좀질이 거죽 벳겨 뒁.(물외, 물외 장국도 그냥 썰어서, 가늘게 거죽 벗겨 둬서.)

107022 @ 물웨 거죽 벳경.(물외 거죽 벗겨서.)

107022 #1 거죽 벳겨야, 물웨 거죽은 질겨.(거죽 벗겨야, 물외 거죽은 질겨.)

107022 @ 아.(아.)

107022 #1 이 오이는 그냥 먹어도 뒈주만은 이 물웨 질경, 경 거죽 벳경 이젠 좀질이 썰엉.(이 오이는 그냥 먹어도 되지만 이 물외 질겨서, 그렇게 거죽 벗겨서 이젠 가늘게 썰어서.)

107022 @ 으.(으.)

107022 #1 경헤근에 저 그 무신 뒌장 양념 ᄒᆞ꼼 허는 책 헹. 뭐 고치나 무신 꿰ᄀᆞ를이나. 그런 것덜은 옛날도 쪼끔썩 셔나서.(그래서 저 그 무슨 된장 양념 조금 하는 척 해서. 뭐 고추나 무슨 깨소금이나. 그런 것들은 옛날도 조금씩 있었어.)

107022 @ 게니까. 꿰ᄀᆞ루영 고치영.(게니까. 깨소금이랑 고추랑.)

107022 #1 쪼금썩 그런 건 가정용 싱경이, 만인 아니고게.(조금씩 그런 건 가정

용 심어서, 많이는 아니고.)

107022 @ 예.(예.)

107022 #1 경헤근에 놩 냉국 헹 먹고. 식초나 ᄒᆞ꼼 놓고.(그래서 놔서 냉국 해서 먹고. 식초나 조금 넣고.)

107022 @ 식초?(식초?)

107022 #1 식초, 식초. 식촌 대목 엿날부터 ᄒᆞ꼼썩 셔난.(식초, 식초. 식촌 주로 옛날부터 조금씩 있었어.)

107022 @ 저기 파도 아니면 새우리도 ᄒᆞ꼼?(저기 파도 아니면 부추도 조금?)

107022 #1 여름엔 새우리도 ᄒᆞ꼼 썰어 놓고.(여름엔 부추도 조금 썰어 넣고.)

107022 @ 새우리도 썰어 놓고 다마네기[217]도 좀 썰어 놓고?(부추도 썰어 넣고 양파도 좀 썰어 넣고?)

107022 #1 다마네긴 엿날 벨로 엇엇주게.(양판 옛날 별로 없었지.)

107022 @ 엇엇수과?(없었습니까?)

107022 #1 엿날, 아주 엿날엔. 이제 중간에나 낫주.(옛날, 아주 옛날엔. 이제 중간에나 났지.)

107022 @ 아. 새우리는?(아. 부추는?)

107022 #1 새우리는 엿날부터 쪼금, 이 울타리에덜, 우잣에.(부추는 옛날부터 조금, 이 울타리에들, 울안에.)

107022 @ 우영밧디?(터앝?)

107022 #1 예에.(예에.)

107022 @ 우영밧디예?(터앝에?)

107022 #1 으, 우영밧디 시난.(으, 터앝 있으니까.)

107022 @ 그거 헷고. 톳 냉국은 어떵 만듭니까?(그거 했고. 톳 냉국은 어떻게 만듭니까?)

107022 #1 톳 냉국도게 톳 헤여근에 물렁다근에 물 컹 이제 뿔아근에 좀질이 썰엉, 이젠 저 무시것고 뒌장.(톳 냉국도 톳 해서 말렸다가 물 담갔다 이제 빨아서 가늘게 썰어서, 이젠 저 무엇 된장.)

107022 @ 뒌장?(된장?)

107022 #1 으, 뒌장 장 양념헤 놩. 으, 그것도 새우리영 무시거영 뒌장더레 다 문첨 양념을 다 헤영. 그거 다, 장쿡 허젠 허민 새우리를 익혀야 헐 거난. 그냥 놔 불민 살아. 물에 놓민 살아. 새우리가 살아. 새우리나 파나.(으, 된장 장 양념해 놔서. 으, 그것도 부추랑 무엇이랑 된장에 다 먼저 양념을 다 해서. 그거 다, 장국 하려고 하면 부추를 익혀야 할 거니까. 그냥 놔 버리면 살아. 물에 넣으면 살아. 부추가 살아. 부추나 파나.)

107022 @ 예.(예.)

107022 #1 물에 놓민 사니까 뒌장에 놔서 문첨 익혀 놩 짠물로.(물에 넣으면 사

217) '다마네기'는 일본어 'たまねぎ'로 양파를 말한다.

니까 된장에 넣어서 먼저 익혀 놔서 짠물로.)

107022 @ 아, 익힌다는 게 뜨거운 물이?(아, 익힌다는 게 뜨거운 물이?)

107022 #1 짠물, 짠 거, 짠 것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ᄂᆞ롯혜영 이제 장쿡 물에 놔도 먹기가 좋아.(짠물, 짠 거, 짠 것이 들어가면 그것이 숨이 죽어서 이제 장국물에 놔도 먹기가 좋아.)

107022 @ 아, 그냥 썰엉 논 것보다?(아, 그냥 썰어서 넣은 것보다?)

107022 #1 으. 그냥 썰엉 놓는 거보단.(으. 그냥 썰어서 넣는 거보단.)

107023 @ 옛날에도 성게 국이 잇엇수과?(옛날에도 성게 국이 있었습니까?)

107023 #1 아주 엿날에 성게는 잇지만은 국 거튼 거 끌령 먹어 보지는 안헷주게. 그런 무신 경.(아주 옛날에 성게는 있지만 국 같은 거 끓여서 먹어 보지는 않았지. 그런 무슨 그렇게.)

107023 @ 성게 국이란 건 요즘 난 거?(성게 국이라는 건 요즘 난 거?)

107023 #1 예, 예.(예, 예.)

107023 @ 성게 국 끓일 때는 어떵 끌렷수과?(성게 국 끓일 때는 어떻게 끓였습니까?)

107023 #1 우리 벨로 경 성게국은 펭상시에 경 끌령 먹어 보지 안허연. 이 큰일 때나덜 끌렷주.(우리 별로 그렇게 성게국은 평상시에 그렇게 끓여서 먹어 보지 않아. 이 큰일 때나 끓였지.)

107023 @ 아.(아.)

107023 #1 거 뭐 가정에 무신 그거. 엿날부텀 그건 좀 어려와나서.(거 뭐 가정에 무슨 그거. 옛날부터 그건 좀 어려웠었어.)

107023 @ 으.(으.)

107023 #1 경허고.(그리고.)

107023 @ 게도 고내리에도 물질허는 사름덜 막 하나지 안헨?(그래도 고내리에도 물질하는 사람들 아주 많았었지 않아?)

107023 #1 물질허는 사름 엿날도 하낫주만은 그 성게 거튼 건 물에 들엉 잡아옴 버릇을 안 헷주게. 엿날은.(물질하는 사람 옛날도 많았었지만 그 성게 같은 건 물에 들어서 잡아오는 버릇을 안 했지. 옛날은.)

107023 @ 아.(아.)

107023 #1 그냥 물 싸믄 ᄀᆞᆺ디로 강.(그냥 물 써면 가로 가서.)

107023 @ 아, ᄀᆞᆺ디로 강?(아, 가로 가서?)

107023 #1 으, ᄀᆞᆺ디로 강 그냥 바릇찹[218]앗젠 헹 바릇덜 잡으레 갓당.(으, 가로 가서 그냥 '바릇찹'았다고 해서 해산물들 잡으러 갔다가.)

107023 @ 바릇찹앙.('바릇찹'아서.)

107023 #1 경헹덜 ᄒᆞ꼼씩 헤당덜 그냥 솖아근에 그자 깡 먹어낫주. 국 끌리거나 무신 반찬하거나 그런 건 안 헤연.(그러해서 조금씩 해다가 그냥 삶아서 그저 까서

218) '바릇찹다'는 바닷가 돌밭에서 소라, 성게 따위를 잡는 것을 말한다.

먹었었지. 국 끓이거나 무슨 반찬하거나 그런 건 안 했어.)

107023 @ 그냥 솖아 가지고?(그냥 삶아 가지고?)

107023 #1 으, 솖아 가지고. 경 안 허민 놀채로 헹 먹으나. 놀채 깡도 먹엇저.(으, 삶아 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날짜로 해서 먹거나. 날짜 까서도 먹었어.)

107023 @ 아. 그냥 보말 솖아 먹는 듯이?(아. 그냥 보말 삶아서 먹는 듯이?)

107023 #1 예, 예. 보말, 보말 거치. 보말에 그거 ᄀᆞ치 잡아다근에.(예, 예. 고둥, 고둥 같이. 고둥에 그거 같이 잡아다가.)

107023 @ 잡아당? 보말쿡[219]은 끓여 먹엇수과?(잡아다가 '보말쿡' 끓여서 먹었습니까?

107023 #1 보말쿡도 엿날엔 경 끌렁 먹어보진 안헨. 그냥 솖앙. 헤당 솖앙 올앙 덜 그자. 심심허믄, 심심허믄.('보말쿡'도 옛날엔 그렇게 끓여서 먹어보진 않았어. 그냥 삶아서. 해다가 삶아서 열어서 그저. 심심하면, 심심하면.)

107023 @ 그냥 간식으로 먹엇던 거?(그냥 간식으로 먹었던 거?)

107023 #1 으, 간식으로.(으, 간식으로.)

107023 @ 보깡 반찬 헹 먹거나 경허진 안허고?(볶아서 반찬 해서 먹거나 그렇진 않고?)

107023 #1 아니, 경 하영 헹 오지 못 허연게.(아니, 그렇게 많이 해서 오지 못했어.)

107023 @ 아.(아.)

107023 #1 쪼금씩, 쪼금식 헤당.(조금씩, 조금씩 해다가.)

107023 @ 그냥 그때 먹엉 끝?(그냥 그때 먹어서 끝?)

107023 #1 으.(으.)

107023 @ 페국 말고 그냥 넙페국이란 것도 잇수과?(패국 말고 그냥 넓패국이란 것도 있습니까?)

107023 #1 넘페국 잘 헹 먹엇지.(넓패국 잘 해서 먹었지.)

107023 @ 아.(아.)

107023 #1 넘페, 미역쉐.(넓패, 미역쇠.)

107023 @ 아, 넘페, 미역쉐?(아, 넓패, 미역쇠?)

107023 #1 으. 그런 거는 물만 싸민 이녁대로 헤여당 그거는 뭐 첨 만이 먹엇지, 엿날부터.(으. 그런 거는 물만 써면 자기대로 해다가 그거는 뭐 참 많이 먹었지, 옛날부터.)

107023 @ 아.(아.)

107023 #1 그거는 엿날부터 잇어낫어.(그거는 옛날부터 있었어.)

107023 @ 어떵 끌립니까? 넘페국은?(어떻게 끓입니까? 넓패국은?)

107023 #1 물 꿰여 가면은 놓면은.(물 끓어 가면은 넣으면.)

107023 @ 넙페 미리 안 삶아?(넓패 미리 안 삶아?)

---

219) '보말쿡'은 고동을 넣어 끓인 국이다. '보발국'이라고도 한다.

107023 #1 아, 그거 미리 솖아도 뒈고.(아, 그거 미리 삶아도 되고.)

107023 @ 예.(예.)

107023 #1 몰렷던 거는 뿔면 그냥도 뒈고. 경 안 헤영 놀채 헌 거는 솖앙.(말렸던 거는 빨면 그냥도 되고. 그렇게 안 해서 날짜 한 거는 삶아서.)

107023 @ 그지예?(그지요?)

107023 #1 거 금방 헤당근에 금방 먹젠은 허믄 솖앙 솖아놔야 뒈지. 그 몰렷던 거는 또 그대로 또 물에 놩 뿔면은 끌려지고.(거 금방 해다가 금방 먹으려고 하면 삶아서 삶아놔야 되지. 그 말렸던 거는 또 그대로 또 물에 놔서 빨면 끓일 수 있고.)

107023 @ 음.(음.)

107023 #1 으, 경허민 뒈여. 미역쉐, 저 넘핀 만이 먹어.(으, 그러면 돼. 미역쇠, 저 넓패는 많이 먹어.)

107023 @ 게민 그 넘페국은 미역국이랑 비슷헙니까?(그럼 그 넓패국은 미역국이랑 비슷합니까?)

107023 #1 늠삐?(무?)

107023 @ 아니, 넘페?(아니, 넓패?)

107023 #1 으, 비슷헤도 더 들미롱헌 맛이 잇어. 지픈 맛이 잇어.(으, 비슷해도 더 들큼한 맛이 있어. 깊은 맛이 있어.)

107023 @ 아, 넘페국이?(아, 넓패국이?)

107023 #1 어. 잘 헤근에 솖아근에 끌려 놓민.(어. 잘 해서 삶아서 끓여 놓으면.)

107023 @ 으.(으.)

107023 #1 넘펜 넘페 대로 맛잇고 메역쉐는 메역쉐 대로 맛이 잇고.(넓팬 넓패 대로 맛잇고 미역쇠는 미역쇠 대로 맛이 있고.)

107023 @ 메역쉐는 미역을 메역쉐렌 허는 거?(미역쇠는 미역을 미역쇠라고 하는 거?)

107023 #1 아니. 메역쉐 뚜로 잇어.(아니. 미역쇠 따로 있어.)

107023 @ 으.(으.)

107023 #1 영, 영 요만씩 지럭쉬 헌 건디 나풀나풀 헤 가지고 나는 바둑이 잇어.(이렇게, 이렇게 요만큼씩 길이 한 건데 나풀나풀 해 가지고 나는 곳이 있어.)

107023 @ 아.(아.)

107023 #1 그건 지픈 디도 안 나. 그냥 물 쪼금 싸 가면은 메역쉔, 메역쉐, 넘피는 ᄀᆞ튼 고단에 나. ᄀᆞ튼 돌에.(그건 깊은 데도 안 나. 그냥 물 조금 써 가면 미역쇠는, 미역쇠, 넓패는 같은 곳에 나. 같은 돌에.)

107023 @ 아, 예.(아, 예.)

107023 #1 메역쉐. 몰라 다른 디는 뭣이엔사 ᄀᆞᆯ암산디 우리 동네는 메역쉐 넘페.(미역쇠. 몰라 다른 데는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동네는 미역쇠 넓패.)

107023 @ 그럼 이 메역쉐는 미역 종류이긴?(그럼 이 미역쇠는 미역 종류이긴?)

107023 #1 종류는 종류. 종류는 종류라도.(종류는 종류. 종류는 종류라도.)

107023 @ 예.(예.)

107023 #1 메역은 금방 뿔아근에 금방 먹을 수도 잇지만은 이건 솖아야. 좀 질겨.(미역은 금방 빨아서 금방 먹을 수도 있지만 이건 삶아야. 좀 질겨.)

107023 @ 좀 굵은 것과, 꼬닥꼬닥헌 거다예?(좀 굵은 겁니까, 뽀닥뽀닥한 거네요?)

107023 #1 뽀닥뽀닥. ᄒᆞ꼼 뽀닥뽀닥 막 뽀닥뽀닥은 안 헤도 쪼금.(뽀닥뽀닥. 조금 뽀닥뽀닥 마구 뽀닥뽀닥은 안 해도 조금.)

107023 @ 으, 메역쉐예?(으, 미역쇠요?)

107023 #1 메역쉐.(미역쇠.)

107023 @ 가시리국은?(풀가사리국은?)

107023 #1 가시린 우린 아니 먹어. 저 어디 동촌[220]더렌 먹어렌 헨게.(풀가사린 우린 안 먹어. 저 어디 '동촌'으론 먹더라고 하더라.)

107023 @ 예, 먹어난.(예, 먹었었어.)

107023 #1 그런 거 우린 메여당 엿날에 풀 딸령.(그런 거 우린 매다가 옛날에 풀 달여서.)

107023 @ 아.(아.)

107023 #1 저, 이런 벡지에, 저기 도배헐 때. 그런 거로 썻주기게.(저 이런 백지에, 저기 도배할 때. 그런 거로 썼지.)

107023 @ 가시리?(풀가사리?)

107023 #1 먹어 보진 안허여. 가시린.(먹어 보진 않아.)

107023 @ 가시리 풀 쑬 때 가시리 헤여?(풀가사리 풀 쑬 때 풀가사리 해?)

107023 #1 으, 풀 쑬 때 가시리 허여.(으, 풀 쑬 때 풀가사리 해.)

107023 @ 아.(아.)

107023 #1 풀. 우미, 메역쉐 그런 건 풀로.(풀. 우뭇가사리, 미역쇠 그런 건 풀로.)

107023 @ 우미도 풀 헤낫수과?(우뭇가사리도 풀 했었습니까?)

107023 #1 우미 엿날엔 우미도 풀로 허고. 가시리도 풀로 헤난디 이제는 우미도 솖아근에 바레영 솖앙 먹엄주만은.(우뭇가사리 옛날엔 풀로 하고. 풀가사리도 풀로 했었는데 이제는 우뭇가사리도 삶아서 바래서 삶아서 먹고 있지만.)

107023 @ 아, 기과?(아, 그렇습니까?)

107023 #1 으, 엿날엔 가시리 거튼 거영 풀로 썻어.(으, 옛날엔 풀가사리 같은 거랑 풀로 썼어.)

107023 @ 음. 파래는마씨, 파래는?(음. 파래는요, 파래는?)

107023 #1 파래는. 나는 고단이 잇어.(파래는, 나는 곳이 있어.)

220) '동촌'은 동쪽 지역의 위치한 마을을 말한다.

107023 @ ᄑᆞ레?(파래?)

107023 #1 으, ᄑᆞ레. 우리 동네는 파래 잘 안 나난 잘 먹어 봔.(으, 파래. 우리 동네는 파래 잘 안 나니까 잘 먹어 봤어.)

107023 @ ᄑᆞ레국도예?(파래국도요?)

107023 #1 으.(으.)

107023 @ 옛날에도 물훼 만이 만들엉 먹엇수과?(옛날에도 물회 많이 만들어서 먹었습니까?)

107023 #1 으?(으?)

107023 @ 물훼, 아까 냉국?(물회, 아까 냉국?)

107023 #1 냉국덜 하영 먹언, 옛날에게.(냉국들 많이 먹었어, 옛날에.)

107023 @ 그니까 그 냉국에 궤기 잡은 거, 바당궤기 잡은 것도 영 썰어 놩?(그니까 그 냉국에 고기 잡은 거, 바닷고기 잡은 것도 이렇게 썰어 놔서?)

107023 #1 엿날에?(옛날에?)

107023 @ 으. 우리 자리물훼 같은 거?(으. 우리 자리물회 같은 거?)

107023 #1 오징어.(오징어.)

107023 @ 아, 오징어로.(아, 오징어로.)

107023 #1 엿날에덜은 오징어도 이만씩 헌 거 부쪄와 바당에 강. 그런 것덜 헤영.(옛날에는 오징어도 이만큼씩 한 거 잡아와 바다에 가서. 그런 것들 해서.)

107023 @ 으. 그걸로 물훼 헹 먹언?(으. 그걸로 물회 해서 먹었어?)

107023 #1 아니, 물훼도 허주만은 그런 걸로 물훼도 그. 비싸고 만이 아니 나니까 매 집이 먹진 안 헷는디 허여 오는 집이덜은 거 헹 먹어낫주.(아니, 물회도 하지만 그런 걸로 물회도 그. 비싸고 많이 안 나니까 매 집에 먹진 안 했는데 해 오는 집들은 거 해서 먹었었지.)

107023 @ 아, 오징에 잡아단.(아, 오징어 잡아다가.)

107023 #1 으, 오징에 잡아 오믄.(으, 오징어 잡아 오면.)

107023 @ 으.(으.)

107023 #1 그 잡아 오는 집에서. 우리는 아버지가 바당 영업을 헤나니까 그걸 잘 먹어낫주게.(그 잡아 오는 집에서. 우리는 아버지가 바다 영업을 했었으니까 그걸 잘 먹었었지.)

107023 @ 으.(으.)

107023 #1 훼 거튼 것도 ᄆᆞᆯ류왕 구웡도 영 지져 먹고 그런 것덜 오징에도.(회 같은 것도 말려서 구워서도 이렇게 지져 먹고 그런 것들 오징어도.)

107023 @ 지난번에 오징에 잡을 때 횃불 싸근에 밤에 강 잡앙 왕예?(지난번에 오징어 잡을 때 횃불 켜서 밤에 가서 잡아서 와서요?)

107023 #1 으, 으.(으, 으.)

107023 @ 경헨 잡은 걸로 물훼 헹 먹언예.(그렇게 잡을 걸로 물회 해서 먹었지요.)

죽류

107024 @ 이번에는 죽예, 죽. 죽 종류 가 보쿠다예. 죽 끌려 먹어난 죽 종류에는 뭐가 잇수과?(이번에는 죽요, 죽. 죽 종류 가 보겠습니다. 죽 끓여 먹었던 죽 종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107024 #1 죽 종류?(죽 종류?)

107024 @ 으.(으.)

107024 #1 픗 잇고.(팥 있고.)

107024 @ 픗.(팥.)

107024 #1 녹두.(녹두.)

107024 @ 녹두. 또.(녹두. 또.)

107024 #1 돔비.(동부.)

107024 @ 돔비.(동부.)

107024 #1 그런 거, 그런 종류 다 잇주게.(그런 거, 그런 종류 다 있지.)

107025 @ 으, 둠비예. 그럼예 곤죽서부터 가 보쿠다. 곤죽.(으, 동부요. 그럼 흰죽부터 가 보겠습니다. 흰죽.)

107025 #1 곤죽은 흰죽게.(흰죽은 흰죽.)

107025 @ 예, 흰죽, 여기서 흰죽이렌.(예, 흰죽, 여기서 흰죽이라고.)

107025 #1 쏠죽, 쏠죽. 흰죽, 흰죽, 흰죽. 곤죽ᄀᆞ라 흰죽.(쌀죽, 쌀죽. 흰죽, 흰죽. '곤죽'보고 흰죽.)

107025 @ 게니까 곤죽이렌 ᄀᆞᆯ앗수과, 흰죽이렌 ᄀᆞᆯ앗수과, 쏠죽이렌 ᄀᆞᆯ앗수과?(그러니까 흰죽이라고 말했습니까, 흰죽이라고 말했습니까, 쌀죽이라고 말했습니까?)

107025 #1 곤죽이렌 ᄀᆞᆯ안.(흰죽이라고 말했어.)

107025 @ 아, 곤죽이렌 ᄀᆞᆯ안예. 곤죽이엔 ᄀᆞᆯ앗어.(아, 흰죽이라고 말했어요. 흰죽이라고 말했어.)

107025 #1 나중에 뒈 가난 쏠죽이여 무시거여.(나중에 돼 가니까 쌀죽이야 무엇이야.)

107025 @ 예, 예. 게난 고내리서 ᄀᆞᆯ아난 말로.(예, 예. 그러니까 고내리에서 말했던 말로.)

107025 #1 곤죽.('곤죽'.)

107025 @ 곤죽. 곤죽은 어떤 때 끌려 먹어져난마씨?(흰죽. 흰죽은 어떤 때 끓여 먹었어요?)

107025 #1 아픈 때나 허고게.(아픈 때나 하고.)

107025 @ 기지예?(그렇지요?)

107025 #1 으, 으. 아픈 때 밥 못 먹어 가민 곤죽 쒕.(으, 으. 아픈 때 밥 못 먹어 가면 흰죽 쒀서.)

107025 @ 곤죽 쒕?(흰죽 쒀서?)

107025 #1 으, 기자. 이제는 쏠죽이여 무신 흰죽이여 헴주만은 그땐.(으, 그저. 이제는 쌀죽이며 무슨 흰죽이며 하지만 그땐.)

107025 @ 으.(으.)

107025 #1 ᄒᆞ꼼 기다리라게, 곤죽 쒕 주마. 경헤난 옛날.(조금 기다려라, 흰죽 쒀서 주마. 그러니까 옛날.)

107025 @ 하하. 게민 아이덜 아픈 때도 곤죽 준덴 허민?(하하. 그럼 아이들 아픈 때도 흰죽 준다고 하면?)

107025 #1 으, 아픈 때도 그거.(으, 아픈 때도 그거.)

107025 @ 그거 준덴 허민 좋아헨?(그거 준다고 하면 좋아했어?)

107025 #1 좋아허멍 말멍 헤도 어떵 헤게, 다른 약도 엇고.(좋아하면서 말면서 어떻게 해, 다른 약도 없고.)

107025 @ 아.(아.)

107025 #1 먹어 볼 게 엇주기게.(먹어 볼 게 없지.)

107025 @ 아.(아.)

107025 #1 설사나 나곡게 어떵 아팡 못 젼뎡 무신. 밥은 못 먹켄 헤 가믄 곤죽이나베끼 무시거 먹을 거 셔? 아무 것도 먹을 것이 엇어, 옛날에.(설사나 나고. 어떻게 아파서 못 견뎌 무슨. 밥은 못 먹겠다고 해 가면 흰죽이나밖에 무엇 먹을 거 있어? 아무 것도 먹을 것이 없어, 옛날에.)

107026 @ 엇어낫어예. 조죽도 헤 먹어낫수과? 조, 조로 죽, 조축?(없었지요. 조죽도 해 먹었었습니까? 조, 조로 죽, 조죽?)

107026 #1 조축? 조로 죽은 못 쒀. 겁죽, 조엔은 허믄 겁죽 신 양 조주게. 좁썰죽은 좁썰죽이주게.(조죽? 조로 죽은 못 쒀. 거죽, 조라고 하면 거죽 있는 양 조지. 좁쌀죽은 좁쌀죽이지.)

107026 @ 좁썰죽.(좁쌀죽.)

107026 #1 좁썰죽 쑤지.(좁쌀죽 쑤지.)

107026 @ 으, 좁썰죽.(으, 좁쌀죽.)

107026 #1 좁썰도이 여러 종류가 잇어.(좁쌀도 여러 종류가 있어.)

107026 @ 예.(예.)

107026 #1 히린좁썰, 모인좁썰.(차조, 메조.)

107026 @ 히린좁썰, 모인좁썰?(차조, 메조?)

107026 #1 예, 히린 걸론 못 쒀.(예, 차조 거론 못 쒀.)

107026 @ 으.(으.)

107026 #1 모인 걸로 헤야 뒈. 모인 거는 파삭파삭 모이니까 죽을 쒀지는디.(모인 걸로 해야 돼. 모인 거는 파삭파삭 모이니까 죽을 쑬 수 있는데.)

107026 @ 예.(예.)

107026 #1 히린 거는 너무너무 흐려 가지고 범벅 뒈 불엉 죽 쑤믄 못 먹어.(흐

린 거는 너무너무 흐려 가지고 범벅 돼 버려서 죽 쑤면 못 먹어.)

107026 @ 아.(아.)

107026 #1 모인 건 막 먹기 좋아. 모인좁쌀은.(메진 건 아주 먹기 좋아. 메조는.)

107026 @ 아, 모인좁쌀로예?(아, 메조로요?)

107026 #1 으, 모인좁쌀로 죽 쒕 먹고.(으, 메조로 죽 쒀서 먹고.)

107026 @ 그럼 떡 허는 것도 모인좁쌀로?(그럼 떡 하는 것도 메조로?)

107026 #1 아니, 떡 허는 거는 반 서꺼도 좋고, 희린 거, 모인 거.(아니, 떡 하는 거는 반 섞어도 좋고, 차진 거, 메진 거.)

107026 @ 으.(으.)

107026 #1 너미 히린 것만 허믄 막 흐려 불고.(너무 차진 것만 하면 아주 차져 버리고.)

107026 @ 예.(예.)

107026 #1 너미 모인 것만 허믄 바삭져 불고 허니까 반 서껑.(너무 메진 것만 하면 바삭해 버리고 하니까 반 섞어서.)

107026 @ 반 서껑?(반 섞어서?)

107026 #1 으.(으.)

107026 @ 게민 좁쌀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 거?(그럼 좁쌀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 거?)

107026 #1 아니, 이름은 강돌나리[221]여 무신, 무신. 무시거여, 무시거여 멧 곡지 이실 거여만은 우리 주로 헤난 거는 히린조, 모인조.(아니, 이름은 '강돌나리'며 무슨, 무슨. 무엇이며, 무엇이며 몇 꼭지 있을 거지만 우리 주로 했던 거는 차조, 메조.)

107026 @ 히린조, 모인조예?(차조, 메조요?)

107026 #1 으.(으.)

107026 @ 죽 쑤는 거는 모인조예?(죽 쑤는 거는 메조요?)

107026 #1 으, 모인조.(으, 메조.)

107026 @ 이제 죽 쒀 줍서. 모인좁쌀로 죽 쑤젠 허민 어떵 헐 거?(이제 죽 쒀 주세요. 메조로 죽 쑤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거?

107026 #1 그것도 모인좁쌀로 죽 쑤젠 허민 ᄀᆞ치, 물에 ᄀᆞ치 놩.(그것도 메조로 죽 쑤려고 하면 같이, 물에 같이 놔서.)

107026 @ ᄀᆞ치 놩?(같이 놔서?)

107026 #1 으, ᄀᆞ치 놘에 그냥 젓엉, 궤여 가는 양 젓어 가믄 죽 뒈는 거난.(으, 같이 놔서 그냥 저어, 끓어 가는 양 젓어 가면 죽되는 거니까.)

107026 @ 으, 물 하영 놩?(으, 물 많이 놔서?)

107026 #1 아니, 근 맞촹 그자 쏠이 하믄 하영 놓곡게.(아니, 간 맞춰서 그저 쌀

221) '강돌나리'는 조의 한 종류다.

이 많으면 많이 넣고.)

107026 @ 으, 으.(으, 으.)

107026 #1 너미 뒈여도 안 뒈고 얄롸도 안 뒈고.(너무 돼도 안 되고 얇아도 안 되고.)

107026 @ 좁썰 죽 헐 때 곤쏠도 놉니까, 아니면 좁썰만 놉니까?(좁쌀 죽 할 때 흰쌀도 넣습니까, 아니면 좁쌀만 넣습니까?)

107026 #1 아니, 말쩨 뒈가난 그 쏠이 곤쏠 때는 서껏주만은 엿날엔 엇이니까 좁썰죽만, 모인좁썰 죽만 쒕 먹엇주.(아니, 말째 돼 가니까 그 쌀이 흰쌀 때는 섞었지만 옛날은 없으니까 좁쌀죽만, 메조 죽만 쒀서 먹었지.)

107027 @ 예. 이제 팥죽 끓여 주십서, 팥죽.(예. 이제 팥죽 끓여 주세요, 팥죽.)

107027 #1 팥죽은게.(팥죽은.)

107027 @ 풋죽? 풋죽이렌 헐 거?(팥죽? 팥죽이라고 할 거?)

107027 #1 풋죽, 엿날은 풋죽.(팥죽, 옛날은 팥죽.)

107027 @ 으.(으.)

107027 #1 풋죽은 풋 놓앙 풋 막 익형.(팥죽은 팥 넣어서 팥 마구 익혀서.)

107027 @ 으.(으.)

107027 #1 데경, 데경. 좋아허는 사름은 막 그거 허고 오실오실오실허게 그냥. 그거 익어가면은 이제 쏠 씻엉 놩, 이제 쏠도 익고 그것도 익으면은 먹는 사름도 잇고.(으깨, 으깨. 좋아하는 사람은 마구 그거 하고 고슬고슬하게 그냥. 그거 익어가면 이제 쌀 씻어서 넣어서, 이제 쌀도 익고 그것도 익으면 먹는 사람도 있고.)

107027 @ 어쨌든 영 문질렁 헤야 뒐 거 아니, 풋 솖아지민?(어쨌든 이렇게 문질러서 해야 될 거 아니, 팥 삶아지면?)

107027 #1 솖아지민 문질렁 좋아허는 사름도 잇고 그대로 쑤는 사름도 잇어. 솖앙 익형.(삶아지면 문질러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 쑤는 사람도 있어. 삶아서 익혀서.)

107027 @ 아, 익형?(아, 익혀서?)

107027 #1 막 익혀근에 그냥, 거저 익어 가민 쏠 놔근에 허영 그대로 거렁 먹는 사름도 잇어.(마구 익혀서 그냥, 거의 익어 가면 쌀 넣어서 해서 그대로 떠서 먹는 사람도 있어.)

107027 @ 아, 그럼 팥 막 문질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아, 그럼 팥 마구 문질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107027 #1 으, 그대로. 그대로도 거, 그대로 쒕 좋아허는 사람은 그대로 쑤고.(으, 그대로. 그대로도 거, 그대로 쒀서 좋아하는 사람은 그대로 쑤고.)

107028 @ 콩죽은 어떵 쑵니까?(콩죽은 어떻게 쑵니까?)

107028 #1 콩죽은 콩 골아당 ᄀᆞ룰로. ᄀᆞ룰로 골아당 이젠 쏠 놔근에 좁썰도 모인좁썰, 모인좁썰 놩 이제 ᄒᆞ꼼 솖당 콩ᄀᆞ룰 놩 허꺼근에, ᄀᆞ룰로 허껑.(콩죽은 콩 갈아다가 가루로. 가루로 갈아다가 이젠 쌀 넣어서 좁쌀도 메조, 메조 넣어서 이제

조금 삶다가 콩가루 넣어서 섞어서, 가루로 섞어서.)

107028 @ 모인좁썰 놩 모인좁썰 먼저 끌리당?(메조 넣어서 메조 먼저 끓이다가?)

107028 #1 끌려 가믄 끌리다가 끌리다근에.(끓여 가면 끓이다가 끓이다가.)

107028 @ 막 보글보글 혜 가믄?(마구 보글보글 해 가면?)

107028 #1 으, 허여 가면은 그 ᄀᆞ룰 허터.(으, 해 가면 그 가루 섞어서.)

107028 @ 으, ᄀᆞ를 허트는 거예?(으, 가루 섞는 거요?)

107028 #1 으, 콩ᄀᆞ룰.(으, 콩가루.)

107029 @ ᄆᆞ물죽?(메밀죽?)

107029 #1 ᄆᆞ물도 우린 잘 안 헤나난 ᄆᆞ물죽 같은 거 안 헹 먹어 봔.(메밀도 우린 잘 안 했었던 메밀죽 같은 거 안 해서 먹어 봤어.)

107029 @ 아, 여긴.(아, 여긴.)

107029 #1 역시 떡이나베끼 죽은 안 헤.(역시 떡이나밖에 죽은 안 해.)

107030 @ 예. 이젠 녹두죽 끓여 줍서.(예. 이젠 녹두죽 끓여 주세요.)

107030 #1 녹두도 팟이나 마찬가지. 녹두도 솖앙, 녹두는 솖앙 문데경.(녹두도 팥이나 마찬가지. 녹두도 삶아서, 녹두는 삶아서 문질러서.)

107030 @ 문데경?(문질러서?)

107030 #1 으, 이제 경헤근에 거자 솖아 가믄 녹두 놩 거자 익으면은 이제 쏠 씻어 놧당 쏠 놔근에. 어느 정도 물 맞춰 놩.(으, 이제 그래서 거의 삶아 가면 녹두 놔서 거의 익으면 이제 쌀 씻어 놨다가 쌀 넣어서. 어느 정도 물 맞춰 놔서.)

107030 @ 게민 풋죽이랑 녹두죽 끓일 때.(그럼 팥죽이랑 녹두죽 끓일 때.)

107030 #1 비슷허여.(비슷해.)

107030 @ 쏠을 놓잖아예?(쌀은 넣잖아요?)

107030 #1 으.(으.)

107030 @ 놓는 쏠은 곤썰로 놓는 거?(넣는 쌀은 흰쌀로 넣는 거?)

107030 #1 곤썰이나 경 안 허민 모인좁썰.(흰쌀이나 그렇게 안 하면 메조.)

107030 @ 모인좁썰?(메조?)

107030 #1 예, 예. 히린좁썰은 물이 질질질 나 불엉 안 뒈, 히린 건. 죽 쑤는 건. 밥은 좋은디.(예, 예. 차조는 물이 질질질 나 버려서. 안 돼, 차진 건. 죽 쑤는 건. 밥은 좋은데.)

107030 @ 어쨌든 곤썰은 귀허난 모인좁썰 놧어예?(어쨌든 흰쌀은 귀하니까 메조 놨어요?)

107030 #1 으. 모인좁썰로 죽 쒕.(으. 메조로 죽 쒀서.)

107030 @ 그민 아까 풋죽 쑬 때는 영 데기기도 안 데기기도. 사름에 따라 안 데경 먹는 사름도 잇젠 헷잖아예? 풋 솖아진 냥 그냥 쏠 놔 가지고?(그럼 아까 팥죽 쑬 때는 이렇게 으깨기도 안 으깨기도. 사람에 따라 안 으깨서 먹는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팥 삶아진 양 그냥 쌀 넣어 가지고?)

107030 #1 으.(으.)

107030 @ 녹두죽도 안 데기기도 헙니까?(녹두죽도 안 으깨기도 합니까?)

107030 #1 녹두는 데겨.(녹두는 으깨.)

107030 @ 거의 데겨?(거의 으깨.)

107030 #1 으, 으, 녹두는 거의 데겨.(으, 으, 녹두는 거의 으깨.)

107030 @ 데겨 가지고 거기 쏠 놩.(으깨 가지고 거기 쌀 넣어서.)

107030 #1 으, 으.(으, 으.)

107031 @ 이제랑예, 독죽 끓여 주십서, 독죽.(이제는요, 닭죽 끓여 주세요, 닭죽.)

107031 #1 독죽은, 독은 미릇에 독을 놩 숢당게.(닭죽은, 닭은 미리 닭을 놔서 삶다가.)

107031 @ 으, 숢당.(으, 삶다가.)

107031 #1 익으민게.(익으면.)

107031 @ 익으믄.(익으면.)

107031 #1 익으믄 거 건져 내영, 건져 내영 고기 다 찢어근에 뚜로 찢어 놔. 고기만 먹는 사름은 고기만도 더러 먹주만은 이제 또 고기 못 먹으민 그 뻬다귀 국물 더레 놩 또 우려.(익으면 거 건져 내서, 건져 내서 고기 다 찢어서 따로 찢어 놔. 고기만 먹는 사람은 고기만도 더러 먹지만 이제 또 고기 못 먹으면 그 뼈다귀 국물로 놔서 또 우려.)

107031 @ 으.(으.)

107031 #1 경 헹 뻬다귀 건져 두고 이제 쏠 놩 쒀 먹는 거주게, 독죽은.(그렇게 해서 뼈다귀 건져 두고 이제 쌀 넣어서 쒀 먹는 거지, 닭죽은.)

107031 @ 으, 게난 고기 숢아지민 고기만 튿어 먹고.(으, 그러니까 고기 살아지면 고기만 뜯어 먹고.)

107031 #1 으, 먹게 뒈면 다 뜯어 먹게 뒈믄 그 뻬다귀만 놩 숢당 그 뻬다귀 건져 뒁 숢아난 국물에 헤영 또 쏠 헤영 먹주만은, 고기를 먹당 남으민 고기도 그레 더러 놔근에.(으, 먹게 되면 다 뜯어 먹게 되면 그 뼈다귀만 놔서 삶다가 그 뼈다귀 건져 둬서 삶았던 국물에 해서 또 쌀 해서 먹지만, 고기를 먹다가 남으면 고기도 그리 더러 놔서.)

107031 @ 찢어 놩?(찢어 놔서?)

107031 #1 찢어 놩.(찢어 놔서.)

107031 @ 게민 독죽 숢을 때도 마찬가지고 좁썰 놔 가지고, 흐린좁썰?(그럼 닭죽 삶을 때도 마찬가지고 좁쌀 넣어 가지고, 차조?)

107031 #1 모인좁썰.(메조.)

107031 @ 아, 모인좁썰.(아, 메조.)

107031 #1 으, 모인좁썰 놩 엿날엔. 으, 독죽도.(으, 메조 넣어서 옛날엔. 으, 닭죽도.)

107031 @ 둑죽도예. 혹시 깅이죽도 헹 먹어낫수과?(닭죽도요. 혹시 게죽도 해서 먹었습니까?)

107032 #1 깅이죽도 헹 먹어낫주.(게죽도 해서 먹었었지.)

107032 @ 깅이죽은 어떵?(게죽은 어떻게?)

107032 #1 깅이 헤다근에 이젠 또 그걸 그냥 금방 허면은 저 무시것고, 무신 오줌낸가 무신 ᄒᆞ꼼 냄새나. 그거 ᄒᆞ꼼 이디 오라근에 든물에 우려 둬근에, 우리당 이제 건져 내영 뺏앙.(게죽 해다가 이젠 또 그걸 그냥 금방 하면 저 무엇이고, 무슨 오줌내인가 무슨 조금 냄새나. 그거 조금 여기 와서 단물에 우려 둬서, 우리다가 이제 건져 내서 빻아서.)

107032 @ 으.(으.)

107032 #1 뺏앙.(빻아서.)

107032 @ 어디 든물에 놩 우리단? 물에 그냥 담가 둔다는 얘기?(어디 단물에 놔서 우리다가? 물에 그냥 담가 둔다는 얘기?)

107032 #1 으, 으. 무신 박세기나 낭푼에 놩.(으, 으. 무슨 바가지나 양푼에 놔서.)

107032 @ 아.(아.)

107032 #1 낭푼에나 놩 ᄒᆞᆫ 멧 시간 커 두믄 오줌을 다 싸 부는 거라.(양푼에나 놔서 한 몇 시간 담가 두면 오줌을 다 싸 버리는 거야.)

107032 @ 아, 깅이가?(아, 게가?)

107032 #1 으, 깅이. 그대로 허면은 ᄒᆞ꼼 지렁내 나, 비릇허게 ᄒᆞ꼼 냄새나.(으, 게. 그대로 하면 조금 지린내 나, 비릿하게 조금 냄새나.)

107032 @ 예.(예.)

107032 #1 경허난 그거 우려 뒁. 경헤영 건져 냉 방에, 저 엿날에 돌혹도 셔나고.(그러니까 그거 우려 둬서. 그러해서 건져 내서 방아, 저 옛날에 돌확도 있었고.)

107032 @ 예.(예.)

107032 #1 경 안허민 도고리.(그렇지 않으면 함지박.)

107032 @ 도고리.(함지박.)

107032 #1 엿날 낭도고리.(옛날 나무 함지박.)

107032 @ 낭도고리.(나무 함지박.)

107032 #1 그것에 이제 마께로 뺏아.(그것에 이제 방망이로 빻아.)

107032 @ 뺏앙.(빻아서.)

107032 #1 막 뺏앙 물 짜.(마구 빻아서 물 짜.)

107032 @ 으.(으.)

107032 #1 물 짜면은 이제 깅이, 깅이 물 허고 모인좁썰허고 놩 쑤면은 깅이죽. 막 맛좋아.(물 짜면 이제 게, 게 물 하고 메조하고 넣어서 쑤면 게죽. 아주 맛있어.)

107032 @ 기민 물 짜는 거는 뭐, 뭐 험벅에 헤가지고?(그럼 물 짜는 거는 뭐, 뭐 헝겊에 해 가지고?)

107032 #1 아니, 그냥 체로 걸려. 즘진 체가 잇어낫어. 그걸로 걸려.(아니, 그냥 체로 걸러. 가는 체가 있었어. 그걸로 걸러.)

107032 @ 아, ᄀᆞ는체 헹?(아, 가는체 해서?)

107032 #1 으, ᄀᆞ는체.(으, 가는체.)

107032 @ 건져 둉 그 국물만 놩?(건져 둬서 그 국물만 놔서?)

107032 #1 국물만 놩, 국물만 놔도 틀막틀막 맛이 잇어.(국물만 놔서, 국물만 놔도 '틀막틀막' 맛이 있어.)

107032 @ 아.(아.)

107032 #1 국 끌려도 맛좋고, 죽 쒀도 맛좋고 깅이.(국 끓여도 맛있고, 죽 쒀도 맛있고 게.)

107032 @ 아.(아.)

107032 #1 그러믄 이 엿날부터라도 이 뻬가. 뻬가 아프지 안헌덴.(그러면 이 옛날부터라도 이 뼈가. 뼈가 아프지 않는다고.)

107032 @ 뻬가.(뼈가.)

107032 #1 경헤영덜 만이 헤당 먹어낫어.(그렇게들 많이 해다가 먹었었어.)

107032 @ 깅이죽 하영 먹엇구나.(게죽 많이 먹었구나.)

107032 #1 보깡도 먹곡.(볶아서도 먹고.)

107032 @ 깅이죽 하영 끌령 먹엇수과?(게죽 많이 끓여서 먹었습니까?)

107032 #1 아니, 경 만이도 못 허여, 자꾸 헤 오지 못허영.(아니, 그렇게 많이도 못 해, 자꾸 해 오지 못해.)

107032 @ 아.(아.)

107032 #1 것도 물때 맞추고 또 한걸허곡 영 헤야 허주게. 경 자꾸 강 잡지 못허여. 또 바람 쎄도 못 가고.(것도 물때 맞추고 또 한가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 그렇게 자주 가서 잡지 못해. 또 바람 세도 못 가고.)

107032 @ 예.(예.)

107032 #1 추워도 못 가고.(추워도 못 가고.)

107032 @ 예.(예.)

107032 #1 여름 때에, 여름 때가 만이 나곡. 겨울엔 잘 엇어.(여름 때에, 여름 때가 많이 나고. 겨울에 잘 없어.)

107032 @ 아. 마찬가지로 깅이죽 끓일 때도 쏠은 좁썰 놩예?(아. 마찬가지로 게죽 끓일 때도 쌀은 좁쌀 넣어서요?)

107032 #1 그 옛날에 좁썰, 모인좁썰, 모인좁썰.(그 옛날에 좁쌀, 메조, 메조.)

107024 @ 경헹 어떤 죽을 막 하영 끓영 먹어낫수과? 아까 ᄀᆞᆯ은 죽 중에.(그렇게 어떤 죽을 아주 많이 끓여서 먹었습니까? 아까 말한 죽 중에.)

107024 #1 엿날에는게 어려우니까 밥은 허젠 허믄 쏠 하영 들고 허니까 그자 좁썰죽게. 보리썰로는 죽 못 쒀.(옛날에는 어려우니까 밥은 하려고 하면 쌀 많이 들고 하니까 그저 좁쌀죽. 보리쌀로는 죽 못 쒀.)

107024 @ 으.(으.)

107024 #1 밥은 허면은 밥은 불어나근에 남으면은 물 ᄒᆞ꼼 헤근에 팔랑팔랑 솖앙 먹어지주만은.(밥은 하면 밥은 불어서 남으면 물 조금 해서 팔랑팔랑 삶아서 먹을 수 있지만.)

107024 @ 으.(으.)

107024 #1 제라허게 죽을 쑤젠 허면은 좁썰 놔야.(제대로 죽을 쑤려고 하면 좁쌀 넣어야.)

107024 @ 좁썰.(좁쌀.)

107024 #1 으. 주로 좁썰이주.(으. 주로 좁쌀이지.)

107024 @ 예.(예.)

107024 #1 좁썰에 무신 감저도 서끄곡. 경 안허믄 썰어 놓곡. 경 안허믄 저 늠삐덜도 썰어 놩 죽 헹 먹어낫어.(좁쌀에 무슨 고구마도 섞고. 그렇지 않으면 썰어 놓고. 그렇지 않으면 저 무들도 썰어 넣어서 죽 해서 먹었었어.)

107024 @ 음.(음.)

107024 #1 그 만허렌.(그 많으라고.)

107024 @ 그 양이?(그 양이?)

107024 #1 양이 만허게, 양이.(양이 많게, 양이.)

107024 @ 게난 죽 헐 때도 막 그런 거 썰어 놘?(그러니까 죽 할 때도 마구 그런 거 썰어 넣었어?)

107024 #1 예.(예.)

107024 @ 밥 헐 때말고도?(밥 할 때말고도?)

107024 #1 어. 죽에도. 죽에도 감저 거튼 거영 늠삐 같은 거영 썰어 놩 먹어. 소곱은 시원허여. 흰죽만, 쏠죽만 너무 먹어 가면은.(어. 죽에도. 죽에도 고구마 같은 거와 무 같은 거와 썰어 넣어서 먹어. 속은 시원해. 흰죽만, 쌀죽만 너무 먹어 가면.)

107033 @ 게민 아까 ᄀᆞᆯ은 죽 말고 다른 죽들 뭐 또 잇수과?(그럼 아까 말한 죽 말고 다른 죽들 뭐 있습니까?)

107033 #1 뭣이 잇어?(뭐가 있어?)

107033 @ 호박죽?(호박죽?)

107033 #1 호박은 엿날에는이 호박죽 거튼 건 잘 안 쒄게.(호박은 옛날에는 호박죽 같은 건 잘 안 쒔어.)

107033 @ 안 쒄?(안 쒔어?)

107033 #1 으, 호박은 엿날 경 이제 거치 만이덜 경 집집이 싱그지도 안혀고 헷주기. 어떵산디 그거는.(으, 호박은 옛날 그렇게 이제 같이 많이들 그렇게 집집이 심지도 않고 했지. 어떠해서인지 그거는.)

107033 @ 으.(으.)

107033 #1 지금, 요즘에야 막 호박, 호박 헴주기. 엿날은 그거는 경 만이 아니

허난 거 닮아져.(지금, 요즘에야 마구 호박, 호박 하지. 옛날은 그거는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거 같아.)

107033 @ 아, 기과. 안 먹언?(아, 그렇습니까. 안 먹었어?)

107033 #1 으. 엿날에 주로 먹는 거 기자 놈삐.(으. 옛날에 주로 먹는 거 그저 무.)

107033 @ 으.(으.)

107033 #1 ᄂᆞ물.(나물.)

107033 @ 으.(으.)

107033 #1 메역, 그런 거.(미역, 그런 거.)

107033 @ 아, 옛날에 호박 막 하영 안 헤낫구나.(아, 옛날에 호박 아주 많이 안 했었구나.)

107033 #1 하영 안 헌 거 닮아져.(많이 안 한 거 같아.)

107033 @ 기다예. 그 노란 호박 가졍 죽 쑤젠 허민 어떵 쑵니까?(그렇네요. 그 노란 호박 가지고 죽 쑤려고 하면 어떻게 쑵니까?)

107033 #1 난 요즘도 경 호박죽은 안 쒀 봔.(난 요즘도 그렇게 호박죽은 안 쒀 봤어.)

107033 @ 안 쒀 봔마씨?(안 쒀 봤어요?)

107033 #1 으, 으. 호박죽덜은 잘 안 쒀.(으, 으. 호박죽들은 잘 안 쒀.)

107033 @ 으, 으. 죽이였고예. 꿩죽 같은 거 안 헤 먹엇수과?(으, 으. 죽이었고요. 꿩죽 같은 거 안 해 먹었습니까?)

107033 #1 꿩죽도 안 헤 먹어 보고. 꿩죽도 저 독죽이나 비싯헐 거라, 몰라도.(꿩죽도 안 해 먹어 보고. 꿩죽도 저 닭죽이나 비슷할 거야, 몰라도.)

107033 @ 예.(예.)

107033 #1 겐디 독죽, 꿩, 꿩고기가 질겨.(그런데 닭죽, 꿩, 꿩고기가 질겨.)

107033 @ 음. 꿩은 ᄆᆞ물수제비랑 만이 헹 먹엇지예?(음. 꿩은 메밀수제비랑 많이 해서 먹었지요?)

107033 #1 경헷주. 이레 경 꿩덜은 벨로 안 먹어.(그랬지. 이리 그렇게 꿩들은 별로 안 먹어.)

범벅과 수제비

107034 @ 이제랑예, 범벅이랑 ᄌᆞ베기 물어보쿠다예. 범벅이랑 ᄌᆞ베기.(이제는요, 범벅이랑 수제비 물어보겠습니다. 범벅이랑 수제비.)

107034 #1 으.(으.)

107034 @ 범벅 종류에는 뭐가 잇수과, 범벅 종류?(범벅 종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범벅 종류?)

107034 #1 범벅 종류에는 보리범벅도 잇고, ᄆᆞ물범벅도 잇고, 조펌벅도 잇고 뭐.(범벅 종류에는 보리범벅도 있고, 메밀범벅도 있고 조범벅도 있고 뭐.)

107034 @ 조펌벅.(조범벅.)
107034 #1 ᄆᆞ물펌벅.(메밀범벅.)
107034 @ ᄆᆞ물펌벅.(메밀범벅.)
107034 #1 보리범벅.(보리범벅.)
107034 @ 아, 보리범벅도 잇수과?(아, 보리범벅도 있습니까?)
107034 #1 보리 ᄀᆞ룰로 헤근에 범벅 만들주게.(보리 가루로 해서 범벅 만들지.)
107034 @ 보리 ᄀᆞ룰로 허면.(보리 가루로 하면.)
107034 #1 으. ᄀᆞ룰로.(으. 가루로.)
107034 @ 게믄 ᄆᆞ물, 조, 보리 다 범벅 만들 때는 ᄀᆞ루로 허는 거라예?(그럼 메밀, 조, 보리 다 범벅 만들 때는 가루로 하는 거지요?)
107034 #1 ᄀᆞ루로.(가루로.)
107034 @ ᄀᆞ루로예. 게민 범벅에 뭐 놔? 조범벅 헐 때 뭐 놩 헙니까?(가루로요. 그럼 범벅에 뭐 넣어? 조범법 할 때 뭐 넣고 합니까?)
107034 #1 감저.(고구마.)
107034 @ 거의 감저?(거의 고구마?)
107034 #1 예, 감저, 감저.(예, 고구마, 고구마.)
107034 @ ᄆᆞ물 범벅에도 감저?(메밀 범벅에도 고구마?)
107034 #1 감저가 주로.(고구마가 주로.)
107034 @ 범벅 만들어 줍서. 보리든 조든 ᄆᆞ물이든. 어떵 만듭니까?(범벅 만들어 주세요. 보리든 조든 메밀이든. 어떻게 만듭니까?)
107034 #1 어떵 만들아게 그, 그냥 그 보리, 첨 저 무시것고 감저나 저 무수나 또 무시것고 한 가지. 익혀 놔.(어떻게 만들어 그, 그냥 그 보리, 첨 저 무엇이지 고구마나 저 무나 또 무엇이지 한 가지. 익혀 놔.)
107034 @ 가루를?(가루를?)
107034 #1 아니, 그 감저를.(아니, 그 고구마를.)
107034 @ 아, 감저를.(아, 고구마를.)
107034 #1 익혀 놔근에 이제 익혀근에 물 ᄒᆞ꼼 이만이 ᄒᆞ꼼 놩, 물 좀 놓은 정도로 ᄀᆞ루를 영 영 허트는 거라. 만이도 말곡게. 만이, 물이 만허믄 만이 허주기만은 족게 허면은 ᄀᆞ룰 족게 놓고 허영 젓어 가믄 범벅 뒈 불어.(익혀 놔서 이제 익혀서 물 조금 이만큼 조금 놔서, 물 좀 넣은 정도로 가루를 이렇게 이렇게 섞는 거야. 많이도 말고. 많이, 물이 많으면 많이 하지만 적게 하면 가루 적게 넣고 해서 저어 가면 범벅 돼 버려.)
107034 @ 아.(아.)
107034 #1 경 튼튼헤 불어.(그렇게 튼튼해 버려.)
107034 @ 기민 ᄀᆞ루를 물에 영 풀어 놩?(그럼 가루를 물에 이렇게 풀어 놔서?)
107034 #1 아니, 아니. 그냥 ᄀᆞ룰로.(아니, 아니. 그냥 가루로.)
107034 @ 그냥 감저 솖으는 디에?(그냥 고구마 삶는 데에?)

107034 #1 으, 솖으는 더레 솔 솔 솔 솔.(으, 삶는 데에 살 살 살 살.)
107034 @ 감저 좀 익으고 나민?(고구마 좀 익고 나면?)
107034 #1 으, 익어, 익어 가민.(으, 익어, 익어 가면.)
107034 @ 익어 가민?(익어 가면?)
107034 #1 으.(으.)
107034 @ 거기에 ᄀᆞ루를 솔 솔 솔 솔 헤영 젓어 가민, 젓어 가민 범벅 뒈여.(거기에 가루를 살 살 살 살 해서 저어 가면, 저어 가면 범벅 돼.)
107034 #1 어, 어. 범벅 뒈여.(어, 어. 범벅 돼.)
107034 @ 그 물에 맞춰 ᄀᆞ루 양을 정허는 거?(그 물에 맞춰서 가루 양을 정하는 거?)
107034 #1 으.(으.)
107034 @ 무슨 범벅이 맛좋아낫수과?(무슨 범벅이 맛있었습니까?)
107034 #1 ᄆᆞ물범벅이 맛좋주게.(메밀범벅이 맛있지.)
107034 @ ᄆᆞ물범벅이.(메밀범벅이.)
107034 #1 비싸니까. ᄆᆞ물이 질 비싸낫주게.(비싸니까. 메밀이 젤 비쌌었지.)
107034 @ 아, 기과?(아, 그렇습니까?)
107034 #1 으. ᄆᆞ물은 매 집이 갈지도 안허고. 또 우리 동네 벨로 ᄆᆞ물 엇어. ᄆᆞ물 허젠 허믄 어디 오일장에나 어디 가야 사지.(으. 메밀은 매 집에 갈지도 않고. 또 우리 동네 별로 메밀 없어. 메밀 하려고 하면 어디 오일장에나 어디 가야 사지.)
107034 @ 아. 깅이 놩 범벅도 헹 먹어낫수과?(아, 게 넣어서 범벅도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34 #1 그건 몰라. 다른 사름덜은 헹 먹어나신디. 우린 안 헹 먹어 본디.(그건 몰라. 다른 사람들은 해서 먹었었는지. 우린 안 해서 먹어 봤는데.)
107034 @ 게민 감자, 생감자 말고 뻿데기로도 범벅?(그럼 고구마, 생고구마 말고 절간고구마로도 범벅?)
107034 #1 으. 뻿데기로도 ᄀᆞᆯ앙, ᄆᆞᆯ령. ᄆᆞᆯ령 ᄀᆞᄅᆞᆯ 멘들앙. 그걸로도 헹 먹어낫주. 그걸로는.(으. 절간고구마로도 갈아, 말려서. 말려서 가루 만들어서. 그걸로도 해서 먹었었지. 그걸로는.)
107034 @ 아, 뻿데기도 ᄀᆞᄅᆞᆯ 멘들앙?(아, 절간고구마도 가루 만들어서?)
107034 #1 으, 으.(으, 으.)
107034 @ 게민 네 종류가 잇다예. 모물, 조, 보리.(그럼 네 종류가 있네요. 메밀, 조, 보리.)
107034 #1 뻿데기.(절간고구마.)
107034 @ 뻿데기, 뻿데기 ᄀᆞ루예. 감저 ᄀᆞ루예?(절간고구마, 절간고구마 가루요. 고구마 가루요?)
107034 #1 으.(으.)
107034 @ 게민 감저 ᄀᆞ루 헐 때도 감저 놩?(그럼 고구마 가루 할 때도 고구마

넣어서?)

107034 #1 감저 놔야주게.(고구마 넣어야지.)

107034 @ 아, 하하. 요거 맛잇겠다. 뻿데기 가루로 헌 거. 막 돌코롬헐 거 같애?(아, 하하. 요거 맛있겠다. 절간고구마 가루로 한 거. 아주 달콤한 거 같아?)

107034 #1 어, 돌코롬허여.(어, 달콤해서.)

107034 @ 이거에 이거 놓으민 완전 돌코롬헐 거 같애.(이거에 이거 넣으면 완전 달콤할 거 같아.)

107034 #1 으.(으.)

107035 @ 아. 뻿데기 ᄀᆞ루 헐 때도 감저 놩예. 이제는 ᄌᆞ베기 물어보쿠다예.(아. 절간고구마 가루 할 때도 고구마 넣어서요. 이제는 수제비 물어보겠어요.)

107035 #1 ᄌᆞ베긴 ᄆᆞ물ᄎᆞ베기게. 조ᄎᆞ베기도 잇고. 보리ᄎᆞ베기도 잇고. 다 그걸로도 만들아.(수제빈 메밀수제비. 조수제비도 있고. 보리수제비도 있고. 다 그거로도 만들어.)

107035 @ 아, 그걸로도 다 ᄌᆞ베기 헙니까?(아, 그걸로도 다 수제비 합니까?)

107035 #1 으, 으. ᄌᆞ베기 만들아져.(으, 으. 수제비 만들 수 있어.)

107035 @ 아.(아.)

107035 #1 ᄀᆞ룰로, ᄀᆞ룰만 헤 오민 ᄌᆞ베기 뒈주게.(가루로, 가루로만 해 오면 수제비 되지.)

107035 @ 여기는 아까 ᄆᆞ물 귀허덴 헷잖아예?(여기는 아까 메밀 귀했다고 했잖아요?)

107035 #1 으.(으.)

107035 @ 게민, ᄆᆞ물ᄌᆞ베기?(그럼, 메밀수제비?)

107035 #1 ᄆᆞ물ᄎᆞ베긴 벨로. 기제서 때나베끼. 식게 때 허고 멩질 때나베끼 ᄌᆞ베긴 안 헹 먹어봣주게.(메밀수제빈 별로. 제사 때나밖에. 제사 때 하고 명절 때나밖에 수제빈 안 해서 먹어봤지.)

107035 @ 식게 때, 멩질 때 ᄌᆞ베기 헹 먹엇수과?(제사 때, 명절 때 수제비 해서 먹었습니까?)

107035 #1 아니, 떡. 그런 때.(아니, 떡. 그런 때.)

107035 @ 아.(아.)

107035 #1 상에 올리젠 허믄.(상에 올리려고 하면.)

107035 @ 아, 떡.(아, 떡.)

107035 #1 으. 세미떡[222], 인절미떡.(으, 세미떡, 인절미떡.)

107035 @ 아.(아.)

107035 #1 ᄆᆞ물ᄀᆞ룰로이 세미, 인절미.(메밀가루로 세미, 인절미.)

107035 @ 세미, 인절미. 이따 또 한 번 물어볼 거우다이. 세미, 인절미. 아, 그

222) '세미떡'은 메밀가루나 쌀가루 따위를 반죽해 반달 모양으로 만든 후에 안에 팥소 등을 넣어 만들어서 솥에서 찌거나 삶아낸 떡을 말한다.

럼 그때만 ᄆᆞ물이 잇엇고. 그 외에는, ᄌᆞ베기 무슨 ᄀᆞ루로 주로 헤 먹엇수과?(‘세미’, 인절미. 이따 또 한 번 물어볼 겁니다. ‘세미’, ‘인절미’. 아, 그럼 그때만 메밀이 있었고. 그 외에는, 수제비 무슨 가루로 주로 해 먹었습니까?)

107035 #1 보리ᄎᆞ베기게.(보리수제비.)

107035 @ 보리ᄎᆞ베기.(보리수제비.)

107035 #1 보리쏠 ᄀᆞᆯ앙게.(보리쌀 갈아서.)

107035 @ 으. 보리ᄎᆞ베기를 젤 하영 헤 먹엇어.(으. 보리수제비를 젤 많이 먹었어.)

107035 #1 게.(그래.)

107036 @ 보리쏠 ᄀᆞᆯ앙. 그 ᄎᆞ베기도 잇고 그 반죽 헤가지고 칼로 썰엉 칼처베기?(보리쌀 갈아서. 그 수제비도 있고 그 반죽 해 가지고 칼로 썰어서 칼국수?)

107036 #1 칼, 칼, 칼국수.(칼, 칼, 칼국수.)

107036 @ 칼국수렌 헷수과, 칼저베기렌 헷수과?(칼국수라고 했습니까, 칼국수라고 했습니까?)

107036 #1 칼국수, 칼국순디 그 엿날엔 ᄌᆞ베기나베끼 무슨 그런 칼국수여 무시거여 경 한걸히 헹 먹어보진 못 헤연, 우린. 몰라 경 헹 먹는 사름도 잇긴 잇엇지게.(칼국수, 칼국순데 그 옛날엔 수제비나밖에 무슨 그런 칼국수며 무슨 거며 그렇게 한가하게 해서 먹어보진 못 했어, 우린. 몰라 그렇게 해서 먹는 사람도 있긴 있었지.)

107036 @ 으, 으.(으, 으.)

107036 #1 ᄒᆞ꼼 영 엿날이나 이제나 잘사는 사름도 잇고 ᄒᆞ꼼 아주 못 사는 사름도 잇곡게. 어떵.(조금 이렇게 옛날이나 이제나 잘사는 사람도 있고 조금 아주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107035 @ 그럼, 저베기 만들젠 허민, 물 끓영?(그럼, 수제비 만들려고 하면 물 끓여서?)

107035 #1 물 끓여근에게.(물 끓여서.)

107035 @ 반죽헤영?(반죽해서?)

107035 #1 반죽헤영.(반죽해서.)

107035 @ 반죽헹?(반죽해서?)

107035 #1 반죽헤근에 저 숟그락으로 똑똑 그차 놔. 물은 끌려 가멍.(반죽해서 저 숟가락으로 똑똑 끊어 놔. 물은 끓여 가면서.)

107035 @ 끓여 가멍?(끓여 가면서?)

107035 #1 으, 솟디 봉. 끌어 가면은 똑똑 숟구락, 숟구락 그 밥 먹는 숟구락으로 그차 놓면은 덩어리져근에 익어.(으, 솥에 넣어서. 끓여 가면 똑똑 숟가락, 숟가락 그 밥 먹는 숟가락으로 끊어 넣으면 덩어리져서 익어.)

107035 @ 게민 거기 ᄂᆞ물 거튼 거 안 놓고?(그럼 거기 나물 같은 거 안 넣고?)

107035 #1 아니, ᄂᆞ물도 놓게 뒈민, 주로 ᄂᆞᆷ삐 하영 놓지 ᄂᆞᆷ삐.(아니, 나물도 넣

게 되면, 주로 무 많이 넣지 무.)

107035 @ 아, 놈삐예.(아, 무요.)

107035 #1 옛날부떠 놈삐덜은 셔나난.(옛날부터 무들은 있었으니까.)

107035 @ 으.(으.)

107035 #1 놈삐, 배춘 셔나난.(무, 배춘 있었어.)

107035 @ 아, 우영에 놈삐, 배추예.(아, 터앝에 무, 배추요.)

107035 #1 아니, 요디 강 사당이라도게. 이녁 우영에 잘 안 허여.(아니, 여기 가서 사다가라도. 자기 터앝에 잘 안 해.)

107035 @ 놈삐도 사당 먹엇수과?(무도 사다가 먹었습니까?)

107035 #1 아니, 그 놈삐 거튼 거는 중산촌[223]더레 가민 만이 갈아낫주게.(아니, 그 무 같은 거는 '중산촌'으로 가면 많이 갈았었지.)

107035 @ 음, 저디 상가? 상가 가민?(음, 저기 상가? 상가 가면?)

107035 #1 상가[224]보단도 저 납읍[225].(상가보다도 저 납읍.)

107035 @ 아, 납읍더레.(아, '납읍'으로.)

107035 #1 예, 예.(예, 예.)

김치

107037 @ 이번에는 짐치 물어보쿠다. 짐치.(이번에는 김치 물어보겠습니다. 김치.)

107037 #1 짐치.(김치.)

107037 @ 짐치 종류에는 뭐가 잇수과?(김치 종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107037 #1 ᄂᆞ물짐치, 짐치덜?(나물김치, 김치들?)

107037 @ 으, 짐치덜.(으, 김치들.)

107037 #1 짐치 종륜 뭐 허젠 허민 다 헷주기게.(김치 종륜 뭐 하려고 하면 다 했지.)

107037 @ 으, 게난 그 일름을 ᄒᆞᆫ 번 ᄀᆞᆯ아 봅서. 일름을?(으, 그러니까 그 이름을 한 번 말해 주세요. 이름을?)

107037 #1 게, ᄂᆞ물짐치, 놈삐짐치.(그래, 나물김치, 무김치.)

107037 @ 놈삐짐치.(무김치.)

107037 #1 파짐치.(파김치.)

107037 @ 파짐치. 파짐치렌 헷수과, 패마농짐치렌 헷수과?(파김치. 파김치라고 했습니까, '패마농짐치'라고 했습니까?

107037 #1 패마농짐치.('패마농짐치'.)

107037 @ 패마농짐치, 또 뭐 이신고?(파김치, 또 뭐 있을까요?)

107037 #1 패마농짐치.(파김치.)

---

223) '중산촌'으로 해발 100미터에서 300미터의 고지대인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마을을 가리킨다.
224) '상가'는 제주시 애월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인 상가리를 말한다.
225) '납읍'은 제주시 애월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인 납읍리를 말한다.

107037 @ 으, 꿩마농짐치도 헤낫수과?(으, 달래김치도 했었습니까?)

107037 #1 꿩마농짐치도 드물주게. 꿩마농덜도 헤 오젠 허믄 엿날엔 저. 이렌 엇으난.(달래김치도 드물지. 달래들도 해 오려고 하면 옛날엔 저. 이런 없으니까.)

107037 @ 으.(으.)

107037 #1 저 우터레 가야 헤 올 거난 거 매 집이 안 허여.(저 위로 가야 해 올 거니까 거 매 집에 안 해.)

107037 @ 아.(아.)

107037 #1 꿩마농은.(달래는.)

107037 @ 으.(으.)

107037 #1 그자 주로 놈삐, 이 배추, 패마농 그런 거주게.(그저 주로 무, 이 배추, 달래 그런 거지.)

107037 @ 예, 그런 거 헷던 거예?(예, 그런 거 했던 거요?)

107037 #1 으, 으.(으, 으.)

107037 @ 갯ᄂᆞ물짐치도 헤낫수과?(갓나물김치도 했었습니까?)

107037 #1 갯ᄂᆞ물짐치도 잘 안 허여. 매 집이 엇어 그것도.(갯나물김치도 잘 안 해. 매 집에 없어, 그것도.)

107037 @ 아, 매 집이 엇어.(아, 매 집에 없어.)

107037 #1 어, 어. 허기는 허는디이.(어, 어. 하기는 하는데.)

107037 @ 역시 재료 구허는 게 문제구나예?(역시 재료 구하는 게 문제군요?)

107037 #1 예, 예. 이녁 집이 엇으믄 그런 대로 넘어가주기게.(예, 예. 자기 집에 없으면 그런 대로 넘어가지.)

107037 @ 으, 으.(으, 으.)

107037 #1 이녁 집이 신 사름덜은 그런 것도 잘 헹 먹엇주만은.(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잘 해서 먹었지만.)

107037 @ 으. 게민 배추는 배추 허젠 허민 어디 강, 납읍 강 사 오고, 무수랑 사 오고?(으, 그럼 배추는 배추 하려고 하면 어디 가서, 납읍 가서 사 오고, 무랑 사 오고?)

107037 #1 그런 배추 거튼 건 이녁 집이서 어떵 어떵 허영 먹엇어.(그런 배추 같은 건 자기 집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먹었어.)

107037 @ 아, 질롸?(아, 길러서?)

107037 #1 그런 건 사오지 안 허고. 놈삐는 사단 먹어낫어, 놈삐.(그런 건 사오지 않고. 무는 사다가 먹었엇어, 무.)

107037 @ 아. 놈삐를 사?(아. 무를 사?)

107037 #1 으, 놈삐는 이녁 집이서 잘 못헤난 엿날엔.(으, 무를 자기 집에서 잘 못하니까 옛날엔.)

107037 @ 아.(아.)

107037 #1 씨도 엇주만은.(씨도 없지만.)

107037 @ 아.(아.)

107037 #1 그건 저, 그것도 저 중산촌에 가근에 사단.(그건 저, 그것도 저 '중산촌'에 가서 사다가.)

107037 @ 기민 고, 김치 헤 먹젠 허민 고추가 셔살 거 아니과?(그럼 고, 김치 해 먹으려고 하면 고추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107037 #1 고추, 고추ᄀᆞ룰덜도 여간 땅 신 사름덜은 싱거근에 허엿주만은(고추, 고춧가루들도 여간 땅 있는 사람들은 심어서 했지만.)

107037 @ 집이서?(집에서?)

107037 #1 으. 쪼금씩 그것도, 그 엿날부터 장은 셔나니까.(으. 조금씩 그것도, 그 옛날부터 장은 있었으니까.)

107037 @ 으.(으.)

107037 #1 오일장이여 무슨 칠일장이여.(오일장이야 무슨 칠일장이야.)

107037 @ 으.(으.)

107037 #1 그 장에 강 ᄒᆞ꼼썩 사당, 하영 아니 놩게. ᄒᆞ꼼씩 놓나 노는 첵만 헤영.(그 장에 가서 조금씩 사다가, 많이 아니 넣어서. 조금씩 넣거나 넣는 척만 해서.)

107037 @ 고내리에선 어느 장에 갑니까?(고내리에선 어느 장에 갑니까?)

107037 #1 애월장[226].(애월장.)

107037 @ 애월장?(애월장?)

107037 #1 으, 애월장.(으, 애월장.)

107037 @ 예.(예.)

107037 #1 귀일장[227].(귀일장.)

107037 @ 어?(어?)

107037 #1 저, 엄젱이[228]도 셔, 신엄[229]도 셔나고. 애월, 주로 애월장에 뎅겻주게, 고낸.(저, '엄젱이'도 있어, 신엄도 있었고. 애월, 주로 애월장에 다녔었지, 고낸.)

107037 @ 아, 신엄을 엄젱이렌 ᄀᆞᆯ앗수과?(아, 신엄을 '엄젱이'라고 말했습니까?)

107037 #1 엄젱이.('엄젱이'.)

107038 @ 엄젱이. 아, 기다예? 이제 김치 하나씩 물으쿠다예. 배추짐치, 배추짐치렌 헷수과, ᄂᆞ물짐치렌 헷수과?('엄젱이', 아, 그렇네요? 이제 김치 하나씩 물겠습니다. 배추김치, 배추김치라고 했습니까, 나물김치라고 했습니까?)

107038 #1 ᄂᆞ물짐치, 섭ᄂᆞ물짐치.(나물김치, 잎나물김치.)

107038 @ 썹ᄂᆞ물짐치. 예, 예. 썹ᄂᆞ물짐치, 그럼 썹ᄂᆞ물짐치 좀 ᄀᆞᆯ아줍서,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거 언제 헤 먹어? 엿날에 김장은 안 헤낫어?(잎나물김치. 예, 예. 잎나물김치, 그럼 잎나물김치 좀 말씀해 주세요,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거 언제 해

226) '애월장'은 제주시 한림읍 애월리에서 5일마다 열리는 시장을 말한다. 3, 8로 끝나는 날짜에 열린다.
227) '귀일장'은 '귀일'에서 열렸던 장으로, '귀일'은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의 옛 이름이다.
228) '엄젱이'는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의 옛 이름이다.
229) '신엄'은 제주시 애월읍의 행정 마을의 하나인 신엄리를 말한다.

먹어? 옛날에 김장은 안 했었어?)

107038 #1 아니, 그것이 김치. 김장이 김치.(아니, 그것이 김치. 김장이 김치.)

107038 @ 아. 김장. 그럼 썹ᄂᆞ물짐치는?(아. 김장. 그럼 잎나물김치는?)

107038 #1 썹ᄂᆞ물은 그냥 어떵어떵 허당 보민 이녁 대로 씨 허영.(잎나물은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보면 자기 대로 씨 해서.)

107038 @ 으.(으.)

107038 #1 우영 시면은, 땅 시믄 거 갈앙.(터앝 있으면, 땅 있으면 거 갈아서.)

107038 @ 으.(으.)

107038 #1 경 안 헤영 이녁 땅이 엇이면은 엿날에 밧, ᄂᆞ물덜 갈렌 헤근에 영 ᄒᆞ꼼 헤당 먹을 만썩 삭 줘. 돈 ᄒᆞ꼼 줭, 놈의 밧디. 경헹덜 강 ᄒᆞᆫ 고지썩 이 너베기로 헹.(그렇게 안 해서 자기 땅이 없으면 옛날에 밭, 나물들 갈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해다가 먹을 만큼씩 삯 줘서. 돈 조금 줘서, 남의 밭에. 그렇게들 가서 한 이랑씩 이 넓이로 해서.)

107038 @ 아.(아.)

107038 #1 일로 헤근에 저만썩, 일로면 저 만큼. 경헤근에 이제 다 이녁 직시썩 갈아. 갈아근에 이제 엿날엔 주로 오줌.(일로 해서 저만큼씩, 일로면 저 만큼. 그래서 이제 다 자기 몫씩 갈아. 갈아서 이제 옛날엔 주로 오줌.)

107038 @ 걸름이엔 헌 거?(거름이라고 한 거?)

107038 #1 굽으로 강 주엉. 겡 헹 키와. (굽으로 가서 줘서. 그렇게 해서 키워.)

107038 @ 으.(으.)

107038 #1 겡 이제 커.(그렇게 이제 커.)

107038 @ 싱그는 건 뭐로 싱그는 거? 씨로?(심는 건 뭐로 심는 거?)

107038 #1 씨로게 ᄂᆞ물 씨, ᄂᆞ물 씨는 어떵 어떵 허멍 그거 구헐 수가 잇어.(씨로 나물 씨, 나물 씨는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그거 구할 수가 있어.)

107038 @ 으.(으.)

107038 #1 경허영 허면은 이제 크면은 이젠 칼로 강, 호미로 강 캐여.(그러해서 하면 이제 크면 이젠 칼로 가서, 낫으로 가서 캐.)

107038 @ 그거 영 묶어 주거나는 안 헙니까?(그거 이렇게 묶어 주거나는 안 합니까?)

107038 #1 아니게. 그런 거 아니. 속도 아무것도 읏어.(아니. 그런 거 아니. 속도 아무 것도 없어.)

107038 @ 아.(아.)

107038 #1 영 퍼데기[230], 퍼데기, 퍼데기.(이렇게 '퍼데기', '퍼데기', '퍼데기'.)

107038 @ 아.(아.)

107047 #1 경헤영 이젠 캐영, 지영 바당물에 강.(그래서 이젠 캐서, 져서 바닷물

230) '퍼데기'는 '퍼데기ᄂᆞ물'로 주로 늦은 가을이나 겨울철에 나는 나물로 속이 여물지 않고 넓게 퍼진 나물을 말한다.

에 가서.)

107047 @ 으.(으.)

107047 #1 바당물에 강 요만썩 헌 동뎅이가 잇주게. 쫀물 들어오는. 그디 강 그대로 이젠 막 담아 놩. 그 옹뎅이에 경헹 담아 놩 그 우터레 이젠 요만씩 헌 돌들 막 가졍당 지둘롸.(바닷물에 가서 요만큼씩 한 옹당이가 있지. 짠물 들어오는. 거기 가서 그대로 이젠 마구 담아 놔서. 그 옹당이에 그렇게 담아 놔서 그 위로 이젠 요만큼씩 한 돌들 마구 가져다가 지질러.)

107047 @ 겐 바닷물에 강 저리는 거?(그래서 바닷물에 가서 절이는 거?)

107047 #1 으, 저려. 겐 흔 삼일 놔두면은 사흘 밤, 사흘 나두민, 강 보믄 돌들 이제 다 일러 내영. 돌에 영 일렁 영 앗아 놓다 보민 돌 아랜 생복이 잇어.(으, 절여. 그래서 한 삼일 놔두면 사흘 밤, 나흘 놔두면, 가서 보면 돌들 이제 다 일으켜서 내어서. 돌에 이렇게 일으켜서 이렇게 가져 놓다 보면 돌 아랜 생복이 있어.)

107047 @ 아, 하하. 그 사이에 생복 들어왕 이신 거?(아, 하하. 그 사이에 생복 들어와서 있는 거?)

107047 #1 으, 으. 그거 바당물 들엇다 놧다 헐 때난.(으, 으. 그거 바닷물 밀었다 놨다 할 때니까.)

107047 @ 아이고.(아이고.)

107047 #1 요만씩 헌 거. 다 부터. 경헤근에 이젠 앗아뒁 이젠 그 물에서 시쳥, 건졍, 이젠 궤에기[231] 헤근에 이제 물, 옷 젖지 못허게 헤영 지영 구덕에 담앙 경헹 지영 왕 이젠 항에. 지영 왕, 양념이엔 헌 거는 소금 주로.(요만큼씩 한 거. 다 붙어. 그래서 이젠 가져다가 이젠 그 물에서 씻어, 건져서, 이젠 '궤에기' 해서 이제 물, 옷 젖지 못하게 해서 져서 구덕에 담아서 그렇게 지어서 와서 이젠 항에. 지어 와서, 양념이라고 한 거는 소금 주로.)

107047 @ 그때 물이 쫀물이잖아예?(그때 물이 짠물이잖아요?)

107047 #1 쫀물, 쫀물.(짠물, 짠물.)

107047 @ 그럼 든물에 한 번 헹구진 안허여? 그 쫀물에 그냥 헹궝 와?(그럼 단물에 한 번 헹구지 않아? 그 짠물에 그냥 헹궈서 와?)

107047 #1 그땐 츤물덜도 너무너무 고와낫주게. 이추룩 오염뒈지 안헐 때니깐게.(그땐 짠물들도 너무너무 고왔었어. 이처럼 오염되지 않을 때니까.)

107047 @ 아.(아.)

107047 #1 츤물더레 뭐 ᄂᆞ려가는 것이 엇주게. 이런 빗물이나 ᄂᆞ려가지.(짠물로 뭐 내려가는 것이 없지. 이런 빗물이나 내려가지.)

107047 @ 아.(아.)

107047 #1 뭐, 뭐 그냥 무신, 우리가 무신 어디 하수도가 셔, 뭣이 셔?(뭐, 뭐 그냥 무슨, 우리가 무슨 어디 하수도가 있어, 뭣이 있어?)

107047 @ 아.(아.)

231) '궤에기'는 바구니에 물기 있는 물건을 넣어 질 때에, 그 바구니 밑에 까는 깔개를 말한다.

107047 #1 경헐 때난 그자 그냥 져다근에 경허면은 촌물에 컹 온 거 ᄒᆞ꼼 싱거와. 싱거우믄 이제 소금 허영.(그럴 때니까 그저 그냥 져다가 그러면 짠물에 담가서 온 거 조금 싱거워. 싱거우면 이제 소금 해서.)

107047 @ 음.(음.)

107047 #1 소금에 홁은 소금에 허영. 소금에 ᄀᆞ치ᄀᆞ룰 ᄒᆞ꼼 서끄곡 이젠 마농. 게도 마농을 ᄒᆞ꼼 삐져 놓고.(소금에 굵은 소름에 해서. 소금에 고춧가루 조금 섞고 이젠 마늘. 그래도 마늘을 조끔 짓이겨 넣고.)

107047 @ 그 양념을 만드는 거예?(그 양념을 만드는 거요?)

107047 #1 으, 이젠. 소금에 양념을 만드는 거라.(으, 이젠. 소금에 양념을 만드는 거야.)

107047 @ 아, 그럼 배추는 영.(아, 그럼 배추는 이렇게.)

107047 #1 영, 놔두고.(이렇게 놔두고.)

107047 @ 물 빠지게예?(물 빠지게요?)

107047 #1 으, 놔두고.(으, 놔두고.)

107047 @ 이제 양념 만드는 데 고추ᄀᆞ루 넣고 거기에 소금도 넣는 거?(이제 양념 만드는 데 고춧가루 넣고 거기에 소금도 넣는 거?)

107047 #1 소금에 고치ᄀᆞ를 ᄒᆞ꼼 서끄곡 이젠 마늘 서끄곡 허면 그것이 양념.(소금에 고춧가루 조금 섞고 이젠 마늘 섞고 하면 그것이 양념.)

107047 @ 게민 소금 그거 굵은 소금인 거잖아예?(그럼 소금 그거 굵은 소금인 거잖아요?)

107047 #1 홁은 소금.(굵은 소금.)

107047 @ 그거 홁은 소금 물에 풀어 놓지도 안허고?(그거 굵은 소금 물에 풀어 넣지도 않고?)

107047 #1 아니, 그냥 그냥 속더레 속 속 속 속 속 그자 조그만씩.(아니, 그냥 그냥 속에 속 속 속 속 속 그저 조금씩.)

107047 @ 고치가루 놓고 마농?(고춧가루 넣고 마늘?)

107047 #1 마농, 마농, 마농.(마늘, 마늘, 마늘.)

107047 @ 마농 ᄲᆞ아 놓고. 게난 고칫가루는 그거 ᄆᆞᆯ령 가루는 만들엉 놔둬나수과?(마늘 빻아 넣고. 그러니까 고춧가루는 그거 말려서 가루는 만들어서 놔뒀었습니까?)

107047 #1 으, 으. 경헤도 어떵 ᄲᆞᆺ앙게. 이제 도꼬방에엔 헌 것에. 조그마헌 방에 잇주게.(으, 으. 그래도 어떻게 빻아서. 이제 절구라고 한 것에. 조그마한 방아 있지.)

107047 @ 예, 예. 남방에예?(예, 예. 남방아요?)

107047 #1 으, 남방에라도 저 엿날에 쪼그마헌 돌혹도 셔나고.(으, 남방아라도 저 옛날에 조그마한 돌확도 있었고.)

107047 @ 돌혹예?(돌확요?)

107047 #1 으, 돌혹. 돌혹에서 뻣고.(으, 돌확. 돌확에서 빻고.)

107047 @ 예, 돌혹에서 뻣아. 들어가는 양념은 소금, 고춧가루.(예, 돌확에서 빻아. 들어가는 양념은 소금, 고춧가루.)

107047 #1 고치ᄀᆞ루.(고춧가루.)

107047 @ 그 다음.(그 다음.)

107047 #1 저 마늘.(저 마늘.)

107047 @ 마농예.(마늘요.)

107047 #1 그거주게, 그거 시 가지.(그거지, 그거 세 가지.)

107047 @ 예.(예.)

107047 #1 경헤근에 이제 허믄 그, 아주 엿날엔 아주 그냥 헨도 먹어낫주만은 그 다음 쪼금 셔 가난 저 거시기 갈치 창지, 고등에 창지 그런 거 헹 딸령. 딸령 이젠 물 만들앙 그걸 이제 다시 만들앙 식형 그거 식형 그 물을 이제 서끄고 헤영 그 물도 ᄒᆞ꼼 놓고 허민 그렇게 맛이 좋아, 짐치가.(그래서 이제 하면 그, 아주 옛날엔 아주 그냥 해서도 먹었었지만 그 다음 조금 있어 가니까 저 거시기 갈치 창자, 고등어 창자 그런 거 해서 달여서. 달여서 이젠 물 만들어서 그거 이제 다시 만들어서 식혀서 그 물을 이제 섞고 해서 그 물도 조금 넣고 하면 그렇게 맛이 좋아, 김치가.)

107047 @ 갈치 창지, 고등어 창지가 어디서 나?(갈치 창자, 고등어 창자가 어디서 나?)

107047 #1 옛날엔 만이 나나서, 게도.(옛날엔 많이 났었어, 그래도.)

107047 @ 잡아난 거?(잡았던 거?)

107047 #1 잡아난. 옛날엔 그물이 엇엇주게. 낙배덜이나 강 헤 오주게. 낙배로 허여 오면은. 경허믄 이 고내 포구에도 낙배 셔낫주게.(잡았던. 옛날에 그물이 없었지. 낚배들이나 가서 해 오지. 낚배로 해 오면. 그러면 이 고내 포구에도 낚배 있었지.)

107047 @ 예.(예.)

107047 #1 그 철에는, 이제 구, 시월 때엔 이때, 이때 하영 나낫주게. 갈치, 고등어.(그 철에는, 이제 구, 시월 때엔 이때, 이때 많이 났었지. 갈치, 고등어.)

107047 @ 어.(어.)

107047 #1 경허믄 사다근에덜 창지 내영.(그러면 사다가 창자 내어서.)

107047 @ 게민 창지 내영 놔두는 거? 김치 헐 때 쓰젠?(그럼 창자 내어서 놔두는 거? 김치 헐 때 쓰려고?)

107047 #1 으, 소금에 헤영 놔두는 거.(으, 소금에 해서 놔두는 거.)

107047 @ 젓 만들앙 놔두는 거?(젓갈 만들어서 놔두는 거?)

107047 #1 어, 젓 만들앙 나뒁당 딸령.(어, 젓갈 만들어서 놔뒀다가 달여서.)

107047 @ 딸리는 거예.(달이는 거요.)

107047 #1 으, 그것이 다시.(으, 그것이 다시.)

107047 @ 그게 다시라예?(그게 다시지요?)

107047 #1 으, 으.(으, 으.)

107047 @ 기민, 그 젓 딸령 헐 때는 젓 헐 때 소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예?(그럼, 그 젓갈 달여서 할 때는 젓갈 할 때 소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107047 #1 으, 젓 헐 때, 젓 헐 때.(으, 젓갈 할 때, 젓갈 할 때.)

107047 @ 기민, 김치 양념헐 때 소금 쪼금 덜 놓겠다예?(그럼, 김치 양념할 때 소금 조금 덜 넣겠네요?)

107047 #1 으, 덜 놔.(으, 덜 넣어.)

107047 @ 그거 막 짠물 날 거니까.(그거 아주 짠물 날 거니까.)

107047 #1 경혜영 큰 항아리에 담앙, 항에 담앙 놔둬도 그것도 부족허여. 겨울에 그것이 반찬이니까.(그래서 큰 항아리에 담아서, 항에 담아서 놔둬도 그것도 부족해. 겨울에 그것이 반찬이니까.)

107047 @ 으.(으.)

107047 #1 그걸로만도. 아니믄 반찬이 엇주게.(그걸로만도. 아니면 반찬이 없지.)

107047 @ 기민, 그거 놔두는 건 땅 팡 묻어 두거나?(그럼, 그거 놔두는 건 땅 파서 묻어 두거나?)

107047 #1 아니, 그냥 그냥 뒷항에, 뒷구석에.(아니, 그냥 그냥 뒷항에 뒷구석에.)

107047 @ 뒷구석에예.(뒷구석에요.)

107047 #1 으, 경허믄 겨울엔 저 감저 거튼 건 싱그니까 감저 혜영 파당 치영 그거 내놩 썰엉 그것에. 감저.(으, 그러면 겨울에 저 고구마 같은 건 심으니까 고구마 해서 파다가 쪄서 그거 내놔서 썰어서 그것에. 고구마.)

107047 @ 아. 기민, 그 배추 싱글 때 그 밧은 놈의 밧 영 배추 잘 드는 밧이 있구나.(아. 그럼 그 배추 심을 때 그 밭은 남의 밭 이렇게 배추 잘 드는 밭이 있구나.)

107047 #1 잘 드는 밧보단 어떵허단 가까운 그런 밧덜 빈 밧 내놓는 밧이 잇어, 삭으로. 경허믄 조끔씩.(잘 드는 밭보단 어떠하다가 가까운 그런 밭들 빈 밭 내놓는 밭이 있어, 삯으로. 그러면 조금씩.)

107047 @ 동네 사름덜 나눠근에. 삭으로 내는 거라?(동네 사람들 나눠서. 삯으로 내는 거야?)

107047 #1 으.(으.)

107047 @ 이제 무수짐치 만들어 줍서. 무수짐치.(이제 무김치 만들어 주세요. 무김치.)

107047 #1 무수짐치도 뭐 뚝딱뚝딱 썰어근에 그거주기게. 양념이엔 헌 거 그자 고치.(무김치도 뭐 뚝딱뚝딱 썰어서 그거지. 양념이라고 한 거 그저 고추.)

107047 @ 무수도 바당물에 강 소금 절영 올 거?(무도 바닷물에 가서 소금 절여

서 올 거?)

107047 #1 아니. 무순 집이서 그냥.(아니. 문 집에서 그냥.)

107047 @ 굵은, 홁은 소금 뿌령.(굵은, 굵은 소금 뿌려서.)

107047 #1 으, 홁은 소금 뿌령. 뿌려근에 홁은 소금에 고칫ᄀᆞ룰 ᄒᆞ꼼 서끄고 그자.(으, 굵은 소금 뿌려서. 뿌려서 굵은 소금에 고춧가루 조금 섞고 그저.)

107047 @ 게난 배추짐치 바당에 절영 오는 건 워냑에 하영 헐 거난 한꺼번에 강 절영 오는 거?(그러니까 배추김치 바당 절여서 오는 건 워낙에 많이 할 거니까 한꺼번에 가서 절여서 오는 거?)

107047 #1 하나 족으난 옛날엔 촌물에 강 씻어낫어.(많으나 적으나 옛날엔 짠물에 가서 씻었었어.)

107047 @ 하나 족으나?(많으나 적으나?)

107047 #1 으, 하나 족으나. 집이서 씻음은 안 허여. 몸을 죽으니까 거기 가믄.(으, 많으나 적으나. 집에서 씻기는 안 해. 몸을 죽으니까 거기 가면.)

107047 @ 아.(아.)

107047 #1 몸 죽으믄 반은 절여지니까.(몸 죽으면 반은 절여지니까.)

107047 @ 음.(음.)

107047 #1 시치기도 좋고.(씻기도 좋고.)

107047 @ 음.(음.)

107047 #1 부숴지지 안허영.(부서지지 않아.)

107047 @ 맞수다, 맞수다. 경 무수짐치는 기냥 소금 뿌령.(맞수다, 맞수다. 그렇게 무김치는 그냥 소금 뿌려서.)

107047 #1 으, 소금 뿌령. 그건 집이서 허곡 썰어 놩.(으, 소금 뿌려서. 그건 집에서 하고 썰어 놔서.)

107047 @ 예. 양념은 똑같고예?(예. 양념은 똑같고요?)

107047 #1 비슷허여.(비슷해.)

107047 @ 예. 무수짐치도 하영 담앙 항아리에 담아 놓고 헷수과?(예. 무김치도 많이 담아서 항아리에 담아 놓고 했습니까?)

107047 #1 경 하영 못 먹어. 끌령 먹는 건 하영 끌령 먹어지주기게. 국 엇엉은 밥 내려가지 안 허니까, 장쿡은. 장 담아근에게 이녁이 담앙.(그렇게 많이 못 먹어. 끓여서 먹은 건 많이 끓여 먹을 수 있지. 국 없어서는 밥 내려가지 안 하니까, 장국은. 장 담아서 자기가 담아서.)

107047 @ 그거 무수 놩, 놈삐 놩.(그러 무 넣어서, 무 넣어서.)

107047 #1 놈삐 놩.(무 넣어서.)

107039 @ 열무짐치라는 게 잇잖아예?(열무김치라는 게 있잖아요?)

107039 #1 으, 지금. 옛날엔 엇어.(으, 지금. 옛날엔 없어.)

107039 @ 옛날에 엇어낫어?(옛날에 없었었어?)

107039 #1 엇어, 엇어.(없어, 없어.)

107039 @ 열무짐치를 뭐렌 골아나신고? 무슨 ᄎᆞ메기 ᄂᆞ물?(열무김치를 뭐라고 말했어나요? 무슨 'ᄎᆞ메기' 나물?)

107039 #1 ᄎᆞ마기[232]엔은 그냥 그것이 ᄂᆞᆷ삐라, ᄎᆞ마기, 어린 때부터 커 가는 거. 그때부터 무신 ᄎᆞ마기여, ᄂᆞᆷ삐여. ᄂᆞᆷ삐 어린 때에 ᄎᆞ마기엔 헤근에.('ᄎᆞ마기'라고는 그냥 그것이 무야, 'ᄎᆞ마기', 어린 때부터 커 가는 거. 그때부터 무슨 'ᄎᆞ마기'며, 'ᄂᆞᆷ삐'며, 무 어린 때에 'ᄎᆞ마기'라고 해서.)

107039 @ ᄎᆞ마기는 이파리만 잇는 걸 얘기허는 거지예?('ᄎᆞ마기'는 잎만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107039 #1 엿날엔 ᄉᆞ뭇 이파리만 잇는 건 엇어난게, 막 엿날엔.(옛날엔 사뭇 잎만 있는 건 없었으니까, 아주 옛날엔.)

107039 @ 아.(아.)

107039 #1 중간에사 그것도 나고 열무도 나고.(중간에야 그것도 나고 열무도 나고.)

107039 @ 열무도 나중에 난 거라?(열무도 나중에 난 거야?)

107039 #1 열무도 중간에사 나고.(열무도 중간에야 나고.)

107039 @ 게민 열무짐치도 나중에 헤 먹어난 거라예?(그럼 열무김치도 나중에 해 먹었던 거지요?)

107039 #1 으, 열무도 나중에.(으, 열무도 나중에.)

107039 @ 소금 절영 양념허는 건 마찬가지고?(소금 절여서 양념하는 건 마찬가지고?)

107039 #1 으, 마찬가지, 마찬가지. 벨헌 양념이 엇언, 옛날엔.(으, 마찬가지, 마찬가지. 별한 양념이 없었어, 옛날엔.)

107040 @ 음. 뭐 물짐치는?(음. 뭐 물김치는?)

107040 #1 물짐치 거튼 것도 엇고. 아이고, 어느 저를에 물짐치 출리고 ᄆᆞ른 짐치 출리고.(물김치 같은 것도 없고. 아이고, 어느 겨를에 물김치 차리고 마른 김치 차리고.)

107040 @ 하하하, 기라예. 어느 저를에 물짐치 출리고?(하하하, 그렇지요. 어느 겨를에 물김치 차리고?)

107040 #1 첨, 물짐치 출리고. 흔 가지도 어디 십디가? 흔 가지도 엇는 집인 엇어. 목심이 질기난 살아진 거주.(첨, 물김치 차리고. 한 가지도 어디 있었어? 한 가지도 없는 집엔 없어. 목숨이 질기니까 살 수 있는 거지.)

107040 @ 하하하.(하하하.)

107040 #1 먹는 것에 대행은 참 엿날. 에이구.(먹는 것에 대해서는 참 옛날. 아이고.)

107041 @ 동지짐치엔 부르는 것도 ᄯᆞ로 잇어낫수과? 아니라예?(장다리김치라고 부르는 것도 따로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232) 'ᄎᆞ마기'는 뿌리가 들기 전의 무를 말한다.

107041 #1 뚜로 엇어.(따로 없어.)

107043 @ 이제는 패마농짐치?(이제는 파김치?)

107043 #1 패마농짐치도 안 헹 먹어 봔. 그런 것도 이제거치 하영 안 싱거. 패마농도 거 엿날엔 하지 안헤난.(파김치도 안 해 먹어 봤어. 그런 것도 이제같이 많이 안 심어. 파도 거 옛날엔 많지 않았어.)

107043 @ 짐치 경 하영 안 헹 먹어난?(김치 그렇게 많이 안 해 먹었었어?)

107043 #1 아니, 짐치도 안 헹 먹어나고 패마농도 경 많이 싱그지덜을 안헤서.(아니, 김치도 안 해 먹었었고 파도 그렇게 많이 심지 않았어.)

107044 @ 싱그지 안 헤? 꿩마농?(심지 않아? 달래?)

107044 #1 꿩마농도 이 웃드르[233]렌 싯주만은 이렌 엇어.(달래도 이 '웃드르'로는 있지만 이런 없어.)

107045 @ 으. 갯ᄂᆞ물도 많지 않고예?(으. 갓나물도 많지 않고요?)

107045 #1 많지 않고.(많지 않고.)

107046 @ 예, 부추짐치?(예, 부추김치?)

107046 #1 부추짐치도 엇어. 부추면은 뭣고?(부추김치 없어. 부추면 뭐지?)

107046 @ 새우리, 새우리.('새우리', 부추.)

107046 #1 새우리. 새우리도 짐치 안 헹 먹고. 양념이나 헷주.(부추. 부추도 김치 안 해서 먹고. 양념이나 했지.)

107046 @ 아, 안 헹 먹고, 양념에나 쓰고?(아, 안 해서 먹고, 양념에나 쓰고?)

107046 #1 예. 우영에 하영, 하영덜 안 허난게. 양념이나 쪼금씩 헷주.(예. 터앝에 많이, 많이들 안 하니까. 양념이나 조금씩 했지.)

107037 @ 새우리짐치예. 게난 거의 짐치렌 헤 봐야 배추짐치랑 무수짐치예?(부추김치요. 그러니까 거의 김치라고 해 봐야 배추김치랑 무김치요?)

107037 #1 으, 그거 대목게. 그거 대목.(으, 그거 주로. 그거 주로.)

107037 @ 대목예. 나머지야 뭐 이시나 마나.(주로요. 나머지야 뭐 있으나 마나.)

107037 #1 이제야게 촌에도 이거여, 저거여 허주만은.(이제야 촌에도 이거며, 저거며 하지만.)

107037 @ 지금도 패마농짐치 안 헤 먹읍니까?(지금도 파김치 안 해 먹습니까?)

107037 #1 지금이야 헤 먹주게.(지금에야 해 먹지.)

107037 @ 패마농짐치 만들젠 허민 어떵헙니까? 지금?(파김치 만들려고 하면 어떠합니까? 지금?)

107037 #1 지금?(지금?)

107037 @ 으.(으.)

107037 #1 지금 패마농 헤다근에 절여근에게 헷당 양념 버무리믄 뒈는 거주.(지금 파 해다가 절여서 했다가 양념 버무리면 되는 거지.)

107037 @ 절엿당 양념 버무령. 양념이야 뭐.(절였다가 양념 버무려서. 양념이야

233)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 이루어진 마을을 말한다.

뭐.)

107037 #1 으, 고치, 고치, 고칫ᄀᆞ루. 이제는 뭐 몰라도.(으, 고추, 고추, 고춧가루. 이제는 뭐 몰라도.)

107037 예.(예.)

젓갈

107048 @ 젓갈 종류 좀 물어보쿠다예. 이거 드시멍 헙서.(젓갈 종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

107048 #1 아니, 난 먹언. 먹어 봐. 이거, 이것, 이것도.(아니, 난 먹었어. 먹어 봐. 이거, 이것, 이것도.)

107048 @ 예. 젓갈 종류예, 젓갈 종류에는 뭐가 잇수과?(예. 젓갈 종류요, 젓갈 종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107048 #1 젓갈이엔 험은 무신 젓갈?(젓갈이라고 함은 무슨 젓갈?)

107048 @ 멜젓, 자리젓.(멸치젓, 자리젓.)

107048 #1 아. 그것사 뭐, 뭐 여러 가지 잇는디 여러 가지 잇곡게. 우리사 보통게 자리젓, 멜첫.(아. 그거야 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있고. 우리야 보통 자리젓, 멸치젓.)

107048 @ 아까, 아까 고등어랑?(아까, 아까 고등어랑?)

107048 #1 고등어 그건 알개미젓. 그 갈치 알개미젓이엔 헌 건 막 맛 좋아.(고등어 그건 아감젓. 그 갈치 아감젓이라고 한 건 아주 맛 좋아.)

107048 @ 아.(아.)

107048 #1 지금도 그거 헴시민 맛 좋을 거라. 지금 저 무신 젓갈 잇저만은. 그 젓갈만이 헐 거라. 겐디 지금덜은 하도 헹 먹는 것덜이 하노난게.(지금도 그거 하고 있으면 맛 좋을 거야. 지금 저 무슨 젓갈 있지만. 그 젓갈만큼 할 거야. 그런데 지금들은 너무 해서 먹는 것들이 많으니까.)

107048 @ 그럼 지금 젓갈 종류 알아지는 게 자리젓, 멜첫, 그 다음 알개미젓?(그럼 지금 젓갈 종류 아는 게 자리젓, 멸치젓, 그 다음 아감젓?)

107048 #1 알개미젓.(아감젓.)

107048 @ 알개미젓예?(아감젓요?)

107048 #1 갈치 알, 알로 허는 것이 알개미젓.(갈치 알, 알로 하는 것이 아감젓.)

107048 @ 갈치 알개미젓. 고등어 창자랑?(갈치 아감젓. 고등어 창자랑?)

107048 #1 고등어 창자는 젓 가튼 거는 너무 등거와 불고 좋지 안허여. 지름 껴.(고등어 창자는 젓갈 같은 거는 너무 기름져 버리고 좋지 않아. 기름 껴서.)

107048 @ 그니까 아까 김치 허젠 허면.(그니까 아까 김치 하려고 하면.)

107048 #1 으, 짐친 허젠 허면은 그거 약간 헷당.(으, 김친 하려고 하면 그거 약간 했다가.)

107048 @ 고등어 창자랑 갈치 창.(고등어 창자랑 갈치 창.)

107048 #1 창자랑 딸령.(창자랑 달여서.)

107048 @ 그건 그냥 김치용으로만 헌 것과?(그런 그냥 김치용으로만 한 겁니까?)

107048 #1 으. 또 그건 매 사름 허지도 안헨게. 허는 사름이나 허영 먹엇주게.(으. 또 그건 매 사람 하지도 않아. 하는 사람이나 해서 먹었지.)

107048 @ 아.(아.)

107048 #1 그런 것도 매 집이 엇어.(그런 것도 매 집에 없어.)

107048 @ 매 집이 엇어예. 그럼예, 우리 젤 하영 헤 먹엇던 게 자리젓이랑.(매 집에 없어요. 그럼요, 우리 젤 많이 해 먹었던 게 자리젓이랑.)

107048 #1 멜젯.(멸치젓.)

107049 @ 멜젓이라예. 자리젓 만들어 주십서. 자리젓 허젠 허민?(멸치젓이지요. 자리젓 만들어 주세요. 자리젓 하려고 하면?)

107049 #1 자리젓 허젠 허민 엿날은 무신 그 가시도 아니 끈고 그대로.(자리젓 하려면 하면 옛날은 무슨 그 가시도 안 끊고 그대로.)

107049 @ 으.(으.)

107049 #1 그대로 이제 헤당 영 뭐 저 무시거 생복 껍데기.(그대로 이제 해다가 이렇게 뭐 저 무엇 생복 껍데기.)

107049 @ 으.(으.)

107049 #1 전복껍데기.(전복갑.)

107049 @ 으.(으.)

107049 #1 그걸로 이제 도고리에 자리 놩.(그걸로 이제 함지박에 자리돔 놔서.)

107049 @ 으.(으.)

107049 #1 이젠 그걸로 닥닥닥닥 데멩이 거튼 디 찍어. 찍지 안허민 소금이 잘 안 들어가고 군이 잘 안 뒈여.(이젠 그걸로 닥닥닥닥 대가리 같은 데 찍어. 찍지 않으면 소금이 잘 안 들어가고 간이 잘 안 돼.)

107049 @ 으.(으.)

107049 #1 겐 찍어근에 이젠 군 맞촹, 소금만 허트민 뒈는 거.(그래서 찍어서 이젠 간 맞춰서, 소금만 섞으면 되는 거.)

107049 @ 안 씻어? 상 왕, 자리 상 왕 시칠 거 아니?(안 씻어? 사고 와서, 자리돔 사고 와서 씻을 거 아니?)

107049 #1 시치지 안허여. 엿날엔 그냥. 이제는 시치고 그 비닐 벗기고 그 읖이, 그 끈어 불고 헷주만은 엿날엔 그냥.(씻지 않아. 옛날엔 그냥. 이제는 씻고 그 비늘 벗기고 그 옆에, 그 끊어 버리고 했지만 옛날엔 그냥.)

107049 @ 사 온 양 그냥?(사 온 양 그냥?)

107049 #1 으, 사 온 양 그냥, 떠 온 양 그냥.(으, 사 온 양 그냥, 떠 온 양 그냥.)

107049 @ 하하.(하하.)

107049 #1 시쳐 가민 맛엇어.(씻어 가면 맛없어.)

107049 @ 시쳐 가민 맛엇어?(씻어 가면 맛없어?)

107049 #1 으. 심심허여.(으. 심심해.)

107049 @ 그민 자리 한 말은 헷수과? 자리젓 허젠 허민 얼마나 헷수과?(그럼 자리돔 한 말은 했습니까? 자리젓 하려고 하면 얼마나 했습니까?)

107049 #1 서 말썩은 헷주게.(서 말씩은 했지.)

107049 @ 서 말.(서 말.)

107049 #1 견디 막 엿날에 서 말도 엇엇주게.(그런데 아주 옛날에 서 말도 없었지.)

107049 @ 음.(음.)

107049 #1 막 엿날엔 그자 저 원담[234]에 엿날엔 그 멜은 만이 들어낫주게, 멜덜. 멜젓이나 헹덜 그자 익으민.(아주 옛날엔 그저 저 '원담'에 옛날엔 그 멸치는 많이 들었었지, 멸치들. 멸치젓이나 해서들 그저 익으면.)

107049 @ 게민 자리젓 헐 때 한 서 말 사 왓수다예. 게민 소금은 얼마나 헤?(그럼 자리젓 할 때 한 서 말 사 왔습니다. 그럼 소금은 얼마나 해?)

107049 #1 소금은 대싱 흔 뒈쯤.(소금은 되승 한 되쯤.)

107049 @ 자리 서 말에 소금 대싱 흔 뒈?(자리돔 서 말에 소금 되승 한 되?)

107049 #1 예, 예. 엿날 저 무시것고 자리에도 경 하영 놓면 짜근에게. 그 짜게 허젠 허민 만이 들고 싱겁게 ᄒᆞ꼼 곤 맞게 허젠 허믄 대싱 흔 뒈 반이나 두 뒈 놓민 뒐 거주.(예, 예. 옛날 저 무엇이고 자리돔에도 그렇게 많이 넣으면 짜서. 그 짜게 하려고 하면 많이 들고 싱겁게 조금 간 맞게 하려고 하면 되승 한 되 반이나 두 되 넣으면 될 거지.)

107049 @ 예. 경헹 뭐에 놔가지고 머리 찍엉 소금만 서끄민 끝?(예. 그래서 뭐에 놔 가지고 머리 찍어서 소금만 섞으면 끝?)

107049 #1 으, 소금 서꺼근에 이젠 항아리에, 똑 맞은 항아리에 놔근에 뚜껑 더껑 놔두면.(으, 소금 섞어서 이젠 항아리에, 꼭 맞는 항아리에 놔서 뚜껑 덮어서 놔두면.)

107049 @ 으. 뚜껑 더껑 놔두민예?(으. 뚜껑 덮어서 놔두면요?)

107049 #1 으.(으.)

107049 @ 경헹 얼마나 놔두면 그거 먹어집니까?(그래서 얼마나 놔두면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107049 #1 흔 둘 정도 뒈 가믄 먹음 시작헐 거라.(한 달 정도 돼 가면 먹기 시작할 거야.)

107049 @ 경헹 일 년 내낭 먹어?(그래서 일 년 내내 먹어?)

---

234) '원담'은 해변 조간대에 만을 이루는 듯한 곳에 돌담을 축조해 놓고 밀물을 따라 몰려든 고기떼를 썰물이 나면 그 안에 가둬 놓아 쉬 잡을 수 있게 장치해 둔 곳이다. '갯담'이라고도 한다.

107049 #1 일 년 내낭 먹어지주기게.(일 년 내내 먹을 수 있지.)

107049 @ 아, 예.(아, 예.)

107049 #1 잘만 놔두민. 잘 안 허민 여름 나 가민 티, 저 버렝이 궤영게 것도이 그 픗리덜 엿날엔 하도 하부난.(잘만 놔두면. 잘 안 하면 여름 돼 가면 가시, 저 벌레 괴어서 것도 그 파리들 옛날엔 하도 많으니까.)

107049 @ 뚜껑 잘 씌웡 놔둬야지예?(뚜껑 잘 씌워서 놔둬야지요?)

107049 #1 으, 뚜껑 잘 씌우고.(으, 뚜껑 잘 씌우고.)

107050 @ 으.(으.)

107050 #1 뚜껑에 또 엿날에 픗리 부뜨는 푸십쉐가 잇어. 그거 헤당덜 우에 처메영도 헤나고 픗리 궤지 못허게.(뚜껑에 또 옛날에 파리 붙는 푸성귀가 있어. 그거 해다가 위에 처매어서도 했었고 파리 괴지 못하게.)

107050 @ 으, 궤지 못허게예?(으, 괴지 못하게요?)

107050 #1 으. 베낏디 놩 내부는 따문에게. 안에 놓민 안 뒈니까.(으. 밖에 놔서 내버리는 때문에. 안에 놓으면 안 되니까.)

107050 @ 자리젓 만들어시난 이제는 멜첫이우다. 멜첫?(자리젓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멸치젓입니다. 멸치젓?)

107050 #1 멜첫도 마찬가지게. 멜첫도 소금, 멜첫은 그냥 소금에 그자 멜도 쪼금 버무령.(멸치젓도 마찬가지. 멸치젓도 소금, 멸치젓은 그냥 소금에 그저 멸치도 조금 버무려서.)

107050 @ 멜은 잡아 온 걸로 헤지고?(멸치는 잡아 온 걸로 할 수 있고?)

107050 #1 헤져. 저, 저, 저 멜 거튼 거는 역불 사지는 안허고.(할 수 있어. 저, 저, 저 멸치 같은 거는 일부러 사지는 않고.)

107050 @ 예.(예.)

107050 #1 어떵 헤다근에 저 원담에 들어.(어떻게 해다가 저 '원담'에 들어.)

107050 @ 들어.(들어.)

107050 #1 들어오면은 그것덜 거려 온 건 ᄒᆞ꼼 빌어도 오고, 경 안허민 ᄒᆞ꼼씩 살 수도 잇주만은 멜젓은 경 하영덜 안 헤여. 자리젓만이.(들어오면 그것들 떠 온 건 조금 빌려도 오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살 수도 있지만 멸치젓은 그렇게 많이들 안 해. 자리젓만큼.)

107050 @ 아, 기과?(아, 그렇습니까?)

107050 #1 엿날에, 엿날에 자리젓도 경 하영덜 안 허여. 그것도 비싸고이.(옛날에, 옛날에 자리젓도 그렇게 많이들 안 해. 그것도 비싸고.)

107050 @ 어무닌 아까 서 말은 헤낫잖아예, 자리젓은?(어머닌 아까 서 말은 했었잖아요, 자리젓은?)

107050 #1 으, 하영 난 때. 경 안허믄 ᄒᆞᆫ 말. 보통 ᄒᆞᆫ 말, ᄒᆞᆫ 말정도고. 이제나 서 말이여 너 말이여 허주. 옛날에덜은.(으, 많이 난 때. 그렇지 않으면 한 말. 보통 한 말, 한 말 정도고. 이제나 서 말이야 너 말이야 하지. 옛날에들은.)

107050 @ 게민 자리 흔 말 헐 때 멜은 얼마나 헷어, 멜은?(그럼 자리돔 한 말 할 때 멸치는 얼마나 했어, 멸치는?)

107050 #1 멜은 시믄 신 대로 흔 말도 허고 흔 뒈도 허곡게.(멸치는 있으면 있는 대로 한 말도 하고 한 되도 하고.)

107050 @ 아, 흔 말도 허고 흔 뒈도 허고?(아, 한 말도 하고 한 되도 하고?)

107050 #1 으, 으. 대싱 흔 뒈도 하.(으, 으. 되승 한 되도 많아.)

107050 @ 으. 멜도 씻지 안허여?(으. 멸치도 씻지 않아?)

107050 #1 으, 멜도 씻지 안허여.(으, 멸치도 씻지 않아.)

107050 @ 그냥 가져온 양.(그냥 가져온 양.)

107050 #1 으.(으.)

107050 @ 그거는 머리도 안 두드릴 거 아니?(그거는 머리도 안 두드릴 거 아니?)

107050 #1 아니, 두드령 그냥 그대로 소금 버무리민 뒈여.(아니, 두드려서 그냥 그대로 소금 버무리면 돼.)

107050 @ 소금 얼마나 놩? 멜 흔 말에?(소금 얼마나 넣어서? 멸치 한 말에?)

107050 #1 멜 그 짜게 허젠 허믄 짜게 허주만은 싱겁게 헤근에 곤 맞게 행 먹젠 허믄, 멜은 소금이 또 덜 들어.(멸치 그 짜게 하려고 하면 하지만 싱겁게 해서 간 맞게 해서 먹으려고 하면, 멸치는 소금이 또 덜 들어.)

107050 @ 아, 멜이 덜 들어?(아, 멸치가 덜 들어?)

107050 #1 으, 으. 경허고 또 멜은 너미 이만씩 홁으민 데멩이 쫄라 뒁도 허고 경 안허민 준 거는, 요만씩 헌 거는 그대로 머리채 행.(으, 으. 그러고 또 멸치는 너무 이만큼씩 굵으면 대가리 잘라 둬서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잔 거는, 요만큼씩 한 거는 그대로 머리째 해서.)

107050 @ 머리 쫄라 부는 거는 머리에서 고린내 나 부난? 무사 쫄라 부는 거라?(머리 잘라 버리는 거는 머리에서 고린내 나 버리니까? 왜 잘라 버리는 거야?)

107050 #1 으, 홁은 멜, 멜 데멩이 홁은 건 맛은 엇언게. 그릇이나 츠지허주게.(으, 굵은 멸치, 멸치 대가리 굵은 건 맛은 없어서. 그릇이나 차지하지.)

107051 @ 아, 경헤부난. 음, 이 창자 가졍 아감젓이렌 허는 게 알개미젓?(아, 그러니까. 음, 이 창자 가져서 아감젓이라고 하는 게 아감젓?)

107051 #1 알개미젓.(아감젓.)

107051 @ 아. 이게 알개미젓이구나.(아. 이게 아감젓이구나.)

107051 #1 아감젓이렌 써젼?(아감젓이라고 쓰였어?)

107051 @ 예. 표준어로.(예. 표준어로.)

107051 #1 우리는 알개미젓은 헤나서.(우리는 아감젓은 했었어.)

107051 @ 게민 이 알개미젓은 거의 갈치를 얘기허는 것과?(그럼 이 아감젓은 거의 갈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107051 #1 으, 으. 갈치ᄀᆞ라 알개미젓. 갈치 알이 알개미젓. 엿날에는 ᄀᆞᆯ아낫저.

(으, 으. 갈치보고 아감젓. 갈치 알이 '알개미젓'. 옛날에는 말했었어.)

107051 @ 그럼 아까 자리젓이나 멜젓은, 자리젓은 몇 월쯤에 둠급니까?(그럼 아까 자리젓이나 멸치젓은, 자리젓은 몇 월쯤에 담급니까?)

107051 #1 자리 ᄋᆞ름에.(자리 여름에.)

107051 @ 여름에. 멜도 여름에?(여름에. 멸치도 여름에?)

107051 #1 멜은 여름 아니. 겨울에도 나와.(멸치는 여름 아니. 겨울에도 나와.)

107051 @ 아, 겨울에.(아, 겨울에.)

107051 #1 으, 여름에 잘 안 나와.(으, 여름에 잘 안 나와.)

107051 @ 아, 게민 갈치 알개미젓은?(아, 그럼 갈치 아감젓은?)

107051 #1 갈치 이제, 이제.(갈치 이제, 이제.)

107051 @ 아, 이제 나올 거예. 이 ᄀᆞ슬에예.(아, 이제 나올 거요. 이 가을에요.)

107051 #1 으, ᄀᆞ실에.(으, 가을에.)

107052 @ ᄀᆞ실에 나올 거. 깅이젓도 헤낫수과?(가을에 나올 거. 게젓도 했었습니까?)

107052 #1 우린 안 헤 봐도 허는 사름덜은 만이 허지. 그거 만이 잡아 오지 못허연게.(우린 안 해 봐도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하지. 그거 많이 잡아 오지 못했어.)

107052 @ 깅이 통째로 젓갈 담는 거?(게 통째로 젓갈 담는 거?)

107052 #1 으, 으. 요만씩 헌 거 헤당 준준헌 거.(으, 으. 요만큼씩 한 거 해다가 자잘한 거.)

107052 @ 갈치 알은 갈치 손질헹 알만 모아 가지고 젓 담으는 거?(갈치 알은 갈치 손질해서 알만 모아 가지고 젓 담그는 거?)

107052 #1 갈치?(갈치?)

107052 @ 으.(으.)

107052 #1 구셍이째. 머리에 그 데멩이에 빨강헌 거 신 거 그거채. 그거채 헤야 맛이 잇어.(아가미째. 머리에 그 대가리에 빨간 거 있는 거 그거째. 그거째 해야 맛이 있어.)

107052 @ 게민 머리 짤랑?(그럼 머리 잘라서?)

107052 #1 머리 쫄르지 안허고 그냥 아궁이 영.(머리 자르지 않고 그냥 아궁이 이렇게.)

107052 @ 아가미?(아가미?)

107052 #1 아가미에로 영 돌라내는 것이 잇어. 베설에 부뜬 양. 아가미로 그냥 영 돌라내는. 부뜬 양 돌라내여.(아가미로 이렇게 돌라내는 것이 있어. 배설에 붙은 양. 아가미로 그냥 이렇게 돌라내는. 붙은 양 돌라내.)

107052 @ 부뜬 양 돌라냉.(붙은 양 돌라내서.)

107052 #1 어. 부뜬 양 데싸 내는 수가 잇어.(어. 붙은 양 뒤집어 내는 수가 있어.)

107052 @ 그민 그거 가졍.(그럼 그거 가져서.)

107052 #1 으, 으.(으, 으.)

107052 @ 젓을 만드는 거?(젓을 만드는 거?)

107052 #1 으, 으. 고등에는 창지만 끄차근에 그 아궁이는 데껴 불어. 그 아궁지에 부떠난 거. 너미 ᄂᆞ실앙. 맛이 엇어 부난 고등에는.(으, 으. 고등어는 창자만 끊어서 그 아가미는 던져 버려. 그 아가마에 붙었던 거. 너무 날카로워서. 맛이 없어 버리니까 고등어는.)

107052 @ 아.(아.)

107052 #1 겐디 갈치는 그 아궁이까지 놔야 맛이 잇어. 그냥 닥닥 찍어근에 잘도 맛이 좋아, 저 갈치 알개미젓은.(그런데 갈치는 그 아가미까지 넣어야 맛이 있어. 그냥 닥닥 찍어서 잘도 맛이 좋아, 저 갈치 아감젓은.)

107052 @ 뭐로 닥닥 찍언?(뭐로 닥닥 찍었어?)

107052 #1 칼로게. 돔베에 놩.(칼로. 도마에 놓고.)

107052 @ 아, 돔베에 놩. 막 다져난 다음.(아, 도마에 놔서. 마구 다진 다음.)

107052 #1 으, 다져.(으, 다져.)

107052 @ 그 다음 소금 버무려?(그 다음 소금 버무려?)

107052 #1 아니, 먹을 때.(아니, 먹을 때.)

107052 @ 아, 먹을 때.(아, 먹을 때.)

107052 #1 그냥 버무령 놔뒁당.(그냥 버무려서 놔뒀다가.)

107052 @ 버무려 놔뒁당 먹을 때는 막 다져 놔. 알개미젓, 예, 예. 우리 출레[235]렌 허면 출레, 출레.(버무려 놔뒀다가 먹을 때는 마구 다져 놔. 아감젓, 예, 예. 우리 '출레'라고 하면 '출레', '출레'.)

107054 #1 출레.('출레'.)

107054 @ 출레렌 허면 뭐를 출레렌 ᄀᆞᆫ는 것과?('출레'라고 하면 뭐를 '출레'라고 말하는 겁니까?)

107054 #1 뭐를 출레렌 헤게, 자리젓ᄀᆞ라 출레, 멜첫ᄀᆞ라도 출레.(뭐를 '출레'라고 해, 자리젓보고 '출레', 멸치젓보고도 '출레'.)

107054 @ 기민 지시도 출레렌 헤?(그럼 장아찌도 '출레'라고 해?)

107054 #1 으?(으?)

107054 @ 지시. 마농지시도 출레렌 헤?(장아찌. 마늘장아찌도 '출레'라고 해?)

107054 #1 마농지?(마늘장아찌?)

107054 @ 으.(으.)

107054 #1 짠 건 출레.(짠 건 '출레'.)

107054 @ 짠 건 출레.(짠 건 '출레'.)

107054 #1 엿날에 짠 건 출레.(옛날에 짠 건 '출레'.)

107054 @ 맞수다, 맞수다. 짠 건 출레예.(맞수다, 맞수다. 짠 건 '출레'요.)

107054 #1 짠 건 출레.(짠 건 '출레'.)

235) '출레'는 밥과 곁들어 먹는 장, 젓 따위의 반찬을 말한다.

107054 @ 갈치 지진 거나 고등어 구운 건 출레렌 안 헤예?(갈치 지진 거나 고등어 구운 건 '출레'라고 안 해요?)

107054 #1 으, 그건 그냥. 그건 반찬 기자 그냥.(으, 그건 그냥. 그건 반찬 그저 그냥.)

107054 @ 짠 건 출레.(짠 건 '출레'.)

107054 #1 짠 건, 저 저 소금에 절어근에 짠 종륜 출레. 찬 건 출레.(짠 건, 저 저 소금에 절여서 짠 종륜 '출레'. 짠 건 '출레'.)

107054 @ 으. 게민 멜 몰린 것도 지져 먹잖아예?(으. 그럼 멸치 말린 것도 지져서 먹잖아요?)

107054 #1 으.(으.)

107054 @ 그런 것도 출레렌 헐 건가?(그런 것도 '출레'라고 할 건가?)

107054 #1 아니, 그건 출레 아니. 그냥 멜 지진 거.(아니, 그건 '출레' 아니. 그냥 멸치 지진 거.)

107054 @ 하하하.(하하하.)

107054 #1 소금에 놩 젓 헌 것ᄀᆞ라만 출레.(소금에 놔서 젓 한 것보고만 '출레'.)

107054 @ 아, 기라.(아, 그래.)

장아찌와 회

107055 @ 그 지시 종류에는 뭐 잇수과, 지시 종류?(그 장아찌 종류에는 뭐 있습니까, 장아찌 종류?)

107055 #1 지시가 뭣인고?(장아찌가 뭐지?)

107055 @ 마농지시.(마늘장아찌.)

107055 #1 마농지?(마늘장아찌.)

107055 @ 으, 마농지. 아, 여긴 마농지우다예?(으, 마늘장아찌. 아, 여긴 '마농지'요?)

107055 #1 마농지, 마농지.(마늘장아찌, 마늘장아찌.)

107055 @ 옛날말론 마농지예?(옛날말론 마늘장아찌요?)

107055 #1 으, 마농지, 마농지.(으, 마늘장아찌, 마늘장아찌.)

107055 @ 지 종류에는 뭐 잇수과? 마농지 그거밖에? 마농지도 대도 잇고 머리도 잇고?(장아찌 종류에는 뭐 있습니까? 마늘장아찌 그거밖에? 마늘장아찌도 대도 있고 머리도 있고?)

107055 #1 그 머리는 지 아니 혀. 그냥 마농 뿔리로만 지 허지.(그 머리는 마늘장아찌 안 해. 그냥 마늘 뿌리로만 장아찌 하지.)

107055 @ 뿔리.(뿌리.)

107055 #1 으, 뿔리.(으, 뿌리.)

107055 @ 뿔리로 지 허고 이 줄기, 줄기.(뿌리로 장아찌 하고 이 줄기, 줄기.)

107055 #1 줄기는 그냥 뭐 데우청덜토 무청 먹곡게.(줄기는 그냥 뭐 데쳐서도 무쳐서 먹고.)

107055 @ 줄긴 지 안 헙니까?(줄긴 장아찌 안 합니까?)

107055 #1 줄기로 난 안 헤 부난 몰라. 거 헹 먹는 사름덜은 헹 먹엄신가?(줄기로 난 해 버리니까 몰라. 거 해서 먹는 사람들은 해서 먹고 있나?)

107055 @ 으.(으.)

107055 #1 헹 먹는 딘 헹 먹을 거라.(해서 먹는 덴 해서 먹을 거야.)

107055 @ 뿔리도 허고.(뿌리도 하고.)

107055 #1 아, 마농지는게 그 뿔리영 부쩡게.(아, 마늘장아찌는 그 뿌리와 붙여서.)

107055 @ 마농대, 이 대?(마늘대, 이 대?)

107055 #1 으, 마농지게 그것도.(으, 마늘장아찌 그것도.)

107055 @ 아, 그것도 마농지?(아, 그것도 마늘장아찌?)

107055 #1 으, 그것도 마농지.(으, 그것도 마늘장아찌.)

107055 @ 뿔리도 마농지?(뿌리도 마늘장아찌?)

107055 #1 뿔리도 마농지.(뿌리도 마늘장아찌.)

107055 @ 아, 똑같애?(아, 똑같아?)

107055 #1 으. 게난 뿔리 생기기 전에 마농질 헤 불엄주게. 뿔리 크기 전에.(으, 그러니까 뿌리가 생기기 전에 마늘장아찔 해 버리지. 뿌리 크기 전에.)

107055 @ 막 컹도?(아주 커서도?)

107055 #1 건 세영 못 허여. 대가 세여 불어. 대가 질겨 불어.(건 세서 못 해. 대가 세 버려. 대가 질겨 버려.)

107055 @ 그니까 대 헐 때는, 대 헌 때는?(그러니까 대 할 때는, 대 한 때는?)

107055 #1 대 헐 때는 마농 뿔리가.(대 할 때는 마늘 뿌리가.)

107055 @ 엇일 때 맞아마씨?(없을 때 맞아요?)

107055 #1 어, 어. 생겨갈 때.(어, 어. 생겨갈 때.)

107055 @ 생겨갈 때고 그 다음 막 마농 컸을 때도 마농 콥대사니 까근에 그것도 지 헙니게?(생겨갈 때고 그 다음 아주 마늘 컸을 때도 마늘 마늘 까서 그것도 장아찌 하지요?)

107055 #1 지 허주. 그건 ᄋᆞ물로게.(장아찌 하지. 그건 여물로.)

107055 @ ᄋᆞ물로.(여물로.)

107055 #1 겁죽 벳겨 두고.(거죽 벗겨 두고.)

107055 @ 겁죽 벳겨 두고.(거죽 벗겨 두고.)

107055 #1 으, 으.(으, 으.)

107055 @ 게민 그것도 마농지?(그럼 그것도 마늘장아찌?)

107055 #1 그것도 마농지.(그것도 마늘장아찌.)

107055 @ 대도 마농지?(대도 마늘장아찌.)

107055 #1 대도 마농지.(대도 마늘장아찌.)

107055 @ 이 뿌리 가졍 헌 건 콥데사니지렌은 안 헙니까?(이 뿌리 가져서 한 건 '콥데사니지'라고는 안 합니까?)

107055 #1 콥데사니지엔은 안 헤영 마농지.('콥데사니지'라고는 안 하고 마늘장아찌.)

107056 @ 아. 마농지엔만 헤예? 콥데사니지렌 안 헹예?(아. 마늘장아찌라고만 해요? '콥데사니지'라고는 안 해요?)

107056 #1 몰라 요즘은 그 으물로만 깐 건 곱데사니지엔사 헴신지. 으물로 깐 거는. 그 전이덜은 다 마농지, 마농지엔만 헤낫주.(몰라 요즘은 그 여물로만 깐 건 '콥데사니지'라고 하는지. 여물로 깐 거는. 그 전에는 다 마늘장아찌, '마농지'라고만 했었지.

107056 @ 마농지, 마농지?(마늘장아찌, 마늘장아찌?)

107056 #1 으, 엿날에.(으, 옛날에.)

107056 @ 그 마농지 허젠 허믄 어떵 만듭니까?(그 마늘장아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만듭니까?

107056 #1 마농지 그 옛날엔게 장물에만 컨 헤낫주기게. 경 무슨 이제거치 술 놓고 식초 놓고 새콤달콤허게 안 헤서 옛날엔. 완전히 짜게만 헷다근에 그거 쪼끔씩 쪼끔씩 찢어 먹엇주게.(마늘장아찌 그 옛날엔 간장에만 담가서 했었지. 그렇게 무슨 이제같이 술 넣고 식초 넣고 새콤달콤하게 안 해서 옛날엔. 완전히 짜게만 했다가 그거 조금씩 조금씩 찢어 먹었지.)

107056 @ 아.(아.)

107056 #1 장물에만.(간장에만.)

107056 @ 장물에만.(간장에만.)

107056 #1 이녁 집이 만든 장물에만. 헤난디 이제는 막 마농지 허젠 허믄 막 신경덜 써근에 여러 가지 놓는 셍이란게. 난 요즘 아니 헹 먹어 봐도.(자기 집에서 만든 간장에만. 했었는데 이제는 마구 마늘장아찌 하려고 하면 마구 신경들 써서 여러 가지 넣는 모양이야. 난 요즘 안 해서 먹어 봐도.)

107056 @ 장물에 그냥 마농 그걸 담아 부는 거?(간장에 그냥 마늘 그걸 담가 버리는 거?)

107056 #1 어게. 마농 장물에 컹, 장물에 컹, 죽음 허믄, 짠짠허믄 건졍덜 찢엉 먹어낫주게.(그래. 마늘 간장에 담가서, 간장에 담가서, 죽으면, 짜디짜면 건져서들 찢어서 먹었었지.)

107057 @ 경허민 끝예? 훼, 자리훼나 그런 종류가, 훼 만들어 먹어난 거. 자리훼도 잇고 생선은 어떤 물고기 바당궤기 어떤 것덜?(그러면 끝요? 회, 자리회나 그런 종류가, 회 만들어 먹었던 거. 자리회도 있고 생선은 어떤 물고기 바닷고기 어떤 것들?)

107057 #1 엿날에, 아주 엿날엔 자리허고 조기, 저 상이. 상이엔 헌 거 저 가시

상이여 무신 콥상이 그런 걸로나 훼 헹 먹어낫주기. 지금거치 뭐 뭐. 지금은 갈치로도 헌다, 고등에로도 헌다, 무신 거 코셍이로도 헌다, 뭐 그런 거 안 헤연, 엿날에. 단지 엿날에 헹 먹어난 거 그 저 조기. 아주 엿날에. (옛날에, 아주 옛날엔 자리하고 조기, 저 상어. 상어라고 한 거 저 가시줄상어며 무슨 곱상어며 그런 걸로나 회해서 먹었었지. 지금같이 뭐 뭐. 지금은 갈치로도 한다, 고등어로도 한다, 무슨 거 용치놀래기 한다, 뭐 그런 거 안 했어, 옛날에. 단지 옛날에 해서 먹었던 거 그 저 조기. 아주 옛날에.)

107057 @ 조기도 훼 헹 먹어낫수과?(조기도 회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57 #1 으, 조기, 조기가 좋아.(으, 조기, 조기가 좋아.)

107057 @ 아, 기구나.(아, 그렇구나.)

107057 #1 조기, 각제기.(조기, 전갱이.)

107057 @ 각제기도 훼 헹 먹고?(전갱이도 회 해서 먹고?)

107057 #1 으, 엿날에. 막 옛날 아니고 중간에 헷주만은. 막 옛날엔, 아주 옛날에는 상이, 상이엔 헌 거 잇어나서, 상이.(으, 옛날에. 아주 옛날 아니고 중간에 했지만. 아주 옛날엔, 아주 옛날에는 상어, 상어라고 한 거 있었어. 상어.)

107057 @ 상이가 뭐과?(상어가 뭡니까?)

107057 #1 이제 그 막 위험헌 콥상이엔 헌.(이제 그 아주 위험한 곱상어라고 하는.)

107057 @ 아, 상어, 상어.(아, 상어, 상어.)

107057 #1 상어.(상어.)

107057 @ 아.(아.)

107057 #1 상어 엿날엔. 돔바리렌 헌 거 요만씩 헹 조그만씩 조그만씩 헌 거 막 낚아 와낫주게. 그런 거.(상어 옛날엔, 돔발상어라고 한 거 요만큼씩 해서 조그만씩 조그만씩 한 거 마구 낚아 왔었지. 그런 거.)

107057 @ 으.(으.)

107057 #1 요만씩 허영 요만씩, 요만씩 헌 거 셔난. 낙배로덜 강 막 하영.(요만큼씩 해서 요만큼씩, 요만큼씩 한 거 있었어. 낚배로들 가서 아주 많이.)

107057 @ 그 상이가 만아낫수과?(그 상어가 많았었습니까?)

107057 #1 만허여. 만이덜 헹 와나서. 경허면은 그걸로 훼도 헹 먹고 그거 썰어 놩덜 초장에 적졍덜도 먹곡. 그 엿날에 아주 옛날에.(많아. 많이들 해 왔었어. 그러면 그것로 회도 해서 먹고 그거 썰어 놔서들 초장에 적져서도 먹고. 그 옛날에 아주 옛날에.)

107057 @ 아.(아.)

107057 #1 우리 어린 때엔 그런 생각이 나.(우리 어린 때엔 그런 생각이 나.)

107057 @ 아. 상이가 많았구나. 게난 상이, 조기, 각제기, 그 다음 자리예?(아. 상어가 많았구나. 그러니까 상어, 조기 전갱이, 그 다음 자리돔요?)

107057 #1 자리. 그거주기게, 엿날은.(자리. 그거지, 옛날은.)

107057 @ 게민 옛날에 방어 같은 건 안 먹어난?(그럼 옛날에 방어 같은 건 안 먹었어?)

107057 #1 아니, 아니 그런 건 엇어.(아니, 아니 그런 건 없어.)

107057 @ 엇어낫어?(없었어.)

107057 #1 흠치 방어여 무시거여. 무시거 거 엇어.(아예 방어며 무엇이며. 무엇 거 없어.)

107057 @ 우럭, 우럭은?(우럭, 우럭은?)

107057 #1 으, 우럭은 셔난. 우럭 헤도 우럭은 지젼이나 먹곡 캇다근에 그자 지숙[236]이나 쓰곡. 기제서 때에. 우럭, 셍선 그런 건 제숙 쓰는 거.(으, 우럭은 있었어. 우럭 해도 우럭은 지져서나 먹고 배를 갈랐다가 그저 '지숙'이나 쓰고. 기제사 때에. 우럭, 옥돔 그런 건 '제숙' 쓰는 거.)

107057 @ 제사 때. 으. 제서 때 미역국 끓일 때도 셍선 놩 미역국 끓엿수과? 국 끓일 때, 겡 끓일 때?(제사 때. 으. 제사 때 미역국 끓일 때도 생선 놔서 미역국 끓였습니까? 국 끓일 때, 갱 끓일 때?)

107057 #1 겡 끓일 때, 으.(갱 끓이 때, 으.)

107057 @ 셍선 놩 국 끓엿수과? 겡 끓이젠 허믄?(옥돔 놔서 국 끓였습니까? 갱 끓이려고 하면?)

107057 #1 겡 끌리 때 으, 바닷궤기 끌리젠 허믄.(갱 끓일 때 으, 바닷고기 끓이려고 하면.)

107057 @ 셍선 놩?(옥돔 놔서?)

107057 #1 셍성.(옥돔.)

107057 @ 으, 겡 끓이고예. 혹시 여기도 새끼훼도 먹어나지 안헨예?(으, 갱 끓이고요. 혹시 여기도 '새끼회'도 먹었었지 않아요?)

107057 #1 엿날에는 엇엇주게. 새끼훼[237]? 도새기 새끼훼?(옛날에는 없었지. '새끼회'? 돼지 '새끼회'.)

107057 @ 예, 도새기 새끼훼.(예, 돼지 '새끼회'.)

107057 #1 엿날엔 그런 거 잘 엇어.(옛날엔 그런 거 잘 없어.)

107057 @ 아, 잘 엇어난.(아, 잘 없었어.)

107057 #1 으, 으 엿날에 그거 어떵 어느 저를에 그거를 허영 먹어?(으, 으 옛날에 그거 어떻게 어느 겨를에 그거를 해서 먹어?)

107057 @ 동네 추렴 안 헙니까?(동네 추렴 안 합니까?)

107057 #1 추렴헤도 경 새끼 벤 도새기를 추렴헤여? 그냥 그 수톳 헤영.(추렴해도 그렇게 새끼 밴 돼지를 추렴해? 그냥 그 수퇘지 해서.)

107057 @ 으.(으.)

107057 #1 막 술지게끔 질롱, 고기만 하게꾸리.(아주 살지게끔 길러서, 고기만

236) '지숙'은 제상(祭床)에 올리는 고기나 생선류를 말한다. '제숙'이라고도 한다.
237) '새끼훼' 주로 돼지의 태반 속의 새끼로 만든 회를 가리킨다.

많게끔.)

107057 @ 아.(아.)

107057 #1 막 솔지게만 질황.(아주 살지게 길러서.)

107058 @ 아. 그럼 우리 계절마다 뭐 반찬이 ᄐᆞ난 게 잇어낫구과? 봄에 하영 먹어난 거, 여름에 하영 먹어난 거. 여름에는 막 냉국 같은 것도?(아. 그럼 우리 계절마다 뭐 반찬이 다른 게 있었었구나? 봄에 많이 먹었던 거, 여름에 많이 먹었던 거. 여름에는 마구 냉국 같은 것도?)

107058 #1 냉국게.(냉국.)

107058 @ 헹 먹어실 거고예?(해서 먹었을 거고요?)

107058 #1 으.(으.)

107058 @ 봄에는 뭐 고사리 헹 반찬헹 먹어신가?(봄에는 뭐 고사리 해서 반찬해서 먹었나요?)

107058 #1 고사린 경 흔허게 먹어보지 안허연. 그자 멩질 때, 제서 때 무시걸로나 헷낫지, 탕쉬로나 헹 헷주. 반찬으로 헹 먹어 보지 안 허연, 고사린.(고사린 그렇게 흔하게 먹어보지 않았어. 그저 명절 때, 제사 때 무엇으로나 했었지, 탕쉬로나 해서 했지. 반찬으로 해서 먹어 보지 않았어, 고사린.)

107058 @ 고사리 반찬으로 헹 먹어보지 못허여.(고사리 반찬으로 해서 먹어보지 못해.)

107058 #1 어떵 경 웃드르[238]에 꺼끄레 잘 안 가.(어떻게 그렇게 '웃드르'에 꺾으러 잘 안 가.)

107058 @ 일 허기 바빠부난.(일 하기 바쁘니까.)

107058 #1 으. 일이 바쁘고 먹음이 바빠노난 그자.(으. 일이 바쁘고 먹기가 바쁘니까 그저.)

107058 @ 고사린 안 허고, 여름엔 뭐 먹어난 거.(고사린 안 하고, 여름엔 뭐 먹었던 거?)

107058 #1 여름엔 냉국이고.(여름엔 냉국이고.)

107058 @ 가을에 뭐 주로 하영 먹엇던 거 이신가?(가을에 뭐 주로 많이 먹었던 거 있나요?)

107058 #1 가을에는 뭐 무시걸 먹어나신고?(가을에는 뭐 무엇 먹었었나?)

107058 @ 겨울에는?(겨울에는?)

107058 #1 겨울에 뭐 그냥 메역국 거튼 거나 허곡게.(겨울에 뭐 그냥 미역국 같은 거나 하고.)

107058 @ 메역국 같은 거나?(미역국 같은 거나?)

107058 #1 으, 으 주로. 메역을 만이 먹엇주게, 겨울엔.(으, 으 주로. 미역을 많이 먹었지, 겨울엔.)

107058 @ 겨울엔예.(겨울엔요.)

238)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 이루어진 마을을 말한다.

107058 #1 겨난 이녁대로 우리도게 우리대로 ᄌᆞ물아당 ᄆᆞᆯ렷단 그냥 겨울 내낭 그거.(그러니까 자기대로 애고 우리도 우리대로 캐다가 말렸다가 그냥 겨울 내내 그거.)

107058 @ 아, 메역예.(아, 미역요.)

장 담그기

107060 @ 장 담그는 것서부터 여쭤보쿠다. 장 담그는 거.(장 담그는 것에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장 담그는 거.)

107060 #1 상?(상?)

107060 @ 장. 뒌장, 간장.(장. 된장, 간장.)

107060 #1 아, 뒌장, 간장, 으.(아, 된장, 간장, 으.)

107060 @ 게난 장 종류에는 아까 뒌장, 간장밖에 없지예? 집에서 담그는 거?(그러니까 장 종류에는 아까 된장, 간장밖에 없지요? 집에서 담그는 거?)

107060 #1 으.(으.)

107060 @ 제주도는 고추장은 안 담갓수과?(제주도는 고추장은 안 담갔습니까?)

107060 #1 무사 고추장도 담는 사름 잇주만은 우린 안 담가 봐서.(왜 고추장도 담그는 사람 있지만 우린 안 담가 봤어.)

107060 @ 안 담가 봐서.(안 담가 봤어.)

107060 #1 담는 사름 잇어.(담그는 사람 있어.)

107059 @ 게민 이제 장은 언제 어떵 담그는지 메주 솖으는 것서부터 ᄎᆞᄎᆞᄎᆞᄎᆞ영 ᄀᆞᆯ아 줍서.(그럼 이제 장은 언제 어떻게 담그는지 메주 삶는 것에서부터 차차차차 이렇게 말해 주세요.)

107062 #1 메주 솖으는 건 이제 이 얼마 엇으민 이 콩덜 다 장만허면은 음력 시월덜쯤 나면 솖주기게. 솖아.(메주 삶는 건 이제 이 얼마 없으면 이 콩들 다 장만하면 음력 시월쯤 되면 삶지. 삶아.)

107062 @ 으, 음력 시월에.(으, 음력 시월에.)

107062 #1 콩 놔가지고.(콩 놔가지고.)

107062 @ 음.(음.)

107062 #1 메주 솖는 콩덜 허영.(메주 삶는 콩들 해서.)

107062 @ 얼마나 솖아낫수과?(얼마나 삶았었습니까?)

107062 #1 우린 서 말, 이 무신거로 대두로 허면은 두 말, 대두 두 말.(우린 서 말, 이 무엇으로 대두로 하면 두 말, 대두 두 말.)

107062 @ 음.(음.)

107062 #1 소두 우리 제주도 말로는 서 말, 너 말 그렇게 솖아.(소두 우리 제주도 말로는 서 말, 너 말 그렇게 삶아.)

107062 @ 으. 콩은 대두, 소두 헐 것과?(으. 콩은 대두, 소두 할 겁니까?)

107062 #1 아니, 경 안 혜영 그냥 우린 소두로만 허연, 소두로만 허연.(아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린 소두로만 했어, 소두로만 했어.)

107062 @ 소두로 서 말예?(소두로 서 말요?)

107062 #1 으, 서 말.(으, 서 말.)

107062 @ 이제 솟디 놩, 어느 솟디?(이제 솥에 넣어서, 어느 솥에?)

107062 #1 두말떼기[239].('두말떼기'.)

107062 @ 두말떼기 솟디.('두말떼기' 솥에.)

107062 #1 그냥 쉐솟. 엿날 무쉐솟 두말떼기.(그냥 쇠솥. 옛날 무쇠솥 '두말떼기.)

107062 @ 그거 허젠 허민 콩 두 말을 흔꺼번에 다 놔? 서 말은 흔꺼번에 다 놓는 거?(그거 하려고 하면 콩 두 말을 한꺼번에 다 넣어서? 서 말은 한꺼번에 다 넣는 거?)

107062 #1 흔꺼번에 못 헤여.(한꺼번에 못 해.)

107062 @ 못 허여.(못 해.)

107062 #1 두 번에나 헤사주.(두 번에나 해야지.)

107062 @ 두 번에.(두 번에.)

107062 #1 너무 만허여.(너무 많아.)

107062 @ 그럼 서 말 허젠 허면.(그럼 서 말 하려고 하면.)

107062 #1 경 안 허면은 저, 저 두말떼기보다도 더 큰 솟은 거 무슨 솟이엔 헤신고 잊어불어졋저. 그 솟디서 솖젠 허믄 흔 번에 허주만은 경 안 허면은 두 번에 솖아사.(그렇게 안 하면 저, 저 '두말떼기'보다도 더 큰 솥은 거 무슨 솥이라고 했는지 잊어버렸어. 그 솥에서 삶으려고 하면 한 번에 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 두 번에 삶아야.)

107062 @ 집에서 제일 큰 게 두말떼기 솟이라예?(집에서 제일 큰 게 '두말떼기' 솥이지요?)

107062 #1 으, 두말떼기.(으, '두말떼기'.)

107062 @ 거기에 두 번에 나눠 솖으민 흔 말가웃 정도 허는 거우다예?(거기에 두 번에 나워서 삶으면 한 말가웃 정도 하는 거네요?)

107062 #1 으, 으.(으, 으.)

107062 @ 물은 얼마나 놉니까?(물은 얼마나 넣습니까?)

107062 #1 물은 그것에 맞게시리 그냥 놩 족아 가믄 더 넣고. 물이 족음 직헤 가민.(물은 그것에 맞게끔 그냥 넣어서 적어 가면 더 넣고. 물이 적음 직해 가면.)

107062 @ 불 때 가멍?(불 때 가면서?)

107062 #1 으, 너무 하영 놓민 막 부꺼 불어. 게민 두께 올아둠서 영 젓으멍 헤사주. 콩, 콩 솖는 것도 막 물이 부꺼. 부꺼, 부꺼 베꼇더레 막 부꺼.(으, 너무 많이 넣으면 마구 끓어 넘쳐 버려. 그럼 뚜껑 열어 두면서 이렇게 저으면서 해야지. 콩,

239) '두말떼기'는 쌀 두 말 들이 솥을 말한다.

콩 삶는 것도 아주 물이 끓어 넘쳐. 끓어 넘쳐, 넘쳐서 밖으로 마구 끓어 넘쳐.)

107062 @ 아. 경헹 솖을 때 한 몇 시간이나 솖아마씨?(아. 그래서 삶을 때 한 몇 시간이나 삶아요?)

107062 #1 아이고, 그거 솖아질 때꺼지 허믄 ᄋᆞ라 시간 걸려.(아이고, 그거 삶아질 때까지 하면 여러 시간 걸려.)

107062 @ 여러 시간?(여러 시간?)

107062 #1 여러 시간 걸려. 오래 걸려.(여러 시간 걸려. 오래 걸려.)

107062 @ 으, 게민 한 반나절은 솖으는 거다예?(으, 그럼 한 반나절은 삶는 거네요?)

107062 #1 으, 으. 반나절. ᄒᆞᆫ 다섯 시간 더 걸려.(으, 으. 반나절. 한 다섯 시간 더 걸려.)

107062 @ 다섯 시간 더 걸려?(다섯 시간 더 걸려?)

107062 #1 으, 그거 서 말 허영 허젠 허민 ᄒᆞ루 종일 걸려.(으, 그거 서 말 해서 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걸려.)

107062 @ 한 번 솖는데 다섯 시간 걸린다는 거?(한 번 삶는데 다섯 시간 걸린다는 거?)

107062 #1 으, 다섯 시간 정도 걸려.(으, 다섯 시간 정도 걸려.)

107062 @ 물 좀 잦아 가민 더 넣으멍.(물 좀 잦아 가면 더 넣으면서.)

107062 #1 으, 물 족아 가믄 또 놓곡 또 놓곡 허영.(으, 물 적어 가면 또 넣고 또 넣고 해서.)

107062 @ 예.(예.)

107062 #1 이젠 다 솖으민, 이 손으로 민작민작헐 정도로 솖아져 가믄 불 끼왕 두께 더껑 ᄒᆞ꼼 틈 재왕. 겐 이제 바구리로 건져. 겐 물 빠지왕 이젠 엿날엔 그냥 마께로 ᄲᆞᆺ으나 경 안 허면 도꼬방에엔 헌 걸로 ᄲᆞᆺ으나 경 안 허면은 글후에는 이제 또 곱닥헌 보선 신어근에 ᄇᆞᆯ라. 그걸, 콩을.(이젠 다 삶으면, 이 손으로 문적문적할 정도로 삶아져 가면 불 꺼서 뚜껑 덮어서 조금 뜸 들여. 그래서 이제 바구니로 건져. 그래서 물 빠지게 해서 이젠 옛날엔 그냥 방망이로 빻거나 그렇게 안 하면 절구라고 한 걸로 빻거나 그렇게 안 하면 그 후에서는 이제 또 고운 버선 신어서 밟아. 그걸, 콩을.)

107062 @ 다라에 놩?(다라이에 넣어서?)

107062 #1 으, 다라에, 다라에. 경 안 허믄 ᄀᆞ렛방석에.(으, 다라이에, 다라이에. 그렇게 안 하면 맷방석에.)

107062 @ 아, ᄀᆞ렛방석에 놔 가지고.(아, 맷방석에 놔 가지고.)

107062 #1 응, 동글락헌 방석.(응, 동그란 방석.)

107062 @ ᄀᆞ렛방석 젖어 불지 안헙니까?(맷방석 젖어 버리지 않습니까?)

107062 #1 그것이 이제 그 콩이 물 빠지왕 뭣 허민 덩어리 져 가믄 물은 안 나주게. 물 안 날 정도로 허주기게. 물 날 정도가 아니라.(그것이 이제 그 콩이 물 빠

지게 해서 뭐 하면 덩어리 져 가면 물은 안 나지. 물 안 날 정도로 하지. 물 날 정도가 아니야.)

107062 @ 아. 게민 ᄀᆞ렛방석에 놩 불라?(아. 그럼 맷방석에 놔서 밟아?)

107062 #1 으, ᄀᆞ렛방석에 놩 이제 불라. 경헤근에 이제 손으로 요만씩 헤영 막 탁탁 영 헤영 덩어리 짓엉. 덩어리 짓어근에 이젠 흔 쪽에 느런히 놔뒀당 찝, 나룩 찝.(으, 맷방석에 놔서 이제 밟아. 그래서 이제 손으로 요만큼씩 해서 마구 탁탁 이렇게 해서 덩어리 져서 이젠 한 쪽에 나란히 놔뒀다가 짚, 볏짚.)

107062 @ 으.(으.)

107062 #1 찝.(짚.)

107062 @ 으.(으.)

107062 #1 그거 허여근에 이제 덩체기 이만이 무껑.(그거 해서 이제 밑동 이만큼 묶어서.)

107062 @ 으.(으.)

107062 #1 이젠 시 거림으로 갈랑 그레 이젠 놩 우로 이젠 줄라메영 영 헤영 공젱이[240]에 돌아, 저 헛간, 창고 그런 디 돌아메여.(이젠 세 갈래로 갈라서 그리 이젠 놔서 위로 이젠 잘라매어서 이렇게 해서 '공젱이'에 달아, 저 헛간, 창고 그런데 달아매.)

107062 @ 으.(으.)

107062 #1 겐 거멍게 트면은 이제 트면은, 그럭저럭 트고 뭣 허젠 허면 서넉 덜 걸려, 석 덜.(그래서 거멓게 트면 이제 트면, 그럭저럭 트고 뭐 하려고 하면 서너 달 걸려, 석 달.)

107062 @ 게민 메주 만드는 날.(그럼 메주 만드는 날.)

107062 #1 으, 만들앙.(으, 만들어서.)

107062 @ 바로 영 영.(바로 이렇게 이렇게.)

107062 #1 예, 예, 만드는 날.(예, 예, 만드는 날.)

107062 @ 헤 가지고 그 산디찝으로 묶을 수 잇어마씨?(해 가지고 그 밭볏짚으로 묶을 수 있어요?)

107062 #1 예, 무꺼져.(예, 묶을 수 있어.)

107062 @ 오.(오.)

107062 #1 영 영 놔뒷다근에 이제 영 헹 이 아래 줄라메영 시 거림으로 영 갈르면은 영 갈르면은 그레 톡 들어 앚지면은 털어지지 안허여.(이렇게 이렇게 놔뒀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아래 잘라매어서 세 갈래로 이렇게 가르면 이렇게 가르면 그리 톡 들어 앉히면 떨어지지 않아.)

107062 @ 으, 떨어지지 안허여.(으, 떨어지지 않아.)

107062 #1 돌아멜 수 잇어.(달아맬 수 있어.)

107062 @ 게민 그게 영 영 만든 게 튼튼허구나예?(그럼 그게 이렇게 이렇게 만

240) '공젱이'는 나무나 쇠붙이의 끝을 구부려서 무언가를 걸게 만든 물건 또는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든 게 튼튼하군요?)
107062 #1 으?(으?)
107062 @ 메주 이렇게 빚은 게 단단헤?(메주 이렇게 빚은 게 단단해?)
107062 #1 단단헤. 비지니까. 그거이 뿟아지난, 뿟아지난. 튼튼허여.(단단해. 빚으니까. 그거 빻아지니까, 빻아지니까. 튼튼해.)
107062 @ 어.(어.)
107062 #1 튼튼허게 허주게 막.(튼튼하게 하지, 아주.)
107062 @ 으.(으.)
107062 #1 막 튼튼허게, 완전 튼튼허게.(아주 튼튼하게, 완전 튼튼하게.)
107062 @ 으. 건 찝으로 헹 메달앙?(으. 건 짚으로 해서 매달아?)
107062 #1 메달앙.(매달아서.)
107062 @ 어쨌든 그늘진 디 메다는 거마씨?(어쨌든 그늘진 데 매다는 거요?)
107062 #1 으. 그늘진 디, 그늘진 디. 그디 내불민 그대로 터.(으. 그늘진 데, 그늘진 데. 거기 내버리면 그대로 터.)
107062 @ 예.(예.)
107062 #1 그늘지더라도 ᄒᆞ꼼 ᄃᆞ신 디. 경헤야 제기 터.(그늘지더라도 조금 따뜻한 데 그래야 재게 터.)
107062 @ 아. 게민 한 석 달 정도.(아. 그럼 한 석 달 정도.)
107062 #1 으, 으.(으, 으.)
107062 @ 지나면.(지나면.)
107059 #1 으, 경허영 ᄒᆞᆫ 정월, 음력으로 정월 나 가민 이제, 이제 소금 헤영, 물, 물에 헤영 이젠 물에 소금에 헷당.(으, 그래서 한 정월, 음력으로 정월 돼 가면 이제, 이제 소금 해서, 물, 물에 해서 이젠 물에 소금에 했다가.)
107059 @ 메주 다 돌아 논 거 다 ᄆᆞᆯ르난.(메주 다 달아 놓은 거 마르니까.)
107059 #1 ᄆᆞᆯ르믄 이제 거둬당.(마르면 이제 거둬다가.)
107059 @ 거둬당 씻어?(거둬다가 씻어?)
107059 #1 씻어. 그 소곱에 막 거멍케 터.(씻어. 그 속에 아주 거멓게 터.)
107059 @ 예, 예.(예, 예.)
107059 #1 곰펭이. 그거 곱게 씻엉.(곰팡이. 그거 곱게 씻어서.)
107059 @ 으.(으.)
107059 #1 솔, 솔 거튼 걸로 헹 씻엉.(솔, 솔 같은 걸로 해서 씻어서.)
107059 @ 겐 곰펭이를 다 없애는 거라?(그래서 곰팡이를 다 없애는 거야?)
107059 #1 으, 다 엇어지게. 게도이 다 엇어지지 못 허여.(으, 다 없어지게. 그래도 다 없어지지 못 해.)
107059 @ 아, 예.(아, 예.)
107059 #1 씻어지는 대로 씻어.(씻어지는 대로 씻어.)
107059 @ 경헌 다음, 씻은 다음에?(그런 다음, 씻은 다음에?)

107059 #1 씻은 다음에 이제 그거 내려 놓기 전에.(씻은 다음에 이제 그거 내려 놓기 전에.)

107059 @ 으.(으.)

107059 #1 씻기 전에.(씻기 전에.)

107059 @ 으.(으.)

107059 #1 물을 헹 놔두는 거라. 항에, 장 담는 항에.(물을 해서 놔두는 거야. 항에 장 담는 함에.)

107059 @ 예.(예.)

107059 #1 항에 헤여근에 소금을 홁은 소금 헤영 이젠 서 말이믄 서 말, 물 얼마 정도 헤영 소금도 얼마 들 거. 거 근 맞촹.(항에 해서 소금을 굵은 소금 해서 이젠 서 말이면 서 말, 물 얼만 정도 해서 소금도 얼마 들 거. 거 간 맞춰서.)

107059 @ 으.(으.)

107059 #1 경헨 이제 헷당 이제 그 소금에 아젱이가 잇어.(그래서 이제 했다가 이제 그 소금에 앙금이 있어.)

107059 @ 으.(으.)

107059 #1 찌꺼기.(찌꺼기.)

107059 @ 으.(으.)

107059 #1 게난 그 아젱이 똘랑 뚠, 뚠 그릇더레 놩 그거 이제. 뚠 그릇에 그 물을 헤 놓고, 헤 놧당 이제 장 담는 항아리레 그 물을 다 거려 놓는 거라.(그러니까 그 앙금 따라서 딴, 딴 그릇에 놔서 그거 이제. 딴 그릇에 그 물을 해 놓고, 해 놨다가 이제 장 담는 항아리에 그 물을 다 떠 놓는 거야.)

107059 @ 으.(으.)

107059 #1 거려 놩 아젱이 데껴 불고. 경허영 저, 무시거 저 독새기 하나 영 틔왕 보믄 이만이 터. 경허믄 근 맞앗젠 허는 거.(떠 놔서 앙금 던져 버리고. 그래서 저, 무엇 저 달걀 하나 이렇게 띄워 보면 이만큼 떠. 그러면 간 맞았다고 하는 거.)

107059 @ 아, 그니까 소금물 간 맞출 때 독새기를 띄우는 거라?(아. 그러니까 소금물 간 맞출 때 달걀을 띄우는 거야?)

107059 #1 으.(으.)

107059 @ 그거 메주 담그기 전인 거잖아예?(그거 메주 담그기 전인 거잖아요?)

107059 #1 으게. 경헨 근 맞춰 놔근에 이젠 메주 담앙.(그래. 그렇게 간 맞춰 놔서 이젠 메주 담가서.)

107059 @ 담앙?(담가서?)

107059 #1 그레 들이쳐. 메주 시청. 이제 시청 이제 그레 들이청.(그리 들어뜨려. 메주 씻어서. 이제 씻어서 이제 그리 들어뜨려.)

107059 @ 아.(아.)

107059 #1 경 헹 들이쳐근에 이제 우에, 이제 저 방법으로 숫 시 덩어리, 쪼금씩 헌 거 시 개 놓고 고치 멧 개 놓고 경 헤근에.(그렇게 해서 들어뜨려서 이제 위

에, 이제 저 방법으로 숯 세 덩어리, 조금씩 한 거 세 개 놓고 고추 몇 개 놓고 그렇게 해서.)

107059 @ 그 숫이랑 고치 넣는 건 무사 넣는 것과?(그 숯이랑 고추 넣는 건 왜 넣는 겁니까?)

107059 #1 그거 경허믄 그거 방법이 뒌덴. 장이 든덴.(그거 그러면 그거 방법이 된다고 장이 달다고.)

107059 @ 아. 맛 좋게?(아. 맛 좋게?)

107059 #1 맛 좋게 뒌덴.(맛 좋게 된다고.)

107059 @ 아.(아.)

107059 #1 경 막 그걸로 헤서 맛좋는 건 아닌디 거 장도 담으믄 고랑내 날 때가 잇어. 잘못 뒈믄.(그렇게 마구 그걸로 해서 맛 좋은 건 아닌데 거 장도 담그면 고린내 날 때가 있어. 잘못 되면.)

107059 @ 게믄 숫 놓는 건 냄새 빼는 건게.(그럼 숯 놓는 건 냄새 빼는 거네.)

107059 #1 예, 예 그건 방법으로, 방법으로 허는 거.(예, 예. 그건 방법으로, 방법으로 하는 거.)

107059 @ 으, 으.(으, 으.)

107059 #1 숫 거튼 거, 고치 거튼 거. 그거 아니 놔도 뒈고.(숯 같은 거, 고추 같은 거. 그거 안 놔도 되고.)

107059 @ 으.(으.)

107059 #1 그거 놓게 뒈믄 놔지면은 좋고.(그거 놓게 되면, 놓을 수 있으면 좋고.)

107059 @ 음. 경 헹 장 넣었잖아예. 그거는 언제부터 먹어집니까?(음. 그렇게 해서 장 넣었잖아요. 그거는 언제부터 먹을 수 있습니까?)

107059 #1 그거 경 허면은 익어 가면 벌겅헤 가. 장물이. 붉어.(그거 그렇게 하면 익어 가면 벌게 가. 간장이. 붉어.)

107059 @ 물이 붉어 가?(물이 붉어 가?)

107059 #1 물이 붉어. 츠츠츠츠 막 붉어 가면은 또 내중에는 검엉헤 가.(물이 붉어. 차차차차 아주 붉어 가면은 또 나중에는 검어 가.)

107059 @ 아.(아.)

107059 #1 경허믄 그런 때 먹는 거.(그러면 그런 때 먹는 거.)

107059 @ 거멍헤지면?(거메지면?)

107059 #1 으, 으. 멧 덜 셩, 혼 석 덜, 넉 덜 뒈 가믄이 그것이 벌겅헤. 불그룩헤 가당, 벌겅헤 가단 내중에는 거무룩헤여.(으, 으. 몇 달 있어, 한 석 달, 넉 달 되어 가면 그것이 벌게. 불그레해 가다가 벌게 가다가 나중에는 거무스름해.)

107059 @ 으.(으.)

107059 #1 겨믄 장물이 까맣게 뒈 불어.(그럼 장물이 까맣게 돼 버려.)

107059 @ 으.(으.)

107059 #1 경허면은 엿날엔 가망허면은 장물은 장물대로 뜨로 거려두고 메주는 메주대로 찌어근에 겐 뒌장 멘드는 거라.(그러면 옛날엔 가마면 간장은 간장대로 따로 떠두고 메주는 메주대로 쪄서 그래서 된장 만드는 거야.)

107059 @ 게민 여기 메주에 소금물 담갓던 항이라. 여기에. 이 항예?(그럼 여기 메주에 소금물 담갔던 항이야. 여기에. 이 항요?)

107059 #1 항? 항은 뜨로 이제 큰 항은 필요엇어.(항? 항은 따로 이제 큰 항은 필요 없어.)

107059 @ 으.(으.)

107059 #1 이제 장물은 장물 듬는 항, 항아리 요만이 헌 거.(이제 간장은 간장 담는 항, 항아리 요만큼 한 거.)

107059 @ 메주를 꺼내 부는 것과?(메주를 꺼내 버리는 겁니까?)

107059 #1 으, 꺼내 불어. 메주 꺼내여근에 메주 꺼냉 다락더레. 다락이나 무신 도고리레.(으, 꺼내 버려. 메주 꺼내서 메주 꺼내서 다락에. 다락이나 무슨 함지박에.)

107059 @ 으.(으.)

107059 #1 꺼내 둬근에 이제 장물은 쪼근 그릇더레 놓곡 그 메주도 이젠 도고리에서 찌어근에, 그건 막 찌여.(꺼내 둬서 이제 간장은 작은 그릇에 놓고 그 메주도 이젠 함지박에 쪄서, 그건 마구 쪄.)

107059 @ 으.(으.)

107059 #1 경헤근에 이제 그거 담을 만헌 이젠 요만이 헌 중간 항더레 또 놓고. 맞암 직헌 항에, 놔근에.(그래서 이제 그거 담을 만한 이젠 요만큼 한 중간 항에 또 놓고. 맞을 것 같은 항에, 놔서.)

107059 @ 이제부턴 먹을 수 있는 거? 그때부턴?(이제부턴 먹을 수 있는 거? 그때부턴?)

107059 #1 그때부터 쪼금 잇어야주게. ᄒᆞ꼼 익어야.(그때부터 조금 있어야지. 조금 익어야.)

107059 @ 아, 그것도 좀 있어야 뒈?(아, 그것도 좀 있어야 돼?)

107059 #1 으, 으.(으, 으.)

107059 @ 간장은 그때 먹어질 거 아니?(간장은 그때 먹을 수 있을 거 아니?)

107059 #1 간장은 먹어도 뒈고.(간장은 먹어도 되고.)

107059 @ 아, 뒌장은 영 영 헹.(아, 된장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107059 #1 으, 어느 정도.(으, 어느 정도.)

107059 @ 찐 거?(찐 거?)

107059 #1 으, 찐 거 담아근에 영 헹. 우에 조근조근 헤근에 누리떵 놔뒷다근에 또 허고. 익어 가면은.(으, 찐 거 담아서 이렇게 해서. 위에 차근차근 해서 눌러서 놔뒀다가 또 하고. 익어 가면.)

107059 @ 그럼 먹젠 허민 시간 좀 걸렴수다.(그럼 먹으려고 하면 시간 좀 걸리

네요.)

107059 #1 으, ᄒᆞ꼼 걸려야.(으, 조금 걸려야.)

107059 @ 메주 솖아 가지고 곰팡이 피영 장 담글 때까지 기간이 한 석 달 정도.(메주 삶아 가지고 곰팡이 피어서 장 담글 때까지 기간이 한 석 달 정도.)

107059 #1 예, 예.(예, 예.)

107059 @ 석 달이고예?(석달이고요?)

107059 #1 예, 예.(예, 예.)

107059 @ 겐 소금물 담앙 놔둬도 ᄒᆞᆫ 석 달?(그래서 소금물 담아서 놔둬도 한 석 달?)

107059 #1 예, 예. 기간이 걸려.(예, 예. 기간이 걸려.)

107059 @ 아, 기간이 걸려.(아, 기간이 걸려.)

107059 #1 게난 묵은 뒌장덜 묵은 장덜이 다 먹는 것덜이 시난게.(그러니까 묵은 된장들 묵은 장들이 다 먹는 것들이 있으니까.)

107059 @ 으.(으.)

107059 #1 경 와리지 안헤도 뒈주게. 그거 꼭 새 거 먹젠덜은 안 허난.(그렇게 조바심하지 않아도 되지. 그거 꼭 새 거 먹으려고는 안 하니까.)

107059 @ 으, 으. 장은 뭐 오래 담가 둬야 맛잇는 거?(으, 으. 장은 뭐 오래 담가 둬야 맛있는 거?)

107059 #1 맛잇주.(맛있지.)

107061 @ 게민 그 고추장은 안 담가 봣수과?(그럼 그 고추장은 안 담가 봤습니까?)

107061 #1 안 담가 봔. 난 안 담가 봔.(안 담가 봤어. 난 안 담가 봤어.)

107063 @ 혹시 그 메주 솖을 때나 장 담글 때 이런 건 허지 말아야 뒌덴 허는 거, 그런 금기사항이라도 잇수과?(혹시 그 메주 삶을 때나 장 담글 때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런 금기사항이라도 있습니까?)

107063 #1 그런 때에는 그런 건 엇어.(그런 때에는 그런 건 없어.)

107063 @ 그런 건 엇어.(그런 건 없어.)

107063 #1 으, 으. 이녁이 자기가 멩심만 헤영 허민.(으, 으. 자기가 자기가 명심만 해서 하면.)

107063 @ 음.(음.)

107063 #1 그런디 또 솖는 날이 잇어, 날짜가. 안 솖는 날도 잇긴 잇어.(그런데 또 삶는 날이 잇어, 날짜가. 안 삶는 날도 있긴 있어.)

107063 @ 그니까.(그러니까.)

107063 #1 날짜를 봐야.(날짜를 봐야.)

107063 @ 날짜 보지예?(날짜 보지요?)

107063 #1 으, 날짜 봐, 날짜. 잊어불언, 잊어불언.(으, 날짜 봐, 날짜.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107063 @ 그지예?(그렇죠?)

107063 #1 날짜가 잇어, 날짜가. 솖는 날이 잇어. 무신 날 무신 날 허영. 그런 아니 솖는 날덜이 잇어. 어떵 허당 보믄.(날짜가 있어, 날짜가. 삶는 날이 있어. 무슨 날 무슨 날 해서. 그런 안 삶는 날들이 있어. 어떻게 하다가 보면.)

107063 @ 게난.(그러니까.)

107063 #1 이녁, 이녁 그 저 무시것고 나가 염소 헤치면 염소 헤치 날에도 안 솖고.(자기, 자기 그 저 무엇이고 내가 염소 띠면 염소 띠 날에도 안 삶고.)

107063 @ 아, 그런.(아, 그런.)

107063 #1 그런 것도 봐낫주게.(그런 것도 봤었지.)

107063 @ 아, 기과? 그럼 자기 헤치 날에도 안 솖고.(아, 그렇습니까? 그럼 자기 띠 날에도 안 삶고.)

107063 #1 으. 베염 날, 독 날 그런 날도 안 솖고. 솖는 날이 잇어.(으. 뱀 날, 닭 날 그런 날도 안 삶고. 삶는 날이 있어.)

107063 @ 그럼, 메주 솖는 날만 날 보는 거 아니면 장 담는 날?(그럼, 메주 삶는 날만 날 보는 거 아니면 장 담그는 날?)

107063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7063 @ 그건 아니고.(그건 아니고.)

107063 #1 으. 담는 날도. 솖는 날은 안 허고 담는 날.(으. 담그는 날도. 삶는 날은 안 하고 담그는 날.)

107063 @ 아, 솖는 날은 상관엇고.(아, 삶는 날은 상관없고.)

107063 #1 으, 으. 항더레 담는 날.(으, 으. 항에 담는 날.)

107063 @ 항더레 담는 날, 그날을 보는 거라예?(항에 담는 날, 그날을 보는 거지요?)

107063 #1 으.(으.)

107063 @ 으, 으, 알앗수다.(으, 으, 알겠습니다.)

107063 #1 그날은 날 봐야.(그날을 날 봐야.)

떡류

107064 @ 예. 이제는 떡 물어보쿠다. 떡예.(예. 이제는 떡 물어보겠습니다. 떡요.)

107064 #1 으.(으.)

107064 @ 떡 종류, 떡 이름덜 알아지는 거 뭐 잇수과? 떡 이름?(떡 종류, 떡 이름들 알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떡 이름?)

107064 #1 떡 이름?(떡 이름?)

107064 @ 생각나는 대로 골아 줍서.(생각나는 대로 말해 주세요.)

107064 #1 침떡.(시루떡.)

107064 @ 침떡.(시루떡.)

107064 #1 침떡, 세미떡[241].(시루떡, ‘세미떡’.)
107064 @ 으.(으.)
107064 #1 곤떡.(흰떡.)
107064 @ 으.(으.)
107064 #1 우선, 우선 우리가 사용허는, 헤난 떡은.(우선, 우선 우리가 사용하는, 했던 떡은.)
107064 @ 으. 곤떡.(으. 흰떡.)
107064 #1 침떡, 세미떡, 곤떡.(시루떡, ‘세미떡’, 흰떡.)
107064 @ 으.(으.)
107064 #1 인절미떡.(인절미떡.)
107064 @ 인절미떡.(인절미떡.)
107064 #1 돌레떡.(도래떡.)
107064 @ 으, 돌레떡.(으, 도래떡.)
107064 #1 물떡[242].(‘물떡’.)
107064 @ 물떡?(‘물떡’?)
107064 #1 물떡은 세미떡보다 ᄒᆞ꼼 큰 것이 물떡이엔 헤낫주만은 물떡은 굳이 뭐 만이 사용은 안 헤나고.(‘물떡’은 ‘세미떡’보다 조금 큰 것이 ‘물떡’이라고 했었지만 ‘물떡’은 굳이 뭐 많이 사용은 안 했었고.)
107064 @ 음. 또.(음. 또.)
107064 #1 빙, 빙떡.(빙, 빙떡.)
107064 @ 빙떡도 빙떡이렌 헙니까, 아니면 그냥 빙이렌 헙니까?(빙떡도 빙떡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빙’이라고 합니까?)
107064 #1 빙이엔 헤도 뒈고, 빙떡이엔 헤도 뒈고. 뭐 건.(‘빙’이라고 해도 되고 빙떡이라고 해고 되고. 뭐 건.)
107064 @ 으, 으.(으, 으.)
107064 #1 빙이엔 헤도 뒐 거라.(빙떡이라고 해도 될 거야.)
107064 @ 으, 게민 여기선 빙떡이렌 ᄀᆞᆯ아난?(으, 그럼 여기선 빙떡이라고 말했었어?)
107064 #1 으, 빙떡이렌 ᄀᆞᆫ주게. 빙떡, 빙떡 ᄀᆞᆯ아난.(으, 빙떡이라고 말했지. 빙떡, 빙떡 말했었어.)
107064 @ 또? 또 뭐 이신고? 또 잇수과?(또? 또 뭐 있나요? 또 있습니까?)
107064 #1 으?(으.)
107064 @ 상웨떡 같은 것도 헙니까?(상화떡 같은 것도 합니까?)
107064 #1 삼메, 저 저 기주떡. 기주떡.(‘삼메’ 저 저 기주떡. 기주떡.)
107064 @ 기주떡 헙니까?(기주떡 합니까?)

241) ‘세미떡’은 메밀가루를 익반죽 한 후에 안에 팥소 등을 넣어서 쪄낸 후에 다시 팥고물을 무친 떡을 말한다.
242) ‘물떡’은 메밀가루 따위로 반달 모양으로 빚어 그 안에 팥소나 무채를 넣어 삶아낸 떡을 말한다.

107064 #1 예, 저 ᄀᆞ룰 놔근에 저 이 무시거니 막걸리민 막걸리 놩 허는 것ᄀᆞ란 기주떡.(예, 저 가루 놔서 저 이 무엇 막걸리면 막걸리 놔서 하는 것보고 기주떡.)

107064 @ 으.(으.)

107064 #1 경 안 허민, 기주떡, 우리 기주떡이엔 ᄀᆞᆯ앗주. 삼메떡ᄀᆞ라 기주떡.(그렇지 않으면, 기주떡, 우리 기주떡이라고 말했지. 삼메떡보고 기주떡.)

107064 @ 으. 또 지름떡?(으. 또 기름떡?)

107064 #1 지름떡.(기름떡.)

107064 @ 지름떡도 허고예.(기름떡도 하고요.)

107064 #1 으, 지름떡, 고장떡.(으, 기름떡 고장떡.)

107064 @ 고장떡도 허고예?(고장떡도 하고요?)

107064 #1 으.(으.)

107064 @ 고장떡. 그럼예, 이제는 침떡이과, 친떡이과?(고장떡. 그럼요, 이제는 '침떡'입니까, '친떡'입니까?)

107064 #1 침떡. 우린 침떡, 침떡 헤나난.(시루떡. 우린 시루떡 '침떡' 했었어.)

107064 @ 침떡예?(시루떡요?)

107064 #1 으. 그 흰썰로 허는 건 설귀떡.(으. 그 흰쌀로 하는 건 백설기.)

107064 @ 으.(으.)

107064 #1 곤썰로 허는 건 설귀떡. 침떡으로 허는 좁썰 떡, 좁썰ᄀᆞ란 침떡.(흰쌀로 하는 건 백설기. 시루떡으로 하는 좁쌀 떡, 좁쌀보곤 시루떡.)

107064 @ 아, 좁썰로 만드는 것만 침떡이렌 헤?(아, 좁쌀로 만드는 것만 시루떡이라고 해?)

107064 #1 으.(으.)

107064 @ 그럼 여긴 곤침떡 그런 말도 안 쓰겠다.(그럼 여긴 흰시루떡 그런 말도 안 쓰겠다.)

107064 #1 곤침떡[243] 안 허여. 설기떡.('곤침떡' 안 해. 백설기.)

107064 @ 아, 곤썰로 허는 건 설기떡.(아, 흰쌀로 하는 건 백설기.)

107064 #1 으.(으.)

107064 @ 침떡을 좁썰.(시루떡을 좁쌀.)

107064 #1 좁썰로 허는 건 침떡.(좁쌀로 하는 건 시루떡.)

107064 @ 아. 이렇게 ᄀᆞᆯ아. 다르다, 다르다. 말 다르다. 조침떡[244], 곤침떡 그런 말은 엇어예? 그런 말예?(아. 이렇게 말해. 다르다, 다르다. 말 다르다. '조침떡', '곤침떡'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요?)

107064 #1 조침떡을 헤도 곤침떡은 안 허여. 그냥 설기떡이엔 허연.('조침떡'은 해도 '곤침떡'은 안 해. 그냥 백설기라고 해.)

107064 @ 설기떡이렌 헤예.(백설기라고 해요.)

---

243) '곤침떡'은 흰쌀로 만든 시루떡을 말한다.

244) '조침떡'은 좁쌀로 만든 시루떡을 말한다.

107064 #1 으. 곤침떡, 설기떡.(으, '곤침떡', 백설기.)

107064 @ 이젠예.(이젠요.)

107064 #1 곤썰 떡, 곤썰 침떡. 경 안 허민 귀 갈랑 허젠 허민 곤썰 침떡이엔 헷주기게. 옛날말론.(흰쌀 떡, 흰쌀 시루떡. 그렇게 안 하며 구색을 갖춰서 하려고 하면 흰쌀 시루떡이라고 했지. 옛날말론.)

107064 @ 아, 귀 갈랑 허젠 허민.(아, 귀 갈라서 하려고 하면.)

107064 #1 으.(으.)

107064 @ 그 설기떡을 곤썰 침떡이엔 헤낫구나.(그 백설기를 흰쌀 시루떡이라고 했었구나.)

107064 #1 으, 으.(으, 으.)

107064 @ 근데 보통 여기서는 설기떡이렌 불런예?(그런데 보통 여기서는 백설기라고 불렀어요?)

107064 #1 이제는, 이제는 설기떡, 설기떡 허주만은 옛날에는.(이제는, 이제는 백설기, 백설기 하지만 옛날에는.)

107064 @ 설기떡은 이제사 곧는 말?(백설기는 이제야 하는 말?)

107064 #1 으, 이제.(으, 이제.)

107064 @ 그럼 옛날에는 곤.(그럼 옛날에는 흰.)

107064 #1 곤침떡게, 곤썰 침떡 엿날엔.('곤침떡'. 흰쌀 시루떡 옛날엔.)

107064 @ 으, 곤썰 침떡?(으, 흰쌀 시루떡?)

107064 #1 으, 으. 좁썰, 좁썰 침떡, 곤썰 설기, 곤썰 침떡.(으, 으. 좁쌀, 좁쌀 시루떡, 흰쌀 백설기, 흰쌀 시루떡.)

107064 @ 옛날말로 골아 줍서, 옛날말로.(옛날말로 말해 주세요. 옛날말로.)

107064 #1 곤썰 침떡.(흰쌀 시루떡.)

107065 @ 그럼 이제 곤썰 침떡서부터 만들어 줍서. 곤썰 침떡 만들젠 허민 어떵 헤야 뒐 것과? 자, 쏠을 물에 담강?(그럼 이제 흰쌀 시루떡에서부터 만들어 주세요. 흰쌀 시루떡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자, 쌀을 물에 담가서?)

107065 #1 물에 돔가.(물에 담가.)

107065 @ 무슨 쏠?(무슨 쌀?)

107065 #1 좁썰.(좁쌀.)

107065 @ 좁썰예. 아, 곤썰부터 곤썰 침떡부터.(좁쌀요. 아, 흰쌀부터 흰쌀 시루떡부터.)

107065 #1 곤썰 침떡도 물에 돔가.(흰쌀 시루떡도 물에 담가.)

107065 @ 아, 물에. 곤썰 물에 돔강.(아, 물에. 흰쌀 물에 담가.)

107065 #1 으, 물에 돔가. 다 똑같아, 만드는 방법은.(으. 물에 담가. 다 똑같아, 만드는 방법은.)

107065 @ 음. 물에 담강 이제 어떵 헤야 뒐 거.(음. 물에 담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

107065 #1 방에에 삣앙 ᄀᆞ룰로.(방아에 빻아서 가루로.)

107065 @ 집이서.(집에서.)

107065 #1 족으면 집이서 허고 하면 ᄆᆞᆯ방에라고 강 삣고.(적으면 집에서 하고 하면 연자매라고 가서 빻고.)

107065 @ 으, 삣앙.(으, 빻아서.)

107065 #1 그, 그 삣는 거는 그 물건에 따랑 하믄 한 대로, 족으민 족은 대로 허곡, 뼛곡게.(그, 그 빻는 거는 그 물건에 따라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고, 빻고.)

107065 @ 이제 삣앙?(이제 빻아서?)

107065 #1 삣앙.(빻아서.)

107065 @ ᄀᆞ루 만들엉?(가루 만들어서?)

107065 #1 ᄀᆞ룰 만들엉 경헤근에 이제 ᄒᆞ꼼 물 버무령 시리에 놩 쳥.(가루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조금 버무려서 시루에 넣어서 쪄서.)

107065 @ 으.(으.)

107065 #1 경 허믄. 침떡 뒈고.(그렇게 하면. 시루떡 되고.)

107065 @ 물 버무리는 거는 물은 그냥 언물?(물 버무리는 거는 물은 그냥 찬물?)

107065 #1 으, 언물.(으, 찬물.)

107065 @ 언물 쪼꼼, 쪼꼼 그냥.(찬물 조금, 조금 그냥.)

107065 #1 으, 으. 경 막 덩어리지지 안 허게 쪼꼼.(으, 으. 그렇게 마구 덩어리지지 않게 조금.)

107065 @ 으. 그럼 삼춘 헐 때는 시리, 시리도 막 크기별로 이실 거 아니?(으. 그럼 삼촌 할 때는 시루, 시루도 아주 크기별로 있을 거 아니?)

107065 #1 만이 허젠 허믄 큰 거.(많이 하려고 하면 큰 거.)

107065 @ 으.(으.)

107065 #1 족게 허젠 허믄 조그만헌 거.(적게 하려고 하면 조그마한 거.)

107065 @ 으.(으.)

107065 #1 여러 가지. 뭐 ᄒᆞᆫ 말들이 잇고 닷 뒈들이 잇고 석 뒈들이 잇고 뭐.(여러 가지. 뭐 한 말들이 있고 다섯 되들이 있고 석 되들이 있고 뭐.)

107065 @ 으. 보통 크기 어떵 거 써낫수과, 집이서 쓸 때는?(으. 보통 크기 어떤 거 썼었습니까, 집에서 쓸 때는?)

107065 #1 식게 멩질 때에 그 대소상 때에, 소상, 대상 헐 때에는 큰 시리. ᄒᆞᆫ 말 드는 시리.(제사 명절 때에 그 대소상 때에, 소상, 대상 할 때에는 큰 시루. 한 말 드는 시루.)

107065 @ ᄒᆞᆫ 말 드는 시리.(한 말 드는 시루.)

107065 #1 으. 그 외에 제사 때는 두 뒈 드는 시리.(으. 그 외에 제사 때는 두 되 드는 시루.)

107065 @ 으, 두 뒈 드는 시리예.(으, 두 되 드는 시루요.)

107065 #1 으.(으.)

107065 @ 게민 이 제서 때 썼던 두 뒈들이 시리에 헤 보면 이제 그 시리에 ᄀᆞ루를 ᄀᆞᆯ앙? 뭐, 뭐부터, 밑에 뭐부터 ᄀᆞᆯ아?(그럼 이 제사 때 썼던 두 되들이 시루에 해 보면 이제 그 시루에 가루를 깔아서? 뭐, 뭐부터, 밑에 뭐부터 깔아?)

107065 #1 밑에 무신 저, 저 푸쉽새 이파리. 무신 ᄂᆞ물 이파리민 ᄂᆞ물 이파리.(밑에 무슨 저, 저 푸성귀 잎. 무슨 나물 잎이면 나물 잎.)

107065 @ 아.(아.)

107065 #1 그런 거 허여사 아래 그냥 그대로 먹어지고 헐 정도로 ᄂᆞ물 이파리 거튼 거 대목 ᄀᆞᆯ주게.(그런 거 해야 아래 그냥 그대로 먹을 수 있고 할 정도로 나물 잎 같은 거 주로 깔지.)

107065 @ ᄂᆞ물 이파리 ᄀᆞᆯ앙.(나물 잎 깔아서.)

107065 #1 경헤근에 이제 그레 ᄀᆞ룰 영 놩 이젠 또 ᄀᆞ룰 요만이 놓면은 이제 풋 서꺼.(그래서 이제 그리 가루 이렇게 넣어서 이젠 또 가룰 요만큼씩 넣으면 이제 팥 섞어서.)

107065 @ 음.(음.)

107065 #1 풋. 경 안 허민 부떠 부난.(팥. 그렇게 안 하면 붙어 버리니까.)

107065 @ 부떠 부난.(붙어 버리니까.)

107065 #1 풋은 부뜨지 안허여.(팥은 붙지 않아.)

107065 @ 예.(예.)

107065 #1 또 놩 또 허여.(또 놔서 또 해.)

107065 @ 예.(예.)

107065 #1 징[245] 징 징 징이. 혼 열 징쯤 뒐 거라.(층 층 층 층. 한 열 층쯤 될 거야.)

107065 @ 아.(아.)

107065 #1 혼 시리가.(한 시루가.)

107065 @ 혼 시리에 열 징 정도?(한 시루에 열 층 정도?)

107065 #1 으, 으.(으, 으.)

107065 @ 혼 징 두께가 혼 이 정도?(한 층 두께가 한 이 정도?)

107065 #1 으, 이 정도. 너미 두터워도 안 뒈곡게.(으 이 정도.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107065 @ 안 뒈고예.(안 되고요.)

107065 #1 으.(으.)

107065 @ 열 징 정도?(열 징 정도?)

107065 #1 으.(으.)

245) '징'은 솥에 무엇을 찔 때, 찌는 것이 솥 안의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받침으로 놓는 것이다. 표준어의 '정그레'인데, 여기서는 면이 포개져 있는 층을 가리키고 있다.

107065 @ 그럼 사이사이에 놓는 거는 거의?(그럼 사이사이에 넣는 거는 거의?)
107065 #1 픗.(팥.)
107065 @ 픗 놧수과?(팥 넣었습니까?)
107065 #1 픗, 픗.(팥, 팥.)
107065 @ 픗 ᄀᆞ루.(팥 가루.)
107065 #1 픗 헤영 솖아근에 것도.(팥 해서 삶아서 것도.)
107065 @ 솖앙.(삶아서.)
107065 #1 삣앙 ᄀᆞ를 만들앙.(빻아서 가루 만들어서.)
107065 @ 으.(으.)
107065 #1 경헤영 놔둠서 살 살 살 살.(그렇게 놔두면서 살 살 살 살.)
107065 @ 열 징 정도 헹 이제 치젠 허면 그걸 시리를 솟 우이 강 언져?(열 층 저도 해서 이제 찌려고 하면 그걸 시루를 솥 위에 가서 얹어서?)
107065 #1 경허면은 그 맞는 솟이 잇주게.(그러면 그 맞는 솥이 있지.)
107065 @ 으.(으.)
107065 #1 솟에 강 톡 앚져. 솟디 놩 물 놩 솖당.(솥에 가서 톡 앉혀서. 솥에 놔서 물 넣어서 삶다가.)
107065 @ 으.(으.)
107065 #1 이젠 앚지면은 이제 돌아가멍 시리마개 허여. 짐 못 나가게.(이젠 앉히면 이제 돌아가면서 시룻번 해. 김 못 나가게.)
107065 @ 짐 못 나가게?(김 못 나가게?)
107065 #1 으, 짐 못 나가게.(으, 김 못 나가게.)
107065 @ 시리마개예?(시룻번요?)
107065 #1 으, 으. 시리마개.(으, 으. 시룻번.)
107065 @ 예.(예.)
107065 #1 경헤근에 이제, 이제 두껑 톡 더꺼근에.(그래서 이제, 이제 뚜껑 톡 덮어서.)
107065 @ 시리 우에 두껑 톡 더껑.(시루 위에 뚜껑 톡 덮어서.)
107065 #1 시리 우에 이젠 솟두껭이 더껑. 놔두면은 이제 짐이 팡 팡 팡 팡. 글로 낭. 경허면은 이제 또 익을 만이 헹, 옛날에 시계도 엇이 그냥 짐작으로, 경헨 두께 올앙 이젠 젯가락 헹 영 헹 찔러 보면.(시루 위에 이젠 솥뚜껑 덮어. 놔두면 이제 김이 팡 팡 팡 팡. 글로 나서. 그러면 이제 또 익을 만큼 해서, 옛날에 시계도 없이 그냥 짐작으로, 그래서 뚜껑 열어서 이젠 젓가락 해서 이렇게 해서 찔러 보면.)
107065 @ 예.(예.)
107065 #1 익으면은 젯가락이 경 부뜨지 안허고 설면 막 부뜨곡 허난 거 부뜨지 않을 정도꺼지 허영.(익으면 젓가락이 그렇게 붙지 않고 설면 마구 붙고 하니까 거 붙지 않을 정도까지 해서.)

107065 @ 쭉 밑에까지 찔러 봥?(쭉 밑에까지 찔러 봐서?)

107065 #1 으, 막 익으면은 쫙 들어가.(으, 잘 익으면 쫙 들어가.)

107065 @ 한 얼마 정도 숢으민 영 익어집니까, 얼마 정도 치민?(한 얼마 정도 삶으면 이렇게 익습니까, 얼마 정도 찌면?)

107065 #1 하이고, 그것도 오래여. 그것도 흔 세 시간, 네 시간 걸릴 거라.(아이고, 그것도 오래. 그것도 한 세 시간, 네 시간 걸릴 거야.)

107065 @ 불은 막 센 불에?(불은 아주 센 불에?)

107065 #1 으?(으?)

107065 @ 불은 막 센 불에 헙니까?(불은 아주 센 불에 합니까?)

107065 #1 그냥 뭐 낭불로 헤나고 옛날엔.(그냥 뭐 나무 불로 했었고 옛날엔.)

107065 @ 게난 불 막 와랑와랑 허게?(그러니까 불 아주 우럭우럭 하게?)

107065 #1 와랑와랑은 안 허여. 그자 어느 정도.(우럭우럭은 안 해. 그저 어느 정도.)

107065 @ 으. 경헨 한 세 시간이민 뒈게 오래 헷구나.(으. 그래서 한 세 시간이면 오래 했구나.)

107065 #1 오래여. 오래 안 허믄 안 익어.(오래. 오래 안 하면 안 익어.)

107065 @ 어.(어.)

107065 #1 그것이 그냥 우터레까지 짐이 올라강 익어야 헐 거난.(그것이 그냥 위로까지 김이 올라가서 익어야 할 거니까.)

107065 @ 예. 게난 짐은 옆으로.(예. 그러니까 김은 옆으로.)

107065 #1 옆으로 나민 안 뒈여.(옆으로 나면 안 돼.)

107065 @ 안 뒈예?(안 돼요?)

107065 #1 으, 시리마개 헌 디로 나면 또 막고, 또 막고.(으, 시룻번 한 데로 나면 또 막고, 또 막고.)

107065 @ 으. 시리마개 허는 것도 곤썰 반죽헹 헙니까?(으. 시룻번 하는 것도 흰쌀 반죽해서 합니까?)

107065 #1 그건 아니, 좁썰 반죽. 좁썰 반죽으로.(그건 아니, 좁쌀 반죽. 좁쌀 반으로.)

107065 @ 기민 한 세 시간 허면 그거 꺼내 놩.(그럼 한 세 시간 하면 그거 꺼내 놔서.)

107065 #1 이제 두껑 올앙 봥 익어시믄 이제 불 뀌왓당 올아근에 이젠 ᄀᆞ렛방석 페왕 양쪽에 뭐 대영, 헹주 대영 들러당 이젠 폭 허게 어퍼. 비왕 겐 이제 칼로 끄창.(이제 뚜껑 열어서 봐서 익으면 이제 불 껐다가 열어서 이젠 맷방석 펴서 양쪽에 뭐 대서, 행주 대서 들어다가 이제 폭 하게 엎어서. 비워서 그래서 이제 칼로 끊어서.)

107065 @ 먹는 거예. 경헹 곤썰 침떡 만들어서예?(먹는 거요. 그래서 흰쌀 시루떡 만들었지요?)

107065 #1 으.(으.)

107065 @ 좁썰 침떡은?(좁쌀 시루떡은?)

107065 #1 좁썰 침떡은 경허고.(좁쌀 시루떡은 그렇고.)

107065 @ 예.(예.)

107065 #1 그 옛날엔 좁썰, 곤썰침떡이 벨로 엇주기, 우린. 우린 안 헤 봐서.(그 옛날엔 좁쌀, 흰쌀 시루떡이 별로 없지, 우린. 우린 안 해 봤어.)

107065 @ 안 헤 봐서.(안 해 봤어.)

107065 #1 으, 그 말만 듣고 그 대소상 때나 그때에는 특별히 그 징부찐 거[246] 엔 헌 것이 잇어.(으, 그 말만 듣고 그 대소상 때나 그때에는 특별히 그 '징부찐 거'라고 하는 것이 있어.)

107065 @ 건 뭐과, 징부찐 거?(건 뭡니까, '징부찐 거'?)

107065 #1 좁썰떡, 좁썰 ᄀᆞ를를 요만이 두덥게 허면은, 이만이 두더우면은 이젠 그 우에 ᄒᆞ꼼씩 곤썰 ᄀᆞ를를 부쪄.(좁쌀떡, 좁쌀 가루를 요만큼 두껍게 하면, 이만큼 두꺼우면 이젠 그 위에 조금씩 흰쌀 가루를 붙여.)

107065 @ 하하하.(하하하.)

107065 #1 겐 징부찌는 거엔 허주.(그래서 '징부찌는 거'라고 하지.)

107065 @ 게난 곤썰로만 다 못 허난?(그러니까 흰쌀로만 다 못 하니까?)

107065 #1 못 헤연.(못 해서.)

107065 @ 좁썰 헤 놓고 우에?(좁쌀 해 놓고 위에?)

107065 #1 으, 으 그거는 저 제서 때에 멩질 때에 건 상에 올리는 떡으로 ᄯᅳ로 허연. 징부찐 거 ᄯᅳ로.(으, 으. 그거는 저 제사 때에 명질 때에 건 상에 올리는 떡으로 따로 해서. '징부찐 거' 따로.)

107065 @ 기민 그거를 징부찐떡이렌 헤?(그럼 그거를 '징부찐떡'이라고 해?)

107065 #1 으, 징부찐 떡.(으, '징부찐떡'.)

107065 @ 징부찐 침떡이렌은 안 허고 그냥 징부찐떡이렌 허는 거라예?('징부찐' 시루떡이라고는 안 하고 그냥 '징부찐떡'이라고 하는 거지요?)

107065 #1 으.(으.)

107065 @ 곤썰 ᄀᆞ루 쪼금 들어가는 부분은 상에 올리는 거?(흰쌀 가루 조금 들어가는 부분은 상에 올리는 거?)

107065 #1 어, 올리는 거.(어, 올리는 거.)

107065 @ 게민 열 징이민 열 징 그렇게 안 허큰게?(그럼 열 층이면 열 층 그렇게 안 하겠네?)

107065 #1 안 허여, 먹을 만이, 저 올릴 만이.(안 해, 먹을 만큼, 저 올릴 만큼.)

107065 @ 올릴 만이.(올릴 만큼.)

107065 #1 으, 곤썰 ᄀᆞ를이 하지 안 헤부난 그냥 그냥 그자 불르는 척 헤근에.

246) '징부찐 거'는 '징부찐떡'을 말한다. '징부찐떡'은 좁쌀가루에 팥소 따위로 켜를 짓되 그 사이에 쌀가루를 넣어 켜를 안친 시루떡을 말한다.

(으, 흰쌀 가루 많지 않으니까 그냥 그냥 그저 바르는 척 해서.)

107065 @ 하하하. 맞수다, 맞수다.(하하하. 맞습니다, 맞습니다.)

107065 #1 엇이민 곤썰ᄀᆞ루 엇이민 그냥도 올리긴 올려. 침떡만도.(없으면 흰쌀 가루 없으면 그냥도 올리긴 올려. 시루떡만도.)

107065 @ 게난 침떡 칠 때는 막 멩심헤야.(그러니까 시루떡 찔 때는 아주 명심해야.)

107065 #1 멩심헤야 옛날엔. 방법이 잇어, 그냥 막. 어떵 허당 슝 봐. 문덜도 문 더꺼 불고 그디. 정지에 앚아근에 불 솜젠 허민 누게 아무라도 들어오지 말렌. 지금은 그런 거, 저런 거 엇는디이.(명심해야 옛날엔. 방법이 있어, 그냥 마구. 어떻게 하다가 흉 봐. 문들도 모두 던져 버리고 거기. 부엌에 앉아서 불 때려고 하면 누가 아무라도 들어오지 말라고. 지금은 그런 거, 저런 거 없는데.)

107065 @ 으.(으.)

107065 #1 옛날에 경헤근에덜 막 헤낫어.(옛날에 그래서들 마구 했었어.)

107065 @ 무산고예?(왜요?)

107065 #1 무사산디사 경헹 어떵 헹 누게 확확 들어 뎅기고 문 열고 헤 가민 그 시리고냥[247] 막은 것이 터져근에 파 파 파 파. 막 그냥 짐 나가 불어.(왜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누가 확확 들어 다니고 문 열고 해 가면 그 시룻번 구멍 막은 것이 터져서 파 파 파 파. 마구 그냥 김 나가 버려.)

107065 @ 짐 나가 불민 다 안 익고예?(김 나가 버리면 다 안 익고요?)

107065 #1 안 익어 불어.(안 익어 버려.)

107065 @ 어떤 거 익고 어떤 거 안 익고.(어떤 거 익고 어떤 거 안 익고.)

107065 #1 예, 원 익지 안허연. 비와 놓민 흔 쪽엔 설어 불고 흔 쪽엔 익어 불고, 못 먹어.(예, 전혀 익지 않아. 비워 놓으면 한 쪽엔 설어 버리고 한 쪽엔 익어 버리고, 못 먹어.)

107065 @ 아. 다른 떡은 아닌디 꼭 침떡은 경 헤낫어예?(아. 다른 떡은 아닌데 꼭 시루떡은 그렇게 했었지요?)

107065 #1 으, 침떡은 멩심헤.(으, 시루떡은 명심해.)

107066 @ 예, 예. 멩심헤 가지고. 아까 떡 얘기허멍 곤떡은 잇어나신디 송편이라는 것도 뚜로 잇어낫수과? 지금 송펜, 우리. 동글동글허게 만드는 거.(예, 예. 명심해 가지고. 아까 떡 얘기하면서 흰떡은 있었는데 송편이라는 것도 따로 있었습니까? 지금 송편, 우리. 동글동들하게 만드는 거.)

107066 #1 아니, 그 엿날엔 그거, 그거.(아니, 그 옛날엔 그거, 그거.)

107066 @ 곤떡이렌 헤낫지예?(흰떡이라고 했었지요?)

107066 #1 등절미[248]엔 헌 것도 셔낫주만은. 대목 그거 대목 허연.('등절미'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주로 그거 주로 했어.)

---

247) '시리고냥'은 시루를 솥에 안칠 때 그 틈에서 김이 새지 않도록 반죽을 해서 시룻번을 바르는데 그 시룻번이 터진 구멍을 말한다.

248) '등절미'는 메밀가루나 쌀가루로 반달처럼 두툼하게 만든 떡을 말한다.

107066 @ 게민 송펜이렌 안 불러나서예, 곤떡이렌 불러나서예.(그럼 송편이라고 안 불렀었어요, 흰떡이라고 불렀었지요?)

107066 #1 곤떡, 곤떡.(흰떡, 흰떡.)

107066 @ 아까 등절미가 뭐과?(아까 '등절미'가 뭡니까?)

107066 #1 등절미엔 헌 거 아까 송펜 거치 허여도 동글락허게 헤근에 이디 납작허고 이딘 ᄒᆞ꼼 봉오릇허게. 덩체기[249]는 봉오롯허고.('등절미'라고 한 거 아까 송편 같이 해도 동그랗게 해서 여기 납작하고 여긴 조금 봉긋하게. '덩체기'는 봉긋하고.)

107066 @ 게민 이건게, 영 동글락허게 헹, 이디 손으로 똑 눌렁 여기 영 줍는 거.(그럼 이거네,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여기 손으로 꼭 눌러서 여기 이렇게 집는 거.)

107066 #1 어, 어. 줍아 부는 거, 돌아가멍 줍앙.(어, 어. 집어 버리는 거, 돌아가면서 집어서.)

107066 @ 돌아가멍 동글랑허게.(돌아가면서 동그랗게.)

107066 #1 동글락헌 건 그거 송편이고.(동그란 건 그거 송편이고.)

107066 @ 송편이고.(송편이고.)

107066 #1 송편이고게.(송편이고.)

107066 @ 어떵 줍아?(어떻게 집어?)

107066 #1 게메 경허난. 이거 영 동글락허면은, 이거 영 동글락허믄.(그래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동그라면, 이거 이렇게 동그라면.)

107066 @ 예.(예.)

107066 #1 이거는 이디가 ᄒᆞ꼼 봉오릇허여. 이디가 영 봉오릇허믄 이건 영 허믄 이디 영 놩 욜로 영 누르뜨믄.(이거는 여기가 조금 봉긋해. 여기가 이렇게 봉긋하면 이건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놔서 욜로 이렇게 누르면.)

107066 @ 아, 끝에만?(아, 끝에만?)

107066 #1 으, 그것ᄀᆞ란.(으, 그것보고.)

107066 @ 아, 그걸 등절미렌 헤예?(아, 그걸 '등절미'라고 해?)

107066 #1 으, 등절미.(으, '등절미'.)

107066 @ 게민 송편도 잇고 등절미도 잇어난?(그럼 송편도 있고 '등절미'도 있었어?)

107066 #1 송편 허는 딘 송편, 등절미 허는 딘 등절미 엿날에 경.(송편 하는 덴 송편, '등절미' 하는 덴 '등절미' 옛날엔 그렇게.)

107066 @ 게민 이 송편이랑 등절미를 다 곤떡이렌 불럿수과?(그럼 이 송편이랑 '등절미'를 다 흰떡이라고 불렀습니까?)

107066 #1 곤떡이렌 불런, 곤떡.(흰떡이라고 불렀어, 흰떡.)

107066 @ 곤떡예? 게민 곤떡이렌 불럿던 건 이거 다 곤쏠로 만드난?(흰떡요?

249) '덩체기'는 표준어의 '둥치'에 대응하나 여기서는 떡의 중심부를 말한다.

그럼 흰떡이라고 불렀던 건 이거 다 흰쌀로 만드니까?)

107066 #1 곤썰로 만들앙.(흰쌀로 만들어서.)

107066 @ 이건 좁썰로 안 만들고?(이건 좁쌀로 안 만들고?)

107066 #1 좁썰로 안 만들아, 곤썰. 저 뭐 세미, 인절민 ᄆᆞ멀썰.(좁쌀로 안 만들어, 흰쌀. 저 뭐 '세미', 인절민 메밀쌀.)

107072 @ 아, 세미, 인절미?(아, '세미', 인절미?)

107072 #1 으.(으.)

107072 @ 세미나 인절미는 ᄆᆞ멀썰, ᄆᆞ물썰로 만든 거예. 게민 세미떡 한 번 만들어 줍서. 세미떡.('세미'나 인절미는 메밀쌀, 메밀쌀로 만든 거요. 그럼 '세미떡' 한 번 만들어 주세요. '세미떡'.)

107072 #1 세미떡은 또 이거 영 영 헤영, 이거 영 헤영 이것이 동글락허면은 일로만 영, 바우로만.('세미떡'은 또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것이 동그라면 일로만 이렇게, 가장자리로만.)

107072 @ 바우로만?(가장자리로만?)

107072 #1 어, 어. 흔 펜 바우는 요렇게 놔두고 욜로 시작허믄 욜로 영 요꺼지.(어, 어. 한 편 가장자리는 요렇게 놔두고 욜로 시작하면 욜로 이렇게 요까지.)

107072 @ 게난 이거, 만약 이게 지금은 네모우다만은 이거 동글락허게 본을 뜨는 거?(그러니까 이거, 만약 이게 지금은 네모입니다만 이거 동그란 본을 뜨는 거?)

107072 #1 아니 그냥 영.(아니 그냥 이렇게.)

107072 @ 아, 손으로만?(아, 손으로만?)

107072 #1 손으로만, 본 아니.(손으로만, 떡살 아니.)

107072 @ 아, 손으로만.(아, 손으로만.)

107072 #1 손으로만 헹 이딘 넴겨두고, 이디 넴겨두곡 욜로만 요 영 헹 누르뜨민, 누르떠 놔근에 이제 또 이 바우 헤 불지 안허민 소곱에 쉬, 풋쉬가 들어가니까.(손으로만 해서 여긴 남겨두고, 여긴 남겨두고 욜로만 요 해서 이렇게 누르면, 눌러 놔서 이제 또 가장자리 해 버리지 않으면 속에 소, 팥소가 들어가니까.)

107072 @ 아, 예.(아, 예.)

107072 #1 솖아 가믄 나와 불어.(삶아 가면 나와 버려.)

107072 @ 예.(예.)

107072 #1 세미는.('세미'는.)

107072 @ 으.(으.)

107072 #1 경허난 돌아가멍 영 영 영 영 줍아.(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집어.)

107072 @ 예, 세미. 인절미는?(예, '세미'. 인절미는?)

107072 #1 인절미는 그냥 저 무시것고 안, 안반이엔 헌 것이 잇주기게.(인절미는 그냥 저 무엇 안, 안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107072 @ 예.(예.)

107072 #1 빨래 두드리는 안반. 그런 것에 놩 반죽헤근에 작작 밀엉.(빨래 두드리는 안반. 그런 것에 놔서 반죽해서 작작 밀어서.)

107072 @ 으.(으.)

107072 #1 마께로. 밀엉 납작허게 헤 놔근에 칼로 이젠 네모나게 끄차. 그것이 인절미.(방망이로. 밀어서 납작하게 해 놔서 칼로 이젠 네모나게 끊어. 그것이 인절미.)

107072 @ 그게 인절미.(그게 인절미.)

107072 #1 으.(으.)

107072 @ 세미랑 인절미는 좁썰로 허는 거?('세미'랑 인절미는 좁쌀로 하는 거?)

107072 #1 아니. ᄆᆞ멀썰.(아니. 메밀쌀.)

107072 @ 아, ᄆᆞ물썰. 이거 ᄆᆞ물썰예.(아, 메밀쌀. 이거 메밀쌀요.)

107072 #1 ᄆᆞ멀썰.(메밀쌀.)

107072 @ ᄆᆞ물ᄀᆞ루 헤당 반죽허젠 허민?(메밀가루 해다가 반죽하려고 하면?)

107072 #1 반죽은 저 물 미지근이 데왕 그냥 알맞게 찌어 가지고 찌어근에 그자. 막 ᄆᆞ물썰 떡 허긴 좋아.(반죽은 저 물 미지근하게 데워서 그냥 알맞게 쪄 가지고 쪄서 그저. 아주 메밀쌀 떡 하긴 좋아.)

107072 @ ᄆᆞ물썰이 반죽하기는.(메밀쌀이 반죽하기는.)

107072 #1 으, 으. 좋아.(으, 으. 좋아.)

107067 @ 예. 빙떡은 어떤 것과, 빙떡?(예. 빙떡은 어떤 겁니까, 빙떡?)

107067 #1 빙떡? 빙떡은 지금도 헴주만은 엿날도게 마찬가지 지금이나 엿날이나 그거.(빙떡? 빙떡은 지금도 하지만 옛날도 마찬가지.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거.)

107067 @ 예, 이제 만들어 줍서. 말로.(예, 이제 만들어 주세요. 말로.)

107067 #1 말로?(말로?)

107067 @ 예.(예.)

107067 #1 그거 ᄆᆞ물ᄀᆞ룰 헤영.(그거 메밀가룰 해서.)

107067 @ 예.(예.)

107067 #1 이젠 반죽 만들앙 물 놔근에 어느 정도.(이젠 반죽 만들어서 물 넣어서 어느 정도.)

107067 @ 빙떡은 얄룹게 헤야 뭴 거라예?(빙떡은 얇게 해야 될 거지요?)

107067 #1 ᄉᆞ못 얄뤄도 안 뒈고, ᄉᆞ못 뒈여도 안 뒈고.(사뭇 얇아도 안 되고, 사뭇 되어도 안 되고.)

107067 @ 안 뒈고예?(안 되고요?)

107067 #1 ᄀᆞᆫ 맞아야만 허주게. 후라이판이 영 놩 영 익혀 보멍.(간 맞아야만 하지. 프라이팬이 이렇게 놔서 이렇게 익혀 보면서.)

107067 @ 으.(으.)

107067 #1 익혀 보멍. 얄루민 막 고냥 터져 불고 두터우면 또 ᄆᆞᆯ젠 허믄 꺼꺼져

불고. 게난 그자 어느 정도 곤 맞게 혜영 카근에 이젠. 나 지금도 이제 빙떡 정월 멩질 나믄 지점서. 아들네 집이 강.(익혀 보면서. 얇으면 아주 구멍 터져 버리고 두꺼우면 또 말려고 하면 꺾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저 어느 정도 간 맞게 해서 타서 이젠. 나 지금도 이제 빙떡 정월 명절 나면 지져. 아들네 집에 가서.)

107067 @ 아들네 집이 강.(아들네 집에 가서.)

107067 #1 아들네 집이 가근에 그자 먹젠덜게. 빙떡은 아무나 먹기 좋아허는 거 아니. 게난에 이녁덜 먹젠.(아들네 집에 가서 그저 먹으려고. 빙떡은 아무나 먹기 좋아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 먹으려고.)

107067 @ 예.(예.)

107067 #1 상에도 올리고 허주만은 먹음덜 허젠 혼 뒈 헤다근에 ᄆᆞ물ᄏᆞ를 헤오랑 어무니 지 집서 허믄. 봐레진 못 허고 그거 짐작으로라도 무수 헤여근에 쉬허곡.(상에도 올리고 하지만 먹기들 하려고 한 되 해다가 메밀가루 해 와서 어머니 자기 집에서 하면. 보진 못 하고 그거 짐작으로라도 무 해서 소 하고.)

107067 @ 예, 경혜영.(예. 그래서.)

107067 #1 엿날엔 또 ᄉᆞ못 엿날에 그것도 엇엇주기만은. 중간에사 그것도 나왓주게.(옛날에 또 사뭇 옛날에 그것도 없었지만. 중간에야 그것도 나왔지.)

107067 @ 빙떡도 중간에 나온 것과?(빙떡도 중간에 나온 겁니까?)

107067 #1 예, 예. ᄉᆞ뭇 엿날엔 그런 건 고급 떡이라 경 잘 엇엇주게. 그자 ᄆᆞ물 쏠 허믄 세미, 인절미.(예, 예. 사뭇 옛날엔 그런 건 고급 떡이라 그렇게 잘 없었지. 그저 메밀쌀 하면 '세미', 인절미.)

107067 @ 예.(예.)

107067 #1 식게 때 올리젠 헤여근에 ᄒᆞ꼼씩 헤다근에.(식게 때 올리려고 해서 조금씩 해다가.)

107067 @ 기민 빙떡 허젠 허민 속도 넣어야 헐 거 아니과게?(그럼 빙떡 하려고 하면 속도 넣어야 할 거 아닙니까?)

107067 #1 속에, 속에 무수.(속에, 속에 무.)

107067 @ 무수 어떵 헹?(무 어떻게 해서?)

107067 #1 무수 칼로 썰어근에, 칼로 썰어근에 확 데우쳥. 경헤근에 양념 무쳥, 그대로 곤 맞게 무쳥. 겐 파도 ᄒᆞ꼼 줌질이 썰어 놓곡. 경헹 톡톡 영 영 ᄆᆞᆯ아근에.(무 칼로 썰어서, 칼로 썰어서 확 데쳐서. 그래서 양념 묻혀서, 그대로 간 맞게 묻혀서. 그래서 파도 조금 가늘게 썰어 넣고. 그래서 톡톡 이렇게 이렇게 말아서.)

107067 @ 하하하.(하하하.)

107067 #1 영 영 헤영이.(이렇게 이렇게 해서.)

107067 @ 예.(예.)

107067 #1 영 영 영 영 ᄆᆞᆯ앙 영 허믄.(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하면.)

107067 @ 무수는 영 가늘게 채 썰엉 솖으는 거라예?(무는 이렇게 가늘게 채 썰

어서 삶는 거지요?)

107067 #1 으, 채 썰엉.(으, 채 썰어서.)

107067 @ 지금이야 빙 지질 때 후라이팬에 지지주만은.(지금이야 빙떡 지질 때 프라이팬에 지지지만.)

107067 #1 엿날은 솟뚜껭이.(옛날은 솥뚜껑.)

107067 @ 솟뚜껭이.(솥뚜껑.)

107067 #1 솟뚜껭이, 하나씩.(솥뚜껑, 하나씩.)

107067 @ 으.(으.)

107067 #1 이제는 뭐 후라이팬에 허민 두 개도 허고 세 개도 허고 허주만은 그 전이 솟두껭인 가운데가 옴막허주게, ᄒᆞ꼼.(이제는 뭐 프라이팬에 하면 두 개도 하고 세 개도 하고 하지만 그 전에 솥뚜껑은 가운데가 오목하지, 조금.)

107067 @ 예.(예.)

107067 #1 게난 하나베끼 못 허여.(그러니까 하나밖에 못 해.)

107067 @ 예. 솟두껭이도 영 지름 ᄇᆞᆯ르고 헤야 헐 거 아니?(예. 솥뚜껑도 이렇게 기름 바르고 해야 할 거 아니?)

107067 #1 으, 지름 ᄇᆞᆯ르고.(으, 기름 바르고.)

107067 @ 뭘로 지름 ᄇᆞᆯ랏수과?(뭐로 기름 발랐습니까?)

107067 #1 저 무시걸로게. 무신 감저 ᄆᆞ른 거. 감저 철에는 감저 똑 끈어 두어 근에 허고 경 안 허면 놈삐 철에 놈삐도 허고.(저 무엇으로. 무슨 고구마 마른 거. 고구마 철에는 고구마 똑 끊어 두어서 하고 그렇게 안 하면 무 철에 무도 하고.)

107067 @ 음.(음.)

107067 #1 그런 걸로 영 영 멕이고, 멕여낫주게.(그런 걸로 이렇게 이렇게 먹이고, 먹였었지.)

107067 @ 예. 춤지름 발랏수과?(예. 참기름 발랐습니까?)

107067 #1 아니, 춤지름은 아니고. 엿날엔 저 도새기지름.(아니, 참기름은 아니고. 옛날엔 저 돼지기름.)

107067 @ 아, 도새기지름으로.(아, 돼지기름으로.)

107067 #1 도새기 지금덜도 헤근에 헤당. 그 성헌 때에 성헌 것쯤은 허믄 막 맛잇어. 쿠싱허여.(돼지 지금들은 해서 해다가. 그 성한 때에 성한 것쯤은 하면 아주 맛있어. 고소해.)

107067 @ 추렴헐 때 도새기지름을 헤다 놓는구나?(추렴할 때 돼지기름 해다 놓는구나?)

107067 #1 어. 어떵 허당덜 보믄 그거 갈라당 잇을 때도 잇엇주기만.(어. 어떻게 하다가들 보면 그거 갈라다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

107067 @ 예.(예.)

107067 #1 어떵 허당 보믄 춤지름으론 안 헤 봔.(어떻게 하다가 보면 참기름으론 안 해 봤어.)

107067 @ 지금이야 춤지름으로 허지 안헤?(지금이야 참기름으로 하지 않아?)
107067 #1 예, 지금.(예, 지금.)
107067 @ 옛날에는 춤지름 안 헤서예?(옛날에는 참기름 안 했어요?)
107067 #1 으.(으.)
107067 @ 여기서도 유채 지름 뽑앙?(여기서도 유채 기름 뽑아서?)
107067 #1 뽑아낫주게, 유채 지름.(뽑았었지, 유채 기름.)
107067 @ 그걸로도 헤나고?(그걸로도 했었고?)
107067 #1 그걸로도 헤난.(그걸로도 했었어.)
107067 @ 또 도새기지름?(또 돼지기름?)
107067 #1 으, 도새기지름도 헤영 헤나고.(으, 돼지기름도 해서 했었고.)
107067 @ 예, 예.(예, 예.)
107067 #1 막 엿날에. 지름도 에렵고 아무것도 어려운 때에.(아주 옛날에. 기름도 어렵고 아무것도 어려운 때에.)
107068 @ 여기는 밀ᄀᆞ루로 영 상웨떡은 안 만들안?(여기는 밀가루로 이렇게 상화떡은 안 만들었어?)
107068 #1 무사 안 헤여.(무사 안 해.)
107068 @ 상웨떡?(상화떡?)
107068 #1 삼메떡 허여. 밀ᄀᆞ를로.(삼메떡 해. 밀가루로.)
107068 @ 상웨떡이렌 헙니까 여기도?('상웨떡'이라고 합니까, 여기도?)
107068 #1 삼메떡.(삼메떡.)
107068 @ 삼메떡?(삼메떡?)
107068 #1 삼메떡.(삼메떡.)
107068 @ 예. 삼메떡 만들어 줍서.(예. 삼메떡 만들어 주세요.)
107068 #1 삼메떡은.(삼메떡은.)
107068 @ 반죽허는 거서부터.(반죽하는 거에서부터.)
107068 #1 삼메떡은 밀ᄀᆞ룰 헤영.(삼메떡은 밀가루 해서.)
107068 @ 예.(예.)
107068 #1 이젠 저 탁배기. 저, 저 이제 거트민 막걸리.(이젠 저 막걸리. 저, 저 이제 같으면 막걸리.)
107068 @ 막걸리.(막걸리.)
107068 #1 막걸리나, 우린 막걸리 아니 허연 저 기주를 만들앙.(막걸리나, 우린 막걸리 안 해 저 기주를 만들어서.)
107068 @ 예.(예.)
107068 #1 저 누룩 놓고 헤근에. 경헤영 ᄒᆞ꼼 쉬게 쉰다리[250]거치 쉬게 허여 놩. 그 물로 헹 쪄근에 헹 놔두민 부각이[251] 영 올라와.(저 누룩 넣고 해서. 그래서

250) '쉰다리'는 밥과 누룩으로 담근 음료를 말한다.
251) '부각이'는 거품이나 솜 따위가 잘 피어오른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부겍이'라고도 한다.

조금 쉬게 ‘쉰다리’같이 쉬게 해서 놔서. 그 물로 해서 쪄서 해서 놔두면 ‘부각이’ 이렇게 올라와.)

107068 @ 음.(음.)

107068 #1 반죽 만들앙 놔두믄.(반죽 만들어서 놔두면.)

107068 @ 으.(으.)

107068 #1 ᄒᆞ꼼 영 ᄃᆞᆺ신디 헤근에 우에, 도고리서 찌영 도고리째 놩 그 우에 곱닥헌 무신 거 더껑, 포데기라도 더꺼근에 놩. 여름 때에는 아무 디 놔도 뒈주만은 겨울 때는 막.(조금 이렇게 따뜻한데 해서 위에, 함지박에서 쪄서 함지박째 놔서 그 위에 고운 무슨 거 덮어서, 보라도 덮어서 놔서. 여름 때에는 아무 데 놔도 되지만 겨울 때는 마구.)

107068 @ ᄯᅡ뜻헌 디.(따뜻한 데.)

107068 #1 온돌방에. 온돌방에 헹 ᄃᆞ시게 헹 놔두민.(온돌방에. 온돌방에 해서 따뜻하게 해서 놔두면.)

107068 @ 이불 더펑 놔둬예?(이불 덮어 놔둬요?)

107068 #1 으. 그 우이 부겍이 올라오믄 그걸로 영 영 끄치멍, 요만씩 끄치멍 영 영 만들아. 영 놔두믄, 만들앙 놩도 또 저 궤와야, 저 부꺼 올라와야. 만들아도.(으. 그 위에 ‘부겍이’ 올라오면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끊으면서, 요만큼씩 끊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놔두면, 만들어서 놔도 또 저 괴야, 저 부풀어 올라야. 만들어도.)

107068 @ 으.(으.)

107068 #1 경헹 이제 치믄 이제 좋주게.(그래서 이제 찌면 이제 좋지.)

107068 @ 음. 기주 넣는덴 헷잖아예? 기주예, 아까 막걸리, 탁베기 대신에.(음. 기주 넣는다고 했잖아요? 기주요, 아까 막걸리, 막걸리 대신에.)

107068 #1 기주. 기주 어느제 허영?(그렇지. 그렇지 언제 해서?)

107068 @ 으.(으.)

107068 #1 기준 아무 때라도게 밥에 누룩 놔근에게.(기준 아무 때라도 밥에 누룩 놔서.)

107068 @ 아.(아.)

107068 #1 누룩 놩 헹 놔두면은 부글부글 익어.(누룩 놔서 해서 놔두면 부글부글 익어.)

107068 @ 익어.(익어.)

107068 #1 저 궤여.(저 괴어.)

107068 @ 궤여.(괴어.)

107068 #1 으, 궤믄 기주, 뒈는 거주게.(으, 괴면 그렇지, 되는 거지.)

107068 @ 아, 그걸 놓는 거라?(아, 그걸 넣는 거야?)

107068 #1 경허믄 물로 똘라근에. 그 아젱인 놓지 말앙.(그럼 물로 따라서. 그 앙금은 넣지 말고.)

107068 @ 으.(으.)

107068 #1 누룩 아젱이도 싯고 밥 아젱이도 시난에 아젱인 안 놓고 그 국물만.(누룩 앙금도 있고 밥 앙금도 있으니까 앙금은 안 넣고 그 국물만.)

107068 @ 으.(으.)

107068 #1 겐 찌여근에. 이제는 막걸리허고 우유. 지금은.(그래서 쪄서. 이제는 막걸리하고 우유. 지금은.)

107068 @ 아, 막걸리허고 우유.(아, 막걸리하고 우유.)

107068 #1 으, 빵떡 만드는 디 꼭 막걸리허고 우유 들어가주게.(으, 빵떡 만드는 데 꼭 막걸리하고 우유 들어가지.)

107073 @ 예. 그 절벤, 솔벤은 안 헤낫수과?(예. 그 절편, 솔편은 안 했었습니까?)

107073 #1 절벤, 솔벤[252]은 허는 디는 허곡 안 허는 디는 안 허여. 허는 사름은 허곡, 우린 안 허여.(절편, 솔편은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해. 하는 사람은 하고, 우린 안 해.)

107073 @ 아.(아.)

107073 #1 우리 세미, 인절미, 곤떡 그자 침떡 그거, 그거주기게. 엿날 못 사난 경 어디 이것 저것 헐 수가 셔게.(우리 '세미', 인절미, 흰떡 그저 시루떡 그거, 그거지. 옛날 못 사니까 그렇게 어디 이것 저것 할 수가 있어.)

107073 @ 으. 이쪽엔 절벤 솔벤 안 헷구나.(으. 이쪽엔 절편, 솔편 안 했구나.)

107073 #1 으, 절벤 솔벤 어디 웃드르[253] 어디 상촌더레 헤나실 거라.(으, 절편 솔편 어드 '웃드르' 어디 상촌으로 했었을 거야.)

107075 @ 예. 그 웃기떡이렌 헌 건 뭐과?(예. 그 웃기떡이고 한 건 뭡니까?)

107075 #1 뭐?(뭐?)

107075 @ 웃기떡, 웃지떡이렌 헙니까, 여긴?(웃기떡, 웃기떡이라고 합니까, 여긴?)

107075 #1 뭔 떡?(뭔 떡?)

107075 @ 웃지, 웃지떡?(웃기, 웃기떡?)

107075 #1 웃지떡이엔 헌 말 들어보지 안헷는데.(웃기떡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지 않았는데.)

107075 @ 제사헐 때 맨 우에 올리는 지름떡 같은 걸 뭐렌 부릅니까?(제사할 때 맨 위에 올리는 기름떡 같은 걸 뭐라고 부릅니까?)

107075 #1 고장떡.(고장떡.)

107075 @ 아, 그거 고장떡?(아, 그거 고장떡?)

107075 #1 으. 고장떡. 지름떡도 허주만은 고장떡도 헤. 고장떡 우선 헤야주게.(으, 고장떡. 기름떡도 하지만 고장떡도 해. 고장떡 우선 해야지.)

---

252) '솔벤'은 쌀가루나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얇게 민 다음에 반달 모양의 떡살로 떠서 끓는 물에 삶거나 찐 떡이다.

253)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 이루어진 마을을 말한다.

107075 @ 고장떡은 어떵 만드는 거라?(고장떡 어떻게 만드는 거야?)

107075 #1 고장떡은 동글락허게 헤근에 바우 영 영.(고장떡은 동그랗게 해서 가장자리 이렇게 이렇게.)

107075 @ 뭘로?(뭘로?)

107075 #1 손으로, 손으로.(손으로, 손으로.)

107075 @ 아니. 곤쏠로?(아니. 흰쌀로?)

107075 #1 곤쏠로도 허고, 곤쏠로 대목 허주게. 곤쏠로 고장떡은.(흰쌀로도 하고, 흰쌀로 주로 하지. 흰쌀로 고장떡은.)

107075 @ 으, 반죽 영 헹.(으, 반죽 이렇게 해서.)

107075 #1 영 영 헹, 영 동글락허게 헹 영 헤 불민. 납작허게 허영 영 영 영.(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납작하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07075 @ 예.(예.)

107075 #1 이것이 고장.(이것이 고장.)

107075 @ 겐 기름에 지져?(그래서 기름에 지져?)

107075 #1 아니. 그냥 그건 솖아. 지름떡이 뜨로 잇어. 지름떡은 그냥 무 가다[254]로 헹 바위 안 헤 납작허게만 헹 요만이 헹 지름에 튀경.(아니. 그냥 그건 삶아. 기름떡이 따로 있어. 기름떡은 그냥 무 모양으로 해서 가장자리 안 해서 납작하게만 해서 요만큼 해서 기름에 튀겨서.)

107075 @ 아.(아.)

107075 #1 엿날엔 지름떡도 엇언.(옛날엔 기름떡도 없었어.)

107075 @ 엇어난예.(없었어요?)

107075 #1 옛날엔 엇언, 중간에사.(옛날엔 없었어, 중간에야.)

107075 @ 반죽은 고장떡이나 지름떡이나.(반죽은 고장떡이나 기름떡이나.)

107075 #1 으, 으. 마찬가지, 마찬가지.(으, 으. 마찬가지, 마찬가지.)

107075 @ ᄀᆞ튼 거라?(같은 거야?)

107075 #1 그걸로, 그걸로.(그걸로, 그걸로.)

107075 @ 그걸로 헹 영 우에 헹 모양 냉.(그걸로 해서 이렇게 위에 해서 모양 내서.)

107075 #1 으, 모양만 틀리지.(으, 모양만 다르지.)

107075 @ 솖아 내면 고장떡?(삶아 내면 고장떡?)

107075 #1 으.(으.)

107075 @ 기름에 지져 내면.(기름에 지져 내면.)

107075 #1 지름떡.(기름떡.)

107075 @ 지름떡. 게민 옛날에 지름떡은 본 안 떳수과?(기름떡. 그럼 옛날에 기름떡은 본 안 떴습니까?)

---

254) '가다'는 일본어의 모양, 형태의 의미인 '가타(かた(形))'에서 온 말이다.

107075 #1 본 안 떠.(본 안 떠.)
107075 @ 지금은 본 뜨지예?(지금은 본 뜨지요?)
107075 #1 지금은 본덜도 뜨주게.(지금은 본들도 뜨지.)
107069 @ 그럼 어무니, 제사 떡, 제사 떡에 헷던 게 제사헐 때 맨 밑에 뭐 놧수과?(그럼 어머니, 제사 떡, 제사 떡에 했던 게 제사할 때 맨 밑에 뭐 놨습니까?)
107069 #1 떡은? 떡 종류?(떡은? 떡 종류?)
107069 @ 예. 순서, 순서.(예. 순서, 순서.)
107069 #1 침떡, 침떡.(시루떡, 시루떡.)
107069 @ 맨 밑에 침떡, 그 다음 침떡 우이?(맨 밑에 시루떡, 그 다음 시루떡 위에?)
107069 #1 침떡 우이는 저 세미, 인절미.(시루떡 위에는 저 '세미', 인절미.)
107069 @ 세미나 인절미예, 그 다음?('세미'나 인절미요, 그 다음?)
107069 #1 송펜.(송편.)
107069 @ 송펜. 또 그 다음?(송편. 또 그 다음?)
107069 #1 고장떡.(고장떡.)
107069 @ 그 다음 고장떡. 그 다음?(그 다음 고장떡. 그 다음?)
107069 #1 그 다음은 떡 종류는 그거.(그 다음은 떡 종류는 그거.)
107069 @ 그거예.(그거요.)
107069 #1 옛날에.(옛날에.)
107069 @ 침떡, 맨 밑에 침떡 놩, 우에 세미나 인절미 놩, 그 다음 송펜 언져 놩 그 다음 고장떡 놧던 거라예?(시루떡, 맨 밑에 시루떡 놔서, 위에 '세미'나 인절미 놔서, 그 다음 송편 얹혀 놔서 그 다음 고장떡 놨던 거지요?)
107069 #1 으, 으.(으, 으.)
107070 @ 영 놧고. 그럼 상 났을 때, 상 났을 때도 마찬가지?(이렇게 놨고. 그럼 상 났을 때, 상 났을 때도 마찬가지?)
107070 #1 비슷비슷허여. 엿날에는 비슷비슷.(비슷비슷해. 옛날에는 비슷비슷.)
107070 @ 예.(예.)
107070 #1 없으니까게. 이제 거치 이것저것 허곡, 허여근에 뭐 뭣이라도 첨말로 고급으로 허진 안허여게. 엿날은 그냥 뭐.(없으니까. 이제 같이 이것저것 하고, 해서 뭐 뭐라도 참말로 고급으로 하진 않아. 옛날은 그냥 뭐.)
107070 @ 게민 상웨떡이나 아까?(그럼 상화떡이나 아까?)
107070 #1 그런 건 안 올려, 잘.(그런 건 안 올려, 잘.)
107070 @ 안 올리는 것과?(안 올리는 겁니까?)
107070 #1 으. 그런 거는 그런 거는 허젠은 허면은 막 절약헹 허면은 그거 한 가지.(으. 그런 거는 그런 거는 하려고 하면 아주 절약해서 하면 그거 한 가지.)
107070 @ 으.(으.)
107070 #1 그거 혼 가지로만도 헐 수가 잇주기게.(그거 한 가지로만도 할 수가

있지.)

107070 @ 아.(아.)

107070 #1 그자. 어려우민 어떵 헐 거라. 엇이민 엇인 대로.(그저. 어려우면 어떻게 할 거야. 없으면 없는 대로.)

107070 @ 그럼 상웨떡 가졍 약궤 같은 것도 안 만들어낫다예?(그럼 상화떡 가져서 약궤 같은 것도 안 만들었네요?)

107070 #1 무시거?(무엇?)

107070 @ 약궤.(약궤.)

107070 #1 약궤가, 몰라 약궤.(약궤가, 몰라 약궤.)

107070 @ 상웨떡 요만이 헹 지지는 거. 기름에 지지는 거.(상화떡 요만큼 해서 지지는 거. 기름에 지지는 거.)

107070 #1 그것도 안 혜 보고.(그것도 안 해 보고.)

107070 @ 안 혜 보고예?(안 해 보고요?)

107070 #1 으. 아주 어렵게덜 살아나부난.(으. 아주 어렵게들 살았었으니까.)

107070 @ 만뒤떡[255]이렌 헌 것도 잇어낫수과?('만뒤떡'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까?)

107070 #1 만두?('만두'?)

107070 @ 만뒤?('만뒤'?)

107070 #1 우리 동넨 엇어.(우리 동넨 없어.)

107070 @ 게난 지름떡 대신에 고장떡을 많이 올려신게?(그러니까 기름떡 대신에 고장떡을 많이 올렸네요?)

107070 #1 예, 예.(예, 예.)

107070 @ 기름떡 안 헹예?(기름떡 안 해서요?)

107070 #1 예.(예.)

107070 @ 아까 물떡이라는 거 잇어나신디 그건?(아까 '물떡'이라는 거 있었는데 그건?)

107070 #1 그건 물떡[256]은 그냥 보통으로 사용은 안 허고.(그건 '물떡'은 그냥 보통으로 사용은 안 하고.)

107070 @ 음.(음.)

107070 #1 어디 영장날 때덜이나 혜영 크게. 세미떡 모냥으로 뭰 건디 아주 크게. 물떡, 저 돌레떡 그런 건.(어디 초상날 때들이나 해서 크게. '세미떡' 모양으로 된 건데 아주 크게. '물떡', 저 도래떡 그런 건.)

107070 @ ᄆᆞ물ᄀᆞ루로?(메밀가루로?)

107070 #1 아니, ᄆᆞ물ᄀᆞ룰로만 아니고 좁썰로도 뒈여.(아니, 메밀가루로만 아니고 좁쌀로도 돼.)

---

255) '만뒤떡'은 메밀가루를 익반죽 한 후에 안에 팥소 등을 넣어서 쪄낸 후에 다시 팥고물을 무친 떡을 말한다.
256) '물떡'은 메밀가루 따위로 반달 모양으로 빚어 그 안에 팥소나 무채를 넣어 삶아낸 떡을 말한다.

107070 @ 좁썰로도 뒈여?(좁쌀로도 돼?)

107070 #1 예, 그건 좁썰로도 뒈여, 보리썰로도 뒈고.(예, 그건 좁쌀로도 돼, 보리쌀로도 되고.)

107070 @ 으. 크게 헹.(으. 크게 해서.)

107070 #1 크게, 크게. 돌레떡이엔 헹 크게 허고 물떡도 막 크게 허고.(크게, 크게. 도래떡이라고 해서 크게 하고 '물떡'도 아주 크게 하고.)

107070 @ 그거는 언제 물떡 쓰는 거?(그거는 언제 '물떡' 쓰는 거?)

107070 #1 그 영장 때 고적으로.(그 초상 때 고적으로.)

107070 @ 고적으로.(고적으로.)

107070 #1 고적 떡으로덜 헤난.(고적 떡으로들 했었어.)

107070 @ 고적이 뭐과?(고적이 뭡니까?)

107070 #1 영장 때 부주 떡게, 이제 거트면.(초상 때 부조 떡. 이제 같으면.)

107070 @ 아.(아.)

107070 #1 이제는 봉투로덜 헹 감주기만은 엿날엔 떡으로덜 헤영 강 바쪄.(이제는 봉투로들 해서 가지만 옛날엔 떡으로들 해서 가서 바쳐.)

107070 @ 게민 그거 바구니에.(그럼 그거 바구니에.)

107070 #1 으, 바구니에.(으, 바구니에.)

107070 @ 그 부주헐 걸로 헹 가민.(그 부조할 걸로 해서 가면.)

107070 #1 친촉집이덜 친촉질에 고적이엔 헌 건.(친족집에들 친족질에 고적이라고 한 건.)

107070 @ 고적떡 헹 가민 영장밧디서는 온 사름덜 영?(고적떡 해서 가면 장지에서는 온 사람들 이렇게?)

107070 #1 예, 그디 온 사름덜.(예, 거기 온 사람들.)

107070 @ 반 테우고.(반기 나눠 주고.)

107070 #1 으, 테우는 거. 멕이곡.(으, 나눠 주는 거. 먹이고.)

107070 @ 멕이곡 허는 거?(먹이고 하는 거?)

107070 #1 으, 그것이 일당이고 그것이 뭐 먹는 거고 다.(으, 그것이 일당이고 그것이 뭐 먹는 거고 다.)

107070 @ 게난 그것이 물떡으로 썻엇던 거예. 고장떡이렌 허는 거?(그러니까 그것이 '물떡'으로 썼었던 거요. 고장떡이라고 하는 거?)

107070 #1 아니, 돌레떡, 물떡.(아니, 도래떡, '물떡'.)

107076 @ 그럼 저기 당에는 안 다녀낫수과?(그럼 저기 당에는 안 다녔었습니까?)

107076 #1 무사 안 뎅겨.(왜 안 다녀.)

107076 @ 당에 다닐 때 허는 떡은 뭐과?(당에 다닐 때 하는 떡은 뭡니까?)

107076 #1 당에 다닐 때는 밥헤영 보시에 거리곡게.(당에 다닐 때는 밥해서 보시기에 뜨고.)

107076 @ 예.(예.)

107076 #1 보시에 거리곡. 술 사이다로 하나 가지고.(보시기에 뜨고. 술 사이다로 하나 가지고.)

107076 @ 으.(으.)

107076 #1 또 센꼬[257] 가지고. 상돌, 상돌 그거 영 저 센꼬 꽂이는 상돌이 셔.(또 향 가지고. 향로석, 향로석 그거 이렇게 저 향 꽂는 향로석이 있어.)

107076 @ 예, 예.(예, 예.)

107076 #1 그거 허고. 또 저 고기 하나 구워 놓고.(그거 하고. 또 저 고기 하나 구워 놓고.)

107076 @ 으.(으.)

107076 #1 또 벡지 멧 장 헹 강. 백지, 창호지 말고 벡지엔 헌 거, 창호지보단 족은 거 있지 안 허여? 창 불르는 저거보다 작은 거.(또 벽지 몇 장 해서 가서. 백지, 창호지 말고 벽지라고 한 거, 창호지보단 작은 거 있지 않아? 창 바르는 저거보다 작은 거.)

107076 @ 으, 으.(으, 으.)

107076 #1 그거 멧 장 허고 경헹 간.(그거 몇 장 하고 그렇게 가서.)

107076 @ 떡은 안 허고?(떡은 안 하고?)

107076 #1 떡도 혜영 가긴 혜영 가주기만은. 떡도 혜영 가긴 혜영 간. 다데떡[258]. 다데떡이엔 헌 거.(떡도 해서 가긴 해서 가지만. 떡도 해서 가긴 해서 갔어. '다데떡'. '다데떡'이라고 한 거.)

107076 @ 아. 절에 갈 때 가져가는 걸 다데떡이렌 헙니까?(아. 절에 갈 때 가져가는 걸 '다데떡'이라고 합니까?)

107076 #1 절이라게.(절이야.)

107076 @ 저 저, 당.(저 저, 당.)

107076 #1 당.(당.)

107076 @ 거기 갈 때 뭐 가정 갓수과?(거기 갈 때 뭐 가지고 갔습니까?)

107076 #1 다데떡.(으, '다데떡'.)

107076 @ 그럼 다데떡은 어떵 만들아?(그럼 '다데떡'은 어떻게 만들어?)

107076 #1 동글락헌 거 고장떡 거치 만드는 다데떡. 그냥 고장만 아니 멘들앙 동글락허게 혜영.(동그란 거 고장떡 같이 만드는 '다데떡'. 그냥 고장만 안 만들고 동그랗게 해서.)

107076 @ ᄆᆞ물ᄀᆞ루로?(메밀가루로?)

107076 #1 ᄆᆞ물ᄀᆞ루로도 허고 좁썰로도 허고 닥치는 대로.(메밀가루로도 하고 좁쌀로도 하고 닥치는 대로.)

107076 @ 경헹 반죽헹?(그래서 반죽해서?)

---

257) '센꼬'는 일본어 'せんこう(線香)'로 향을 말한다.

258) '다데떡'은 당에 갈 때 제물로 바치는 동글납작한 떡을 말한다.

107076 #1 반죽헹 다데떡.(반죽해서 '다데떡'.)

107076 @ 돌레떡은 어떵 만드는 것과?(도래떡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107076 #1 돌레떡도 마찬가지라.(도래떡도 마찬가지야.)

107076 @ 마찬가지지예.(마찬가지지요.)

107076 #1 감을 하영 심엉게 그건. 이만인 헤 놔사.(감을 많이 잡아서 그건. 이만큼 해 놔야.)

107076 @ 아. 기민 다데떡이랑 돌레떡은 마찬가진데.(아. 그럼 '다데떡'이랑 도래떡은 마찬가진데.)

107076 #1 비싯허여도 크고 족은 거.(비슷해도 크고 작은 거.)

107077 @ 아, 크기가. 예, 예. 알아지쿠다, 알아지쿠다. 저 동펜이는 당에 갈 때 가져가는 걸 돌레떡이렌 헷거든마씨.(아, 크기가. 예, 예. 알겠습니다. 저 동편에는 당에 갈 때 가져가는 걸 도래떡이라고 했거든요.)

107077 #1 기.(그래.)

107077 @ 다데떡이렌 얘기 안 헹 돌레떡이렌 헤나신디.('다데떡'이라고 얘기 안 해서 도래떡이라고 했었는데.)

107077 #1 이딘 돌레떡이렌 허민 막 큰 거. 영장 때에.(여긴 도래떡이라고 하면 아주 큰 거. 초상 때에.)

107077 @ 물떡허고?('물떡'하고?)

107077 #1 물떡허고 무시거 돌레떡은.('물떡'하고 무엇 도래떡은.)

107077 @ 게난 물떡은 속 넣은 거고?(그러니까 '물떡'은 속 넣은 거고?)

107077 #1 아이고, 물떡은 속 넣고 말고.(아이고, '물떡'은 속 넣고 말고.)

107077 @ 돌레떡은 엇인 거잖아?(도래떡은 없는 거잖아?)

107077 #1 엇인 거. 그냥 납작헌 거 크게 헤영.(없는 거. 그냥 납작한 거 크게 해서.)

107077 @ 예, 예. 굿헐 때 뭐 뚜로 허는 떡이 잇어낫수과?(예, 예. 굿할 때 뭐 따로 하는 떡이 있었습니까?)

107077 #1 시리떡.(시루떡.)

107077 @ 시리떡.(시루떡.)

107077 #1 으, 조그만헌 시리. 시리에 놩 치여근에 그거. 그거허고.(으, 조그마한 시루. 시루에 놔서 쪄서 그거. 그거하고.)

107077 @ 음. 그거는 침떡이렌 안 헨?(음. 그거는 '침떡'이라고 안 했어?)

107077 #1 그거 돌레떡. 아니 저 저 시리떡이엔 허연. 건 시리.(그거 도래떡. 아니 저 저 '시리떡'이라고 했어. 건 시루.)

107077 @ 으.(으.)

107077 #1 시리로 그냥 그거. 시리 우린 시리로 그냥 조그마헌 거엔 헤근에 허여낫주게만은 그거 허고 저 다데떡.(시루로 그냥 그거. 시루 우린 시루로 그냥 조그마한 거라고 해서 했었지만 그거 하고 저 '다데떡'.)

107078 @ 게민 옛날에 제사에 헐 때는 큰 시리에 쪄낫잖아예?(그럼 옛날에 제사에 할 때는 큰 시루에 쪘었잖아요?)

107078 #1 으, 이건 작은 거.(으, 이건 작은 거.)

107078 @ 그거는 그냥 침떡이엔 부르고. 당에 갈 때 쪼그만허게 헌 거는 시리떡이렌 불런?(그거는 그냥 시루떡이라고 부르고. 당에 갈 때 조그마하게 한 거는 시루떡이라고 불렀어?)

107078 #1 당에 갈 때 굳이 경 시리떡 안 헤영 다데떡만 헹 가나서, 우린.(당에 갈 때 굳이 그렇게 시루떡 안 해서 '다데떡'만 해서 갔었어, 우린.)

107078 @ 아, 다데떡만.(아, '다데떡'만.)

107078 #1 으, 시리떡 안 헤영. 시리떡꺼지 허지 안허여. 시리떡 허젠 허민 잘도 불편허여.(으, 시루떡 안 해서. 시루떡까지 하지 않아. 시루떡 하려고 하면 아주 불편해.)

107078 @ 성가시고예?(성가시고요?)

107078 #1 으, 설고 익고 헤 놓고 또. 다데떡 헹 가. 다데떡만.(으, 설고 익고 해 놓고 또. '다데떡' 해서 가. '다데떡'만.)

107078 @ 으.(으.)

107078 #1 당에는 다데떡.(당에는 '다데떡'.)

107078 @ 으, 다데떡. 떡 이거 말아 더 헤 먹어난 떡이 잇수과?(으, '다데떡'. 떡 이거 말고 더 해 먹었던 떡이 있습니까?)

107078 #1 벨로 엇어.(별로 없어.)

107078 @ 기지예.(그렇지요.)

소와 고물

107079 @ 게민 떡 헐 때 안에 넣는 거랑 우에 침떡 헐 때 부찌는 고물 가튼 것들예.(그럼 떡 할 때 안에 넣는 거랑 위에 시루떡 할 때 붙이는 고물 같은 것들요.)

107079 #1 안에 놓는 건 ᄒᆞ꼼 불르젠 허믄 감저 썰어 놔. 침떡 헐 때.(안에 넣는 건 조금 불리려고 하면 고구마 썰어 놔. 시루떡 할 때.)

107079 @ 아.(아.)

107079 #1 감저 썰어 놔. 이제면 고구마.(고구마 썰어 놔. 이제면 고구마.)

107079 @ 고구마.(고구마.)

107079 #1 그거 헹 즘질이 체 썰 듯 썰어 놩 서껑 허믄 막 맛 좋아.(그거 해서 가늘게 체 썰 듯 썰어 놔서 섞어서 하면 아주 맛 좋아.)

107079 @ 침떡 헐 때?(시루떡 할 때?)

107079 #1 침떡 헐 때.(시루떡 할 때.)

107079 @ 그럼 뭐 속에 넣는 거, 뭐 송편이나?(그럼 뭐 속에 넣는 거, 송편이나?)

107079 #1 그건 쉬도 놓고게, 풋쉬.(그건 소도 넣고, 팥소.)

107079 @ 풋쉬.(팥소.)

107079 #1 풋쉬 대목 놓주게.(팥소 주로 넣지.)

107079 @ 대목 풋쉬. 콩쉬 안 헷수과?(주로 팥소. 콩소 안 했습니까?)

107079 #1 콩쉰 안 헤연. 풋쉬, 풋쉬.(콩손 안 했어. 팥소, 팥소.)

107079 @ 풋쉬, 깨 같은 거는?(팥소. 깨 같은 거는?)

107079 #1 꿰도 쪼금 놓게 뒈면은, 이제야 꿰지, 엿날은 꿴 경 만이 흔전 헤나지 안 허난 그자. 풋 거튼 건 ᄒᆞ꼼씩 가니까.(깨도 조금 넣게 되면, 이제야 깨지, 옛날은 깬 그렇게 많이 흔전하지 안 했었으니까 그저. 팥 같은 건 조금씩 가니까.)

107080 @ 예.(예.)

107080 #1 이녁 밧디 가니까 이녁대로 허주만은.(자기 밭에 가니까 자기대로 하지만.)

107080 @ 기민 풋 같은 거 쉬 허젠 허민 풋 솖앙.(그럼 팥 같은 거 소 하려고 하면 팥 삶아서.)

107080 #1 솖앙.(삶아서.)

107080 @ 그 다음?(그 다음?)

107080 #1 뿟앙.(빻아서.)

107080 @ 사탕ᄀᆞ루, 설탕 ᄀᆞ루.(사탕가루, 설탕 가루.)

107080 #1 그것도 놓지 안허영 무신 거 ᄒᆞ꼼 소금이나 쪼금 놩 곤 맞으민.(그것도 넣지 않고 무슨 거 조금 소금이나 조금 놔서 간 맞으면.)

107080 @ 기민 쉬가 풋만 잇어나니까, 침떡에 우에 놓는 것도 거의 풋?(그럼 소가 팥만 있었으니까, 시루떡 위에 놓는 것도 거의 팥?)

107080 #1 풋, 풋. 대목 풋.(팥, 팥. 주로 팥.)

107080 @ 콩도 별로 안 허고예?(콩도 별로 안 하고요?)

107080 #1 안 허여.(안 해.)

107081 @ 떡 헐 때 금기헤야 허는 거 뭐 잇수과?(떡 할 때 금기해야 하는 거 뭐 있습니까?)

107081 #1 침떡 헐 때만게, 침떡 헐 때도 치는 디만, 부엌에만 양쪽으로 막 문 닫아 불어.(시루떡 할 때만, 시루떡 할 때는 찌는 데만, 부엌에만 양쪽으로 마구 문 닫아 버려.)

107081 @ 어.(어.)

107081 #1 아무나 들어 뎅기지 못 허게. 어떵헨디사 경헤근에 그때 잘 안 될 때가 셔. 경 허단도 안 될 때가 잇어. 슝 봠젠 헹.(아무나 들어 다니지 못 하게. 어떠해서인지 그래서 그때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렇게 하다가도 안 될 때가 있어. 흉 본다고 해서.)

107081 @ 게난 삼춘도 그거 안 뒈 가지고 침떡 다시 찌고도 헤낫수과?(그러니까 삼촌도 그거 안 돼 가지고 시루떡 다시 찌고도 했었습니까?)

107081 #1 그 나는 조그만씩 헹 만이 크게 안 헤나난. 만이 헐 때는 여라 사름

이 모다들엉 허난 임제가 필요 엇고. 제사 때 식게 때, 식게 때 조그마헌 시리에 허난 경 안 뒈영 무시거 헤 보진 안 헤연. 잘 뒈연.(그 나는 조그만씩 해서 많이 크게 안 했었으니까. 많이 할 때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니까 임자가 필요 없고. 제사 때, 제사 때, 제사 때 조그마한 시루에 하니까 그렇게 안 되어서 무엇 해 보진 않았어. 잘 되었어.)

107081 @ 잘 뒈연.(잘 돼.)

107081 #1 어, 혼 번은이 히린좁쏠로만 헷거든. 뿟아당 허니까 그 ᄀᆞ렛방석이엔 허는 거 알아지지이.(어, 한 번은 흐린 좁쌀로만 했거든. 빻아다가 하니까 그 맷방석이라고 하는 거 알겠지.)

107081 @ 예.(예.)

107081 #1 동글락헌 거.(동그란 거.)

107081 @ 동글락헌 거.(동그란 거.)

107081 #1 이제 시리를, 시리를 조그마헌 시리를 헤다가 치연에 들러당 어펀, 팍 어펀. 영 시리를 들르니까 팔팔 기어 불어서. 떡이 너무 흐려 가지고.(이제 시루를, 시루를 조그만 시루를 해다가 쪄서 들어다가 엎었어, 팍 어폈어. 이렇게 시루를 드니까 팔팔 기어 버렸어. 떡이 너무 흐려 가지고.)

107081 @ 아. 다 흐터져 불언?(아. 다 흩어져 버렸어?)

107081 #1 막 그냥 ᄀᆞ렛방석으로 하나 뒈 불언.(마구 그냥 맷방석으로 하나 돼 버렸어.)

107081 @ 하하하.(하하하.)

107081 #1 경허난 뭐 징도 춧지 못허고 그냥. 완전 그냥 범벅 뒈 불언. 경헤날 때가 잇어. 그건 잊어불지 안허여. 엿날, 엿날.(그러니까 뭐 경그레도 찾지 못하고 그냥. 완전 그냥 범벅이 돼 버렸어. 그랬던 때가 있어. 그건 잊어버리지 않아. 옛날, 옛날.)

107081 @ 엿날 엿날에. 어떵헨 겐 다시 천?(옛날 옛날에. 어떠해서 그래서 다시 쪄서?)

107081 #1 아니, 그걸 메와 쳇지, 메우 쳐서.(아니, 그걸 모아 쳤지, 모아 쳤어.)

107081 @ 메와 천?(모아 쳤어?)

107081 #1 메와 청 떡을 만들엉 ᄒᆞ꼼 식어가난이 덩어리 젼게.(모아 쳐서 떡을 만들어서 조금 식어가니까 덩어리 졌어.)

107081 @ 예.(예.)

107081 #1 경허난 이젠 칼로 끄창 어떵 어떵 빗 만들앙 이젠 곤 거는 상에 올리고 궂은 거는 끄찬덜 먹곡.(그러니까 이젠 칼로 끊어서 어떻게 어떻게 빗[259] 만들어서 이젠 고운 거는 상에 올리고 궂은 거는 끊어서들 먹고.)

107081 @ 경헤도 어떵헹 식게 지내졋수다예?(그래도 어떠해서 제사 지낼 수 있었네요?)

259) '빗'은 칼로 베어낸 시루떡의 낱개 또는 그것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107081 #1 으, 으.(으, 으.)

별식

107082 @ 그 이제 특별헌 음식 만드는 거 멧 개 물어보쿠다. 수에 만들엉 먹어낫수과?(그 이제 특별한 음식 만드는 거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순대 만들어서 먹었습니까?)

107082 #1 아니, 난 안 멘들아 봔.(아니, 난 안 만들어 봤어.)

107082 @ 잔칫집 같은 데 가면.(잔칫집 같은 데 가면.)

107082 #1 으, 그런 디 갈 때는 ᄒᆞ꼼 봐나긴 헷주기만은.(으, 그런 데 갈 때는 조금 봤었긴 했지만.)

107082 @ 예, 게난 어떵 만드는 건 알아질 거 아니?(예.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 건 알 거 아니?)

107082 #1 으, 수에 만드는 것도 반죽 만들앙게, 반죽에.(으, 순대 만드는 것도 반죽 만들어서, 반죽에.)

107082 @ 반죽은 어떵 만들아?(반죽은 어떻게 만들어?)

107082 #1 반죽에는 것도 ᄀᆞ를 들고게.(반죽에는 것도 가루 들고.)

107082 @ 무슨 ᄀᆞ를?(무슨 가루?)

107082 #1 맛 좋게 허젠 허믄 저 보리쏠 ᄀᆞ를.(맛 좋게 하려고 하면 저 보리쌀 가루.)

107082 @ ᄆᆞ물ᄀᆞ루 아니?(메밀가루 아니?)

107082 #1 ᄆᆞ물ᄀᆞ루도 ᄒᆞ꼼 홁은 는젱이엔 헌 거 셔. 홁은 거 ᄀᆞ를 우에 거. 그거 받아단 그거 서끄고. 경헨 허고, 맛 좋게 허젠 허믄 도새기 안칩덜, 베설덜 닥닥 찍어 놔.(메밀가루도 조금 굵은 나깨라고 하는 거 있어. 굵은 거 가루 위에 거. 그거 받아다가 그거 섞고. 그래서 하고, 맛 좋게 하려고 하면 돼지 내장들, 배설들 닥닥 찍어 넣어.)

107082 @ 으.(으.)

107082 #1 경헤근에 그레 서껑 경헹 수에 담으민 뒈주게.(그래서 그리 섞어서 그래서 순대 담으면 되지.)

107082 @ 서껑 도새기 핏물에?(섞어서 돼지 핏물에?)

107082 #1 핏물에 첨 도새기 핏물. 핏물에 서껑.(핏물에 첨 돼지 핏물. 핏물에 섞어서.)

107082 @ 그럼 영 간 뒈게 맞춰.(그럼 이렇게 간 되게 맞춰서.)

107082 #1 으, 으.(으, 으.)

107082 @ 그거 어디 담아 놔야 뒐 거 아니?(그거 어디 담아 놔야 될 거 아니?)

107082 #1 경헤근에 이제 펭, 펭 무시거 아래 거 끄차 둰.(그래서 이제 병, 병 무엇 아래 거 끊어 둬서.)

107082 @ 으.(으.)

107082 #1 그 즈룩 글로 헹 질어.(그 자루 거기로 해서 길어.)

107082 @ 질엉.(길어서.)

107082 #1 으, 즈록은 베설더레 영 디물아 놩 우에 술진 더레 그걸 막 질어, 담아 놩 이젠 영, 영 헹.(으, 자루는 배설에 이렇게 들여 놔서 위에 살진 데로 그걸 마구 길어, 담아 놔서 이젠 이렇게 이렇게 해서.

107082 @ 경 베설더레 막 내리멍.(그렇게 배설로 마구 내리면서.)

107082 #1 으, 경 수에 담아.(으, 그렇게 순대 담아.)

107082 @ 수에 담아.(순대 담아.)

107082 #1 맛 좋아 경허믄, 그것이 최고로 맛 좋아.(맛 좋아 그러면, 그것이 최고로 맛 좋아.)

107082 @ 최고로 맛 좋아.(최고로 맛 좋아.)

107082 #1 안칩덜 막 맞아, 닥닥 허게 맞아 놩, 뭐 저 무슨 북부기 거튼 거 베설 거튼 거 다 그냥 장만헤근에 뭐 맞아 놩 큰일 때. 그 전에 경 헤낫지만은 지금은 사단덜 먹으니까게.(내장들 마구 마아, 닥닥 하게 마아 놔서, 뭐 저 무슨 부아 같은 거 배설 같은 거 다 그냥 장만해서 뭐 마아 놔서 큰일 때. 그 전에 그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사다가들 먹으니까.)

107082 @ 게난 큰일 때, 잔치나 영장 때 만들엇던 거지, 식게 때 그런 거 만들지는 못 헷잖아예?(그러니까 큰일 때, 잔치나 초상 때 만들었던 거지, 제사 때 그런 거 만들지는 못 했잖아요?)

107082 #1 못 허여, 못 허여. 잔치 때베끼.(못 해, 못 해. 잔치 때밖에.)

107083 @ 잔치 때베끼예. 둠비도 헤낫수과, 둠비?(잔치 때밖에요. 두부도 했었습니까, 두부?)

107083 #1 둠비?(두부?)

107083 @ 예.(예.)

107083 #1 둠비도 둠비는 우리 집이서 잘 안 허여.(두부도 두부는 우리 집에서 잘 안 해.)

107083 @ 게도 만드는 거 알아지지예?(그래도 만드는 거 알지요?)

107083 #1 만드는 것사게.(만드는 거야.)

107083 @ 둠비 만들어 보십서.(두부 만들어 보세요.)

107083 #1 둠비 만드는 것도 콩 헤근에 물 웃져당.(두부 만드는 것도 콩 해서 물 담갔다가.)

107083 @ 물 웃져당?(물 담갔다가?)

107083 #1 물 웃졍당게 뭘로 골앙근에게. 경헤근에 이젠 숣앙게.(물 담갔다가 뭐로 갈아서. 그래서 이제 삶아서.)

107083 @ 물채 근 거라예?(물째 간 거지요?)

107083 #1 으, 물채.(으, 물째.)

107083 @ 물채 근 거를 이제 솖으는 거라?(물째 간 거를 이제 삶는 거야?)

107083 #1 게, 솖앙 팔닥팔닥 솖아 가믄 물은 물대로 또 그거 건지는 건지대로 뒈 가믄 그거를 엿날은 그 무신 ᄀᆞ음 헤근에 옷ᄀᆞ음 헤영 옷ᄀᆞ음더레 그걸 담앙 경헹 이제 아래 안반 놓고 안반 놩 그레 주둥일 막 줄라메여.(그래, 삶아서 팔닥팔닥 삶아 가면 물은 물대로 또 그거 건더기는 건더기대로 돼 가면 그거를 옛날은 그 무슨 감 해서 옷감 해서 옷감에 그걸 담아서 그래서 이제 아래 안반 놓고 안반 놔서 그리 주둥일 마구 잘라매.)

107083 @ 으.(으.)

107083 #1 줄라메영 이젠 안반더레 놓앙, 우이 또 무슨 안반, 널짝 곱닥헌 널짝 우이 영 대영 그 우이 막 ᄀᆞ레착덜 헤당 지둘뢍.(잘라매서 이젠 안반에 놔서, 위에 또 무슨 안반, 널짝 고운 널짝 위에 이렇게 대서 그 위에 마구 맷돌짝들 해다가 지질러.)

107083 @ 음.(음.)

107083 #1 게믄 물이 막 짜지는 거라.(그럼 물이 아주 짜지는 거야.)

107083 @ 음, 음.(음, 음.)

107083 #1 경허믄 드랏허게 그거 덩어리졍. 경헹 이제 내중에 꺼내어근에 허믄 두부 뒈주게.(그러면 얼멍얼멍하게 그거 덩어리져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꺼내어서 하면 두부 되지.)

107083 @ 음. 게난 물 짜지젠 허민 시간 좀 걸릴 거 아니?(음. 그러니까 물 짜이게 하면 시간 좀 걸릴 거 아니?)

107083 #1 으, 으. 대강 짐작헹 그것도 그냥 지둘뢍 서너 시간 내부는 거라. 세 시간쯤 내불믄.(으, 으. 대강 짐작해서 그것도 그냥 지질러서 서너 시간 내버리는 거야. 세 시간쯤 내버리면.)

107083 @ 으. 게민 오늘 쓸 거 오늘 만들지는 못 허겠다예?(으. 그럼 오늘 쓸 거 오늘 만들지는 못 하겠네요?)

107083 #1 아니, 만들젠 허민 만들긴 만들주게. 만이 쓰젠 허믄 만이 모다들엉 허여. 만이덜.(아니, 만들려고 하면 만들긴 만들지. 많이 쓰려고 하면 많이 모여서 해. 많이들.)

107083 @ 두부도 식게 때도 만들어낫수과?(두부도 제사 때도 만들었었습니까?)

107083 #1 아니, 아니. 식게 땐 그런 건 안 허여. 잔치 때나베끼.(아니, 아니. 제사 땐 그런 건 안 해. 잔치 때나밖에.)

107084 @ 잔치 때.(잔치 때.)

107084 #1 잔치 때 대목 허주, 잔치 때. 엿날에 잔치 때는 아무리 어려와도 집이서 그 둠비덜은.(잔치 때 주로 하지, 잔치 때. 옛날에 잔치 때는 아무리 어려워도 집에서 그 두부들은.)

107084 @ 으, 이제 묵 물어보쿠다, 묵예. 식게 때 묵 헤낫잖아예?(으, 이제 묵 물어보겠습니다, 묵요. 제사 때 묵 했었잖아요?)

107084 #1 으.(으.)

107084 @ ᄆᆞ물묵도 잇어나고 청묵[260]도 잇어낫수과?(메밀묵도 있었고 '청묵'도 있었습니까?)

107084 #1 청묵은 청 앚졍 허는 것ᄀᆞ라 청묵이렌 허고.('청묵'은 청 앉혀서 하는 것보고 '청묵'이라고 하고.)

107084 @ 으.(으.)

107084 #1 그냥 ᄆᆞ물로게 ᄆᆞ물묵.(그냥 메밀로, 메밀묵.)

107084 @ ᄆᆞ물묵 만들어 줍서.(메밀묵 만들어 주세요.)

107084 #1 ᄆᆞ물ᄒᆞ루로게 묵은 그냥 어느 정도 물 놔근에. 물 놩 뒈지도 안허고 얄릅지도 안허게 헹 그걸 쑤어. 그걸 솖아. 저 솟디 놩 솖앙 익음만 허민. ᄆᆞ물ᄒᆞ루 난 제기 익어 빨리. 경허믄 이젠 남박세기 그거 저 이런 나일로 같은 거나 사기그릇은 어염으로 물 짜돌진 안허여, 비작헤[261] 불어.(메밀가루로 묵은 그냥 어느 정도 물 놔서. 물 놔서 되지도 않고 얇지도 않게 해서 그것 쑤어. 그걸 삶아. 저 솥에 놔서 삶아서 익기만 하면. 메밀가루니까 재게 익어 빨리. 그러면 이젠 나무바가지 그거 저 이런 나일론 같은 거나 사기그릇은 옆으로 물 잦아들지 않아, 질퍼덕해 버려.)

107084 @ 아.(아.)

107084 #1 게난 남박세기 거튼 거, 그런 것에 거려 놩 놔두면 어염에도 곱닥허고.(그러니까 나무바가지 같은 거, 그런 것에 떠 놔서 놔두면 옆에도 곱고.)

107084 @ 아, 물 돌아부난?(아, 물 도니까)

107084 #1 물 돌앙, 이런 사기 거튼 것에도 놓믄.(물 돌아서, 이런 사기 같은 것에도 놓으면.)

107084 @ 아.(아.)

107084 #1 옛날엔 경헤근에 허영 내중에 식어근에 허믄 칼로 영 영 끄창.(옛날엔 그래서 해서 나중에 식어서 하면 칼로 이렇게 이렇게 끊어서.)

107084 @ 아, 기구나.(아, 그렇구나.)

107084 #1 으.(으.)

107085 @ 그민 청묵은마씨? 청묵 허젠 허민?(그럼 '청묵'은요? '청묵' 하려고 하면?)

107085 #1 청묵은 게메게 그건 우린 안 헤봔.('청묵'은 글쎄 그건 우린 안 해 봤어.)

107085 @ 아, 안 헤 봔.(아, 안 해 봤어.)

107085 #1 으. 청묵은 그거 골앙근에 그 청 앚졍 어떵헤근에 청 앚지는 거엔 허는 건 ᄀᆞ룰 골앙 그거를 이제 오래, 오래 내불민 아래 ᄀᆞ룰 앚고 우에는 물 뒈고 헌 것에 아래 ᄀᆞ룰로만 물 영 헤 뒁 비와뒁 ᄀᆞ룰 헌 걸로만 헹 ᄆᆞᆯ류와. 그것이 청

260) '청묵'은 메밀쌀 등을 물에 담갔다가 짜낸 물로 쑨 묵을 말한다.

261) '비작허다'는 물기나 풀기가 많아 질퍼덕질퍼덕한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일 거라. 청 앚졋젠 허는 것이 그걸 거라.(으. '청묵'은 그거 갈아서 그 청 앉혀서 어떠해서 청 앉히는 거라고 하는 건 가루 갈아서 그거를 이제 오래, 오래 내버리면 아래 가루 앉고 위에는 물 되고 한 것에 아래 가루로만 물 이렇게 해 둬서 비워둬서 가루 한 걸로만 해서 말려. 그것이 청일 거야. 청 앉혔다고 하는 것이 그걸 거야.)

107085 @ 게민예, 청묵은 안 헤나난 넘어가고 우리 개역 만들어낫잖아예?(그럼요, '청묵'은 안 해었으니까 넘어가고 우리 미숫가루 만들었었잖아요?)

107085 #1 으, 개역은게.(으, 미숫가루는.)

107086 @ 개역은 하영 헤낫잖아예?(미숫가루는 많이 했었잖아요?)

107086 #1 으.(으.)

107086 @ 개역 만들어 줍서.(미숫가루 만들어 주세요.)

107086 #1 개역은게 보리 헤다근에 이제 장만헤영, 장만헤여근에 이제 보리, 보리로 헤영 물류왕 보깡, 솟두껭이에서 보깡.(미숫가루는 보리 해다가 이제 장만해서, 장만해서 이제 보리, 보리로 해서 말려서 볶아서, 솥뚜껑에서 볶아서.)

107086 @ 으, 보깡.(으, 볶아서.)

107086 #1 경헤여근에 이제 골아오믄 개역.(그래서 이제 갈아오면 미숫가루.)

107086 @ 하하하. 보리만 보끄민 개역 뒈는 거?(하하하. 보리만 볶으면 되는 거?)

107086 #1 어게, 보리만 장만헤근에 보리 고고리로 말앙, 보리로, 보리로 헤영.(그래, 보리만 장만해서 보리 이삭으로 말고, 보리로, 보리로 해서.)

107086 @ 겁죽 안 벗긴?(거죽 안 벗긴?)

107086 #1 겁죽 안 벗긴 보리로 헤야 개역 뒈여.(거죽 안 벗긴 보리로 해야 미숫가루 돼.)

107086 @ 예.(예.)

107086 #1 으, 겁죽 벳겨 불민 안 뒈여.(으, 거죽 벗겨 버리면 안 돼.)

107086 @ 보끈 거 이제 ᄀᆞ레에 골면 개역 뒈는 거라예?(볶은 거 이제 맷돌에 갈면 미숫가루 되는 거지요?)

107086 #1 으.(으.)

107086 @ 개역은 보리 개역만 헹 먹엇수과?(미숫가루는 보리 미숫가루만 해서 먹었습니까?)

107086 #1 보리 개역 허주 뭐?(보리 미숫가루 하지 뭐?)

107086 @ 콩 개역은 안 헤 먹언?(콩 미숫가루는 안 해 먹었어?)

107086 #1 으?(으?)

107086 @ 콩 개역?(콩 미숫가루?)

107086 #1 콩 개역 거튼 건 안 헤 보고 밀 개역도 안 헤 보고 보리 개역 주로. 저 무시거고 보리 개역덜만 헷어게.(콩 미숫가루 같은 건 안 해 보고 밀 미숫가루도 안 해 보고 보리 미숫가루 주로. 저 무엇 보리 미숫가루들만 했어.)

107087 @ 음.(음.)

107087 #1 그런 거 저런 거.(그런 거 저런 거.)

107087 @ 음. 그 게민예, 지짐인 어떵허과, 지짐이? 간식 같은 걸로 부침개, 지짐이도 헹 먹어난마씨?(음. 그 그럼요, 지짐인 어떻습니까, 지짐이? 간식 같은 걸로 부침개, 지짐이도 해서 먹었었나요?)

107087 #1 아니, 옛날엔 그런 거 별로 안 헹 먹언. 지짐이 같은 거 별로 잘 안 헹 먹언.(아니, 옛날엔 그런 거 별로 안 해서 먹었어. 지짐이 같은 거 별로 잘 안 해 먹었어.)

107088 @ 예. 술 담갔지예? 술들?(예. 술 담갔지요? 술들?)

107088 #1 술?(술?)

107088 @ 으.(으.)

107088 #1 술은 헤낫지.(술은 했었지.)

107088 @ 으.(으.)

107088 #1 그냥, ᄑᆞ는 건 아니곡게.(그냥, 파는 건 아니고.)

107088 @ 예, 예. 그니까.(예, 예. 그니까.)

107088 #1 술도 그냥 밥허고 누룩허고 허영 찌여근에 찌영 놔두면 그것이 궤는 거라.(술도 그냥 밥하고 누룩하고 해서 쪄서 쪄서 놔두면 그것이 괴는 거야.)

107088 @ 으.(으.)

107088 #1 경허면은 이젠 그걸 솖아, 아 걸러.(그러면 이젠 그걸 삶아, 아 걸러.)

107088 @ 밥 놩 누룩 놩 막 궨 거를?(밥 놔서 누룩 놔서 마구 괸 거를?)

107088 #1 으, 으.(으, 으.)

107088 @ 얼마나 놔두면 궤는 거라?(얼마나 놔두면 괴는 거야?)

107088 #1 어느 정도 ᄃᆞ시믄 ᄃᆞ신 대로.(어느 정도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107088 @ 으.(으.)

107088 #1 빨리 궤고, 경 안 허믄 얼면 언 대로, 추우믄 추운 대로 오래고.(빨리 괴고, 그렇지 않으면 추우면 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오래고.)

107088 @ 음.(음.)

107088 #1 겐, 그 고소리엔 헌 것이 잇어게.(그래서 그 소줏고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

107088 @ 예, 예.(예, 예.)

107088 #1 그걸로 헤근에 이젠 딱 다끄는 거라. 그걸로 짱 솖앙. 솟 우이, 솟 우이 고소리엔 헌 거 놔근에.(그걸로 해서 이젠 딱 빚는 거야. 그걸로 짜서 삶아서. 솥 위에, 솥 위에 소줏고리라고 하는 거 놔서.)

107088 @ 예.(예.)

107088 #1 경헤근에 그레 그거 허여 놓면은 소주가 나오는 거주.(그래서 그리 그거 해 놓으면 소주가 나오는 거지.)

107088 @ 그럼 누룩 놓고 밥 놩 그 꿴 거를 그 고소리라는 그거 안에 담앙 찌는 거?(그럼 누룩 넣고 밥 놔서 그 괸 거를 그 소줏고리라는 그거 안에 담아서 찌는 거?)

107088 #1 찌지 안허영.(찌지 않고.)

107088 @ 예.(예.)

107088 #1 그냥 그거를 또 무시거 물을 짜내는 거라.(그냥 그거를 또 무엇 물을 짜내는 거야.)

107088 @ 물을 짜내는 거?(물을 짜내는 거?)

107088 #1 어, 어. 영 허영 밥에.(어, 어. 이렇게 해서 밥에.)

107088 @ 예.(예.)

107088 #1 누룩에.(누룩에.)

107088 @ 예.(예.)

107088 #1 허영 버물영 노믄.(해서 버무려서 놓으면.)

107088 @ 예.(예.)

107088 #1 이제 그것이 익어, 익지, 궤지 안헤게?(이제 그것이 익엉, 익지, 괴지 않아?)

107088 @ 예, 예.(예, 예.)

107088 #1 궤여 가믄 이젠 궤여 가믄 그 물이 뒈는 거. 경헤영 그 솟디 그거 또시 놓고 고소리 놓곡 고소리 대영 경헤 가믄 고소리레 물이 영 나오는 거라.(괴어 가면 이젠 괴어 가면 그 물이 되는 거. 그래서 그 솥에 그거 또 넣고 소줏고리 놓고 소줏고리 대서 그래 가면 소줏고리에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107088 @ 예.(예.)

107088 #1 꿴 거. 그 밥에 누룩에.(괸 거. 그 밥에 누룩에.)

107088 @ 밥에 누룩에 꿴 게 고소리로 나온다고마씨?(밥에 누룩에 괸 게 소줏고리로 나온다고요?)

107088 #1 예, 예.(예, 예.)

107088 @ 으.(으.)

107088 #1 고소리, 고소리가 셔낫주게. 옛날, 술 다끄는 고소리.(소줏고리, 소줏고리가 있었지. 옛날, 술 빚는 소줏고리.)

107088 @ 주전자 같이 생긴 거 얘기허는 거 아니예? 잠깐만예. 요거, 요런 거?(주전자 같이 생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요? 잠깐만요. 요거, 요런 거?)

107088 #1 으, 이거 이거.(으, 이거 이거.)

107088 @ 게민, 이거잖아예. 여기로 밥이랑 물이랑 헌 걸 여기 비워?(그럼, 이거잖아요. 여기로 밥이랑 물이랑 한 걸 여기 부어?)

107088 #1 이디, 이디 놩. 이디 놩 헤나실 거라. 나 확실히, 잊어불어졋저.(여기, 여기 놔서. 여기 놔서 했었을 거야. 나 확실히, 잊어버렸어.)

107088 @ 예. 이디 비우민?(예. 여기 부으면?)

107088 #1 그것이 이젠 일로, 솟 우이 놓는 거라, 이거.(그것이 이젠 일로, 솥 위에 놓는 거야, 이거.)

107088 @ 이걸 솟 우이.(이걸 솥 위에.)

107088 #1 솟 아래선 이제 불 때여.(솥 아래에선 이제 불 때.)

107088 @ 불 때여.(불 때.)

107088 #1 으, 아래서. 솟디 물 놓곡 허영 불 때 가면 이것이 막 뜨거워 가면은 짐이 올라왕.(으, 아래에서. 솥에 물 넣고 해서 불 때 가변 이것이 아주 뜨거워 가면 김이 올라와서.)

107088 @ 예.(예.)

107088 #1 이젠 일로 물만, 소줏물만 ᄂᆞ리는 거라.(이젠 일로 물만, 소줏물만 내리는 거야.)

107088 @ 아, 일로 소줏물만 내리는 거라?(아, 일로 소줏물만 내리는 거야?)

107088 #1 으, 소줏물만.(으, 소줏물만.)

107088 @ 그럼 이거는 솟 우이 언져 놩?(그럼 이거는 솥 위에 얹혀 놔서?)

107088 #1 으, 언져 놔.(으, 얹혀 놔.)

107088 @ 계속 막 끓이는구나. 여기 우인 뚜껑 더꺼 붑니까?(계속 마구 끓이는구나. 여기 위엔 뚜껑 덮어 버립니까?)

107088 #1 우에, 우에 더꺼나신가? 더끄지 안허영 그냥. 더꺼도 나실 거라. 더껏당 영 올아 봠주기, 자꾸. 그것이 어떻게 다 뒈느냐 어떵허느냐.(위에, 위에 덮었었나? 덮지 않고 그냥. 덮기도 했을 거야. 덮었다가 이렇게 열어서 보지, 자주. 그것이 어떻게 다 되는지 어떠한지.)

107088 @ 예, 보글보글 허민 짐이?(예, 보글보글 하면 김이?)

107088 #1 으, 짐으로 이건 나오는 거라.(으, 김으로 이건 나오는 거야.)

107088 @ 여기로 나오는 거라예?(여기로 나오는 거지요?)

107088 #1 그거 짐으로 또록또록 짐으로 물이.(그거 김으로 또록또록 김으로 물이.)

107088 @ 여긴 나온 게?(여긴 나온 게?)

107088 #1 소주.(소주.)

107088 @ 소주가 되는 거. 그럼 이 안에 찌꺼기덜이 남아 이신 거 아니?(소주가 되는 거. 그럼 이 안에 찌꺼기들이 남아 있는 거 아니?)

107088 #1 찌꺼기덜은 그냥 내불고. 비와 가멍.(찌꺼기들은 그냥 내버리고. 비워 가면서.)

107088 @ 게민 영 헹 오메기술을 만드는 거마씨? 이걸 그냥 소주렌 불런?(그럼 이렇게 해서 오메기술을 만드는 거요? 이걸 그냥 소주라고 불렀어?)

107088 #1 아니, 오메기술[262], 오메기술. 오메기로 찌엉.(아니, '오메기술', '오메

262) '오메기술'은 좁쌀로 빚은 술을 말한다. 이것은 탁주를 만드는 술떡의 이름인 '오메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떡으로 만든 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기술'. '오메기'로 쪄서.)

107088 @ 이 밥은 좁썰 밥이과?(이 밥은 좁쌀 밥입니까?)

107088 #1 좁썰로.(좁쌀로.)

107088 @ 좁썰 밥에 누룩을 넣은 거라예?(좁쌀 밥에 누룩을 넣는 거지요?)

107088 #1 으, 으.

107088 @ 그럼 술 만들 때나 아까 삼메떡 만들 때나 누룩이 들어감수다예?(으, 으. 그럼 술 만들 때나 아까 삼메떡 만들 때나 누룩이 들어가네요?)

107090 #1 누룩이 들어가. 누룩은 항상.(누룩이 들어가. 누룩은 항상.)

107090 @ 그럼 누룩은 미릇 만들엉 놔두는 거?(그럼 누룩은 미리 만들어서 놔두는 거?)

107090 #1 미릿 저 무시것고, 보리썰을 ᄀᆞ나 보리를 ᄀᆞ나 헤영 ᄒᆞ꼼 홁게 ᄀᆞᆯ아근에 그냥 그걸 쎅이는 거라. 틔와.(미리 저 무엇이지, 보리쌀을 갈거나 보리를 갈거나 해서 조금 굵게 갈아서 그냥 썩히는 거야. 틔워서.)

107090 @ 으, 틔와.(으, 틔워.)

107090 #1 틔와근에 누룩 만들앙.(틔워서 누룩 만들어서.)

107090 @ 틔우민 거기 곰팡이가 생기는 거과?(틔우면 거기 곰팡이가 생기는 겁니까?)

107090 #1 으, 으. 곰팡이 생겨, 곱닥허게 곰팡이 생겨.(으, 으. 곰팡이 생겨, 곱게 곰팡이 생겨.)

107090 @ 예.(예.)

107090 #1 그거 덩어리로 만들아근에.(그거 덩어리로 만들어서.)

107090 @ 예.(예.)

107090 #1 무신거 저 엿날이면은 저 체, 쳇망.(무엇 저 옛날이면 저 체, 쳇바퀴.)

107090 @ 예.(예.)

107090 #1 쳇망 이거 영, 이거 영, 이레 영 쳇망 놔근에 이레 영 그걸 담는 거라.(쳇바퀴 이거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리 이렇게 쳇바퀴 놔서 이리 이렇게 그걸 담는 거야.)

107090 @ 예.(예.)

107090 #1 담앙 꼭꼭 누르떠근에 이젠 쳇망 앗아 뒁 영 놩 놔두믄, 놔둬근에 어디 이제 뜨뜻헌 디 헹 놩 놔두면은 누룩이 뒈는 거.(담아서 꼭꼭 눌러서 이젠 쳇바퀴 가져 두고 이렇게 놔서 놔두면, 놔둬서 어디 이제 따뜻한 데 해서 놔서 놔두면 누룩이 되는 거.)

107090 @ 쳇망 우에 그 누룩 만든 거를, 아니 누룩 만든 게 아니고, 아까 뭐, 뭐 헌 거를?(쳇바퀴 위에 그 누룩 만든 거를, 아니 누룩 만든 게 아니고, 아까 뭐, 뭐 한 거를?)

107090 #1 누룩 만들젠 허믄.(누룩 만들려고 하면.)

107090 @ 예, 누룩 만들젠 허민. 이게 체 아니과예?(예, 누룩 만들려고 하면. 이게 체 아닙니까?)

107090 #1 으, 쳇망.(으, 쳇바퀴.)

107090 @ 쳇망이렌 허민 어디를 쳇망이렌 부르는 거? 요걸 쳇망이렌 허는 거?(쳇바퀴라고 하면 어디를 쳇바퀴라고 부르는 거? 요걸 쳇바퀴라고 하는 거?)

107090 #1 이, 이 둥글락헌 거. 둘레, 둘레.(이, 이 동그란 거. 둘레, 둘레.)

107090 @ 둥글락 헌 거. 게민 이 안에 막 그물 같은 게 있잖아예?(동그란 거. 그럼 이 안에 마구 그물 같은 게 있잖아요?)

107090 #1 으, 으.(으, 으.)

107090 @ 체가예, 체가 있잖아예?(체가요, 체가 있잖아요?)

107090 #1 으, 그건 그냥 그건 체에 부뜨는 거니까 그건 체엔만 허고.(으, 그건 그냥 그건 체에 붙는 거니까 그건 체라고만 하고.)

107090 @ 이 우에?(이 위에?)

107090 #1 이 우에 뚜로 신 것만은 쳇망.(이 위에 따로 있는 것만은 쳇바퀴.)

107090 @ 쳇망. 그럼 이 우이 아까 만든 것들 언져 둬?(쳇바퀴. 그럼 이 위에 아까 만든 것들 얹혀 둬?)

107090 #1 이건 앗아 불어. 이 쳇망만 뚜로 잇주게.(이건 가져 버려. 이 쳇바퀴로 따로 있지.)

107090 @ 아. 안에 체는 엇고?(아. 안에 체는 없고?)

107090 #1 으, 체는 엇어. 엇은 거 쳇망만 뚜로 만드는 것이 잇어.(으, 체는 없어. 없는 거 쳇바퀴만 따로 만드는 것이 있어.)

107090 @ 거기에 영 영 만든 걸 쳇망 안에 담아 둬.(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만든 걸 쳇바퀴 안에 담아 둬.)

107090 #1 으, 담아 둬.(으, 담아 둬.)

107090 @ 담아 둬.(담아 둬.)

107090 #1 으, 담아 놔두면은 누룩이 뒈는 거라.(으, 담아 놔두면 누룩이 되는 거야.)

107090 @ 아.(아.)

107090 #1 그거 썩엉, 소곱에서 텅 경허믄 누룩 뒈여.(그거 썩어서, 속에 터서 그러면 누룩 되어서.)

107090 @ 그거 만든 거 얼마나 놔두면 영 틉니까? 거 오래 놔두는 거?(그거 만든 거 얼마나 놔두면 이렇게 틉니까? 거 오래 놔두는 거?)

107090 #1 아니, 것도 그 계절에 따라근에게 더우믄 제기 궤고 얼믄 오래곡. 썩는 것이 오래가고 추우믄. 계절에 따라.(아니, 것도 그 계절에 따라서 더우면 제게 괴고 추우면 오래고. 썩는 것이 오래가고 추우면. 계절에 따라.)

107090 @ 계절에 따라. 경헹 누룩 만들어 두민. 누룩은 막 한꺼번에 하영 만들어 둡니까?(계절에 따라. 그래서 누룩 만들어 두면. 누룩은 아주 한꺼번에 많이 만

들어 둡니까?)

107090 #1 하영 쓰젠 허믄 하영 허고 작게 쓰젠 허믄 작게 허고. 그때 그때 재료에 맞춰근에.(많이 쓰려고 하면 많이 하고 적게 쓰려고 하면 적게 하고. 그때 그때 재료에 맞춰서.)

107090 @ 만약에 며칠 후에 식게 잇다 허면.(만약에 며칠 후에 제사 있다 하면.)

107090 #1 식게 때에 그런 거 자꾸 안 헤 봔, 우린.(제사 때에 그런 거 자주 안 해 봤어, 우린.)

107090 @ 게니까 일 년에 혼 번 정도 헹 한꺼번에 만들어 두는 거 아니?(그러니까 일 년에 한 번 정도 해서 한꺼번에 만들어 두는 거 아니?)

107090 #1 혼꺼번에 헷당 쓰긴 쓰주게.(한꺼번에 했다가 쓰낀 쓰지.)

107090 @ 예, 쓰긴 쓰는 거예. 경헹. 누룩 만들어시난 아까 오메기술도 누룩 놩 만들고.(예, 쓰긴 쓰는 거요. 그래서. 누룩 만들었으니까 아까 '오메기술'도 누룩 넣어서 만들고.)

107090 #1 으, 오메기술도.(으, '오메기술'도.)

107090 @ 삼메떡 헐 때도 누룩 쓰고?(삼메떡 할 때도 누룩 쓰고?)

107090 #1 으, 경혜영 기주 멘들앙.(으, 그래서 기주 만들어서.)

107089 @ 기주 멘들앙 허고예. 게민 쉰다리[263]는 어떵 만듭니까? 쉰다리?(기주 만들어서 하고요. 그럼 '쉰다리'는 어떻게 만듭니까? '쉰다리'?)

107089 #1 쉰다리에는. 쉰다리도 누룩 들어가.('쉰다리'에는 누룩 들어가.)

107089 @ 게니까.(게니까.)

107089 #1 쉰다리는 밥.('쉰다리'는 밥.)

107089 @ 밥.(밥.)

107089 #1 먹다근에 식은 밥덜 남곡 뭣허면은게 이제 누룩게 곱닥헌 누룩덜 헤근에 삣앙.(먹다가 식은 밥들 남고 뭣하면 이제 누룩 고운 누룩들 해서 빻아서.)

107089 @ 밥 남은 거에 물 좀 비왕?(밥 남은 거에 물 좀 비워서?)

107089 #1 으, 으.(으, 으.)

107089 @ 누룩 ᄒᆞ꼼 삣앙.(누룩 조금 빻아서.)

107089 #1 으, 그레 놩, 경헹 놩 놔두민 보골보골 허게 궤여.(으, 그리 놔서, 그래서 놔서 놔두면 보글보글 하게 괘.)

107089 @ 으.(으.)

107089 #1 경허믄 숢으믄 쉰다리 뒈는 거.(그러면 삶으면 '쉰다리' 되는 거.)

107089 @ 아, 그거 보골보골 궨 거 숢아?(아, 그거 보글보글 괸 거 삶아서?)

107089 #1 숢아. 생체도 먹긴 먹는디 생체 먹으민 배탈 낭 안 뒈여. 숢아, 숢아.(삶아. 생체도 먹긴 먹는데 생체 먹으면 배탈 나서 안 돼. 삶아, 삶아.)

107089 @ 아, 숢앙 끓이민 그거 끓인 거 그채로 그냥 먹는 거예?(아, 삶아서 끓

263) '쉰다리'는 밥과 누룩으로 담근 음료를 말한다.

이면 그거 끓인 거 그째로 그냥 먹는 거요?)
107089 #1 으, 끓이민, 끓이민.(으, 끓으면, 끓으면.)
107091 @ 이젠 엿 혼 번 멘들아 줍서, 엿.(이젠 엿 한 번 만들어 주세요, 엿.)
107091 #1 엿은 안 멘들아 봐서.(엿은 안 만들어 봤어.)
107091 @ 안 만들아 봐서.(안 만들어 봤어.)
107091 #1 엿은 별로 안 만들아 봔.(엿은 별로 안 만들어 봤어.)
107091 @ 그민 그 외에 이 마을에서 헤 먹어난 거 뭐 잇수과?(그럼 그 외에 이 마을에서 해 먹었던 거 뭐 있습니까?)
107091 #1 뭣이 잇어?(뭣이 있어?)
107091 @ 뭐 엇어? 그 외에 고내리에서 특별허게 멘들앙 먹어난 거?(뭐 없어? 그 외에 고내리에서 특별하게 만들어서 먹었던 거?)
107091 #1 난 경 특별허게 멘들아난 건 엇일 거라.(난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었던 건 없을 거야.)
107091 @ 엇어. 예, 알앗수다.(없어. 예, 알겠습니다.)

8. 주생활

구조

108001 @ 이 동네 다 초집이랏던 거잖아예, 어무니네 어렸을 때는?(이 동네 다 초가집이었던 거잖아요, 어머니네 어렸을 때는?)
108001 #2 초집 중에는 우리 집이 젤 노파낫는디. 저 우이.(초가집 중에는 우리 집이 제일 높았었는데. 저 위에.)
108001 @ 원래 여긴 아니꽈, 어느 쪽에 집이랏수과?(원래 여긴 아닙니까, 어느 쪽에 집이었습니까?)
108001 #2 우리. 저 중앙로로 요디 내려오당 보민 큰 넙적헌 폭남 잇지 안헙니까?(우리. 저 중앙로로 요기 내려오다가 보면 큰 넓적한 팽나무 있지 않습니까?)
108001 @ 예, 예.(예, 예.)
108001 #2 폭남 신 디 오면은 요 동쪽더레 난 길 잇어, 또. 그레 쪼금 가 보면은 한질 보이는 그 그디가 우리 집이랏주게.(팽나무 있는 데 오면 요 동쪽으로 난 길 있어, 또. 그리 조금 가 보면 한길 보이는 그 거기가 우리 집이었지.)
108001 @ 그디 옛날에 고내천 잇어난 그 근방?(거기 옛날에 고내천 있었던 그 근방?)
108001 #2 예?(예?)
108001 @ 옛날에 하천 잇어나지 헷수과?(옛날에 하천 있었지 않습니까?)
108001 #2 하천?(하천?)
108001 @ 예.(예.)

108001 #2 게메 그거 하천 메와 분 거주게. 폭남 신 디가.(글쎄 그거 하천 메워 버린 거지. 팽나무 있는 데가.)

108001 @ 메와 분 거.(메워 버린 거.)

108001 #2 큰 내라나난 그 내가 그렇게 시니까 내 서짝은 서상동이고 동짝은 동동이고 경헤낫주.(큰 내였던 그 내가 그렇게 있으니까 내 서쪽은 서상동이고 동쪽은 동동이고 그랬었지.)

108001 @ 동동이고예. 겐 거기 그 쪽에 집이랏구나예?(동동이고요. 그래서 거기 그 쪽에 집이었군요?)

108001 #2 예.(예.)

108001 @ 게난 초집 지을 때 어떵 헤나신지 골아 줍서. 초집 지을 때?(그러니까 초가집 지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 말해 주세요. 초가집 지을 때?)

108001 #2 아, 초집 지을 땐게.(아, 초가집 지을 땐.)

108001 @ 예, 초집 짓을 때.(예, 초가집 지을 때.)

108001 #2 흑 허여당 또 흑만 이렇게 불르민 딱딱 벌어집네다.(흙 해다가 똑 흙만 이렇게 바르면 딱딱 벌어집니다.)

108001 @ 예.(예.)

108001 #2 경 벌어지기 때문에 그 무신 보리 ᄀᆞ시락이나 아니믄 보리낭 복삭허게[264] 그 썰어진 거 허영 ᄀᆞ치 흑에 놩 그냥 막 발로 불라근에 뀌영, ᄀᆞ치 서텅.(그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 무슨 보리 까끄라기이나 아니면 보릿대 '복삭하게' 그 썰어진 거 해서 같이 흙에 놔서 그냥 마구 발로 밟아서 이겨서, 같이 섞어서.)

108001 @ 으, 뀌영예.(으, 이겨서요.)

108001 #2 뀌영 이젠 돌담 다왕게.(이겨서 이젠 돌담 쌓아서.)

108001 @ 예.(예.)

108001 #2 나무 안에 그냥 건식으로 네 지동 놔근에. 경 헹 이젠 섬피 가젱이 닮은 거 헤영 우에덜은 막 젠젠헌 낭 막 ᄀᆞ는 거 허영 이렇게 그냥 서리가 그거주게.(나무 안에 그냥 건식으로 네 기둥 놔서. 그렇게 해서 이젠 끙게 가지 같은 거 해서 위에는 마구 자잘한 나무 마구 가는 거 해서 이렇게 그냥 서까래가 그거지.)

108001 @ 예.(예.)

108001 #2 경헤영 허믄 그 돌담 다와근에 흑 불랑 헌 것이 막 발로 꾸젝이믄[265] 동네칩이 어른덜이 아이구, 요 집이 집 짓엄젠게 물이나 져다근에 가근에 부주로 헤주게. 어떵 헤영 허멍, 이젠 물 지여 가믄 그 흑 뀌는 디 놩 불르젠 허믄.(그래서 하면 그 돌담 쌓아서 흙 발라서 한 것이 마구 발로 뒤섞으면 동넷집의 어른들이 아이고, 요 집에 집 짓고 있다고 물이나 져다가 가서 부조로 하지. 어떻게 해 하면서, 이젠 물 지어 가면 그 흙 이기는 데 놔서 바르려고 하면.)

108001 @ 아.(아.)

---

264) '복삭허다'는 솜 따위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한다.

265) '꾸적이다'는 무른 것을 이겨 뒤섞는다는 의미다.

108001 #2 물도 엇주기게, 수도도 엇고 아무 것도 엇으니까. 물 질어당 이젠 그 허벅으로 흔 허벅 질엉 강 이젠 허믄 또 다른 집이서도 오곡 허믄 막. 이젠 또 밥 헤영 그 사름덜 막 멕인다.(물도 없지, 수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물 길어다가 이젠 그 허복으로 한 허벅 길어 가서 이젠 하면 또 다른 집에서도 오고 하면 마구. 이젠 또 밥해서 그 사람들 마구 먹인다.)

108001 @ 아. 집 주인은?(아. 집 주인은?)

108001 #2 으, 집 주인은 허영 이제 발로 흑 붋앙 막 뀌여근에 돌담 답는 사름은 돌담 답고. 그 흑으로 이젠 안으로 막 불르멍 또 돌 다우면서도 흑을 이렇게 놓멍 다우면은 얼른 아니 무너진덴 헤영.(으, 집 주인은 해서 이제 발로 흙 밟아서 마구 이겨서 돌담 쌓는 사람은 돌담 쌓고. 그 흙으로 이젠 안으로 마구 바르면서 또 돌 쌓으면서도 흙을 이렇게 놓으면서 쌓으면 얼른 안 무너진다고 해서.)

108001 @ 예.(예.)

108001 #2 그추룩 헤영 헤낫수게.(그처럼 해서 했었지.)

108001 @ 아. 게민 돌 답는 사람들이나 흑 불르는 사름덜은 놉을 빌렁 허는 거?(아. 그럼 돌 쌓는 사람들이나 흙 바르는 사람들은 놉을 빌려서 하는 거?)

108001 #2 빌엉, 빌엉.(빌려서, 빌려서.)

108001 @ 빌엉 허는 거예.(빌려서 하는 거요.)

108001 #2 이녁 집이 또 사람이, 그런 남저덜 시믄 허곡게.(자기 집에 또 사람이, 그런 남자들 있으면 하고.)

108001 @ 으.(으.)

108001 #2 엇는 사름은 빌어야만 뒈곡게.(없는 사람은 빌려야만 되고.)

108003 @ 으, 으. 게민 옛날에 보믄 초가집 하면 초가집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울타리 안에 집채가 몇 개가 있잖아예? 예를 들엉.(으, 으. 그럼 옛날에 보면 초가집 하면 초가집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울타리 안에 집채가 몇 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8003 #2 예, 예. 밧거리, 모커리.(예, 예. 바깥채, 곁채.)

108003 @ 예를 들면 여기가 대문이면.(예를 들면 여기가 대문이면.)

108003 #2 예.(예.)

108003 @ 여기가 들어가는 문이면?(여기가 들어가는 문이면?)

108003 #2 매 집이 엇엇주기. 부제칩이나 그렇게 허엿주.(매 집에 없었지. 부잣집이나 그렇게 했지.)

108003 @ 올레 잇고 이게 문이면 이 안에가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올레' 있고 이게 문이면 이 안에가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108003 #2 예, 예.(예, 예.)

108003 @ 게민 여길 뭐렌 골아마씨?(그럼 여길 뭐라고 말해요?)

108003 #2 하나 소왕, 첨 첨 소 메는 소왕간이고.(하나 외양간, 참 참 소 매는 외양간이고.)

108003 @ 아, 아. 여기는 안거리.(아, 아. 여기는 안채.)

108003 #2 쉐왕이엔 허여, 쉐왕.(외양간이라고 해, 외양간.)

108003 @ 쉐왕.(외양간.)

108003 #2 한국말론.(한국말론.)

108003 @ 쉐왕예?(외양간요?)

108003 #2 으, 쉐 메는 그디가 쉐왕이엔 허고.(으, 소 매는 거기가 외양간이라고 하고.)

108003 @ 쉐막이렌 안 허고?('쉐막'이라고 안 하고?)

108003 #2 쉐막이렌 허지 안허영 쉐왕, 쉐왕 경 허연.('쉐막'이라고 하지 않아 '쉐왕', 외양간 그렇게 했어.)

108003 @ 그 다음 사름 사는 딘 뭐렌 골아?(그 다음 사람 사는 덴 뭐라고 말해?)

108003 #2 사름 사는 딘 그냥 집이고.(사람 사는 덴 그냥 집이고.)

108003 @ 안거리?(안채?)

108003 #2 안거리, 밧거리.(안채, 바깥채.)

108003 @ 안거리, 밧거리?(안채, 바깥채?)

108003 #2 밧거리는 그 족은 것이 밧거리고.(바깥채는 그 작은 것이 바깥채이고.)

108003 @ 여기 하나 잇는 거.(여기 하나 있는 거.)

108003 #2 큰 거는, 큰 집은 안거리고.(큰 거는, 큰 집은 안채고.)

108003 @ 안거리고예. 쉐 있는 데는 쉐왕이렌 허고예.(안채요. 소 있는 데는 외양간이라고 하고요.)

108026 #2 예, 쉐왕. 또 쉐왕이엔 허고 이제 집을 그추룩 헤영 또 지여 놓면은, 이젠 일 년 뒈면은 따시 이젠 일어야 뒈여.(예, 외양간. 또 외양간이라고 하고 이제 집을 그처럼 해서 또 지어 놓으면, 이젠 일 년 되면 또 이젠 이어야 돼.)

108026 @ 뭐를 일어? 지붕을?(뭐를 이어? 지붕을?)

108026 #2 새를 비여다가 그 우이 더퍼근에 일젠 허믄, 또 줄 놓는[266] 거 각단[267]이엔 헤영 새 요만큼씩 헌 거 헤당 이렇게 줄 허믄 이젠 그 나무 무신 걸로 이렇게 허멍 이젠 하르방덜은 이렇게 놔 주면은.(띠를 베어다가 그 위에 덮어서 이려고 하면, 또 줄 놓는 거 '각단'이라고 해서 띠 요만큼씩 한 거 해다가 이렇게 줄 하면 이젠 그 나무 무슨 걸로 이렇게 하면서 이젠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놔 주면.)

108026 @ 으.(으.)

108026 #2 할망덜은 이젠 그거를 이렇게 허멍 저렇게 나강 경헨 이젠 두 사름이 헤 가믄 말짠 뚜로 절로 그거를 이렇게 헹 꼬아 오는 사름이 잇어.(할머니들은 이젠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나가서 그래서 이젠 두 사람이 해 가면 말째 따

266) '줄 놓다'는 '집줄'을 꼬아 만드는 데는 띠를 알맞게 차례로 잘 조정해 주어 알맞은 굵기로 줄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67) '각단'은 굵은 줄을 드리는 데 쓰는 짧은 띠를 말한다.

로 절로 그거를 이렇게 해서 꼬아 오는 사람이 있어.)

108026 @ 으.(으.)

108026 #2 그추룩 허영 허믄 큰 집이는 상줄이 혼 ᄉᆞ십 개 들곡, 또 ᄌᆞ른 줄, 진 줄.(이처럼 해서 하면 큰 집에는 긴 줄이 한 사십 개 들고, 또 짧은 줄, 긴 줄.)

108029 @ 예. 그렇게 줄을 꼬을 때 쓰는 그걸 뭐렌 골읍니까? 영 영 영 영 비는 거?(예. 그렇게 줄을 꼬을 때 쓰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꼬는 거?)

108029 #2 꼬는 거 호롱이[268], 호롱이.(꼬는 거 '호롱이', '호롱이'.)

108029 @ 호롱이, 호롱이.('호롱이', '호롱이'.)

108029 #2 줄 놓는 호롱이.(줄 놓는 '호롱이'.)

108029 @ 저 뒤쪽에는 꽂앙 세운 거 있잖아예? 그거 뭐, 뒤치기?(저 뒤쪽에는 꽂아서 세운 거 있잖아요? 그거 뭐, '뒤치기'?)

108029 #2 저 뒤, 무시거. 줄 어울리는 거엔 허난 그땐 몰라 어울리는 거 무시거엔사 헤신지?(저 뒤, 무엇. 줄 어울리는 거라고 하니까 그땐 몰라 어울리는 거 무엇이라고 했는지?)

108029 @ 아. 영 돌리는 건 호렝이고, 호롱이고예?(아. 이렇게 돌리는 건 '호렝이'고, '호롱이'고요?)

108029 #2 으, 호롱이.(으, '호롱이'.)

108029 @ 뒤에도 세우는 거?(뒤에도 세우는 거?)

108029 #2 아니 그건 이렇게 비여 가는 것이 줄 놓는 호롱이고 또 저쪽에서 그거 꼬젠 허민 또 앚아근에 큰 거 하나 허영 이렇게 허주게.(아니 그건 이렇게 꼬아 가는 것이 줄 놓는 '호롱이'고 또 저쪽에서 그거 꼬려고 하면 또 앉아서 큰 거 하나 해서 이렇게 하지.)

108029 @ 예.(예.)

108029 #2 경허면은 그 그거는 줄 무시거, 줄 어울리는 거엔 허주.(그러면 그 그거는 줄 무엇, 줄 어울리는 거라고 하지.)

108029 @ 뒤치기엔 안 허고?('뒤치기'라고 안 하고?)

108029 #2 아니, 줄 어울리는 거.(아니, 줄 어울리는 거.)

108029 @ 줄 어울리는 거렌 헤예?(줄 어울리는 거라고 해?)

108029 #2 줄 어울리는 저, 뒤치기[269]엔 허지 안허여.(줄 어울리는 저, '뒤치기'라고 하지 않아.)

108002 @ 엿날에는 여기 거의 대부분 초집이엿주만은 지에집도 잇어낫수과? 지에집 엇어?(옛날에는 여기 거의 대부분 초가집이었지만 기와집도 있었습니까? 기와집 없어?)

108002 #2 기와집은 하나토 엇어낫수다.(기와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

268) '호롱이'는 '집줄', 참바 따위를 틀 때 사용하는 도구다. '호렝이'라고도 한다.

269) '뒤치기'는 줄 따위를 틀 때 사용하는 도구다. 두 가닥의 줄을 하나로 만들 때 뒤에서 돌릴 때 사용하는 것으로 표준어 '돌물레'에 대응한다.

108002 @ 아, 하나도 엇어나마씨.(아, 하나도 없었어요.)

108002 #2 기와집은 하나토 엇어나고 저 도당[270].(기와집은 하나도 없었고 저 함석.)

108002 @ 도당?(함석?)

108002 #2 도당, 도당, 양철.(함석, 함석, 양철.)

108002 @ 양철.(양철.)

108002 #2 양철집.(양철집.)

108002 @ 도당집. 아, 도당집 잇어낫수과?(함석집. 아, 함석집이 있었습니까?)

108002 #2 도당이엔 헤근에 헌 건 양철ᄀᆞ라 도당, 도당 헷주기게.(함석이라고 해서 한 건 양철보고 함석, 함석 했지.)

108002 @ 예, 예.(예, 예.)

108002 #2 그, 그 그 집 양철집, 양철집 헌 집이가 이제 저 서하동[271]에 네커리에 그 집이라낫주게. 양철집이엔 헌 집.(그, 그 그 집 양철집, 양철집 한 집이 이제 저 서하동에 네거리에 그 집이었지. 양철집이라고 하는 집.)

108002 @ 음.(음.)

108002 #2 그 집 흔 집이 그 양철집을 짓어나고.(그 집 한 집이 그 양철집을 지었었고.)

108002 @ 양철집 짓어나고.(양철집 지었었고.)

108002 #2 그 나머진 다 초가집.(그 나머진 다 초가집.)

108002 @ 그 나머진 다 초가집예. 초가집이엔 헷수과, 초집이엔 헷수과?(그 나머진 다 초가집요. 초가집이라고 했습니까, '초집'이라고 했습니까?)

108002 #2 초집.('초집')

108002 @ 초집이엔 ᄀᆞᆯ아서, 옛날예?('초집'이라고 말했어, 옛날요?)

108002 #2 으.(으.)

108002 @ 그럼 아까 대략적으로 집 지을 때 ᄀᆞᆯ아줘신디, 보통은 우리 이렇게 크기에 따라 두 칸으로 나눠지면 이칸집[272], 삼칸집.(그럼 아까 대략적으로 집 지을 때 말했었는데 보통은 우리 이렇게 크기에 따라 두 칸으로 나눠지면 이간집, 삼간집.)

108002 #2 삼칸집.(삼간집.)

108002 @ 삼칸집 헷엇잖아예. 게민.(삼간집 했었잖아요. 그럼.)

108002 #2 ᄉᆞ간집[273].(사간집.)

108002 @ 아, ᄉᆞ간집도 잇어낫수과, 고내에?(아, 사간집도 있었습니까, 고내에?)

108002 #2 예, 예.(예, 예.)

108002 @ 고내리에 ᄉᆞ간집도 잇어난?(고내리에 사간집도 있었어?)

---

270) '도당'은 일본어 'トタン'에서 온 말로 함석을 말한다. 지붕이 함석으로 된 집을 '도당집'이라고 한다.
271) '서하동'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의 한 지역 이름이다.
272) '이칸집'은 두 칸으로 지어진 집을 말한다.
273) 'ᄉᆞ간집'은 네 칸으로 지어진 집을 말한다.

108002 #2 ᄉᆞ간집은 고부장네 집이라고 막 부제집 안팟거리[274] 헌 디.(사간집은 고부장네 집이라고 아주 부잣집 '안팟거리' 하는 데.)

108002 @ 부제칩. 보통은 다 삼간집이과?(부잣집. 보통은 다 삼간집입니까?)

108002 #2 삼간집허고, 삼간집도 잘 엇엇주게.(삼간집하고, 삼간집도 잘 없었지.)

108002 @ 아, 이간집?(아, 이간집?)

108002 #2 이간집. 삼칸집은 드물엇주.(이간집. 삼간집은 드물었지.)

108002 @ 아, 삼칸집은 드물언마씨? 게믄 저기 삼춘네 집은 이칸집이랏수과, 삼칸집이랏수과?(아, 삼간집은 드물었어요? 그럼 저기 삼촌네 집은 이간집이었습니까, 삼간집이었습니까?)

108002 #2 아니, 우리 집은 삼칸집.(아니, 우리 집은 삼간집.)

108002 @ 삼칸집.(삼간집.)

108002 #2 삼칸집이라도 막 집도 노프고 헤난.(삼간집이라도 아주 집도 높고 했었어.)

108002 @ 집도 노프고 헤난예.(집도 높고 했어요.)

108002 #2 그 집 뜯어 불지 안허고 헤시믄 막 박물관으로 허켄 허멍 사람들 오랑 야, 이 집은 참 뭣 허다 허멍 헷는디.(그 집 뜯어 버리지 않고 했으면 아주 박물관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사람들 와서 야, 이 집은 참 뭣 하다 하면서 했는데.)

108004 @ 경 멋진 집이라신디예. 게난 삼간집을 짓젠 허민 어떵 헤나신지 아까 집 짓는 거 쪼금 ᄀᆞᆯ앗수다만은 ᄎᆞ근ᄎᆞ근 한 번 ᄀᆞᆯ아줘 봅서. 삼칸집 짓젠 허민 먼저?(그렇게 멋진 집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삼칸집을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했었는지 아까 집 짓는 거 조금 말했습니다만 차근차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삼간집 지으려고 하면 먼저?)

108004 #2 삼칸집도 막 역시 마찬가지.(삼간집도 아주 역시 마찬가지.)

108004 @ 마찬가지예. 가장 먼저 허는 건 옆에 돌 세우는 거?(마찬가지요. 가장 먼저 하는 건 옆에 돌 세우는 거?)

108004 #2 지동.(기둥.)

108004 @ 지동?(기둥?)

108004 #2 나무 세와근에 네 지동 이렇게 세우면은 우에 서리가 잇어야 헐 거 아니라게?(나무 세워서 네 기둥 이렇게 세우면 위에 서까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108004 @ 예.(예.)

108004 #2 게난 그런 건 ᄀᆞ는ᄀᆞ는헌 낭 헤다근에 이렇게 벵 허게 저 무신 새끼 가늘게 꼰 걸로 영 밀려나지 못허게.(그러니까 그런 건 아주 가는 나무 해다가 이렇게 뱅 하게 저 무슨 새끼 가늘게 꼰 걸로 이렇게 밀려나지 못하게.)

108004 @ 예.(예.)

---

274) '안팟거리'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안채와 바깥채를 말한다.

108004 #2 여기까지 다 무꺼.(여기까지 다 묶어.)

108004 @ 무꺼.(묶어.)

108004 #2 경 헤여근에 겨민 그 우에도 흑 불르곡이 이추룩 천장 허젠 허민.(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위에도 흙 바르고 이처럼 천장 하려고 하면.)

108004 @ 게민 천장 허젠 허민 벽을 먼저 헹 올라가야 나중에 천장을 헐 거 아니?(그럼 천장 하려고 하면 벽을 먼저 해서 올라가야 나중에 천장을 할 거 아니?)

108004 #2 겨난.(그러니까.)

108004 @ 으, 겨난.(으, 그러니까.)

108004 #2 이런 집 그추룩을 헹 헤 놔도 안에도 형편이 아니주게.(이런 집 그처럼 해서 해 놔도 안에도 형편이 아니지.)

108004 @ 예.(예.)

108004 #2 이디 영 세와 노난 엉살헐 거 아니?(여기 이렇게 세워 놓으니까 엉성할 거 아니?)

108004 @ 예.(예.)

108004 #2 경허면은 그 저 거세기 그 사이에 뭣을 허느냐 허면은 저 가는 가는 헌 나무 헤당 이렇게 영 영 헤영 여깡 메영.(그러면 그 저 거시기 그 사이에 뭣을 하느냐 하면 저 가는 가는 나무 해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엮어서 매어서.)

108004 @ 으.(으.)

108004 #2 메여근에 이젠 다시 그디도 흑으로 뀌여근에 이렇게 불르는 거.(매어서 이젠 다시 거기도 흙으로 이겨서 이렇게 바르는 거.)

108004 @ 음.(음.)

108004 #2 불르곡 저 방안으로, 안으론 문지락헌 그 저 무시거, ᄀᆞ시락.(바르고 저 방안으로, 안으론 매끄러운 그 저 무엇, 까끄라기.)

108004 @ ᄀᆞ시락.(까끄라기.)

108004 #2 ᄀᆞ시락 헤영 막 줌진 거 허영 막 뀌영 경헤근에 안에는 그걸로 매끈허게 헹 불르주기게.(까끄라기 해서 아주 가는 거 해서 마구 이겨서 그래서 안에는 그걸로 매끈하게 해서 바르지.)

108004 @ 으.(으.)

108004 #2 경헨 불랑 이젠 물르믄 뚜로 제불, 제불은 흑 그냥 허여근에 따시 그디 꺼틀꺼틀헌 더레 흑 허여근에 맨짝허게시리 줌진 흑 치여근에.(그래서 발라서 이젠 마르면 따로 두벌, 두벌은 흙 그냥 해서 다시 거기 까끌까글한 데로 흙 해서 맨짝하게끔 가는 흙 쳐서.)

108004 @ 게난 매끄럽게 허는 걸 아까 제불이렌 헷수과?(그러니까 매끄럽게 하는 걸 아까 두벌이라고 했습니까?)

108004 #2 으, 제불.(으, 두벌.)

108004 @ 제불이렌 부르는 거예. 그믄 그거는 흑 매끄럽게 흑만 물에 타 가지고 영, 영.(두벌이라고 부르는 거요. 그럼 그거는 흙 매끄럽게 흙만 물에 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108004 #2 건 내중에.(건 나중에.)

108004 @ 내중에.(나중에.)

108004 #2 으. 제불 이렇게 손보는 거.(으, 두벌 이렇게 손보는 거.)

108004 @ 예, 예. 제불 손보는 거예. 경헹 흑 물 타 가지고?(예, 예. 두벌 손보는 거요. 그래서 흙 물 타 가지고?)

108004 #2 저 ᄀᆞ시락, 문지락헌 ᄀᆞ시락 허영 처음엔 그걸로 불랑.(저 까끄라기, 부드러운 까끄라기 해서 처음엔 그걸로 발라서.)

108004 @ 으.(으.)

108004 #2 이젠 웬만이 ᄆᆞᆯ류거든.(이젠 웬만히 마르거든.)

108004 @ 으.(으.)

108004 #2 ᄆᆞᆯ르면은 따시 이제 즘진 흑 헤여근에 이젠 그디를 메끈허게 따시 제불 손을 봐야 뒈주게.(마르면 다시 이젠 가는 흙 해서 이젠 거기를 매끈하게 다시 두벌 손을 봐야 되지.)

108004 @ 으, 음.(으, 음.)

108004 #2 경헤야 종이를 부뜰 거 아니게.(그래야 종이를 붙을 거 아니.)

108005 @ 예, 예. 경허민 마무리가 뒈는 거예, 마무리가 뒈는 거. 그 저기 우리 집 짓젠 허믄 지둥 세우는 데 밑에 받치는 돌이 있잖수과?(예, 예. 그러면 마무리가 되는 거요. 마무리가 되는 거. 그 저기 우리 집 지으려고 하면 기둥 세우는 데 밑에 받치는 돌이 있잖습니까?)

108005 #2 주칫돌 신 집은 주칫돌로 허고 주칫돌 엇이 막 못 사는 집은 주칫돌도 안 헤여근에게.(주춧돌 있는 집은 주춧돌로 하고 주춧돌 없이 아주 못 사는 집은 주춧돌도 안 해서.)

108005 @ 아, 주칫돌도 안 허는 집도 잇수과?(아, 주춧돌도 안 하는 집도 있습니까?)

108005 #2 주칫돌 안 헤영 그냥, 나무 ᄒᆞ꼼 어지간헌 돌멩이 뭣 헤영 그냥 세왕도 허는 디 잇고 뭐 여러 가지랏주.(주춧돌 안 해서 그냥, 나무 조금 어지간한 돌멩이 뭣 해서 그냥 세워서도 하는 데 있고 뭐 여러 가지였지.)

108005 @ 아, 기라예. 삼칸집 허젠 허믄.(아, 그렇죠. 삼간집 하려고 하면.)

108005 #2 주칫돌 곱닥허게 허는 집은 막 곱닥허게 헤근에 그 돌 경헤영 세우주게.(주춧돌 곱게 하는 집은 아주 곱게 해서 그 돌 그래서 세우지.)

108005 @ 으, 음. 삼칸집이믄 지둥은 몇 개나 필요헙니까?(으, 음. 삼간집이면 기둥은 몇 개나 필요합니까?)

108005 #2 지둥이, 혼 ᄋᆞ섯 개쯤 뒐 거라.(기둥이, 한 여섯 개쯤 될 거야.)

108005 @ 아, 여섯 개쯤예?(아, 여섯 개쯤요?)

108005 #2 으.(으.)

108005 @ 삼칸집 허젠 허면. 그럼 그런 지동들은 미리 집 짓젠 허민 다 헹 오

는 거, 어디 강?(삼간집 하려고 하면. 그럼 그런 기둥들은 미리 집 지으려고 하면 다 해서 오는 거, 어디 가서?)

108005 #2 으.(으.)

108005 @ 산에 강예?(산에 가서요?)

108005 #2 산에 강. 산에 강도 허고 나무 장시가 잇엇주게.(산에 가서. 산에 가서도 하고 나무 장수가 있었지.)

108005 @ 그때도?(그때도?)

108005 #2 그때 제목 장시, 제재소.(그때 재목 장수, 제재소.)

108005 @ 아. 지금이야 제재소 있지만은 그 옛날?(아. 지금이야 제재소 있지만 그 옛날?)

108005 #2 아니, 옛날에도.(아니, 옛날에도.)

108005 @ 으.(으.)

108005 #2 나무 세우는 그런 거는 잇어실 거라.(나무 세우는 그런 거는 있었을 거야.)

108005 @ 어. 목쉬허는 사름이.(어. 목수하는 사람이.)

108005 #2 으, 한라산 강 또 헤어 오는 사름도 싯고.(으, 한라산 가서 또 해 오는 사람도 있고.)

108005 @ 있고예. 들보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과? 포렌 헙니까, 들보렌 헙니까?(있고요. 들보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포'라고 합니까, 들보라고 합니까?)

108005 #2 거 뭐라?(거 뭐야?)

108005 @ 아, 지둥에, 지둥이랑 영 연결허는. 도리, 도리는 뭐과, 도리? 도리도 엇수과? 지붕에 연결할 때? 서리는 어디가 서리가 뒈는 것과?(아, 기둥에, 기둥이랑 이렇게 연결하는. 도리, 도리는 뭡니까, 도리? 도리도 없습니까? 지붕에 연결할 때? 서까래가 되는 겁니까?)

108005 #2 서리는 존존헌 나무로 거세기 헤도 우이 서리가 잇주기게. 둥그런 나무 서리가.(서까래는 자디잔 나무로 거시기 해도 위에 서까래가 있지. 둥그런 나무 서까래가.)

108005 @ 예, 예.(예, 예.)

108005 #2 이렇게 영 걸쳐져근에 허는.(이렇게 이렇게 걸쳐져서 하는.)

108005 @ 여기 우에 가로지르는 큰 낭이 잇고예?(여기 위에 가로지르는 큰 나무가 있고요?)

108005 #2 으.(으.)

108005 @ 가지쳉이로 영 영 나가는 게 서리가 뭘 거 아니예?(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게 서까래가 될 거 아니요?)

108005 #2 으, 서리, 서리.(으, 서까래, 서까래.)

108005 @ 예.(예.)

108005 #2 것도 동글랑헌 걸로 고운 걸로 짱 ᄉᆞ뭇 잘 사는 집인 곱게 헤영.(것

도 동그란 걸로 고운 걸로 짜서 사뭇 잘 사는 집은 곱게 해서.)

108005 @ 우리 길쭉허게 가운데를 가로 지르는 이 나물?(우리 길쭉하게 가운데를 가로 지르는 이 나무를?)

108005 #2 그거는 저 무신거 그것ᄀᆞ라.(그거는 저 무엇 그것보고.)

108005 @ 그거 들보?(그거 들보?)

108005 #2 대들포.(대들보.)

108005 @ 으, 대들포.(으, 대들보.)

108005 #2 대들포.(대들보.)

108005 @ 예, 예. 대들포엔 부르는 거. 대들보 있고 영 끝으로 영 도리가 잇고 예?(예, 예. 대들보라고 부르는 거. 대들보 있고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도리가 있고 요?)

108005 #2 대들포엔 허주, 이 우이 상량.(대들보라고 하지, 이 위에 상량.)

108005 @ 상량?(상량?)

108005 #2 상량식 허젠 허믄 그거.(상량식 하려고 하면 그거.)

108005 @ 예, 예.(예, 예.)

108005 #2 대들포에 그 저 일름, 저 저 무시거 한문으로 씨여근에 딱.(대들보에 그 저 이름, 저 저 무엇 한문으로 쓰여서 딱.)

108005 @ 예, 예. 경 이 집 끄트머리로 영 큰 낭덜이 이신 건 그건 도리렌 헐 거 아니, 도리?(예, 예. 그렇게 이 집 끄트머리로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는 건 그건 도리라고 할 거 아니, 도리?

108005 #2 아니 아니, 서리.(아니 아니, 서까래.)

108005 @ 서리는 대들보랑 도리랑 영 이어주는 거 아니과?(서까래는 대들보랑 도리랑 이렇게 이어주는 거 아닙니까?)

108005 #2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8005 @ 아니?(아니?)

108005 #2 빙 돌아가멍 가셍이로 영 헌 것ᄀᆞ라 집 서리엔 허는 거고.(빙 돌아가면서 가장자리로 이렇게 한 것보고 집 서까래라고 하는 거고.)

108005 @ 가셍이로 영 헌 걸 서리렌 허고. 으. 서리렌 허는 거예. 그럼 그 지동 허젠 허믄 지동은 무슨 남으로 헙니까?(가장자리로 이렇게 한 걸 서까래라고 하고. 으. 서까래라고 하는 거요. 그럼 그 기둥 하려고 하면 기둥은 무슨 나무로 합니까?)

108005 #2 에이구, 나무게 소남으로도 허고 첨 돈 신 사름덜은 옛날은, 옛날은 한라산에 그런 나무가 잇엇덴 허난 몰라 원, 저 거세기 이런 마루 널 같은 것도 저 굴무기.(아이고, 나무 소나무라도 하고 참 돈 있는 사람들은 옛날은, 옛날은 한라산에 그런 나무가 있었다고 하니까 몰라 원, 저 거시기 이런 마루 널 같은 것도 저 느티나무.)

108005 @ 굴무기.(느티나무.)

108005 #2 굴무기 허고 지동 허는 것도 굴무기 말앙 사오기엔 헌 나무도 잇곡

허난에 여러 가지. 사오기 허는 사름도 잇고 또 잘 살아근에 뭣 헌 사름은 저 굴무기는 어려왕게 그런 거는.(느티나무 하고 기둥 하는 것도 느티나무 말고 벚나무라고 하는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오기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잘 살아서 뭣 한 사람은 저 느티나무는 어려워서 그런 거는.)

108005 @ 으.(으.)

108005 #2 게난 보통 사오기 그런 걸로 헷주.(그러니까 보통 사오기 그런 걸로 했지.)

108005 @ 굴무기가 막 좋은 낭이라예, 궤도 짜고.(느티나무가 아주 좋은 나무지요, 궤도 짜고.)

108005 #2 그건 최고, 그 낭은.(그건 최고, 그 나무는.)

108005 @ 아, 굴무기낭이?(아, 느티나무가?)

108005 #2 으.(으.)

108006 @ 게민 흑을 여끌 때는, 흑 여기 불르젠 헐 때는 그건 다 보리 ᄀᆞ스락 놔 가지고 뀌여 가지고 흑 ᄇᆞ르는 거예?(그럼 흙을 이길 때는 흙 여기 바르려고 할 때는 그건 다 보리 까끄라기 놔 가지고 빚어 가지고 흙 바르는 거요?)

108006 #2 게난 영 허는 새끼도 찝을 꼬아근에 막 만이 들주기게.(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새끼도 짚을 꼬아서 아주 많이 들지.)

108006 @ 예.(예.)

108006 #2 그 준준헌 거, 영 ᄀᆞ는 거 세왕 그디 즘질즘질허게 만딱 무껑근에 이젠 불르는 거라 그걸로.(그 자디잔 거, 이렇게 가는 거 세워서 거기 자디잘게 모두 묶어서 이젠 바르는 거야, 그걸로.)

108006 @ 으.(으.)

108006 #2 불르곡 이, 이 높이는 또 무신 널판데기 닮은 걸로 이추룩 헹 놓아근에 그 청방이라고 그거 우이로 이제 그 하이고 것ᄀᆞ라 무시거엔 헌다만은 옆에 축, 축.(바르고 이, 이 높이는 또 무슨 널빤지 같은 걸로 이처럼 해서 놓아서 그 청방이라고 그거 위로 이제 그 아이고 것보고 무엇이라고 한다만 옆에 축, 축.)

108006 @ 으.(으.)

108006 #2 축에 허는 나무는 ᄀᆞ는ᄀᆞ는헌 거 새끼로만 딱 꼬와근에 이추룩.(축에 하는 나무는 아주 가는 거 새끼로만 딱 꼬아서 이처럼.)

108006 @ 으.(으.)

108006 #2 경허믄 그 소왕간도 짓젠 허믄이 그런 걸로 헤영 허믄 쉐 막 지랄허멍 뿔로 영 뭣 헤 불믄 그 흑 털어져근에 이런 디 그 서리만 그냥 남앙도.(그러면 그 외양간도 지으려고 하면 그런 걸로 해서 하면 소 마구 지랄하면서 뿔로 이렇게 뭣 해 버리면 그 흙 떨어져서 이런 데 그 서까래만 그냥 남아서도.)

108007 @ 하하. 흑 막 긁어 불민 쉐가. 삼칸집 허면 방은 보통 몇 개나 잇수과?(하하. 흙 마구 긁어 버리면 소가. 삼간집 하면 방은 보통 몇 개나 있습니까?)

108007 #2 두 개, 두 개.(두 개, 두 개.)

108007 @ 방 두 개? 게믄 삼칸집 안에 뭐 뭐 잇어? 큰방이 잇고?(방 두 개? 그럼 삼간집 안에 뭐 뭐 있어? 큰방이 있고?)

108007 #2 작은방 잇고, 쳇방[275]이라고 부엌 저런 저, 저 우리 부엌에 모냥으로.(작은방 있고, '쳇방'이라고 부엌 저런 저, 저 우리 부엌에 모양으로.)

108007 @ 으.(으.)

108007 #2 그것ᄀᆞ란 저 거세기, 정지.(그것보고 저 거시기, 부엌.)

108007 @ 정지. 삼칸집 안에 정지가 ᄀᆞ치 부텅 잇어?(부엌. 삼간집 안에 부엌이 같이 붙어 있어?)

108007 #2 정지?(부엌?)

108007 @ 으.(으.)

108007 #2 으.(으.)

108007 @ 부텅 잇어?(붙어 있어?)

108007 #2 널러, 경헤도.(넓어, 그래도.)

108007 @ 아.(아.)

108007 #2 삼칸집도. 수룸허주기게. 영 폭이 넙질 안허고.(삼간집도. 길쭉하지. 이렇게 폭이 넓지 않고.)

108007 @ 예.(예.)

108007 #2 이거 큰방이면 이거 족은방.(이거 큰방이면 이거 작은방.)

108007 @ 족은방.(작은방.)

108007 #2 이디 마리.(여기 마루.)

108007 @ 마리.(마루.)

108007 #2 이디 가믄 거세기 정지.(여기 가면 거시기 부엌.)

108009 @ 고팡은?(고방은?)

108009 #2 고팡 ᄯᅳ로 정지 ᄌᆞᆺ디 요만이 쪼금 잇고.(고방 따로 정지 근처에 요만큼 조금 있고.)

108009 @ 아, 고팡.(아, 고방.)

108009 #2 화장실은 안 허니까 화장실 그디만인 이디 저 무시거 싯곡게 경허주게.(화장실은 안 하니까 화장실 거기만큼 여기 저 무엇 있고 그렇지.)

108007 @ 음, 고팡 싯고예. 그럼 막 방에 시렁도 이십니까, 우에 선반 우에 물건들 놔두게 벽장 우에 낭으로.(음, 고방 있고요. 그럼 마구 방에 시렁도 있습니까, 위에 선반 위에 물건들 놔두게 벽장 위에 나무로.)

108007 #2 벽장, 벽장.(벽장, 벽장.)

108007 @ 벽장?(벽장?)

108007 #2 벡장 놔근에 벡장 노믄 궤, 옛날은 궤 행서 허난에 궤 두 개 그디 올려 놓면은 딱.(벽장 놔서 벽장 놓으면 궤, 옛날은 궤 행사 하니까 궤 두 개 거기 올려 놓으면 딱.)

275) '쳇방'은 마루에서 부엌으로 통하는 곳에 위치한 조그마한 마루를 말한다.

108007 @ 벡장 우에예. 그럼 이런 마루에도 우에 뭐 올려놓게 선반 만들거난 허진 않고?(벽장 위에요. 그럼 이런 마루에도 위에 뭐 올려놓게 선반 만들거나 하진 않고?)

108007 #2 선반은 메는 집은 선반 낭으로.(선반은 매는 집은 선반 나무로.)

108007 @ 나무로.(나무로.)

108007 #2 요렇게 선반 쪼금 허영.(요렇게 선반 조금 해서.)

108007 @ 그 선반을 시렁이렌 안 골읍니까?(그 선반을 시렁이라고 안 말합니까?)

108007 #2 아니, 선반이엔만 허여.(아니, 선반이라고만 해.)

108007 @ 선반.(선반.)

108007 #2 마루에 선반, 마리에 선반 경 허난.(마루에 선반, 마루에 선반 그렇게 하니까.)

108007 @ 음. 구들에 가면 구들에도 윗목 있고 아랫목 있지예?(음. 구들에 가면 구들에도 윗목 있고 아랫목 있지요?)

108007 #2 아랫목이 있는 거는 저 방이면은 저 바꼇디, 말허자면 바껏디 뭘 처레주게.(아랫목이 있는 거는 저 방이면 저 바깥, 말하자면 바깥 될 거지.)

108007 @ 예, 바껏디.(예, 바깥.)

108007 #2 으. 저 그 굴묵[276]을 쪼그메기. 사름 하나 들어갈 만이 요만인. 그 같이 붙어서 영, 칸을.(으. 저 그 '굴묵'을 조그마하게. 사람 하나 들어갈 만큼 요만큼. 그 같이 붙어서 이렇게, 칸을.)

108007 @ 으.(으.)

108007 #1 집 짓을 때 경허면은.(집 지을 때 그러면은.)

108007 @ 거기 방에는 넙적헌 돌게, 넙적헌 돌.(거기 방에는 넓적한 돌, 넓적한 돌.)

108007 @ 으.(으.)

108007 #2 그런 거 봉가다근에 이젠 영 공간 나게 영 이렇게, 이렇게 터지고 요디를 돌로 영 막아근에 저 흑으로 막 불랑이.(그런 거 주워다가 이젠 이렇게 공간 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터지고 여기를 돌로 이렇게 막아서 저 흙으로 마구 발라서.)

108007 @ 예.(예.)

108007 #2 경허믄 요 안터레만 막 멘도롱허주기게. 아랫목이라고 그디가.(그러면 요 안에만 아주 미지근하지. 아랫목이라고 거기가.)

108007 @ 예. 게믄 거기가 아랫목예. 우리가 들어가는 이런 입구는 윗목이 뒈는 거라예?(예. 그럼 거기가 아랫목요. 우리가 들어가는 이런 입구는 윗목이 되는 거지요?)

108007 #2 으.(으.)

276)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와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말한다.

108007 @ 아랫목, 윗목예. 마루에 보면 옛날에, 옛날에는 막 추우니까 난로덜 엇일 이 안에 마루에 뭐 만들어낫수과, 난로?(아랫목, 윗목요. 마루에 보면 옛날에, 옛날에는 아주 추우니까 난로들 없을 이 안에 마루에 뭐 만들었었습니까, 난로?)

108007 #2 그런 집도 싯고 경헤도 그런 집은 얼마 엇어주기.(그런 집도 있고 그래도 그런 집은 얼마 없지.)

108007 @ 예.(예.)

108008 #2 이 마루에 봉덕불[277]거추룩 살련에 마리 안에 그 저, 이디 그 널판을 안 놔근에 요렇게 그냥 그 무신 요만큼씩 나무 짇어근에 저 뭣허곡 불도 담아당 이렇게 놓고 허믄 요 책상만큼 허게시리 기레기도 허믄 그디덜 앚앙 영 불 초아.(이 마루에 '봉덕불'처럼 살라서 마루 안에 그 저, 여기 그 널판을 안 놔서 요렇게 그냥 그 무슨 요만큼씩 나무 때서 저 뭐하고 불도 담아다가 이렇게 놓고 하면 요 책상만큼 하게끔 길이도 하면 거기들 앉아서 이렇게 불 쪼여.)

108008 @ 예, 게믄 그걸 뭐렌 골앗수과?(예, 그럼 그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108008 #2 봉덕불이엔 헤서, 그것ᄀᆞ라.('봉덕불'이라고 했어, 그거보고.)

108008 @ 예, 봉덕불.(예, '봉덕불'.)

108008 #2 으, 마리에 가믄 그 봉덕불 살롸 허는 거.(으, 마루에 가면 그 '봉덕불' 살려서 하는 거.)

108008 @ 봉덕불은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면 한 이 정도에 봉덕불이 잇어난?('봉덕불'은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면 한 이 정도에 '봉덕불'이 있었어요?)

108008 #2 한 가운디.(한 가운데.)

108008 @ 한 가운디?(한 가운데?)

108008 #2 어떤 집이 강 보믄. 겐디 고낸 그추룩 헌 집 엇어낫수다게.(어떤 집에 가서 보면. 그런데 고낸 그처럼 한 집 없었어.)

108008 @ 아, 고낸 별로 엇어난?(아, 고낸 별로 없었어?)

108008 #2 으. 고낸 엇어나고 어디 웃드르[278] 집이 강 보믄 그런, 그추룩 헌.(고낸 없었고 어디 '웃드르' 집에 가서 보면 그런, 그처럼 한.)

108009 @ 아, 기과? 고낸 별로 엇어난. 그믄 고팡 보쿠다, 고팡. 고팡 잇엇지예?(아, 그렇습니까? 고낸 별로 없었어. 그럼 고방 보겠습니다, 고방. 고방 있었지요?)

108009 #2 고팡은 다 잇엇주.(고방은 다 있었지.)

108009 @ 고팡에 뭐 뭐 놔낫수과?(고방에 뭐 뭐 놨었습니까?)

108009 #2 항.(항.)

108009 @ 항 잇고.(항 있고.)

108009 #2 항 뚜께 더끄멍 항아리덜.(항 뚜껑 덮으면서 항아리들.)

108009 @ 으.(으.)

277) '봉덕'은 마룻바닥에 불을 피울 수 있게 만든 화로다. '봉덕불'은 '봉덕'에 피운 불을 말한다.
278)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 이루어진 마을을 말한다.

108009 #2 쪼그메기헌 건 망뎅이. 건 그거는 항아리, 항.(조그마한 건 망데기. 건 그거는 항아리, 항.)

108009 @ 게민 고팡에 보면 쪼그만헌 문이 있지 안허과?(그럼 고방에 보면 조그마한 문이 있지 않습니까?)

108009 #2 문은 아니고.(문은 아니고.)

108009 @ 으, 문은 아니고.(으, 문은 아니고.)

108009 #2 창곰 내영게 영.(창구멍 내어서.)

108009 @ 창곰 내는 거라예?(창구멍 내는 거지요?)

108009 #2 으.(으.)

108009 @ 바람 들어왓닥. 곡석 보관헐 거난예?(바람 들어왔다가. 곡식 보관할 거니까요?)

108009 #2 곡석 보관허는 게 아니고.(곡식 보관하는 게 아니고.)

108009 @ 어, 무사 창곰을 내어?(어, 왜 창구멍을 내?)

108009 #2 무슨 공기 통허렌산디 창곰 요만인, 니기반득허게 요만인.(무슨 공기 통하라고인지 창구멍 요만큼, 네모반듯하게 요만큼.)

108009 @ 예, 창 쪼그만 허게 내난 거예. 그 고팡에 안칠성이 있덴 헙니까?(예, 창 조그마하게 냈던 거요. 그 고방에 '안칠성' 있다고 합니까?)

108009 #2 안칠성[279]은 있는 집이는 허고 엇는 집인 안 허고. 거 매 집이 허는 거 아니.('안칠성'은 있는 집은 하고 없는 집은 안 하고. 거 매 집에 하는 거 아니.)

108009 @ 아, 있는 집이만 허고. 모시는 집만 모시는 거?(아, 있는 집에만 하고. 모시는 집만 모시는 거?)

108009 #2 모시는 집이만 뭇앙 그 무신거 ᄂᆞ라미 허영 주젱이 요렇게 더껑 놔두곡 허는 집도 싯곡 경허여.(모시는 집에만 모셔서 그 무엇 이엉 해서 주저리 요렇게 덮어 놔두고 하는 집도 있고 그래.)

108009 @ 아.(아.)

108009 #2 우리 집안에 그런 거 안 허난 엇어.(우리 집안에 그런 거 안 하니까 없어.)

108009 @ 아. 어떤 집이 그거 모셤신고예, 안칠성 모시는 집들은?(아, 어떤 집에 그거 모시나요, '안칠성' 모시는 집들은?)

108009 #2 어떤 집게.(어떤 집.)

108009 @ 믿는 집?(믿는 집?)

108009 #2 아니 아니. 믿는 집 아니라도 그추룩 헌 것을 허여근에 막 그냥 심방 ᄃᆞ려다가 굿도 그냥 ᄒᆞ를 해원 허곡 헤여.(아니 아니. 믿는 집 아니여도 그처럼 한 것을 해서 마구 그냥 무당 데려다가 굿도 그냥 하루 종일 하고 해.)

108009 @ 음. 게민 고팡에는 항덜 잇잖아예?(음. 그럼 고방에는 항들 있잖아요?)

279) '안칠성'은 고방에 모시는 뱀 신을 말한다. 여자 귀신으로 재물을 관장한다고 한다.

108009 #2 으.(으.)

108009 @ 항에 뭐덜 보관헤낫어?(항에 뭐들 보관했었어?)

108009 #2 보리.(보리.)

108009 @ 보리.(보리.)

108009 #2 보리, 또 이 ᄀᆞ을 들엉 이추룩 구월 나면은 ᄆᆞᆯ방에에서 그 보리 지어근에 ᄆᆞᆯ령 이제 체 불령 ᄀᆞ레에서 ᄀᆞᆯ멍 ᄊᆞᆯ 만들아근에 항아리에 부제칩인 막 그냥 쭉 허게 놔두주게.(보리, 또 이 가을 들어서 이처럼 구월 되면 연자매에서 그 보리 지어서 말려서 이제 체 불려서 맷돌에서 갈면서 쌀 만들어서 항아리에 부잣집은 마구 그냥 쭉 하게 놔두지.)

108009 @ 아, 일 년 내낭 먹을 거?(아, 일 년 내내 먹을 거?)

108009 #2 일 년 내낭 먹을 거, 경헌디 양석 족아근에 보리 익기 전이 놈의 집이 강 막 꿔당 먹엉 무는 사름도 싯곡 여러 가지라.(일 년 내내 먹을 거, 그런데 양식 적어서 보리 익기 전에 남의 집에 가서 마구 꿔다가 먹고 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야.)

108010 @ 아, 보리쌀 꾸어당 먹엉예. 이젠, 이젠 정지 가 보쿠다예. 부엌이렌 ᄀᆞᆯ앗수과 뭐렌 ᄀᆞᆯ앗수과?(아, 보리쌀 꾸어다가 먹고요. 이젠, 이젠 부엌 가 보겠습니다. 부엌이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108010 #2 정지, 정지.(‘정지’, 부엌.)

108010 @ 정지예. 정지에 가면 뭐 잇엇수과?(‘정지’요. 부엌에 가면 뭐 있었습니까?)

108010 #2 정지에 가면 무슨 아이고, 정지에 가면은 솟덕을 돌로게, 돌.(부엌에 가면 무슨 아이고, 부엌에 가면 봇돌을 돌로.)

108010 @ 으, 돌.(으, 돌.)

108010 #2 돌로 요렇게.(돌로 요렇게.)

108010 @ 음.(음.)

108010 #2 똑 요렇게 허주게, 요렇게. 영 허믄 솟을 이디 앚질 거 아니라.(꼭 요렇게 하지, 요렇게. 이렇게 하면 솥을 여기 얹힐 거 아니야.)

108010 @ 예, 예.(예, 예.)

108010 #2 이디 영 앚지민 일로 불 때믄 일로 막 내 팡 팡 팡 나가고.(여기 이렇게 얹히면 일로 불 때면 일로 마구 내 팡 팡 팡 나가고.)

108010 @ 으, 재도 글로 나가고?(으, 재도 글로 나가고?)

108010 #2 으, 재, 재도. 재는 저레 자치고.(으, 재, 재도. 재는 저리 젖히고.)

108010 @ 게민 정지에 솟은 멧 개나?(그럼 부엌에 솥은 몇 개나?)

108010 #2 정지에 솟? 에또, 젤 큰 솟은 젤 우쪽으로.(부엌에 솥? 에, 젤 큰 솥은 젤 위쪽으로.)

108010 @ 예.(예.)

108010 #2 하나허고 그 다음에 또 말치엔 헌 거 흔 말치산디 무시거산디 말치,

말치 허난 그런 거 허고 그 다음에 뚜로 쪼금 족은 솟허고 젤 끄트메기 가면 쪼그만헌 솟 하나. 네 개.(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말치라고 한 거 한 말치인지 무엇인지 말치, 말치 하니까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따로 조금 작은 솥하고 제일 끄트머리 가면 조그마한 솥 하나. 네 개.)

108010 @ 제일 큰 솟은 몇 말들이?(제일 큰 솥은 몇 말들이?)

108010 #2 그건 혼 두 말 드는 거.(그건 한 두 말 드는 거.)

108010 @ 게민 두 말치?(그럼 두 말치?)

108010 #2 두 말이엔도 허고 그건 뭐.(두 말이라고도 하고 그건 뭐.)

108010 @ 두 말치 솟 하나 있었고 웨 말치 솟 있었고 그 다음 한 두 뒈들이 솟 있었고, 쪼금만헌 솟 있엇고?(두 말치 솥 하나 있었고 외 말치 솥 있었고 그 다음 한두 되들이 솥 있었고. 조그마한 솥 있었고?)

108010 #2 으. 거 냄비 거튼 것도 엇이난에게.(으. 거 냄비 같은 것도 없으니까.)

108010 @ 예, 게난 여기는 큰방, 여기는 안방, 정지가 저기?(예, 그러니까 여기는 큰방, 여기는 안방, 부엌이 저기?)

108010 #2 으.(으.)

108010 @ 정지 갈 때는 신발 신엉 들어가는 거? 아니면.(부엌 갈 때는 신발 신어서 들어가는 거? 아니면.)

108010 #2 정지 가젠 허면?(부엌 가려고 하면?)

108010 @ 으, 정제 가젠 허면?(으, 부엌 가려고 하면?)

108010 #2 정제 가젠 허면 신발 신엉 가야주.(부엌 가려고 하면 신발 신고 가야지.)

108010 @ 신엉 가.(신고 가.)

108010 #2 정제는 ᄒᆞ꼼 움푹허여근에 요만인헌 팡돌, 신 벗는 디 하나 잇주게.(부엌은 조금 움푹해서 요만한 팡돌, 신 벗는 데 하나 있지.)

108010 @ 예.(예.)

108010 #2 경허믄 그거 디뎌근에 신 그디서 신엉 정지에 강 앚앙 불 솜주.(그럼 그거 디뎌서 신 거기서 신어서 부엌에 가서 앉아서 불 때지.)

108010 @ 게민 솟, 솟덕에 솟 언져졍 잇고, 또 정지에 뭐가 잇수과?(그럼 솥, 봇돌에 솥 얹혀 있고, 또 부엌에 뭐가 있습니까?)

108010 #2 물항게.(물독.)

108010 @ 물항.(물독.)

108010 #2 물 질어당 비우는.(물 길어다가 붓는.)

108010 @ 물항 잇고. 그 다음?(물독 있고. 그 다음?)

108010 #2 살레, 살레. 살레엔 곧주기게. 그 찻장.(찬장, 찬장. 찬장이라고 말하지 그 찬장.)

108010 @ 예, 예.(예, 예.)

108010 #2 그 대 헤영 여까근에 살렌 무신 셔셔게? 요만인헌 디 그릇 어프는 디.(그 대 해서 엮어서 찬장은 무슨 있었어? 요만한 데 그릇 엎는 데.)

108010 @ 으, 살레 헨 그릇 어퍼 두고예?(으, 찬장 해서 그릇 엎어 두고요?)

108010 #2 으.(으.)

108011 @ 물항 싯고 부엌이라예? 우리 집 지으게 뒈면 집 지으면 이 문 ᄃᆞ는 디가 잇잖수과? 집 지영 문을 둘젠 허면, 이게 문이렌 허면예, 요걸 뭐렌 헙니까, 이거 전체를? 문 둘젠 허민 이 판을 먼저 만들어야 헐 거 아니?(물독 있고 부엌이요? 우리 집 짓게 되면 집 지으면 이 문 다는 데가 있잖습니까? 집 지어서 문들 달려고 하면, 이게 문이라고 하면요, 요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 전체를? 문 달려고 하면 이 판을 먼저 만들어야 할 거 아니?)

108011 #2 아, 저 거세기. 그것ᄀᆞ라 저 무시거 문지둥이엔 허여.(아, 저 거시기. 그것보고 저 무엇 문기둥이라고 해.)

108011 @ 문입젱이엔 안 헙니까?(문설주라고 안 합니까?)

108011 #2 문입젱이엔 헌 말 안 헤영 문지둥이여 무시거.(문설주라고 한 말 안 해서 문기둥이며 무엇.)

108011 @ 문지둥이렌 헐 거예? 게민.(문기둥이라고 할 거요? 그럼.)

108011 #2 이제덜은 저것ᄀᆞ라 와꾸[280]여 무신 무시거여 ᄀᆞᆯ아도.(이제들은 저것보고 틀이며 무슨 무엇이며 말해도.)

108011 @ 예, 예전에는 문지둥이엔 헷엇던 거예. 게민 이, 이거는?(예, 예전에는 문기둥이라고 했었던 거요. 그럼 이, 이거는?)

108011 #2 지방 건.(문지방 건.)

108011 @ 지방예?(문지방요?)

108011 #2 문지방.(문지방.)

108011 @ 문지방예.(문지방요.)

108011 #2 큰방 지방, 족은방에 지방.(큰방 문지방, 작은방에 문지방.)

108011 @ 으. 문지방이렌 헐 거. 게민 옛날에 우리 이런 문 말고 여닫이문 두 개를 영 닫을 때는, 영 닫으면 문 잠그젠 허면 여기 거는 거 잇어낫수궤?(으. 문지방이라고 할 거. 그럼 옛날에 우리 이런 문 말고 여닫이문 두 개를 이렇게 닫을 때는, 이렇게 닫으면 문 잠그려고 하면 여기 거는 거 있었잖아요?)

108011 #2 걸쇄.(걸쇠.)

108011 @ 걸 걸쇄렌 헷수과? 문절귀렌 허는 말 안 쓰고?(걸 걸쇠라고 했습니까? 문빗장이라는 하는 말 안 쓰고?)

108011 #2 아니, 문걸쇄.(아니, 문고리.)

108011 @ 문걸쇄렌 헨마씨?(문고리라고 했어요?)

108011 #2 으.(으.)

108011 @ 그럼 여기 거 잇고 이건 수컷 잇고 이거 암컷도 잇지 안헤? 영 더꺼

280) '와꾸'는 일본어 'わく(枠)'로 틀, 테두리의 의미다.

지는 거 잇고 영 걸리는 거 잇고?(그럼 여기 거 있고 이건 수컷 있고 이거 암컷도 있지 않아? 이렇게 덮히는 거 있고 이렇게 걸리는 거 있고?)

108011 #2 게난. 걸리는 건 걸쉐게.(그러니까. 걸리는 건 걸쇠.)

108011 @ 걸쉐, 이거는?(걸쇠, 이거는?)

108011 #2 이것ᄀᆞ란 무시거엔 헌다만은 것도 잊어불언 몰르켜.(이것보고 무엇이라고 한다만 것도 잊어버려서 모르겠어.)

108011 @ 음. 이거 뭐 돌처귀엔은 안 헙니까?(음. 이거 뭐 돌쩌귀라고는 안 합니까?)

108011 #2 돌처귀, 돌처귀.(돌쩌귀, 돌쩌귀.)

108011 @ 문돌처귀예?(문돌쩌귀요?)

108011 #2 으, 문돌처귀.(으, 문돌쩌귀.)

108011 @ 문돌처귀렌 헐 거예.(문돌쩌귀라고 할 거요.)

108011 #2 문돌처귀.(문돌쩌귀.)

108011 @ 예, 맞수다, 맞수다. 그 호령창이렌 헌 것도 잇어낫수과?(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호령창'이라고 한 것도 있었습니까?)

108013 #2 호령항이 뭐라?(호령항이 뭐야?)

108013 @ 호령창, 호령창. 마루에 문 옆에 작은 문 헤 가지고 사람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있고('호령창', '호령창'. 마루에 문 옆에 작은 문 해 가지고 사람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있고.)

108013 #2 아.(아.)

108013 @ 그거 엇어난?(그거 없었어?)

108013 #2 그거 엇어근에 저 어떤 집이 보믄 창문에 유리게 요만큼헌 거.(그거 없어서 저 어떤 집에 보면 창문에 유리 요만한 거.)

108013 @ 예.(예.)

108013 #2 도비허멍 똑 부쩡 네귀반듯허게 허영 경헹 영 베령 사름 오는 거.(도배해서 똑 붙여서 네모반듯하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봐서 사람 오는 거.)

108014 @ 사름 오는 거 바레고예. 굴묵 아까 잠깐 ᄀᆞᆯ아서예, 불 때젠 허믄 굴묵헷엇던 거.(사람 오는 거 보고요. '굴묵' 아까 잠깐 말했어요, 불 때려고 하면 '굴묵' 했었던 거.)

108014 #2 굴묵.('굴묵'.)

108014 @ 굴묵.('굴묵'.)

108014 #2 똥 줏어당.(똥 주워다가.)

108014 @ 어.(어.)

108014 #2 쉐똥이영 막 돌아뎅기멍 줏어근에 바싹 ᄆᆞᆯ왕. 이제 그 굴묵에 그거 놀 만큼 헌 디 셔, 영 들어가는 디. 겨믄 그레 비와근에 이젠, 굴묵 짇을 땐 그 똥 허여근에 요레 허믄 구누네라고 그 요만이 헤영 무신 낭으로 멘들아근에 ᄌᆞ룩 헤영 영 헤영 똥 헤영 쑥 허게시리 디물앙 불 이디서 부쪄근에 그 안터레 쑥 디물앙.(소

똥과 마구 돌아다니면서 주워다가 바싹 말려서. 이제 그 '굴묵'에 그거 놓을 만큼 한 데 있어, 이렇게 들어가는 데. 그러면 그리 비워서 이젠, '굴묵' 땔 땐 그 똥 해서 요리 하면 고무래라고 그 요만큼 해서 무슨 나무로 만들어서 자루 해서 이렇게 해서 똥 해서 쑥 하게끔 디밀어서 불 여기서 붙여서 그 안으로 쑥 디밀어서.)

108014 @ 그거 아까 뭐라고마씨? 즈룩 만들앙 쑥 디물이는 데 쓰는 거를?(그거 아까 뭐라고요? 자루 만들어서 쑥 들이미는 데 쓰는 거를?)

108014 #2 저 거세기, 아까 골아 뒌 또 잊어불어신에.(저 거시기, 아까 말해 두고 또 잊어버렸네.)

108014 @ 구누네? 군대렌 안 헙니까?('구누네'? '군대'라고 안 합니까?)

108014 #2 아니, 아니. 구누네. 굴묵구누네엔 헤낫어.(아니, 아니. 고무래. 불고무래라고 했었어.)

108015 @ 굴묵구누네렌 헤난 거예, 예. 그 초가집에 비 들지 안허게 여기 밑에 대는 거 있지 안 헤예?(불고무래라고 했던 거요, 예. 그 초가집에 비 들지 않게 여기 밑에 대는 거 있지 않아?)

108015 #2 풍채.(차양.)

108015 @ 풍채. 풍채도 종류도 잇어낫수과? 떼여지는 풍채랑 내내 달려 잇는 풍채랑?(차양. 차양도 종류도 있었습니까? 뗄 수 있는 차양이랑 내내 달려 있는 차양이랑?)

108015 #2 내내 이렇게 둘려 있는 집은 그건 아무 집이나 둘젠 헤도게, 못 허영 저 거세기 풍채 안 헌 집도 싯고 또 발 풍채라고.(내내 이렇게 달려 있는 집은 그건 아무 집에나 달려고 해도, 못 해서 저 거시기 차양 안 한 집도 있고 또 발 차양이라고.)

108015 @ 으.(으.)

108015 #2 그 저 어욱이나 새 헤다가 낭 허영 요만이 지둥 세와근에게 그 또 이젠 그 가운딘 요런 서리 헹 새끼로 마딱 메여근에.(그 저 억새나 띠 해다가 나무 해서 요만큼 기둥 세워서 그 또 이젠 그 가운덴 요런 서까래 해서 새끼로 모두 매어서.)

108015 @ 예.(예.)

108015 #2 이젠 어욱이나 새 헤영 영 지러기로 헤영 그 여깡 딱 세와 놓믄 그 ᄂᆞ람쥐 여까근에 그레 끼와근에 영 바치면은, 비 왐 직허믄 그레 영 바치면은 아니 들어오주.(이젠 억새나 띠 해서 이렇게 길이로 해서 그 엮어서 딱 세워 놓으면 그 이엉 엮어서 그리 끼워서 이렇게 바치면, 비 올 거 같으면 그리 이렇게 받치면 안 들어오지.)

108015 @ 비가 안 들어오지예?(비가 안 들어오지요?)

108015 #2 아니 들어오지. 아니 들어오는 디 온 뭣인 걸 다 허젠 허면은 풍채를 이렇게 헷당 날 좋으면은 풍채 작쉬가 잇어 이렇게 두 개.(안 들어오지. 안 들어오는 데 온 뭐인 걸 다 하려고 하면 차양을 이렇게 했다가 날 좋으면 차양 작대기가

있어 이렇게 두 개.)

108015 @ 으, 세우는 거.(으, 세우는 거.)

108015 #2 영 세왕.(이렇게 세워서.)

108015 @ 으.(으.)

108015 #2 풍채 작쉬.(차양 작대기.)

108015 @ 예, 풍채 작쉬.(예, 차양 작대기.)

108015 #2 경 헷다근에 이젠 저 막 비가 크게 오랑 태풍 불어 가믄 그 풍채 작쉴 앗아 불면은 그것이 이렇게 영 알러레.(그렇게 했다가 이젠 저 아주 비가 크게 와서 태풍 불어 가면 그 차양 작대길 가져 버리면 그것이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108015 @ 더꺼지게.(덮이게.)

108015 #2 더꺼지게.(덮이게.)

108015 @ 풍채 작쉬를 앗아 불면?(차양 작대기를 가져 버리면?)

108015 #2 으. 게난 그거를 새로 허여근에 경 여깡 허는 집도 싯곡.(으. 그러니까 그거를 띠로 해서 그렇게 엮어서 하는 집도 있고.)

108015 @ 예.(예.)

108015 #2 또 도당, 인칙에 그 양철.(또 함석, 아까 그 양철.)

108015 @ 양철.(양철.)

108015 #2 양철 허영 허면은 막 오래가주게, 그 양철은.(양철 해서 하면 아주 오래가지, 그 양철은.)

108015 @ 아, 그걸로 허는 집도 싯고.(아, 그걸로 하는 집도 있고.)

108015 #2 그걸로 허는 집은 드물고게. 우리 집이 육지 강 사당 헤나실 거라.(그걸로 하는 집은 드물고. 우리 집이 육지 가서 사다가 했었을 거야.)

108015 @ 도당 그걸로 허젠 허민 그건 아무래도 일후제 아니? 그 막 전인 도당이 엇어실 거 아니?(함석 그걸로 하려고 하면 그건 아무래도 그 후에 아니? 그 아주 전엔 함석이 없었을 거 아니?)

108015 #2 엇언, 엇언.(없었어, 없었어.)

108015 @ 예.(예.)

108015 #2 엇언에 우리 시집간 후제 우리 오래비가 육지 강 그거 사단에 거 돌아나서.(없어서 우리 시집간 후에 우리 남동생이 육지 가서 그거 사다가 거 달았었어.)

108016 @ 예, 도당예. 집에 물팡도 잇어낫지예?(예, 함석요. 집에 '물팡'도 있었지요?)

108016 #2 물팡[281].('물팡'.)

108016 @ 물팡은 뭐 헐 때 쓰는 거라?('물팡'은 뭐 할 때 쓰는 거야?)

108016 #2 정지 무뚱 ᄌᆞᆺ디.(부엌 문 앞 근처.)

108016 @ 아, 정지 무뚱 ᄌᆞᆺ디.(아, 부엌 문 앞 근처.)

281) '물팡'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를 올려 넣어 두는 곳을 말한다. '물팡돌'이라고도 한다.

108016 #2 물팡이라는 건 이것추룩 영헌 돌 허여근에게 또 지동 세왕. 또 뒷벡은 정지 벡덜에 그냥 부쪄근에 허여이.(‘물팡’이라는 건 이것처럼 이러한 돌 해서 또 기둥 세워서. 또 뒷벽은 부엌 벽들에 그냥 붙여서 해.)

108016 @ 으.(으.)

108016 #2 경허믄 정지 무뚱으로 나오믄 요디 오랑 허벅 톡 허게 부리주게, 물비와 뒁.(그러면 부엌 문 앞으로 나오면 여기 와서 허벅 톡 하게 부리지, 물 부어 두고.)

108016 @ 그럼 정짓문은 여기로도, 마리로도 들어갈 수 있고 저쪽으로 문 있는 거?(그럼 부엌문은 여기로도, 마루로도 들어가지고 저쪽으로 문 있는 거?)

108016 #2 으, 바깟딜로.(으, 밖으로.)

108016 @ 바깟디로.(밖으로.)

108016 #2 정지, 정짓문.(부엌, 부엌문.)

108016 @ 게난 물팡은 그 베꼇디 문?(그러니까 ‘물팡’은 그 밖에 문?)

108016 #2 으, 벼꼇디 잇주게, 그 옆이.(으, 밖에 있지, 그 옆에.)

108016 @ 거기 있는 거예, 물팡.(거기 있는 거요, ‘물팡’.)

108016 #2 물팡돌이엔 허여, 그것도.(‘물팡돌’이라고 해, 그것도.)

108016 @ 예, 물팡돌.(예, ‘물팡돌’.)

108016 #2 그디 팡[282]을 물팡 놔근에게 저 물허벅[283]을 부리는 때문 물팡돌이엔 허주.(거기 ‘팡’을 ‘물팡’ 놔서 저 ‘물허벅’을 부리는 때문 ‘물팡돌’이라고 하지.)

108016 @ 물도 막 질어낫수과?(물도 많이 길었었습니까?)

108016 #2 게, 우리 허벅으로 다 물 질어다근에 비와낫주만은. 난 처녀 때도 물 질어도 허벅도 경 벌러 먹지 안허고 허난에. 어떤 사름은 비우다근에도 허벅도 벌르고 항아리도 벌르고 경헤도, 난 경헤 보진 안헤연.(그래, 우리 허벅으로 다 물 길어다가 부었지만. 난 처녀 때도 물 길어도 허벅도 그렇게 깨 먹지 않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붓다가 허벅도 깨고 항아리도 깨고 그래도, 난 그래 보진 않았어.)

108016 @ 애기 때부터 물들 질잖아예, 옛날에는예?(애기 때부터 물들 긷잖아요, 옛날에는요?)

108016 #2 으.(으.)

108016 @ 게민 어른덜은 큰 물허벅 허지만은 아이덜은?(그럼 어른들은 큰 ‘물허벅’ 하지만 아이들은?)

108016 #2 아이덜은 ᄒᆞ꼬메기헌 대베기[284].(아이들은 조그마한 ‘대베기’.)

108016 @ 대베기?(‘대베기’?)

108016 #2 으, 물대베기.(으, ‘물대베기’.)

108016 @ 게민 물허벅을 어디에 담앙?(그럼 ‘물허벅’을 어디에 담아서?)

108016 #2 구덕에.(바구니에.)

---

282) ‘팡’은 짐을 안전하게 부려 놓거나 빨래판처럼 쓸 수 있게 된 넓적한 큰 돌을 말한다.
283) ‘물허벅’은 물을 길어 나를 때 쓰는 허벅이다.
284) ‘대베기’는 어린아이들이 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작은 허벅을 말한다.

108016 @ 구덕에.(바구니에.)

108016 #2 바구리, 저 대바구리.(바구니, 저 대바구니.)

108016 @ 대바구리에 그거 담앙 베로 헹.(대바구니에 그거 담아서 바로 해서.)

108016 #2 으, 지엉.(으, 지어서.)

108016 @ 베로 헹 졍 갓던 거예.(바로 해서 져서 갔던 거요.)

108016 #2 베는 그 찝으로 헹 영헌, 꼰 베 헹.(바는 그 짚으로 해서 이러한, 꼰 바 해서.)

108016 @ 예, 꼰 베 헤 가지고. 여기 물 흘치니까 등 젖지 말렌 뭐 바투기도 헤 낫수과, 등에?(예, 꼰 바 해 가지고. 여기 물 흘리니까 등 젖지 말라고 뭐 받치기도 했었습니까, 등에?)

108016 #2 으.(으.)

108016 @ 바투는 걸 뭐렌 골앗수과?(받치는 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108016 #2 바투는 것ᄀᆞ라 무시거렌 헷저만은.(받치는 것보고 무엇이라고 했지만.)

108016 @ 등 젖지 말렌예, 물 흘리카 부덴예?(등 젖지 말라고요, 물 흘릴까 봐요?)

108016 #2 무시거엔 헷저만은 거 잊어불언 거 알아지크라?(무엇이라고 했지만 거 잊어버려서 거 알겠니?)

108016 @ 나중에 튼나지면 골아 줍서.(나중에 생각나면 말해 주세요.)

108016 #2 튼나지 못 허크라.(생각해 내지 못 하겠어.)

108016 @ 하하하. 그 골목이, 올레가 질엇수과, 집들이?(하하하. 그 골목이, '올레'가 길었습니까, 집들이?)

108016 #2 구불텡이[285], 구불텡이.('구불텡이', '구불텡이'.)

108016 @ 구불텡이?('구불텡이'.)

108016 #2 으.(으.)

108016 @ 어?(어?)

108016 #2 물구불텡이엔 헤낫주게.('물구불텡이'라고 했었지.)

108016 @ 물구불텡이?('물구불텡이'?)

108016 #2 으. 영 굽는 디 이디 그거를 영 요만인 ᄃᆞᆯ아메주기게, 영 지영.(으. 이렇게 굽은 데 여기 그거를 이렇게 요만큼 달아매지, 이렇게 지어서.)

108016 @ 예.(예.)

108016 #2 게난 경 골아난.(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었어.)

108016 @ 물구불텡이.('물구불텡이'.)

108016 #2 물구불텡이. 하이구, 야 야 구불텡이도 아이 든 디 물 지엉 그 구불은 준뎌? 이추룩 할망덜 그런 말.('물구불텡이'. 아이구, 야 야 '구불텡이'도 안 단

285) '구불텡이'는 짐을 질 때 등이나 엉덩이를 누르지 않게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받침을 말한다. '물허벅'을 질 때 사용했던 것을 '물구불텡이'라고 했다.

데 물 지어서 그 ‘구불’은 견뎌? 이처럼 할머니들 그런 말.)

108016 @ 기민 그거는 등 베기지 말렌 허는 거 아니?(그럼 그거는 등 배기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

108016 #2 으. 이디, 이디. 젖지도 말렌 허주만은 똑 여기.(으. 여기, 여기. 젖지도 말라고 하지만 꼭 여기.)

108016 @ 아, 똑 여기. 등 베기지 말렌?(아, 꼭 여기. 등 배기지 말라고?)

108016 #2 으.(으.)

108017 @ 음. 우리 집이 들어갈 때 올레 있잖아예, 올레.(음. 우리 집에 들어갈 때 ‘올레’ 있잖아요, ‘올레’.)

108017 #2 으, 올레[286] 진진헌 집덜이 있주게.(으, ‘올레’ 길디긴 집들이 있지.)

108017 @ 예, 올레 진진헌 집. 무사 올레덜은 구짝 안 허고 영 휘어지게 헤신고?(예, ‘올레’ 길디긴 집. 왜 ‘올레’들은 곧게 안 하고 이렇게 휘어지게 했나요?)

108017 #2 아니, 건 올레 휘어진 집도 잇고 구짝헌 집도 잇고 허여. 건, 건 상관엇고.(아니, 건 ‘올레’ 휘어진 집도 있고 곧은 집도 있고 해. 건, 건 상관없고.)

108018 @ 우리 아까 안거리 있고 밧거리 있고 쉐왕이 있었잖아?(우리 아까 안채 있고 바깥채 있고 외양간이 있었잖아?)

108018 #2 으.(으.)

108018 @ 이렇게 세 개 이시민 여기를 쉐왕이렌 안 헹 문간채라고 잇어낫수과, 혹시? 문간채 잇어낫수과?(이렇게 세 개 있으면 여기를 외양간이라고 안 해서 문간채라고 있었습니까, 혹시? 문간채 있었습니까?)

108018 #2 문간이엔 허지 안 허고 이문간[287].(문간이라고 하지 않고 ‘이문간’.)

108018 @ 이문간.(‘이문간’.)

108018 #2 이문간이엔 허여근에게 문 그 대문, 큰 이문 줌그는 디가 잇주기게. 그딘 중그곡 쉐왕간은 요편으로 칸 허여근에.(‘이문간’이라고 해서 문 그 대문, 큰 대문 잠그는 데가 있지. 거긴 잠그고 외양간은 요편으로 칸 해서.)

108018 @ 아.(아.)

108018 #2 건, 올레 이렇게 문을 더꺼야 헐 거 아니게.(건, ‘올레’ 이렇게 문을 덮어야 할 거 아니.)

108018 @ 예.(예.)

108018 #2 경허난.(그러니까.)

108018 @ 문간채라는 건 엇어낫어예. 안거리, 밧거리, 쉐왕이라예. 이렇게 세 개.(‘문간채’라는 건 없었어요. 안채, 바깥채, 외양간이지요. 이렇게 세 개.)

108018 #2 으. 게 문간채엔 헌 거 문간채에 사름을 방 하나 꾸명 살젠 허믄 어디 빌어근에 소왕간 옆이, 경허는 사름도 잇주게. 문간채에 살암세게, 경허멍.(으. 그래 ‘문간채’라고 한 거 ‘문간채’에 사람을 방 하나 꾸며서 살려고 하면 어디 빌려

286) ‘올레’는 큰길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을 말한다.
287) ‘이문간’은 집 입구의 대문 곁에 있는 집채를 말한다.

서 외양간 옆에, 그러는 사람도 있지. '문간채'에 살고 있어, 그러면서.)

108018 @ 아, 경 헹, 소왕 옆이 문간채에 살암덴 경 얘기헤?(아, 그렇게 해서, 외양간 옆에 '문간채'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108018 #2 으.(으.)

108019 @ 쉐왕에 쉐를 키우난, 키우난 촐 눌을 눌 거 아니?(외양간에 소를 키우니까, 키우니까 꼴 가리를 가릴 거 아니?)

108019 #2 으. 촐눌은 마당에 누는 거.(으. 꼴 가리는 마당에 가리는 거.)

108019 @ 마당에예?(마당에요?)

108019 #2 으, 마당에, 마당에라도 흔 편이 눌주기게.(으, 마당에 마당에라도 한 편에 가리지.)

108020 @ 통시 잇엇을 거 아니예?(돼지우리 있었을 거 아니요?)

108020 #2 통시 잇주게.(돼지우리 있지.)

108020 @ 거기에 도새기도 키우고?(거기에 돼지도 키우고?)

108020 #2 으, 도새기 키우고.(으, 돼지 키우고.)

108020 @ 도새기 키우젠 허민 집도 지어 줫수과?(돼지 키우려고 하면 집도 지어 줬습니까?)

108020 #2 집은 돌로 다와근에 요만인. 돌, 돌 다왕게.(집은 돌로 쌓아서 요만큼. 돌, 돌 쌓지.)

108020 @ 으.(으.)

108020 #2 우인 저 무시거, 주젱이나 ᄂᆞ람쥐 헹 요디 영 더껑. 요, 요 칸만인 허여.(위엔 저 무엇, 주저리나 이엉 해서 요기 이렇게 덮어. 요, 요 칸만큼 해.)

108020 @ 거기는 무사 경 더꺼 주는 거라?(거기는 왜 그렇게 덮어 주는 거야?)

108020 #2 도새기 젖지 말렌.(돼지 젖지 말라고.)

108020 @ 젖지 말렌. 비 올 때, 잠 잘 때. 집을 짓어 주는 거라?(젖지 말라고. 비 올 때, 잠 잘 때. 집을 지어 주는 거야?)

108020 #2 집 짓어 주는 거.(집 지어 주는 거.)

108021 @ 아, 게민 통시 가면, 통시 가면 사람들 일 보젠 허면 뭐가?(아, 그럼 돼지우리 가면, 돼지우리 가면 사람들 일 보려고 하면 뭐가?)

108021 #2 들팡돌.(부춘돌.)

108021 @ 들팡돌. 건 나무로 뒈여 있는 건 아니고?(부춘돌. 건 나무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108021 #2 아니, 아니. 돌로, 돌로.(아니, 아니. 돌로, 돌로.)

108021 @ 다 돌로, 돌로 헷던 거. 돌로예.(다 돌로, 돌로 했던 거. 돌로요.)

108021 #2 낭으로 어디 낭 셩 헐 말이라. 요 중간에 낭 발 디디는 영 앚아근에 허는 디 이추룩 소랑헌 거 이디 봉 허는 집도 셔낫어.(나무로 어디 나무 있어서 할 말이야. 요 중간에 나무 발 딛는 이렇게 앉아서 하는 데 이처럼 갸름한 거 여기 놔서 하는 집도 있었어.)

108021 @ 으.(으.)

108021 #2 육지도 강 보난 경헌 디 있더라.(육지도 가서 보니까 그런 데 있더라.)

108020 @ 예. 뒈지안테 것 준덴 헙니까? 도새기 키울 때, 것 주젠 허면 여기 뭘 갓다 놔? 뒈지 것 주는 거?(예. 돼지한테 먹이 준다고 합니까? 돼지 키울 때, 먹이 주려고 하면 여기 뭘 갖다 놔? 돼지 먹이 주는 거?)

108020 #2 아, 그 물팡 옆에.(아, 그 '물팡' 옆에.)

108020 @ 으.(으.)

108020 #2 항상 그 물팡 옆으로 쪼금 가면은 통쉐가 뒈여게.(항상 그 '물팡' 옆으로 조금 가면 돼지우리가 돼.)

108020 @ 으.(으.)

108020 #2 경허믄 그 저 항아리 벌러진 거나 무시거이 도새기, 통시 가는 옆더레 놓아.(그럼 그 저 항아리 깨진 거나 무엇 돼지, 돼지우리 가는 옆으로 놓아.)

108020 @ 으.(으.)

108020 #2 항아리이.(항아리.)

108020 @ 으.(으.)

108020 #2 그거 놔근에 이런 먹단 거 무신 그릇 씻인 물 그레 막 갓다 놓믄 물이 막 오래믄 쉰내 나고 허는 디 영 영 젓으멍 거려 주는 바가지 허여근에.(그거 놔서 이런 먹던 거 무슨 그릇 씻은 물 그리 마구 갖다 놓으면 물이 아주 오래면 쉰내 나고 하는 데 이렇게 이렇게 저으면서 떠 주는 바가지 해서.)

108020 @ 으.(으.)

108020 #2 그디 놧당 거령 주곡. 우이는 무신 채, 보리 지멍 보리 벳긴 거 껍데기 그 채 허영 ᄒᆞ곰 우이 영 갓다 놔근에 영.(거기 놨다가 떠서 주고. 위에는 무슨 채, 보리 찧으면서 보리 벗긴 거 껍데기 그 채 해서 조금 위에 이렇게 갖다 놔서 이렇게.)

108020 @ 통시 안에도, 우리 안에도 먹이 먹는 그릇이 이실 거 아니?(돼지우리 안에도, 우리 안에도 먹이 먹는 그릇이 있을 거 아니?)

108020 #2 돗도고리[288].('돗도고리'.)

108020 @ 돗도고리. 돌로 만든 거예?('돗도고리'. 돌로 만든 거요?)

108020 #2 으.(으.)

108020 @ 돗도고리 놩 거기에 것을 주는 거라예?('돗도고리' 놔서 거기에 주는 거지요?)

108020 #2 으.(으.)

108023 @ 쉐막에 관해서 ᄀᆞᆯ아 줍서. 쉐막, 아까 쉐왕, 쉐왕간?(외양간에 관해서 말해 주세요. 외양간, 아까 외양간, 외양간?)

108023 #2 으, 쉐왕간.(으, 외양간.)

288) '돗도고리'는 돼지 먹이를 주기 위하여 돌을 파서 만든 그릇이다.

108023 @ 쉐왕간은 어떵 허는?(외양간은 어떻게 하는?)

108023 #2 쉐왕간에 쉐를 출을 헤당 막 눌엇다근에 겨울에 그 촐을 빵 주주게. 촐도 주고, 또 조 농사를 허지 안헤게. 조농사를 허면은 조칩을 뚜로 눌어. 조칩도. 뚜로 눌엇당 조찝. 조찝 혼 번 줘 나면은 또 이젠 그, 출 비어당 몰린 거 그거도 주고. 가와리[289]허멍 줘. 경헌디 그 중간에는 써는 그것이 잇어서이. 발로 영 디뎌근에 썰어근에.(외양간에 소를 꼴을 해다가 마구 가렸다가 겨울에 그 꼴을 빼서 주지. 꼴도 주고, 또 조 농사를 하지 않니. 조농사를 하면 조짚을 따로 가려. 조짚도. 따로 가렸다가 조짚. 조짚 한 번 줘 나면 또 이젠 그, 꼴 베어다가 말린 거 그거도 주고. 바꾸면서 줘. 그런데 그 중간에는 써는 그것이 있어서. 발로 이렇게 디뎌서 썰어서.)

108023 @ 작두.(작두.)

108023 #2 으, 작두. 그걸로 썰엉 줘낫주만은 옛날은이 그냥 무끈 거 조칩도 갓다 쉐양간 앞더레 픽 허게 놓믄 거 먹곡.(으, 작두. 그걸로 썰어서 줬었지만 옛날은 그냥 묶은 거 조짚도 갖다가 외양간 앞에 픽 하게 놓으면 거 먹고.)

108023 @ 으.(으.)

108023 #2 또 촐도 그추룩 헹 주고. 또 이제 쉐똥을 그추룩 헹 쌀 거 아니라이.(또 꼴도 그처럼 해서 주고. 또 이제 소똥을 그처럼 해서 주고. 또 이제 소똥을 그처럼 해서 쌀 거 아니야.)

108023 @ 으.(으.)

108023 #2 똥을 싸젠 허믄 똥이영 오줌이영 쉐양간에 막 싸 놓믄 그거 거름을 허주기. 경허믄 그거 조칩 먹어난 거영. 막 거기 찌꾸레기 이추룩 언주와근에 그 똥 싸는 뒤터레 막 놔 줘.(똥을 싸려고 하면 똥이랑 오줌이랑 외양간에 마구 싸 놓으면 그거 거름을 하지. 그럼 그거 조짚 먹었던 거랑. 마구 거기 찌꺼기 이처럼 얹혀서 그 똥 싸는 뒤로 막 놔 줘.)

108023 @ 으.(으.)

108023 #2 경허믄 놔주믄 이젠 막 쉐가 꾸제기멍 그걸 볼랑 소왕이 막 ᄀᆞ득아가믄 이만이 높아갈 거 아니. 게믄 이제 쉐 베껏더레 강 내밀어 뒁 그 쉐 거름을 내영이 이젠 통시에 갓다 놩 더 쎅이젠 갓다 놓는 사름도 잇고.(그럼 놔주면 이젠 마구 소가 뒤섞으면서 그걸 밟아서 외양간이 마구 가득해 가면 이만큼 높아갈 거 아니. 그럼 이제 소 밖으로 가서 내밀어 두고 그 소 거름을 내어서 이젠 돼지우리에 갖다 놔서 더 썩히려고 갔다 놓는 사람도 있고.)

108023 @ 아, 쉐 걸름 낸 걸 또 통시에 또 담아 놔?(아, 소 거름 낸 걸 또 돼지우리에 또 담아 놔?)

108023 #2 으. 경헤연, 경헤영 더 쎅히는 사름도 잇고.(으. 그래서, 그래서 더 썩히는 사람도 있고.)

108023 @ 예.(예.)

289) '가와리'는 일본어 'かわり(代わり)'로 '대신, 교체'의 의미다.

108023 #2 아니면은 뜨로 그냥 마당 흔 구석에 어디이. 그냥 저런 구석에 허여다근에 그거를 허영 놔두면은 썩어게.(아니면 따로 그냥 마당 한 구석에 어디. 그냥 저런 구석에 해다가 그거를 해서 놔두면 썩어.)

108023 @ 음.(음.)

108023 #2 경허믄 밧디 이젠 보리 갈게 뒈 가믄, 시월덜 음력 시월덜, 이제 새덜 시월 아니라. 시월덜 나믄 보리 갈젠 허믄 그 거름을 이제 밧디 가져단 두망두망 놔근에이 헷당 보리 갈젠 허믄 그거 뿌려근에 경헨 씨 우터레 뿌려 불민.(그러면 밭에 이젠 보리 갈게 돼 가면, 시월 음력 시월, 이제 새달 시월 아니야. 시월 되면 보리 갈려고 하면 그 거름을 이제 밭에 가져다가 듬성듬성 놔서 했다가 보리 갈려고 하면 그거 뿌려서 그래서 씨 위로 뿌려 버리면.)

108023 @ 게민 거름은 몇 번 내는 것과? 쉐거름 몇 번 내는 것과, 일 년에?(그럼 거름은 몇 번 내는 겁니까? 쇠두엄 몇 번 내는 겁니까, 일 년에?)

108023 #2 쉐거름 일 년에 몇 번 안 내여게. 그 여름은 쉐 고지 올려근에 허곡 허는 따문. 겨울에 흔, 겨울 내낭 먹어난 거 허젠 허믄 흔 두어 번.(쇠두엄 일 년에 몇 번 안 내. 그 여름은 소 숲 올려서 하고 하는 때문. 겨울에 한, 겨울 내내 먹었던 거 하려고 하면 한 두어 번.)

108023 @ 도새기거름은?(돼지거름은?)

108023 #2 도새기거름도 마찬가지라. 도새기거름도. 두 번 아니믄 흔 번 내여근에 꺼내다근에 밧디 갓다 놔.(돼지거름도 마찬가지야. 돼지거름도. 두 번 아니면 한 번 내어서 꺼내다가 밭에 갖다 놔.)

108022 @ 집안에는 곡석 보관허젠 고팡이 잇엇신디, 집 밖에 헛간이란 것도 따로 잇엇수과, 뭐 농사 기구덜 보관허는?(집안에는 곡식 보관하려고 고방이 있었는데, 집 밖에 헛간이란 것도 따로 있었습니까, 뭐 농사 기구들 보관하는?)

108022 #2 헛간 엇어.(헛간 없어.)

108022 @ 그거 다 쉐왕에나 보관헷던 거?(그거 다 외양간에나 보관했던 거?)

108022 #2 쉐왕 거튼 디 놓곡, 거 참 워낙 잘 살아근에 허는 집이나 헛간 잇엇주기게, 엇엇주게.(외양간 같은 데 놓고, 거 참 워낙 잘 살아서 하는 집이나 헛간 있었지, 없었지.)

108024 @ 장독대는 어떵 헙니까?(장독대는 어떻게 합니까?)

108024 #2 장독대?(장독대?)

108024 @ 으.(으.)

108024 #2 장독대에는 이제 그 저 이런 맷돌 잇어, ᄀᆞ레?(장독대에는 이제 그 저 이런 맷돌 있어, 맷돌?)

108024 @ 예, ᄀᆞ레.(예, 맷돌.)

108024 #2 ᄀᆞ레거추룩 뒌 거라도 아래 거. 이 우에 맷돌 말고 아래 거. 동글랑헌 거.(맷돌처럼 된 거라도 아래 거. 이 위에 맷돌 말고 아래 거. 동그란 거.)

108024 @ 아래 거를 아래착이렌 ᄀᆞᆯ을 거?(아래 거를 아래짝이라고 말할 거?)

108024 #2 ᄀᆞ레 알착.(맷돌 아래짝.)

108024 @ ᄀᆞ레 알착, 으.(맷돌 아래짝.)

108024 #2 그거 허여근에 장독대에 이제 자갈 예쁜 걸로 이런 딘 영 놩 세멘[290]도 그땐 엇이난 아니 허여근에 자갈 꼴아근에 곱닥허게 허곡. 그 ᄀᆞ렛돌 아래 걸 허여근에 간장 놓는 디 잇고 뒌장 담아 놓는 항이 잇고 경허난. 그거 두 개는 그거 그추룩 헹 놘게.(그거 해서 장독대에 이제 자갈 예쁜 걸로 이런 덴 이렇게 놔서 시멘트도 그땐 없으니까 안 해서 자갈 깔아서 곱게 하고. 그 맷돌 아래 걸 해서 간장 놓는 데 있고 된장 담아 놓는 항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 두 개는 그거 그처럼 해서 놨어.)

108024 @ 으, 뒌장 항 밑이랑 간장 항 밑에는 그거 알착이 들어가 있는 거라?(으, 된장 항 밑이랑 간장 항 밑에는 그거 아래짝이 들어가 있는 거야?)

108024 #2 으.(으.)

108024 @ 다른 데는 자갈 헤영.(다른 데는 자갈 해서.)

108024 #2 으, 자갈.(으, 자갈.)

108024 @ 장독대렌 헙니까, 여기서도?(장독대라고 합니까, 여기서도?)

108024 #2 장항, 장항.(장항, 장항.)

108024 @ 장항예. 그 옛날에는 물 엇이난 물 질레도 뎅겨낫주만은 집 앞이 큰 낭 이시민 큰 낭 아래 뭘 돌아멩 물이 그 항에 들어가게 안 헤낫수과?(장항요. 그 옛날에는 물 없으니까 물 길러도 다녔지만 집 앞에 큰 나무 있으면 큰 나무 아래 뭘 달아매서 물이 그 항에 들어가게 안 했었습니까?)

108024 #2 아니.(아니.)

108025 @ 춤 안 메낫수과? 춤 안 메난?('춤' 안 맸었습니까, '춤' 안 맸었어?)

108025 #2 아니.(아니.)

108025 @ 나무에서 물 떨어지는 거 받는 거?(나무에서 물 떨어지는 거 받는 거?)

108025 #2 아.(아.)

108025 @ 예.(예.)

108025 #2 그게 아니고 그 저 집 풍채라 허든지이.(그게 아니고 그 저 집 차양이라 하든지.)

108025 @ 예.(예.)

108025 #2 그런 거 허면은 물을 그냥 흔쪽을 지울어지면은 잘잘잘잘 물이 알러레 내리주게. 경허믄 그런 디 지신물 받는 거. 저 항아리나 무신 거 그디 놩 받앙.(그런 거 하면 물을 그냥 한쪽을 기울어지면 잘잘잘잘 물이 아래로 내리지. 그러면 그런 데 낙숫물 받는 거. 저 항아리나 무슨 거 거기 놔서 받아서.)

108025 @ 아.(아.)

108025 #2 겨믄 그 물은 먹지 못 허연게. 뿔레나 뿔고.(그럼 그 물은 먹지 못

290) '세멘'은 일본어 'セメン'으로 시멘트를 말한다.

해서. 빨래나 빨고.)

108025 @ 지신물 받앙?(낙숫물 받아서?)

108025 #2 지신물 받앙.(낙숫물 받아서.)

108025 @ 나무에 물 받았던 건 아니고예?(나무에 물 받았던 건 아니고요?)

108025 #2 나무에 물 받진 안허연.(나무에 물 받진 않았어.)

108025 @ 안 헤서예.(안 했어요.)

초가지붕 이기

108026 @ 우리 여기 초집이난 초집이난 지붕을 갈아줘야 헐 거 아니과예?(우리 여기 초가집이니까 초가집이니까 지붕을 갈아줘야 할 거 아닙니까?)

108026 #2 으.(으.)

108026 @ 지붕 일젠 허면 그거는 멧 번? 일 년에 한 번, 이 년에 한 번?(지붕 이려고 하면 그거는 몇 번? 일 년에 한 번, 이 년에 한 번?)

108026 #2 이 년에 흔 번.(이 년에 한 번.)

108026 @ 아, 이 년에 흔 번씩.(아, 이 년에 한 번씩.)

108026 #2 이 년에 흔 번 가오리[291]헹.(이 년에 한 번 교체해서.)

108026 @ 가오리헹.(교체해서.)

108026 #2 금년에 일면은 내년 아니 일엉 또 다음에사 일곡 경허영.(금년에 이면 내년 안 이고 또 다음에야 이고 그래서.)

108027 @ 음, 이 년에 한 번. 게민 초집 일젠 허민 뭐를 준비헤야 뒐 것과? 올해 지붕 일어야 뒐 거다 허면은.(음, 이 년에 한 번. 그럼 초가집 이려고 하면 뭐를 준비해야 될 겁니까? 올해 지붕 이어야 될 거다 하면.)

108027 #2 게니까 각단[292]게. 요만씩 헌 새 쪽은 거.(게니까 '각단'. 요만큼씩 한 새 짧은 거.)

108027 @ 예.(예.)

108027 #2 고지 강 그거 비여당.(숲에 가서 그거 베어다가.)

108027 @ 비여당.(베어다가.)

108027 #2 그거 영 줄 놔근에, 이젠 또 새.(그거 이렇게 줄 놔서, 이젠 또 띠.)

108027 @ 새.(띠.)

108027 #2 겨난 ᄒᆞ꼼 밧 있는 사름덜은 새를 저 거세기 농서허지 안헤 가민 새가, 새 뿔리 하나씩 영 놩 놔두민 새가 들어.(그러니까 조금 밭 있는 사람들은 띠를 저 거시기 농사하지 않아 가면 띠가, 띠 뿌리 하나씩 이렇게 놔서 놔두면 띠가 들어.)

108027 @ 예.(예.)

108027 #2 경허믄 새가이 막 그냥 체얌 헐 때는 이파리가 넙싹넙싹헤영 막 좋

291) '가오리'는 일본어 'かわり'에서 온 말로 '교대, 교체'의 의미다.

292) '각단'은 굵은 줄을 드리는 데 쓰는 짧은 띠를 말한다.

주게. 게믄 얼마 아니 들주게. 경허고 또 새를 좋지 안 헌 거는 만이 들고, 일젠 허믄.(그러면 띠가 아주 그냥 처음 할 때는 잎이 넓적넓적해서 아주 좋아. 그럼 얼마 안 들지. 그리고 또 띠를 좋지 않은 거는 많이 들고, 이려고 하면.)

108027 @ 으.(으.)

108027 #2 경허믄 우리 삼칸집이라도 우리 집은 크난에, 혼 서른 뭇.(그러면 우리 삼간집이라도 우리 집은 크니까, 한 서른 뭇.)

108028 @ 음, 새 서른 뭇 들어나서. 거민 새랑 각단이랑 헹 완. 각단은 줄 짜젠 각단은 헤 온 거잖아예?(음, 띠 서른 뭇 들었었어. 그럼 띠랑 '각단'이랑 해서 왔어. '각단'은 줄 짜려고 '각단'은 해 온 거잖아요?)

108028 #2 줄 놓젠.(줄 놓으려고.)

108028 @ 예, 줄 놓젠 헌 거잖아예. 집줄 놓젠. 그럼 집줄[293] 만들기 헐 때 진 줄도 잇고 쯔른 줄.(예, 줄 놓으려고 한 거잖아요. '집줄' 놓으려고. 그럼 '집줄' 만들기 할 때 긴 줄도 있고 짧은 줄.)

108028 #2 진 줄 잇주게. 진 줄은 혼, 혼 스물다섯 줄쯤 뒈면은 쯔른 줄은 혼 ᄉᆞ십 개 건즘 가까와. 경헤야 뒈여.(긴 줄 있지. 긴 줄은 한, 한 스물다섯 줄쯤 되면 짧은 줄은 한 사십 개 거의 가까워. 그래야 돼.)

108028 @ 아.(아.)

108028 #2 진 줄 이렇게 메영 요만큼씩 요만큼씩 헤여근에 자꾸 메야 뒈니까 ᄌᆞ른 줄.(긴 줄 이렇게 매서 요만큼씩 요만큼씩 해서 자꾸 매야 되니까 짧은 줄.)

108029 @ 아, ᄌᆞ른 줄은 경 뭴 거. 경 집줄 만들 때 썼던 게 아까 도구가?(아, 짧은 줄은 그렇게 될 거. 그렇게 '집줄' 만들 때 썼던 게 아까 도구가?)

108029 #2 호롱이[294], 호롱이.('호롱이', '호롱이'.)

108029 @ 호롱이?('호롱이'?)

108029 #2 줄 놓는 호롱이.(줄 놓는 '호롱이'.)

108029 @ 호롱이. 그 다음 뒤치기예?('호롱이'. 그 다음 '뒤치기'요?)

108029 #2 으.(으.)

108030 @ 집줄 놓젠 허면 이 처마 밑에 긴 나무를 대잖아예. 집줄 메는 거? 여기 밑에 멩 절로 넘기젠 허면, 긴 줄 대나무나?('집줄' 놓으려고 하면 이 처마 밑에 긴 나무를 대잖아요. '집줄' 매는 거? 여기 밑에 매서 저기로 넘기려고 하면, 긴 줄 대나무나?)

108030 #2 아니 그거 아니고. 줄을 진 줄 ᄌᆞ른 줄 허여근에 다 이거를 어울리멍 그거를 허영 허면은 ᄌᆞ른 줄은 ᄌᆞ른 줄 대로 영 하나썩 사리주게, 그거를.(아니 그거 아니고. 줄을 긴 줄 짧은 줄 해서 다 이거를 어울리면서 그거를 해서 하면은 짧은 줄은 짧은 줄 대로 이렇게 하나씩 사리지, 그거를.)

108030 @ 예, 예.(예, 예.)

293) '집줄'은 초가지붕을 이은 다음 바둑판처럼 얽어매는 줄을 말한다.
294) '호롱이'는 '집줄', 참바 따위를 틀 때 사용하는 도구다. '호렝이'라고도 한다.

108030 #2 동글락허게 하나썩 사렁.(동그랗게 하나씩 사려서.)

108030 @ 예.(예.)

108030 #2 겨믄 즈른 줄 진 줄 뚜로뚜로 헷다근에 이제 진 줄 멧 개 메여 뒁 또 즈른 줄 메여 놩 뚜로 진 줄 허주게. 흔 뻔에 다 헹 허는 거 아니.(그럼 짧은 줄 긴 줄 따로따로 했다가 이제 긴 줄 몇 개 매어 둬서 또 짧은 줄 매어 놔서 따로 긴 줄 하지. 한 번에 다 해서 하는 거 아니.)

108030 @ 으.(으.)

108030 #2 진 줄은 가텡이로 이추룩 헹 메영 저 가에, 가에는 그추룩 헹 메면은 또 이제 멧 개 메영 쯔른 줄로 메여 놩 뚜로 이제 또 진 줄 허고 경허여.(긴 줄은 가장자리로 이처럼 해서 매서 저 가에, 가에는 그처럼 해서 매면 또 이제 몇 개 매서 짧은 줄로 매서 놔서 따로 이제 또 긴 줄 하고 그래.)

108030 @ 게난 집 가퉁이에 줄 멜 때 영 메는 대가 잇지 안 허과?(그러니까 집 가장자리에 줄 맬 때 이렇게 매는 대가 있지 않습니까?)

108030 #2 거왕.(평고대.)

108030 @ 거왕. 거왕대.(평고대, 평고대.)

108030 #2 거왕대는 그 서리에 절로 이꺼지 줄 메는 디 쭉 허게 집 거왕을 새끼로 헹 딱 허게 요만큼씩 다 무꺼.(평고대는 그 서까래에 절로 이까지 줄 매는 데 쭉 하게 집 평고대를 새끼로 해서 딱 하게 요만큼씩 다 묶어.)

108030 @ 무끄는 거, 무끄는 거.(묶는 거, 묵는 거.)

108030 #2 무꺼근에 이제 줄, 절로도 줄 심고 일로도 심엉 둥겨 허믄 둥기믄 일로도 메고 절로도 메고.(묶어서 이제 줄, 절로도 줄 잡고 일로도 잡아서 당겨 하면 당기면 일로도 매고 절로도 매고.)

108030 @ 예, 그 거왕은 무슨 나무로 헙니까?(예, 그 평고대는 무슨 나무로 합니까?)

108030 #2 거왕대는 저 고내봉[295]에 가믄 아카시나무 구짝헌 거 시믄 그런 거.(평고대는 저 고내봉에 가면 아카시나무 곧은 거 있으면 그런 거.)

108030 @ 아카시나무. 게믄 이 동네 대나무는 안 헤낫수과?(아카시나무. 그럼 이 동네 대나무는 안 했었습니까?)

108030 #2 거왕대로 대나무도 허는 사름은 허주게. 걸로 허믄 멧 년 가주게. 그거는.(평고대로 대나무도 하는 사람은 하지. 걸로 하면 몇 년 가지. 그거는.)

108030 @ 대나무가 질겨?(대나무가 질겨?)

108030 #2 으, 대나무가 질기주기. 왕대, 왕대.(으, 대나무가 질기지. 왕대, 왕대.)

108032 @ 왕대, 예. 집줄 놓다 보민 줄이 좀 남기도 헤여예. 좀 남지 안헙니까?(왕대, 예. '집줄' 놓다 보면 줄이 좀 남기도 하지요. 좀 남지 않습니까?)

108032 #2 줄, 뭣을 남아, 줄을?(줄, 뭣을 남아, 줄을?)

295) '고내봉'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108032 @ 예, 줄. 집줄 놓다 남으면 걸로 뭘 만들고 허진 안혜?(예, 줄. '집줄' 놓다 남으면 걸로 뭘 만들고 하진 않아?)

108032 #2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8032 @ 아니.(아니.)

108032 #2 즈른 줄 거튼 거 첨 집 허영 허다근에 일당 남으면은 그 줄을 놧다근에 도새기집 우이 무시거 더꺼이라도 메여 주는 사름은 메여 주고 아니면은 또 뭐 밧꼇디 무시거 눌 때에 눌, 무신 저 촐눌이나 쪼그만큼 허게 눌젠 허면은 그 줄 셔야 뒈주게. 그거 허영.(짧은 줄 같은 거 첨 집 해서 해다가 이다가 남으면 그 줄을 놨다가 돼지집 위에 무엇 덮어서라도 매 주는 사람은 매 주고 아니면 또 뭐 밭에 무엇 가리 갈릴 때에 가리, 무슨 저 꼴가리나 조그만 하게 가리려고 그 줄 있어야 되지. 그거 해서.)

108032 @ 으. 부엌에 앚앙 허는 방석 거튼 것도 만들어나지 안헨?(으, 부엌에 앉아서 하는 방석 같은 것도 만들었지 않아?)

108032 #2 방석도 줄아근에, 할망덜 하르방덜 줄앙.(방석도 결어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결어서.)

108032 @ 할망덜, 하르방덜 줄앙 쓰고예?(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결어서 쓰고요?)

108032 #2 으.(으.)

108032 @ 방석 줄앙도 쓰고.(방석 결어서도 쓰고.)

9. 신앙

109001 #4 거 집이게. 집이 테왓젠 헤근에 어디 강 들으민, 영 심방 빌어다근에 영 봐리민 굿허는 식이라.(거 집에. 집에 태웠다고 해서 어디 가서 들으면, 이렇게 무당 빌려다가 이렇게 보면 굿하는 식이야.)

109001 @ 아. 굿 허는 식.(아. 굿 하는 식.)

109001 #4 그거 허는 집이 막 만아낫어.(그거 하는 집이 아주 많았었어.)

109001 @ 아, 기과?(아, 그렇습니까?)

109001 #3 그거 허는 집은 이 중간까지 허단 이제는 절간이로 만이 돌아서마씨.(그거 하는 집은 이 중간까지 하다가 이제는 절간으로 많이 돌았어요.)

109001 @ 예.(예.)

109001 #3 절간 만이 모셔 가서마씨.(절간 많이 모셔 갔어요.)

109001 #4 영 모셔. 벡장 가튼 거라고 영 놔근에 제사 지내젠 허믄.(이렇게 모셔. 벽장 같은 거라고 이렇게 놔서 제사 지내려고 하면.)

109001 @ 벡장에 그런 거 모셔난마씨? 게민 가신이렌 헹 영 모셔낫수과, 가신. 집에 있는 신이렌 헤근에.(벽장에 그런 거 모셔났어요? 그럼 가신이라고 해서 이렇

게 모셨습니까, 가신. 집에 있는 신이라고 해서.)

109001 #4 그것이 그거지.(그것이 그거지.)

109001 #3 거는 칠성[296], 칠성게.(거는 '칠성', '칠성'.)

109001 @ 칠성? 그럼 아까 토신도 모셔나고.('칠성'? 그럼 아까 토신도 모셨었고.)

109001 #4 그 토신제는 한 멧 년에 흔 번 허는 거고.(그 토신제는 한 몇 년에 한 번 하는 거고.)

109001 @ 예, 예.(예, 예.)

109001 #3 토신이엔 헌 것은.(토신이라고 한 것은.)

109001 @ 예.(예.)

109001 #3 옛날은예 집을 짓게 뒈면은 토신에 와서 토신을 지냅니다. 토신제를 한 번 지내서 집을 짓읍니다.(옛날은 집을 짓게 되면 토신이 와서 토신을 지냅니다. 토신제를 한 번 지내서 집을 짓습니다.)

109001 @ 예, 예.(예, 예.)

109001 #3 집을 지으면은 한 이, 늘어져도 삼 년 내로 그 집이 토신제 날 받아 가지고 사는 사름이 돗이라도 한 마리 그 전이 잡아 가지고 각각이 오리지 안헌 온 채로 올려 가지고 토신젤 흔 번 지내마씨.(집을 지으면 한 이, 늘어져도 삼 년 내로 그 집이 토신제 날 받아 가기고 사는 사람이 돼지라도 한 마리 그 전에 잡아 가지고 각각이 오리지 않고 통째로 올려 가지고 토신젤 한 번 지내요.)

109001 @ 아.(아.)

109001 #3 그 풍습이 쭉 흘러왓수다. 흘러오다가 이 세대가 바뀌져 가니까 뭐 허고 그 부락의 향제가 우리 부락에는 뭐 허고 선조덜이 이 년에 흔 번 허는 것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그 풍습이 쭉 흘러왔습니다. 흘러오다가 이 세대가 바뀌어 가니가 뭐 하고 그 부락의 향제가, 우리 부락에는 뭐 하고 선조들이 이 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109001 @ 아. 건 마을로 허는 거예?(아, 건 마을로 하는 거요?)

109001 #3 예, 마을로 허는 거.(예, 마을로 하는 거.)

109001 @ 게민, 토신제는 집에서 허는 거?(그럼, 토신제는 집에서 하는 거?)

109001 #3 개인.(개인.)

109001 @ 개인이 허는 거?(개인이 하는 거?)

109001 #3 개인이 허는 거. 그것은 원 논리가 어떻게 뒛는고 허니까, 이 집을 짓젠 허믄 그 땅 터신에게 나가 여기에 집을 지으쿠다. 영 고허는 거라예.(개인이 하는 거. 그것은 원 논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 땅 터신에게 내가 여기에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고하는 거지요.)

109001 @ 예, 예.(예, 예.)

109001 #3 고허는데 그 집을 완전히 지어서 끝마치면은 삼 년 내에.(고사는데

296) '칠성'은 부를 관장하는 신으로, 뱀 신을 말한다. '안칠성'과 '밧칠성'이 있다.

그 집을 완전히 지어서 끝마치면 삼 년 내에.)

109001 @ 예.(예.)

109001 #3 처음에는 이디, 이 터에 집을 지으쿠다. 토신에게 영 고허는 거라예.(처음에는 여기, 이 터에 집을 지겠습니다. 토신에게 이렇게 고하는 거지요.)

109001 @ 고허는 거고.(고하는 거고.)

109001 #3 고허는 거고 삼 년 내로 집을 다 완성혜영 정착이 뒌 다음은 에, 희성이라도 허여 가지고 고허는 것은 집을 지을 때 고허니까 이 터신은 아, 집을 고헐 때 집을 짓는 거니까 밥을 줫는데 이제 집을 다 짓어서 정착이 뒈니까 이제 점심 줄 때가 뒛는데 안 주는구나.(고하는 거고 삼 년 내로 집을 다 완성해서 정착이 된 다음은 에, 희생이라도 해 가지고 고하는 것은 집을 지을 때 고하니까 이 터신은 아, 집을 고할 때 집을 짓는 거니까 밥을 줬는데 이제 집을 다 지어서 정착이 되니까 이제 점심 줄 때가 됐는데 안 주는구나.)

109001 @ 아.(아.)

109001 #3 원칙은 터신에게 처음에 고허는 건 여기 집을 지으쿠다 헌 거고. 다음에 혼 삼년 내로 제를 지내는 건 덕택에 잘 헷습니다. 마냥 자십서 헹 한 번 메허는 거.(원칙은 터신에게 처음에 고하는 건 여기 집을 짓겠습니다 한 거고. 다음에 한 삼년 내로 제를 지내는 건 덕택에 잘 했습니다. 마냥 드세요 해서 한 번 메하는 거.)

109001 @ 예.(예.)

109001 #3 그것은 자기 생에,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식덜이든, 이 집이 부귀든지 이런 것을 만이 허는데 그것이 중간꺼지도 혜 오다가 개인적으로 허는 토신제는 집 지을 때 허는 것은 이제도 백프로 허고 잇수다. 열 집이민 열 집.(그것은 자기 생에,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식들이든 이 집에 부귀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중간까지도 해 오다가 개인적으로 하는 토신제는 집 지을 때 하는 것은 이제도 백퍼센트 하고 있습니다. 열 집이면 열 집.)

109001 @ 어쨌든 두 번 헌다는 얘기잖아예?(어쨌든 두 번 한다는 얘기잖아요?)

109001 #3 그렇지.(그렇지.)

109001 @ 집 짓기 전에 한 번 올리고, 집 지은 다음에.(집 짓기 전에 한 번 올리고, 집 지은 다음에.)

109001 #3 건디 처음에 올리는 것은 이제도 열 집이면 열 집 다 허는데.(그런데 처음에 올리는 것은 이제도 열 집이면 열 집 다 하는데.)

109001 @ 허는데.(하는데.)

109001 #3 집 지어 놩 허는 것은 열 집이서 이제 한 집 허나마나 헴수다.(집 지어 놔서 하는 것은 열 집에서 이제 한 집 하나마나 하고 있습니다.)

109001 #4 이젠 안 헴주. 엿날엔 헤도.(이젠 안 하지. 옛날엔 해도.)

109001 @ 예, 예.(예, 예.)

109001 #3 게도 향제는 선조덜이, 나가 향제에 좀 다녓수다. 이제도 혜 왓는데.

그 선조덜이 죽 우리 부락엔.(그래도 향제는 선조들이, 내가 향제에 좀 다녔습니다. 이제도 해 왔는데. 그 선조들이 쭉 우리 부락엔.)

109001 @ 고내 향을 얘기하는 거지예?(고내 향을 얘기하는 거지요?)

109001 #3 예, 예. 애월 거튼 디 매년 허고. 지금도 매년 허고, 우리 선조덜은 고내 부락에 이 년에 흔 번 헤왓어마씨.(예, 예. 애월 같은 데 매년 하고. 지금도 매년 하고, 우리 선조들은 고내 부락에 이 년에 한 번 해 왔어요.)

109001 @ 예, 예.(예, 예.)

109001 #3 게난 이 년에 흔 번은 지금도 쭉 헴수다.(그러니까 이 년에 한 번은 지금도 쭉 하고 있습니다.)

109001 @ 음.(음.)

109001 #3 경허게 뒈믄 거기선 희성이 두 마리 들어가고예. 또 제관이 읏덥 사름 들어갑니다. 읏덥 사름 들어가고, 낼 저녁이다 허면은 오널 아칙이 집이서 목욕허고 오널 아칙이 집이서 먹엉 하룻밤 잘 준비헤 가지고 강 이 저냑 장 내일은 준비허영 젤 저냑 열두 시 땡 치면은 그 마을제 지내 가지고 모레 아침은 한 다섯 시 뒈믄 나와 불어마씨.(그러게 되면 거기선 희생이 두 마리 들어가고요. 또 제관이 여덟 사람 들어갑니다. 여덟 사람 들어가고, 낼 저녁이다 하면 오늘 아침에 집에서 목욕하고 오늘 아침에 집에서 먹고 하룻밤 잘 준비해 가지고 가서 이 저녁 자서 내일은 준비해서 젤 저녁 열두 시 땡 치면 그 마을제 지내 가지고 모레 아침은 한 다섯 시 되면 나와 버려요.)

109001 @ 음.(음.)

109001 #3 그건 금년도 헷수다. 매년, 이 년에 흔 번은 헙니다.(그건 금년도 했습니다. 매년 이 년에 한 번은 합니다.)

109002 @ 그럼 그 성주라는 것도 헙니까? 성주풀이 헌다고 허잖아요?(그럼 그 성주라는 것도 합니까? 성주풀이 것도 합니까? 성주풀이 한다고 하잖아요?)

109002 #3 예, 알암수다. 집 지어 가지고 완성되면 성주풀이, 거세기 허는 거. 집도 성주풀이 열에 아홉 집은 헴수다.(예, 알겠습니다. 집 지어 가지고 완성되면 성주풀이. 거시기 하는 거. 집도 성주풀이 열에 아홉 집은 하고 있습니다.)

109002 @ 게난 토신제 지내고 성주풀이도 허고.(그러니까 토신제 지내고 성주풀이도 하고.)

109002 #3 예, 예.(예, 예.)

109002 @ 그럼 토신제 지내는 것부터 먼저 물어보쿠다. 거 허젠 허민 음식 ᄀᆞ튼 건 뭐 준비헙니까?(그럼 토신제 지내는 것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거 하려고 하면 음식 같은 건 뭐 준비합니까?)

109002 #3 겨난 그 개인 집이 허는 것은.(그러니까 그 개인 집에 하는 것은.)

109002 @ 예.(예.)

109002 #3 원 선조덜이 그 허여온 그 예를 지킨다 허면은.(원 선조들이 그 해 온 그 예를 지킨다 하면.)

109002 @ 예.(예.)
109002 #3 조 메 두 기, 흰 메 두 기.(조 메 두 기, 흰 메 두 기)
109002 @ 예.(예.)
109002 #3 또 조 시리 두 개양.(또 조 시루 두 개요.)
109002 @ 예.(예.)
109002 #3 조 시리가 두 개, 좁썰로 만든 떡 두 개, 흰 시리가 두 개. 또 뒈지고기, 뒈지머리 하나. 경 안허믄 못 허게 뒈면은 소고기 약.(조 시루가 두 개, 좁쌀로 만든 떡 두 개, 흰 시루가 두 개. 또 돼지고기, 돼지머리 하나.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게 되면 소고기 약.)
109002 @ 아, 뒈지머리.(아, 돼지머리.)
109002 #3 뒈지머리 허는 사름은 막 뭐 헌 사름.(돼지머리 하는 사람은 아주 뭐한 사람.)
109002 #4 경헤도게.(그래도.)
109002 #3 뒈지 못 허면은 전체적으로 못 허면은 소고기 흔 서 근 내지 닷 근 사다근에 허는 것이 최고우다.(돼지 못 하면 전체적으로 못 하면 소고기 한 서 근 내지 닷 근 사다가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109002 @ 으.(으.)
109002 #3 것이 토신, 토신에는 뒈지머리, 버금은 쉐고기우다. 생으로양.(것이 토신, 토신에는 돼지머리, 버금은 쇠고기입니다. 생으로요.)
109002 @ 예.(예.)
109002 #3 그 아래가 뒈지머리.(그 아래가 돼지머리.)
109002 @ 뒈지머리.(돼지머리.)
109002 #3 그 아래가 닭.(그 아래가 닭.)
109002 #4 아니 닭은.(아니 닭은.)
109002 #3 이렇게 순서가 뒈엿는데 겨믄 그 웨로는 조기 한 ᄆᆞ리, 명태, 또 오과, 밤 대추 비자 유지 사과 배 영 혜영 허곡. 또 지전 같은 건 그것에 다 따랑 허게 뒈고.(이렇게 순서가 되었는데 그럼 그 외로는 조기 한 마리, 명태, 또 오과, 밤 대추 비자 유자 사과 배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지전 같은 건 그것에 다 따라서 하게 되고.)
109002 @ 음.(음.)
109002 #3 그런 집이는 지금은 열에 한 집이고. 집을 짓젠 허민 토신 허는 건 열에 열 집 다 헴수다. 또 성주풀이도 열에 열 집 다 허고.(그런 집에는 지금은 열에 한 집이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토신 하는 건 열에 열 집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성주풀이도 열에 열 집 다 하고.)
109002 @ 으, 그럼 그런 때 ᄎᆞ리는 음식은 다 ᄀᆞ타마씸.(으. 그럼 그때 차리는 음식은 다 같아요.)
109002 #3 같아.(같아.)

109002 #4 가트게 헤야주.(같게 해야지.)

109002 @ 성주헐 때도 경허고.(성주할 때도 그렇게.)

109002 #3 성주는, 집 지을 때는 열에 열 집 다 토신에 고허는데, 집 지으쿠다 헨 고허는 거고. 성주는 열에 일곱 집 헴서.(성주는, 집 지을 때는 열에 열 집 다 토신에 고하는데, 집 짓겠습니다 해서 고하는 거고. 성주는 열에 일곱 집 하고 있어.)

109002 @ 음.(음.)

109002 #3 세 집은 형편이 뭐 헌 집은 에이 그대로 살당, 안 허여. 근데 원칙은 살아가는 데는.(세 집은 형편이 뭐 한 집은 에이 그대로 살다가, 안 해. 근데 원칙은 살아가는 데는.)

109002 #4 허여야.(해야.)

109002 @ 어쨌든 경 지내는 사름덜은 집안에 신이 잇덴, 가신이 잇덴 믿는 거잖아예?(어쨌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은 집안에 신이 있다고, 가신이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109002 #3 경허믄 그것도 허고 토신에게, 나 교육도 받앗수다. 그런 면에, 집 지을 때는 여기 땅에 집을 지으쿠다 단지 고허니까 집을 지엉 혼 번 지내는 것은 아이, 이 토신이 집 지엄젠 헌 게 점심 주카 부덴 허난 안 주네. 막 기다리는 입장이라마씀. 게난 그건 으당 사름이 자기 집이다 허면은 한 번 헤 줘야. 으당이 헤 줘야. 그렇게 헤서 지내는 것이 성주풀이, 토신 집 짓젠 허는 건 대부분이 다 허고 토신제 삼 년 내로 허는 열에 두 집쯤도 허나마나 헴수다.(그러면 그것도 하고 토신에게, 나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 집 지을 때는 여기 땅에 집을 짓겠습니다 단지 고하니까 집을 지어서 한 번 지내는 것은 아니, 이 토신이 집 짓는다고 한 게 점심 줄까 봐 하니까 안 주네. 아주 기다리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의당히 사람이 자기 집이 다 하면 한 번 해 줘야. 의당히 해 줘야. 그렇게 해서 지내는 것이 성주풀이, 토신 집 지으려고 하는 건 대부분이 다 하고 토신제 삼 년 내로 하는 열에 두 집쯤도 하나마나 합니다.)

109002 @ 음.(음.)

109002 #3 또 향제는 이 년에 혼 번은 꼬박꼬박 허고.(또 향제는 이 년에 한 번은 꼬박꼬박 하고.)

109003 @ 문전에 대해서 골아주십서. 문전.(문전에 대해서 말해 주세요. 문전.)

109003 #4 문전.(문전.)

109003 #3 문전에는게 집이 법당이나 개인 주택이나 마찬가지우다. 신이 없지 않우과?('문전'에는 집에 법당이나 개인 주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없지 않습니까?)

109003 @ 예.(예.)

109003 #3 상에 모셔서 우에 허믄 신이 거기 나타나게 뒌 거라. 절대.(상에 모셔서 위에 하면 신이 거기 나타나게 된 거야. 절대.)

109003 #4 조왕허고 문전.(조왕하고 문전.)

109003 @ 음.(음.)

109003 #3 예를 들어 뭐 아무것도 엇인 디 상 출려 놩 절허지 안헙니까?(예를 들어 뭐 아무것도 없는 데 상 차려 놔서 절하지 않습니까?)

109003 @ 음.(음.)

109003 #3 그때가 뒈면은 그 신이 잡수어나니까 오는 거라.(그때가 되면 그 신이 잡수었었으니까 오는 거야.)

109003 @ 음.(음.)

109003 #3 어느 집이 오늘은 가민 먹겠다 헨 오는 거. 절에도 마찬가지우다.(어느 집이 오늘은 가면 먹겠다 해서 오는 거. 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9003 @ 음.(음.)

109003 #3 게난 어디 갈 때는 웨국이라도 갈 때, 아이덜이 입학이라도 서울에 연대, 고대 이런 데 갈 때에는 문제[297]를 지내주는 것이 으당헌 일.(그러니까 어디 갈 때는 외국이라도 갈 때, 아이들이 입학이라도 서울에 연대, 고대 이런 데 갈 때에는 '문제'를 지내주는 것이 의당한 일.)

109003 @ 음.(음.)

109003 #3 갈 때 어딜 다치질 안헌다니까.(갈 때 어딜 다치질 않는다니까.)

109003 @ 게니까 문제가 그런 거 헐 때도 문제를 영 지내 주는 거과?(게니까 문제가 그런 거 할 때도 '문제'를 이렇게 지내 주는 겁니까?)

109003 #3 하이고, 그러고 말고.(아이고, 그러고 말고.)

109003 #4 군인 갈 때도 우리 아이덜 다.(군인 갈 때도 우리 아이들 다.)

109003 #3 예를 들엉 서울대 고대 연대 시험을 보레 간다.(예를 들어서 서울대 고대 연대 시험을 보러 간다.)

109003 @ 음.(음.)

109003 #3 갈 아이 난닝구[298]나 와이셔츠나 하나 곱게 한 일주일간 바래여근에 헤다근에 문전제 지내근에 아침에 곧 붉기 전에 헤근에 가이 보고 절허렌 헤근에 걸 헤근에 그 문전 앞이서 술아 주는 거라.(갈 아니 러닝셔츠나 와이셔츠 하나 곱게 한 일주일간 바래서 해다가 '문전제' 지내서 아침에 곧 밝기 전에 해서 그 아이 보고 절하라고 해서 걸 해서 그 문전 앞에서 살라 주는 거야.)

109003 @ 아.(아.)

109003 #3 그렇게 험으로써 좀 도움이 뒈는 거게.(그렇게 함으로써 좀 도움이 되는 거.)

109003 @ 어쨌든 식게 때만 문전제 지내는 게 아니고 뭔가 그런.(어쨌든 제사 때만 '문전제' 지내는 게 아니고 뭔가 그런.)

109003 #3 아이고 그것이 중요헌 거게.(아이고, 그것이 중요한 거.)

---

297) '문제'는 주로 제사나 명절 때 본 제사를 지내기 전에 문 앞에서 지내는 '문전제'를 말한다.
298) '난닝구'는 러닝셔츠의 일본어('ランニング')식 발음이다.

109003 @ 중요헌 거구나예.(중요한 거군요.)

109003 #3 이거 식게, 멩질에 허는 것은 조상이 오널은 팔월 보름, 정월 초ᄒᆞ를 이니까 정식적으로 먹을 것을 강 배불리 먹자. 이건 정식이 오는 거고.(이거 제사, 명절에 하는 것은 조상이 오늘은 팔월 보름, 정월 초하루니까 정식적으로 먹을 것을 가서 배불리 먹자. 이건 정식이 오는 거고.)

109003 @ 예.(예.)

109003 #3 그 웨로 내가 서울대학 가는데 어떵 허믄 입학이나 헤져시믄 헐 때는 그런 기도를 헤 주는 것이 남신디 가서 돈 백만 원 멕이는 거보단 나은 거.(그 외로 내가 서울대학 가는데 어떻게 하면 입학이나 할 수 있으면 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해 주는 것이 남에게 가서 돈 백만 원 먹이는 거보단 나은 거.)

109004 @ 그믄 조왕은 어떤 것과?(그럼 조왕은 어떤 겁니까?)

109004 #3 조왕은 즉 말허면은 문전은 아방이고 조왕은 어멍이렌 허여.(조왕은 즉 말하면 문전은 아버지고 조왕은 어머니라고 해.)

109004 @ 어멍.(어머니.)

109004 #3 어멍이니까 문제헤 나면은 조왕에 가서 메라도 올려서 허다못헹 센꼬[299]라도 저 종이 ᄒᆞᆫ 장, 백지 ᄒᆞᆫ 권 사게 뒈믄 이제 헤근에 딴 건 못해도 소지 석 장은 술아 주는 것이 원칙. 소진게 영 헤근에 꼬부려근에 헤여근에 허고. 여기도 소지 석 장. 그럴 때에는 백지 ᄒᆞᆫ 장 사다근에 소지 ᄒᆞᆫ 장 ᄆᆞᆯ고, 또 가는 아이 와이셔츠 곱게 바래엇다근에 헤근에 누구신디 ᄀᆞᆮ지 말앙 자기만 알앙 헤여 주는 것이. (어머니니까 '문제'하고 나면 조왕에 가서 메라도 올려서 하다못해 향이라도 저 종이 한 장, 백지 한 권 사게 되면 이제 해서 딴 건 못해도 소지 석 장을 살라 주는 것이 원칙. 소진 이렇게 해서 접어서 해서 하고. 여기도 소지 석 장. 그럴 때에는 백지 한 장 사다가 소지 한 장 말고, 또 가는 아이 와이셔츠 곱게 바랬다가 해서 누구에게 말하지 말고 자기만 알아서 해 주는 것이.)

109004 @ 게믄 문제 지낼 때랑 조왕제 지낼 때랑 의미가 달리 헤 가지고 따로 허는 것도 잇수과?(그럼 '문제' 지낼 때랑 의미가 달리 해 가지고 따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109004 #3 문전제는 남자니까.('문전제'는 남자니까.)

109004 @ 예.(예.)

109004 #3 남자니까 보통 지전도 사오게 뒈면은 소지 석 장 ᄆᆞᆯ아근에 술아 주고 또 거기에 거기 축이 좀 셔.(남자니까 보통 지전도 사오게 되면 소지 석 장 말아서 살라 주고 또 거기에 거기 축이 좀 있어.)

109004 @ 네.(네.)

109004 #3 축이 좀 시니까 그걸 고해 주고. 딱 문전 지내는 대로 그대로 허여근에 헤주면 아주.(축이 좀 있으니까 그걸 고해 주고. 딱 문전 지내는 대로 그대로 해서 해주면 아주.)

---

299) '센꼬'는 일본어 'せんこう(線香)'로 향을 말한다.

109004 #4 게난 문전에 헤난 거 조왕에 가근에 상 들렁 강 골멩이라도 영 허영 접시에 놧당 부어 불민 뒈여.(그러니까 문전에 했던 거 조왕에 가서 사서 들고 가서 용치놀래기라도 이렇게 해서 접시에 놨다가 부어 버리면 돼.)

109004 @ 게난 따로 지내는 게 아니고.(그러니까 따로 지내는 게 아니고.)

109004 #4 아니고.(아니고.)

109004 @ 그 문전제 지내는 날 조왕제 하고 조왕제에도 고해 줘 버리면 뒈는 거예?(그 '문전제' 지내는 날 조왕제 하고 조왕제에도 고해 줘 버리면 되는 거요?)

109004 #3 예, 예.(예, 예.)

109004 #4 게난 여기 거 걷엉 그레 영 제서 때 허는 거. 영 놓만 허민 뒈여. 젠 안 지내도 뒈여.(그러니까 여기 거 걷어서 그리 이렇게 제사 때 하는 거. 이렇게 놓기만 하면 돼. 젠 안 지내도 돼.)

109004 #3 헐 때 저디 올리는 것이 원칙.(할 때 저기 올리는 것이 원칙.)

109004 @ 게니까 조왕신안티도 곧는 거라예, 문전제 지내멍예.(그러니까 조왕신에게도 말하는 거지요, '문전제' 지내면서요.)

109004 #3 여기 올리믄 여기 봐 낭 저디 강 절허영 올린 것에 소지 석 장 술아 주민.(여기 올리면 여기 보고 나서 저기 가서 절해서 올린 것에 소지 석 장 살라 주면.)

109004 #4 아니 건 특별허게시리.(아니 건 특별하게끔.)

109004 @ 음.(음.)

109004 #3 그걸로 좋은 거.(그걸로 좋은 거.)

109004 #4 간덴 허거나 헐 때는 뭐 그렇게 헤서 헤 주는 거 좋고. 보통으로 제서 때는 그냥 여기 헤난 음식 저레 올리면 뒈곡.(간다고 하거나 할 때는 뭐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거 좋고. 보통으로 제사 때는 그냥 여기 했던 음식 저리 올리면 되고.)

109004 #3 제사 때에는 문전 헤난 거 저기 가근에 저 사라에 헤근에 영.(제사 때에는 문전 했던 거 저기 가서 저 접시에 해서 이렇게.)

109004 @ 예.(예.)

109004 #3 다 그 식으로 허민 뒈곡.(다 그 식으로 하면 되고.)

109005 @ 음. 칠성은 어떤 것과?(음. '칠성'은 어떤 겁니까?)

109005 #3 칠성[300]은예, 칠성은 함불로 손을 대는 거 아니.('칠성'은요, '칠성'은 함부로 손을 대는 거 아니.)

109005 @ 음.(음.)

109005 #3 이제 칠성은 즉 말허면은 그 ᄉᆞ주에 보면은양.(이제 칠성은 즉 말하면 그 사주에 보면요.)

109005 @ 예.(예.)

109005 #4 칠성은 이거라, 이거. 구렝이 보고 칠성이렌 헤.('칠성'은 이거야, 이

300) '칠성'은 부를 관장하는 신으로, 뱀 신을 말한다. '안칠성'과 '밧칠성'이 있다.

거. 구렁이 보고 ‘칠성’이라고 해.)

109005 #3 칠성은예 그 ᄉᆞ주에 보게 뒈면은 그 칠성 테운 사름이 셔.(‘칠성’은요 그 사주에 보게 되면 그 ‘칠성’ 태운 사람이 있어.)

109005 @ 예, 예.(예, 예.)

109005 #3 테운 사름이 그림에 다 나타나.(태운 사람이 그림에 다 나타나.)

109005 @ 게난 저기서 온 사름덜 많이 테웟덴 허지 안헙니까?(그러니까 저기서 온 사람들 많이 태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109005 #3 예, 예. 허면은 옛 어른덜은 집이서 모사서, 고팡이면 고팡에 상이라도 ᄒᆞ나 놔서 제서가 돌아온다, 멩일이 돌아온다 허면 메를 헤서 거길 믄첨 ᄒᆞᆫ 그릇 떠 놧어.(예, 예. 하면 옛 어른들은 집에서 모셔서, 고방이면 고방에 상이라도 하나 놔서 제사가 돌아온다, 명일이 돌아온다 하면 메를 해서 거길 먼저 한 그릇 떠 놨어.)

109005 @ 예.(예.)

109005 #3 것이 이제 습관화뒈서 거기 그 신이 감염뒛어. 감염뒈니까 그런 것을 잘 못허게 뒈민 또 부정이 와. 하, 이거 부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것이 이제 습관화돼서 거기 그 신이 감염됐어. 감염되니까 그런 것을 잘 못하기 되면 또 부정이 와. 하, 이거 부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109005 @ 음.(음.)

109005 #3 쪼금 건드리면은 이거 말도 못 허여. 그러기 때문에 함불로 집이 모시는 것은 아니라.(조금 건드리면 이거 말도 못 해.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집에 모시는 것은 아니야.)

109005 @ 음.(음.)

109005 #3 겨난 꼭 내 아덜이 독잔데 이걸 테웟젠 헌데 어떵 허민 좋코? 그럴 경우면은 절에, 절에.(그러니까 꼭 내 아들이 독잔데 이걸 태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경우면 절에, 절에.)

109005 #4 이젠 절에 강 모시난.(이젠 절에 가서 모시니까.)

109005 #3 절에 강 모시멍 일 년에 ᄒᆞᆫ 번 불공 들일 때 헤 주고 그걸로. 요새 돈 허민, 게민 것도 처음 헐 때에 이 년에 한 번 습관을 그렇게 내와 불어. 매년 허는 사름도 잇는데, 성가시주게. 이 년에 ᄒᆞᆫ 번 헤여근에 글로 모사 주는 것이 좋고. 집이서 허는 사름덜이 아까 골은 대로 경 허다가 이젠 후손덜이난 다. 이제 사름덜이 살앗자 백 년 아니과게.(절에 가서 모시면서 일 년에 한 번 불공 들일 때 해 주고 그걸로. 요새 돈 하면, 그럼 것도 처음 할 때에 이 년에 한 번 습관을 그렇게 내어 버려. 매년 하는 사람도 있는 성가시지. 이 년에 한 번 해서 글로 모셔 주는 것이 좋고. 집에서 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하다가 이젠 후손들이니까 다. 이제 사람들이 살았자 백 년 아닙니까.)

109005 @ 음.(음.)

109005 #3 백 년이난 이제 메느리덜이 시어머니 허던 걸 이어받는 모양이야. 그

러면 그거. 그레저레 허단 보믄 자손에게 막 피헤가 말도 못허여. 하나가 날라가던지 뭐 어떵 헹 벙어리가 뒈여 불던지. 아이 이건 상당히 주의헐 점이 많은 물건이우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건 허는 사름덜은. 난 썩 하고 싶으면 절에 모셔라.(백년이니까 이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하던 걸 이어받는 모양이야. 그러면 그거. 그래저래 하다가 보면 자손에게 마구 피해가 말도 못해. 하나가 날아가든지 뭐 어떻게 해서 벙어리가 돼 버리든지. 아니 이건 상당히 주의할 점이 많은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하는 사람들은. 난 썩 하고 싶으면 절에 모셔라.)

109005 @ 절에.(절에.)

109005 #3 예, 절에 모셔라. 그 모신 사름덜이 보게 뒈믄 열에 일곱은 앞길이 훤헤 가. 거 거짓말 아니. 집에 모신 사름은 이런 뭣이 낭패가 있지만. 그런 정도 알앙 놔둡서.(예, 절에 모셔라. 그 모신 사람들이 보게 되면 열에 일곱은 앞길이 훤해 가. 거 거짓말 아니. 집에 모신 사람은 이런 뭐에 낭패가 있지만. 그런 정도 알아서 놔두세요.)

109005 @ 예, 고맙습니다.(예, 고맙습니다.)

10. 세시풍속

정월

110001 @ 이젠 세시 풍속에 관헌 거 물어볼 건디, 세시 풍속이 뭐냐 허면 정월덜에 뭐 헤나고 음력 이월덜엔 뭐 헤나고 그런 거 잇잖아예?(이젠 세시 풍속에 관한 거 물어볼 건데, 세시 풍속이 뭐냐 하면 정월달에 뭐 했었고 음력 이월에 뭐 했었고 그런 거 있잖아요?)

110001 #2 아, 저 신 풀이 허는 거?(아, 저 신 풀이 하는 거?)

110001 @ 예, 예. 게난 우리 정월덜 하면 정월덜에 정월 멩질이 잇잖아예?(예, 예. 그러니까 우리 정월달 하면 정월달에 정월 명절이 있잖아요?)

110001 #2 으, 으.(으, 으.)

110001 @ 정월 멩질에 대해서 ᄒᆞ꼼 얘기혜 줍서. 정월 멩질이 언제, 어떤 음식, 어떤 일 헤난, 정월 멩질이민?(정월 명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세요. 정월 명절이 언제, 어떤 음식, 어떤 일 했었어, 정월 명절이면?)

110001 #2 정월 멩질에 음식허는 거, 떡 허는 거?(정월 명절에 음식하는 거, 떡하는 거?)

110001 @ 으, 으.(으, 으.)

110001 #2 떡허는 거게, 정월 멩질에는게 세미, 인절미 허곡 시루떡 허곡 잘허는 집이는.(떡하는 거게, 정월 명절에는 세미, 인절미 하고 시루떡 하고 잘하는 집에는.)

110001 @ 으.(으.)

110001 #2 또 지름떡이라고 잘허는 집이는. 또 그거 허고.(또 기름떡이라고 잘하는 집에는. 또 그거 하고.)

110001 @ 으.(으.)

110001 #2 우리 제주도에는 그렇게 육지거추룩 그런 것이 엇주기. 또 가난헌 집이는 빙떡 허여근에 올령 허는 집도 잇곡.(우리 제주도에는 그렇게 육지처럼 그런 것이 없지. 또 가난한 집에는 빙떡 해서 올려서 하는 집도 있고.)

110001 @ 음.(음.)

110001 #2 간단허게 빙떡 흔 가지만 헹이.(간단하게 빙떡 한 가지만 해서.)

110001 @ 으, 음.(으, 음.)

110001 #2 또 빵 허영 올리는 집도 잇곡 헤도 육지는 빵 거튼 거 제사에 안 씨메.(또 빵 해서 올리는 집도 있고 해도 육지는 빵 같은 거 제사에 안 써.)

110001 @ 으.(으.)

110001 #2 빵 올리지 안허영 똑 집이서 허영 허는디. 정월덜에는 그런 거 허곡 또 우리 제주도에는 팔월덜에 나면은 옛날은 가난ᄒᆞ난 보리썰 ᄀᆞᆯ앙 보리썰 ᄀᆞ룰로. 보리 ᄀᆞ룰로 그 저 누룩 허여근에, 술거추룩 누룩 놔근에 무시거 밥허영 놩 놔두면은이 막 부글부글 끌어올르메게.(빵 올리지 않고 꼭 집에서 해서 하는데. 정월달에는 그런 거 하고 또 우리 제주도에는 팔월에 나면 옛날은 가난하니까 보리쌀 갈아서 보리쌀 가루로. 보리 가루로 그 저 누룩 해서, 술처럼 누룩 넣어서 무엇 밥해서 놔서 놔두면 마구 부글부글 끓어올라.)

110001 @ 으.(으.)

110001 #2 그것이 부글부글 허민 이젠 그거를 걸렁, 걸러근에 그 물에 이젠 그 반죽을 허여근에, 저 팔월엔 그거 허영 저 빵떡은 아니라도 세미도 허곡 인절미도 허영 올리주기.(그것이 부글부글 하면 이젠 그거를 걸러서, 걸러서. 그 물에 이젠 그 반죽을 해서, 저 팔월엔 그거 해서 저 빵떡은 아니어도 '세미'도 하고 인절미도 해서 올리지.)

110001 @ 으.(으.)

110001 #2 저, 팔월엔.(저, 팔월엔.)

110001 @ 예, 그건 나중에 듣고예. 정월에, 정월 멩질 헤 먹젠 허민 뭐 준비허는 거 잇수과? 아까 떡 이야긴 헷고. 다른 것덜 뭐 준비허는 거?(예, 그건 나중에 듣고요. 정월에 정월 명절 해 먹으려고 하면 뭐 준비하는 거 있습니까? 아까 떡 이야긴 했고. 다른 것들 뭐 준비하는 거?)

110001 #2 다른 거 준비허는 거는 옥돔.(다른 거 준비하는 거는 옥돔.)

110001 @ 으.(으.)

110001 #2 옥돔허고 잘허는 집이는 적갈 허는 거는 상이 적.(옥돔하고 잘하는 집에는 적 하는 거는 상어 적.)

110001 @ 으.(으.)

110001 #2 또 저 거세기 쉐고기 적갈.(또 저 거시기 소고기 적.)

110001 @ 으.(으.)

110001 #2 또 돼지고기 적갈이. 다섯 가지 허는 집도 잇고 네, 세 가지 허는 집도 잇는디 대략 이제는 두 가지베끼 잘 안 헌다게. 뒈지궤기허고 쉐고기.(또 돼지고기 적. 다섯 가지 하는 집도 있고 네, 세 가지 하는 집도 있는데 대략 이제는 두 가지밖에 잘 안 한다.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110001 @ 게민 정월 멩질 헤 먹젠 허민 전날은 그렇게 떡이랑 음식 준비를 허는 거라예?(그럼 정월 명절 해 먹으려고 하면 전날은 그렇게 떡이랑 음식 준비를 하는 거지요?)

110001 #2 으, 으.(으, 으.)

110001 @ 그럼 당일 날 뒈민 뭐 헙니까?(그럼 당일 날 되면 뭐 합니까?)

110001 #2 당일 날?(당일 날?)

110001 @ 으, 정월 멩질 당일 때.(으, 정월 명절 당일 때.)

110001 # 당일 날 뒈민 그거 상에 올렁 멩질 헹 절허여근에게 그거 갈라 먹으면은, 아이덜이영 다 세배헤여근에 또 뭐 허고 그거주.(당일 날 되면 그거 상에 올려서 명절 해서 절해서 그거 나눠 먹으면, 아이들이랑 다 세배해서 또 뭐 하고 그거지.)

110001 @ 지금은 왜 우리 정월 저기 초하루 뒈민 떡국 끓여 먹잖아예. 그게 옛날에도 경 떡국, 뭐 떡국제 거튼 거 헷수과?(지금은 왜 우리 정월 저기 초하루 되면 떡국 끓여 먹잖아요. 그게 옛날에도 그렇게 떡국, 뭐 떡국제 같은 거 했습니까?)

110001 #2 그거는, 그거는 떡국 끌려 먹는 거는 원칙은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식은 그건디.(그거는, 그거는 떡국 끓여 먹는 거는 원칙은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식은 그건데.)

110001 @ 예.(예.)

110001 #2 제주도에는 떡국을 아니 끌려 먹어낫는디. 지금은 정월 초ᄒᆞ를 뒈민 떡국을 끌렁 먹지.(제주도에는 떡국을 안 끓여 먹었었는데. 지금은 정월 초하루 되면 떡국을 끓여 먹지.)

110001 @ 멩질 때 아침에 떡국제 지내는 거 잇지 안허과?(명절 때 아침에 떡국제 지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110001 #2 아니.(아니.)

110001 @ 엇어?(없어?)

110001 #2 안 허영 그자 메 헤여근에 올렁 그 떡이영 다 적갈이영 올려근에 경 헤영 그냥 끗내메.(안 하고 그저 메 해서 올려서 그 떡이랑 다 적이랑 올려서 그렇게 그냥 끝내.)

110001 @ 게민 전날 떡 헹 당일 날은 이제 제 지내는 거라예?(그럼 전날 떡 해서 당일 날은 이제 제 지내는 거지요?)

110001 #2 으.(으.)

110001 @ 제 다 끗나면 세베덜 허고 헙니까?(제 다 끝나면 세배들 하고 합니

까?)

110001 #2 으.(으.)

110001 @ 그믄 옛날에는, 지금이야 집이만 세베허지만은 옛날에는 막 세베 다니고 헤나지 안 헤서?(그럼 옛날에는, 지금이야 집에만 세배하지만 옛날에는 마구 세배 다니고 하지 않았어?)

110001 #2 세베 매 집이 뎅기곡 영장 묻어근에 영장난 집인 상을 놓잖여게?(세배 매 집에 다니고 송장 묻어서 초상난 집엔 상을 놓잖아?)

110001 @ 으.(으.)

110001 #2 소상 대상을 허는 따문에. 게난 우리나라에는 못 사는 나라에 옛날도 그런 식을 잘못 내연게.(소상 대상을 하는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못 사는 나라에 옛날도 그런 식을 잘못 내었어.)

110001 @ 으.(으.)

110001 #2 경헤도 두 가지, 두 멩질은 줄어졋지기. 옛날은 한식 허고 단오 허고 팔월 추석 허곡 정월 초ᄒᆞ를 허고 네 번이랏주.(그래도 두 가지, 두 명절은 줄었지. 옛날은 한식 하고 단오 하고 팔월 추석 하고 정월 초하루 하고 네 번이었지.)

110001 @ 예, 네 번.(예, 네 번.)

110001 #2 네 번 헷는디 두 번은 줄어진 거라이.(네 번 했는데 두 번은 줄어든 거야.)

110001 @ 으.(으.)

110001 #2 언제 줄어져신고 허니 오월 단오 줄어지고 뚜로 저 거시기 이 저 식목일 이제 허지 안허여.(언제 줄었는가 하니 오월 단오 줄어들고 따로 저 거시기 이 저 식목일 이제 하지 않아.)

110001 @ 예, 예.(예, 예.)

110001 #2 그때 나민 한식이라고 또 한식 멩질 허곡 경헤낫주기게. 게난 그 두 멩질 줄어들어 부난 이젠 팔월 추석허곡 정월 초ᄒᆞ를만 허는 거.(그때 되면 한식이라고 또 한식 명절 하고 그랬었지. 그러니까 그 두 명절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젠 팔월 추석 하고 정월 초하루만 하는 거.)

110001 @ 으, 정월 초ᄒᆞ루 때 경헤영 세베 갓다 오면 멩질 다 끗나는 거?(으, 정월 초하루 때 그러면 세배 갔다 오면 명절 다 끝나는 거?)

110001 #2 으, 상 신 집이 강 절허고.(으, 상 있는 집에 가서 절하고.)

110007 @ 상 신 집이 강 절허고예. 경 막 멩질 때 윳놀이 허멍 놀고 놈의 집이 강 그 걸궁이란 거.(상 있는 집에 가서 절하고요. 그렇게 마구 명절 때 윷놀이 하면서 놀고 남의 집에 가서 그 걸립이란 거.)

110007 #2 으, 걸궁.(으, 걸립.)

110007 @ 잇어 가지고 막 다니고 헷잖아예. 그런 건 어떵 헤낫수과?(있어 가지고 마구 다니고 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했었습니까?)

110007 #2 걸궁은 그거 매 집이 강 옛날은 헷는디 지금은 초청헌 집이만 가메.

(걸립은 그거 매 집에 가서 옛날은 했는데 지금은 초청한 집에만 가.)

110007 @ 지금도 헙니까, 걸궁을?(지금도 합니까, 걸궁을?)

110007 #2 우리 고내는 잇어, 사물놀이라고 여자덜 오랑 허주기게. 남자덜 옛날 거치록 뭐 담베통 물곡 무신 초란이여 무시거여 그런 거 꾸미지 안허영 그냥 그자 저 고깔만 씌웡 사물놀이 허여.(우리 고내는 있어, 사물놀이라고 여자들 와서 하지. 남자들 옛날같이 뭐 담배통 물고 무슨 초란이며 무엇이며 그런 거 꾸미지 않고 그냥 그저 저 고깔만 씌워서 사물놀이 해.)

110007 @ 아, 경 허여. 겐 초청헌 집이 강?(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초청한 집에 가서?)

110007 #2 초청헌 집이 가믄 그냥 신발 벗지 안허영 신 신은 냥 이 마루로 헤영 빙 돌멍 절로 들어오멍 다 헌다게.(초청한 집에 가면 그냥 신발 벗지 않고 신 신은 양 이 마루로 해서 빙 돌면서 절로 들어오면 다 한다.)

110007 @ 옛날에는 집집마다 경 돌아다녓수과?(옛날에는 집집마다 그렇게 돌아다녔습니까?)

110007 #2 옛날은 그 걸궁을 허젠 허믄 집집마다 강 헷주게, 집집마다.(옛날은 그 걸립을 하려고 하면 집집마다 가서 했지, 집집만다.)

110007 @ 게민 그 걸궁 허젠 허민 돈 들 거 아니?(그럼 그 걸립 하려고 하면 돈 들 거 아니?)

110007 #2 조금.(조금.)

110007 @ 그건 어떵 마련헤?(그건 어떻게 마련해?)

110007 #2 어떵은 어떵. 오만 원 주는 집도 잇고 이만 원.(어떻게는 어떻게. 오만 원 주는 집도 있고 이만 원.)

110007 @ 아, 집집마다 영 내 가지고?(아, 집집마다 이렇게 내 가지고?)

110007 #2 으.(으.)

110007 @ 그 걸궁은 무사 허는 것과, 그럼?(그 걸립은 왜 하는 겁니까, 그럼?)

110007 #2 아, 걸궁허는 거는 모든 그 나쁜 신은 나가고 또 즐거운 것만 이제 와 줍서 허는 그런 뭣이주게.(아, 걸립하는 거는 모든 그 나쁜 신은 나가고 또 즐거운 것만 이제 와 주세요 하는 그런 뭣이지.)

110007 @ 아, 정월달에 경헨 비는 거예?(아, 정월달에 그렇게 비는 거요?)

110007 #2 으, 으. 경허니깐 집이 오라근에 그 대영 소리 허멍 와쌍와쌍[301] 허멍 그 사름덜 오랑 집 붋으멍 신 신은 냥 돌아뎅기멍 허면은 모든 신이 딱 눌려지지 말게끔 허는 그런 식이주기. 그거.(으, 으. 그러니까 집에 와서 그 징 소리 하면서 '와쌍와쌍' 하면서 그 사람들 와서 집 밟으면서 신 신은 양 돌아다니면서 하면 모든 신이 딱 눌리지 말게끔 하는 그런 식이지. 그거.)

110007 @ 그럼 사름덜 막 하영 왕 붋아 주는 게 좋은 거다예?(그럼 사람들 아주 많이 와서 밟아 주는 게 좋은 거네요?)

---

301) '와쌍와쌍'은 사람들이 흥에 겨워 몸을 흔드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10007 #2 좋은 거, 좋은 거.(좋은 거, 좋은 거.)

110007 @ 걸궁헐 때 만이 참여혜 가지고.(걸립할 때 많이 참여해 가지고.)

110007 #2 게난 그 걸궁허는 사름덜 수정은 다 오주게. 옛날은 그 조름에 사름덜이 막 촞아근에 매 집마다 촞아뎅기멍 보곡 구경허젠. 왈왈 만이 왓주만은 이제는 그 초청허영 사물놀이 허는 사름만 와게.(그리니까 그 걸립하는 사람들 수는 다 오지. 옛날은 그 뒤에 사람들이 마구 찾아서 매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보고 구경하려고. 왈왈 많이 왔지만 이제는 그 초청해서 사물놀이 하는 사람만 와.)

110007 @ 으.(으.)

110007 #2 경허영 막 뭣 허는 사름은 마당에서도 그 주인덜이영 식구 한 집이덜은 막 춤 추멍 놀곡 경허여.(그래서 마구 뭣 하는 사람은 마당에서도 그 주인들이랑 식구 많은 집들은 마구 춤 추면서 놀고 그래.)

110002 @ 그럼 정월달 뒈민 정월 멩질이 잇고 보름날 뒈민 정월 보름 허잖아예?(그럼 정월달 되면 정월 명절이 있고 보름날 되면 정월 보름 하잖아요?)

110002 #2 정월 대보름 안 허메, 여기는.(정월 대보름 안 해, 여기는.)

110002 @ 아, 정월 대보름 안 헙니까?(아, 정월 대보름 안 합니까?)

110002 #2 으, 육지는 경 헤도. 막 정월 대보름 크게 헌덴 헤도 여긴 안 허주게.(으, 육지는 그렇게 해도. 아주 정월 대보름 크게 한다고 해도 여긴 안 하지.)

110002 @ 으, 안 헤난예?(으, 안 했었어요?)

110002 #2 안 허곡 육지는 팔월 추석에도 추석에 산에 막 가잖아이?(안 하고 육지는 팔월 추석에도 추석에 산에 많이 가잖아?)

110002 @ 예.(예.)

110002 #2 여기선 경 안 허여. 집이서 다 제 지내영.(여기선 그렇게 안 해. 집에서 다 제 지내서.)

110003 @ 우리 방사[302] 헌덴 허잖아예? 방사, 액막이?(우리 방사 한다고 하잖아요? 방사, 액막이?)

110003 #2 으, 방사.(으, 방사.)

110003 @ 방사랑 액막이 허는 게 뭐과? 어떵 허는 것과?(방사랑 액막이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0003 #2 방사허는 것이이.(방사하는 것이.)

110003 @ 예.(예.)

110003 #2 이제는 그 사물놀이도 경허영 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방서허고 이제 그 액멕이가 엇어. 옛날은.(이제는 그 사물놀이도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방사하고 이제 그 액막이가 없어. 옛날은.)

110003 @ 게니까 옛날에. 옛날 헤난 거 애기헤 줍서.(그러니까 옛날에. 옛날 했던 거 얘기해 주세요.)

---

302) '방사'는 사악함을 막는다는 의미인 '방사(防邪)'로, 무속에서 가정이나 개인에게 닥칠 액을 미리 막는 일을 말한다.

110003 #2 옛날 정월 보름 뒈면은 보름 때 뒈면 어디 안 나가, 조심허는 사름덜은.(옛날 정월 보름 되면 보름 때 되면 어디 안 나가, 조심하는 사람들은.)

110003 @ 예.(예.)

110003 #2 그 귀신이 나그네 의탁헌덴 헤근에 안 가곡. 정월 보름 뒈믄 대보름날은 액덜 막음이라고 막이.(그 귀신이 나그네 의탁한다고 해서 안 가고. 정월 보름 되면 대보름 날은 액들 막음이라고 막.)

110003 @ 예.(예.)

110003 #2 액멕이 헤여근에 이제 심방 돌아당 무시거 막 집이 부엌에영 이제 문전에영 체려 놩이.(액막이 해서 이제 무당 데려다가 무엇 마구 집에 부엌에랑 이제 문전에랑 차려 놔서.)

110003 @ 예.(예.)

110003 #2 그 심방 와근에 막 두드리멍 허여. 경헤여근에 허곡. 영 허영 봉 나쁘면은 그 액멕이엔 헌 거는 또 그 식구가 어느 식구 나쁘덴 허면은 심방이 나쁘덴 허면은 무신 저 방장 허영 그디 뭐 차롱착에, 거튼 것에 막 촛불, 저 젭시에 불 피곡이.(그 무당 와서 마구 두드리면서 해. 그래서 하고. 이렇게 해서 봐서 나쁘면 그 액막이라고 한 거는 또 그 식구가 어느 식구 나쁘다고 하면 무당이 나쁘다고 하면 무슨 저 상장 해서 거기 뭐 채롱짝에, 같은 것에 마구 촛불, 저 접시에 불 피고.)

110003 @ 예.(예.)

110003 #2 그치록 헤여근에 그디 막 체려근에 하간 거 놩 출령 그런 거 가져다 놩 어디 저 들 거튼 디 갓다근에 몰르게 살짝허게 놔 불어게.(그처럼 해서 거기 차려서 여러 거 놔서 차려서 그런 거 가져다 놔서 어디 저 들 같은 데 갔다가 모르게 살짝 놔 버려.)

110003 @ 으.(으.)

110003 #2 경허면은 그런 거 방장헌 디 가근에 그거 체얌으로 본 사름은.(그러면 그런 거 방장한 데 가서 그거 처음으로 본 사람은.)

110003 @ 으.(으.)

110003 #2 막 나쁜덴 헤여근에 그 사름은 몰라근에 그냥 집이 뛰어오나 허지 말곡 막 돌멩이로 그거 막 뭇아 둬근에 오믄 괜찮은덴 허곡 경헤영. 옛날 경헷주게.(아주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은 몰라서 그냥 집에 뛰어오거나 하지 말고 마구 돌멩이로 그거 마구 마아 둬서 오면 괜찮다고 하고 그래서. 옛날 그랬지.)

110003 @ 아, 경 헷었던 거예?(아, 그렇게 했었던 거요?)

110003 #2 으.(으.)

110004 @ 그 정월덜에 동네에서 막 포제 같은 것도 헙니까? 포제, 마을 포제?(그 정월달에 동네에서 마구 포제 같은 것도 합니까? 포제, 마을 포제?)

110004 #2 으, ᄆᆞ을 포젠 날 받앙 금줄 메여근에 일주일 간 옛날은 헷어.(으, 마을 포젠 날 받아서 금줄 매서 일주일 간 옛날은 했어.)

110004 @ 마을 포제를 일주일간?(마을 포제를 일주일간?)

110004 #2 아니, 일주일간 정성을, 정성을 헌다고 그 지관은. 지관이 누게가 뒈냐 허면 그 이장허고.(아니, 일주일간 정성을, 정성을 한다고 그 지관은. 지관이 누가 되느냐 하면 그 이장하고.)

110004 @ 예.(예.)

110004 #2 청년훼장허고.(청년회장하고.)

110004 @ 예.(예.)

110004 #2 어촌계장허고 이거 세 사람은 삼 지관은 심방이 왕 허여도 그거를 다 이제 그 지관은 꼭 그 사름덜광 같이 절허멍 끗나도록 헤야 뒈여. 절허고.(어촌계장하고 이거 세 사람은 삼 지관은 무당이 와서 해도 그거를 다 이제 그 지관은 꼭 그 사람들과 같이 절하면서 끝나도록 해야 돼. 절하고.)

110004 @ 포제헐 때?(포제할 때?)

110004 #2 옛날은 경헤서.(옛날은 그러해서.)

110004 @ 그 지관은 어떵 정허는 것과?(그 지관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110004 #2 지관은?(지관은?)

110004 @ 예.(예.)

110004 #2 옛날 한문 만이 헌 사름게. 그런 나이 들엉 그런 거 허여난 사름을 이제 그 저 뭣 헹 허는 거주.(옛날 한문 많이 한 사람. 그런 나이 들어서 그런 거 했던 사람을 이제 그 저 뭐 해서 하는 거지.)

110004 @ 이제 마을에서 그건 정허는 거라예?(이제 마을에서 그건 정하는 거지요?)

110004 #2 으, 지관. 지관은 이장이?(으, 지관. 지관은 이장이?)

110004 @ 이장이 정허는 거?(이장이 정하는 거?)

110004 #2 이장이 정허여근에 경.(이장이 정해서 그렇게.)

110004 @ 그민 포제헐 때 금줄도 영 무끄고?(그럼 포제할 때 금줄도 이렇게 묶고?)

110004 #2 리사무실에 올레에 들어가지 못허게 딱 금줄. 일주일 옛날은 헷주만은 이젠 삼 일. 삼 일은 금줄 메여, 이제도.(리사무실에 '올레'에 들어가지 못하게 딱 금줄. 일주일 옛날은 했지만 이젠 삼 일. 삼 일은 금줄 매, 이제도.)

110004 @ 그럼 그 지관들은.(그럼 그 지관들은.)

110004 #2 금줄 멧당 끗나믄 탁 클러 불메.(금줄 맸다가 끝나면 탁 풀어 버려.)

110004 @ 게민 집이 안 강 계속 거기에?(그럼 집에 안 가서 계속 거기에?)

110004 #2 삼 일 동안.(삼 일 동안.)

110004 @ 삼 일 동안은.(삼 일 동안은.)

110004 #2 삼 일 동안 물이고 뭣이고 전부 그디. 옛날은 수도물도 안 나고 다 물 질어당 항에 놓고 전부 준비혜얄 거주. 그 안에서 다 허니까 도새기도 조그만 거 잡고 다. 경허믄 그 지관덜이 그추룩 헹 바깟디 안 나왕 다 그디서 허는 거.(삼 일 동안 물이고 뭐고 전부 거기. 옛날은 수돗물도 안 나고 다 물 길어다가 항아리

에 넣고 전부 준비해야 할 거지. 그 안에서 다 하니까 돼지도 조그만 거 잡고 다. 그러면 그 지관들이 그처럼 해서 밖에 안 나와서 다 거기서 하는 거.)

110004 @ 게민 동네 사름덜도 그거 헐 때 그디 강 밥도 ᄀᆞ치 먹고.(그럼 동네 사람들도 그거 할 때 거기 가서 밥도 같이 먹고.)

110004 #2 아니.(아니.)

110004 @ 그런 건 아니?(그런 건 아니?)

110004 #2 아니여게. 지관덜만 먹엉 끗나믄 이젠 그 다음날은 떡을 썰엉 백 밧디 놓는다고 옛날은 헷는디 이젠 그런 것도 ᄂᆞ누지 안허영. 그냥 노인당이믄 노인당에 그냥 가져가 불어. 이장네가 그냥 가져와.(아니. 지관들만 먹고 끝나면 이젠 그 다음날은 떡을 썰어서 백 군데 놓는다고 옛날은 했는데 이젠 그런 것도 나누지 않고. 그냥 노인당이면 노인당에 그냥 가져가 버려. 이장네가 그냥 가져와.)

110004 @ 으.(으.)

110004 #2 경허믄덜 할망덜 먹으멍 경허주.(그러면 할머니들 먹으면서 그랬지.)

110004 @ 그때 뭐 흑 뿌리기 같은 거 헙니까? 지관이 제 지내레 갈 때 거기에 붉은 흙 뿌려 가지고, 그런 건 안 헤낫수과?(그때 뭐 흙 뿌리기 같은 거 합니까? 지관이 제 지내러 갈 때 거기에 붉은 흙 뿌려 가지고, 그런 건 안 했었습니까?)

110004 #2 그런 건 안 허여.(그런 건 안 해.)

110004 @ 안 헤난예?(안 했었어요?)

110004 #2 으.(으.)

110005 @ 안택이 뭐과, 안택?(안택이 뭡니까, 안택?)

110005 #2 안택이엔 헌 거는, 옛날 안택이엔 헌 건 고팡이라고 이런 디 이런 쏠 항아리 놓는 고팡 셔나서게.(안택이라고 한 거는, 옛날 안택이라고 한 건 고방이라고 이런 데 이런 쌀 항아리 놓는 고방 있었어.)

110005 @ 예.(예.)

110005 #2 경허믄 그 고팡에 안택을 모신 사름, 모시는 집이 잇어, 그. 말허자면 것이 칠성 베염이엔 허데게.(그럼 그 고방에 안택을 모신 사람, 모시는 집이 있어, 그 말하자면 것이 칠성 뱀이라고 하대.)

110005 @ 으.(으.)

110005 #2 그런 거를 모신 집이는 똑 멩질 때도 뭣 허면은 그디도 같이 올리곡이.(그런 거를 모신 집에는 꼭 명절 때도 뭣 하면은 거기도 같이 올리고.)

110005 @ 게민 정월덜에 안택 제 가튼 거를 뜨로 지냅니까?(그럼 정월달에 안택 제 같은 거를 따로 지냅니까?)

110005 #2 으, 뜨로 지내여. 날 받앙.(으, 따로 지내. 날 받아서.)

110005 @ 날 받앙? 그것도 집안 펜안허렌 허는 거?(날 받아서? 그것도 집안 편안하라고 하는 거?)

110005 #2 어게. 건 안택 모셔 놓니까. 거 매해 허진 안헌다. 금년 허면은 내년인 안 헷당 후멩년에. 삼 년만이.(그래. 건 안택 모셔 놓으니까, 거 매해 하진 않는

다. 금년 하면 내년엔 안 했다가 내후년에. 삼 년만에.)

110005 @ 아, 기과? 삼 년만이 흔 번씩 헹 안택 제를 지내는 거?(아, 그렇습니까? 삼 년만에 한 번씩 해서 안택 제를 지내는 거?)

110005 #2 으.(으.)

110006 @ 보리밧 붋는 것도 헙니까?(보리밭 밟는 것도 합니까?)

110006 #2 보리밧 불르는 거 옛날이나 허주, 보리밧.(보리밭 밟는 거 옛날이나 하지, 보리밭.)

110006 @ 게니까.(그러니까.)

110006 #2 보리밧 불라낫주.(보리밭 밟았었지.)

110006 @ 정월덜에 불라?(정월달에 밟아?)

110006 #2 정월덜에 아니고 이월덜에. 이월 영등 들어오는.(정월달에 아니고 이월달에. 이월 영등 들어오는.)

110008 @ 으, 으. 걸궁은 골앗고. 정월 허면 입춘이랑 우수가 잇어예?(으, 으. 걸립은 말했고. 정월 하면 입춘이랑 우수가 있어요?)

110008 #2 으.(으.)

110008 @ 그때 뭐 농사짓는 거 엇수과? 우수나 입춘 때?(그때 뭐 농사짓는 거 없습니까? 우수나 입춘 때?)

110008 #2 입춘이엔 허면은 새해, 새해 나서 새해 절이 들어온다 이 소리주게, 입춘이. 입춘이.(입춘이라고 하면 새해, 새해 나서 새해 절이 들어온다 이 소리지, 입춘이. 입춘이.)

110008 @ 예.(예.)

110008 #2 겨난 그 입춘을 들면은 농서도 입춘 들면 새해 찍시로 봄 농사를이.(그러니까 그 입춘을 들면 농사도 입춘 들면 새해 몫으로 봄 농사를.)

110008 @ 예.(예.)

110008 #2 허게끔 뭰 거. 입춘은.(하게끔 된 거. 입춘은.)

110008 @ 예.(예.)

110008 #2 입춘 든 후에는 오월 나믄 이제 꿰도 갈고 그추룩 허는 거. 옛날은 조영 그런 콩이영.(입춘 든 후에는 오월 나면 이제 깨도 갈고 그처럼 하는 거. 옛날은 조랑 그런 콩이랑.)

2월

110009 @ 이월덜에 영등 들어온덴 허잖아예?(이월에 영등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110009 #2 으.(으.)

110009 @ 영등이 뭐과?(영등이 뭡니까?)

110009 #2 누게 알아게. 나도 몰르주게. 옛날 할망덜 영등 할망이엔 허난 뭣인지게. 영등 할망이엔 허난.(누가 알아. 나도 모르지. 옛날 할머니들 영등 할머니라도

하니까 뭐인지. 영등 할머니라고 하니까.)

110009 @ 예, 그건 언제이고 그때 허지 말아야 뒐 거, 또 그때 어떤 행사덜 헙니까?(예, 그건 언제이고 그때 하지 말아야 될 거, 또 그때 어떤 행사들 합니까?)

110009 #2 영등굿 허는 디가 매 밧디 아니랑 옛날은 한림더레 가는 디 어디 셔나고 이젠 허염신디 말암신디 제주시서 어디서 심방.(영등굿 하는 데가 매 밭에 아니라 옛날은 한림으로 가는 데 어디 있었고 이젠 하고 있는지 마는지 제주시에서 어디에서 무당.)

110009 @ 헴수다, 영등굿.(하고 있습니다, 영등굿.)

110009 #2 헌덴 헤데, 영등.(한다고 하대, 영등.)

110009 @ 예, 예.(예, 예.)

110009 #2 영등굿 헌덴 허데. 그 영등굿을 그 허여근에 허믄 막 이제 바당에 이제 어부덜 펜안헌덴 헤여 도렌 허믄 허는 거렌 허주기게.(영등굿 한다고 하대, 그 영등굿을 그 해서 하면 아주 이제 바다에 이제 어부들 편안하다고 해 달라고 하면 하는 거라고 하지.)

110009 @ 게믄 영등이 언제 들어오는 거라?(그럼 영등이 언제 들어오는 거야?)

110009 #2 이월덜 나믄. 정월 그믐 나믄, 정월 그물 때에는 저 소섬[303]이엔 헌디가 저 어디주게.(이월 되면. 정월 그믐 되면, 정월 그물 때에는 저 우도라고 하는데가 저 어디지.)

110009 @ 우도.(우도.)

110009 #2 우도.(우도.)

110009 @ 으.(으.)

110009 #2 소섬ᄀᆞ라 우도엔 허여. 소섬 오랏다가 이제 이월 초ᄒᆞ를 날은 딱 이딜 들어온덴 그추룩 말헤낫주.('소섬'보고 우도라고 해. 우도 왔다가 이제 이월 초하루 날은 딱 여길 들어온다고 그처럼 말했었지.)

110009 @ 경.(그렇게.)

110009 #2 옛날 우리 보말 잡으렐 가나 바당에 물싸믄 뭐 잡으레 강 보믄 구젱이고 오분작이고 까먹은 겁데기만 막 시메게.(옛날 우리 고둥 잡으러 가거나 바다에 물써면 뭐 잡으러 가서 보면 소라며 오분자기며 까먹은 껍데기만 마구 있어.)

110009 @ 으.(으.)

110009 #2 그 영등 할망이 오랑 까먹엉 갓덴 허영. 그초록 허여.(그 영등 할머니가 와서 까먹어서 갔다고 해서. 그처럼 해.)

110009 @ 아, 기과?(아, 그렇습니까?)

110009 #2 꼭 그 영등이 넘어강 강 보면은 바다에 강 보믄 빈 겁데기가 그렇게 잇어.(꼭 그 영등이 넘어가서 가서 보면 바다에 가서 보면 빈 껍데기가 그렇게 있어.)

110009 @ 그거 영등 할망이 왕.(그거 영등 할머니가 와서.)

303) '소섬'은 제주시 구좌읍 우도면의 옛 이름이다.

110009 #2 으, 까 먹었덴 경허는디. 똑 그 영등이 들어왕 가면은 우린 귀신이엇다 허는디 그 전복 껍데기영 까먹어난 것이 막 시어게 강 보믄.(으, 까먹었다고 그러는데. 꼭 그 영등이 들어와서 가면 우린 귀신이 없다 하는데 그 전복 껍데기랑 까먹었던 것이 마구 있어, 가서 보면.)

110009 @ 영등 들어왕, 영등할망 들어왕 여기 한 일주일 잇당 가는 거?(영등 들어와서, 영등 할머니 들어와서 여기 한 일주일 있다가 가는 거?)

110009 #2 일주일 만이 나가는 거. 일주일 만이 나가는디 이제는 삼 일 정성만 허자 헹 이젠 허는 건디 삼 일 정성도 허지 안 헹 뿔레 뿔앙 허영케 널곡이.(일주일 만에 나가는 거. 일주일 만에 나가는데 이제는 삼 일 정성만 하자 해서 이젠 하는 건데 삼 일 정성도 하지 않고 빨래 빨아서 하얗게 널고.)

110009 @ 예.(예.)

110009 #2 하간 거 널면은 그 집이 그냥 본인도 몰르게 막 바글바글 그 이상헌 버렝이가 막 들어와게, 집더레.(여러 가지 거 널면 그 집에 그냥 본인도 모르게 마구 바글바글 그 이상한 벌레가 마구 들어와, 집으로.)

110009 @ 예.(예.)

110009 #2 막 문 더껑 씰어 내쳐도 경 들어오고. 경헨덴 헤여근에 그 헤영헌 뿔레도 헹 안 널고 삼 일 정성은 꼭 허여근에 허라 헌디, 우리 아이덜도 이런 거라도 뿔앙 널젠 허민 널지 말라.(마구 문 덮어서 쓸어 내쳐도 그렇게 들어오고. 그런다고 해서 그 하얀 빨래도 해서 안 널고 삼 일 정성은 꼭 해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런 거라도 빨아서 널려고 하면 널지 말라.)

110009 @ 아, 그 기간 동안에는 빨래 허면 안 되는 거?(아, 그 기간 동안에는 빨래 하면 안 되는 거?)

110009 #2 뿔레 소소헌 거 헤영 안네 널주게. 가능허면은 베껏디 널지 안 허주게. 삼 일 동안.(빨래 소소한 거 해서 안에 널지. 가능하면 밖에 널지 안 하지. 삼 일 동안.)

110009 @ 아, 삼 일 동안.(아, 삼 일 동안.)

110009 #2 삼 일 동안 널지 안헤근에가 헤엿당 너는 거게.(삼 일 동안 널지 않고 했다가 너는 거.)

110009 @ 으.(으.)

110009 #2 옛날은 일주일. 경헌디 삼 일 뒈믄 삼 일 정성을 허라 헹 허는디 지금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영등 나가는 것이 삼월덜에 잘 안 나가. 아, 첨 저 삼 일에 잘 안 나간다고.(옛날은 일주일. 그런데 삼 일 되면 삼 일 정성을 하라 해서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영등 나가는 것이 삼월에 잘 안 나가. 아, 첨 저 삼 일에 잘 안 나간다고.)

110009 @ 으, 으.(으, 으.)

110009 #2 일주일 뒈사만 이 ᄇᆞ름이 후닥닥헌 ᄇᆞ름 마ᄇᆞ름이 와근에 마ᄇᆞ름 분다게. 겐디 그 ᄇᆞ름이 잘 안 불어근에 똑 일주일 뒈어사 불메, 이제도 영 보믄 경허

여.(일주일 되야만 이 바람이 후다닥한 바람 마파람이 와서 마파람이 분다. 그런데 그 바람이 잘 안 불어서 꼭 일주일 되어야 불어, 이제도 이렇게 보면 그래.)

110010 @ 이월덜에 절기상으로 경칩이랑 춘분이 있는데 경칩 때 뚜로 허는 거 잇수과, 농사짓는 거? 춘분 때 경칩 때?(이월에 절기상으로 경칩이랑 춘분이 있는데 경칩 때 따로 하는 거 있습니까, 농사짓는 거? 춘분 때 경칩 때?)

110010 #2 엇어. 우리, 우리 여긴 고낸 엇어.(없어. 우리, 우리 여긴 고낸 없어.)

3월

110011 @ 예. 삼월덜 물어보쿠다. 삼월덜에 옛날에 한식 멩질 잇어낫잖아예. 한식 멩절은 어떵 헤낫수과? 한식 멩절?(예. 삼월 물어보겠습니다. 삼월에 옛날에 한식 명절 있었잖아요. 한식 명절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한식 명절?)

110011 #2 한식 멩절도 이제나 꼭 ᄀᆞ트주게. 이제나 저 제물헤영 올리는 거고. 꼭ᄀᆞ타.(한식 명절도 이제나 꼭 같지. 이제나 저 제물해서 올리는 거고. 똑같아.)

110011 @ 아, 똑같아? 무사 한식 멩질은 헤나신고예?(아, 똑같아? 왜 한식 명절은 했었나요?)

110011 #2 누게 알아게. 오월 단오엔 보리 익으면은 익은 거 고고리 비여당 데우쳐근에, 물에 데우청.(누가 알아. 오월 단오엔 보리 익으면 익은 거 고고리 베어다가 데쳐서, 물에 데쳐서.)

110011 @ 으.(으.)

110011 #2 제기 ᄆᆞ르렌. 경헤영 그거 ᄊᆞᆯ 빠근에 저 뭣 헤영 그 보리썰 서끄곡 헤영 밥 헤여. 경허영 올려.(재게 마르라고. 그래서 그거 쌀 빼서 저 뭐 해서 그 보리쌀 섞고 해서 밥 해. 그래서 올려.)

110011 @ 그 보리ᄊᆞᆯ로.(그 보리쌀로.)

110011 #2 으.(으.)

110011 @ 아직 그 보리, ᄊᆞᆯ이 막.(아직 그 보리, 쌀이 아주.)

110011 #2 ᄉᆞ못 익지 안헌 때에?(사뭇 익지 않을 때에?)

110011 @ ᄉᆞ못 익지 안헌 때. 먹을 거 엇이난 그런 거?(사뭇 익지 않을 때. 먹을 거 없으니까 그런 거?)

110011 #2 그럼. 거세기 산뒤ᄊᆞᆯ이주게. 요새거추룩 그런 나룩ᄊᆞᆯ도 아니주게. 그런 ᄊᆞᆯ 헤여근에 ᄊᆞᆯ밥만 허지 안허영 그 새 보리 난 거를 쪼금 헤당 그것에 ᄀᆞ찌 서껑 밥 헤여근에. 경 헹 올려.(그럼. 거시기 밭벼쌀이지. 요새처럼 그런 밭벼쌀도 아니지. 그런 쌀 해서 쌀밥만 하지 않고 그 새 보리 난 거를 조금 해다가 그것에 같이 섞어서 밥 해서. 그렇게 해서 올려.)

110012 @ 그 삼월 보면 절기상으로 청명, 곡우라는 게 잇수다. 청명이랑 곡우가 이때 이신디 청명 때 뭐 허고 곡우 때 뭐 허고 허는 거 잇어낫수과?(그 삼월 보면 절기상으로 청명, 곡우라는 게 있습니다. 청명이랑 곡우가 이때 있는데 청명 때 뭐 하고 곡우 때 뭐 하고 하는 거 있었습니까?)

110012 #2 산소 뒤에 가근에게.(산소 뒤에 가서.)

110012 @ 예.(예.)

110012 #2 말허자면 영장 묻엉 놔둬근에 막 쉐도 파고 테가 잘 안 입은 디 잇주게.(말하자면 송장 묻고 놔둬서 마구 소도 파고 떼가 잘 안 입은 데 있지.)

110012 @ 으.(으.)

110012 #2 테가 벗어 불엉. 게믄 그날은 무슨 웨로 날을 안 받아도 뒌덴 헹 청명 날 그 산에 꼭 가 보는 사름은 산에 가 보주게.(떼가 벗어 버려서. 그럼 그날은 무슨 외로 날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청명 날 그 산에 꼭 가 보는 사람은 산에 가 보지.)

110012 @ 으.(으.)

110012 #2 산에 그 전에 봣당 그추룩 헤시면은 그날은 그 테도 갈앙 가근에 그 테도 잘 입히고. 경헤영 산소도 돌아봉 오곡 경헷주.(산에 그 전에 봤다가 그처럼 했으면 그날은 그 떼도 갈아서 가서 그 떼도 잘 입히고. 그래서 산소도 돌아봐서 오고 그랬지.)

4월

110013 @ 저기 사월달 넘어가쿠다예.(저기 사월 넘어가겠습니다.)

110013 #2 으.(으.)

110013 @ 사월덜에는 초파일이 이신게, 초파일. 초파일에는 뭐 허는 날이과?(사월에는 초파일이 있네요, 초파일. 초파일에는 뭐 하는 날입니까?)

110013 #2 사월 초파일날은게 석가모니 탄생헷젠 혜영 저 거세기 불교 믿는 사름은 절간에 가근에 기도허는 날게.(사월 초파일은 석가모니 탄생했다고 해서 저 거시기 불교 믿는 사람은 절간에 가서 기도하는 날.)

110014 @ 으. 절간 가는 날예, 사월 초파일. 보니까 사월덜에 입하도 잇고 소만도 잇다예?(으. 절간 가는 날요, 사월 초파일. 보니까 사월에 입하도 있고 소만도 있네요?)

110014 #2 으.(으.)

110014 @ 우리 농사짓는 거 생각헤 보면 이때 뭐 헐 시기우과?(우리 농사짓는 거 생각해 보면 이때 뭐 할 시기입니까?)

110014 #2 이때?(이때?)

110014 @ 으.(으.)

110014 #2 지금?(지금?)

110014 @ 아니, 사월덜에. 음력 사월덜에.(아니, 사월에. 음력 사월에.)

110014 #2 음력 ᄉ월덜 뒈면은 무신 농사허느냐 허면은 사월덜 뒈면은 날만 잘 봣다가 그 여름 농서를 허주게. 조도 갈곡.(음력 사월 되면 무슨 농사하느냐 하면 사월 되면 날만 잘 봤다가 그 여름 농사를 하지. 조도 갈고.)

110014 @ 조도 갈고.(조도 갈고.)

110014 #2 겐디 사월덜 뒈근에 갈아도 대력 오월덜 나근에 허게 뒈면 그날 그 때 사월 초파일에 일기가 ᄇᆞ느냐[304] 어떵허느냐, 사월 초파일날 불면은 꿰 좋넨 헹 꿰 갈젠 헤영 사월초파일 넘어사 갈곡 경허여.(그런데 사월 돼서 갈아도 대략 오월 돼서 하게 되면 그날 그때 사월초파일에 일기가 좋으냐 어떠하느냐, 사월초파일 좋은면 깨 좋다고 해서 깨 갈려고 해서 사월초파일 넘어야 갈고 그래.)

5월

110015 @ 오월달에는 단오 멩질 이신게?(오월에는 단오 명절 있네요?)

110015 #2 으, 단오 멩질.(으, 단오 명절.)

110015 @ 단오 멩질 아까 얘기했던 거고예.(단오 명절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110015 #2 으.(으.)

110015 @ 멩질 때 한식이나 단오멩질이나 다 ᄀᆞ틀 것과?(명절 때 한식이나 단오 명절이나 다 같을 겁니까?)

110015 #2 다 ᄀᆞ타, 다 ᄀᆞ타. 제 허는 거고 뭐고.(다 같아, 다 같아. 제 하는 거고 뭐고.)

110016 @ 오월덜에 절기상으로 망종이랑 하지가 이신게예.(오월에 절기상으로 망종이랑 하지가 있네요.)

110016 #2 망종, 망종.(망종, 망종.)

110016 @ 망종 때랑 하지 때 뭐 허는 거 잇수과?(망종 때랑 하지 때 뭐 하는 거 있습니까?)

110016 #2 아니. 망종이엔 허면은 오월 망종이여, 망종이여 허면은 보리 농서 거튼 거 허영.(아니. 망종이라고 하면 오월 망종이야, 망종이야 하면 보리 농사 같은 거 해서.)

110016 @ 예.(예.)

110016 #2 망종 전이 비여야지, 망종을 넘어 가가믄 막 자뿌러져 불엉 허기가 궂으는 따문.(망종 전에 베어야지, 망종을 넘어 가면 마구 자빠져 버려서 하기가 궂은 때문.)

110016 @ 예.(예.)

110016 #2 이 망종 돌아오는 것을 잘 보젠 허주기게.(이 망종 돌아오는 것을 잘 보려고 하지.)

110016 @ 예.(예.)

110016 #2 망종 전이 허젠 허영.(망종 전에 하려고 해서.)

110016 @ 보리농사 망종 전이 허젠 허영예?(보리농사 망종 전에 하려고 해서요?)

110016 #2 으, 으.(으, 으.)

304) '불다'는 바람이 잔잔하고 화창해서 날씨가 좋은 것을 말한다.

6월

110017 @ 유월덜 넘어가쿠다. 유월덜에 독 잡아먹는 날이 잇수다예, 유월달에 예?(유월 넘어가겠습니다. 유월에 닭 잡아먹는 날이 있어요, 유월에요?)

110017 #2 유월 스무날.(유월 스무날.)

110017 @ 스무날. 이날 독 잡아먹는 거?(스무날. 이날 닭 잡아먹는 거?)

110017 #2 으.(으.)

110017 @ 집에 키웠던 거?(집에 키웠던 거?)

110017 #2 집이 키웟던 것도 잡앙 먹고 경 안 허민 사당도 이제도 뭣 허는 사름은 유월 스무날 잡앙 먹고 경허는 거.(집에 키웠던 것도 잡아서 먹고 그렇게 안 하면 사다가도 이제도 뭐 하는 사람은 유월 스무날 잡아서 먹고 그러는 거.)

110017 @ 무사 이때 독 잡아먹는고예?(왜 이때 닭 잡아먹었나요?)

110017 #2 그날 독 잡아먹는 날이 거 무시거렌 헷저만은 난 몰르크라.(그날 닭 잡아먹는 날이 거 무엇이라고 했지만 난 모르겠어.)

110018 @ 예, 예. 삼복 날이, 이 독 잡아먹는 날이 삼복 날인 거 아니며 삼복 날이 또 있는 거?(예, 예. 삼복 날, 이 닭 잡아먹는 날이 삼복 날인 거 아니면 삼복 날이 또 있는 거?)

110018 #2 아니 그거 독 잡아먹는 날이 복날이주게. 그 웨엔 엇어, 그런 거.(아니 그거 닭 잡아먹는 날이 복날이지. 그 외엔 없어. 그런 거.)

110019 @ 유월덜에 소서랑 대서 이신디 이때 농서짓는 거 뭐 뚜로 잇수과?(유월에 소서랑 대서 있는데 이때 농사짓는 거 뭐 따로 있습니까?)

110019 #2 소서 대서엔 유월덜?(소서 대서엔 유월?)

110019 @ 유월덜.(유월.)

110019 #2 유월덜엔게 콩농서 거튼 거, 그런 거.(유월엔 콩농사 같은 거, 그런 거.)

7월

110020 @ 칠월덜 감수다예. 칠월 칠석이 잇어낫수다예. 칠월 칠석날은 뭐 허는 날이과?(칠월 갑니다. 칠월 칠석이 있었네요. 칠월 칠석은 뭐 하는 날입니까?)

110020 #2 칠월 칠석날도 기도허는 날 그 날도.(칠월 칠석도 기도하는 날, 그 날도.)

110020 @ 기도허는 날?(기도하는 날?)

110020 #2 아니, 불교 믿는 사름은 절간에 가는 날, 칠월 칠석.(아니, 불교 믿는 사람은 절간에 가는 날, 칠월 칠석.)

110020 @ 이것도 불교에 관련된 거?(이것도 불교에 관련된 거?)

110020 #2 으.(으.)

110021 @ 백중제 헙니까, 백중제?(백중제 합니까, 백중제?)

110021 #2 백중제 이젠 안 허여.(백중제 이젠 안 해.)

110021 @ 이젠 안 허여? 백중제는 뭐 허는 사름덜이? 쉐 키우는 사름덜인가?(이젠 안 해? 백중제는 뭐 하는 사람들이? 소 키우는 사람들인가?)

110021 #2 백중제 허는 사름도 잘 엇어서, 옛날도. 백중제 허는 사름덜, 귀신을 모시는 거는, 백중이엔 헌 건 이 저 올레도 흔 밧디 그런 거 잇어근에 놈 몰래 가근에 저 바닷가에 엉장 거튼 디 강 막 기도 드려근에 뭣 헌 디. 아무도 몰르게 강.(백중제 하는 사람도 잘 없어서, 옛날도 백중제 하는 사람들, 귀신을 모시는 거는 백중이라고 하는 건 이 저 올레도 한 군데 그런 거 있어서 남 몰래 가서 저 바닷가에 절벽 같은 데 가서 막 기도 드려서 뭐 하는 데 아무도 모르게 가서.)

110021 @ 으.(으.)

110021 #2 겐 그거 남이 알아 가민 막 망헤 불어. 삽시로 부제 됏당도. 경헌덴 허는 거. 백중은 잘 안 허여.(그래서 그거 남이 알아 가면 아주 망해 버려. 삽시로 부자 됐다가도. 그런다고 하는 거. 백중은 잘 안 해.)

110022 @ 칠월덜 몰래찜?(칠월 모래찜질?)

110022 #2 모래찜도 가고.(모래찜질도 가고.)

110023 @ 물맞이도 가고?(물맞이도 가고?)

110023 #2 물맞이도 가고.(물맞이도 가고.)

110023 @ 삼춘도 모래찜 물맞이 헤낫수과?(삼춘도 모래찜질 물맞이 했었습니까?)

110023 #2 모래찜은 안 헤나고 물맞이는 경 가낫주.(모래찜질은 안 했었고 물맞이는 그렇게 갔었지.)

110023 @ 여기 어디 가낫수과? 물맞이 허러?(여기 어디 갔었습니까? 물맞이 하러?)

110023 #2 이젠 엇어.(이젠 없어.)

110023 @ 옛날에, 옛날에?(옛날에, 옛날에?)

110023 #2 옛날엔 우리 요 고내봉[305]더레 올라가는 디 정의내창[306]이라고 내창이 이렇게 막 높은 디 그디 물을 맞으민 궨찮은덴 허영 그디서 맞아낫주게.(옛날엔 우리 요 '고내봉'으로 올라가는 데 '정의내창'이라고 내가 이렇게 아주 높은 데 거기 물을 맞으면 괜찮다고 해서 거기서 맞았었지.)

110023 @ 아, 정의내창. 거기 물 맞으레 갔던 거예?(아, '정의내창'. 거기 물 맞으러 갔던 거요?)

110023 #2 으.(으.)

110024 @ 입추, 절기상으로 입추 처서가 이신디 이때 뭐 특별허게 허는 거 엇고예?(입추, 절기상으로 입추 처서가 있는데 이때 뭐 특별하게 하는 거 없고요?)

110024 #2 엇어.(없어.)

---

305) '고내봉'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306) '정의내창'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에 있는 내 이름이다.

8월

110025 @ 엇어예. 팔월덜 가보난 벌초가 잇수다예.(없어요. 팔월 가보니까 벌초가 있네요.)

110025 #2 벌초.(벌초.)

110025 @ 제주도에서 옛날에 벌초덜 어떵 헤나신고예?(제주도에서 옛날에 벌초들 어떻게 했었나요?)

110025 #2 어떵은 어떵게. 팔월 멩질 허느라고 막 부려부려. 못 헌 사름 팔월 초ᄒᆞ를 날도 강 허곡. 그 팔월 초ᄒᆞ를날 인칙 허여 나믄 막 풀 비여난 거 닮지 않은 따문 쪼금 늦게 가근에.(어떻게는 어떻게. 팔월 명절 하느라고 아주 부랴부랴. 못 한 사람 팔월 초하루 날도 가서 하고. 그 팔월 초하루 날 일찍 하고 나면 마구 풀 베었던 거 닮지 않은 때문 조금 늦게 가서.)

110025 @ 예.(예.)

110025 #2 추석 전이만 헌덴 허영, 보름 전이.(추석 전에만 한다고 해서, 보름 전에.)

110025 @ 예.(예.)

110025 #2 경헹 가근에 저 허는 거.(그래서 가서 저 하는 거.)

110027 @ 예. 아까 팔월 멩질 ᄀᆞᆯ앗고 팔월덜에 절기상으론 백로랑 추분이 이신디 농서짓는 건 백로 추분 관련된 거는?(예. 아까 팔월 명절 말했고 팔월에 절기상으론 백로와 추분이 있는데 농사짓는 건 백로 추분 관련된 거는?)

110027 #2 엇어.(없어.)

9월

110028 @ 엇어예. 구월덜 넘어가쿠다. 백로 상강이 이신게, 이때는.(없어요. 구월 넘어가겠습니다. 백로 상강이 있네요, 이때는.)

110028 #2 상강은 뭣ᄀᆞ라 상강이야 허냐 허믄 ᄀᆞ을 농서를 다 허지 안헤서?(상강은 뭣보고 상강이라 하냐 하면 가을 농사를 다 하지 않았어?)

110028 @ 예.(예.)

110028 #2 헌 거를 상강 ᄉᆞ시 뒈기 전이, 상강 넘기 전이 다 헤 들이는 거.(한 거를 상강 사시 되기 전에, 상강 넘기 전에 다 해 들이는 거.)

110028 @ 그지예?(그렇죠?)

110028 #2 으, 상강 넘기 전이. 상강 막 그냥 상강을 상강을 넘엄저 돌아왐저 막 경헷주게.(으, 상강 넘기 전에. 상강 마구 그냥 상강을 상강을 넘는다, 돌아온다 마구 그랬었지.)

110028 @ 으, 상강 넘엄저, 돌아왐저.(으, 상강 넘는다, 돌아온다.)

110028 #2 상강이 넘으면 어제게추룩 그런 바람이 불멍 북풍이 막 와게.(상강 넘으면 어제처럼 그런 비바람 불면서 북풍이 마구 와.)

110028 @ 예.(예.)

110028 #2 경허는 따문에 그 전이 허젠. 조도 만딱 이추룩 허멍 털어져 불주게.(그러는 때문에 그 전에 하려고. 조도 모두 이처럼 하면서 떨어져 버리지.)

10월

110029 @ 예. 입동 소설은?(예. 입동 소설은?)

110029 #2 입동?(입동?)

110029 @ 예, 시월덜에 입동 소설 때 뭐 허는 거?(예, 시월에 입동 소설 때 뭐 하는 거?)

110029 #2 엇어.(없어.)

11월

110030 @ 십일월덜 보난 동지 풋죽?(십일월 보니까 동지 팥죽?)

110030 #2 동지 풋죽 허는 날 그날. 동지 풋죽 허는 날도 불교 믿는 사름은 절간에 가고 경허는 거.(동지 팥죽 하는 날 그날. 동지 팥죽 하는 날도 불교 믿는 사람은 절간에 가고 그러는 거.)

110030 @ 풋죽 헤 먹엇수과?(팥죽 해 먹었었습니까?)

110030 #2 풋죽 헤 먹언. 올리도 헐 거.(팥죽 해 먹었어. 올해도 할 거.)

110030 @ 아, 올리도 헐 거?(아, 올해도 할 거?)

110030 #2 으.(으.)

110031 @ 납평날이 뭐과? 납평날 알아지쿠과?(납평날이 뭡니까? 납평날 알겠습니까?)

110031 #2 납평날?(납평날?)

110031 @ 예, 납평날.(예, 납평날.)

110031 #2 납평날은 엿 졸영 먹는 날인디 납평날이 무신 날인디 몰라.(납평날은 엿 졸여서 먹는 날인데 납평날이 무슨 날인지 몰라.)

110031 @ 아, 이날 엿 졸영 먹어난?(아, 이날 엿 졸여서 먹었어?)

110031 #2 으, 엿 졸영 먹언.(으, 엿 졸여서 먹었어.)

110032 @ 예, 예. 대설이랑 동지가 잇수다예. 이날도 뭐 특별허게 하는 거 없지예?(예, 예. 대설이랑 동지가 있어요. 이날도 뭐 특별하게 하는 거 없지요?)

110032 #2 동지?(동지?)

110032 @ 예.(예.)

110032 #2 동지에도 별로 뭐 허는 거 엇고 동지에 어떵 허냐 허면 옛날은 막걸리 술을 담아이. 조, 조농사 헌 거 뿟앙.(동지에도 별로 뭐 하는 거 없고 동지에 어떻게 하냐 하면 옛날은 막걸리 술을 담아. 조, 조농사 한 거 빻아서.)

110032 @ 아, 예.(아, 예.)

110032 #2 술떡 멘들아근에 찌여근에.(술떡 만들어서 쪄서.)

110032 @ 예.(예.)

110032 #2 경헹 허믄 그 동지 돌아오기 전에.(그렇게 하면 그 동지 돌아오기 전에.)

110032 @ 예.(예.)

110032 #2 동지가 동짓덜 나가믄 돌아오주게. 경헤부난 그 동지 전이 술을 담아 논 거는 내년 유월덜이 나도 우이 가시엔 헌 것이 씨지 안허여.(동지가 동짓달 나가면 돌아오지. 그러니까 그 동지 전에 술을 담가 놓은 거는 내년 유월이 돼도 위에 구더기라고 하는 것이 쓰지 않아.)

110032 @ 예.(예.)

110032 #2 가시엔 헌 거는 뭐냐 허면 하양케 곰펭이.(구더기라고 한 거는 뭐야 하면 하얗게 곰팡이.)

110032 @ 예, 예.(예, 예.)

110032 #2 그거 씨영 허주게. 막 시여 불고. 경헌디 동지 전이 그추룩 헹 담아 논 거는 아무렇지도 안허연게. 유월덜 나도록.(그거 써서 하지. 아주 셔 버리고. 그런데 동지 전에 그처럼 해서 담가 놓은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 유월 되도록.)

110032 @ 아.(아.)

110032 #2 문직고 먹어도. 게난 동지 넘엉 술을 담으믄 그렇게 뒈 불어. 게난 그런 거 막 주의허여근에 경헷젠.(만져서 먹어도. 그러니까 동지 넘어서 술을 담그면 그렇게 돼 버려. 그러니까 그런 거 아주 주의해서 그랬다고.)

110032 @ 동지 때.(동지 때.)

110032 #2 경헨 그추룩 허메게. 겨고 동지날 뒈믄 풋죽 쒀 먹고.(그래서 그처럼 해. 그리고 동짓날 되면 팥죽 쒀 먹고.)

110033 @ 음력 십이월이우다예. 우리 제주도에선.(음력 십이월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선.)

110009 #2 첨 이월 그 영등 할망을 들어오믄 그 보리밧 강 불르면서 굼벵이 보까 먹자, 콩 보까 먹자, 밧 그추룩 허여근에 그 솟덕 그디 강 앚져근에 보깡이 밧디 영 하나썩 또록또록 뿌리멍 그치록 헤낫주기.(첨 이월 그 영등 할머니를 들어오면 그 보리밭 가서 밟으면서 굼벵이 볶아 먹자, 콩 볶아 먹자, 밭 그처럼 해서 그 봇돌 거기 가서 얹혀서 볶아서 밭에 이렇게 하나씩 '또록또록' 뿌리면서 그처럼 했었지.)

110009 @ 무사 뿌련?(왜 뿌렸어?)

110009 #2 영등 들어오믄 하나석 또록또록 허게 허영.(영등 들어오면 하나씩 '또록또록' 하게 해서.)

110009 @ 그거 뿌리는 거 무사 뿌리는 거라?(그거 뿌리는 거 왜 뿌리는 거야?)

110009 #2 몰라게. 그거 하나 걸어뎅기멍 하나썩 뿌리멍 굼벵이 보까 먹자, 콩 보까 먹자.(몰라. 그거 하나 걸어다니면서 하나씩 뿌리면서 굼벵이 볶아 먹자, 콩 볶아 먹자.)

110009 @ 아, 경 말허는 거.(아, 그렇게 말하는 거.)

110009 #2 경허믄 웨냐허면 굼벵이가 밧디 들엉 막 굽이에 발 문딱 튿어 먹어

불믄 보리가 안 뒈주기.(그러면 왜냐하면 굼벵이가 밭에 들어서 마구 굽에 발 모두 뜯어 먹어 버리면 보리가 안 되지.)

110009 @ 아.(아.)

110009 #2 경헌 데 강 그치록 옛날은 그 예방으로 경헤낫덴.(그런 데 가서 그처럼 그처럼 옛날은 그 예방으로 그랬었다고.)

110009 @ 게난 굼벵이안테 겁 주는 거라, 너 우리 밧디 오지 마라.(그러니까 굼벵이한테 겁 주는 거야, 너 우리 밭에 오지 마라.)

110009 #2 으, 으.(으, 으.)

110009 @ 저리 가라 허는 의미.(저리 가라 하는 의미.)

110009 #2 으, 으. 그런 의미로.(으, 으. 그런 의미로.)

110009 @ 굼벵이 보까 먹자.(굼벵이 볶아 먹자.)

110009 #2 콩 보까 먹자. 이젠 안 허여, 그런 거.(콩 볶아 먹자. 이젠 안 해, 그런 거.)

12월

110033 @ 예. 제주도에 신구간이란 건 어떤 기간이과?(예. 제주도에 신구간이란 건 어떤 기간입니까?)

110033 #2 신구간이엔 험은 신구간, 신구간 헌 건. 신구 기간이라고 신년광 구년 사이엔 허는 소리.(신구간이라 함은 신구간, 신구간 한 건. 신구 기간이라고 신년과 구년 사이에 하는 소리.)

110033 @ 예.(예.)

110033 #2 신구간이.(신구간이.)

110033 @ 예.(예.)

110033 #2 겨난 신구간이 신관 구관이 그 사이에이 그때는 아무런 탈이 엇기 때문에 신구간에 이사를 가 불자.(그러니까 신구간이 신관 구관이 그 사이에 그때는 아무런 탈이 없기 때문에 신구간에 이사를 가 버리자.)

110033 @ 예.(예.)

110033 #2 겨난 신년도 채 들어오지 않은 때고 이제 구관은 또 나가게 뒌 때고 이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이사 거튼 거 탈이 엇다 헤 가지고 이사를 헤난 거지.(그러니까 신년도 채 들어오지 않은 때고 이제 구관은 또 나가게 된 때고 이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이사 같은 거 탈이 없다 해 가지고 이사를 했던 거지.)

110033 @ 이사만 그때 헌 것과, 집 고치는 것도 헤서예?(이사만 그때 한 겁니까, 집 고치는 것도 했어요?)

110033 #2 집 고치는 것도 헷주게. 이사 가젠 허믄 신구간 스시에.(집 고치는 것도 했지. 이사 가려고 하면 신구간 사시에.)

110034 @ 지금은 집 구허젠 허믄 신문도 잇고 헌디 옛날에는 집 구허젠 허민 어떵 헙니까?(지금은 집 구하려고 하면 신문도 있고 한데 옛날에는 집 구하려고 하

면 어떻게 합니까?)

110034 #2 그냥 그자 구두로게 다 저 어디 집 빌릴 거나 신가마씀, 허믄게 그거 들엇단 그 사름이 뚜로 아무 가이 아무 가이 어느 동네 잇노렌 헤렌 골믄 경허믄 뚜로 이젠 그것이 전달 전달뒈영 경행 헷주게, 옛날은.(그냥 그저 구두로 다 저 어디 집 빌릴 거나 있나요, 하면 그거 들었다가 그 사람이 또 아무 가 아무 가 어느 동네 있다고 하고 말하면 그러면 또 이젠 그것이 전달되어서 그래서 했지, 옛날은.)

110035 @ 이사 갈 때 뭐부터 가져가야 뒈는 거 그런 거 잇수과?(이사 갈 때 뭐부터 가져가야 되는 거 그런 거 있습니까?)

110035 #2 이사 갈 때?(이사 갈 때?)

110035 @ 예.(예.)

110035 #2 이사 갈 때는 질 ᄆᆞ녀 가는 것이 이불자리 가메.(이사 갈 때는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이부자리 가.)

110035 @ 아, 이불자리. 솟 아니고?(아, 이부자리. 솥 아니고?)

110035 #2 솟허고. 솟허고 이불자리 우선은.(솥하고. 솥하고 이부자리 우선은.)

110036 @ 우리 요즘은 집들이 거튼 거 허잖아예?(우리 요즘은 집들이 같은 거 하잖아요?)

110036 #2 으.(으.)

110036 @ 옛날에는 그런 거 헤낫수과?(옛날에는 그런 거 했었습니까?)

110036 #2 옛날?(옛날?)

110036 @ 으.(으.)

110036 #2 옛날도 이사 오믄 이사 왓수다 헤여근에 사름덜 청헤영 그거주게. 그것이 집들이주.(옛날도 이사 오면 이사 왔습니다 해서 사람들 청해서 그거지. 그것이 집들이지.)

110036 @ 게난 청허영 밥도 멕이고?(그러니까 청해서 밥도 먹이고?)

110036 #2 밥도 멕이곡 허믄 여러 사름이 왓다 갓다 허믄 이 집이 오라서 여라 발자국을 불랑 가면은 방베[307]가 뒈어서 귀신이 안 나온다 이거지. 탈이 엇다.(밥도 먹이고 하면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이 집에 와서 여러 발자국을 밟아서 가면 '방베'가 되어서 귀신이 안 나온다 이거지. 탈이 없다.)

110036 @ 밟아 주는 게.(밟아 주는 게.)

110036 #2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110036 @ 아. 거난 걸궁 허멍 사름덜 막 불렁 붑앙 가고 허는 거구나.(아. 그러니까 걸립 하면서 사람들 많이 불러서 밟아서 가고 하는 거구나.)

110036 #2 으, 으. 붑앙 가는 거.(으, 으. 밟아서 가는 거.)

110037 @ 그믄 옛날에도 영 집들이 허젠 허믄 뭐 선물이라도 뭐 들렁 가야 헐 거 아니이? 그때 뭐 잇어난, 선물 같은 거?(그럼 옛날에도 이렇게 집들이 하려고 하

307) '방베'는 무속에서 가정이나 개인에게 닥칠 액을 미리 막는 일을 말한다. '방세', '방쉬', '방법'이라고도 한다.

면 뭐 선물이라도 뭐 들고 가야 할 거 아니? 그때 뭐 있었던, 선물 같은 거?)

110037 #2 집들이 가는 디?(집들이 가는 데?)

110037 @ 으.(으.)

110037 #2 집들이 가는 디 무시거 돈도 쪼금 가졍 가는 사름도 싯곡게. 무슨 저, 저 저 저 불곽이.(집들이 가는 데 무엇 돈도 조금 가져서 가는 사람도 있고. 무슨 저 저 저 화곽이.)

110037 @ 불곽.(화곽.)

110037 #2 불곽 이만인 헌 거 셔나서. 덕영[308], 덕영. 덕영이엔 허믄 이딧 사름덜 몰라. 덕영이엔 허믄 통곽. 그런 거 허영 가는 사름도 잇고. 그거 불 일어난덴 부제 뒈렌 경 헨 가는 사름도 잇고.(화곽 이만큼 한 거 있었어. 덕영, 덕영. 덕영이라고 하면 여기 사람들 몰라. 덕영이라고 하면 화곽. 그런 거 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거 불 일어난다고 부자 되라고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110038 @ 맞아마씨. 십이월덜에 소한 대한이 이신디 이때 특별히 뭐 허는 거 잇수과?(맞아요. 십이월에 소한 대한 있는데 이때 특별히 뭐 하는 거 있습니까?)

110038 #2 소한 대한?(소한 대한?)

110038 @ 어.(어.)

110038 #2 소한 대한 뒈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서귀포에서 이디 오젠 허면은 옛날은 걸엉만 뎅겻거든.(소한 대한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서귀포에서 여기 오려고 하면 옛날은 걸어서만 다녔거든.)

110038 @ 으.(으.)

110038 #2 경허믄 오죽이나 멀어게. 한라산 중간 사이에 오다근에 눈이 이만이 쌓영도 잘 이제 오지 못허고.(그러면 오죽이나 멀어. 한라산 중간 사이에 오다가 눈이 이만큼 쌓여도 잘 이제 오지 못하고.)

110038 @ 으.(으.)

110038 #2 신구 기간이엔 허믄 신구 기간 때에는 먼 디, 먼 질레에 허는 사름도 주의혜영 이제 허지 말라 경혜낫주게. 신구 기간이라 험음.(신구 기간이라고 하면 신구 기간 때에는 먼 데, 먼 길에 하는 사람도 주의해서 이제 하지 말라 그랬었지. 신구 기간이라 함은.)

110038 @ 예, 예.(예, 예.)

110038 #2 신구 기간 때에는 먼 길을 가당 그 신구 기간 때에 눈이 그냥 막 많이 와이. 눈이 만이 오믄 눈이 만이 묻어 놓으민 사람이 그디서 죽는 법이 만이 헤난 셍인ᄀᆞ라 신구 기간 때에는 벨 일이 잇어도 어디 여행도 나가지 말라 그렇게.(신구 기간 때에는 먼 길을 가다가 그 신구 기간 때에 눈이 그냥 아주 많이 와. 눈이 많이 오면 눈이 많이 묻으면 사람이 거기서 죽는 법이 많이 했던 모양이어서 신구 기간 때에는 별 일이 있어도 어디 여행도 나가지 말라, 그렇게.)

110038 @ 으.(으.)

308) 여기서 '덕영'은 화곽의 상품명인 듯하다.

110038 #2 게난 신구 기간에 나간 사름은 이젠 죽엉 올 걸로만 각오허라. 말허자면 그렇게 헌 거.(그러니까 신구 기간에 나간 사람은 이젠 죽어서 올 거로만 각오해라. 말하자면 그렇게 한 거.)

110038 @ 으.(으.)

11. 놀이

111001 @ 어렷을 때 뭐 허멍, 뭐 허멍 놀아낫수과, 옛날에?(어렸을 때 뭐 하면서, 뭐 하면서 놀았었습니까, 옛날에?)

111001 #3 우린 그 저 부모님네가 완전 비난허게[309] 살앗수다게. 비난허게 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디 눈 뜰 시절이 엇어서마씨.(우린 그 저 부모님네가 완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데 눈 뜰 시절이 없었어요.)

111001 @ 으.(으.)

111001 #3 나도 다마치기 헤난 건 쪼금 기억나마씨. 다마치기 정도 기억나고. 또 뛔기 차는 거양.(나도 구슬치기 했던 건 조금 기억나요. 구슬치기 정도 기억나고. 또 제기 차는 거요.)

111001 @ 뛔기, 쪽기?('뛔기', 제기?)

111001 #3 으, 쪽기 쪼끔 기억이 나고 그 웨론 전부 그것을 헐 시간이 엇어서마씨.(으, 제기 조금 기억이 나고 그 외론 전부 그것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111001 @ 아이구.(아이구.)

111001 #3 살아가젠 허니까 부모네가 형편엇이 곤란허게 살아서마씨. 경허난 남의 밧이라도 좀 경작허영 허젠 허믄 우릴 데령가는 거라마씸.(살아가려고 하니까 부모네가 형편없이 곤란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의 밭이라도 좀 경작해서 하려고 하면 우릴 데려가는 거예요.)

111001 @ 아이덜도 다 데령.(아이들도 다 데려서.)

111001 #3 데령가서 이렇게 허니까 점심도 굶고 아침 점심 먹기가 힘든 땐디.(데려가서 이렇게 하니까 점심도 굶고 아침 점심 먹기가 힘든 땐데.)

111001 @ 으.(으.)

111001 #3 그 시절이라놓난 그 잇는 아이덜은 다마치기도 허곡 뭐 쪽기도 차곡 뭐 어쩌고 저쩌고 헌데 그레 눈을 돌리지 못헤서마씨.(그 시절이니까 그 있는 아이들은 구슬치기도 하고 뭐 제기도 차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데 그리 눈을 돌리지 못했어요.)

111001 @ 으, 그런 거 못헤 봔예?(으, 그런 거 못해 봤어요?)

111001 #3 예, 예.(예, 예.)

309) 여기서 '비난하다'는 '가난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연

111002 @ 게도 영 한 번씩 연도 날려보고 했을 거 아니?(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연도 날려보고 했을 거 아니?)

111002 #3 연은 나가 창호지 헤 가지고.(연은 내가 창호지 해 가지고.)

111002 @ 예.(예.)

111002 #3 창호지 허면은 저 요 영 허영 꼴리 돋히는 건 강ᄀᆞᆯ레[310]렌 허곡양.(창호지 하면 저 요 이렇게 해서 꼬리 달린 건 '강ᄀᆞᆯ레'라고 하고요.)

111002 @ 예.(예.)

111002 #3 영 큰 연은, 창호지 반 장 헤영 만드는 건. 것도 뭐 잊어 불엉.(이렇게 큰 연은, 창호지 반 장 해서 만드는 건. 것도 뭐 잊어 버려서.)

111002 #4 ᄃᆞᆯ연.(달연.)

111002 @ ᄃᆞᆯ연.(달연.)

111002 #3 ᄃᆞᆯ연.(달연.)

111002 @ 예.(예.)

111002 #3 그건 허연 만이 띄왓수다.(그건 해서 많이 띄웠습니다.)

111002 @ 아.(아.)

111002 #3 그 연 헤영 만이 띄우고. 거 처음에 영 만들다가 ᄂᆞᆷ 만드는 거 영 보니까 뭠 직헤영 이녁대로 만들엉예.(그 연 해서 많이 띄우고. 거 처음에 이렇게 만들다가 남 만드는 거 이렇게 보니까 됨 직해서 자기대로 만들어서요.)

111002 @ 음.(음.)

111002 #3 만이 띄와봣수다.(많이 띄워봤습니다.)

111002 @ 아까 연 종류가 뭐 뭐 잇어마씨?(아까 연 종류가 뭐 뭐 있어요?)

111002 #3 강ᄀᆞᆯ레비허고. 건 꼴리 돋은 거.(가오리연하고. 건 꼬리 돋은 거.)

111002 @ 강ᄀᆞᆯ레비?('강ᄀᆞᆯ레비'?)

111002 #3 영 오골오골.(이렇게 오글오글.)

111002 @ 예, 알아지크라마씨. 영 생경 여기 영.(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여기 이렇게.)

111002 #3 예, 예.(예, 예.)

111002 #4 강ᄀᆞᆯ레비.(가오리연.)

111002 @ 아, 강ᄀᆞᆯ레비렌 헤마씨?(아, '강ᄀᆞᆯ레비'라고 해요?)

111002 #3 예, 예.(예, 예.)

111002 #4 영 컹 요만썩 헌 건 ᄃᆞᆯ연.(이렇게 커서 요만큼씩 한 건 달연.)

111002 @ 아, ᄃᆞᆯ연이랑 강ᄀᆞᆯ레비 두 종류가 잇어나서?(아, 달연이랑 가오리연 두 종류가 있었어?)

111002 #3 예, 예.(예, 예.)

---

310) '강ᄀᆞᆯ레'는 연의 한 종류로 가오리연을 말한다. 제보자는 이것을 '강ᄀᆞᆯ레비', '강ᄀᆞ레비'라고도 하였다.

111003 @ 그럼 둘연서부터 만들어 봅서. 어떵 만들엇수과? 우선은 둘연 만들젠 허민 뭐가 잇어야 헐 거마씨?(그럼 달연부터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선은 달연 만들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할 거예요?)

111003 #3 둘연 대, 대마씨. 거기 창호지 반 장짜리민 띄울만 헙니다. 창호지 반 장 오려근에 이젠 시각꾸[311]로 영 오려 놔근에 요만이 똘루믄 한 가운이 이렇게 둘라집니다. 한 가운디.(달연 대, 대요. 거기 창호지 반 장짜리면 띄울만 합니다. 창호지 반장 오려서 이젠 사각으로 이렇게 오려 놔서 요만큼 뚫으면 이렇게 뚫립니다. 한 가운데.)

111003 @ 으.(으.)

111003 #3 경허믄 이젠 댓가지 헤긴에 욜로 하나 영 놓고양.(그러면 이젠 댓가지 해서 욜로 하나 이렇게 놓고요.)

111003 #4 열십 자로 놔.(열십 자로 놔.)

111003 @ 예. 대를 우이로 하나 놓고.(예. 대를 위로 하나 놓고.)

111003 #3 하나 놓고 또 욜로 영 하나 영.(하나 놓고 또 욜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111003 @ 대각선으로.(대각선으로.)

111003 #3 놓고.(놓고.)

111003 @ 놓고 여기 놓고예?(놓고 여기 놓고요?)

111003 #3 예. 또 요거 요거.(예. 또 요거 요거.)

111003 @ 예, 가운데로 하나 놓고.(예, 가운데로 하나 놓고.)

111003 #3 예. 경헤서마씨.(예. 그랬어요.)

111003 @ 창호지 부칠 때는 여기는 똘랑.(창호지 붙일 때는 여기는 뚫어서.)

111003 #3 예, 예.(예, 예.)

111003 @ 부친 거예.(붙인 거요.)

111003 #3 예, 예.(예, 예.)

111003 #4 니귀반득허게시리.(네모반듯하게끔.)

111003 @ 네귀반득허게예?(네모반듯하게요?)

111003 #3 예.(예.)

111003 @ 게민 여기는 대 안 들어갈 거라예?(그럼 여기는 안 들어갈 거지요?)

111003 #3 여기도 하나 들어가 여기도.(여기도 하나 들어가 여기도.)

111003 @ 아, 여기도?(아, 여기도?)

111003 #3 겨난.(그러니까.)

111003 @ 대가 멧 개 필요헌 것과?(대가 몇 개 필요한 겁니까?)

111003 #3 요것이 들어가는 사름 안 들어가는 사름 헙니다.(요것이 들어가는 사람 안 들어가는 사람 합니다.

111003 @ 아.(아.)

311) '시각꾸'는 일본어 'しかく(四角)'로 사각을 말한다.

111003 #3 요것이 싯기 때문에.(요것이 있기 때문에.)

111003 @ 예.(예.)

111003 #3 영 벌이 메 가지고 벌이 메근에.(이렇게 벌이줄 매 가지고 벌이줄 매서.)

111003 @ 예. 여기 메는 걸 벌이렌 허는 거예?(예. 여기 매는 걸 벌이줄이라고 하는 거요?)

111003 #3 예, 벌이. 요디도 영 허고. 또 여기 한 가운디 하나 무꺼.(예, 벌이. 요기도 이렇게 하고. 또 여기 한 가운데 하나 묶어.)

111003 @ 아, 여기 한 가운데도?(아, 여기 한 가운데도?)

111003 #3 하나 영 허믄 시가꾸로 영 허믄.(하나 이렇게 하면 사각으로 이렇게 하면.)

111003 @ 예.(예.)

111003 #4 경헤사.(그래야.)

111003 @ 영 헤영 줄 하나 이디 멜 거예?(이렇게 해서 줄 하나 여기 맬 거요?)

111003 #3 예.(예.)

111003 @ 이거 메는 걸 벌이렌 헐 거?(이거 매는 걸 벌이줄이라고 할 거?)

111003 #3 예, 벌이.(예, 벌이줄.)

111003 @ 그럼 이 우이는 뭐렌 부르는, 이 우이 대나무는 뭐렌 부르는 이름이 잇어낫수과?(그럼 이 위에는 뭐라고 부르는, 이 위에 대나무는 뭐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었습니까?)

111003 #3 이거 상대엔 헤실 거우다, 상대.(이거 상대라고 했을 겁니다, 상대.)

111003 @ 상대?(상대?)

111003 #3 상대.(상대.)

111003 @ 상대렌 허고.(상대라고 하고.)

111003 #3 이건 뭐. 잘 기억이 안 나네.(이건 뭐, 잘 기억이 안 나네.)

111003 @ 예, 뒛수다. 요거는 고망 난 거는?(예, 됐습니다. 요거는 구멍 난 거는?)

111003 #3 돌 고망.(달 구멍.)

111003 @ 아, 이거 돌 고망. 예. 이거 돌 고망이렌 허고예.(아, 이거 달 구멍. 예. 이거 달 구멍이라고 하고요.)

111003 #3 예.(예.)

111004 @ 그민 이 연대 허젠 허민 이 대나무를 미리 헹 왕 준비헐 거?(그럼 이 연대 하려고 하면 이 대나무를 미리 해서 와서 준비할 거?)

111004 #3 게난 대를 어디 흑나 봉가다근에 막 헤근에 영 맞춰 보멍 멘들주게. 멘들아근에 헤 두민 또 창호지 봉가다근에 또 만들고 허영. 헹 영 띄우믄, 저디서 띄우믄 저디서 누구네 연 올라왓저 허믄.(그러니까 대를 어디 하나 주워다가 마구 해서 이렇게 맞춰 보면서 만들지. 만들어서 해 두면 또 창호지 주워다가 또 만들고

해서. 해서 이렇게 띄우면, 저기서 띄우면 저기서 누구네 연 올라왔다고 하면.)

111004 @ 아.(아.)

111004 #3 연을 이젠 둘이 싸움 부뜨는 거라마씀?(연을 이젠 둘이 싸움 붙는 거지요?)

111004 @ 예.(예.)

111004 #3 거 연도 재주 잘 ᄂᆞ리면은 확 올라가근에 이걸 걸렁 이레 돌아오는 거라. 하하하.(거 연도 재주 잘 내리면 확 올라가서 이걸 걸어서 이리 돌아오는 거야. 하하하.)

111004 @ 놈의 연줄 끈어 불라고?(남의 연줄 끊어 버리려고?)

111004 #3 끈어, 끈을라고.(끊어, 끊으려고.)

111004 #4 영 영 허다근에 잘허는 사름은 팍 영 헤근에 뎅겨도 불고.(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잘하는 사람은 팍 이렇게 해서 당겨도 버리고.)

111004 #3 연줄은예.(연줄은요.)

111004 @ 예.(예.)

111005 #4 연싸움.(연싸움.)

111005 #3 그 저 유리.(그 저 유리.)

111005 @ 예.(예.)

111005 #3 유리 ᄀᆞ루를 막 ᄀᆞ늘게 부수와근에 풀 불라근에 혼, 연 이디서 혼 열 발쯤 안네.(유리 가루를 아주 가늘게 부숴서 풀 발라서 한, 연 여기서 한 열 발쯤 안에.)

111005 @ 음.(음.)

111005 #3 이제 그걸 풀 영 멕여근에 그 유리 부순 걸 영 헹 허믄 영 확 끈어갈 때 그 혼 열 발 안에 들엉 허믄 저쪽엔 줄 끈어져 불어.(이제 그걸 풀 이렇게 먹여서 그 유리 부순 걸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확 끊어갈 때 그 한 열 발 안에 들어서 하면 저쪽엔 줄 끊어져 버려.)

111005 @ 끈어져 불어.(끊어져 버려.)

111005 #3 하하하.(하하하.)

111005 @ 그럼 그 유리 멕이는 거를 뭐렌 ᄀᆞᆯ읍니까? 혹시 그런 걸 개미렌 ᄀᆞᆯ읍니까, 개미 먹인덴?(그럼 그 유리 먹이는 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그런 걸 개미라고 말합니까, 개미 먹인다고?)

111005 #3 예, 예. 개 멕인덴, 개 멕인데.(예, 예. '개' 먹인다고, 개미 먹인다고.)

111005 @ 아, 개 멕인덴 헤?(아, 개미 먹인다고 해?)

111005 #3 개 멕인덴.(개미 먹인다고.)

111005 @ 개 멕인덴 헐 거예. 그 개는 연줄에 다 무치는 게 아니구나?(개미 먹인다고 할 거요. 그 개는 연줄에 다 묻히는 게 아니구나?)

111005 #3 예, 예.(예, 예.)

111005 @ 한 부분 정도만?(한 부분 정도만?)

111005 #3 한 부분 정도만. 이제 여기서 벌이 벌이 멘 디서 여기서 거트면은 한 오륙 메다 그 정도만.(한 부분 정도만. 이제 여기서 벌이줄 벌이줄 맨 데서 여기서 같으면 한 오륙 미터 그 정도만.)

111005 @ 예.(예.)

111005 #3 게민 연이 싹 대가리로 가지 이 중간이로 가지 안거든마씨. 견 대가리로 잘 띄우는 사름은 요리 영 영 영 영 허단 보믄 연이 싹 달려왕 싹 올라가마씨. 경허믄 한 오륙 메타 내에서 헤야, 그 실이 끈어져 불지.(그럼 연이 싹 대가리로 가지 이 중간으로 가지 안거든요. 그래서 대가리로 잘 띄우는 사람은 요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연이 싹 달려와서 싹 올라가요. 그러면 한 오륙 미터 내에서 해야, 그 실이 끊어져 버리지.)

111005 @ 으, 으.(으, 으.)

111005 #3 중간이로 허믄 잘 안 끈여져.(중간으로 하면 잘 안 끊어져.)

111004 @ 그 연줄, 그 실 같은 건 어떵 마련헷수과?(그 연줄, 그 실 같은 건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111004 #3 실 거튼 건 그 시절도예.(실 같은 건 그 시절도요.)

111004 @ 으.(으.)

111004 #3 부모님네 영 걸레실도 다 앗당 쓰고. 또 연줄로 나중에라야 가니까 영 나옵데다.(부모님네 이렇게 얼레실도 다 가져다가 쓰고. 또 연줄로 나중에라야 가니까 이렇게 나옵디다.)

111004 @ 으.(으.)

111004 #3 나와근에 이건 오십 메다면 이제 거트면예, 삼십 메다 이런 정도로 헤근에 나오믄 그거 헤근에 잘못 헹 놔두민 띄우당 보민 중간이로 쪼금 실겁만 부튼 건 허믄 저레 불려나 불고.(나와서 이건 오십 미터면 이제 같으면, 삼십 미터 이런 정도로 해서 나오면 그거 해서 잘못 해서 놔두면 띄우다가 보면 중간으로 조금 실만 붙은 건 하면 저리 불려 버리고.)

111004 @ 불려나 불고예. 게민 영 헤 가지고 영 영 영 영 감는 이걸 뭐렌 헙니까?(불려 버리고요. 그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감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111004 #3 걸레, 걸레.(얼레, 얼레.)

111004 @ 이걸 걸레렌 허고.(이걸 얼레라고 하고.)

111004 #3 예, 이건 걸레.(예, 이건 얼레.)

111004 @ 연 걸레엔 헐 거예?(연 얼레라고 할 거요?)

111004 #3 예.(예.)

111004 @ 기구나, 기구나. 영 영 돌리젠 허믄 그런 거 영 걸레렌 헐 거.(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 그런 거 이렇게 얼레라고 할 거.)

111004 #3 예.(예.)

제기차기

111007 @ 게민 이제 쪽기차기 물어보쿠다예?(그럼 이제 제기차기 물어보겠어요?)

111007 #3 예.(예.)

111007 @ 쪽기는 어떵 만들아낫수과?(제기는 어떻게 만들었었습니까?)

111007 #3 종이 헹게. 저 종이 헤근에 영 시까꾸[312] 헤근에 이젠 ᄀᆞ세로 ᄀᆞᆺ아근에 안네 돈 영.(종이 해서. 저 종이 해서 이렇게 사각 해서 이젠 가위로 잘라서 안에 돈 이렇게.)

111007 @ 으.(으.)

111007 #3 돈이나 그 단추. 이제 거트믄 그 저 바둑 두는 그런 거 닮은 거 시믄 어디 강 봉가당이나 허나 유리 거튼 거 그런 거. 돈 그때 일 원 짜리가 주로 그런 걸로 이용헌 거 같애마씨.(돈이나 그 단추. 이제 같으면 그 저 바둑 두는 그런 거 닮은 거 있으면 어디 가서 주워다가 하거나 유리 같은 거 그런 거. 돈 그때 일 원 짜리가 주로 그런 걸로 이용한 거 같아요.)

111008 @ 예, 예. 그럼 쪽기차기 헐 때도 영 종류가 잇어낫수과?(예, 예. 그럼 제기차기 할 때도 이렇게 종류가 있었습니까?)

111008 #3 건 여러 가집주게. 아주 선생덜은 이 발부리로만도 차고.(건 여러 가지지. 아주 선생들은 이 발부리로만도 차고.)

111008 @ 으.(으.)

111008 #3 또 어떤 사름은 이 뒤굼치로만 영 영 헹 차고. 완전 일류덜.(또 어떤 사람은 이 뒤꿈치로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차고. 완전 일류들.)

111008 @ 일류덜.(일류들.)

111008 #3 하하하.(하하하.)

111008 @ 쪽기차기 선수덜이과?(제기차기 선수들입니까?)

111008 #3 예, 하하.(예, 하하.)

111008 @ 뭐 한 발로만 차는 것도 잇고 두 발로 차는 것도 잇고?(뭐 한 발로만 차는 것도 있고 두 발로 차는 것도 있고?)

111008 #3 예, 예.(예, 예.)

111008 @ 그런 거 불르는 일름을 뭐렌 ᄀᆞᆯ앗수과?(그런 거 부르는 이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11008 #3 거 잊어불언 모르쿠다.(거 잊어버려서 모르겠습니다.)

111008 @ 한 발 차기, 양 발 차기 그런 말 안 쓰고?(한 발 차기, 양 발 차기 그런 말 안 쓰고?)

111008 #3 경 헤마씨. 양 발 차기, 한 발 차기.(그렇게 해요. 양 발 차기, 한 발 차기.)

111008 @ 양 발 차기, 한 발 차기 종류 잇어낫고예?(양 발 차기, 한 발 차기 종

312) '시까꾸'는 일본어 'しかく(四角)'로 '사각'의 의미다.

류 있었고요?)

111008 #3 예.(예.)

111009 @ 게민 쪽기차기는 어떵 허민 이기고 어떵 허민 진 것과?(그럼 제기차기는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떻게 하면 진 겁니까?)

111009 #3 하이고, 떨어져 불민게. 떨어져 불민 져 부는 겁주게.(아이고, 떨어져 버리면. 떨어져 버리면 져 버리는 거지요.)

111010 @ 쪽기차기 허멍 재미나는 일 엇어낫수과?(제기차기 하면서 재미난 일 없었습니까?)

111010 #3 별로 잘 엇어마씸.(별로 잘 없어요.)

111010 @ 어머님네는 안 헤낫지예, 여자덜?(어머님네는 안 했었지요, 여자들?)

111010 #4 여자덜은 잘 안 헤낫저. 여자덜은 고무줄.(여자들은 잘 안 했었어. 여자들은 고무줄.)

111010 @ 고무줄예. 이따가 어무니안테 물어보쿠다.(고무줄요. 이따가 어머니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11010 #4 아이고, 나 고무줄 잘 못허여.(아이고, 나 고무줄 잘 못해.)

자치기

111011 @ 하하하. 자치기는 자치기는 어떤 것과?(하하하. 자치기는 자치기는 어떤 겁니까?)

111011 #4 자치기는 나무떼기로 헹 톡 두드렁 탁 허는 거 자치기.(자치기는 나무때기로 해서 톡 두드려서 탁 하는 거 자치기.)

111011 #3 자치긴 낭 요만헌 거 만들엉.(자치긴 나무 요만한 거 만들어서.)

111011 #4 아이고, 거 너무 질어.(아이고, 거 너무 길어.)

111011 #3 아니, 아니 영 때리는 거게.(아니, 아니 이렇게 때리는 거.)

111011 #4 아, 건 자고.(아, 건 자고.)

111011 #3 자고.(자고.)

111011 @ 으.(으.)

111011 #3 또 요만이 헌 거 만들지. 끗뎅이 영 납지롱허게 헤근에.(또 요만큼한 거 만들지. 끄트머리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111011 @ 으.(으.)

111011 #3 여기 톡 두드리민 탁 허영.(여기 톡 두드리면 탁 해서.)

111011 @ 끗에 톡 때려근에 올라가민 올라간 거 탁 치는 거.(끝에 톡 때려서 올라가면 올라간 거 탁 치는 거.)

111011 #3 예, 예.(예, 예.)

111011 @ 게민 두 개가 잇어야 뒈잖아예?(그럼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111011 #3 예.(예.)

111011 @ 이거를 불르는 일름 잇어낫수과?(이거를 부르는 이름 있었습니까?)

111011 #3 몰르쿠다.(모르겠습니다.)

111011 @ 이거는?(이거는?)

111011 #3 자치기엔만 헷어마씨, 자치기.(자치기라고만 했어요, 자치기.)

111011 @ 자치기엔만 헤난 거예?(자치기라고만 했던 거요?)

111011 #3 예.(예.)

111012 @ 게민 자치기 허젠 허민 영 낭을 준비헤야 뒐 거 아니?(그럼 자치기 하려고 하면 이렇게 나무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

111012 #3 준비헤야지.(준비해야지.)

111012 @ 낭은 무슨 낭으로 헷수과?(나무는 무슨 나무로 했습니까?)

111012 #3 닥치는 겁주게, 닥치는 거.(닥치는 거지요, 닥치는 거.)

111012 @ 별다른 거 엇이 다예?(별다른 거 없이 다요?)

111012 #3 으.(으.)

111012 #4 그때는 주로 윤노리[313]로 헤실 거라.(그때는 주로 윤노리나무로 했을 거야.)

111012 #3 윤노리.(윤노리.)

111012 @ 윤노리낭이 그때 흔히 잇어낫수과, 여기 주변에?(윤노리나무가 그때 흔히 있었습니까, 여기 주변에?)

111012 #3 그 당시엔양 윤노리가 소 보레 쉐 보레 목장에덜 가믄 조금 헹 옵주게. 윤노리 같은 거 조금 접궤 같은 거 필요헌 것덜 그런 것덜 헤근에 쓰당 내부는 것도 싯고 허난 그런 것덜 봉가근에.(그 당시엔 윤노리나무가 소 보러 소 보러 목장에들 가면 조금 해서 오지요. 윤노리나무 같은 거 거 조금 목대 같은 거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해서 쓰다가 내버리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주워다가.)

111013 @ 아, 밧디 강 낭덜 헹 왕. 그민 자치기는 어떵 허민 이기는 거고 어떵 허민 지는 것과?(아, 밭에 가서 나무들 해서 와서. 그럼 자치기는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고 어떻게 하면 지는 겁니까?)

111013 #3 게난게 탁 쳥 멀리, 멀리 가는 거.(그러니까 탁 쳐서 멀리, 멀리 가는 거.)

111013 @ 멀리 가는 거.(멀리 가는 거.)

111013 #3 멀리 가는 거. 어떤 건 탁 허민 그대로 떨어져 불고. 여디 잘 치면은 멀리 갑주게.(멀리 가는 거. 어떤 건 탁 하면 그대로 떨어져 버리고. 여기 잘 치면 멀리 가지요.)

111013 @ 예.(예.)

111013 #3 건디 어디 여기 맞으게 뒈믄 안 가. 하하.(그런데 어디 여기 맞게 되면 안 가. 하하.)

말타기

313) '윤노리'는 '윤노리나무'를 말한다.

111015 @ 어쨌든 멀리 가는 사름이 이기는 거라예. 물타기, 물타기.(어쨌든 멀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요. 말타기, 말타기.)

111015 #3 물은 타 보지 안 헷수다.(말은 타 보지 안 했습니다.)

111015 @ 아니, 진짜 물타기 말고 아이덜 뛰어가멍 우에 올라타는 그런 물타기 마씨. 진짜 물타는 게 아니고.(아니, 진짜 말타기 말고 아이들 뛰어가면서 위에 올라타는 그런 말타기요. 진짜 말타는 게 아니고.)

111015 #3 예. 그런 거 구경은 헤 봣수다. 구경은 헤 봣는데 헤 보진 안 허연.(예. 그런 거 구경은 해 봤습니다. 구경은 해 봤는데 해 보진 안 했어.)

111015 @ 어머닌 어떵허과?(어머닌 어떻습니까?)

111015 #4 나도 안 헤 봔.(나도 안 해 봤어.)

구슬치기

111020 @ 물타기 안 헤 봔예. 다마치기.(말타기 안 해 봤어요. 구슬치기.)

111020 #3 다마치긴 쪼금 헤 봐서예, 다마치긴.(구슬치긴 조금 해 봤어요. 구슬치긴.)

111020 @ 으. 다마치기 허젠 허민 어떤 거 준비헤야 뒐 것과?(으. 구슬치기 하려고 하면 어떤 거 준비해야 될 겁니까?)

111020 #3 요만헌 다마게.(요만한 구슬.)

111020 @ 다마.(구슬.)

111020 #3 으, 그거 헤근에 영 맞추는 겁주게.(으, 그거 해서 이렇게 맞추는 거지.)

111020 @ 예.(예.)

111020 #3 이걸 헤근에 영 맞추면은 거 맞으면은 따오는 겁주게.(이걸 해서 이렇게 맞추면 거 맞으면 따오는 거지요.)

111020 @ 으.(으.)

111020 #3 열 개썩 허민 열 개썩 헤근에 따와 불민 나가 이기는 거.(열 개씩 하면 열 개씩 해서 따와 버리면 내가 이기는 거.)

111020 @ 게민 그 다마는 나중에는 영 구슬이 나왓주만은 그 전이는 그런 구슬도 안 나왓을 거 아니?(그럼 그 구슬은 나중에는 이렇게 구슬이 나왔지만 그 전에는 그런 구슬도 안 나왔을 거 아니?)

111020 #3 예, 예.(예, 예.)

111020 #4 영 유리로 된 다마.(이렇게 유리로 된 구슬.)

111020 @ 유리로 된 다마예?(유리로 된 구슬요?)

111020 #4 으.(으.)

111020 @ 그거 나중에 나오니까 그거 가졍 놀앗잖아예? 그 전이는 다마 돌멩이 까깡?(그거 나중에 나오니까 그거 가져서 놀았잖아요? 그 전에는 구슬 돌멩이 깎아서?)

111020 #3 그 유리로 뭰 거 전이 뭣이 나와낫수다. 그거 허단 유리로가 나중에 나왓는데.(그 유리로 된 거 전에 뭐가 나왔었습니다. 그거 하다가 유리로가 나중에 나왔는데.)

111020 @ 예.(예.)

111020 #3 그 기억은 안 남수다.(그 기억은 안 납니다.)

111021 @ 그믄 다마치기에도 영 종류가 잇어난 거 알아지쿠과?(그럼 구슬치기에도 이렇게 종류가 있었던 거 알겠습니까?)

111021 #3 아니.(아니.)

111021 @ 뭐 원치기 눈치기 벽치기 이름덜이 잇수다만은?(뭐 '원치기' '눈치기' '벽치기' 이름들이 있습니다만?)

111021 #3 건 아니.(건 아니.)

111021 @ 그런 건 아니?(그런 건 아니?)

111021 #3 예.(예.)

딱지치기

111028 @ 빳지치기 헤낫수과?(딱지치기 했었습니까?)

111028 #3 빳지치기 첨 헤서마씨.(딱지치기 첨 했어요.)

111028 @ 빳지치기예. 그믄 빳지는 어떵 준비헙니까?(딱지치기요. 그럼 딱지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111028 #3 빳지는 이제 골련곽 봉가다근에 골련곽으로 헌 건 왕 빳지고. 하하.(딱지는 이제 궐련상자 주워다가 궐련상자로 한 거 왕 딱지고. 하하.)

111028 @ 아, 골련곽으로 헌 건 왕 빳지고?(아, 궐련상자로 한 건 왕 딱지고?)

111028 #4 종이로 헌 것도 잇고.(종이로 한 것도 있고.)

111028 @ 종이.(종이.)

111028 #3 종이로 헙주기게. 종이로 헌 것이 골련곽으로 헌 거 따라오질 못 허여. 하하.(종이로 하지요. 종이로 한 것이 궐련상자로 한 거 따라오질 못 해. 하하.)

111028 @ 골련곽으로 헌 게 튼튼허구나?(궐련상자로 한 게 튼튼하구나?)

111028 #3 예. 경허고 또 영 때리믄 책장 알러레 잘 들어가고.(예. 그러고 또 이렇게 때리면 책장 아래로 잘 들어가고.)

111028 @ 예.(예.)

111028 #3 헌 종이로 헌 거. 아메도 여러 겹 접어 부니까.(헌 종이로 헌 거. 아무래도 여러 겹 접어 버리니까.)

111028 @ 예.(예.)

111028 #3 잘 들어가지가 아녀.(잘 들어가지 않아.)

111028 @ 잘 들어가지 아녀.(잘 들어가지 않아.)

111028 #4 영 헤영 딱 들어가근에 영 헤영 먹어야주게.(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

111029 @ 먹어야 허는 거라예. 게민 딱지치기도 종류가 어떤 거 잇어난지는 모르고?(먹어야 하는 거지요. 그럼 제기차기도 종류가 어떤 거 있었는지는 모르고?)

111029 #3 아니.(아니.)

111030 @ 그런 건 엇수과? 게민 딱지는 이기젠 허면 때령 밑에 잇는 걸 뒤집는 거 아니면?(그런 건 없습니까? 그럼 딱지는 이기려고 하면 때려서 밑에 있는 걸 뒤집는 거 아니면?)

111030 #4 ᄇᆞ름에, 탁 치멍 이걸 ᄇᆞ롬에 뒤집어지는 거라.(바람에, 탁 치면서 이걸 바람에 뒤집히는 거야.)

111030 @ 뒤집어지는 거라.(뒤집히는 거야.)

111030 #3 뒤집어지고 탁 치면 이것이 영 허면서 이것이 들어가.(뒤집히고 탁 치면 이것이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들어가.)

111030 @ 예.(예.)

111030 #3 게민 이것이 진 거라. 따 온 거라.(그럼 이것이 진 거야. 따 온 거야.)

111030 @ 이 밑으로 들어가 불민?(이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111030 #3 예, 예.(예, 예.)

111030 @ 영 딱 쳣는데 이 밑으로 들어가게 허민 내가 이기는 거.(이렇게 딱 쳤는데 이 밑으로 들어가게 하면 내가 이기는 거.)

111030 #3 예, 예. 이거 가져올 수 잇어.(예, 예. 이거 가져올 수 있어.)

111030 @ 가져올 수 있는 거예?(가져올 수 있는 거요?)

111030 #3 예.(예.)

111030 @ 딱지치기렌 헷수과, 빳지치기렌 헷수과?(딱지치기라고 했습니까, '빳지치기'라고 했습니까?)

111030 #3 빳지치기.('빳지치기'.)

111031 @ 빳지치기라예. 빳지치기 허멍 재밋는 일, 생각나는 일?('빳지치기'지요. 딱지치기 하면서 재밌는 일, 생각나는 일?)

111031 #3 엇어, 하하.(없어, 하하.)

숨바꼭질

111032 @ 곱을락 헷수과, 곱을락?(숨바꼭질 했습니까, 숨바꼭질?)

111032 #4 곱음제기.('곱음제기'.)

111032 @ 아, 곱음제기?(아, '곱음제기'?)

111032 #4 곱을락 허는 거 곱음제기라.(숨바꼭질 하는 거 '곱음제기'야.)

111032 @ 여기는 곱음제기렌 헷어예?(여기는 '곱음제기'라고 했어요?)

111032 #4 으.(으.)

111032 @ 곱음제기.(숨바꼭질.)

111032 #3 으.(으.)

111033 @ 게민 곱음제기는 술래가 잇을 거 아니?(그럼 숨바꼭질은 술래가 있을 거 아니?)

111033 #3 게난 곱음제기 여기서 허게 뒈믄 요 나가는 골목허고 저 골목 그 사일 말헙주게. 그 부인훼에서 저 곱음제기 허민 춪을락 헤근에양 겐 돌아뎅기고. 거 순간이로 지난 거 같애마씨.(그러니까 숨바꼭질 여기는 하게 되면 요 나가는 골목하고 저 골목 그 사일 말하지요. 그 부인회에서 저 숨바꼭질 하면 찾기 해서 그래서 돌아다니고. 건 순간 지난 거 같아요.)

111033 @ 예. 영 춪으레 뎅기는 사름이 술래인 거? 그런 사름을 뭐렌 골아?(예.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술래인 거?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

111033 #4 진 사름이 진 사름이 거 꼭꼭 숨어라 허는 거고. 저 진 사름이 허는 거라. 영 헤영 진 사름이 그거 허믄 이제 그 사름 춪아야 허여.(진 사람이, 진 사람이 거 꼭꼭 숨어라 하는 거고. 저 진 사람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진 사람이 그거 하면 이제 그 사람 찾아야 해.)

111033 @ 그 사름이 숨은 사름, 곱은 사름덜 다 춪아야 헐 거?(그 사람이 숨은 사람, 숨은 사람들 다 찾아야 할 거?)

111033 #4 으, 춪아야.(으, 찾아야.)

111034 @ 주로 곱을락 허민 어디덜 숨어낫수과?(주로 숨바꼭질 하면 어디들 숨었었습니까?)

111034 #4 하하하. 놀 때난 몰를주게. 이디서 놀당 어디 강 곱음제기 헐 땐 경 곱아나난 어떵사 헤신디.(하하하. 놀 때니까 모르지. 여기서 놀다가 어디 가서 숨바꼭질 할 땐 그렇게 숨었었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111034 #3 그때 쉐덜 길를 때난 쉐왕 거튼 디 곱아십주.(그때 소들 기를 때니까 외양간 같은 데 숨었지요.)

111034 @ 아.(아.)

111034 #3 쉐왕 거튼 디.(외양간 같은 데.)

111034 @ 쉐왕간.(외양간.)

111034 #3 쉐왕간.(외양간.)

111034 @ 쉐 질러난 디를 뭐렌 골아서?(소 길렀던 데를 뭐라고 말했어?)

111034 #3 쉐막, 쉐막살이.('쉐막', '쉐막살이'.)

111034 @ 쉐막살이?('쉐막살이'?)

111034 #4 으.(으.)

111034 @ 쉐막살이. 아까 또 쉐왕간?(외양간. 아까 또 '쉐왕간'?)

111034 #4 으, 쉐왕간도 허고. 중간에야 쉐왕간이라, 옛날은 쉐막살이.(으, '쉐왕간'도 하고. 중간에야 '쉐왕간'이야, 옛날은 '쉐막살이'.)

111034 #3 쉐막살이.('쉐막살이'.)

111034 #4 엿날은 제라헌 거는 쉐막살이.(옛날은 정확한 거는 '쉐막살이'.)

111034 @ 쉐막살이예?('쉐막살이'요?)

111034 #4 으.(으.)

111034 @ 쉐막이렌도 허곡 쉐막살이엔도 허곡?('쉐막'이라고도 하고 '쉐막살이'라고도 하고?)

111034 #3 주로 쉐막살이엔 허주, 열에 여덟은 쉐막살이.(주로 '쉐막살이'라고 하지, 열에 여덟은 '쉐막살이'.)

111034 @ 아, 여기는 다 쉐막살이?(아, 여기는 다 '쉐막살이'?)

111034 #3 예. 그 쉐막살이에 강 보라.(예. 그 '쉐막살이'에 가서 봐라.)

111034 #4 쉐왕간이렌 헌 거 나중에사.('쉐왕간'이라고 한 거 나중에야.)

111034 @ 예. 여기엔 쉐막살이엔 골아서?(예. 여기엔 '쉐막살이'라고 말했어?)

111034 #3 예.(예.)

실뜨기

111036 @ 이거 허는 건 뭐과, 여기 실 끼와근에 영 허는 거?(이거 하는 건 뭡니까, 여기 실 끼워서 이렇게 하는 거?)

111036 #3 몰르크라. 잘 몰라.(모르겠어. 잘 몰라.)

111036 @ 이건 거의 남자덜은 안 헤서예, 여자덜 헤서예?(이건 거의 남자들은 안 했지요, 여자들 했지요?)

111036 #3 주로 여자가.(주로 여자가.)

공기놀이

111041 @ 여자덜예. 공기놀이 헷수과? 이거 공기치기?(여자들요. 공기놀이 했습니까?)

111041 #4 공긴 몰른디 오시멘[314] 헤나서, 오시메.(공긴 모르는데 '오시메' 했었어, '오시메'.)

111041 @ 아, 오시메 헤나서?(아, '오시메 했었어?)

111041 #4 아, 공기?(아, 공기?)

111041 @ 예, 돌멩이로.(예, 돌멩이로.)

111041 #4 조그만 돌멩이로 영 영 허는 거?(조그만 돌멩이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111041 @ 예.(예.)

111041 #4 거도 헤나긴 헤난디 잘 못허여.(것도 했었긴 했었는데 잘 못해.)

111041 @ 하, 잘 못허여. 하하. 게도 공기 어떵 헤난지는 알아지잖아예. 공깃돌 몇 개 가졍 헤낫수과?(하, 잘 못해. 하하. 그래도 공기 어떻게 했었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공깃돌 몇 개 가지고 했었습니까?)

111041 #4 다섯 개.(다섯 개.)

---

314) '오시메'는 일본어 'おじめ'에서 온 말로, 자그마한 주머니에 모래, 좁쌀 등을 넣어 공처럼 만든 주머니를 던지며 노는 놀이를 말한다.

111041 @ 다섯 개 가졍.(다섯 개 가져서.)

111041 #4 다섯 개 가져근에 영 헤여근에 따 먹는 건가, 어떵 허는 건가 잘 모르크라, 나.(다섯 개 가져서 이렇게 해서 따 먹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잘 모르겠어, 나.)

111041 @ 따 먹는 거 맞아마씨.(따 먹는 거 맞아요.)

111041 #4 잘 몰르크라.(잘 모르겠어.)

111041 @ 헤나긴 헤신게예.(했었긴 했지요?)

111041 #4 으, 잘 모르크라.(으, 잘 모르겠어.)

고누

111046 @ 아부지 혹시 곤질이란 거 알아지쿠과, 놀이 중에?(아버지 혹시 고누란 거 알겠습니까, 놀이 중에?)

111046 #3 몰라.(몰라.)

111046 @ 곤질, 꼬녀, 꼰 이런 거 안 들어봣수과?('곤질', '꼬녀', '꼰' 이런 거 안 들어봤습니까?)

111046 #3 꼰?(꼰?)

111046 @ 표준말론 고누 놀이렌 허는디예, 제주도도 이런 거 잇어나신가 헹?(표준말론 고누 놀이라고 하는데, 제주도도 이런 거 있었는가 해서?)

111046 #3 잘.(잘.)

111046 @ 몰라예.(몰라요.)

111046 #3 모르쿠다.(모르겠습니다.)

땅뺏기

111050 @ 땅따먹기 헷수과?(땅따먹기 했습니까?)

111050 #3 것도 말은 들어낫는데 것도 모르고.(것도 말은 들었었는데 것도 모르고.)

윷놀이

111053 @ 게민 이번엔 윳놀이 물어보쿠다, 윳놀이예.(그럼 이번엔 윷놀이 물어보겠습니다, 윷놀이요.)

111053 #3 윳놀이.(윷놀이.)

111053 @ 윳놀이 헤실 거 아니?(윷놀이 했을 거 아니?)

111053 #3 윳놀이도 나 그런 건 서툴우다.(윷놀이도 나 그런 건 서툽니다.)

111053 #4 우리 아방[315] 잘 못허여.(우리 아버지 잘 못해.)

111054 @ 윳가락 어떵 만듭니까, 윳가락은?(윷가락은 어떻게 만듭니까, 윷가락은?)

315) '아방'은 표준어 '아버지'에 대응하나 여기서는 제보자가 자신의 남편을 가리키고 있다.

111054 #3 윳가락은 놈 만드는 거 보믄 윤노리로양.(윷가락은 남 만드는 거 보면 윤노리나무로.)

111054 @ 예.(예.)

111054 #3 윤노리로 헤서 만들앗는데.(윤노리나무로 해서 만들었는데.)

111054 #4 윤노리 헤다근에.(윤노리나무 해다가.)

111054 @ 으.(으.)

111054 #4 요만씩 끈어.(요만큼씩 끊어.)

111054 @ 윤노리낭 헤당.(윤노리나무 해다가.)

111054 #3 주로 그 윳가락이 가늘고 족기 때문에 그 윤노리낭이 질깁주게.(주로 그 윷가락이 가늘고 작기 때문에 그 윤노리나무는 질기지요.)

111054 @ 질기니까.(질기니까.)

111054 #3 게난 딴 낭으로 허면은 무게가 안 나가근에 멀리 안 나간덴 헤근에 윤노리로. 열에 아홉은 윤노리로.(그러니까 딴 나무로 하면 무게가 안 나가서 멀리 안 나간다고 해서 윤노리나무로. 열에 아홉은 윤노리나무로.)

111054 @ 으. 윤노리낭으로 헷던 거라예.(으. 윤노리나무로 했던 거지요.)

111054 #3 예.(예.)

111054 @ 게믄 윳가락은 그거 잘라당, 윤노리낭 잘라당 그거 헐 거고예?(그럼 윷가락은 그거 잘라다가, 윤노리나무 잘라다가 그거 할 거고요?)

111054 #3 예.(예.)

111057 #4 윳은, 윳도 그걸로 헹 던지는 거. 종제기 담앙.(윷은, 윷도 그걸로 해서 던지는 거. 종지에 담아서.)

111057 @ 종제기에 담앙예?(종지에 담아서요?)

111057 #4 으. 경헤여근에 멧 개, 으섯 갠가 멧 개라이.(으. 그래서 몇 개, 여섯 갠가 몇 개야.)

111057 @ 네 개.(네 개.)

111057 #4 네 개?(네 개?)

111057 @ 네 개.(네 개.)

111057 #3 네 개, 네 개.(네 개, 네 개.)

111057 #4 으.(으.)

111057 #3 거 엎어지는 것에서.(거 엎어지는 것에서.)

111057 #4 종제기에 담앙 허는 건 뭐라?(종지에 담아서 하는 건 뭐야?)

111057 @ 윳. 그거 윳.(윷. 그거 윷.)

111057 #4 그것이지?(그것이지?)

111057 @ 으.(으.)

111057 #4 건디 요만씩 길게 헌 거 무시거라?(건데 요만큼씩 길게 한 거 무엇이야?)

111057 @ 것도 윳.(것도 윷.)

111057 #4 것도 윳.(것도 윷.)

111057 @ 우리 옛날에 헷었던 건 종지기에 담앙 허고.(우리 옛날에 했던 건 종지에 담아서 하고.)

111057 #3 크고 작게 허는 건 지방마다 틀리고. 다 윳인데 네 개 가졍 허는 거 주게. 네 개 가졍 허는 것인데 도 개 숫 또 모 윳.(크고 작게 하는 건 지방마다 다르고. 다 윷인데 네 개 가져서 하는 거지. 네 개 가져서 하는 것인데 도 개 윷 또 모 윷.)

111057 @ 으.(으.)

111057 #3 윳은 다 가르차진 거.(윷은 다 뒤집힌 거.)

111057 @ 으.(으.)

111057 #3 모는 다 엎어진 거. 토는 하나 가르차지고 둘 가르차진 건 개. 셋 가르차진 건 걸. 넷 가르차지믄 윳, 엎어지믄 모.(모는 다 엎어진 거. 도는 하나 뒤집히고 둘 뒤집힌 건 개. 셋 뒤집힌 건 걸. 넷 뒤집히면 윷, 엎어지면 모.)

111057 @ 다시 한 번 골아 줍서. 아까 하나만 젖혀졋을 때는?(다시 한 번 말해 주세요. 아까 하나만 젖혀졌을 때는?)

111057 #3 토, 토.(도, 도.)

111057 @ 하나만 젖혀졋을 때는 토. 두 개 젖혀졌을 때?(하나만 젖혀졌을 때는 도. 두 개 젖혀졌을 때?)

111057 #3 개.(개.)

111057 @ 개 그 다음?(개 그 다음?)

111057 #3 세 갠 걸.(세 갠 걸.)

111057 @ 걸. 네 개?(걸. 네 개?)

111057 #3 윳.(윷.)

111057 @ 그 다음 다 엎어졌을 땐?(그 다음 다 엎어졌을 땐?)

111057 #3 모.(모.)

111057 @ 모라예.(모지요.)

111057 #3 으.(으.)

111057 @ 근데 우리 웨 윳놀이 허게 뒈면 여기 그 뭐렌 헙니까, 이거는 던지는 거고 가는 물이 잇잖아예?(그런데 우리 왜 윷놀이 하게 되면 여기 그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던지는 거고 가는 말이 있잖아요?)

111057 #3 예, 물.(예, 말.)

111057 @ 물.(말.)

111057 #3 물 쓰는 거.(말 쓰는 거.)

111057 @ 물 쓰는 거. 물도 네 개가 있잖아예?(말 쓰는 거. 말도 네 개가 있잖아요?)

111057 #3 예.(예.)

111057 @ 그 물 네 개가 빨리 나와야 이기는 거 아니?(그 말 네 개가 빨리 나

와야 이기는 거 아니?)

111057 #3 예, 예.(예, 예.)

111057 @ 근데 우리 물 갈 때 하나만 가는 것보다 이디 업엉 가는 게 더 빨리 날 수 있잔아예?(그런데 우리 말 갈 때 하나만 가는 것보다 여기 업어서 가는 게 더 빨리 날 수 있잖아요?)

111057 #3 예, 예.(예, 예.)

111057 @ 게민 두 개 가젠 허민 말 두 개가 ᄀᆞ치 움직여. 게민 이걸 뭐렌 ᄀᆞᆯ읍니까?(그럼 두 개 가려고 하면 말 두 개가 같이 움직여. 그럼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111057 #3 저.(저.)

111057 @ 으.(으.)

111057 #3 업엉 가는 거. 하하.(업어서 가는 거. 하하.)

111057 @ 게민 두 개 업으민?(그럼 두 개 업으면?)

111057 #3 두 개 업엉 가.(두 개 업어서 가.)

111057 @ 아, 두 개 업엉 가, 경 얘기허는 거?(아, 두 개 업어서 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111057 #3 예, 예.(예, 예.)

111057 @ 세 개 업으민?(세 개 업으면?)

111057 #3 것까진 잘 모르쿠다만은. 업엉 가, 업엉 가.(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어서 가, 업어서 가.)

111057 #4 우리 아방[316] 잘 안 놀아나난 몰라.(우리 아버지 잘 안 놀았었으니까 몰라.)

111057 @ 하하. 일만 하셧구나. 읏도 안 혜 보고.(하하. 일만 하셨구나. 읊도 안 해 보고.)

111057 #4 읏 안 혜 보고 살기가 뭐 혜 노난 그런 거 안 혜 봔.(읊 안 해 보고 살기가 뭐 해 놓으니까 그런 거 안 해 봤어.)

111057 @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316) '아방'은 표준어 '아버지'에 대응하나 여기서는 제보자가 자신의 남편을 가리키고 있다.

연구 참여자

이름	소속	분야	구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연구 책임 · 총괄 표선면 성읍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함덕리 성산읍 삼달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구좌읍 한동리 애월읍 고내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성읍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남원읍 수망리
김승연	(사)제주학연구소	한국학(제주무속)	서귀포시 하원리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대평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대정읍 신도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한경면 청수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국어국문학	연구 보조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0

발행인 김동전
발행일 2018년 12월 28일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